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 호

평 양 근로자사 198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 호(501)

차 례

김일성

신년사

(1984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번영하는 조국의 력사우에 또다시 창조와 건설의 한해를 빛나게 장식하고 희망찬 새해 1984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안고 신심도 드높이 새해의 첫 진군길에 들어선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영용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미제와 군사파쑈분자들의 가혹한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족적자주권과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청년학생들, 애국적민주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영예를 떨치며 우리 민족의 륭성번영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70만 재일동포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1983년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전체 인민들의 앙양된 정치적열의와 세계인민들의 열렬한 축원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5돐을 성대히 경축하였습니다. 우리는 공화국창건 35돐경축행사를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시위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정치사상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온 사회에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되였습니다.

지난해에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

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앙양을 일으켰습니다.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건설장과 남포갑문 건설장, 간석지건설장을 비롯하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자연을 정복하고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건설사업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능력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생산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려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다그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벗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1984년은 제2차7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해이며 올해에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제2차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5개지구전선의 기본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리며 인민들의 생활을 훨씬 높이는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순천지구전선, 안주지구전선, 청진지구전선, 남포지구전선, 함흥지구전선의 5개전선건설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려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화력을 집중하여야 할 부문은 석탄공업입니다.

석탄은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식량이며 석탄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모든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돌파구입니다. 석탄을 넉넉히 생산보장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올해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증산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석탄

광업에 힘을 집중하여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매장량이 많은 안주지구탄광들과 순천지구, 강동지구, 북부지구 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며 모든 탄광들에서 박토와 굴진을 앞세우고 경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실현하여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경제기관들은 석탄생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조직하며 전국이 달라붙어 탄광들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탄광들에 우선적으로 보내주며 각급 당조직들과 인민정권기관들은 탄부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전력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올해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발전소들의 설비를 제때에 점검보수하여 만부하로 돌리고 그 효률을 높여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는 한편 새로운 발전능력을 더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북창화력발전소와 평양화력발전소 확장공사를 다그쳐 빨리 끝내며 위원발전소와 태천발전소, 청진화력발전소, 안주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새 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우리 나라 연료에 의한 철생산방법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책제철소와 강선제강련합기업소 확장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가며 현대적인 금속가공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여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여러가지 품종과 규격의 철강재와 2차금속가공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유색금속생산을 빨리 늘이며 유색금속가공사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제련소들을 잘 정비보강하고 제련실수률을 높여 지금 있는 제련소들에서 유색금속생산을 적극 늘이며 단천제련소 건설을 다그쳐 빨리 끝내야 하겠습니다. 유색금속가공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유색금속가공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 질좋은 유색금속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철강재와 유색금속 생산을 빨리 늘이려면 광업부문에서 일을 잘하여야 합니다. 광업부문에서는 광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제철소와 제강소, 제련소들에 쇠돌과 여러가지 유색금속광물을 원만히 대주어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건설부문로동계급앞에는 5개지구전선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남포갑문 건설과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건설부문에서는 력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선후차를 가려 건설을 집중적으로 하며 건설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고 앞선 시공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건설의 질을 높이고 건설대상들의 조업기일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과 건재공업부문에서는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

에 필요한 건설기계와 대상설비,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긴장한 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수송이 확고히 앞서나가야 합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기관차와 화차 생산을 늘이고 철길을 보강하며 철도전기화와 새 철길 건설공사를 적극 다그쳐 수송능력을 빨리 높여야 하며 수송 조직과 지휘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철도수송과 함께 자동차수송과 배수송을 더욱 발전시키며 당의 3화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한두해안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인민소비품생산에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려면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방직공장과 곡산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여러가지 일용품과 식료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경공업제품의 질을 훨씬 높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화학섬유와 합성수지를 비롯한 경공업원료를 많이 생산하여 경공업공장들에 제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도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 공급하는 것입니다. 수산부문에서는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세우고 물고기잡이전투를 적극적으로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잡은 물고기를 허실하지 말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잘 가공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20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농업생산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전변을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산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고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의 시비량을 더 늘이며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며 고기와 알, 과일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넉넉히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도시와 농촌에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근로자들의 살림집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어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를 옳게 배합하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철저히 실현하고 독립채산제를 옳바로 실시하여 경제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조직사

일을 더욱 짜고들며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8차전원회의는 올해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나는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위원회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세계정세가 매우 복잡한 환경에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로골화되는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긴장상태는 극도로 격화되고있으며 새 세계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적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군사적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반공, 반평화국 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앞에는 적들의 횡포한 도전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견결히 지키며 우리 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할 엄숙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오늘의 복잡하고 긴장한 정세속에서 우리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어야 하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향도적기치이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된 우리 인민의 힘은 필승불패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혁명하는 사람은 정세가 복잡하고 반혁명의 발악책동이 강화될수록 높은 혁명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더욱 분발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완강한 투지를 가지고 온갖 장애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하며 혁명의 시대에 사는 사람답게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여야 합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날로 로골화되는 적들의 무모한 침략과 악랄한 도발 책동을 날카롭게 주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만

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합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경계근무를 강화하여 적들의 침략책동을 제때에 적발분쇄하며 조국의 초소를 철벽으로 지키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의 당조직들과 지휘관, 정치일군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정치사업을 잘하고 새 교육년도 훈련과제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부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은 본신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군사훈련에 적극 참가하여 군사기술적준비를 더 잘 갖추며 자기의 일터와 마을을 튼튼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사회안전원들은 적들의 간첩, 파괴암해 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후방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악랄한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적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의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대외정책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무력증강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오늘 세계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긴장하지만 대세는 더욱더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정당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적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투쟁과업은 올해에 5개전선을 돌파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구체적실태와 그 전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올해에 힘을 넣어야 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밝혀주시고 전당적, 전인민적인 투쟁으로 이 전선을 돌파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순천지구전선, 안주지구전선, 청진지구전선, 남포지구전선, 함흥지구전선의 5개전선건설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려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합니다.》(《신년사》, 1984년 1월 1일, 단행본, 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돌파할데 대한 투쟁과업은 새해에 사회주의건설에서 또다시 앙양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투적강령이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10대전망목표실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이다.

생산과 건설의 끊임없는 앙양으로 5개전선을 돌파하는것은 제2차7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해인 올해 인민경제계획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의 성과적실현을 위한 중대한 투쟁과업이다.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돌파하는것은 무엇보다 1980년대 경제건설의 중요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새로운 생산능력을 마련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경제건설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당과 인민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과 우리 당 경제정책의 정당성, 경제건설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다시한번 확증해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발전속도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비록 크지만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 중요 공업제품과 농업생산을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야 한다.

이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설비들을 보강하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더 건설하여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여야 1,500만톤의 강철고지, 1억 2,000만톤의 석탄고지, 15억메터의 천고지를 비롯한 중요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가공공업부문에서 생산을 빠른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은 현시기 우리 당이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기 위하여 힘을 넣고있는 중심고리로서 그것은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건설의 방향을 밝혀준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에 화력을 집중하여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나가는것은 금속, 화학 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생산능력을 성과적으로 조성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에 힘을 집중하여 중요대상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가야 중공업기지들을 확대하고 정비보강하여 중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할수 있다. 이것은 결국 기간적인 중공업부문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것은 또한 소비재생산에 적극 복무하는 중공업부문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경공업제품생산을 늘이고 농촌경리를 현대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다.

중공업과 경공업 제품, 농업 생산을 빨리 늘이는 문제는 결국 중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는데 중요하게 달려있으며 현시기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사업은 5개전선의 중요대상건설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이처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거대한 생산능력을 마련할수 있게 하는 바로 여기에 5개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이 가지는 중요성이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돌파하는것은 또한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며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계속 완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많이 창설하고 공업부문의 생산공정을 정비보강하여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여야 부문사이, 부문내부사이의 균형을 더 잘 보장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자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중요대상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은 바로 금속공업, 석탄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정비보강하고 새로운 생산기지들로 더욱 강화함으로써 공업을 다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원료, 연료 기지들을 결정적으로 확대강화할수 있게 한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일부 생산공정을 보충완비하여 제철, 제강, 압연 공정들사이의 균형을 더 잘 보장하며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게 된다. 섬멸전의 방법으로 기본건설을 다그칠 때 우리 나라 연료에 의거하는 새로운 야금법을 적극 받아들여 철강재생산을 빨리 늘이고 금속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할수 있다.

순천지구전선과 함흥지구전선에 힘을 넣어 새로운 화학공업기지를 꾸리고 이미 있던 화학공장들을 정비보강하게 되면 우리의 화학공업은 자체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을 생산보장하는 주체화되고 현대화된 화학공업으로 더욱 급속히 발전하게 된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이야말로 경제발

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도록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며 그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돌파하는것은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데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과학화와 함께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로선이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자면 모든 부문에서 뒤떨어진 기술을 발전된 기술로 개조하고 생산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나라의 튼튼한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충분히 보장할 때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은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된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워 공업의 기술장비수준을 더욱 높이게 할뿐아니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충분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경제토대를 마련할수 있게 한다. 특히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생산보장할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의 화학화를 다그쳐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5개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굽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으며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할수 있는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을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돌파하자면 방대한 기본건설을 진행하고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제작하며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것을 비롯하여 실로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과업이 아무리 어렵고 방대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능히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에 5개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하며 새해부터 총돌격전을 벌리도록 구체적인 투쟁 목표와 방향, 그 실현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매전선의 중요대상건설사업을 곧바른 승리에로 힘있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당조직들로 하여금 5개전선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게 하고 기동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정치사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과 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투쟁기세는 매우 높으며 우리 나라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우리의 경제건설투쟁을 물질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우리에게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중요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하여 비상히 높은 건설속도를 창조한 고귀한 투쟁경험이 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김일성경기장을 비롯하여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함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한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다. 또한 보통이면 10년이 걸려야 할 방대한 규모의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건설을

불과 1년동안에 끝내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은 투쟁과 생활체험을 통하여 굳어진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 당 제6차대회에서 내놓은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차넘치고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돌파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9권, 236페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5개전선을 돌파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는 이 전선의 중요대상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향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이 아무리 아름차다 해도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당적책임성과 굴할줄 모르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절대화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방침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에서 맡겨진 건설대상을 제기일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돌파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지도일군들이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잘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성과적으로 돌파하자면 짧은 기간에 방대한 건설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과업이 어렵고 방대하여도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갈 때 우리앞에는 극복하지 못할 난관,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건설전투장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를 옳게 배합하며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고 독립채산제를 옳바로 실시하여 경제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며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 모든 설비들을 만부하로 돌리며 건설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건설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특히 건설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공사순위를 옳게 정하며 로력과 설비, 자재 보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패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5개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에는 많은 로력과 설비, 자재가 일시에 동원되고 리용되는것만큼 건설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다. 따라서 아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지 않고서는 전투를 제대로

지휘할수 없으며 걸린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없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늘 들끓는 건설현장에 깊이 들어가 아래일군들과 건설자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며 현실을 깊이 파악한데 기초하여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고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조직사업을 제때에 짜고들어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방대한 건설을 더 빨리 질적으로 내밀자면 기술혁신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적은 로력과 설비, 자재로 더 빨리, 더 좋게, 더 많이 건설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며 건설자들의 창조적 지혜를 옳게 발동함으로써 제기되는 기술공학적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며 건설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고 능률적인 작업방법과 앞선시공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힘있게 지원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성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5개전선의 중요대상건설과 련관된 부문들과 단위들에서는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건설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자재들을 원만히 대줄수 있도록 계획을 빈틈없이 맞물리며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여 설비, 자재를 계획대로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과 중요대상건설이 진행되는 지구의 일군들은 주인다운 립장에서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건설을 로력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5개전선에서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이 부문의 당조직들과 해당 지방의 당조직들이 당적지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조직들이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야 중요대상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건설자들, 광범한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대건설전투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며 모두가 다 보람찬 투쟁속에서 로력혁신자, 빛나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선전선동수단들을 집중하여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패기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건설장마다에서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거세찬 진군속에서 새기록, 새기준이 창조되고 대중적혁신의 봉화가 세차게 타번져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과 혁명적기개를 다시한번 힘차게 떨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중요대상건설에 적극 떨쳐나서 5개전선을 성과적으로 돌파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할것이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은 우리 당 활동의 기초

장 경 복

로동계급의 당활동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의 전투력과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지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활동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관철해나가야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울수 있으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의 통일단결된 힘에 의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과학적방도를 밝혀준것으로서 로동계급의 당활동에서 언제나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극소수의 계급적, 반동적 적대분자들을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344페지)

우리 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있는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이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은 우리 당 활동의 기초이다.

계급로선이란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그의 계급적립장을 지키기 위한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 계급적립장을 당활동의 기본척도로 삼으며 그와 어긋나는 모든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요구대로 개조변혁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것을 말한다.

로동계급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해방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자주적인 계급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본다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나아가는 과정 즉 로동계급화하여나아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지향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되며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당이 로동계급의 근본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여 투쟁할 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계급로선은 로동계급과 그 위업의 계급적본질에 대한 이러한 혁명적관점에 기초한 로동계급의 당의 활동원칙이다.

군중로선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적극 옹호하며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믿고 그것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

는 로동계급의 당활동원칙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이 주인이 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수백만 근로대중이 적극 참가하여야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혁명적군중로선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주체적관점에 기초하고있는 로동계급의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계급로선은 군중로선의 기초를 이루며 군중로선은 계급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계급로선을 철저히 견지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데 대한 군중로선의 요구를 옳게 구현할수 있다. 다른 한편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광범한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과 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우리 당은 계급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이기에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하여나가는것을 자기의 모든 활동의 기초로, 근본원칙으로 삼고 투쟁하는 당이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이 우리 당 활동의 기초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우리 당의 계급적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라는데 있다.

당의 활동이란 다름아닌 자기의 계급적성격을 고수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활동의 성격과 내용, 그 방향은 결국 당이 어느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가 지닌 사명이 어떠한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당의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력사적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당활동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혀주는 옳바른 로선만이 당활동의 기초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의 대표자이며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반항을 철저히 짓부시고 자연과 사회, 사람을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간고하고 복잡한 사업으로서 그것은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근로인민대중이 한결같이 떨쳐나서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만약 당이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자기의 계급적성격을 고수할수 없으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데 대한 숭고한 사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언제나 자기 활동의 기초로 삼고 투쟁하는것이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이 우리 당 활동의 기초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온갖 비로동계급적요소들을 극복청산하며 광범한 군중을 쟁취하고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통일단결시키는것이다.

혁명의 승패는 결국 누가 대중을 더 많이 전취하여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은 당의 계급적진지와 대중적지반을 강화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당이 대중을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

어세우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하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은 결코 그 어떤 행정적조치나 일반적호소에 의하여 당을 따르며 그 두리에 뭉치게 되는것이 아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당이 자기들의 계급적 리익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는것을 심장으로 느낄 때에라야 비로소 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게 되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되는것이다.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게 하는것을 기본요구로 내세우고있다. 당이 자기 활동에서 언제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 속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을수 있으며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다.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꾸리는데서 극소수의 적대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기본군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기본군중은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계급적지반이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은 우리 혁명의 대중적지반이다.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고립, 진압하며 혁명의 편에 전취할수 있는 모든 계급과 계층들을 다 포섭하고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게 함으로써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의 혁명적작용을 강화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언제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기초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오래동안의 일제식민지통치와 미제에 의한 나라의 분렬,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은 적들의 책동으로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이 매우 복잡해진 조건에서도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하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불패의것으로 반석같이 다질수 있었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이 우리 당 활동의 기초로 되는것은 또한 당이 광범한 대중을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세우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며 대중령도의 기본요구이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근본요구와 매 시기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결합시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있게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는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고 그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창조적능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당이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매 시기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옳게 구현하여야 로선과 정책 작성에서 혁명성과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다.

당이 로선과 정책을 옳바로 세우자면 발전하는 객관적현실과 군중의 요구를 잘 알아야 하며 그것을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에서 분석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객관적현실,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잘 아는것은 다름아닌 혁명과 건설을 직접 담당수행하고있는 인민대중자신이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주관주의, 관료주의, 추미주의를 극복하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그것을 종합하고 일반화하게 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에게 당의 의도를 알려주고 그들의 창발적의견들을 귀담아듣고 그것을 종합한데 기초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것을 당활동에서 언제나 일관하게 견지하여왔다.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으며 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성과있게 관철되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로선과 정책을 옳바로 세울뿐아니라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아무리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현실의 성숙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세운 로선과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지상공문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떠밀어나가는 추진력이며 가장 믿음지산 혁명력량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바로 관철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동시에 광범한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적극 발동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 속에서 계급적 책임감과 혁명앞에 지닌 그들의 숭고한 임무에 대한 자각을 높이게 하며 당정책의 본질과 정당성, 그 수행방도를 정확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전각용을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적극 불러일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은 우리 당의 계급적성격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당활동의 근본요구이며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고 당이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하는 근본원칙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이 우리 당 활동의 기초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것이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하여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은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시한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이 그처럼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으면서 드팀없이 관철되여온 것도 우리 사회가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여있는것도 우리 당이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당활동의 기초로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여온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생활을 통하여 우리 당만이 자기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는 어머니당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한결같이 따르며 당과 인민이 굳게 단합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하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 여기에 우리 사회의 자랑찬 면모가 있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위력이 있는것이다.

우리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당과 혁명대오를 불패의 전투부대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

리　영　복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우리 인민이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렇듯 위대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옳바른 민족간부육성방침을 내놓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여 자체의 믿음직한 인테리대부대를 마련하여놓은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들인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와 《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민족간부양성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금 심오히 해명하시고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빛나는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경험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새 사회 건설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새 사회건설을 위한 선차적과업으로 내세우고 민족간부를 키우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습니다.》(《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단행본, 6페지)

새 사회 건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민족간부양성문제를 어느 위치에 놓고 어떻게 밀고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경제건설에 힘을 넣어 일정한 밑천을 마련한 다음에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제까지 많은 나라들에서 하여온 기성관례였으며 사람들의 머리속에 하나의 상식처럼 굳어진 기존공식이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렇게 할수 없었으며 또 그렇게 하여서는 안되였다.

우리 인민이 일제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첫시기 부닥치게 된 가장 큰 난관의 하나가 바로 자기의 민족간부를 가지고있지 못한것이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우민화정책으로 말미암아 해방직후 우리 나라 주민의 절대다수는 문맹자였으며 우리에게는 민족간부가 매우 적었다. 공화국북반부에는 단 하나의 대학도 없었으며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는 겨우 몇십명밖에 되지 않았다. 일제놈들이 되는대로 파먹다버린 탄광, 광산들도 복구하고 발전소도 돌리여야 했으나 기술자들이 모자랐으며 나라의 공업을 관리운영할만한 인재도 없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나라에 당장 대학을 세울만한 밑천이 있은것도 아니였고 민족간부를 대대적으로 키워낼수 있는 경제력이 마련되여있은것도 아니였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경제적토대를 닦아놓은 다음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민족간부를 키워가지고서는 새 사회 건설이 그만큼 늦어질수 있었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도 사람이다. 결국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사람을 어떻게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건설도 잘하고 빠른 시일안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교육사업을 뒤로 미룰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앞세워 빠른 기간에 민족간부를 많이 키워내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를 드팀없이 관철하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서 민족간부부터 키워내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해방직후 우리 당이 처음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을 세울 때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우리에게는 대학을 세울만한 재정물질적원천도 교원도 없었으며 모든것이 다 부족하였다. 그때 대학을 창립하는데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동요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였다. 물론 당시의 형편에서 대학을 창립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비록 애로와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자체의 민족간부를 키워내야 빠른 시일안에 식민지적락후성을 털어버리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만난을 무릅쓰고 대학을 창설하는 사업을 추진시켜나갔다.

우리 당은 나라의 곳곳에 흩어져있는 인테리들과 남조선의 애국적인테리들을 데려다가 걸리고있던 교원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땅을 분여받은 농민들이 첫해 농사를 지어 나라에 바친 애국미를 건설자금으로 하여 대학의 교사를 일떠세웠다.

참으로 우리 인민의 첫 종합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은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선차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우리 당은 제때에 김일성종합대학을 창설하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수많은 대학들을 련이어 내옴으로써 자체의 튼튼한 민족간부양성기지를 꾸릴수 있었다.

우리 당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전쟁시기에도 벌써 전후에 있게 될 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기술인재들을 예견성있게 양성하기 위하여 교원들과 대학생들을 전선에서 소환하여 교육사업을 중단없이 밀고나갔다. 그리고 모든것이 파괴되여 재더미로 된 전후의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도 페허우에 대학부터 일떠세우고 민족간부를 대대적으로 키워내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당은 민족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인민적시책을 실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고등교육사업을 발전시켜 민족간부를 수많이 키워낼수 있은것은 결코 모든것이 넉넉하고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것은 아니였다. 우리는 락후한 처지에서 새 사회 건설을 시작하다보니 나라의 경제토대를 닦는데 남보다 더 많은 로력과 자금을 들여야 했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맞서있는 조건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도 큰 힘을 넣어야 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오늘은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조국의 미래와 혁명의 전도를 내다보면서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았으며 국가예산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통적으로 늘여왔다.

우리 당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새로운 기계설비나 제품이 생산되였을 때에도 그것이 민족간부양성사업에 필요한것이라면 대학들에 우선적으로 보내주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이처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왔기때문에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정치적자주성을 튼튼히 고수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었으며 민족문화도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고 나라의 방위력도 철벽으로 다져놓을수 있었다.

경험은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나라들이 먼저 돈을 벌어가지고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려 할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앞세워나가는 여기에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이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이룩한 또하나의 귀중한 경험은 자기 당과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능력있는 일군을 키워내기 위하여서는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주체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주체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민족간부를 양성하는데서 주체화를 실현한다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과 자기 나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쓸모있는 민족간부를 양성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행본, 17페지)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주체화를 실현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다. 나라마다 처하여있는 조건이 다르고 혁명임무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민족간부를 양성하는데서 주체화를 실현하여 자기 당과 인민에게 충실하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밝은 일군을 키워내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경제건설을 비롯하여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식대로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주체화를 실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세운것은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 만들어놓은 식민지노예교육제도는 우리 인민들을 우매하고 몽매하게 만드는 반동적인 교육제도로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인민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줄수 없었으며 자체의 민족간부도 키워낼수 없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서 일제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적교육제도를 세웠으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그것을 사회주의교육제도로 발전시켰다.

우리 나라에 확립된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등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의 매 교육단계가 합리적으로 맞물려진 유일한 교육체계를 통하여 누구나 다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고있다. 이와 함께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과 전반적무료교육에 의하여 모든 새세대들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완성된 중등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대학교육을 받

울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쌓을수 있게 되였으며 대학생들과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마음껏 공부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이렇듯 인민들에게 교육의 자유와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여줄뿐아니라 자체의 민족간부를 훌륭히 키워낼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있다.

자기 나라의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르치며 사람들이 자기의것에 정통하도록 교육하는것은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된다.

우리 당이 키워내려고 하는 민족간부는 다른 나라에서가 아니라 바로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일군들인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른 나라의 것을 교조주의적으로 받아들여 교육할것이 아니라 우리의것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해야만 그들이 조선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교육강령도 우리 나라의것을 기본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교수교양의 모든 과정도 다 학생들이 철저히 우리 나라의것에 정통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게 하였다.

우리 당은 다른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교육하는것을 철저히 반대하였으며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과 실정에 맞게 교육하도록 하였다. 경험은 아무리 선진적인 과학기술이라고 하여도 다른 나라의것을 기계적으로 가르친다면 혁명과 건설에 도움을 줄수 없을뿐아니라 도리여 나쁜 후과를 끼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한때 우리의 농업대학들에서는 다른 나라의 농업대학 교과서를 번역하여가지고 가르침으로써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농사를 때로 자을수 없게 만드는 편향을 나타내였다. 우리 당은 이러한 편향을 제때에 포착하고 농업대학들에서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의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이 키워낸 농업전문가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우리 나라의 기후와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고있으며 한랭전선의 영향이 계속되는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대풍을 이룩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이 이와 같이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주체화를 철저히 실현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과 농업도, 건설과 문화예술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고있으며 모든 일이 다 잘되여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경험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민족간부를 양성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모든 사업을 우리 식대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경험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면서도 민족간부를 키워내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함께 생산에서 떨어지지 않고 배울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를 병행하여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233페지)

혁명과 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민족간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진다. 따라서 사회주의건설의 빠른 속도에 맞게 민족간부양성의 규모를 끊임없이 늘이는것은 사회주의교육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그러나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을 늘이는 방법만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사회주의건설의

로 혁전선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며 나아가서 혁명과 건설 전반에 심각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면서도 민족간부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창설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함께 우리 나라의 실정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일하면서 배우는 독창적인 교육체계를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로동계급속에서 유능한 기술인재를 키우는 새로운 교육형태인 공장대학을 창설하고 운영하여온 귀중한 경험에 토대하여 전후에는 공장, 기업소들과 탄광, 광산들에 수많은 공장대학을 내오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 창설된 공장대학은 생산기업소들에 병설되여있으므로 현장의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로 교원을 충당하며 교육시설과 실험실습조건도 국가의 추가적인 투자없이 쉽게 해결할수 있게 한다. 공장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은 학생이자 곧 생산자이기때문에 그들은 혁명실천의 절실한 요구에 따라 리론을 배우고 배운 리론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활동에 직접 적용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리론과 실천을 다 갖춘 쓸모있는 혁명인재로 준비되게 된다.

우리 당은 실생활을 통하여 공장대학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됨에 따라 그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여 농촌에는 농장대학을, 어촌에는 어장대학을 새로 창설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가 급속히 발전하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가면서도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리론실천적으로 준비된 능력있는 민족간부를 대량적으로 키워낼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의 경험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하는것이 자체의 민족간부를 짧은 기간에 보다 효과적으로 키워낼수 있는 우월한 방도로 될뿐아니라 장차 전반적고등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빠른 길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 민족간부양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여기에 큰 힘을 넣은 결과 새 사회 건설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민족간부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 자체의 민족간부가 없어서 그처럼 난관을 겪던 우리 나라가 지금은 120만명의 믿음직한 인테리대군을 마련하여놓음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어느 분야에서나 인재의 부족을 모르게 되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은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가 하고싶은것은 자체의 민족간부에 의하여 무엇이나 다 해낼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이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쌓아올린 이 모든 성과와 경험은 주체적인 교육방침을 관철하는 보람찬 투쟁과정에서 이룩된것으로서 여기에는 민족간부양성사업에 대한 혁명적 관점과 립장으로부터 이 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우리는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귀중한 경험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문화건설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는 중요한 혁명과업

강 민 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에서 사람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과 새 사회 건설에서 민족문화가 노는 거대한 역할에 대하여 새롭게 밝히시였다.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것은 새 사회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발전에서 문화가 노는 역할을 새롭게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문화건설은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건설은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며 민족을 문명화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행본, 2페지)

문화는 경제와 함께 사회생활의 중요한 분야를 이루며 사회발전에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경제가 물질적재부를 생산, 분배, 교환, 소비하는 물질생활분야이라면 문화는 사람들이 자기의 요구에 맞게 정신적재부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정신생활분야이다.

경제는 사회생활과 사회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가 발전하여야 사람이 살며 발전하는데 필요한 생활수단을 마련할수 있으며 생활조건을 개선해나갈수 있다. 그러나 생산수단이나 생활조건도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한것이며 그것을 창조하는것도 사람이다. 기술을 발전시켜 자연을 개조하는것도 사람이며 낡은 사회를 변혁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담당자도 사람이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이 없이는 경제의 발전은 물론 사회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람들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며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것만큼 사람들은 정신적재부를 가져야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다.

사람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되게 하는 자주성과 창조성은 물질적재부를 많이 가진다고 하여 형성되거나 높아지는것이 아니다. 착취사회에서 한줌도 못되는 반동적인 착취계급은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권세와 향락을 누리지만 그들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없는 가련하고 무기력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근로인민대중은 착취사회에서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하고있지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지고 있는것만큼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 력사의 주체로 된다.

이처럼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정신적재부를 소유하고 체현할 때에만 형성되고 발전한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사업이 바로 문화건설이다.

문화건설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문화건설이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

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혁명과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진보적문화가 사람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키워주는데 이바지한다는데 있다.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이것은 결코 사람이 날때부터 자주성을 타고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되자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람의 자주성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전제로 하며 그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 사람은 미리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실현해나간다.

사람은 의식의 도움으로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객관세계에 대한 리해관계를 자각하게 되며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게 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람을 자주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담는것으로 하여 자주적인 요구를 의식적으로 행동의 목표로 내세우게 하며 그것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람이 행동하도록 이끌어준다.

사람은 행동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세우는것만으로는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할수 없다. 그것은 행동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세워졌다고 하여 저절로 사람의 행동이 진행되는것이 아니며 또 예견했던 목표에 스스로 도달되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사람이 자기가 세운 목적에 따라 자신의 창조적능력을 발휘해나가는 과정에는 일정한 난관과 애로에 부닥칠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목적을 달성하려면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그 힘이 작용하도록 하는 정신적작용으로서의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기술기능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상적으로 뒤떨어지고 강의한 의지를 가지지 못한다면 난관앞에 주저앉고 자기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인것만큼 그것을 가진 사람은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뚫고나가며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줄기찬 투쟁을 벌릴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서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을 할수 있으며 자주성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진보적인 문화 특히 교육과 문화예술에 의하여 체득하게 된다.

교육은 사람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교육은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는 사상과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새 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에서의 교육사업은 이미 확립된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옹호하고 보다 훌륭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혁명인재를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진보적교육은 사람들을 자기 개인의 리익을 희생시킬지언정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착취제도를 짓부셔버리고 민족적독립과 자주적인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인재를 키우는데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진보적교육에 의하여 사람들은 선진사상,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되며 결국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자라나게 된다.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또한 진보적인 문화예술에 의하여 배양된다.

진보적인 문화예술은 사람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하고 고상한 도덕과 아름다운 정서로 교양함으로써 그들을 자주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이것은 진보적문화예술의 본성, 그의 사상정신적 및 미학정서적 교양의

기둥으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다. 문화예술은 사람과 그 생활을 생동하게 그리며 형상적화폭을 통하여 자주적인 인간의 산 형상을 창조하며 인간생활의 기쁨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를 펼쳐보인다. 또한 사람들을 선진사상과 고상한 소양, 아름다운 정서를 지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우며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문화건설이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는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진보적문화가 사람들에게 창조적능력을 키워준다는데 있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과학지식을 가져야 세계를 지배하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될수 있다. 사람이 자주적인 요구,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 자연을 개조하고 새 사회를 건설해나가는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될수 없다.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사람의 활동의 기본수단은 사람자신이 가지고있는 과학지식, 창조적능력이다.

과학지식이 창조적능력으로 되는것은 사람의 창조적활동의 특성과 관련된다. 사람의 창조적활동은 자신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활동이다.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개조하자면 자신의 요구, 리해관계와 창조적힘 그리고 객관적조건과 대상을 옳바히 타산하여야 한다. 그것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은 일정한 요구, 리해관계와 력량을 가진 사람들이 객관적조건과 대상에 작용하는 과정이기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자연과 사회개조활동에서 자신의 리해관계와 력량관계, 객관적조건과 대상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라도 정확히 타산하지 않는다면 주관주의와 모험주의적편향에 빠질수 있으며 따라서 혁명과 건설에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된다.

과학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리해관계에 맞게 자기의 힘과 객관적힘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과학지식이 객관적인 법칙에 대한 인식을 주기때문이다. 외부세계의 사물현상에 작용하는 객관적법칙은 사람의 의사의 통제밖에서 작용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한데 기초하여야 그 작용을 자신의 요구에 맞게 조절통제할수 있다.

이처럼 과학지식은 사람의 의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 쓰이는 힘있는 창조적능력이다. 사람은 바로 이러한 창조적능력을 가질 때 창조성을 지니게 되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되게 된다.

과학지식은 사람의 육체적힘, 체력과 결합될 때만이 물질세계를 개변하는 창조적능력으로 작용할수 있다. 정신적힘과 떨어진 육체적힘이 자연에서 작용하는 맹목적인 힘과 다름없다면 육체적힘을 떠난 정신적힘, 과학지식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아무러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건장한 체력을 가져야만 자신의 창조적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려운 임무도 훌륭히 감당해낼수 있다.

이처럼 과학지식과 체력이 창조적능력을 이루고있는것만큼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자면 풍부한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은 문화 특히 교육과 보건, 체육에 의하여 담보된다.

진보적교육은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새 사회 건설의 힘있는 역군으로 준비시킨다. 진보적교육은 사람들에게 인류가 달성한 선진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득시키고 그 활동능력을 키워주며 건장한 체력을 배양하는데 큰 힘을 넣는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의 첫날부터 사람들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기 위하여 교육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정치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강화하는 현명한 방침을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청소년들은 중등교육단계에서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완성된 중등일반지식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자라나고있으며 고등교육단계에서는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민족간부로 자라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전체 인민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길러내고있다. 우리 당의 전민교육방침에 의하여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500만명의 학생들이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에서 공부하고있으며 이미 120만명의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를 양성하였다.

우리 당은 인간개조사업에서 문화예술이 노는 역할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우리의 문화예술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인 사회주의문화예술로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의 문화예술은 사회주의문화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면서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창조적로동과 새 생활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가장 선진적인 보건제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건장한 체력과 무병장수가 보장되고있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과 의료봉사사업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농촌진료소의 병원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고 온 나라가 발전된 보건망으로 뒤덮이게 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보건정책과 여러가지 인민적인 시책에 의하여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이 믿음직하게 보호증진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평균수명은 74살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병없이 오래 살며 행복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리상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활짝 꽃피나게 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문화건설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민족문화를 참답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민족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옳바른 원칙을 견지하는것이다. 이것은 문화분야에서 나타나는 온갖 그릇된 편향을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이 진보적문화를 건설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빨리 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혁명적인 민족문화건설로선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민족문화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4페지)

혁명적인 민족문화건설로선을 관철하여야 자기 민족의 특성을 구현하고 자기 민족과 인민의 리익, 나라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이바지하는 참다운 문화를 건설할수 있다.

혁명적인 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는 무엇보다먼저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고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것이다.

혁명적인 민족문화건설과정, 이것은 문화를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과정이다. 혁명적문화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문화이며 따라서 그 건설과정은 착취계급문화의

요소들을 없애는 과정을 동반한다.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 나라들에서는 그 사회제도자체의 본질로부터 반동적인 착취계급의 문화가 우세할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로 하여 지난날의 반동적인 문화가 되살아날수 있으며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로 하여 반동문화가 스며들어올수 있다.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은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고 민족문화의 고유한 전통과 우수한 유산을 살리며 그것을 현대적미감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야 참다운 민족문화예술을 건설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동시에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온갖 썩어빠진 반동문화가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문화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그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참다운 민족문화를 고수하고 발전시킬수 있다.

혁명적인 민족문화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요구는 또한 문화건설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참다운 민족문화는 주체가 선 문화, 주체적인 문화이다. 주체적인 문화란 자기 민족의 특성과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에 맞는 문화이며 인민대중이 그 창조자로, 향유자로 되는 문화이다. 혁명과 건설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문화건설사업도 자기 식으로 하여야 한다. 문화를 민족적바탕우에 건설하여야 자기 인민의 구미에 맞고 자기 인민의 지혜와 힘에 의거한 참으로 혁명적인 민족문화를 건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와 사회발전에서 문화건설이 노는 역할에 관한 사상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때까지 문화는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로서 경제에 의하여 규정되며 사회경제제도의 변화발전에 뒤따르는것으로 리해되여왔으며 따라서 문화건설에는 응당한 의의가 부여되지 못하고있었다.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본다고 하여도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에서는 먼저 경제를 발전시키고 돈을 번 다음에야 민족교육을 발전시킬수 있는듯이 생각하여서는 안되는것이다. 경제를 위주로 하여 사회발전과정을 고찰할 때에는 문화의 본질적특성과 사회발전에서 노는 문화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힐수 없으며 따라서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옳게 풀어나갈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문화의 본질과 그 역할문제를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만드는것이 사회발전의 기본문제로 되며 문화건설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는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밝히심으로써 문화건설에 힘을 넣어 새 사회 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 인민들에게 혁명과 건설을 더욱 빨리 다그치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길을 밝혀주는 또하나의 힘있는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문화건설에 대한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 벌림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청년문제

강 응 길

청년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어렵고 장기적인 사업이다. 공산주의사회건설의 복잡성과 장기성은 청년문제를 옳게 해결하여 혁명의 교대자들을 믿음직하게 키워낼것을 요구한다.

청년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해결되였다.

청년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여 주체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이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문제에 관한 탁월한 사상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며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86페지)

청년문제는 광범한 청년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과 건설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혁명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키우는 문제이다.

청년들은 혁명의 교대자들이며 앞날의 주인공들이다. 혁명의 명맥은 새세대들에 의하여 이어지며 조국과 민족의 장래는 청년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청년문제를 옳게 해결해야 선렬들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공고히 할수 있고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청년문제는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혁명력량편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낡은 사회제도를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건설을 다그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이 위업은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인간을 개조할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그것을 담당수행할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 선차적힘을 넣어야 한다.

청년들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앞장서나가는 용감하고 생기발랄한 부대이다. 청년들은 정의감에 불타고 시대추세에 민감한것으로 하여 혁명의 씨앗을 뿌리는데서 선각자의 역할을 하고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누구보다 피를 많이 흘리며 낡은 사회제도를 변혁하는데서도 언제나 앞장에서 용감하게 싸워나간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반동세력들이 청년들의 진출을 그처럼 두려워하였으며 오늘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이 청년학생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학살하는것도 청년들이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기때문이다. 청년들은 진취성이 강하며 새것에 민감하므로 새 사회 건설에서는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담당수행한다.

청년들의 이러한 특성과 그들이 노는 중요한 역할로부터 광범한 청년들을 굳게 묶어세울데 대한 문제가 절실하게 제기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청년문제를 옳게 해결해야만 각계층의 청년들을 굳게 묶어세울수 있으며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이것은 청년문제

대자들의 대부대가 마련된 자랑찬 력사이다.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청년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청년운동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청년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광범한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청년문제를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을 몸소 개척하시고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심으로써 청년문제해결에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인 청년조직들을 무으시고 광범한 청년들을 하나의 전투대오에 굳게 묶어세우심으로써 청년운동을 발전시키며 청년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청년조직은 청년대중을 단결시키고 그들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위력한 정치적무기이다. 이러한 정치적무기가 없이는 광범한 청년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할수 없으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한결같이 조직동원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벌써 청년들을 조직화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강력한 비합법적청년전위조직들과 합법적인 청년조직들을 무으심으로써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길을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대중적인 청년조직인 민주청년동맹을 창립하시여 광범한 각계층 청년들을 민주주의기발밑에 굳게 묶어세우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맞게 1960년대에는 민청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발전시키심으로써 청년조직의 역할을 더욱 높이시였다.

대중적이며 혁명적인 청년조직이 결성되고 그것이 끊임없이 강화발전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청년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조직에 들어 정치생활을 하게 되였으며 조직생활의 용광로속에서 자신을 단련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험은 대중적이며 혁명적인 청년조직을 건설하는것이 청년대오의 분렬을 막고 모든 청년들을 하나의 대오에 굳게 묶어세워 그들로 하여금 사회변혁의 선봉투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방법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여 새세대청년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심으로써 청년문제해결에서 고귀한 경험과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청년시절은 사람들의 세계관이 확립되는 시기이다. 청년시절에 어떤 교양을 받는가에 따라 사람들은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혁명가로 자라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울 때에는 혁명을 하겠다는 열의가 높지만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여 생활이 넉넉해지면 그들속에서 혁명적열의가 식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런 경향을 막자면 우선 청년들속에서부터 혁명적인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

일찌기 청년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는 사업으로부터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동맹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청년교양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과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년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교양사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우리 청년들은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자신을 사상의 지적으로 단련할수 있게 되였다.

경험은 청년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청년문제해결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요구이며 이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면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혁명의 명맥을 굿굿이 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청년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중요한 업적과 경험은 또한 청년들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적극 다그치도록 하신것이다.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청년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방도로 된다.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때 사회를 개조하고 자연을 정복하는데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준엄한 계급투쟁과 거창한 경제건설은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는 보람찬 투쟁전선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들의 특성과 그들의 훌륭한 자질을 깊이 통찰하시고 청년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어려운 부문에로 불러주시였으며 그들이 보람찬 사업에 청춘의 힘과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은 안온한 요람속에서가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안팎의 원쑤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을 반대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거창한 대진군속에서 자신을 단련하여왔으며 언제나 당과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청년문제가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으며 청년운동을 계속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고귀한 경험이 이룩되게 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개척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은 지난 1970년대에 우리 당의 령도밑에 새로운 력사적시기를 맞이하였다.

우리 당은 청년운동에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고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청년들속에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교대자로 키우는것을 사로청의 중심과업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빛나게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곧 수령의 혁명위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자면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께 충실하도록 청소년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청소년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끎으로써 그들을 어려서부터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혁명적수령관을 철저히 세워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켜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이와 함께 청년들속에서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투쟁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싸운 혁명선렬들 그리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전사들과 사회주의건설시기의 로력혁신자들이 발휘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모범을 본받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

있다.

우리 당이 취한 이러한 조치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청년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혁명의 교대자들을 튼튼히 키워 우리 나라에서 청년문제를 가장 훌륭히 해결해나가기 위한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또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속에서 조직생활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청년돌격대운동을 새로운 높은 형태로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이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당의 령도밑에 이처럼 사로청사업이 적극화된 결과 청년들의 역할은 비상히 높아졌으며 청년문제해결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실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는 조선청년운동을 곧바른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힘있게 전진시킨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으며 청년문제해결에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이룩할수 있게 한 결정적담보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청년운동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됨에 따라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그들의 역할은 비상히 높아졌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청년사업, 사로청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은 결과 우리 나라 청년들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돌격대의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왔다. 그들은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고있으며 조국의 방선을 튼튼히 지키고있다.》

우리 청년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드팀없는 신념으로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당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우리 청년들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할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 청년들의 일본새와 생활기풍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그 어느 초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개인의 명예와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일을 앞장에서 수행하고있다. 또한 그들은 혁명하는 시대의 청년답게 생활을 전투적으로 검박하게 하면서 언제나 혁명적 열정과 랑만에 넘쳐 살며 일하고있다.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힘차게 울리며 전진하는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 땅우에는 주체시대를 빛나게 장식하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이처럼 당과 혁명에 충실한 청년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당이 위력하고 우리 조국이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가 확고히 담보되고있는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시작된 우리 혁명은 지난 반세기가 넘는동안 멀리 앞으로 전진하여왔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앞에는 의연히 무겁고도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여 승리와 영광의 길로 전진하여온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실현해야 할 숭고한 임무가 바로 우리 시대 청년

들에게 맡겨져있다.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이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이 무엇보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대를 이어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야 하며 당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84폐지)

주체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그것은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주체위업의 승리도 청년운동의 강화발전도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도 생각할수 없다.

우리 청년들은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니였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따라배워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여야 한다.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교대자로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사로청조직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사로청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모든 청년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단련시킬수 있으며 청년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당조직들은 사로청일군들에게 사업을 대담하게 맡기고 그 수행방도를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신심을 가지고 청년사업을 창발적으로 설계하며 통이 크게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로청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의 사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 그들이 사로청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새것에 민감한것만큼 격식과 틀을 싫어하며 모든 일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한다. 당조직들은 청년들의 요구와 감정에 맞게 사로청일군들이 생기발랄하게 사업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청년들이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 모든곳에서 청춘의 정열과 혁명적랑만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장들은 청춘의 포부와 정열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는 보람찬 활무대이다.

당조직들은 청년들을 발동하여 그들이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갑문건설장들과 간석지개간전투장, 수천척 지하막장들과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건설장들에 적극 진출하여 지혜롭고 용감하고 슬기로운 조선청년들의 영웅적기상을 높이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도록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이 월미도의 영웅전사들처럼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 혁명적신념을 안고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참다운 교대자로,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투쟁은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청년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청년문제해결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이 땅우에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공통성

정 순 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20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민족어문제해결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들을 내놓으시였으며 그를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언어발전을 이룩할데 대한 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언어리론이 집대성되게 되였으며 민족어문제해결을 위한 백과전서적인 언어강령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언어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언어의 본질적특성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여온 언어와 민족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깊은 분석에 기초하여 언어의 본질적특성을 새롭게 정식화하심으로써 언어문제해결의 사상리론적기초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입니다. 피줄이 같고 한령토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14페지)

민족은 오랜 력사적기간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여오는 과정에 이루어진 사람들의 공고한 사회적집단이다.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자면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력사적으로 형성된 피줄과 언어, 지역의 공통성과 같은것은 사람들의 사회적집단,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공통성들이다. 그가운데서도 언어는 민족의 형성과 공고발전에서 노는 기능과 역할로 하여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언어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공통성의 하나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언어가 민족의 형성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사람들은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사회적관계를 맺으며 사회적집단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사람들의 집단생활은 그 성원들사이에 련계를 맺어주고 의사를 교환할수 있게 하는 수단을 요구한다. 서로 의사가 소통하지 않는 사회적집단이란 있을수 없으며 의사소통이 없는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생각할수 없다.

사람들사이의 련계를 맺어주고 의사를 교환할수 있게 하는 수단이 다름아닌 언어이다.

자유로운 의사교환과 사람들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자면 공통적인 언어가 마련되여있어야 한다. 언어적공통성이 보장될때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으며 집단성원들사이의 긴밀한 뉴대를 맺을수 있다.

언어적공통성은 일정한 사회적집단, 민족의 범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그것은 언어가 사회적집단의 범위안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되여온것으로서 사람들의 일정한 집단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통적인 교제수단으로 되여온것과 관련된다. 언어는 그 어떤

추상적인것도 전인류적인것도 아니다. 언어는 어디까지나 민족어로 존재하며 일정한 사회적집단, 민족에 의하여 창조되고 계승발전되여왔으며 생겨나자부터 일정한 집단성원들의 교제와 사회관계를 맺어주는 수단으로 되여왔다. 구체적인 민족어로 표현되는 언어적공통성을 떠나서는 그 어떤 민족적뉴대나 민족의 형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언어없이 민족을 이룰수 없고 언어적공통성이 파괴되면 민족이 분렬될수 있게 되므로 언어는 민족의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언어는 민족의 발전과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보장하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사회생활의 단위로서 사람들은 오랜 기간 민족을 단위로 하여 공동투쟁을 벌려왔다.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민족성원들사이의 긴밀한 뉴대와 공동투쟁은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민족성원들사이의 긴밀한 련계와 공동투쟁은 의사를 교환할수 있는 수단인 언어의 적극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든 투쟁은 언어를 통한 교제과정을 동반하며 사상을 표현하고 의사를 교환하는 과정에 이루어진다.

언어를 통한 사람들의 교제는 어느 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언어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세대가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후대에 넘겨주는 가장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따라서 언어의 역할과 작용을 높여야만 세대와 세대를 거쳐 진행되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이처럼 언어는 민족의 형성에서뿐아니라 그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으로 하여 민족을 특징짓는 항구적인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공통성으로 된다.

언어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민족적공통성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민족적특성을 지닌 언어가 민족을 서로 구별해주는 중요한 표징으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들이 민족으로서 공고한 집단을 이루듯이 사회적현상인 언어도 민족어로서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민족은 민족적특성을 지닌 민족어를 가지고있으며 그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언어의 민족적특성은 민족들을 서로 구별해주는 표징들가운데서 가장 뚜렷한것의 하나로 된다.

매개 민족의 사상감정과 사상의식, 생활풍습 등을 반영하고있는 언어의 민족적특성은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특성이다. 그것은 오랜 력사를 거쳐 내려오면서 민족성원들의 생활양식과 감정, 인민의 지혜와 슬기를 담아 자기의 훌륭한 모든것을 살려오는 과정에 이룩된 언어적특성이다.

언어의 민족적특성은 언어체계와 민족어의 고유한 사용규칙, 발전법칙 등에서 나타난다. 언어의 민족적특성은 오랜 력사적기간에 축적되고 형성되였으며 민족성원들의 언어의식에 고착되여있기때문에 쉽게 없어지거나 또 없앨수 있는 그런 특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 민족의 언어는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으로 하여 다른 민족어와 구별되며 한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된다.

어느 민족이나 민족적특성을 체현하고있는 자기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만 다른 민족과 더욱 뚜렷이 구별될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어는 민족적특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어느 한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데서 중요한 표징의 하나로 된다.

언어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공통성의 하나로 되는것은 또한 언어가 사람들의 민족적자부심과 단결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작용함으로써 민족의 발전을 확고히 담보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민족적 자부심과 단결력은 민족이 하나의 공고한 사회적집단으로 존재하며 발전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모든 민족성원들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하자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이며 문화의 민족적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으로 되는 민족어의 발전이 이룩되여야 한다.

민족어는 민족을 진보와 번영에로 이끌어온 민족성원들의 공동의 창조물로서 그것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 인민의 사상감정을 반영하고있는 귀중한 민족적재부이다. 언어에는 해당 민족이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이룩한 고귀한 성과와 경험이 담겨져있으며 민족의 슬기와 지혜가 반영되여있다. 때문에 민족어는 민족성원들로 하여금 공통된 민족적감정과 민족적긍지,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적단결력을 강화하는데서 힘있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민족어가 우수하고 발전된것일수록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게 되며 그것을 통하여 민족적단결력도 더욱 강화하게 된다. 민족적 자존심과 자부심이 강한 민족은 불패이지만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못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면 망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언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함으로써 민족의 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우리의 민족어는 우리 인민이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하고 보존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왔으며 우리 인민의 창조적 로동과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온 가장 우수한 민족어이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한강토에서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창조해온 슬기로운 단일민족이다. 우리 인민은 이 세상에 태여날 때부터 고유한 자기의 민족어와 민족문화를 창조하였으며 한강토에서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높이 발양하면서 긍지높이 살아왔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민족의 운명과 련결되여있는 우리 말과 글을 귀중히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켜왔다.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고유한 언어와 자기 인민의 지혜와 슬기를 담은 민족글자를 쓰고있는 민족은 그리 많지 못하다.

우리 말은 말소리에서부터 표현에 이르기까지의 언어구조전반에서 고도로 발전된 우수한 민족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말은 류창하며 높고 낮음과 길고짧음이 있고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도 매우 아름답다. 우리 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잘 나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수 있고 울릴수도 있으며 웃길수도 있다. 우리 말은 례의범절을 똑똑히 나타낼수 있기때문에 사람들의 공산주의도덕교양에도 매우 좋다. 또한 우리 나라 말은 발음이 매우 풍부하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말과 글로써는 동서양의 어떤 나라 말의 발음이든지 거의 마음대로 나타낼수 있다.

우리 인민이 쓰고있는 민족글자도 아주 좋은 글자이다. 오래전부터 문자생활을 해오던 우리 인민은 지금으로부터 540년전에 세계적으로 이름높은 민족글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훈민정음》은 글자를 만든 원리와 글자의 구조에서 뛰여난 민족글자이다.

우리 인민은 이처럼 훌륭한 말과 글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올수 있었으며 아름다운 민족적 전통과 풍습을 간직해올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참으로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민족의 형성과 발전에서 민족어가 노는 커다란 역할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예속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민족어말살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려왔으며 민족의 동화수단으로 민족어와 글자를 빼앗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그러므로 민족을 지키고 민족의 통성과 번영을 이룩하자면 자기 민족의 말과 글을 지켜야 한다.

우리 인민이 자자손손 내려오면서 민족의 지혜와 슬기를 담아 발전시켜온 우리 민족어의 순수성과 우수성을 계승하고 그 고유한 특성을 끊임없이 발양시켜나가는것은 우리 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성스러운 과업의 하나이다.

민족어를 주체적립장에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는 언어문제와 민족문제를 통일적으로 고찰하면서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언어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공통성이므로 언어문제는 언제나 민족문제와 밀접히 결부하여 해결해야 할 매우 심중한 사회정치적문제로 된다. 만약 언어문제를 민족문제와 결부하여 해결하지 않고 그와 분리시켜 처리한다면 민족의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줄수 있으며 나아가서 민족의 분렬을 가져올수 있는 위험성을 발로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어의 본질적특성에 관한 고전적징식화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서 민족어문제해결의 과학적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민족어를 발전시키는데서 민족의 분렬을 가져올수 있는 그 어떤 사소한 요소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혀주시면서 민족적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도록 우리 말을 더욱 정확하고 아름다운것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독창적인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민족어발전에 관한 주체적인 리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말은 민족적특성을 높이 체현한 참다운 사회주의적민족어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북반부에는 민족의 분렬을 막고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언어발전의 믿음직한 터전이 훌륭히 마련되고있다.

그러나 오늘 공화국남반부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인민적인 민족어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과 글은 그 우수한 전통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일대 수난과 위기를 겪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책동으로 하여 그 남조선에서는 오늘 우리 말과 글이 순수성과 고유한 특성을 잃고 잡탕말로 변질되고있으며 남조선은 말그대로 외래어의 《전시장》으로, 외래어의 심한 《공해지대》로 진변되고있다.

모든 사회생활에 홍수처럼 범람하는 외국말과 잡탕말로 하여 오래동안 내려오던 우리 민족의 언어적공통성마저 빛을 잃고있다. 외국말이 잡초처럼 자라나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 외래어를 써야 《유식》하고 우리 말을 쓰면 《무식》한것으로 치부되는 남조선의 현실이야말로 민족의 수치이다.

이 모든것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말살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며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로 내맡기려는 남조선의 매국배족무리들의 반인민적인 책동이 빚어낸 결과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 전두환괴뢰도당의 조선어말살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족의 언어적공통성을 고수하며 우리 말과 글을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조국통일위업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치적문제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언어리론을 받들고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우리 말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민족사적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야 할것이다.

당정책가요창작방침과 그 빛나는 구현

리 면 상

혁명적인 노래는 인민들을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의 하나이다. 시대의 기상과 인민대중의 념원을 반영한 아름답고 고상한 노래는 언제나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여 사람들을 창조와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노래는 당정책을 선전하며 그 관철에로 군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큰 작용을 합니다. 당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 노래로 만들어 보급하면 군중의 사기를 북돋아줄수 있고 사람들을 당정책에 빨리 물젖게 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3권, 500페지)

노래는 가사를 통하여 사상을 알려주고 선률을 통하여 그것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감득시키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사상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된다.

우리 당은 가요음악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대중가요 특히 사상예술성이 높은 당정책가요를 많이 창작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해왔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한 당정책가요를 품위있게 창작하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주체적음악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당정책가요라 할 때 그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을 알기 쉽게 해설하며 당의 사상과 의도를 구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과 지향을 풍부히 반영함으로써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대중적인 노래를 말한다.

당정책가요의 기본사명은 노래를 통하여 인민대중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당정책가요창작방침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적음악전통을 구현하고있는 주체적인 문예창작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과 방침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구현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 《유격대행진곡》, 《총동원가》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가요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을 민족해방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당정책가요창작방침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고귀한 혁명적음악전통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해나가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계승발전시킨 독창적인 방침으로서 그것은 우리 시대 혁명적가요창작의 확고한 지침으로 된다.

우리 당이 제시한 당정책가요창작방침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하는것을 가요창작의 근본원칙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이다.

문예작품창작에서 당의 사상과 의도를 민감하게 반영하는것은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의 기본사명과 임무로부터 제기되는 중대한 과제이다.

우리의 문학예술이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 힘

부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당정책가요창작에서는 노래에 반영하려는 당정책적내용과 근로인민대중의 감정과 기호에 맞는 형상방법을 부단히 새롭게 탐구하여야 노래의 양상도 달리하고 개성도 살릴수 있다.

이처럼 당정책가요의 사상예술성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은 날로 높아가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미학정서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사람들에게 커다란 사상정서적영향을 주기 위한 현명한 방침으로 된다.

우리 당이 제시한 당정책가요창작방침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노래의 통속성을 보장하는것을 일관한 원칙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이다.

노래가 진정으로 혁명을 위하여,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되자면 민족적정서가 흐르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통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통속성은 대중가요의 인민성을 규정하는 기본징표이다. 모든 노래가 다 그러하지만 당정책가요는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할것없이 누구나 다 부를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아무리 깊은 뜻을 담은 노래라 하더라도 까다롭고 부르기 힘들면 대중속에 널리 퍼지지 않게 되며 그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다.

대중이 언제 어디서나 즐겨부르는 통속화된 대중가요는 민족적정서가 흐르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는 노래이다.

우리 인민에게는 오랜 력사를 내려오면서 형성된 고상한 사상감정과 풍만한 민족적정서가 있으며 그것을 훌륭하게 형상할수 있는 민족적선률이 있다.

이러한 민족적 정서와 선률을 떠나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기호, 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진정으로 인민적인 노래를 지을수 없다. 민족적 정서와 선률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시대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세련되고 풍부화된다.

당정책가요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거창한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의 벅찬 현실을 반영한것으로서 그것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정신세계 그리고 시대적미감에 맞아야 한다.

이러한 당정책가요의 창작적요구는 우리 인민이 좋아하는 유순하고 아름다운 민족적선률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시대 사람들의 감정에 맞게 창작될 때만이 성과적으로 구현될수 있다.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듣기 좋고 부르기 쉬우며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대중가요를 창작하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이 내놓은 당정책가요창작방침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우리 당이 독창적인 당정책가요창작방침을 제시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문학예술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당정책가요창작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게 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당정책가요창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해명되게 되고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는 가요창작에서 당정책을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혁명적인 사상관점과 립장이 확고히 서게 되였으며 당정책가요를 활발히 창작하는 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당정책가요창작방침을 구현하는데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영한 당정책가요들이 수많이 창작되여 주체적 문학예술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한데 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당정책가요창작방침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현명한 령도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적이며 전투적이며 인민적인 당정책가요창작에로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으며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 그를 관철해나가려는 인민대중의 의지와 신념을 노래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가요들이 수많이 창작될수 있게 한 결

정적인 요인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전투에로 부르는 가요들, 청춘남녀들을 조국의 지도를 넓혀가는 대자연개조전투장에로 떨쳐나서게 하는 가요들,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가요들을 비롯하여 실로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를 반영한 수많은 당정책가요들이 창작되여 가요예술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이룩되게 되였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널리 부르고있는 가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정강의 노래》와 《3대혁명붉은기 휘날려가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사회주의대건설 총동원 앞으로》 그리고 《새우자 우리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과 같은 노래들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이 가요들은 간결한 절가형식에 당의 사상과 의도를 알기 쉽게 담음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당정책을 깊이 심어주고있으며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정책가요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풀이하는 형식의 노래들과 함께 그 관철에 일떠선 근로자들의 끝없는 기쁨과 행복, 드높은 혁명적자부심과 민족적긍지를 반영함으로써 우리 당 정책의 본질과 내용, 정당성을 가슴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사랑의 물소리 밭에 넘치네》, 《직포공의 마음》, 《삼화수송 좋구좋아라》, 《탄부의 영예 빛내여가리》, 《간석지에 새겨가는 청춘의 마음》과 같은 노래들이 바로 그러한 실례이다. 이 노래들은 독특하고 다양한 양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씩씩하고 락천적인 정서와 로동을 사랑하는 근면한 정서 그리고 밝고 서정적인 정서세계를 잘 펼쳐보임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상정서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당정책가요창작방침을 구현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는 또한 민족적이고 현대적이며 통속적인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낸것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을 반영한 노래들은 모두가 민족적인 유순하고 아름다우며 고상하고 참신한 선률로 차넘치고있다. 이러한 노래의 선률들은 우리 시대 사람들이 지닌 높은 사상감정과 뜨거운 열정으로 흘러넘치고있으며 세련된 간결한 형식을 갖추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그 누구나 한번 들으면 더 듣고싶어하며 그 어디에서나 생활의 길동무로 흥겹게 부르고있는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당정책가요들은 심오한 사상적내용과 고상한 예술적형식이 옳게 결합되고 인식교양적가치가 큰 노래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늘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널리 불리우고있는 당정책가요들은 우리 인민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더욱 불타게 하고있으며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열정에 넘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당정책가요창작에서 이룩된 이 모든 귀중한 성과들은 우리 당이 독창적인 가요창작방침을 제시하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준 빛나는 결실이다. 이것은 《주체의 조국》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고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정책을 반영한 노래들을 더 많이, 더 좋게 만듦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고무하며 주체적음악건설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튼튼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갈것이다.

공산주의적시책과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의 옳은 결합

리 봉 학

공산주의적시책을 적극 실시하면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에 맞게 정책을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적시책을 적극 실시하면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제시된 독창적인 방침이다. 여기에는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이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으로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강화하면서 물질적자극을 적절히 배합하며 공산주의적시책을 적극 실시하면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며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통제를 옳게 결합하는 등 어느 일면에 치우치지 않는 옳은 정책을 실시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사회에서 공산주의적시책을 실시하게 되는것은 이 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징은 어디까지나 그 공산주의적성격에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사회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성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마땅히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내적이며 본질적인 속성으로 되고있는 공산주의적성격에 맞게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낡은 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앙양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새 사회 건설에로 계속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완성해나갈수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공동의 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을 주되는 목적으로 하는 공산주의적시책은 바로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공산주의적성격에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시책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또한 이 사회의 과도적성격을 고려하여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사회는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사회와 다른 사회생활원칙과 사회관계가 형성되고 공고발전되여가고있지만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낡은 사회의 유물이 일정하게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아직 계급적차이가 있고 로동에서의 본질적차이가 남아있으며 근로자들

의 로동은 물론 영예롭고 보람찬것이기는 하지만 생활상 제1차적요구로 되지 못하고있다.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에서부터 오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미숙성은 그에 적응하게 로동계급의 당이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할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고 생산력이 아직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수 있으리만큼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로동의 본질적차이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를 실시해야 로동과정에서 소모된 근로자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충분히 보상할수 있으며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에로 옳게 동원할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은 공산주의적시책을 적극 실시하면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옳게 구현하게 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을 다같이 고려하면서 그에 맞게 공산주의적시책과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옳바로 배합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적시책과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은 다같이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에 복종하지만 사회주의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

공산주의적시책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징으로부터 이 사회에 필수적으로 있게 되는 국가적시책으로서 그것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가장 높은 형태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실시되는 공산주의적시책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일한 형태는 아니며 생산력이 아직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그것만으로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생활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보장할수 없다.

한편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물분배의 기본형태로,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지만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점차 공산주의적분배에로 발전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적시책과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이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이 두 측면을 어떻게 결합해나가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옳은 전략전술적원칙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공산주의적시책의 폭을 넓히면서 이에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적절히 배합하여야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을 강화하고 그 과도적성격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수 있다.

공산주의적시책과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결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은 우선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공산주의적시책을 점차적으로 폭을 넓혀가면서 실시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사회를 빨리 건설할수 있다고 하여 우리가 그것을 단꺼번에 건설할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공산주의적시책들을 하나씩하나씩 점차적으로 실시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할수 있는것은 오늘 하고 래일 할수 있는것은 래일 하고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공산주의적시책들을 실시해나간다면 결국에 가서는 공산주의사회가 완전히 건설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06~207페지)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일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물질적수요가 원만히 보장되는 풍요한 사회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자면 물질적부의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면서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물질적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공산주의적시책을 점차적으로 널리 실시하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사회의 첫단계이며 그 본질적우월성으로 하여 공산주의적시책을 실시할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제도가 지어주는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을 리용하여 공산주의적시책을 옳바로 실시하여야 사회주의사회에 있게 되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줄이고 그것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사회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옳바로 결합시키고 동지적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또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근로자들을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위업에 적극 참가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적시책을 널리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극복하고 그 공산주의적성격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공산주의적시책과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결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은 또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를 철저히 실시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홀시하고 공산주의적시책만을 실시한다면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여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 지장을 주게 된다.

반대로 공산주의적시책을 무시하고 사회주의적분배원칙만을 절대화한다면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을 높이 불러일으킬수 없고 그들속에서 리기주의를 조장하게 되며 사회성원들사이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는 사업을 옳게 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반영하고있는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은 그 공산주의적성격을 구현하고있는 공산주의적시책과 모순되지 않을뿐아니라 서로 보충하는 관계에 있게 된다. 수요에 의한 공산주의적분배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를 더욱 완성하여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공산주의적시책을 적극 실시하고 그것을 공고화해나가면서도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에 공산주의적시책을 적극 실시하면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왔으며 이 과정에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였다.

우리 당이 창조한 경험은 무엇보다 공산주의적시책을 사회공동의 수요뿐아니라 개인수요의 기본부분을 충족시키는데까지 확대하여야 인민생활을 빨리 높여나갈수 있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사회에서 실시되는 공산주의적시책은 사회성원들사이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국가와 사회의 혜택으로 근로자들의 공동의 수요뿐아니라 나아가서 개인적수요를 보장할 때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빨리 높이고 그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성과적으로 없앨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근로자들의 공동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산주의적시책을 널리 실시하여왔으며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됨에 따라 그것을 점차 개인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까지 확대하여왔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비롯한 사회의 공동수요를 위한

공산주의적시책을 실시하여왔으며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철따라 옷을 해입히고있으며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지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보장하여주고있다.

우리 당의 이러한 시책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먹을 권리와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으면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당의 인민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시책에 의하여 우리 인민들은 적지 않은 분야에서 공산주의사회에서 보장받게 될 사회적혜택을 누리고있으며 인류가 리상으로 그려오던 공산주의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희망과 신심에 넘쳐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고 있다.

경험은 나라의 경제토대가 비록 튼튼히 마련되여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과 공산주의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적극 투쟁한다면 사회주의건설의 첫시기부터 공산주의적시책을 실시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당이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또한 사상교양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한편 여러가지 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부단히 높이면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적생산을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527페지)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키는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소홀히 하면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일면만 강조한다면 사람들속에서 개인리기주의를 조장시킬수 있다. 반대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한다고 하여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홀시한다면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경제법칙의 요구를 옳바로 구현할수 없다.

우리 당은 언제나 사상교양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면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한 분배형태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것을 옳게 구현하는데도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은 일정한 분배형태를 통하여 구현된다. 그런것만큼 분배형태를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옳바로 적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이다.

우리 당은 우선 분배에서의 평균주의와 지나친 차이를 다같이 경계하면서 로동에 대한 보수의 등차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로동의 차이를 정확히 타산하여 보수의 차이를 적절히 설정하는 동시에 기술혁명이 수행되는데 따라 그것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였으며 로동정량이 높아지는데 맞게 로동보수를 체계적으로 늘이면서 장려금, 상금과 같은 로력보수형태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새 기술과 선진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로동생산능률을 장성시키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우리 당은 특히 농촌경리부문에서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와 같은 독창적

인 분배방법들을 창조하고 일반화함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창조적열의를 높이고 농업생산을 급임없이 앙양시킬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이 창조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옳바로 실시하기 위한 독창적인 분배형태들은 사회주의사회의 필수적요구를 확고히 구현한것으로서 그것은 근로자들의 열의를 높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였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강화됨에 따라 공산주의적시책의 폭을 넓히면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를 더욱 완성해나가는것이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칠뿐아니라 공산주의적분배를 실시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서 효과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공산주의적시책과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옳게 결합하여온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는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공산주의적시책과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옳게 결합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함에 따라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현시기 공산주의적시책과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옳게 결합하여나가기 위한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에서부터 공산주의적시책을 실시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모든 일군들은 공산주의적시책과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본질과 정당성, 그를 구현하기 위한 방도들을 깊이 체득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공산주의적시책과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우리 당의 방침의 요구대로 공산주의적시책을 적극 실시하며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의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

손 주 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경제를 가장 옳바르게 지도관리할수 있는 훌륭한 원칙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하신 교시에서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의 옳은 배합,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의 옳은 배합,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실현, 기업소경영방법에서 독립채산제의 적용을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상세히 명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독창적인 방침으로서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가장 옳바르게 관리운영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의 하나는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을 옳게 배합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옳게 배합하는것입니다.

당조직정치사업은 응당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하며 경제사업은 당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219～220페지)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을 옳게 배합한다는것은 경제기술적인 사업과 사람과의 사업을 배합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근로자들이 경제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조직하고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는 실무적인 사업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온갖 창조적 지혜와 정열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곧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과정으로서 그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는 당정치사업과 구체적이고 면밀한 행정경제조직사업이 옳게 배합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을 옳게 배합할데 대한 원칙은 로동계급의 당이 경제관리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고있는 원칙이다. 여기에는 로동계급의 당이 경제를 지도관리하는데서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며 정치적방법을 앞세우면서 경제를 관리운영해나가야 한다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사회주의경제를 지도관리하는데서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을 배합하는것은 무엇보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을 다같이 가지고있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은 이 사회의 본질적특성을 이루고있으며 그 과도적성격은 공산주의사회에 비한 사회주의사회의 성숙정도에서의 차이를 반영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은 근로자들의 정치도덕적관심과 물질적관심을 낳게 하는 요인이다.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동지적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리익과 사회의 리익이 완전히 일치하며 창조된 물질적부가 전적으로 근로인민대중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이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적생산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하며 그 발전을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를 내여 일하게 한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 그들속에서 높이 발양되는 혁명적열의는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정치도덕적관심과 함께 물질적관심도 가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력이 아직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로동의 본질적차이가 남아있으며 근로자들속에 낡은 사상잔재도 남아있다. 이로부터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전사회적리익에 대해서뿐아니라 개인의 리해관계, 자기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관심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물질적관심을 옳게 자극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생산력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놀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바로 실현하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해서는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켜나가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는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을 옳게 배합하여야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행정경제조직사업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당정치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경제과업수행에로 그들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옳게 배합해나가는 과정은 곧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원만히 실현해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을 옳게 배합해나갈 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것은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을 옳게 배합하는것이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에 맞게 경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경제지도관리원칙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주의경제를 지도관리하는데서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을 배합하는것은 다음으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과 관련하여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사회주의경제는 전사회적규모에서 사회화된 대규모경제로서 국가의 경제조직자적역할에 의하여 생산, 분배, 교환, 소비 등 재생산의 모든 고리들과 환절들이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계획경제이며 균형경제이다.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특성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자면 인민경제 부문들과 생산단위들사이, 재생산고리들사이의 련계를 잘 맞물려주어야 하며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 등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과업

은 행정경제조직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행정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짜고들 때 인민경제의 전반적균형을 보장하고 나라의 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행정경제조직사업은 그 직접적담당자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과 관리, 기술의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떠나서 고도로 조직화된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움직이고 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사업에서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때문에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당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당정치사업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설비와 자재를 알뜰히 관리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기술을 혁신하고 원가를 낮추어 한사람당생산액을 높일수 있게 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당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수록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역할을 높여 계획화사업과 생산조직, 설비관리와 자재보장, 로력관리와 재정관리를 비롯한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고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할수 있으며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다.

만일 경제지도관리에서 행정경제조직사업만 강조하면서 정치사업을 홀시하게 되면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동할수 없게 되며 그렇게 되면 행정경제조직사업 그자체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

다른 한편 행정경제조직사업을 소홀히하고 정치사업만 강조한다면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경제법칙의 요구를 올바로 구현할수 없으며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를 올바로 관리운영할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을 옳게 배합해나갈 때에만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을 옳게 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하여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오늘 우리앞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인민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룩해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을 밀접히 배합하여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야 한다.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을 배합할데 대한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기본원칙을 관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이다.

사회적생산을 발전시키는데서 가동적이며 능동적인 요인은 사람이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그들의 사상에 의하여 규제되며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이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경제건설과업도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

물론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심화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과 관리에서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들이 노는 역할이 더욱더 커지게 되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것도 사람이며 다루는것도 사람이다. 사람들의 능동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들이 생겨나고 자연을 정복하는 투쟁에서 그것이 제구실을 하게 된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과 생산능력,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그것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은 순수 행정기술실무적인 사업만으로는 원만히 해결할수 없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할 때만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우리 당의 경제정책의 본질과 정당성, 그 관철방도를 똑똑히 인식시키며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을 동원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생산자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대중속에 당정책을 깊이 해설침투하는 한편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그들을 교양하며 이끌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가는 바로 여기에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경제관리에 주인답게 참가시키고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인민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을 옳게 배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의 경제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관철하는 원칙에서 경제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드는것이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관리를 개선하는것은 생산자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당의 경제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자면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길만 근로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마음껏 일할수 있도록 행정조직사업, 기술실무적인 사업을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 특히 우리 당이 내놓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면서 새로운 생산능력을 마련하고 앞선 과학과 기술을 받아들이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을 잘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언제나 과학기술적으로 타산한 기초우에서 객관성과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계획을 세우고 생산조직을 짜고들며 생산지휘와 보장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 일떠선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물질적성과로 전변시킬수 있다.

이처럼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행정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대중의 지향과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잘하고 원료, 자재의 보장과 설비관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여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을 밀접히 배합할데 대한 원칙은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경제관리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혁명적인 경제지도관리원칙이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발전법칙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게 하는 과학적인 경제지도관리원칙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을 옳게 배합할데 대한 기본원칙을 튼튼히 견지함으로써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시대는 전진하여도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다

근로인민대중의 해방투쟁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전진하는 련속적 과정이다. 인류력사는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근로인민대중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낡고 썩은 모든것을 쓸어버리고 낡은 사회의 구조를 혁명적으로 재편성하기 위한 폭풍우속에서 국제로동계급이 높이 추켜들었던 붉은 기발이 지금은 구라파뿐아니라 아세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세차게 나붓기고있다.

돌이켜보면 맑스와 엥겔스가 《공산당선언》을 발표한 때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밑에 국제로동계급은 원쑤들과의 결사적투쟁을 통하여 승리의 앞길을 개척하였다.

자본가들과 온갖 반동세력들은 《반공》의 구호를 들고 과학적공산주의사상의 전파와 공산주의운동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국제로동계급은 모진 시련과 가슴아픈 희생을 무릅쓰고 자본의 진지를 끊임없이 공격하였다. 국제로동계급은 가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자라났으며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쌓았다.

10월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사회주의는 과학적사상으로부터 산 현실로 전환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자기의 보루를 가지게 되였다.

10월혁명의 승리에 고무되면서 전세계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더욱 줄기차게 궐기하였다.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은 동방피압박민족들의 해방운동과 결합되여 제국주의에 치명적타격을 주었으며 인류의 해방위업은 더욱더 힘있게 전진하게 되였다.

겁에 질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들은 첫 로동계급의 국가인 쏘련을 말살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반공 《십자군원정》에 나섰으며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였다. 그러나 어떤 발악적책동으로써도 국제공산주의운동대렬이 장성하는 시대의 흐름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국제자본은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제국주의—파시즘을 력사무대에 등장시켰으며 그것을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반대하는 반공돌격대로 내몰았다.

공산주의자들과 국제로동계급은 파쑈화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결전장에서 고귀한 피를 흘리였다. 국제로동계급을 비롯한 피압박근로대중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독일파시즘과 일본제국주의는 피멸되였으며 인민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급격히 약화된 반면에 사회주의력량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구라파대륙과 아세아의 넓은 지역에는 로동계급의 당이 령도하는 새로운 주권국가들이 출현하였다.

세계 사회주의력량의 출현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강력한 지반을 가지게 되였다. 세계 사회주의력량의 출현, 그것은 장구한 기간 맑스-레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이 벌려온 간고한 투쟁의 빛나는 총화이며 위대한 결실이다.

제2차대전후 세계 사회주의력량의 빠른 장성과 함께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민족해방

운동이 세차게 일어나고 수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이 출현한것은 인류사회발전에서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인민들을 제마음대로 억누르고 략탈하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갔다. 각성된 인민대중의 거세찬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는 허물어지고 그들의 세력범위는 현저히 축소되였다.

특히 아세아대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민족적독립국가들이 출현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의 저주로운 식민지통치체계는 근본적으로 붕괴되게 되였다.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니다. 아세아인민들은 새생활창조의 길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서 자주의 기발이 더욱 세차게 휘날리고있으며 그 기치밑에 인민들은 반제자주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

참으로 시대는 멀리 전진하였으며 세계의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러나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잔인하고 파렴치한 죄악의 력사는 되풀이되고있다. 시대는 전진하였으나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다.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 빠져 허덕이는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처한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더욱더 무모한 침략과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은 쫓겨나지 않는 한 식민지예속국가들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버리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략탈하는것은 제국주의의 본성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96페지)

제국주의는 원래 침략적이다. 승냥이의 야수성이 변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가 살아있는 한 그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비록 그 힘이 약화되여도 결코 변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옛 지위를 스스로 버리려 하지 않는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는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밑에 무엇보다도 모험적인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달리고있다.

지난 시기 인류에게 류혈적인 참화를 들씌웠던 미제는 오늘 또다시 피비린내나는 침략과 전쟁의 력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전쟁광증에 사로잡힌 미제는 이른바 《강대한 미국의 재건》을 표방하면서 군비확장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새로운 침략전쟁, 열핵전쟁의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준비책동은 군사비확장으로부터 시작된다.

미국의 군사예산은 1982회계년도에는 1977회계년도에 비하여 2배이상으로 늘어나 미국력사상 최대규모의것으로 되였다.

레간행정부는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퍼부어 핵공격무기들을 비롯한 각종 현대적군사장비들의 생산을 다그치면서 군비경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 이것은 입으로는 《군비축소》와 《평화》에 대하여 떠들면서 실제행동에서는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의 일단이다.

미제는 세계의 수많은 지역에 침략적 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방대한 침략무력을 배치하고있으며 모험적인 전쟁전

[illegible] 새 전쟁 도발책동을 [illegible] 벌리고있다. 최근 [illegible] 순항미싸일의 구라파 [illegible] 배치를 [illegible] 핵전쟁 [illegible]을 그 어느때보다도 증대시키고 있다.

[illegible]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아지역에 [illegible] 역량을 돌리고 있다.

미제는 [illegible]적인 세계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아세아를 매우 중요시하고있으며 아세아의 군사전략적요충지들과 그 주변에 수많은 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방대한 침략무력을 항시적으로 배치하고있다. 미제는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아지역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대규모적인 침략적군사연습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리고있으며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적군사블럭을 형성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다.

미제는 지금의 전쟁전략의 당면목표를 수행하는데서 조선반도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떠벌이면서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육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그곳을 극동최대의 핵기지로, 전쟁화약고로 전변시키고있다. 오늘 남조선에는 1,000여개의 핵무기가 전개되여있으며 수많은 《에프16》전투폭격기들과 《에이 10》근접지원기를 비롯한 장비들이 새로 배치되고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미제는 남조선에 [illegible]미싸일과 악명높은 중성자무기까지 끌어들이려고 책동하고있다.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에 열이 오른 미제국주의자들은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조선반도주변과 태평양의 넓은 지역에 자기의 륙해공군무력을 대폭 증강시키고 그것을 언제나 조선에 투입할수 있도록 출동대세를 갖추게 하고있다.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은 지난해 11월에 있은 레간의 남조선행각을 계기로 더욱 격화되였다. 레간은 남조선에 기어들어 전두환역도를 대견과 [illegible] 신생에도 부추겼으며 이른바 《공동성명》과 여러 발언들에서 남조선의 《안전》이 《미국의 안전과 직결》되고있다고 하면서 《조약상의무》를 계속 지킬것을 약속하였으며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핵무기사용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고 핵공갈까지 서슴없이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레간의 남조선행각이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위험한 전쟁행각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미제는 조선에서의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에 일본반동들을 적극 리용할것을 노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새로운 조선전쟁도발책동에 편승하여 저들의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고 망상하고있다.

비대할대로 비대해진 일본독점자본은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해외침략의 첫걸음을 조선에로 떼려 하고있다. 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대조선, 대아세아 전략에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고있으며 남조선괴뢰들과의 군사적결탁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는것이다.

조선반도에서의 미제의 새 전쟁 도발소동은 미제와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으로 하여 더욱 위험한것으로 되고있다.

미제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아지역의 정세는 더욱 긴장되고있으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는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미제의 전쟁정책으로 하여 남조선은 방대한 무력과 현대적전쟁수단들이 집결되여있는 침략적군사기지로 화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항시적인 전쟁의 공포속에서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들씌워지고있는 모든 재난의 화근이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조성하고있는 장본인이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과녁은 의연히 변하지 않았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아직도 간고한 길

을 헤쳐가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미제국주의는 침략전쟁도발에 광분하는 전쟁광신자일뿐아니라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재부를 긁어가고 고혈을 짜내는 가장 악랄하고 가장 탐욕적인 착취자이며 략탈자이다.

미제국주의는 원래 다른 나라를 략탈하고 인민들의 피땀을 빨아먹으며 살쪄왔다. 착취와 략탈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다.

남의 나라를 략탈하고 착취하는 미제국주의의 날강도적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미국독점자본가들은 《원조》니, 《협조》니 하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기여들어 경제의 명맥을 틀어쥐고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막대한 재부를 략탈하고있으며 독점적고률리윤을 짜내고있다.

미제는 신생독립국가들에 수많은 략탈기지를 가지고있으며 이 나라들에 저들의 잉여상품을 국제시장가격보다 12~15% 지어는 1.5~3배나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넘김으로써 막대한 리득을 얻고있다.

불완전한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1970년대초에 발전도상나라들의 채무액은 1,000억딸라 미만이였다면 1970년대말에는 그것이 3,825억딸라로 늘어났으며 1981년말과 1982년말에는 각각 5,166억딸라, 6,260억딸라로 엄청나게 증대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이 막대한 대외채무의 증가는 본질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의하여 초래된것이였다.

남조선은 미제의 해외략탈이 가장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는 경제적예속의 표본으로 되고있다.

미국독점체들은 남조선경제의 모든 명줄을 틀어쥐고있으며 남조선경제를 철저히 저들의 전쟁정책수행에 얽어매놓고있다.

오늘 남조선에는 미국과 일본의 자본이 물밀듯 쓸어들어 판을 치고있으며 남조선경제는 날이 갈수록 파산몰락의 일로를 걷고있다. 남조선은 400억딸라가 넘는 무거운 빚더미에 짓눌려있는 세계적인 《부채의 왕국》으로 되고있으며 인민들은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허덕이고있다.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하고 예속시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침략수법이다.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이후 국제무대에서 온갖 전횡을 부리면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압살하는 악랄한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미제의 이러한 범죄적책동은 오늘도 의연히 계속되고있다.

미제는 《벗》으로 가장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기여들어 새생활창조의 길로 나가는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파괴암해책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특히 쁠럭불가담나라들 사이에 불화와 반목을 조성하고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떼여내며 쁠럭불가담운동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제의 파괴암해활동과 무력간섭으로 하여 사실상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어느 하루도 류혈적참극과 소요가 멎은 날이 없으며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주권을 유린당하거나 침해당하고있다.

레간행정부는 이른바 《공민보호》요, 《민주주의회복》이요 하는 강도적구실밑에 작은 섬나라 그레네이더를 무력으로 강점함으로써 저들의 야수성과 파렴치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정책을 실시하는 중미주의 다른 주권국가들에 대해서도 《큰 몽둥이》를 휘두르는 정책을 로골적으로 쓰고있다. 미제는 자주의 길로 나가는 니까라과에 대한 무력간섭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으며

중근동과 남아프리카에서 유태복고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고 저들의 지배와 통제를 확립하려 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을뿐아니라 그들의 처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더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로동계급이 붉은 기발을 들고 혁명의 길에 나선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혁명의 과녁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의연히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있으며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려 하고있다.

제국주의, 미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이 변하지 않고 놈들의 침략책동이 더욱더 강화되고있는 오늘 인민들앞에는 반제반미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세차게 벌려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여도 세계인민들이 들고일어나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반드시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 이것은 력사적경험이 잘 보여주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135페지)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며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그 완성을 위한 근본요구이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 인민들의 참다운 자유와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이며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다.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의 자주권과 령토를 침해당하고있으며 침략의 위협을 받고있다. 미제의 침략의 발길이 닿는곳에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데가 없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으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 조성된 정세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고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세계인민들이 결코 편안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결정적으로 없애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요, 《협조》요 하는것은 환상을 조성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것이다. 이것은 반제혁명력량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랭전인것이다. 그러므로 싸우는 인민들은 언제나 확고한 반제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술책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면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대하여 경각성있게 대할수 없으며 그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튼튼히 고수할수 없고 제국주의의 략탈과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다.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면 견결한 반제반미적립장을 견지할수 없으며 민족적자주권을 고수할수 없고 재난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반제반미투쟁에서 모든 반제력량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은 그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제국주의세력이 국제적으로 련합되여있는 오늘 모든 싸우는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합하는것은 반제투쟁의 중요한 전략적요구로 된다.

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긴밀한 뉴대는 반제혁명력량을 몇배, 몇십배로 강화할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국제반동들의 련합을 성과적으로 격파하는 불패의 힘으로 될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반제력량은 단합된 력량으로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야 한다.

높은 계급적의식과 혁명적립장을 지

니는것은 계급적원쑤들과의 첨예한 투쟁에서 그 승리를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계급적성격을 띤다. 현시대에 벌어지고있는 모든 혁명투쟁은 온갖 착취제도와 억압제도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근로대중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략탈하는 자본가계급, 제국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인민들의 혁명위업을 말살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조건에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언제나 높은 반제계급의식과 혁명적원칙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오직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높은 적개심과 계급적립장을 지녀야 혁명을 끝까지 할수 있으며 치렬한 계급투쟁에서 동요없이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확고히 이룩할수 있다.

반제계급의식과 혁명적원칙을 지키는것은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있고 또 계급적원쑤들의 반공전쟁소동이 날로 강화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금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은 이른바 랑군사건이라는 자작극을 조작한후 우리를 걸고들면서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더욱더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잠시도 계급적각성을 늦출수 없으며 언제나 높은 계급적 립장과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한다.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은 오늘 저들의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과 반동통치제도를 미화분식하고 우리의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높은 대외적권위를 헐뜯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다.

우리는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의 반공, 반공화국 소동의 정체를 날날이 폭로함으로써 놈들의 흉악한 책동을 철저히 파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을 깊이있고 실속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높은 계급적각성과 혁명적원칙성을 가지고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욱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미제와 일본반동, 남조선괴뢰도당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다그쳐나갈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며 혁명적의지이다.

반공은 연명책으로 될수 없다

한 성 률

최근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광란적인 반공소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반공〉은 인민들을 탄압하며 정치적반대파를 제거하는것으로부터 전쟁소동을 일으키며 동족상쟁을 고취하는데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의 약〉으로 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0권, 452페지)

미제의 철저한 주구이며 군사깡패인 전두환역도는 남조선력대의 그 어느 괴뢰보다도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극악한 반공광신자이다.

전두환도당은 괴뢰정권의 우두머리자리에 들어앉은 첫날부터 반공에 미친듯이 열을 올리면서 온갖 매국배족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여왔다.

특히 지난해 가을에 있은 랑군폭발사건을 계기로 남조선괴뢰도당의 반공, 반공화국 소동은 더욱 광란성을 띠고 벌어지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제놈들이 랑군폭발사건이라는 모략적인 자작극을 꾸며놓고는 그것을 공화국북반부와 억지로 관련시키면서 우리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중상을 일삼고있다. 놈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남조선에서 《비상경계령》을 선포하고 남조선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여 그 무슨 《규탄대회》니, 《반공궐기대회》니 하는 광대놀음을 련이어 벌려놓는 한편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반공, 반공화국 소동에 그처럼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파멸에 직면한 저들의 위기의식의 반영이며 림종을 앞둔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반공소동을 더욱 우심하게 벌리는것은 무엇보다도 반미자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막고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제놈들의 군사파쑈통치를 어떻게 하나 부지해보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원래 군사파쑈독재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의거하고있는 마지막통치수법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저들의 반인민적통치가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더는 유지할수 없게 될 때마다 이 최후발악적인 통치수법을 쓰고있다.

미제의 총칼에 의하여 조작되고 부지되고있는 남조선괴뢰도당의 식민지파쑈통치는 그 전형적인 실례이다.

전두환역도는 남조선에서 극악한 군사파쑈독재를 세우고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지탱하기 위하여 온갖 악랄한 책동을 다하여왔다.

전두환역도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해보려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수많은 파쑈악법들을 개악, 조작하고 《국가안전기획부》를 비롯한 폭압기구와 폭압력량을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었으며 온 남녘땅을 살기어린 감옥으로 전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군사파쑈독재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얼음장밑에서도 강물은 흐르기 마련이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다.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폭압소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조건에

서도 인민들의 반미투쟁과 반파쑈민주화투쟁이 더욱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최근년간 부산과 대구에서 있은 《미국문화원》방화 및 폭파투쟁, 레간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는 투쟁을 비롯하여 남조선도처에서 벌어지고있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미투쟁과 반파쑈민주화투쟁은 그 뚜렷한 실례들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조직화되고 적극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극도로 격화되고 식민지군사파쑈통치체제가 심히 뒤흔들림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지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억누르고 그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보려고 광란적인 반공, 반공화국 소동에 더욱 매달리고있는것이다. 놈들은 반공을 구실로 남조선에서 저들의 정치적반대파를 탄압하고 애국적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억누름으로써 심각한 위기에 빠진 저들의 파쑈통치체제를 강화해보려고 꾀하고있다.

미제의 비호밑에 전두환역도가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반공, 반공화국 소동은 결국 제무덤을 파는 결과만을 가져올뿐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반공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또한 그것을 구실로 미일상전의 더욱 적극적인 비호를 받아 제놈들의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길러낸 괴뢰들이 인민들의 배격을 받고 궁지에 빠지면 빠질수록 상전의 비호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보려고 미쳐날뛰는것은 놈들의 더러운 습성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전두환괴뢰도당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전례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남조선의 경제만 놓고보더라도 남조선괴뢰도당이 실시해온 매국배족적전책의 후과로 하여 일찌기 없었던 만성적인 경제적파국상태에 처하여있다. 물건값은 날마다 치달아오르고 연료 및 원료, 자재는 바닥이 드러나 공장들이 련달아 문을 닫거나 조업을 줄이고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처지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사회적불안과 정치적불안정을 증대시키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반미, 반파쑈민주화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남조선괴뢰군내부에서도 알륵과 대립이 격화되고있으며 지어 괴뢰《상층부》내에서 전두환괴뢰도당을 반대하는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비호가 없이는 사실상 하루도 지탱해나가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전두환괴뢰도당은 반공소동을 더욱 강화하는것으로써 미제와 일본반동들로부터 더 적극적인 비호를 받아 제놈들의 위기를 수습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이로부터 남조선괴뢰도당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을 떠들어대면서 조선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합리화하고있을뿐아니라 더 많은 미제침략무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기 위한 책동을 벌리고있다. 놈들은 또한 반공의 간판밑에 미제의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원조》를 애걸하면서 미국의 독점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남조선경제명맥을 송두리채 팔아넘기고있다.

이와 함께 전두환역적은 미제침략자들로부터 현대적인 살인무기와 군사장비를 더 많이 넘겨받아 남조선괴뢰군무력을 증강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지난해 11월 전두환괴뢰도당이 미제의 우두머리 레간과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이란자를 서울에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남조선괴뢰군의 현대화를 도와줄것과 쌍무적군사련계를 더욱 확대할것을 애걸해나선 사실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미

제전쟁광들의 남조선행각후 미제와 일본반동, 남조선괴뢰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은 더욱 다그쳐지고있다.

지어 남조선괴뢰도당은 반공의 간판밑에 근 반세기동안이나 우리 인민에게 노예생활을 강요해온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놈들과 정치, 경제, 군사적 결탁을 더욱 강화하는 매국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이러한 책동들은 남조선괴뢰도당이 반공의 간판을 걸고 제놈들의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온갖 매국배족적죄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광란적인 반공, 반공화국 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것은 또한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데 있다.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이며 미룰수 없는 당면과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조선인민자신의 내부문제로서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주체적힘에 의하여 실현되여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도당은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인 나라의 자주적통일에 외세의존적인 《반공통일》을 대치시키고있다.

반공은 조국통일과 량립될수 없다. 통일문제해결에서 《반공통일》을 웨치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시키며 민족적대단결이 아니라 대결을 고취하고 통일이 아니라 분렬을 영구화하려는것이다.

조국통일위업은 조선의 북과 남에 각이한 제도가 있는 객관적정세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도를 통하여 이룩되여야 한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적이며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여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남조선에서는 미제에 의하여 식민지통치가 강요되고있고 미제의 앞잡이인 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책동이 감행되고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나라 북과 남의 판이한 현실이다.

그렇기때문에 민족주체적힘에 의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여야 하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 방안은 조선의 현실과 조국통일을 념원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가장 정당한 통일방안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전체 조선인민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다.

이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전두환괴뢰도당은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벌림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 통일이 이룩되지 못한것이 마치 북의 공산주의자들때문인것처럼 파렴치하게 사실을 외곡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놈들은 저들의 범죄행위를 가리우고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합리화해보려 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추악한 반공소동으로써는 결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을수 없다.

이처럼 남조선괴뢰도당은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벌리는것으로써 외세에 나라를 팔고 민족의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범죄적행위를 합리화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매국역적 전두환괴뢰도당이 아무리 광란적인 반공소동을 벌려도 그것으로써는 제놈들의 범죄적인 정체를 가리울수 없으며 더러운 운명을 구원할수

없다.

반공은 결코 연명책으로 될수 없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강화하면 할수록 놈들은 더욱더 심각한 멸망의 위기에 깊이 빠지게 될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공광신자들이 멸망하는것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력사가 증명해주는 엄연한 사실이다.

공산주의는 모든 인민들에게 온갖 예속과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새 사회, 새세계를 건설하는 길을 밝혀주는 인류해방의 기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류의 광명한 미래이며 모든 민족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공산주의는 지난 백수십년동안 자본의 예속과 착취를 반대하고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들의 불패의 사상적무기로 되였으며 그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확고한 지향으로 되고있다.

지금까지 반동통치배들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않은자들이란 없었으나 그 어떤 악랄한자들도 공산주의를 소멸하지 못하였다.

공산주의사상과 공산주의운동이 발생한이래 사회발전법칙을 거역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던 반공광신자들은 제놈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례외없이 파멸을 당하고말았다.

제2차세계대전을 도발하였다가 멸망한 반공파쑈분자들의 말로가 그것을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아세아에서 강도 일제는 반공의 간판밑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온갖 범죄적행위를 감행하였고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압살하고 대륙침략을 위하여 피눈이 되여 책동하였으나 결국 패망하고말았다.

구라파에서 지난날 파쑈독일과 이딸리아의 전쟁광신자들이 역시 반공을 부르짖으면서 인민들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씌웠으나 차례진것은 멸망뿐이였다.

반공의 간판밑에 매국배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미제의 앞잡이였던 웰남의 티우도당, 니까라과의 소모사도당의 운명도 바로 그러하였다.

남조선에서 반공을 들고나온 력대괴뢰들의 운명도 달리되지 않았다. 지난날 남조선에서 반공을 업으로 삼았던 만고역적 리승만이나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던 박정희군사깡패가 다 수치스러운 종말을 고하고말았다.

오늘 전두환역적이 바로 선행한 파쑈분자들의 반공나발을 되풀이하면서 더러운 전철을 밟고있으나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다.

전두환괴뢰도당이 선행괴뢰들이 겪은 비참한 운명에서 교훈을 찾지 않고 반공소동에 매달리고있지만 놈들은 발악할수록 멸망의 길로 깊이 빠져들어가고있으며 결국은 력사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반공은 곧 멸망의 대명사이다.

반공을 부르짖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수치스러운 멸망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

남조선괴뢰들은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며 현실을 똑똑히 보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할것이다.

인민들은 광란적인 반공, 반공화국소동을 벌리면서 매국배족과 민족의 영구분렬책동을 일삼고있는 남조선괴뢰도당에게 종국적인 멸망을 안기고야말것이다.

부르죠아인간철학의 반동적본질

김 주 철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자들은 부르죠아반동사상을 널리 부식시켜 죽어가는 자본주의제도를 미화분식하며 인민들속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현대부르죠아인간철학은 각종 부르죠아사상의 반동적 세계관과 방법론의 기초로서 인민들의 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도구의 하나이다.

현대부르죠아인간철학은 사람들에게 비관과 염세, 속물적인 쾌락과 패덕을 설교하는 부르죠아인생철학이며 멸망에 직면한 독점자본에 복무하고있는 반동적인 어용철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반동적사상은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들을 정치적불구자로 만드는 도구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4권, 172페지)

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락시키고 정치도덕적으로 불구자로 만들고있는 현대부르죠아인간철학은 반동적인 부르죠아철학발전의 필연적산물이다.

원래 인간철학은 발생한지도 오래고 또 여러가지 류파가 있었다.

일찌기 고대에 발생한 인간철학은 력사발전의 매 단계와 시대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것들은 어느것이나 다 철학의 본래의 사명을 부인하고 순수 인간문제를 론의대상으로 삼고있었던 인생철학이였다.

자본주의발생초기의 철학조류들은 저마다 인간문제를 론의하면서 신흥부르죠아계급에 복무하였다. 19세기중엽에 포이에르바하는 사람에 대한 허황한 종교적견해와 대치되는 인간학적유물론을 내놓았으며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을 자연과 사회로부터 분리된 고독한 《자아》로 보는 비관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주관관념론적인 인간철학을 설교하였다.

이러한 인간철학들은 사상리론적 및 계급적 제한성으로 하여 널리 전파될수 없었다.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면서 부르죠아인간철학은 그 반동성과 허황성이 증대되였으며 독점자본의 주되는 어용철학으로 전락되게 되였다.

그것은 부르죠아인간철학이 그 어떤 철학조류보다도 죽어가는 제국주의를 미화분식하고 근로대중을 사상정신적, 정치적 불구자로 만들데 대한 독점자본의 요구에 더 잘 순응해나섰기때문이다. 그리고 부르죠아어용철학자들이 사회혁명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로 제기하고있는 인간문제를 해명할데 대한 시대적요구에 편승하여 저마다 순수 인생문제만 론의하는데로 《방향전환》을 한것과 관련되여있다.

20세기초만 하여도 부르죠아반동철학자들은 물리학에서의 전자와 방사능의 발견이 마치도 《물리학의 위기》와 《유물론의 붕괴》를 초래한듯이 외곡하면서 인식론만을 론의하는데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그자들은 마하주의, 《경험비판론》과 같은 각종 주관관념론을 조작하여 유물론적세계관에 도전해나섰다.

이러한 주관관념론적인식론의 비과학성과 반동성이 날날이 폭로되자 부르죠아철학조류들은 인식론으로부터 순수 인생문제만 론의하는 인간철학에로 또다시 《방향전환》을 하였으며 1920년대에 이르러 부르죠아인간철학은 철학계에서 주되는 조류로 등장하게 되였다.

미국에서 발생한 실용주의는 인간이 보다 《유익하게 사는 방법》과 《처세

술》과 같은 인생문제를 주로 론의하는 이른바 《인본주의》로 전락되였다. 《생의 철학》과 프로이드주의는 인간의 생물학적본능을 절대화하면서 본능적인 충동과 야수적인 행동을 고취하고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는 인생관을 설교해나섰다. 실존주의도 사람들에게 불안과 절망, 극단한 개인주의를 더욱 집요하게 고취하는데로 나아갔다.

1920년대후반기에는 《철학적인간학》이라는 새 간판을 든 철학조류가 나타났다. 이 철학조류들은 인간이란 우주만물이 가지고있는 속성들을 다 구비하고있는 존재라고 하면서 《인간의 구조》와 우주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밝히는것이 철학의 사명이며 인간에 관한 개별과학의 성과를 일반화하는것이 철학의 목적이라고 설교해나섰다.

이러한 부르죠아인간철학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악랄한 식민지정책과 야수적인 침략전쟁, 인종말살정책과 인간살륙만행을 정당화하고 례찬하는 반동적역할을 담당수행하였다.

1950년대에 이르러 부르죠아철학조류들은 철학상의 모든 문제들을 인간문제에 귀착시키면서 철학을 극단적으로 《인간학》화하는데 몰두하였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철학계의 이러한 경향이 전염병처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부문에까지 만연되고있으며 지어 종교적신학들도 《인간학》화하는데로 나가고있다. 지금 자본주의나라 학계는 사회학적인간학, 교육학적인간학, 생물학적인간학, 기독교적인간학 등 형형색색의 외피를 쓴 인간학에 의하여 인간학의 《전시장》을 이루고 있다.

현대부르죠아인간철학이란 이처럼 조류와 론조가 잡다한것이다.

현대부르죠아인간철학은 그 리론적원천과 내용으로 보아 지난날의 각종 부르죠아인생철학들의 현대판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현대부르죠아인간철학이 그 조류와 론조가 잡다한것은 결코 그것들의 사상리론적《풍부성》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의 사상리론적혼란상태를 말해주는것이다.

그것은 《철학적인간학》의 대표자인 브룽닝이 《오늘 인간에 관한 여러가지 리론들이 대립되고있는데 이것들을 통일시켜 단일한 리론을 만드는것은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있다.》고 개탄하고있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 학계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는 인간철학은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의 필연적산물이며 과멸에 대한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있는 자본가계급의 정신심리상태를 반영한것이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인간문제를 전면적으로 외곡하여 반동적인생관과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부식시켜 자본주의제도를 합리화하며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타락시키고 정신적불구자로 만들려는 철두철미 독점자본에 복무하는 어용철학이다.

현대부르죠아인간철학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관념론적인 견해에 기초하여 부패타락한 인생관만을 설교하고있는 반동철학이다.

현대부르죠아인간철학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주위세계로부터 고립된 고독한 존재이고 세계를 인식할수도 없고 변혁할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떠벌이면서 인민대중에게 비관주의와 염세주의,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고취하는 인생관을 설교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현대부르죠아인간철학의 대표적인 조류의 하나인 실존주의는 사람의 본질이란 자연과 사회와 같은 외적인것에 기초하여 규정할수 없고 오직 인간자체에서, 인간의 정신적인 내면세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실존주의자들은 사람의 본질이란 바로 자기자신을 자각하고 체험할수 있는 《순수 주관》, 《순수 자기의식》이라고 하면서 《본래의 인간》, 《실존》은 자기가 죽음에로 접근하고있는 존재라는것

을 자각하고 주위세계와 고립되여 불안과 공포, 고독과 비애에 휘싸여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인간밖에 있는 자연과 사회와 같은 외적인것을 인식하고 그와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것은 《본래의 인간》과 관련이 없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활이라고 떠들고있다.

사람의 본질을 외곡하는 실존주의자들은 사회와 대중이란 사랑과 우정, 량심과 자유와 같은 《순수 인간적인것》을 부정하고있는 인간에게 적대적이고 외적인것이라고 줴치고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참된 《자유》와 《행복》은 애국주의와 로동과 같은 사회적 또는 대중적인 생활과 행동에서는 찾을수 없으며 오직 《본래의 인간》을 파악하거나 《죽음의 자유》가운데서 찾아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실존주의는 이처럼 주위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거부하면서 비애와 염세적인 정신생활에 몰몰하는 생활방식이 바로 인간의 참된 삶이라고 설교하고있는 반동적인 인생철학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그러므로 서부독일의 부르죠아철학자 슈나이더까지도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을 고립시키고있으며 인간을 자신의 〈세계〉에 폐쇄시키려고 하고있다. 이처럼 자기의 본질적속성들을 잃고 자기자신에만 몰몰하고있는 인간이 현실적이고 력사적인 인간이라고 할수 있겠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있다.

실존주의적인생철학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겪고있는 근로대중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자본주의제도자체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자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설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전망과 리상을 잃고 비애와 절망, 타락과 방종에 빠져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지 못하게 하고있는 반동적인 사상독소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죽음과 야수성, 인간증오사상을 설교하고 극단한 개인주의와 패륜패덕을 고취하고있는 악독한 인생철학이다.

실존주의는 바로 이러한 반동성으로 하여 오늘날에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정책과 신식민주의적략탈정책을 합리화하고 고취하고있는 반동적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다.

실존주의는 철학의 외피를 쓰고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존엄을 짓밟고 썩어빠진 자본주의제도를 비호하면서 인민들을 사상정신적불구자로 만들고있는 말세기적인 부르죠아반동사상인것이다.

지금 이러한 반동적인 사상독소는 지난날처럼 까다로운 철학적궤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절망적인 《인류위기설》에 의하여 자본주의세계에 널리 부식되고 있다.

비관주의적인 실존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인류위기설》은 이딸리아의 기업가 페체이를 대표자로 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의 반동적인 정치인과 학자들의 집단인 《로마클럽》에 의하여 자본주의세계에 류포되고있다.

이 《클럽》의 성원들은 오늘 인류는 《핵전쟁위기》와 《공해로 인한 생태학적위기》, 세계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의한 《식량위기》의 세가지 《위기》로 하여 멸망에 직면하고있다고 설교하면서 인민들에게 불안과 공포, 염세주의와 과학기술을 적대시하는 복고주의 등 반동적사상을 고취하고있다.

그자들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마치도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있는 《위기》의 기본요인이라고 하면서 과학기술과 문명한 생활을 배격하고 발전도상나라들에서의 인구의 증가를 전쟁의 방법으로 억제하여야 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줴치고있다.

《로마클럽》이 설교하고있는 이러한 궤변은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전반적위기를 마치도 인간의 《위기》, 《인류의 위기》인것처럼 외곡하고 확대과장하며 그 요인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과 신식민주의적략탈에서가 아니라 과학기술에서 찾으면서 인민들에게 비관과 절망, 불안과 공포를 조

성하고있는 악랄한 사상독소이다.

《로마클럽》의 반동들이 떠벌이고있는 《위기》는 결코 《피할 길이 없는》 인간과 인류의 《위기》인것이 아니라 썩고 병든 자본주의제도의 위기이며 그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사람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새 사회를 건설하면 능히 극복할수 있는것이다.

실존주의자들은 이렇듯 저들의 별동대인 《로마클럽》까지 동원하여 사람의 본질을 란폭하게 외곡하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반동적인생관을 류포시키면서 자본주의제도를 미화분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는데서 앞장에 서있는 독점자본에 충실한 반동적어용철학자들인것이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외곡하는 현대부르죠아인간철학의 반동성은 또한 사람을 동물과 같이 다만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활동하는 생물학적인 존재로 보면서 사람들에게 극단한 개인주의와 야수성, 패륜패덕을 설교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생의 철학》, 프로이드주의, 《철학적인간학》, 《인간사회생물학》과 같은 현대부르죠아인간철학의 조류들은 황당무계하게도 생물학적본능이 사람의 본질적속성이라고 떠벌이고있다.

사람의 생물학적속성을 절대화하고있는 이러한 반동적인 철학조류들은 까다로운 추상론으로 일관된 주관관념론적부르죠아인간철학의 《인기》가 점차 떨어지고 인간문제를 론의하는것이 하나의 류행으로 되고있는데 편승하여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 널리 류포되고있다.

《생의 철학》은 생명을 보존하려는 《본능적충동》인 《생존의지》와 남을 지배하려는 《권력의지》를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동물처럼 야수적으로 행동하고 생활하여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프로이드주의도 《성적본능》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연의부르짖음에 따라》 부화방탕한 동물적인 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줴치고있으며 실용주의는 사람의 본질은 《소유본능》, 《살해본능》, 《호전본능》이기때문에 극단한 개인주의와 패륜패덕적인 행동은 사람의 본성에 맞는것이라고 합리화하고있다.

사람의 생물학적본능을 부당하게 절대화하고있는 이러한 기성의 부르죠아인간철학조류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인간의 본능적요구를 충족시킬 때에 비로소 《자유》와 《행복》을 누릴수 있으며 그를 억제하는 사회도덕적규범과 륜리를 배격하여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며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존엄과 창조적힘을 가지고있는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생물학적인간철학은 사람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생물학적본능에 귀착시키면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고 어리석게도 사람을 동물의 수준에로 끌어내리고있다.

이것은 사람을 모독하고 사회도덕적기초를 허물며 방탕한 성생활이 범람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와 부르죠아생활양식을 찬양하고있는 반동적인 사상독소이다.

생물학적인간철학은 또한 잔인성과 야수성을 고취함으로써 자본주의제도하에서 성행하고있는 인간증오사상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온갖 범죄적인 폭력행위를 합리화하고있는 극도의 반동적인 철학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부르죠아인간철학들은 지난날에는 파시즘의 사상적도구로 복무하였으며 오늘에도 죽어가는 자본주의제도를 미화분식하고 침략과 략탈정책을 합리화하는 독점자본의 어용철학으로 되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철학적인간학》과 《인간사회생물학》과 같은 괴이한 생물학적인간철학들이 새로운 탈을 쓰고 류포되고있다.

지금 《철학적인간학》자들은 사람이란 맹수처럼 발전된 감각기관과 육체적구

조를 갖추지 못한 《미발달한 존재》라고 떠벌이고있다.

그자들은 로동, 언어, 사유와 같은 인간의 사회적속성들이 마치도 사람의 《생물학적구조의 불완전성》에 의하여 발생된것이라고 외곡하면서 《인간활동의 법칙》들은 응당 사람의 생물학적구조의 《불완전성》과 생물학적방법론에 기초하여 론의되여야 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설교하고있다.

《인간사회생물학》의 주장자들은 사람에 관한 철학적, 개별과학적 문제들은 동물의 생태와 유전자를 《정밀하게》 연구하면 해명할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 사회학을 《진화생물학의 한 분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지어 프랑스의 철학자 쇼샤르는 사람의 생물학적속성을 변화시킬수 없다고 하면서 인간의 육성문제를 반대하고 교육과 도덕의 계급적성격을 부정하며 성생활을 자유화하는 《생물학적도덕》을 만들어야 한다는 패덕적인 소리를 줴치고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간철학자들의 궤변이 얼마나 해독적영향을 미치고있는가 하는것은 반동적인 인간유전학자들과 유전자공학자들이 인류를 《표준화된 천재》(지배자)와 그에 순종하는 노예로 개량할데 대한 범죄적인 《구상》을 내놓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생물학적인간철학자들의 궤변들은 생물학적법칙에 기초하여 인간문제를 설명하고 약육강식의 《승냥이 법칙》과 패륜패덕이 지배하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고있는 말세기적인 반동적사상독소이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현대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어용철학인 부르죠아인간철학을 자기 나라와 발전도상나라들에 부식시키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부르죠아인간철학은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가장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황당한 궤변이다. 현대부르죠아인간철학은 결코 제국주의를 미화분식할수 없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근로자 1984년 제1호(루계501호)

편 집 위 원 회

편집•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4년 1월 1일 발 행•1984년 1월 5일

ㄱ—35140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50전

(정기간행물번호
제1 3 2 0 6 호)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2호

평 양 근로자사 1984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 호(502)

차 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당의 공산주의건설강령

공산주의사회건설은 인류의 세기적념원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오늘에 와서 공산주의는 먼 앞날의 숙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로 력사의 일정에 오르게 되였다.

새로운 력사적시대는 새로운 투쟁강령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구현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대한 공산주의건설강령으로 내세우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진두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제시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키며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광활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힘차게 걸어왔으며 또 걷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년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기적적성과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의 위대성을 남김없이 보여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여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공산주의건설강령이다.》

공산주의는 인류의 최고리상이며 그 승리는 력사의 필연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공산주의사회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무엇보다도 인류해방투쟁의 최종목적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위대한 강령이다.

사회력사발전의 추이와 그 합법칙성을 구현하여 인류최고리상사회건설의 목표를 가장 뚜렷이 밝혀주는 강령만이 참다운 공산주의강령으로 될수 있다.

인류사회의 발전력사는 세대에 세대를 이어 련속되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굽임없이 벌려왔다. 강대한 노예소유자국가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던 노예폭동도, 적수공권으로 무장한 봉건통치배들을 질겁케 하였던 농민봉기도, 낡고 썩어빠진 자본주의제

도를 청산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제국주의식민지체계를 폭파하는 피압박민족들의 과감한 투쟁도 다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기 위하여 벌린 투쟁이였다. 이러한 투쟁들에 의하여 인류력사는 근로인민대중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한걸음한걸음 전진할수 있었으며 마침내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통하여 그 종국적인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인류사회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에 의한 계급의 압박, 국가에 의한 국가의 지배를 영영 끝장내며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을 청산하고 그 구속에서 사람들을 종국적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렇듯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과업은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한 다음 순차적으로 제기되는 인간해방위업을 완성할 때 비로소 완수되게 된다.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련속적인 과정으로, 그 합법칙적인 로정으로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공산주의건설이 다름아닌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 인간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합법칙성에 맞게 그 완성의 전망을 명백히 펼쳐준다. 이리하여 공산주의건설위업이 인류해방투쟁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목적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으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공산주의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또한 사람과 사회, 자연을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은 혁명적강령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궁극적목적뿐아니라 그 실현방도까지도 밝혀주는 투쟁강령만이 진정한 공산주의건설강령으로 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공산주의건설의 최종목표와 그 실현방도를 다같이 천명한 투쟁강령을 가져야 어렵고 복잡한 인류해방투쟁을 아무런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하는 투쟁, 사람과 그의 생활환경을 혁명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투쟁이다.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이며 사회생활의 물질적수요가 원만히 보장되는 매우 풍요한 사회이다. 그러므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모든 령역에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진행되여야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될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위대한 공산주의건설위업이다.

공산주의위업, 인간해방위업은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자주성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을 지침으로 함으로써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자주성을 실현할데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절실한 요구와 지향을 과학으로 전환시킨 혁명의 지도사상이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명시한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혁명대오와

전당, 온 사회를 일색화하여온 우리 인민의 장엄한 력사적진군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해서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그 어떤 가시덤불길도 헤치고 승승장구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처음으로 공산주의사회의 인간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장 높이 체현한 사회적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이라는것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건전한 문화를 소유하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자주적인 존재로서 참답게 살며 활동할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물질생활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야 사람을 구속하여온 생활환경이 더욱더 인간의 지배와 통제 밑에 들어오게 된다.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풀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원칙적문제이다. 력사적경험은 이 문제를 옳게 풀지 못할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침체와 난관을 피할수 없고 간고한 투쟁으로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튼튼히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인간개조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개조와 자연개조를 밀고나가며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원칙으로 규정하고있다. 주체사상의 기본요구를 구현하여 사회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의 결정적력량인 사람부터 개조하며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에서는 그의 사상을 개조하는데 선차성을 부여하여야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물질문화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긍지높은 변화들은 인간개조, 사상개조를 앞세우면서 사회개조, 자연개조를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간 결과에 이룩된 위대한 전환이다.

이처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요구에 맞게 사람과 사회, 자연을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는것은 가장 정확한 공산주의건설방도로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에 의하여 공산주의건설의 최종목적뿐아니라 그 실현방도까지 명시되였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공산주의에로 확신성있게 향도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진출하여 자기의 투쟁강령을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백수십년이 지나갔지만 공산주의리상사회건설의 길은 뚜렷이 밝혀지지 못하고있었다.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사람과 사회, 자연을 전면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인류해방투쟁력사에서 아직 누구도 실천해보지 못한 창조적사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이 위대한 사업을 수령의 혁명사상이 전사회적규모에서 유일적으로 지배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완성될수 있다는 진리를 천명하고있다. 공산주의건설은 바로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사람과 사회를 일색화하여나가는 력사적과정이며 공산주의사회는 수령의 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사회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마련됨으로써 수많은 선진사상가들이 세기를 두고 탐구하여오던 미래공산주의사회의 면모와 공산주의건설로정이 전면적으로 해명되게 되였으며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더욱 뚜렷한 표상을 가지게 되였다.

참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자주와 창조의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진로를 새롭게

개척하고 인류의 리상을 종국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넓은 전망을 열어놓은 위대한 공산주의건설강령이다.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은 오직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사상과 리론을 창시하고 그것을 구현하여 빛나는 혁명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당과 수령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그것은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84페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숭고한 사업이며 그것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완성될수 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적변혁의 위대한 설계도가 마련되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위훈의 력사가 창조되고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전술과 투쟁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었으며 모든 사업을 이 력사적위업을 수행하는데 집중시키고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을 힘있게 추진시켜왔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기본열쇠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정치적사업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그것은 또한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전혀 생소한 사업이다. 이 거창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혁명의 정치적령도기관인 당을 튼튼히 꾸리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당은 우리 사회의 심장이며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추진력이다.

우리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밑에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당은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갈수 있는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닌 혁명의 참모부로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 당을 통하여 온 사회에 주체형의 피, 주체사상의 영양소가 힘차게 뿜어지게 되였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이 비상히 빨리 다그쳐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규정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 사람을 개조하는 거창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근로자들을 온갖 예속과 구속,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참말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이 력사적위업은 오직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해서만 빛나게 완수된다.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관철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사상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자연개조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

었다.

우리 당은 특히 사상혁명,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데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의 총적임무와 기본내용, 그 형식과 방법을 새롭게 밝히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마스고 사상사업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진행할데 대한 방침, 모든 선전선동수단을 총동원하여 최단기간내에 사상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 사상교양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만들며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 등 우리 당이 제시한 독창적인 방침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세계관을 더욱 튼튼히 세울수 있게 한 위력한 무기로 된다.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을 내세우고 그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개조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과 수령, 혁명을 위하여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의 생애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며 그들을 보람찬 혁명의 길로 힘있게 추동한다.

당의 령도밑에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된 영화실효투쟁은 참다운 주체형의 인간전형의 생동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것을 적극 따라배우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대중교양방법이다. 우리 당이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 《월미도》, 《전환의 해》 등의 주인공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기 위한 실효투쟁을 발기하고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사업태도와 기풍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당은 특히 주체위업의 개척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발휘한 불굴의 혁명정신과 그를 이어받은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고있다.

지난날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 조선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용감히 싸웠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배출되였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그 불굴의 혁명정신이 80년대에 이른 오늘 수천수만의 사람들의 심장속에 그대로 이어지고 참다운 생활과 투쟁의 신념으로 되고있으며 사람마다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본받아 충성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나가는 보람찬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이처럼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에 따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이 심화되여온 과정은 낡은 사상 요소들이 극복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형의 혁명가의 숭고한 풍모가 완성되여나가는 과정이였다.

우리 당은 또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그것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적극 다그쳐나가고있다.

대중운동은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은 가장 심오하고 폭넓은 사회개조사업이며 인간개조사업인것만큼 광범한 대중의 자각적이며 적극적인 참가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투쟁목표로 제기하고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적진군운동이다. 또한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기세와 그 기백으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대진군운동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여 힘있게 진행됨으로써 인간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이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 당의 령도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거창한 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그 종국적완성을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우리 당이 진두에서 이끎으로 하여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람과 사회, 자연을 개조하는 그처럼 심오하고 폭넓은 사업에서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성과가 이룩될수 있었으며 세기적위훈의 새 력사가 창조될수 있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주체적인 공산주의적인간개조방침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생활의 매 순간을 충성으로 수놓아가고있는 자랑스러운 현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보람찬 진군길에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풍모가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도 위대한 변혁이 이룩되였다.

속도전의 힘찬 진군속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는 비상히 빨리 발전하였으며 그 자립성과 주체성이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의 경제는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당의 독창적인 교육 및 문학예술 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문학예술분야에서 인류문화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현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대한 공산주의건설강령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공산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향도따라 억세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앞에는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없으며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령도

리 찬 선

당사상사업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당사업의 기본분야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고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사상사업을 어떤 위치에 놓고 어떻게 벌려나가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당사상사업을 당내부사업의 유기적인 구성부분으로 규정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사상사업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 사상사업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강화발전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당사상사업의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당의 총적임무에 맞게 그것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사상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였다.

오늘 당사상사업이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위력한 수단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에로 떠밀어나가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상사업방침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 *

당사상사업은 당건설위업과 당의 총적임무를 실현하기 위한 당사업의 필수적구성부분이며 힘있는 수단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고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당사상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이 성숙된 과업으로 나서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사상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당의 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상사업은 철두철미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복종되고 그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발전하는 현실과 공산주의적인간개조의 합법칙성에 맞게 통이 크고 참신하게 그리고 폭넓고 깊이있게 전투적으로 조직전개되고있다. 바로 이것이 현시기 우리 당 사상사업의 참다운 모습이며 근본특징이다.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바탕에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밝힌 사상사업방침이 놓여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에 맞게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와 사명, 사상교양사업의 내용을 독창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사상사업 체계와 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고 혁신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내놓

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사상혁명수행에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기본과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모든 사회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교양개조하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것이다.》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와 사명을 옳게 규정하고 사상교양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사상사업전반을 당과 혁명 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사상사업의 기본임무로 제기하고 사람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것을 사상사업의 기본사명으로 규정하였다.

우리 당은 사상사업의 기본임무와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주체사상교양,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혁명전통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육성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사상교양사업의 기본내용과 원칙적요구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우리 당은 이와 함께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음으로써 당사상사업이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적극적으로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주었다.

모든 사상사업을 철두철미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진행해나가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이 천명한 독창적인 사상사업방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방침은 모든 사상사업을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조직하고 집행하며 전당에 우리 당중앙이 내놓은 사상사업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도록 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울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이 내놓은 사상사업방침들에는 모든 사상사업을 명실공히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확고히 전환시킬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과 의도가 관통되여있으며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형식주의를 뿌리빼고 사상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의지가 담겨져있다. 또한 이 독창적인 방침들에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이 주어져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사상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하는 참다운 방식이 집대성되여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이 밝힌 모든 혁명적방침들은 당사상사업에 훌륭히 구현되여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로정에는 당중앙의 위대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이 아로새겨져있다.

우리 당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해나가는 사람의 위력은 사상의 위력이며 따라서 사람들의 사상이 발동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사상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상교양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왔다.

당사상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는 사상사업의 전모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모든 사상사업을 사람과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실현에 철저히 복무하게 함으로써 당사상사업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벌려나갈수 있게 하였다.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대를 이어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기 위한 혁명적립장에서 사상사업전반을 조직령도한것이다.

수령과 그 위업에 대한 충실성을 당 사상사업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최대의 사명이며 당건설과 당활동의 총적목표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이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혁명적립장에서 조직전개하는것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첫째가는 요구로, 제일생명으로 된다.

주체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우리 당은 모든 사상사업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실현에 복종시켜 조직진행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우리 당은 사상사업의 기본임무와 사명으로부터 사상교양사업의 구체적내용과 원칙에 이르기까지 사상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고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적립장에서 풀어나갔으며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을 계승발전시켜 사상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혁통을 이어나가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당사상사업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 복종시켜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사상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원리와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한것이다.

사상사업에서 주체사상의 원리와 원칙을 구현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 사상사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모든 사상사업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개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당은 사상사업의 모든 내용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사상사업의 모든 형식과 방법을 우리 식대로 전개해나가도록 하였다.

당사상사업에서 주체사상의 원리와 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도록 이끌어준것은 모든 사상사업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우러러모시고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복종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의 집중적발현으로 된다.

우리 당의 이렇듯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당사상사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주체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구현해나가는 위대한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으며 수령을 옹호보위하고 수령의 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혁명적립장에서 당 사상사업을 벌려나가는 불멸의 력사, 위대한 전통이 창조되게 되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사상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사상사업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 위대한 령도로 빛나고있는것이다.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모든 사상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려나가도록 조직령도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치사업은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합니다. 정치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illegible]

결하는데 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72페지)

사상사업과 혁명실천을 밀착시키는것은 당사상사업의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요구이다.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사명의 하나는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불러일으키는데 있다.

특히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것은 집권당의 사상사업에서 나서는 기본임무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마땅히 사상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혁명실천과 밀착시켜야 하며 모든 사상사업이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경제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데서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을 과학적으로 통찰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곧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이며 당정책은 대중에게 파악되여야 현실에 구현되여 풍만한 열매를 맺을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언제나 일군들과 생산자대중 속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침투시키는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당경제정책선전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경제정책의 진수와 기본내용, 그 수행방도를 리치적으로 알려주는것과 함께 그들이 사상적으로 발동되여 자각적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영웅주의를 낳게 하는 원천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있다는것을 밝히고 그것이 경제과업수행에서 높이 발양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이 창조한 독창적인 경제선동은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강유력한 수단으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

우리 당은 김철의 강철전사들과 검덕의 영웅광부들을 비롯한 온 나라의 로동계급속에 강력한 선동 력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집중적인 선동공세를 들이댐으로써 경제선동을 통한 사상사업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생동한 본보기가 마련되고 귀중한 경험이 이룩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과 기술혁명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새로운 환경에 맞게 모든 일군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그들이 선진과학기술로 무장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당사상사업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복무하도록 이끌어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당사상사업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혁명실천과 결합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추동력으로 되게 되였으며 모든 사상사업이 약동하는 현실속에서 생기발랄하고 참신하게 벌어지게 되였다. 당사상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가 그렇듯 위대한 령도로 빛나고있는 주되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상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없애고 참신하고 전투성이 보장되도록 조직령도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는 형식주의가 없어지고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99페지)

당사상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고도의 창조적인 사업이며 온갖 낡고 반동적인 사상을 청산하는 사상분야에서의 치렬한 계급투쟁이다. 그것은 또한 각이한 사상의식수준을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일하고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형식주의와 낡은 틀은 사상사업에서 금물이다.

더우기 우리 당안에는 지난 기간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사상사업분야에 형식주의가 오래동안 남아있었던 조건에서 그것을 철저히 뿌리빼는것은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사상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형식주의, 도식주의를 없애는 문제를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관건적문제로 제기하고 여기에 투쟁의 예봉을 돌렸으며 선전선동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전투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은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격식과 틀이 없이 선전도 하고 선동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정치사상사업이 생산자대중이 일하고 생활하는곳에서 생동하고 참신하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그것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사상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모든 일을 통이 크게 벌리고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일본새이다.

우리 당은 사상사업을 하나 설계하여도 전당과 전국이 들끓게 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 1974년의 《70일전투》와 공화국창건 30돐을 맞으면서 진행한 《100일전투》 그리고 당 제6차대회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돐을 앞두고 벌린 충성의 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조직지휘한 대규모정치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타게 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전에 없던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사상전을 틀어쥐고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의 방법으로 사상사업을 벌려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사상사업전개의 기본방식이다.

우리 당은 사상전을 틀어쥐고 사상분야에서 모든 낡은 요소들을 최단기간내에 뿌리빼기 위한 전격전, 모든 선전선동수단들, 사상사업의 모든 형식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집중적인 사상공세, 혁명의 전진에 제동기를 거는 주되는 사상적장애물에 집중포화를 들이대여 뿌리빼는 섬멸전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상사업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이룩하게 하였다.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이 발기하고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한 영화실효투쟁이다.

영화실효투쟁은 영화를 통하여 사람들을 당의 사상과 의도로 무장시키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사상사업방법이다.

영화실효투쟁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우리 당 사상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사업태도와 기풍을 개변하는데 훌륭히 복무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과 더욱 밀접히 결부되게 되였다.

우리 당의 이러한 현명한 령도로 하여 당사상사업부문에서 오래동안 내려오던 형식주의, 주관주의, 도식주의가 극복되고 모든 사상사업이 현실에 발을 붙이고 실속있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당사상사업을 전투적으로 패기있게,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전개해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당사상사업은 혁

식주의의 낡은 틀에서 해방하고 사상사업의 현실성과 기동성, 전투성을 최상의 높이에로 끌어올린것은 당사상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참으로 당사상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강화발전시켜온 우리 당의 령도의 전로정은 모든 사상사업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킨 영광의 로정이며 당사상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혁명적으로 벌려나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불멸의 로정이다. 바로 여기에 당사상사업을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려세운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과 근본특징이 있다.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온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나고있는 혁명적전변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상사업이 개선강화된 결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났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의리로 간직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게 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상의지의 통일체로,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충성의 대오로 전변된 자랑찬 현실은 당사상사업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전환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당사상사업에서 일어난 혁명적인 전환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한 요인으로 되였다.

당사상사업이 개선강화된 결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는 전례없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오늘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실효투쟁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위력의 발현이며 사회와 자연과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창조적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추동력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숨쉬고 사고하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것, 바로 이것이 당사상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우리 인민의 생활방식이며 우리 사회의 참다운 면모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따라 자신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

최 장 룡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상교양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의 력사에서 지난 10년간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밑에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커다란 성과와 불멸의 업적이 이룩된 자랑찬 행로로 빛나고있다.

당의 옳바른 지도밑에 사상교양사업이 새로운 높이에서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어진 결과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온 사회에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적열정이 차넘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현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 *

사상사업은 로동계급의 당의 기본사업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야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사상사업의 기본임무와 내용, 방법을 정확히 규정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어렵고 복잡한 인간개조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제시한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간개조를 위한 가장 옳바른 사상교양방침들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우리 당의 인간개조방침의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사상사업에서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것을 첫자리에 놓고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에 주되는 화력을 집중하도록 한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것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였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63페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람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것이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워야 그들의 역할을 높여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으며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것을 당사상교양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으며 거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것도 사람이며 그것을 관리하고 리용하는 주인도 다름아닌 사람인것만큼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것이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으로 될수는 없는것이다.

인간개조는 그 내용에 있어서 사상개조와 능력개조의 두 측면을 포괄하고있다.

여기에서 어디에 주되는 힘을 돌리는가 하는데 따라 인간개조사업의 성과가 좌우된다.

종래에는 공산주의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은 특정한 분업에 얽매이지 않고 아무 일이나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보았으며 사람의 능력을 담보하는 과학지식을 의식의 기본으로 여겨왔다.

이로부터 공산주의적인간육성에서 사람의 과학지식수준을 높이는것을 기본으로 내세웠다.

공산주의적인간은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높은 수준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이라야 고도로 현대화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으며 공산주의사회의 주인으로서의 확고한 자각을 가지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원칙에서 일하며 생활해나갈수 있다.

사람의 의식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사물현상들의 특징과 운동법칙, 그 리용방도를 반영한 과학지식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의식이다. 사람의 모든 활동은 일정한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행되며 과학지식에 의하여 담보되는 창조적능력은 사상의식의 조절통제밑에 작용한다. 그리고 사상의식에 의하여 사람의 가치가 규정되고 품격이 결정되게 된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활동에서 사상의식의 규제적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사상개조에 기본을 두고 인간개조를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이 인간개조에서 사상의식개조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할수 없고 쓸모없는 정신적불구자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인간개조사업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며 인간개조에서 사상개조에 주되는 힘을 집중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의 정당성의 하나가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의 정당성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튼튼히 세워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사상개조사업에서 기본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상교양사업을 옳

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참다운 공산주의자는 혁명적세계관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사람이다.

우리 당은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지도록 교양하는데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있다.

세계관은 사상의식의 근본바탕을 이루며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 그들의 사고와 행동은 세계관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람들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야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공산주의자의 다른 모든 사상정신적풍모들을 훌륭히 갖추어나갈수 있다.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비롯하여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은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그러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홀시한다면 사람들속에서 그러한 도덕품성을 제대로 키울수 없다. 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야 사람들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도덕품성을 가질수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혁명관은 주체의 혁명관이다.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혁명적수령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다름아닌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한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다.

우리 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유일사상교양,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고 혁명교양, 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을 밀접히 결합하여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을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의 확립정도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충실성교양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안팎이 다름없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세월이 흐를수록 금임없이 두터워지며 순간순간을 충성으로 이어나가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충성심을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은 그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고상한 공산주의적풍모를 지니게 하는 사상교양사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은 주체의 세계관과 혁명적수령관으로 무장할뿐아니라 높은 계급의식과 숭고한 공산주의적풍모를 지닌 인간이다.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은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교양과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을 계급적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혁명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싸워나가는 열렬한 혁명가로,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다.

이처럼 우리 당이 제시한 유일사상교양과 충실성교양, 혁명교양과 공산주의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사상교양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

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를 전면적으로 갖출수 있게 하며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견결한 혁명투사로 키울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사상교양사업으로 된다.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의 정당성은 또한 인간개조과정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사람의 사상의식개조과정은 사람들속에 공산주의사상을 넣어주는 사상교양과정인 동시에 낡은 사상을 뿌리빼는 사상투쟁과정이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사람들의 사상의식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어느 한 면에 치우칠때에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성과적으로 개조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당은 사상의식개조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을 일관한 원칙으로 내세우고있으며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갈수 있는 사상전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였다.

사상전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밀접히 결합하여 인간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위력한 방법이다. 그것은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성과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도록 한다.

사상전의 기본요구는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이다. 사상전을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의 방법으로 벌려나갈때 사상의식개조를 련속적인 과정으로 빨리 다그칠수 있고 사상전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으며 해당 시기 과녁으로 설정된 주되는 낡은 사상 요소를 하나씩 모가 나게 극복할수 있다.

사상교양과 혁명적실천을 밀접히 결합하며 사상교양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것은 사상의식개조의 필수적요구이다.

사람들은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사상의지적으로 단련되며 혁명가의 자질과 품격을 갖추게 된다.

혁명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척도이다. 사람들의 사상상태는 실천투쟁속에서 나타난다. 사상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결합하여 진행하여야 사람들의 사상적병집을 옳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릴수 있다.

사람들은 계급투쟁과 생산실천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예리한 계급적안목과 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투쟁정신을 키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참다운 로동계급의 혁명정신, 혁명적풍모를 지니게 된다.

대중은 사상개조사업의 대상인 동시에 그 주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상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우리 당이 발기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상교양사업을 실천활동, 생산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그것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힘있게 밀고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적 사상개조운동이다. 이 대중적운동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도를 끊임없이 높이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인간개조를 가장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이 키워낸 숨은 영웅들은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이며 그들의 모범은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우리

당은 숨은 영웅들을 내세우고 그들의 숭고한 공산주의적모범을 따라배우도록 적극 이끎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나가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시기 우리 당이 내놓은 영화를 통한 교양사업은 인간개조사업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키고 대중적인 사업으로 심도있게 벌릴수 있게 하는 새로운 교양형식이며 방법이다.

우리 당의 지도밑에 창작된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 《월미도》 등 사상예술성이 높은 예술영화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참다운 교과서이며 힘있는 무기이다. 이러한 영화들을 통한 교양과 실효투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일하고 생활하게 하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훌륭히 본받게 한다.

참으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기본목표로 내세우고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특질 그리고 사상개조의 합법칙성에 맞는 사상교양 내용과 방법으로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 사상사업은 가장 정당한 사상교양사업으로 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산주의적인간개조를 위한 당사상교양사업은 실천투쟁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에서의 성과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새롭게 변모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00페지)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당사상사업이 활발히 벌어진 결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게 되였다.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이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더욱 높아졌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드높은 충성심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확고히 자리잡은 드팀없는 생활의 신조로, 철석같은 마음의 기둥으로 되고있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한별동지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불굴의 혁명투사 김혁, 차광수와 같이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인 진군길에서 우리 당을 영원히 받들어나가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 《80년대의 김혁, 차광수》로 준비되고있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의 높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개변되면 될수록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보다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다져지게 된다.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주체의 세계관과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공고한 통일단결로 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할 굳은 각오로 가득차있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따르며 그야말로 당과 인민이 한덩어리로 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자랑찬 혁명적풍모이다.

당과 인민의 이 불패의 통일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으며 우리 혁명이 주체의 한길을 따라 끊임없이 전진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우리 인민의 일본새와 생활기풍도 몰라보게 달라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시대의 인민답게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그 어느 초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개인의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혁명의 리익,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꾸준히 일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숨은 영웅들이 수많이 나오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대중적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일본새의 숭고한 높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일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며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참다운 일본새로, 생활기풍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이 사상정신도덕적풍모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 이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며 그 불패의 생활력의 힘있는 증시로 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일본새와 생활기풍에서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전례없는 기적과 비약이 창조되고 이 땅우에는 로동당시대를 빛나게 장식하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끊임없이 일떠서고있다.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통하여 대를 이어 길이 전할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이 일떠서고 보통이면 10년이 걸린다던 검덕의 제3선광장공사가 1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게 되였으며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건설공사,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나라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일신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새로운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 확고한 신심을 안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전진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이 자랑찬 성과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우리 당 사상교양방침의 불패의 생활력을 산 현실로 뚜렷이 확증해준다.

우리는 당의 독창적인 사상교양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위한 확고한 담보

안 동 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내놓았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당앞에 나선 숭고한 임무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다그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한편 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가는것이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나갈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을 다그치려면 당사업을 잘하고 그것을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가는 여기에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며 나아가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건설시기 당앞에 나서는 숭고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당활동의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정치사업은 응당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하며 경제사업은 당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219～220폐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한다는것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의 튼튼한 골간으로, 정수분자로 준비시키는 사업과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다같이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당사업이 경제사업과 동떨어진것이 아니라 경제사업을 적극 떠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조직정치사업으로 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방침은 당사업의 목적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당사업의 목적은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당앞에 나선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는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데 있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당사업은 당앞에 중요하게 나서는 사회주의건설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는 어디까지나 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경제건설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자

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경제건설에서의 성과여부는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어떻게 결합시켜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얼마나 실속있게 해나가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보장한다는것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정책을 해설침투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발동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고치도록 떠밀어주고 이끌어준다는것을 말한다.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옳게 보장하지 않고서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일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갈수 없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바로 당내부사업을 실속있게 하면서 경제건설에 대한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이로부터 주권을 잡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앞에는 당사업과 경제사업의 호상관계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며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과업이 나서게 된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의 정책적요구를 옳게 구현해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곧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경제정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행동의 기준이다. 당경제정책을 떠나서는 사회주의경제를 제대로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려면 당의 정책적요구를 관철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어야 한다.

당의 정책적요구를 구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하여나가는데 있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야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속에서 당경제정책집행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언제나 깊은 당적주목을 돌리도록 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그 집행정형에 대한 총화사업과 재포치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언제나 당의 의도에 맞게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당정책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울수 있다. 그리하여 경제사업에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언제나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지도적지침인 당경제정책도 다름아닌 근로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관철된다.

근로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만 한다면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려면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해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

요한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열쇠는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데 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을 보장하는데 모를 박고 당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면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회주의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생산과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또한 모든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복구건설시기 강선의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천리마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신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면한 투쟁과업과 전망적인 목표들을 똑똑히 알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적극 추동할수 있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로 하여금 경제지도사업에서 일치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경제지도사업에서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의 일치성을 보장해나가는것이다.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이 합심하여 경제지도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행정실무사업, 기술경제사업을 짜고들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경제지도사업에서 당일군들과 경제지도일군들이 일치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철저히 극복할수 없고 일군들의 책임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결국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나선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이 합심하여 경제지도사업을 잘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모를 박고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대로 모든 당조직들이 경제과업수행에 복종시켜 당사업을 진행하면 당일군들은 자연히 행정경제일군들과 정상적으로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나선 경제과업수행방도를 의논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게 되며 행정경제일군들을 적극 도와 걸린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게 된다. 한편 행정경제일군들은 당조직에 더욱 철저히 의거하고 당조직의 지도와 방조 밑에 제기된 경제과업수행에서 책임성과 창발성, 적극성을 높이 발휘하게 된다.

이 모든것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야말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바로 여기에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어주며 경제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기울여왔다.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합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당조직들

과 당일군들이 어떤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경제사업을 대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을 책임지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면 당사업을 경제과업수행에 복종시켜 전개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당사업이 경제사업과 동떨어진 순수 당사업으로 되게 된다.

우리 당은 모든 당일군들로 하여금 경제건설을 책임지고 당적으로 보장하는것이 곧 당일군의 본분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의도대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 이와 함께 경제사업의 실제적결과를 가지고 당사업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업을 철두철미 당경제정책관철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조직정치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하도록 이끌어왔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속에서 경제사업을 홀시하거나 외면하는 그릇된 경향을 철저히 없애고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취한 중요한 조치는 또한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였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나선 경제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방도를 찾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감으로써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킬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야 광범한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당의 정책적요구를 정확히 관철할수 있으며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은 당위원회를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매 시기 제기되는 새롭고 중요한 경제건설문제들을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며 그에 따라 모든 일군들이 움직이는 사업체계를 더욱 확고히 세워놓았다. 우리 당은 또한 각급 당위원회를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하고 능력이 있는 핵심당원들로 꾸리는 한편 당위원회의 사업에서 낡은 틀, 재래식 방법을 없애고 집체적협의를 실속있게 진행하며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시키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이리하여 모든 당위원회들은 집체적 지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게 되였으며 언제나 정확한 사업방향을 세우고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게 되였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우리 당이 특별히 힘을 넣은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철저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한것이였다.

당생활이란 당원들이 당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것은 곧 당원들의 정치생활이며 혁명활동이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 여기에 당의 전투력을 높이며 당의 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고리가 있다. 그러므로 당사업을 개선하며 그것을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며 그것을 혁명과업수행과 옳게 결부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 당은 당원들이 맡은 기본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그들에 대한 당적분공을 조직하며 당생활총화를 혁명과업수행과 결부된 사상생활총화로 진행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당학습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방향에서 진행하게 하였다.

당세포는 우리 당의 말단기층조직으로서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군중속에서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단위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

도록 하기 위하여 언제나 당세포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왔다.

이처럼 제기된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당원들의 당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고 당세포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 결과 당경제정책관철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 높아지고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는 속도전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이 취한 중요한 조치의 하나는 경제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것이였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자면 당일군들이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모를 박고 당조직정치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경제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경제일군들은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경제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전사회적규모에서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칠수 있으며 당일군들의 행정대행을 없애고 전반적인 당사업을 개선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경제일군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키는 한편 당경제정책관철에서 나타나는 형식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나갔다. 이와 함께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는 경제일군들에게 맡기고 당일군들은 경제사업을 당적으로 튼튼히 안받침해주며 경제일군들의 사업조건을 잘 보장하여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우리 당이 취한 모든 적극적인 조치들과 그 실현을 위한 현명한 령도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킬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비약을 이룩할수 있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모를 박고 당사업을 강화하며 그것을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빛나게 관철됨에 따라 당일군들속에서 당내부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소홀히 하거나 경제사업은 책임진다고 하면서 행정대행을 하는것과 같은 온갖 그릇된 편향이 철저히 극복되고 당사업이 사람과의 산 조직정치사업으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전환되게 되였다. 당사업발전을 저애하던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없애고 전당에 혁명적인 기백이 약동하며 모든 사업이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는것이 오늘 우리 당의 면모이며 사업기풍이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정치사업, 경제선동이 활발히 벌어진 결과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발휘되고있으며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이 과정에 1970년대에는 사람들을 경탄시킨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였으며 오늘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80년대속도》창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개선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들을 앞당겨실현하는데 적극이바지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불멸의 업적

리 상 태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주체적인 면모를 완전히 갖춘 혁명적문학예술로 개화발전하고있으며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찬란히 빛내이고있다. 우리 인민의 반만년 력사에서 오늘처럼 문학예술이 활짝 꽃펴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떨치며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의 가치와 보람을 안겨준 때는 일찌기 없었다.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문화적으로 매우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에서 짧은 기간에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마련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륭성번영하는 우리 조국을 더욱 빛내이는 문학예술의 대화원을 마련하였다.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놓은것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이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1）

우리 나라에서의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는 우리 당이 문학예술혁명을 이끄는 력사적과정에 이룩되였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분야에서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할 원대한 구상밑에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문학예술혁명방침은 무엇보다도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문학예술을 건설하여야 할 필연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문학예술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그에 맞는 새로운 문학예술을 건설하고 발전시킬것을 요구한다.

자주성을 요구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하는 오늘날의 문학예술은 마땅히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주체의 문학예술로 되여야 한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새형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이다. 이러한 문학예술은 지난 력사적시대에는 창조될수도 없었으며 그것은 오직 력사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이루는 주체시대에 와서만 건설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가 펼쳐졌다고 하여 저절로 주체의 문학예술이 창조되는것은 아니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문학예술을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혁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건설될수 있다. 그러므로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하

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문학예술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문학예술혁명방침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로동계급이 공산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하면서 착취계급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만들어진 낡은 문학예술가운데서 가져올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또한 오랜 력사적과정에 이루어진 문학예술유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을수는 없는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은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인것만큼 지난날의 모든 문학예술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문학예술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이 자기의 계급적본성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착취계급의 반동적문학예술을 청산할뿐아니라 문학예술의 모든 령역에서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낡은것을 철저히 없애고 문학예술을 로동계급의 정서와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조하고 혁신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문학예술혁명방침은 다음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가는 우리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중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의 전투적강령으로, 총적임무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문화의 주요구성부분을 이루는 문학예술분야에서도 혁명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문학예술이 진정으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니고있는 영예로운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이처럼 우리 당이 제시한 문학예술혁명방침은 우리 시대 혁명발전과 로동계급의 문학예술건설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혁명의 력사적필연성을 밝힌데 기초하여 문학예술혁명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여주었다.

우리 당이 밝힌바와 같이 문학예술혁명은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사상문화분야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문학예술혁명은 무엇보다도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이다.

문학예술은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고있으나 어디까지나 규정적이고 결정적인것은 그 내용이다. 문학예술에서 내용은 형식을 규정하며 형식은 내용을 표현한다. 문학예술의 성격과 가치, 그 기능과 역할은 주로 내용에 의하여 담보된다. 그러므로 문학예술혁명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문학예술의 내용을 철저히 혁명화하는것이다.

문학예술이 온갖 반동적사상요소를 배격하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어야 참다운 주체의 문학예술로 될수 있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고상한 사상과 세련된 형식의 완벽한 통일에 있다. 문학예술의 내용이 혁명적이고 사회주의적인것이라 하여도 그 형식이 내용에 알맞지 않는다면 그러한 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정서와 감정에 맞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로

될수 없다. 문학예술이 온갖 낡은 형식을 마스고 주체시대 인민대중의 정서와 비위에 맞는 새로운 예술형식을 가져야 주체의 문학예술로 될수 있다.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낡은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을 세우는것은 문학예술혁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을 혁명적으로 변혁하여야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창작가들의 창작적 지혜와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문학예술의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이처럼 문학예술혁명은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로운것을 창조하는 심각한 투쟁으로 된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비범하고 세련된 령도로 그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었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는데서 무엇보다먼저 주체의 원칙을 근본초석으로 삼고 문학예술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혁명적으로 풀어나갔다.

문학예술혁명은 문학예술분야에 남아있던 온갖 낡은것을 없애고 그것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력사적위업이다.

문학예술혁명을 통하여 건설하려는 참다운 주체의 문학예술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하고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공산주의문학예술이며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이다. 그러므로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문학예술혁명은 마땅히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문학예술을 개조하고 건설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주체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생활과 문학, 예술과 창작, 창작과 지도 등 문학예술혁명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혁명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문학예술혁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특히 우리 당은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는데서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하는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우리 당은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혁명적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를 만들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함으로써 영화예술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과 창작적앙양이 이룩되게 하였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면서 언제나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정책적지도와 형상적지도를 밀접히 결합시키며 예술인후비양성사업과 예술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힘을 돌리였다. 그리하여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사상생활에서와 예술실무적자질을 높이는데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작가, 예술인 대오는 주체의 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재능있는 후비들로 확대강화되였으며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예술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이것은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이렇듯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문학예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수 있는 확고한 담보였으며 이 땅우에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놓은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다.

(2)

우리 당은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는 과정에 시대와 력사 앞에 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문예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문화예술이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우리 인민의 반만년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문화예술의 대전성기에 놓여있습니다.》(《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행본, 10페지)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우리 당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데서 지도적지침을 준 주체적인 문예 사상과 리론을 창시한것이다.

문학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옳바른 사상과 리론이 있어야만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건설하고 창조할수 있다.

우리 당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근본원리를 문학예술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람중심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을 확립하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 사상과 리론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창조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다.

수령의 형상창조에 관한 리론은 로동계급의 문예리론에서 핵을 이루며 혁명적문예리론의 높이와 완벽성은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해명하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문예리론이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문예리론이며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 리론적무기로 되기때문이다. 로동계급의 문예리론은 수령의 형상에 관한 문제를 가장 옳바르게 제기하고 풀어야 수령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의 지도적지침으로서의 풍격과 면모를 완전히 갖출수 있으며 혁명적문학예술발전의 길을 뚜렷이 밝혀줄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력사발전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사명과 세계문학예술의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수령의 형상창조에 관한 문제를 로동계급의 문학예술건설에서 풀어야 할 초미의 과제로 내세우고 그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해명을 주었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문예리론은 수령의 형상창조리론을 핵으로 하여 그 구성체계와 내용이 전면적으로 재편성되고 높은 단계에서 완성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숭고한 공산주의적풍모를 형상한 수많은 기념비적작품들이 창작되여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밝힌 수령의 형상창조에 관한 리론의 정당성과 진리성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에 관한 리론은 우리 당이 이룩한 사상리론적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전통에 관한 사상을 제기하고 과학적으로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을 확립하는 기준점으로, 로동계급의 문예리론과 다른 모든 문예리론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그것은 혁명전통에 관한 사상이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적문학예술의 명맥을 지키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면서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해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기때문이다. 로동계급의 문예리론은 혁명전통에 관한 리론을 옳게 풀어야 그 불멸의 생명력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건설에서 혁명적문예전통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고 그것이 혁명적문학예술의 력사적뿌리로, 피줄기로 된다는것을 밝히였으며 그 계승발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옳은 해답을 주었다.

오늘 문학예술분야에서 이룩한 찬란한 성과는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전통에 관한 리론이 가져온 자랑찬 결실이다.

혁명적문학예술의 본성과 그 창작원리들을 과학적으로 밝히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은 주체의 인간학,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학이라는것을 밝히고 그 본성과 창작원리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여주었다.

공산주의적인간학은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인간학이다. 공산주의적인간학에 의하여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인 인민대중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가 옳바로 형상되고 혁명투쟁의 위대한 진리를 예술적으로 완벽하게 천명할수 있는 길이 밝혀졌다.

실로 우리 당이 내놓은 공산주의적인간학에 관한 리론은 새형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성과 요구, 그 형상방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준 독창적인 문예사상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적인간학에 관한 리론을 내놓으면서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공산주의적창작리론들을 밝혀주었다. 작품의 사상예술적가치와 생명을 담보하는 핵으로서의 종자에 관한 리론을 비롯하여 성격론, 갈등론, 구성론, 양상론 등은 공산주의적창작리론의 주요구성부분을 이룬다. 이 모든 주체적인 창작리론들은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그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우리 당은 또한 주체적인 영화예술리론, 《피바다》식혁명가극리론, 《성황당》식혁명연극리론을 비롯하여 문학예술의 매 종류와 형태에 관한 리론들과 속도전에 관한 리론,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지도체계와 지도방법에 관한 리론 등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을 위한 리론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밝혀진 주체적문예리론들은 문학예술의 어느 한 분야에 관한 리론인것이 아니라 로동계급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문예리론이다. 그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완성된 과학적인 문예리론이며 문학예술혁명의 벅찬 실천속에서 창시된것으로 하여 가장 혁명적이고 생활력있는 문예학설이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이 위대한 문예사상과 리론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 그 어떤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발전해나갈수 있었다.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우리 당의 업적은 또한 주체적문학예술의 고전적본보기를 창조함으로써 문학예술전반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하도록 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주체적문학예술의 면모를 갖춘 원형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의 전행정에서 언제나 본받고 따라배워야 할 영원한 본보기이다.

우리 당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발굴하여 현대성의 원칙에서 영화와 가극, 소설로 옮기는것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이 사업을 비상한 전개력으로 이끌어나갔다. 그리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성황당》 등이 영화와 가극, 소설 그리고 연극에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빛나게 옮겨지게 되였다. 그 과정에 영화예술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영화예술전통이 마련되고 무대예술부문에서는 《피바다》식혁명가극과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새로운 력사적시

대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문학부문에서도 혁명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실로 주체적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놓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우리 문학예술의 첫자리에 내세우고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킨 자랑찬 성과이며 우리의 문학예술을 주체의 문학예술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터전을 마련한 위대한 공적으로 된다.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우리 당의 업적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를 형상하는 력사적과제를 빛나게 실현한것이다.

수령의 형상창조를 혁명적문학예술건설의 근본문제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은 혁명의 수도 평양의 만수대언덕과 삼지연, 왕재산을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기념비를 세우며 혁명영화《조선의 별》, 《백두산》 그리고 장편소설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를 비롯한 새형의 혁명문학총서 《불멸의 력사》와 같은 대서사시적화폭을 창조하는 빛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된 이 기념비적대작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거대한 감화력을 가지고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키며 그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도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 《월미도》, 《만병초》, 《이 세상 끝까지》, 《초행길》, 《이름없는 영웅들》, 《열네번째 겨울》,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평양시간》, 《새봄》, 《생명수》를 비롯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수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여 주체예술의 대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있다.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귀중한 업적은 또한 공산주의적인 문학예술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을 확립하고 주체적인 창작력량을 마련한것이다.

공산주의적인 창조체계, 창조방법을 세우는것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을 그리는 사회주의문학예술창작의 중요한 요구이며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고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키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적인 창조체계, 창조방법이 세워짐으로써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자기 위치에 튼튼히 서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혁명적동지애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창작활동을 활발히 벌릴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된 불패의 대오로 자라나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길수 없는 가장 빛나는 성과의 하나이다.

이렇듯 우리 당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인류문화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였으며 시대와 력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 펼쳐진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두고 무한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으며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더욱 억세게 걸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당의 령도따라 개화발전하는 주체적 문학예술의 미래는 더욱 휘황찬란하다.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감으로써 주체형의 문학예술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문학예술의 대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꽃피워나갈것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혁명적신념

양 형 섭

인민들이 어떤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살며 싸워나가는가 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력사는 시대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옳바른 사상을 신념으로 삼는 나라와 민족은 필승불패이지만 그렇지 못한 인민은 무력하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우리 인민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반세기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여 세기적인 변혁과 위대한 진변을 이룩하여온 자랑찬 로정이였으며 주체사상이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혁명적신념으로 확고히 전환된 빛나는 력사였다. 주체사상이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에서 드팀없는 혁명적신조로, 철석같은 의지로 된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이고 더없는 자랑이며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다.

(1)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튼튼히 뿌리박고 그 무엇으로써도 움직일수 없는 확고부동한 혁명적신념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 인민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단행본, 24페지)

하나의 사상이 인민대중에게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접수되고 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리익을 옳게 반영하고 투쟁의 앞길을 정확히 밝혀주어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인민들의 자주성에 대한 혁명적 지향과 요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는 참다운 혁명사상이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는것은 오랜 력사에 걸쳐 착취자들의 압제밑에서 신음하여온 인민대중의 세기적인 숙망이였으며 절절한 념원이였다.

봉건의 사슬에 얽매이고 포악한 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민족적독립과 자주권, 생존의 권리마저 빼앗겼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것은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바로 자주성에 대한 인민들의 세기적인 지향과 절절한 숙원을 정확히 반영하고 근로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는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인류해방의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이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이라는것을 해명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힘으로써 사회적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확립하였으며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독창적으로 천명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착취자들과 압제자들에게 짓눌릴대로 짓눌리우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아온 근로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적존재로서의 인간의 지위와 역할이 최고의 높이에 내세워졌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인간존중의 사상으로, 근로하는 인민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는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으로 시대와 인류에게 파악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라는 과학적견해를 밝히고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에 대하는 혁명적인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난날 자기의 사회계급적처지와 힘을 깨닫지 못하고 사회의 주인으로서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던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게 되였으며 자신의 힘으로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앞길을 주동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이처럼 사회적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지침을 주는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숭고한 리념으로, 시대정신의 정화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그들을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필승불패의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간고한 시련과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혁명의 실천속에서 우리 인민의 마음속 가장 깊은곳에 혁명적신념으로 굳어진 불멸의 혁명사상이다.

혁명사상은 그것이 대중에게 원리적으로 인식되였다고 하여 저절로 신념화되는것이 아니며 사상의 력사가 오래다고 하여 스스로 사람들의 생활신조로 되는것도 아니다. 시대를 향도하는 혁명사상이 인민대중의 드팀없는 신념으로 되자면 혁명실천에서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 대중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그들자신의 사상과 의지로 확고히 전환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리론을 위한 리론이 아니라 현실을 변혁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에 빛나게 구현되여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자주와 창조로 빛나는 혁명의 새시대를 펼쳐놓은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전진함으로써 조선혁명은 사대와 교조로 인한 요람기의 진통에서 벗어나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간고한 투쟁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헤쳐나가면서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었다.

주체사상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따라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가장 곧바르게 이끌어주었다. 조선혁명은 자주성의 기치밑에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가장 정확한 길을 개척하고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열어놓은 혁명이며 세상사람들이 《사회주의의 모범》이라고 칭송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새생활을 창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생소한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혁명이다.

주체사상이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었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그처럼 악랄하게 벌어진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도, 그렇듯 집요하게 감행된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방해책동도 다 물리치고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세계를 경탄시키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세기적인 기적과 력사적인 전변은 그 어느것이나 다 주체사상이 가져다준 빛나는 열매이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여러 단계

의 복잡한 혁명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여온 보람찬 투쟁속에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주체사상만이 민족의 자주독립과 나라의 륭성번영을 가져다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혁명위업을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곧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이라는것을 가슴깊이 느끼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조선혁명의 생명이며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살수도 없고 투쟁할수도 없으며 전진할수도 없다는것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앞길을 새롭게 개척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시련에 찬 투쟁의 길을 걸어오면서 실지 체험을 통하여 심장깊이 체득한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려는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혁명적신념은 그 어떤 힘으로도 꺾을수 없는 확고부동한것이며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할수 없는 영원한것이다.

(2)

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혁명적의지로 간직하게 된것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일어난 력사적전환이며 조선혁명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빛나는 성과의 근본원천이며 우리 혁명의 찬란한 미래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엄연한 현실로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세기적인 변혁과 위대한 창조물들은 주체사상의 고귀한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업적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81페지)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을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찼으며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우리 사회에 발붙일 틈이 없다. 전체 인민이 오직 주체사상으로 숨쉬고 사고하며 주체의 요구대로 살고 행동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있는것, 바로 이것이 주체사상을 혁명적신념으로 삼고있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이며 우리 사회의 참다운 모습이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삼고 싸워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는 떳떳한 인민으로, 제 정신을 가지고 살며 싸워나가는 자주적인민으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 망국노의 쓰라린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력사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다. 또한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생명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지난날 민족자주의식과 창조적지혜를 좀먹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멍에로부터 벗어날수 있게 되였으며 제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식대로 모든것을 해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사에서 일어난 일대 전변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전취물이다.

주체사상이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철석같은 의지로 전환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확고히 담보하는 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였으며 전당과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한 정치적생명체로, 행동의 통일체로 전변시킬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종파와 분파가 없고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도 범접할수 없는 가장 순결하고 공고하며 생활력있는 통일단결로 전변되였다. 또한 우리 사회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화목한 대가정으로 되였다. 우리 당의 백전백승의 위력과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

주체사상이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혁명적신념으로 전환된 결과 이 위대한 사상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도 거대한 비약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사회와 자연, 인간을 개조하고 변혁하는 거창한 투쟁에서 일찌기 없었던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장엄한 실천투쟁속에서 우리의 경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로 급속히 발전하고있으며 우리의 주체적인 사회주의민족문화는 찬란한 빛을 뿌리면서 일대 전성기에 들어섰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적으로 개조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활짝 꽃펴나고 있는것은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을 변함없는 혁명적신념으로 삼고 싸워나가는 우리 나라에서만 창조될수 있는 긍지높고 자랑찬 현실이다.

우리 나라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며 국제무대에서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게 된것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혁명적신념으로 삼고있는것으로 하여 이루어진 또하나의 위대한 전변이다.

오늘 우리 나라는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국제문제해결에 참가하고있으며 자주성에 기초하여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대외관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가고있다. 또한 우리 인민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과 함께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의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우리 당과 국가의 대외활동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자원적이고 평등한것으로,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되게 하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놀고있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치적단결과 경제적협조를 강화하고 이 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우리 당과 국가의 높은 국제적 권위와 위신, 세계혁명발전에 대한 거대한 공헌, 이것은 바로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혁명적신념으로 삼고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나가는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존엄의 뚜렷한 표시이며 주체조선의 위대한 힘이 낳은 빛나는 열매이다.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혁명적신념으로 삼고 살며 투쟁하는것은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새로운 투쟁의 길을 개척해온 청년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고귀한 전통적기풍이다.

이러한 전통적기풍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불바다, 피바다를 헤치고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할수 있었고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새 조국 건설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었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훈의 력사를 창조할수 있었다. 이 력사적과정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은 더욱더 드팀없는

것으로 되였다.

주체사상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인민의 현대력사를 개척하고 전진시켜온 위대한 사상이며 우리 인민의 광명한 앞날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향도의 기치이다. 주체사상은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시대뿐아니라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주체시대의 개화발전을 영원히 담보하는 영생불멸의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으로 전환된 주체사상은 오늘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에 의하여 견결히 옹호고수되고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령도따라 주체사상을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으로, 확고부동한 신조로 삼고 살며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며 우리 혁명의 전도는 양양하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거대한 견인력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지고 조선혁명의 실천에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구현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고 억세게 자리잡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자주, 독립,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를 이어 계승되는 혁명적신념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의 종국적승리와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은 바로 대를 이어 계승되는 이 혁명적신념이 있음으로 하여 확고하게 담보되여있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할 성스러운 혁명과업이 나서고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혁명적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갈 때 우리앞에 나서고 있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고 모진 바람이 불어와도 오직 하나의 신념, 주체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대를 이어 고수하며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억세게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그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

박 창 렵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적립장이 확고하고 혁명적원칙성이 강한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는것은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높은 계급의식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싸우는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70페지)

확고한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을 가지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는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가이다.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에서 중요한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함께 혁명의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적개심, 혁명의 온갖 시련을 뚫고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강의한 혁명정신이다.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적립장이며 투쟁기풍이다.

공산주의자의 계급적립장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 사물현상을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보고 판단하며 처리하는 립장이다. 그것은 온갖 착취와 예속, 불평등을 반대하고 로동계급과 모든 피착취근로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게 하는 견결한 립장이다.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립장에 튼튼히 서야 적과 자기편을 똑똑히 갈라볼수 있으며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적본질과 계급적원쑤들의 반혁명적음모책동을 날날이 꿰뚫어보고 모든 문제를 혁명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있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립장에 확고히 선 사람만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로 될수 있다.

혁명적원칙성은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을 철저히 지키며 그와 배치되는 현상과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견결한 투쟁기풍이며 고상한 품성이다.

혁명적원칙성이 강해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서 사소한 편향도 범하지 않고 로동계급의 리익과 요구를 철저히 옹호고수할수 있으며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에서 동요없이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확신성있게 싸워나갈수 있다.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은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인 태도와 고상한 품성을 특징짓는것으로서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계급적립장은 혁명적원칙성을 가질수 있게 하는 기초로 되며 혁명적원칙성은 계급적립장을 철저히 지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에 확고히 서야 혁명과 반혁명간의 치렬한 계급투

쟁에서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지킬수 있으며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지켜야 로동계급의 립장에 서서 피착취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리익을 끝까지 옹호고수하고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을 가장 철저히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는 적들의 그 어떤 반동적인 공세앞에서도 그떡하지 않으며 자기의 공산주의적신념과 혁명적지조를 지켜 끝까지 싸워나간다. 반대로 계급적립장이 철저하지 못하고 혁명적원칙성이 견결하지 못하면 적들의 책동이 악랄해지고 혁명이 준엄한 시련을 겪게 될 때 동요하거나 주저하게 되며 나아가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수 없는것은 물론 당과 혁명을 배반하는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은 혁명투쟁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 엄연한 진리이다.

이처럼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적립장이며 견결한 투쟁기풍이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반제투쟁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는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온갖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계급적원쑤들과 적들의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승리하며 전진하게 된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계급적원쑤들은 혁명이 전진하고 저들의 멸망이 가까와올수록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말살하려고 더욱더 악랄하게 책동한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는것처럼 제국주의자들과 착취자들의 침략적, 야수적 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며 반공과 대결은 죽어가는 저들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매달리고있는 상투적수법이다. 제국주의, 계급적원쑤들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되며 놈들과는 끝까지 싸워야한다.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철저한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을 가져야 간고하고 치렬한 계급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이 전진하고 심화될수록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을 튼튼히 지키도록 사람들을 교양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진군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 속에서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그것은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의 반항에 부닺치지 않을수 없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아무런 투쟁도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물리치며 온갖 낡은 사상과 유물을 극복하는 치렬한 투쟁속에서 실현되게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대를 이어 계속되는 어렵고 복잡한 장기적인 사업인것만큼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새세대들을 계급적립장이 확고하고 혁명적원칙성이 강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야 그것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혁명의 교대자들인 새세대들은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단련되지도 못하였다. 그들은 줄곧 행복속에서만 살아왔다. 이런 조건에서 새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워야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을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하고 혁명적원칙성이 강한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요구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을 그 어느때보다도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의 책동은 지금 극히 위험하고 모험적인 단계에 이르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을 핵전초기지로, 전쟁화약고로, 파쑈의 도가니로 전변시키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파괴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놈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파괴암해책동은 랑군폭발사건을 계기로 극도에 이르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랑군에서 폭발사건을 조작하고는 그것을 우리와 결부시키면서 전례없이 광란적인 침략책동과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벌리고있다.

전두환역도는 저들의 자작극인 랑군폭발사건이 있은 즉시로 남조선전역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완전한 전투태세에 들어가게 하는 한편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등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는 극도의 긴장한 정세를 조성하고있다.

미제의 조종밑에 전두환역도가 벌리고있는 새 전쟁 도발책동과 반공, 반공화국 모략책동들은 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무너져가는 저들의 파쑈통치체제를 구원하며 남조선에 대량살륙무기를 더 많이 끌어들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을 파괴해보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

적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모험적인 단계에 이르고 반공, 반공화국 소동이 전례없이 광기를 띠고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는 조건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확고한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을 가지도록 교양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동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적원칙성을 철저히 지켜야 적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반공, 반공화국 소동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볼수 있으며 반제, 반괴뢰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이처럼 혁명이 멀리 전진하고 계급적원쑤들의 광란적인 책동이 극도에 이르고있는 조건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이 확고한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과 함께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옴으로써 그들을 확고한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을 가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을 똑똑히 알고 놈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과 반동적인 사상공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확신성있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침략책동과 반공, 반공화국 소동이 절정에 이르고 우리 혁명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전진하고있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이 강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오늘 우리 당이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는 문제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확고한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을 가지고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반제, 반괴뢰 투쟁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은 계급의식에 기초하여 형성되며 계급의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높이가 규정되게 된다.

우리는 유일사상교양과 함께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며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로동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지키는 견결한 혁명가로 준비시켜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반제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전두환괴뢰도당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도록 교양하는것이다.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은 놈들이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죄행과 그놈들의 온갖 반혁명적책동의 본질을 똑똑히 알 때 더욱 높아지게 된다.

미제와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지난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며 불구대천의 원쑤들이다. 미일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우리 민족은 지난날 헤아릴수 없이 큰 재난과 불행을 당하였으며 오늘도 항시적인 전쟁위험과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다.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용납못할 죄행과 만행을 결코 잊을수 없으며 놈들이 벌리고있는 침략과 반공, 반공화국 책동을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우리는 미제와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감행한 야수적만행을 력사적인 사실과 자료를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똑똑히 알려주며 오늘 놈들이 벌리고있는 반공, 반공화국 책동의 반동적본질과 추악한 정체를 낱낱이 발가놓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원쑤들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며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더욱 긴장하고 동원된 태세에서 사업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은 놈들의 반동사상과 썩어빠진 부르조아생활양식을 반대하는 투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무디게 하며 건전한 정신세계를 좀먹는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반제계급의식은 착취제도와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증오할뿐아니라 자기 조국, 자기 계급을 열렬히 사랑하는데서 표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따라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더없는 민족적긍지이며 크나큰 행복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켜 그들이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지켜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썩고병든 자본주의사회와 남조선사회의 부패성과 반동성을 폭로하는 교양사업을 강하게 진행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본주의제도와 전두환파쑈통치제도를 끝없이 증오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들을 계급적으로, 혁명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조직생활은 사상개조의 위력한 수단

김 배 환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정한 조직에 망라되여 조직생활을 하고있다.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직생활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사람들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집단주의정신과 규률성을 높이고 단결력을 강화하며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자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단행본, 26페지)

혁명조직은 사람들에게 계급의식을 넣어주고 투쟁정신을 키워주어 그들이 혁명의 한길에서 변함없이 싸워나가도록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이며 일생동안 의거하여야 할 사업과 생활의 거점이다.

사람들은 혁명조직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끊임없는 사상적수양과 조직적단련을 하여야만 당과 수령께 충직한 혁명가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원만히 갖추어나갈수 있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조직적단련과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육성하기 위한 필수적요인들이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이 요인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통일적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개조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조직생활이 사상개조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 사상개조를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사람들의 사상개조는 교양과 투쟁의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이루어진다.

사상교양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머리속에 새로운 혁명사상을 넣어주어야 낡은 사상이 빠질수 있으며 사상투쟁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뽑아야 새로운 혁명사상이 빨리 들어갈수 있다. 또한 사상교양이 힘있게 진행되여야 새로운 혁명사상을 무기로 하여 사상투쟁이 벌어질수 있으며 사상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져야 사상교양이 더욱 심화될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자면 반드시 꾸준한 사상교양과 심각한 사상투쟁을 밀접히 결합하여 통일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조직생활은 사상교양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사람들은 조직과 집단 속에서 생활하면서 꾸준히 학습하고 체계적으로 교양을 받아야 혁명사상으로 무장할수 있으며 열렬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집체적인 학습과 강습, 토론을 비롯하여 조직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상교양을 통하여 사람들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체득하고 혁명의 원리를 깨닫게 되며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게 된다. 모든 조직들에는 집체교양체계와 함께 정연한 개별교양체계가

서있다. 조직들에 세워진 개별교양체계에 따라 사상교양이 매 사람들의 수준과 능력, 구체적특성에 맞게 실속있게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조직생활과정에서 사람들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끊임없는 혁명적교양을 받게 되며 자기의 사상을 개조하고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혁명적생활방식과 건전한 분위기는 사상교양의 효과를 높이고 사상개조를 다그치게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사상의식은 생활조건과 환경의 영향을 일정하게 받는것만큼 어떠한 생활방식으로, 어떤 분위기속에서 사업하고 생활하는가에 따라 사상교양의 성과가 달라지게 되며 사상개조가 촉진될수도 있고 지연될수도 있다.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는 매우 집요한것이며 그것은 틈만 있으면 머리를 처들고 되살아나려고 한다. 때문에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수 있는 틈과 요소를 없애는것은 사람들의 사상개조를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조직은 꾸준한 설복과 인내성있는 교양을 통하여 집단안에 뒤떨어진 사람이 없게 만들며 자본주의적사상이 침습하고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수 있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고 조직과 집단안에 건전한 생활분위기와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한다. 이러한 조직생활분위기와 기풍에서 사람들은 자극을 받아 각성하게 되며 나타날수 있는 결함도 미연에 막고 늘 건전하게 생활하고 혁명적으로 일하면서 자기의 사상을 개조하여 나가게 된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사상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는 용광로이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그들을 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혁명적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교양개조하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다 낡은 사상요소들을 가지고있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요소들은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낡은 사상의 표현에 대하여 제일 잘 아는것은 그들이 속하여 생활하는 조직과 집단이다. 혁명조직은 사람들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요소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그것이 더 커지기전에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고쳐나가게 한다.

비판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신의 사상정치생활과 사회생활, 혁명과업수행과 개체생활을 전면적으로 총화검토하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사람의 결함을 고쳐줄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사람들은 조직생활에 참가하여 자기비판도 하고 호상비판도 하며 직접 비판을 받기도 하고 남이 비판하는것을 듣고 뉘우치기도 하는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사상단련을 하게 된다. 특히 대중적비판과 조직과 집단의 방조를 받아 사람들은 그릇된 사상적병집도 고쳐나가게 되며 사업과 생활에서 발로되는 낡은 사상 잔재의 자그마한 표현까지도 뿌리뽑게 된다.

이와 같이 혁명적조직생활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이 련속적이며 통일적인 과정속에서 실속있게 진행되게 함으로써 교양과 투쟁의 실효성을 최대로 높이고 사상개조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한다. 이것으로 하여 혁명적조직생활은 사상개조의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혁명적조직생활이 사상개조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조직성과 규률성, 집단주의정신을 키워준다는데 있다.

혁명적조직성과 규률성, 집단주의정신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중요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혁명적조직

성과 규률성, 집단주의정신을 가진 사람이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조직성과 규률성, 집단주의정신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규률과 질서, 생활규범이 있어야 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든지 거기에는 다 일정한 규률과 질서가 있으며 규약과 의무가 있다. 조직은 이러한 규률과 질서, 규약과 의무로써 사람들을 묶어세우고 행동의 일치성과 통일성을 실현해나간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제정된 규률과 질서에 따라 일치하게 움직이고 조직생활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이고 집단주의정신을 키워나갈수 있다.

조직생활은 모든 조직성원들이 하나의 규률과 질서에 따라 일치하게 움직이며 통일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혁명조직은 모든 조직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안에 세워진 생활규범과 규률을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는 혁명적조직생활과정에 사람들은 조직규률에 익숙되고 집단생활에 습관되게 되며 조직의 결정과 지시를 어김없이 집행해나가는 혁명적조직성을 키워나가게 된다.

사람들은 또한 조직생활에 참가하여 집단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집단의 위력에 대하여 알게 되고 혁명동지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며 집단의 리익에 개인의 리익을 복종시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미풍,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조직에 의거하여 일상적인 지도와 통제를 받는 혁명적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조직의 지도와 통제에서 벗어나면 준비 못되고 단련되지 못한 일부 사람들속에서 자유주의가 생기고 비조직적인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때문에 그 누구를 물론하고 언제나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받아야 조직성이 강하고 규률성이 높은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사람들은 조직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는 과정에 조직과 일상적인 련계를 가지고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속에서 사람들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고상한 품성을 가지게 되며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무규률적이며 비조직적인 자유주의적현상을 없애고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키워나가게 된다.

조직생활이 사상개조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상개조사업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는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사상의지적으로 단련되며 혁명가의 자질과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68페지)

혁명실천은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수양하고 의지적으로 단련하여 사상개조를 다그치게 한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람들의 혁명실천은 조직을 통하여 진행되게 된다. 혁명조직으로부터 혁명임무와 과업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이 곧 혁명활동이며 정치생활이다. 사람들은 조직으로부터 분공받은 임무를 수행함으로써만 조직의 한 성원

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게 되며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게 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실천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조직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고한 신념으로 더욱 철저히 체득하게 되며 당과 수령을 받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정신을 키워나가게 된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직에서 주는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워나가게 되며 혁명적으로 단련되게 된다.

혁명조직이 맡겨준 임무를 수행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혁명투쟁은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혁명의 길에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며 희생을 동반하는 시련의 고비도 수없이 넘어야 한다.

사람들은 조직에서 맡겨준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워나가게 되는것이다.

조직의 위임분공을 수행하는 혁명적실천은 사상개조의 힘있는 수단인 동시에 사람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척도이다. 실천과 행동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사상을 평가하고 검증할수 없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상태는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것만큼 혁명적실천속에서만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를 알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화정도를 검증할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옳게 찾아낼수 있게 하며 그것을 고치기 위한 실천적방도까지 정확히 세워나가게 한다. 따라서 실천투쟁을 통하여서만 사람들을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옳바로 평가할수 있으며 그들의 사상적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교양대책을 바로 세워 사상개조를 실속있게 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진행되는 혁명실천이야말로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를 다그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우리 당중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가장 옳바른 조직관념을 세워주고 누구나 다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중앙이 제시한 조직생활방침에 따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조직생활에 참가하고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상적수양과 조직적단련을 해나가고있다. 현실은 조직생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사상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당의 령도밑에 혁명적조직생활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위대한 강령

리 영 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20돐이 된다.

력사적인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시켜오신 주체적인 농촌건설사상이 집대성되여있는 백과전서적인 문헌이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이다.

농촌테제가 발표됨으로써 이 땅우에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로운 력사적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은 가장 곧바른 길을 따라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승리적으로 해결해올수 있었다.

농촌테제가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20년간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으며 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바로 여기에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농촌건설 사상과 리론이 집대성되여있는 농촌테제와 같은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기쁨이며 자랑이며 영광이다.

* *

사회주의농촌문제는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이후시기에 제기되는 농민문제, 농업문제이며 그것을 옳게 풀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고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농촌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입니다. 농촌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8페지)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는 농민문제, 농업문제 해결에서 력사적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가 세워졌다고 하여 농촌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에도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극복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야 할 혁명과업이 나서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할수 없으며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이렇듯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농촌문제를 올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농촌건설사상과 과학적인 농촌건설리론이 있어야 하며 농촌건설이 이에 따라 진행되여야 한다. 그래야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가지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앞길을 밝혀주는 농촌건설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는 것은 더우기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반제민족해방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우리 시대에 와서 더는 미룰수 없는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였다.

시대와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이 절박한 문제는 오직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농촌건설 사상과 리론을 집대성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농촌테제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농촌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면서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과 업적이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사회주의농촌건설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인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의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투쟁을 요구하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아무런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주체적인 사회주의농촌건설리론의 창시, 이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기원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으로 되는 위대한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농촌건설리론은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의 본질과 내용으로부터 그 해결 원칙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종국적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 독창적인 리론이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완성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다.

농촌테제가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위대한 강령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농민들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길을 밝혀주고있는데 있다.

농민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관계를 변혁할뿐아니라 농민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농촌에서 아무리 생산력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물질적부가 풍부해진다 하여도 농촌의 주인인 농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되지 않고서는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농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의 근본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관계를 개조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농촌건설 사상과 리론이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강령으로 되자면 그것이 농민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길을 밝힌것으로 되여야 한다.

농촌테제는 철두철미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농민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농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되자면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뿐아니라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되여 공산주의사상과 선진적인 과학기술로 무장하여야 하며 높은 문화수준을 소유하여야한다. 공산주의사상과 선진적인 과학기술, 높은 문화수준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의 기본징표이다. 농민들은 공산주의사상과 선진적인 과학기술, 높은 문화수준을 소유하여야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될수 있으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농촌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는 농민들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함으로써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되게 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써 농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구속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종국적으로 청산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농민들은 로동계급에 비하여 사상, 기술, 문화적으로 뒤떨어져있게 된다. 이러한 락후성은 사회주의하에서 농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되는데 지장을 주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농촌테제는 바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으로, 농촌건설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고 그 실현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농촌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청산하고 농민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농민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집단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주체의 혁명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다. 또한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고 발전된 문화농촌을 건설하여 농민들을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기술문화적락후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소유한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수 있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농촌테제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농민들을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위대한 강령이다.

농촌테제가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위대한 강령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주고있는데 있다.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것은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그것은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루는 농업문제가 농업생산력발전에 관한것으로서 본질에 있어서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것이기때문이다.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여야 농업의 물질기술적장비수준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술장비수준에 끌어올려 생산력발전에서 공업과 농업의 차이를 없앨수 있으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다. 또한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여야 로동조건에서 공업과 농업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들에게 로동자들과 같은 로동생활조건을 보장해줄수 있으며 따라서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것이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농촌경리를 현대적인 기계기술로 장비하고 농업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는것이다.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기술수단들은 농업생산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이룬다. 농촌경리가 얼마나 현대적인 기계와 기술로 장비되였는가 하는데 따라 농업생산력발전수준이 평가되며 로동자와 농민의 로동조건에서의 차이가 규정된다. 생산력발전에서 공업과 농업의 차이는 농업이 공업에 비하여 기술장비수준이 낮은데 있다.

농업생산과정은 공업과 달리 생물학적과정으로 되여있다. 농작물의 생육조건과 생물학적본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옳게 리용하는것은 농업생산의 성과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생물학적과정으로 진행되는 농업생산을 공업에서와 같이 하나의 기술공정으

로 전환시켜 농업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장비수준을 공업에 따라세우며 농업과학이 달성한 최신성과와 선진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테제에서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의 본질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농촌기술혁명과 농업생산을 집약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화학화는 농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물질을 사람들의 힘에 의하여 마련하고 조절통제할수 있게 함으로써 불리한 자연조건을 이겨내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게 한다. 농촌경리의 기계화, 전기화는 농업로동을 기계와 전기의 힘에 의거하여 진행하게 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게 한다. 농촌경리의 집약화는 농업생산에 생산수단과 로동의 추가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게 하며 농업생산공정을 기술공정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

농업생산을 기계와 전기, 화학의 힘에 의하여 진행되는 하나의 기술공정으로 전환시키고 농업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고있는 바로 여기에 농촌테제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으로 되는 또하나의 근거가 있다.

농촌테제가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위대한 강령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무계급사회건설을 위한 곧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는데 있다.

무계급사회를 건설하는것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착취와 압박이 없고 계급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유족하고 문명하게 사는 무계급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무계급사회건설을 떠나서 로동계급의 공산주의리념과 력사적 사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로동계급이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적차이는 다름아닌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이며 이러한 차이는 농촌이 도시에 비하여 뒤떨어져있는데로부터 남아있게 되는 문제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주의하에서 농촌의 락후성은 우선 농업이 공업에 비하여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고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이 도시주민들보다 낮으며 농민들이 로동자들보다 사상의식이 뒤떨어져있는데서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락후성으로 하여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고있는 공업과는 달리 농촌에는 협동적소유가 있게 되고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은 농촌건설에 큰 힘을 넣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야 한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두 소유의 차이를 없애고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는것이다.

소유관계는 계급관계를 규정하는 본질적요인이다. 모든 사회관계의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이며 온갖 계급적차이는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소유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차이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규정하는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려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는 동시에 소유관계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야 한다.

농촌테제는 계급적차이를 낳는 근본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농촌에서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기초우에서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음으로써 무계급사회건설의 가장 옳바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농촌에서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소유관계의 차이가 남아있게 되는 근원을 없애고 협동적소유를 더욱 발전완성시켜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와 함께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면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것은 전인민적소유가 협동적소유에 더욱 깊이, 더 폭넓게 침투하게 하고 농민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영향을 더욱 강화하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게 함으로써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한다.

이처럼 사회주의하에서 소유관계의 차이를 없애고 단일한 전인민적소유를 확립하게 함으로써 무계급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는 넓은 길을 열어놓은 여기에 농촌테제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또한 농촌지원에 관한 사상, 농촌경리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상, 농촌건설에서 지역적단위와 거점에 관한 사상을 비롯한 새롭고 독창적인 농촌건설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본방도들도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 농촌문제해결의 독창적인 길을 밝힌 위대한 강령이다.

하기에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문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문제들에 해답을 준 과학적문헌》, 《공산당선언에 대비되는 금세의 가장 위대한 문헌》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농촌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들은 농촌테제가 가리키는 길이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농민들을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락후성에서 벗어나게 하며 계급이 없는 발전된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 참다운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우리 인민이 거둔 성과들은 농촌테제야말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비방과 공격을 짓부시고 그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주는 위력한 무기이며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온갖 편향을 극복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투쟁의 기치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테제는 날이 감에 따라 그 위력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고있으며 인민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인류가 오래동안 바라던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유족하고 문명하게 사는 행복한 새 사회를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자기의 힘과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침으로써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할것이다.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이룩된 세기적변혁

김 철 제

농촌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력사적경험은 이 문제를 정확히 풀어나가지 못할 때에는 혁명에서 우여곡절을 겪게 되며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농촌문제의 본질을 새롭게 밝히고 그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과 과업,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여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농촌테제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전투적기치로, 강령적지침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발전의 매시기 정당한 정책과 방침들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농촌테제가 내놓은 방침대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전체 농민들과 함께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 군인들을 적극 동원하여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렸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페지)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우리 농촌의 세기적락후성을 없애고 진보와 문명에로의 대비약을 이룩하는 거창한 변혁과정이였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뒤떨어진 경제와 기술을 물려받은 어려운 조건에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소한 길을 개척해야 하였으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환군들의 악랄한 비방중상을 짓부셔버리면서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투쟁의 앞길에 가로놓이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당, 전국, 전민을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전국농업대회, 전국농업부문일군들의 협의회와 열성자회의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중요한 회의들에서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정확한 방침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적극 벌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과 농촌의 계급진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방침, 농촌경리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방침을 비롯한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투쟁방침들은 우리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가장 옳바른 투쟁방침들을

밝혀주시고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그를 철저히 관철하며 농촌을 힘껏 돕도록 온갖 대책을 세우시였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는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력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에 대한 정치사상적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농촌경리를 물질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로력적으로 지원하는것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것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해마다 농촌에 많은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영농자재들이 공급되여 농업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였다. 또한 농촌에 대한 로력적지원이 강화되여 농촌로력구성에서 청장년로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바쁜 농사철마다 농업생산에 많은 사회적로력이 동원되여 농사일을 돕고있다.

농촌에 대한 이러한 힘있는 지원은 짧은 기간에 농촌경리를 현대적기계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며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게 하시였으며 농업의 기업관리수준을 높이고 농촌경리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도록 힘있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몸소 온 나라의 수많은 농촌들을 찾으시고 농촌경리발전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시였다.

농민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으시고 걸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수천수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우리의 모든 농촌들은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농촌으로,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전변되게 되였다.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은 농촌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당조직들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농촌당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농촌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워 농촌사업을 올바로 이끌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우리 당은 또한 농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들의 역할을 높이며 농업근로자들속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 《80년대속도》창조운동과 영화실효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함으로써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다그치고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게 하였다.

실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나라 농촌에서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였으며 위대한 농촌테제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는 위대한 결실을 가져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사회주의농촌테제

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는 위대한 전변이 일어났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46페지)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상적 및 물질적 전제조건들을 튼튼히 마련해놓은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는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다음 제기되는 농민문제, 농업문제로서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것이다.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여야 농촌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농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며 농업생산을 공업에서와 같이 전기와 기계, 화학의 힘에 의하여 진행하는 하나의 기술공정으로 전환시키는것이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상적 및 물질적 조건을 갖추는 문제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 성과적으로 해결되고있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농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지난날 개인소유의 울타리속에서 낡은 사상과 생활인습에 물젖어있던 농민들이 오늘은 개인리기주의사상을 극복하고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있다. 그들은 개인의 리익보다도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집단과 사회의 리익가운데 자기의 몫도 있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성실히 일하고있다.

농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 일어난 이러한 전변은 농촌테제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사상적 전제를 갖추는데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로 된다.

농촌테제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조건을 갖추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농업생산을 고도로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하여 농업에서 손로동을 훨씬 줄이고 기본적인 농업로동을 기계와 화학, 전기의 힘으로 할수 있게 되여야 농촌테제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로대가 마련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수리화와 전기화가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도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스무해전만 하여도 부침땅 100정보당 뜨락또르가 한대밖에 차례지지 않던 우리 농촌에 이미 평지대에는 7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는 6대씩 차례지게 되였다. 그리고 모내는기계와 종합수확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많이 생산공급되여 농촌경리의 기계화수준이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농촌경리의 화학화가 힘있게 추진되여 오래전에 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이 1.5톤을 훨씬 넘었으며 지금은 그것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또한 농약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이 훨씬 늘어나 해마다 더 많은 화학제품이 농촌에 공급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가까운 앞날에 모든 농사일을 기계와 화학, 전기의 힘으로 할수 있는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여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우리 농촌에서 농민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여가고 농업이 공업화, 현

대화되여감으로써 농촌테제를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조건들을 튼튼히 갖추어 나갈수 있게 되였다.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또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의 차이를 훨씬 줄인것이다.

농촌에서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극복하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의 차이를 없애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농촌테제가 내세운 과업을 수행한다는것은 농촌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첫 단계의 과업, 다시말하여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농촌테제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농촌테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농촌경리분야에 남아있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점차 극복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가깝게 내다볼수 있는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되였다.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투쟁과정에 우리 농촌에서는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의 련계가 강화되고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접근과정이 더욱 촉진되게 되였다.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밑에 농기계작업소와 관개관리소를 비롯한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이 늘어나고 그것들이 농업생산과정에서 노는 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국가소유의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질기술적수단들이 농업생산과정에 적극 복무함으로써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사이에 직접적인 생산적련계가 더욱 강화되고 농촌경리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협동경리의 관리운영수준도 더욱 높아져 협동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되였다. 농업생산과정이 점차 기술공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경리에 대한 기술적지도가 강화되고 협동농장들의 계획화사업, 로력관리, 재정관리 등 모든 경영활동이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더욱 접근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고 멀지 않은 앞날에 단일한 전인민소유를 확립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할수 있게 되였다.

농촌테제를 관철하는 과정에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도 훨씬 줄어들게 되였다.

농촌에서 3대혁명이 추진되고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농촌의 면모가 새로와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들과 농민들사이의 로동강도와 수입, 생활조건에서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고 농민이 로동계급을 닮아가고 농촌이 도시 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꾸려지고있다.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인 군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고 군사업이 강화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사이의 련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농촌경리에 대한 정치사상적지도와 기술적지도가 끊임없이 심화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농촌에서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줄어들고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에 더욱 접근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내다볼수 있게 되였다.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또한 우리 농촌이 공산주의농촌의 면모를 점차 갖추게 된것이다.

공산주의농촌을 건설하는것은 로동계급이 내세운 숭고한 력사적과업이며 농민들의 세기적인 숙원이다.

농촌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지난 20년동안 우리의 농촌은 공산주의농촌의 면모를 갖추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은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농민들은 기계농사, 화학농사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수공업적인 농쟁기로만 힘겹게 농사짓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은 현대적인 기술수단으로 흥겹게 일하고있다. 벌방지대나 산간지대나 할것없이 우리 나라 농촌의 그 어디에 가나 농기계들이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대신해주고있으며 화학의 힘으로 병충해를 막고 농작물을 가꾸고 있다.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농촌의 문화적면모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협동농장들의 작업반마다에는 탁아소와 유치원이 있고 리들에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들이 있다. 후대교육교양과 함께 농촌에서 성인교육사업과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이 활발히 벌어진 결과 지난날 낡은 사회에서 배우지 못하였던 농업근로자들이 다 중학교졸업정도의 일반지식수준을 소유하게 되였으며 수많은 농장원들이 고등농업전문학교와 농업대학의 통신교육망에 망라되여 일하면서 공부하고있다. 특히 협동농장들에 농장대학이 나오게 됨으로써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그 생활력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매개 협동농장에서는 수십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일하고있으며 그들은 농촌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후생시설까지 갖춘 문화주택들이 도처에 건설되여 대대로 물려오던 오막살이의 흔적이 영원히 사라졌으며 농촌의 수도화와 뻐스화, 농촌리진료소의 병원화,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여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고 농촌에서도 도시에 부럽지 않는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였다. 오늘 사람들로부터 《공산주의리상촌》으로 불리우고있는 강서구역 청산리, 안악군 오국리와 문덕군 룡림리를 비롯한 훌륭한 본보기농촌이 꾸려지고 그것이 온 나라의 농촌에 널리 일반화되고있는것은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펼쳐진 우리 농촌의 자랑찬 현실이며 우리의 농촌을 공산주의농촌으로 만드는데서 이룩한 더없이 귀중한 성과이다.

농업생산이 공업화, 현대화되고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짐으로써 농업생산이 또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해방직후 정보당 벼는 1~2톤, 강냉이는 600~700키로그람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우리 농업은 오늘 벼와 강냉이 농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수준에 이르렀다. 알곡생산과 함께 남새와 과일, 공예작물 생산이 급속히 장성하고 고기와 알 생산도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전반적인 농업생산이 급속히 장성함에 따라 농민들의 생활수준도 훨씬 높아졌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지난해에만 하여도 서해안의 여러 협동농장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호당 평균 10톤이상의 알곡과 많은 현금이 분배되였으며 전반적인 농업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더욱 향상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의 그 어디에서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고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고르롭게 생활하고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 농촌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지난날 우리 농민들이 리상으로만 그려오던 공산주의농촌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현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테제야말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위대한 강령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으며 농촌테제를 관철하는 여기에 농촌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공산주의건설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앞날에 대한 크나큰 희망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고 위대한 농촌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테제가 내세운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가야 할것이다.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경제건설의 근본원칙

계 형 명

올해는 제2차7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해이며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 매우 중요한 해이다.

올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대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는것은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석탄과 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이다.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8차전원회의는 채취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을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향과 방도를 제기함으로써 올해 생산과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현시기 우리나라 사회주의경제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기 위한 선차적인 요구는 석탄과 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이며 그 실현방도는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경제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며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경제건설의 근본원칙이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이미 마련하여놓은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생산을 전망적으로 늘여나가기 위한 기본요인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57페지)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무엇보다도 가공공업의 생산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사회적생산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자면 생산의 필수적요소를 이루는 원료, 연료가 충분히 보장되여야 한다. 원료, 연료의 보장정도에 따라 가공공업의 생산수준과 발전속도가 중요하게 좌우된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료, 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채취공업에 힘을 넣어 자체의 힘으로 필요한 원료, 연료를 생산보장하는것이다.

채취공업은 가공공업에 원료, 연료를 대주는 생산순환의 첫단계이며 가공공업의 생산조건을 마련해주는 선행공정이다.

채취공업부문에서 석탄, 광물과 같은 원료와 연료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가공공장들을 제대로 움직이며 가공공업의 생산능력을 옳바로 리용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다.

아무리 현대적인 공장들을 일떠세워도 채취공업부문에서 원료, 연료를 원만히 대주지 못하면 그것들이 제대로 은을 낼수 없게 되며 생산은 파동과 곡절을 겪게 된다. 결국 이미 마련해놓은 가공공업의 토대를 옳바로 리용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문제는 채취공업의 발전정도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화력을 집중하여야 할 부문은 석탄공업이다. 석탄은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식량이며 석탄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모든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돌파구이다. 석탄을 많이 생산해내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고 이미 마련해놓은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리며 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경제건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석탄이며 석탄을 많이 생산하면 마음먹은것들을 그 무엇이나 다 해제낄수 있다.

석탄과 함께 여러가지 광물 생산을 늘인다면 우리 공업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채취공업을 앞세우는것은 생산 능력과 규모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가공공장들의 생산조건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공업의 위력을 높이 발양할수 있게 하는 관건적고리로 된다.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또한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나라의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원료, 연료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보장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경제가 빨리 발전하고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조건에서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자재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경제를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안전하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제파동이 심한 오늘 자체의 자원으로 필요한 원자재를 해결하는것은 그 어떤 복잡한 환경에서도 끄떡함이 없이 경제를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원료, 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여야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의 영향도 받음이 없이 경제를 안전하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많이 창설하고 공업부문의 생산공정들을 더 잘 정비보강하여 공업의 부문구조도 더욱 훌륭히 완비할수 있다.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워 원료, 연료, 동력을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해결하며 자기 나라 원료조건에 맞는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많이 창설할 때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고 그 위력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우리 당이 경제건설에서 채취공업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이 부문을 앞세워 석탄과 여러가지 광물 생산을 늘이는것을 일관한 원칙으로 확고히 견지해옴으로써 우리는 자체의 튼튼한 원료, 연료 생산기지에 확고히 의거하여 공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구체적현실은 채취공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이 부문에 힘을 넣어 석탄과 광물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떠선 우리 나라 가공공업의 생산 규모와 능력은 대단히 크며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원료, 연료를 더욱 원만히 생산보장하여 이미 마련해놓은 가공공업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도 우리는 짧은 기간에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다.

더우기 지금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점령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기 위한 5개지구전선건설을 비롯한 기본건설을 힘있게 벌리고

[illegible] 하
[illegible] 대
[illegible] 석
[illegible] 늘여야

[illegible] 사회주의
[illegible] 많은 석탄과
[illegible] 원만히
[illegible] 더 큰 승리
[illegible]

[illegible] 여러가지 광물
[illegible] 석탄과 광물 생산
[illegible] 늘일수 있는 물질기술적
[illegible] 있다.

[illegible]에서 안주지구, 순천지[illegible] 비롯한 서부지구 대규[illegible] 북부지구 탄광들을 비롯하여 [illegible]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탄광들[illegible]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며 탄상조건에 맞는 여러가지 채굴설비들을 받아들이고 탄광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린다면 짧은 기간에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다. 또한 광업부문에서 무산광산을 비롯한 쇠돌생산기지들과 검덕지구를 비롯한 주요지구들에 있는 광산들의 개건확장공사를 다그치며 막장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한다면 쇠돌을 비롯한 여러가지 광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다.

오늘 채취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원료, 연료 생산기지를 꾸리는데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함으로써 주체공업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으며 150만톤의 유색금속고지를 앞당겨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채취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서 빛나는 모범을 보인 검덕의 영웅적로동계급들처럼 투쟁한다면 석탄과 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제2차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더욱 다그쳐 나갈수 있다.

채취공업을 발전시켜 석탄과 광물 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지질탐사사업과 굴진과 박토, 갱건설을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지질탐사사업과 굴진, 박토, 갱건설을 앞세우는것은 채취공업발전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며 석탄과 광물 생산을 늘이기 위한 결정적고리이다.

지질탐사부문에서는 새로운 과학적탐사방법을 널리 적용하고 탐사속도를 높여 나라의 지하자원을 전면적으로 조사장악하며 석탄과 여러가지 광물 생산후보지들을 넉넉히 마련하고 확보매장량을 늘여나가는것이 중요하다. 탄광, 광산들에서는 굴진과 박토를 채탄과 채광에 확고히 앞세워 예비 채탄장과 채광장을 널리 마련하며 갱건설을 잘해나가야 한다.

과학연구사업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채취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땅속의 비밀을 알아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탄광, 광산 작업을 진행하여야 더 많은 석탄과 광물을 캐낼수 있다. 그러자면 과학자, 기술자들이 현지연구를 심화시키고 생산자대중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야 한다.

탄광, 광산들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과감히 벌려 여러가지 현대적인 채굴, 운반 설비들과 새로운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한사람당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특히 채굴설비의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와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다그치

고 현대적대형설비들에 의한 다량채굴, 다량운반, 다량처리를 실현하는 등 채취공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당의 정책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채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경제지도관리체계의 요구에 맞게 생산 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기동적으로 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모든 생산요소들을 과학적으로 맞물리며 변화되는 정황에 대처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기동성있게 하고 걸린고리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는 올해에 당의 방침대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증산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석탄공업에 힘을 집중하여 석탄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

석탄과 광물을 생산하는 작업은 땅속 깊은곳에서 자연을 정복해나가는 어려운 투쟁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이 채취공업과 련결되여있는것만큼 이 부문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적극 도와주는것은 마땅한 의무로 되며 석탄과 광물 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지금 석탄공업부문에서만 하여도 우리 나라 탄상조건에 맞는 현대적인 채탄기와 탄차를 비롯한 채탄설비들이 더 많이 요구되고있으며 그것을 더욱 원만히 보장한다면 석탄생산에서 더 큰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

국가경제기관들은 석탄생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조직하는것이 중요하다.

금속, 기계 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석탄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계설비들과 철강재, 세멘트, 화학제품과 통나무와 같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생산된 석탄을 빨리 날라다주어야 한다. 봉사부문과 지방행정기관 일군들은 탄부들과 광부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그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채취공업부문을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는것이 필요하다.

석탄과 광물 생산을 늘이는것은 채취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직접 맡고있는 혁명과업이다.

채취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초소를 지켜선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 언제나 맡겨진 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넘쳐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탄부들과 광부들속에 깊이 들어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침투하고 대중과 의논하며 그들의 창발적의견을 귀담아들으며 제기된 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있는 자재,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채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정책을 관철하는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없다. 모든 채취공업부문 일군들은 당의 경제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을 깊이 체득하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함으로써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채취공업에 힘을 넣어 석탄과 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임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고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음모와 모략은 괴뢰도당의 상투적인 수법

윤 윤 흥

지난해 10월 랑군폭발사건이 있은 이후 남조선괴뢰도당은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더욱더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전두환군사깡패들은 랑군폭발사건과 그 《범인들에 대한 재판》놀음을 기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면서 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은 놈들의 반공, 반공화국 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심해지고있고 광기를 띠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반동들이 서툰 음모를 꾸며가지고 소동을 피워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조선반동들은 그 어떤 술책으로써도 진실을 가리울수 없으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13페지)

세상에 이미 뚜렷이 드러난바와 같이 랑군폭발사건은 미일반동들의 뒤받침밑에 남조선괴뢰도당이 감행한 음흉한 모략책동의 산물이다.

랑군폭발사건은 철두철미 전두환역도의 자작극이다.

세상에 날이 갈수록 그 죄상이 드러나고있는바와 같이 이 사건을 조작해낸것은 다름아닌 전두환역도자신이였고 그를 직접 조직지휘한자는 안전기획부의 책임자놈들이였으며 현지행동대장으로 암약한놈은 버마주재 괴뢰안전기획부책임자놈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괴뢰도당은 이 사건의 책임을 공화국에 전가시키기 위하여 버마당국을 사촉하여 미리 꾸며놓은 대본에 따라 《범인》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려놓고 거기에 그 어떤 《공정성》, 《신빙성》을 부여해보려고 온갖 비렬한 술책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도당이 버마당국과 짜고 벌려놓은 이 서투른 《공판》놀음은 세계의 면전에서 전두환괴뢰도당의 추악한 몰골을 더욱더 드러내놓았을뿐이다. 《공판》의 전과정은 전두환역도야말로 이 사건의 진짜범인이고 그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전가시키려고 한것은 전적으로 국제반동들의 파렴치한 공모의 산물이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었다.

력사는 결코 위조할수 없으며 모략으로써는 세상사람들을 기만할수 없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공정한 내외여론과 국제사회계는 랑군폭발사건을 계기로 벌리고있는 전두환괴뢰도당의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한결같이 폭로규탄하고있다.

음모와 모략은 인민들을 기만하고 억압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며 놈들의 권력투쟁의 도구이다.

력사는 그것을 실증하고있다.

피로 얼룩진 제국주의의 침략력사는 흉악한 음모와 비렬한 모략사건으로 가득차있다.

제2차세계대전은 독일과 일본의 파쑈악당들이 집요하게 감행한 음모와 모략책동에 의하여 발발하였다.

히틀러파쑈도당은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리로 된다.》는 강도적론리에 기초하여 저들의 파쑈체제를 확립하고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모략책동을 서슴없이 꾸며내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히틀러도당의 독일국회의사당방화사건과 뮨헨맥주집폭

발사건은 그 전형적인 실례들이다.

히틀러도당은 1933년 2월에 이른바 국회의사당방화사건이란것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하여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적세력들을 마구 탄압하였으며 파쑈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1939년 7월에 있었던 뮨헨맥주집폭발사건도 역시 히틀러도당이 직접 꾸며낸 모략극이였다.

히틀러파쑈도당은 폭탄을 미리 장치해놓은 뮨헨맥주집에서 관제행사놀음을 벌려놓고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제놈만 빠져나오고 새놈의 정치적경쟁사 20명을 무데기로 살상하게 하였던것이다.

히틀러도당은 또한 이러한 음모적방법으로 1939년 8월에 독일특공대원들에게 뽈스까의 군복을 입히고 국경지대에 있는 독일방송국을 습격하게 하여 이른바 《그라이위쯔사건》을 날조하였다. 놈들은 그 《책임》을 뽈스까군에 넘겨씌우고 뽈스까에 대한 군사적침략의 구실을 마련하였으며 나아가서 제2차세계대전을 도발하였던것이다.

일본제국주의자들도 지난날 히틀러파쑈도당에 못지않는 악착한 음모와 모략을 조작하여 아세아대륙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중국동북지역을 강점하기 위하여 1931년 7월에 조중인민들간의 리간을 조성하기 위한 《만보산사건》을 꾸며냈으며 같은해 9월에는 심양교외에 있는 류조구부근의 철도를 제놈들이 폭파하여놓고는 그것을 구실로 이른바 《9.18사건》을 조작하고 전동북지역을 강점하였던것이다.

1937년에 일어난 중일전쟁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해낸 모략적인 《로구교사건》을 기화로 하여 일어났다. 《로구교사건》이란 바로 로구교근방에서 야간군사훈련을 벌리고있던 일본침략군이 먼저 총소리를 내고는 중국군으로부터 대응사격을 받아 한명의 군졸이 《행방불명》되였다고 날조하여 침략의 구실을 조작해낸것이였다.

이처럼 지난날 독일과 일본의 파쑈도당들은 음모와 모략을 일삼아왔으나 그 음흉한 내막은 여지없이 드러났으며 놈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되고말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력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세계도처에서 온갖 음모와 모략 책동을 감행하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에서도 음모와 모략의 수법으로 괴뢰들을 길러내고 갈아치우면서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해나가고있다.

남조선의 력대괴뢰들은 상전의 본을 따서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항거로 말미암아 궁지에 빠질 때마다 폭압과 함께 악랄한 음모와 모략극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하여 애국적인민들을 탄압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음모와 모략을 꾸미지 않고서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을수도 없고 유지할수도 없는것이다.

만고역적 리승만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위기에 처한 제놈의 더러운 지위를 부지해보려고 1948년과 1952년, 1955년에 이른바 《대통령암살미수사건》이라는것을 련이어 꾸며냈다. 그리고 1958년에는 진보당을 우리 공화국과 련결시켜 탄압하기 위한 구실을 조작하려고 위장간첩을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선생과 접촉하게 하여 이른바 《진보당사건》을 날조하였으며 그를 살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인간백정 박정희역도도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한 수많은 모략극을 벌려놓았다.

지난날에 있었던 《김대중랍치사건》과 《8.15저격사건》과 같은 모략극은 그러한 실례들인것이다.

《김대중랍치사건》이란 1973년 8월 박정희역도의 지령에 따라 중앙정보부가 《안개작전》의 이름으로 감행한 살인음모사건이였다. 괴뢰특무놈들을 시켜 일본 도꾜의 한복판에서 김대중을 랍치하여놓고는 그것을 마치도 북의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인것처럼 꾸미려고 한 이 사건은 그 죄상이 드러난 완전한 날조극

이였다.

이른바 《8.15저격사건》으로 불리우는 박정희역도에 대한 암살미수사건도 그 각본은 청와대에서 작성되고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에 의하여 집행된 광대극이였다. 그것을 반공, 반공화국 소동에 리용하려던놈들의 악랄한 모략의 진상은 그후 여지없이 드러났다.

박정희역도는 이밖에도 《남침위협》이라는 저들의 기만선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른바 《땅굴사건》과 《무장간첩단사건》과 같은 수많은 허황한 모략극을 연출하였다.

이처럼 모략을 일삼던 박정희역도는 바로 미제의 모략에 의하여 종말을 고하고말았던것이다.

미제의 하수인으로서 제놈의 더러운 권력을 부지하는데 골몰하는 남조선괴뢰도당이 하는 짓이란 이와 같은 음모와 모략뿐인것이다. 한때 남조선괴뢰고관을 지냈던자까지도 《권력과 음모—이것이 바로 청와대의 정치적초석이다.》라고 실토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오늘 전두환군사깡패들은 선임자들의 전철을 밟으면서 음모와 모략에 더욱 미쳐날뛰고있다.

전두환역도는 이미 괴뢰군사단장으로 있을 때에 30여명의 어중이떠중이들을 내몰아 일제때 폐광한 갱도를 변형개축하여놓고는 그것을 마치도 공화국이 《남침》하기 위하여 판것처럼 날조하여 이른바 《남침용 제3호땅굴사건》을 조작하고 《상》까지 타먹은놈이다.

권력과 출세욕을 채우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던 전두환역도는 비렬하고 추악한 음모와 모략에 의하여 괴뢰우두머리자리에 들어앉게 되였다.

박정희역도가 사살된후 《계엄사령부수사부장》자리를 차지한 전두환놈은 《숙군쿠테타》라는 음모를 조작하여 남조선괴뢰군과 중앙정보부를 장악하였다. 《5.17비상계엄령》을 조작하여 괴뢰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였으며 그 다음에는 괴뢰대통령과 괴뢰총리를 차례로 내쫓고 사법권과 행정권마저 틀어쥐였다.

전두환역도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탄압하고 제놈의 통치지위를 부지해보려고 이른바 《제2차김대중사건》과 카나다에서의 《전두환암살음모사건》, 《남파간첩사건》등 형형색색의 서투른 모략극을 조작해내였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하루가 멀다 하게 각종 《사건》을 날조하여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아닌 《죄》를 억지로 뒤집어씌우기 위한 《재판》놀음을 련이어 벌려놓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오늘 이처럼 비렬한 음모와 모략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은 날로 앙양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압살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고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여론을 기만하여 북과 남사이의 대결과 전쟁을 고취하며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합리화해보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음모와 모략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정치적 음모와 모략은 흑백을 전도하고 거짓을 날조하여 력사를 위조하는 범죄행위이다.

력사의 위조자는 시대의 흐름과 인민들의 지향을 가로막아나서는 력사의 반동이다.

음모와 모략으로써는 진실을 가리울수 없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미일반동들과 공모하여 그 어떤 범죄적인 모략책동을 다하여도 력사는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내게 될것이며 놈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미제는 중미주정세를 격화시키고있는 장본인

정 기 표

지금 중미주지역에는 매우 복잡하고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파괴되고 새 전쟁의 위험은 더욱 짙어가고있다. 중미주의 정세가 날로 격화되고있는것은 바로 이 지역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모험적인 침략정책과 관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리권보호〉요, 〈안전보장〉이요 하면서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들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침략적군사기지를 계속 늘이고있으며 〈협조〉와 〈보호〉의 간판밑에 이 지역 나라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틀어쥐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85페지)

최근년간 중미주지역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이 날로 강화되는데 겁을 먹은 미제는 어떻게 하나 그것을 《힘》으로 가로막고 이 지역에 대한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중미주지역의 정세가 격화되고있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중미주정세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미제의 로골적인 무력간섭으로 하여 극도로 첨예화되고있다.

세상에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미제는 국제관계의 공인된 원칙들을 란폭하게 짓밟고 그레네이더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그레네이더에 있는 미국인들을 《보호》한다는 당치않은 구실밑에 수많은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이 작은 섬나라를 강점하고 애국자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이것은 중미주지역나라들의 민족적 자주권, 독립에 대한 횡포한 유린이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파괴하는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미제가 그레네이더에 대한 공공연한 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이 나라에서 류례없는 류혈적참극이 빚어졌으며 그것을 둘러싼 주변의 군사정치정세는 심히 격화되게 되였다.

중미주정세는 그레네이더를 강점한 미제가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엄중해지고있다.

그레네이더를 강점한후 미제는 강도적인 《그레네이더방식》으로 니까라과혁명정권을 전복하고 쌀바도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진압하며 나아가서 중미주와 까리브지역의 자주적인 나라들을 《힘》으로 제압하기 위한 침략전쟁책동에 피눈이 되고있다.

미제는 특히 니까라과를 봉쇄하고 싼디노혁명정부를 압살해보려고 이 나라를 반대하는 로골적인 무력간섭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지금 2만 5,000명의 군대를 실은 미국함선들이 니까라과연해를 돌아치면서 이 나라를 위협공갈하고있으며 1만 1,000명의 미해병대가 온두라스—니까라과국경일대에서 온두라스군대와 합동군사연습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무력침공의 기회만 노리고있다. 이것은 니까라과에 대한 미제의 무력간섭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하여 정세는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미제는 까라브지역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소동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지난해 11월 꾸바해안주변에서 9척의 함선, 90대의 비행기, 7,500명의 해병대를 동원하여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을 감행하였고 그후에도 이 주변의 군사정세를 계속 긴장시키고있다. 그리하여 까리브지역나라들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

중미주와 까리브 지역에 미제의 대규모적인 침략무력이 투입되고 놈들의 군사적도발책동이 계단식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새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은 더욱 커가고있다.

중미주정세는 또한 미제가 자주적으로 나아가는 이 지역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악랄한 음모와 모략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복잡해지고있다.

지금 미제는 중미주지역에서 진보적인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우경에로 돌려세우며 이 지역 나라들에 있는 친미독재정권을 강화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미국지배층의 지령에 따라 악명높은 미중앙정보국은 중미주의 여러 지역에 활동기지를 넓히고 이 지역 나라들과 인민들을 반대하는 테로와 암해, 반정부음모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가 지난해 과떼말라의 몬뚜정권을 전복하고 보다 친미적인 메이아군사독재정권을 조작해낸 사실, 그레네이더총리 모리스 비쇼프를 암살한 사실들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중미주의 일부 나라들에서 저들의 고용병들을 긁어모아 무장시키고 그들을 반혁명적인 무장공격에로 내몰고있다. 미제가 온두라스군과 소모사반혁명잔당들을 동원하여 온두라스—니까라과국경일대에서 범죄적책동을 감행하고있는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한편 미제는 중미주의 친미독재정권을 저들의 침략의 앞잡이로 더 잘 써먹기 위한 군사《원조》도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지난해만 하여도 온두라스, 꼬스따리까, 과떼말라 등 친미독재정권에 수많은 현대적무기들을 군사《원조》의 명목으로 넘겨주었다. 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들의 군사독재정권을 더욱 틀어쥐고 그들을 중미주지역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가로막기 위한 반혁명책동에로 내몰려 하고있다.

중미주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태는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중미주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평화를 교란하는 장본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중미주정세를 그처럼 격화시키고있는것은 이 지역 나라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말살하고 저들의 신식민주의적지배를 실현하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 미제는 중미주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여 이 지역에 자주적인 나라들의 대렬이 늘어나는데 대하여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놈들은 어떻게 하나 중미주지역인민들의 민족적독립을 압살하고 자주적인 발전의 길을 가로막으며 이 지역을 저들의 《세습령지》로 계속 틀어쥐고있으려고 꾀하고있다.

중미주와 까리브지역은 지리적으로 미국과 가까이 있다. 중미주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련결하는 빠나마운하가 있으며 까리브해는 미국의 중요한 해상수송로로 되고있다. 미국은 까리브해역에서 수입석유의 3분의 2를 들여오고있으며 사탕을 비롯한 식료품을 보장받고있다. 메히꼬만과 빠나마운하를 통하여 미국의 수입광물자원의 절반이상이, 그레네이더섬을 따르는 해협을 통하여 미국의 수입원유의 52%가 운반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는 중미주를 서반구를 지배하기 위한 중요한 군사전략적요충지로, 경제적리해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지대로 간주하면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이다.

중미주와 까리브지역을 지배하려미

저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한 미제의 침략책동은 이미 지난 세기부터 시작되였다.

1823년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였던 몬로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제놈들의 독점적지배를 확립하며 략탈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몬로주의》라는 간판을 들고나왔다. 《아메리카사람을 위한 아메리카》를 제창한 《몬로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보호자》로 자처하면서 그들의 반미투쟁을 무마하며 제놈들을 《맹주》로 하는 《미주체계》를 조작하여 《미국을 위한 아메리카》를 실현하려는 침략책교리였다. 미제는 바로 《몬로주의》의 간판밑에 구라파구식민주의자들을 중미주지역에서 내몰고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 경제문화적침투, 령토강점을 감행하였다. 특히 1898년 미국—에스빠냐전쟁이후 미국은 《몬로주의》를 표방하면서 중미주의 많은 나라들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간섭을 뻔뻔히 감행하여 세력권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이 지역을 저들의 완전한 《세습령지》로 만들어놓았다. 그리하여 중미주나라인민들이 오랜 기간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게 되였다.

중미주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예속화정책은 제2차세계대전후에도 계속되였다. 미제는 겉으로는 민족적독립을 지지하는척 하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중미주지역나라들에서 친미독재정권을 조작하고 그를 통하여 이 지역 나라 인민들에게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를 들씌웠다. 한편 미제는 《미주국가기구》, 《진보를 위한 동맹》, 《중미주방위리사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내여 중미주나라들을 여기에 얽어매놓고 그들을 좌지우지하여왔다.

미제는 이처럼 력사적으로 중미주지역나라들의 자주권을 짓밟고 지배와 략탈을 감행하여온 이 지역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다.

중미주지역에 대한 미제의 저주로운 침략의 력사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며 미제는 이 지역에서 피묻은 침략의 손을 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시대의 요구와 세계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하면서 중미주지역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계속 유지해보려고 그처럼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중미주에 대한 놈들의 흉악한 침략야망은 결코 실현될수 없다. 미제가 중미주를 비롯한 서반구를 저들의 영원한 《세습령지》로 틀어쥐고있으려는것은 시대착오적인 어리석은 망상이다. 제국주의자들이 포함정책으로 작은 나라들을 강점하고 다른 나라들의 운명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자주의 물결은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서 굽이치고있다. 미국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불리워온 중미주에서도 반제자주를 위한 혁명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이미 1950년대말에 꾸바혁명이 승리한데 이어 1960년대에는 자메이카, 트리니대드 토바고, 바베이도즈가, 1970년대에 와서는 쎄인트 루씨아, 쎈트 빈센트가 독립을 이룩하고 니까라과에서 혁명이 승리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수리남혁명이 승리하고 벨리제, 안티구아 바브다가 독립을 이룩하였다. 중미주지역에서 일어나고있는 력사적사변들은 이 지역에서 저주로운 식민주의의 철쇄가 끊어져나가고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시대와 력사 발전의 이 거세찬 흐름은 그 어떤 힘으로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특히 오늘 중미주지역에서는 날로 격화되고있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니까라과인민은 《자유로운 조국이냐, 죽음이냐!》라는 구호를 들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싼디노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런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서고있다. 그 어떤 침략세력도 자기의 정당한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이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압살할수 없다.

투쟁의 불길은 쌀바도르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쌀바도르의 애국적무장력인 민족해방전선은 지난해만 하여도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에서 반동정부군 8,300여명을 살상포로하였으며 자기의 활동범위를 나라의 전지역에로 확대하고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이 나라의 혁명정세는 싸우는 인민들의 편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이밖에도 과떼말라를 비롯한 중미주의 여러 지역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인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무장투쟁이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날 미국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불리워온 중미주와 까리브 지역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지금 이 지역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심히 뒤흔들리고있으며 놈들은 헤여날수 없는 막다른골목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

미제는 중미주에 대한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감행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도 더욱더 고립배격당하고있다.

그레네이더에 대한 강도적무력침공을 감행한것으로 하여 미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은 물론 구라파《동맹국》들속에서까지 강력한 배격과 규탄을 받고있다.

뿔럭불가담나라들은 지난해 10월 뿔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미제의 그레네이더침공을 국제법과 자주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유린행위로 단죄하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이 이 지역에서 침략책동을 그만두고 당장 물러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유엔총회 제38차회의에서는 미제의 그레네이더침략을 규탄하는 결의가 108대 9의 압도적다수표로 채택되였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항의규탄과 국제무대에서 취해지고있는 모든 조치들은 미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으로 되며 중미주지역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대한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된다.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이것은 우리 시대 력사발전의 도도한 흐름이다.

우리 인민은 중미주와 까리브 지역 나라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미자주화를 위한 이 지역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언제나 적극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중미주와 까리브 지역에서 미제의 독점적지배체계는 종국적으로 무너지고 미제는 이 지역에서 반드시 쫓겨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84년 제2호(루계 502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4년 2월 1일 발 행•1984년 2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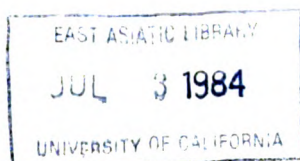
ㄱ—4514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3호

평 양 근로자사 198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3 호(503)

차 례

혁명적세계관확립과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가는 공산주의자는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열렬한 투사이며 투철한 혁명관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이다.

공산주의혁명가의 삶의 보람과 영예는 당과 함께 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나가는데 있다. 투쟁없이 혁명가로 될수 없다. 혁명가의 생활은 투쟁으로 시작되며 투쟁으로 끝난다. 혁명가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투쟁속에서 혁명적신념과 강의한 의지를 키우며 아름다운 리상과 념원을 실현해나간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투쟁하고있는 1980년대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며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비약과 혁신으로 수놓아지고있는 영광스러운 년대이다. 이 년대에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사회주의경제강국의 위대한 목표를 앞당겨 실현하여야 하며 사랑하는 조국의 위력과 주체조선의 영예를 더욱 높이 떨쳐야 한다.

1980년대는 우리 일군들이 높은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을 소유한 참다운 혁명가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80년대가 요구하는 불굴의 혁명투사로 되기 위하여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며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 ⁂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것은 열렬한 혁명투사가 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공산주의자는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바쳐싸우는 사람이다. 혁명에 어떻게 대하며 혁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이 어떻게 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운다는것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인민들이 다같이 잘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와 신념을 굳게 가진다는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로동계급과 인민 그리고 혁명에 대하는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진다.

혁명적세계관은 세계와 혁명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혁명적인 인식에 기초하고있는것만큼 혁명적세계관을 세울 때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에서 분석하고 판단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할수 있고 혁명투쟁에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다.

사람들은 또한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높은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가지게 된다.

혁명적세계관은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거창한 실천투쟁속에서 세워지며 이 과정에 혁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모든 난관을 끗끗이 이겨나가는 불굴의 의지가 키워지게 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헌신성, 혁명의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지켜나가는 강의한 혁명정신,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 등 고상한 공산주의혁명정신은 혁명에 대한 로동계급적 관점과 립장에 확고히 설 때 생겨나게 되고

혁명투쟁속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게 된다. 높은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가져야 사람들은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울수 있으며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나갈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투쟁과정에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지니게 된다.

혁명적세계관은 혁명가들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세워지고 공고화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며칠사이에 한두번의 교양으로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꾸준한 사상교양과 실천투쟁을 통한 의식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거쳐 형성되고 공고발전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5권, 2페지)

혁명적세계관은 날 때부터 서는것도 아니며 혁명을 오래하였다고 하여 저절로 서는것도 아니다. 경험은 혁명을 오래한 사람이나 로동계급의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지닐수 없으며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가지 않을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하는 사람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해나가야 한다.

모든 사물현상이 변하듯이 사람들의 사상의식도 변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어떤 영향과 교양을 받는가 하는데 따라 좋게 변할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수도 있다. 완성된 혁명가란 없는것만큼 사람들은 실천투쟁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변함없이 혁명에 충실할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투쟁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여야 하며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심화되여야 한다.

빨리 발전하는 우리 혁명과 조성된 정세는 일군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그것을 공고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 투쟁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담보하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빛나게 실현할 때 우리 나라는 경제발전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서게 되며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혁명적의무이다.

우리 인민의 투쟁은 매우 긴장하고 복잡한 정세속에서 진행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새 전쟁 도발책동을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으며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적들의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자면 우리 일군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이에서 힘차게 벌리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끊임없이 완성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일군은 당과 수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혁명과 건설을 비약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일군이라야 당과 수령의 참다운 혁명전사, 인민의 진정한 충복으로 될수 있으며 80년대가 요구하는 견결한 혁명투사로 될수

있다.

혁명가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의 전사이다. 혁명은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야만 승리할수 있다.

당과 수령을 받들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의 기본사명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데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애를 쓰는 일군은 당의 의도를 드팀없이 실현해나가지만 이러한 투쟁정신이 희박한 일군은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지 않고 난관앞에 주저하면서 일을 패기있게 밀고나가지 못한다. 일을 실속없이 되는대로 하거나 끝까지 다하지 않고 중도에서 내버리는것은 혁명가적기풍이 부족한 표현이다. 어느 부문, 어떤 초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강의한 의지,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고 모든 난관을 이겨내면서 혁명의 로선, 당의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싸우는 일군만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견결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으로 내세우고있는 불굴의 혁명전사들은 한결같이 혁명의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견결히 옹호하고 충성으로 받들어나갔으며 수령님의 의도와 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혁명가로서의 고결한 한생을 빛내인 이러한 불굴의 혁명전사들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의 전로정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방침을 드팀없이 구현해나갔기에 우리 혁명은 힘있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불굴의 혁명전사들이 지니였던 혁명정신은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산악과 진펄이라도 오직 그길로만 가는 절대적인 충실성으로 일관된 숭고한 정신이며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데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싸워나가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그들이 지니였던 높은 정신세계는 우리 일군들이 언제나 따라배워야 할 구감으로 된다.

우리 일군들은 조선혁명의 승리적로정을 빛나게 장식한 불굴의 혁명전사들의 고결한 투쟁정신을 거울로 삼고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감으로써 80년대의 열렬한 혁명투사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 우리 일군들이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견결한 혁명투사로 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509페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녀야 당과 수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있는 혁명적세계관의 집중적발현이다.

혁명적세계관은 혁명가의 품격을 규정하는 사상적원천이다. 혁명실천에서 발휘되는 사람들의 혁명정신은 그들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 사람들이 얼마나 고상한 풍모를 지니는가 하는것은 결국 세계관문제이다.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하여야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닐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은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고있으며 사람들에게 올바른 혁명관을 준다. 혁명적세계관이 투철하여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

든것을 다 바쳐나갈수 있으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다.

그리고 혁명적세계관은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을 주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심어준다.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설 때 사람들은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할수 있다.

이처럼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혁명적세계관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한편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과정은 혁명적세계관을 공고화해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혁명적세계관은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세우는것과 함께 혁명적각오와 그에 기초한 혁명적의지를 가질 때 튼튼히 세워질수 있다. 혁명적 신념과 의지는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 확고히 다져진다. 사람들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품격을 훌륭히 갖출수 있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결여되면 혁명적세계관이 섰다고 말할수 없다. 따라서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공산주의혁명가의 고결한 풍모를 지니기 위해서는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혁명성, 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혁명성, 당성은 당과 수령,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다. 그것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는 견결한 혁명정신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수행된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 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로서의 고귀한 생명을 빛내이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 혁명에 끝까지 충실하여야 한다. 높은 당성을 지닌 사람만이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공산주의혁명가의 당성은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하게 표현된다.

단결은 로동계급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로동계급이 계급적원쑤를 때려부시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반드시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단결을 가장 귀중한 무기로 삼아왔으며 단결의 힘에 의거하여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왔다. 단결의 뉴대로 결속되여있는데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으로서의 로동계급의 계급적특성이 있으며 그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로동계급과 그 선진분자들인 공산주의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단결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의 당성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이 발휘되여야 한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조성된 정세와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임무로부터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하여야 한다. 적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면 승리하고 단결하지 못하면 승리할수 없다. 단결이자 곧 혁명승리이고 혁명승리는 바로 단결에 있다.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어떻게 뭉쳐있는가 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을 단결의 중심에 모시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전진하는 대오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니게 된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변함없이 높이 모심으로써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의 전력사적행정에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언제나 가장 숭고하고 공고한것으로 꿋꿋이 이어올수 있었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였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을 받들고 억세게 싸워나갔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력사를 장식한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으로 되였다.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지난날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나갔던것처럼 오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우리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중앙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음으로 하여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고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향도자이다.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만이 자기들에게 오늘의 영광과 행복을 마련해주며 휘황한 미래를 담보해주는 위대한 품이며 주체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조직자, 령도자이라는것을 심장으로 굳게 확신하고있다.

그러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전당, 전국, 전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승리에 대한 확신과 불요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억세게 전진해나가고있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불패성은 그것이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통일단결만이 의지적인 단합으로, 진정한 통일단결로 된다. 자기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동지적으로 서로 믿고 사랑하는 혁명동지들 사이의 결합은 그 어떤 힘으로써도 깨드릴수 없다.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동지로 다함없이 경모하고 우러러받들어나갔던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인민들은 자기들에게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는 당중앙을 무한히 신뢰하며 그 두리에 동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굳게 결속되여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허물래야 허물수 없는 불패의 위력을 지니게 되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이 혁명의 한길에서 영생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선렬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대오의 통일단결을 철옹성같이 다져나가는데서 80년대의 혁명투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 혁명가로 되기 위해서는 혁명성, 당성을 지니는것과 함께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헌신적복무의 정신이다.

공산주의혁명가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온갖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하고 그들이 잘먹고 잘입고 잘사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로동계급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싸울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선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다.

일군들의 인민성은 로동계급과 인민

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우리 당은 오늘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구상과 대담한 작전을 련이어 펼치고있으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있다. 일군들이 당과 수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때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지고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게 될것이다.

인민의 충복이라는 관점을 철저히 세우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일군이라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참답게 복무하는 혁명가로 될수 있다.

로동계급과 인민을 사랑할줄 모르며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려 하지 않는것은 대중과 동떨어진 관료화된 표현이다. 인민들의 생활상불편을 보고도 안타까와하지 않는 일군은 인민의 사랑을 받을수 없으며 당과 수령의 의도를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지휘성원의 풍모를 갖추었다고 말할수 없다.

지난날 항일유격대지휘관들은 자신은 덥고 배부를 때에도 대원들은 춥고 배고플수 있다는것을 명심하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언제나 대원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었다.

우리 일군들이 이러한 뜨거운 심정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돌보아준다면 그들은 사소한 불편도 모르고 더욱 유족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며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려는 당의 의도와 구상은 훌륭히 실현되게 될것이다.

당과 수령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혁명의 중요한 초소를 맡고있는 우리 일군들이 당의 믿음에 보답하는 길은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주며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성심성의껏 해결해주는데 있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생활을 일상적으로 돌보는것을 인민성이 높은 혁명가의 의무로 여기고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 투쟁하여야 한다.

이처럼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 혁명가의 영예를 빛내이며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우리 일군들이 한번 결심품고나선 혁명의 길에서 일생동안 전진하는 혁명대오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당의 로선,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사람들을 혁명가로 키우는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적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단련하며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완성해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혁명과 건설의 근본목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있으며 그것은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인민대중은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이다.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한다면 그 어떤 어려운 난국도 타개하고 혁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으며 세상에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혁명과 건설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주인이며 자신의 창조적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켜나가는 결정적요인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로부터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자체의 힘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혁명은 수입할수도 없고 수출할수도 없다. 오직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자신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주동적으로 벌려나가게 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자각한 당과 인민대중만이 남을 쳐다보지 않고 독자적인 사고력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창조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밝힘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한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올바른 방도를 파악하는것은 혁명투쟁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져도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알지 못하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수 없다. 당과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올바른 방도를 틀어쥐여야 자주적권리를 적극 옹호하고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으며 우여곡절과 편향이 없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을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주체적인 립장과 원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높이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올바른 립장과 원칙이다.

자주적립장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혁명적립장이다. 자주적립장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구현된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수 있다.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며 모든것을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혁명적이

며 과학적인 립장이다. 창조적립장은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며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원칙으로 구현된다.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하고 현실에 맞는 방도를 찾아내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자면 모든 사업에서 사상개조를 선행하고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구현하여야 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켜 혁명을 빨리 성숙시키고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적 립장과 원칙이 밝혀짐으로써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적극 높여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참다운 길을 찾게 되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주체적 립장과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의 길이 밝혀짐으로써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세기적인 지향과 념원을 현실로 전변시키기 위한 강유력한 무기가 마련되고 온갖 예속과 압박, 지배와 간섭이 없는 자주의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투쟁을 벌려나가는것은 혁명운동의 합법칙성과 민족국가단위로 벌어지는 우리 시대 혁명투쟁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의 길은 무엇보다먼저 혁명운동의 본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은 주인인 그 나라 인민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하여야 하며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요구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5~6페지)

혁명운동의 본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혁명투쟁을 벌려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혁명운동에는 자체의 고유한 본성과 발전의 합법칙성이 있는것만큼 그에 맞게 혁명투쟁을 벌려나가야 주객관적조건을 능동적으로 조성하고 리용하면서 혁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이 밝힌바와 같이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은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근본원인으로 하여 일어나고 그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전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의하여 추동된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투쟁으로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자연과 사회의 개조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지위가 강화되고 그들의 힘이 장성하며 그리고 인민대중의 지위가 강화되고 그들의 힘이 커질수록 혁명운동에서 노는 인민대중의 역할이 더욱더 높아지는것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며 이 과정에서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높이고 혁명과 건설을 능동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는 능력과 힘을 키운다. 인민대중은 혁명투쟁과정에서 강화된 지위와 장성된 힘에 의거하여 끊임없이 계속되는 혁명투쟁에서 자기의 주동적역할을 더욱더 높여나간다.

주체사상이 밝힌 새로운 혁명의 길은 혁명운동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맞는것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주체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자기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끊임없이 높이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여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주동적으로 틀어쥐고 능동적으로 리용하면서 실패와 우여곡절이 없이 혁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의 길은 또한 혁명투쟁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요구에 부합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운동이 민족국가단위로 다양하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는 매개 나라 인민들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노릇을 옳게 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81페지)

인민대중이 혁명에서 승리하자면 시대의 특징과 요구를 구현한 옳바른 길을 따라 혁명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혁명하는 방식은 고정불변할수 없다. 력사적시대가 변하면 그에 맞게 새로운 혁명방식이 창조되여야 한다.

우리 시대에 와서 혁명운동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폭넓고 다양하게 벌어지고있으며 세계혁명의 민족적부대들이 크게 자라나고있다. 공산주의운동에서 국제적중앙이 더는 필요없게 된 우리 시대는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이 새로운 혁명의 길,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길을 따라 나아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자주적으로 혁명하는 길은 혁명의 민족적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국제혁명발전에도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참다운 혁명의 길이다.

나라마다 자기의 민족적 및 자연지리적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혁명발전단계와 투쟁임무도 서로 다르다. 혁명을 하는데는 그 어떤 고정불변한 공식이란 있을수 없으며 어느 시대, 어떤 나라에나 다 들어맞는 처방이란 있을수 없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지만 혁명을 하는데는 불변한 공식이 있을수 없다. 혁명을 하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공식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기 식으로 풀어나가는 여기에 사소한 우여곡절과 편향도 없이 혁명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며 아무리 어렵고 생소한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열쇠가 있다.

매개 나라의 혁명을 떠나서 세계혁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혁명의 민족적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서는 국제적임무에 충실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 때만이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으며 자주성에 기초하여 당들사이의 단결을 자원적이고 평등한것으로,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되게 할수 있다.

혁명을 자주적으로 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성격에도 맞는다.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창조적학설이다. 혁명발전의 선행단계와 구별되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은 창조적학설로서의 맑스-레닌주의의 본성에 부합되는것이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는 아무러한 인연도 없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물젖어 독자적인 주견과 신념이 없이 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남의 경험을 통채로 삼키면 자기 나라 혁명을 망치는것은 물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위력을 훼손시키고 국제혁명력량의 단결에 지장을 주며 세계혁명발전에도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길은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혁명적요구에 전적으로 맞는것으로 하여 매개 나라 인민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세계혁명발전을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길이다.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은 장기간에 걸치는 조선혁명의 실천에 의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조선혁명은 지난 기간 참으로 어렵고 간고한 길을 걸어왔다. 우리 인민은 포악한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맞서싸워야 하였고 당내에 잠입한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혁명과 건설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혁명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바로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데 있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식민지민족해방의 가장 정확한 길을 개척하고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열어놓았으며 세상사람들이 칭송하는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를 일떠세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생소한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세기적인 기적과 력사적인 전변은 그 어느것이나 다 주체사상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다.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조선혁명의 영광찬란한 승리의 로정에 대하여 말할수 없고 우리 혁명의 끝없이 번영하는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주체사상이 밝혀준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어떤 모진 시련과 고난도 뚫고 백전백승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할수 있다는것은 조선혁명의 력사적경험의 고귀한 총화이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혁명적신념이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삼고있는 인민으로서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완성을 앞당겨야 할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

김 제 선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이어받은 혁명정신이며 생활기풍이다.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는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인민이 빛나게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사상정신적재부로 된다.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는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의 하나이다.

혁명적신념은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굳게 믿고 그 실현을 위하여 완강하게 싸워나가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생동안 혁명의 길을 억세게 걸어나가게 하며 그들이 혁명투쟁에서 불굴의 의지와 강의한 투쟁력을 발휘하게 한다.

사람들은 혁명적신념을 가져야 어떤 애로와 난관도 용감히 뚫고나가는 강의한 의지를 발휘할수 있으며 죽음의 마당에서도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지켜 끝까지 굴함없이 싸워나갈수 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난관과 시련 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하게 되며 준엄한 시각에는 비렬하게도 배신과 변절의 길로 굴러떨어지고만다. 결국 신념이 없는 사람은 너절한 속물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적인간으로서는 한푼의 가치도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혁명가들은 혁명투쟁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여도 혁명적신념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가며 이 길에서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여나간다.

혁명적신념으로부터 혁명가들의 락관주의가 흘러나온다.

혁명적락관주의는 혁명의 승리를 굳게 믿는데로부터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비관과 동요를 모르고 언제나 명랑하고 생기발랄하게 살며 용기백배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는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이며 투쟁기풍이다. 혁명적락관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가들은 그 어떤 간난신고속에서도 우울과 침체를 모르고 조금도 비관함이 없이 랑만에 넘쳐 살며 싸워나갈수 있으며 혁명가의 한생을 빛내일수 있다.

자기의 전도를 비관하는 사람은 아무리 재능있고 지혜롭다 하여도 약자가 되는 법이며 그러한 대오는 단결도 안되고 싸움도 잘할수 없다.

참다운 혁명가들은 혁명적락관주의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공산주의의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지향을 안고 언제나 투쟁과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며 그 어떤 시련도 뚫고 굴함없이 싸워나간다. 원쑤들의 겹겹으로 된 포위속에서도, 철창속에서도, 단두대에 올라서서도 락관과 신심과 희열에 넘쳐 영웅적으로 싸우며 생명의 마지막순간에도 웃으며 맞받아나가는것이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숭고한 기풍이다.

이처럼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는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승리를 굳게 믿고 모진 풍파와 시련을 이겨내며 끝까지 완강히 싸워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의 하나이며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고상한 풍모로 된다.

우리 인민의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은

공산주의자들속에서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의 빛나는 모범이 수많이 창조된 영광스러운 투쟁이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니였던 혁명적 신념과 락관주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굳은 확신에 기초하여나온 숭고한 혁명정신이다.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게 된것은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과 사상정신생활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허덕이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우리 인민에게 재생의 길을 밝혀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함으로써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에서는 그 어떤 강적도 물리치고 반드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게 되였으며 추호의 동요도 모르고 언제나 혁명적랑만에 넘쳐 락천적으로 살며 싸워나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바로 여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적 신념과 락관주의를 발휘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한 백전백승하며 조국광복의 위업을 기어이 성취할수 있다는것을 굳게 믿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꿋꿋이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투쟁행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고결한 혁명정신,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는 식량과 피복, 무기와 탄약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게다가 적들은 수량상 우리와 대비할수 없으리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빼앗긴 나라를 찾고야말겠다는 불같은 혁명정신과 원쑤들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용감하게 싸웠으며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5권, 207~208페지)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는 무엇보다도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지고 준엄한 혁명의 시련을 뚫고나가는데서 높이 발휘되였다.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간고한 혁명의 한길로 계속 꿋꿋이 걸어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 근본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혁명의 길에 나선 항일유격대원들은 강의한 의지로 중첩되는 난관속에서도 동요함이 없이 견결히 싸워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한 투쟁이였으며 걸음마다 사선과 혈로를 헤쳐나가야 하는 준엄한 시련으로 이어진 투쟁행로였다.

수십만 대군의 끈질긴 추격과 중첩되는 포위, 적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회유기만책동, 설한풍 휘몰아치는 엄혹한 추위와 모진 굶주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경속에서 혁명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든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였다. 하지만 항일유격대원들은 결코 비관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며 절대로 난관과 시련 앞에서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의 투쟁과 생활의 확고한 신조였으며 철석같은 의지였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께서

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한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을 안고 백절불굴의 혁명적의지로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쳐나가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귀감이시였다.

민족배타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마안산에서 아동단원들이 버림받고있을 때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너희들은 외롭지 않다. 장군님의 품에 안길 날이 꼭 올것이다. 그날을 믿으며 모든 시련을 굳세게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고무하시면서 그들이 시련을 이겨내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혁명적신념과 강의한 의지의 생동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전로정이 그러하였지만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시기는 우리 혁명에서 참으로 매우 어려운 때였다. 진드기처럼 달려드는 적들과 때로는 하루에도 10여차례의 피어린 전투를 겪어야 했고 령하40도를 오르내리는 모진 추위도 이겨내야 했으며 거기에다 식량마저 떨어져 참을수 없는 굶주림을 극복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불굴의 혁명전사로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겹겹이 부닥치는 곤난과 시련을 뚫고 간고한 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100여일동안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보장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천고의 밀림속에 홀로 떨어져있어도 언제나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조금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으며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갔다.

실로 항일혁명의 길은 헤아릴수 없이 복잡하고 간고하였으나 항일유격대원들의 의지가 그처럼 억세고 강렬하였기에 그들은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라는 구호밑에 믿고 험난한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었으며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는 또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지켜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는데서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혁명적지조는 비록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이며 혁명적절개를 지켜나가는 혁명정신이다. 혁명에 다진 맹세를 저버리고 대세와 추세에 따라 변하며 환경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은 혁명의 간고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의 신념을 지켜나갈수 없다.

력사는 혁명적지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혁명의 변절자로 굴러떨어진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마동희동지는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여 잔인하고 살인적인 혹독한 고문을 매일 번갈아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견결히 싸웠다. 그는 《대일본제국》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일제교형리들에게 《내 이야기가 그렇게도 듣고싶거든 들어봐라,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다! 너희들과는 한하늘을 머리우에 같이 일수 없는 공산주의자다! 너는 내 입에서 이외에 아무 말도 다시는 듣지 못할것이다.》라고 추상같이 웨치면서 스스로 혀를 끊었다.

이것은 항일혁명선렬들이 죽음앞에서도 실망과 비관을 모르고 혁명적락관에 넘쳐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싸운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적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 심장을 도리워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에도 항일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자기의 신념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으며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혁명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영예를 변함없이 지켜나갔다.

한순간을 살고 일생을 살아도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수령님의 품속으로 돌아오려는것은 항

일혁명선렬들의 절절한 념원이였다. 그러기에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지닐수 있었으며 영생하는 혁명가의 삶을 빛내일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는 또한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고 언제나 락천적으로 생활하고 싸워나가는데서 높이 발휘되였다.

혁명의 승리를 락관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길이 열려도 전진하지 못하며 이러한 사람의 생활은 언제나 비관과 우울, 실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은 락천적으로 살아야 하루를 살아도 사는 보람을 느낄수 있다.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기약할수 없었던 그 간고한 시기에 일제의 백만대군과 맞서싸우는 준엄한 나날속에서도 항일혁명대오안에는 언제나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생활이 약동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가렬한 전투를 눈앞에 두고도 행군의 쉰참에도 그리고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도 락천적으로 살며 일하는것을 중요한 생활원칙으로 삼았다.

항일유격대원들속에는 작가나 작곡가도 따로 없었지만 그들은 혁명적인 가사도 쓰고 작곡도 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그들의 생활은 춤과 노래로 흥성거렸다.

혁명적인 노래와 춤을 비롯하여 정갈하고 다양한 생활로 기득찬 항일유격대원들의 락천적인 생활기풍은 그들을 새로운 영웅적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적들을 죽음과 공포에로 몰아넣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간고한 항일의 나날에 유격대원들이 혁명적랑만에 넘쳐 명랑하고 락천적으로 살며 싸워나간 바로 여기에 그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의 특징의 하나가 있으며 혁명대오의 필승불패의 위력이 있었다.

참으로 항일의 불길속에서 뿌리내리고 높이 발휘된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는 항일유격대원들이 백절불굴의 투지와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 사상정신적요인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니였던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는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숭고한 풍모이다.

지난날 백두밀림에 차넘쳤던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의 정신은 오늘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적진군속에서 빛나게 이어지고 높이 발양되고 있다.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은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한것이다.

오늘 국내외정세는 매우 긴장하고 복잡하며 우리의 혁명투쟁은 의연히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군사적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있으며 우리 혁명은 적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우리 인민앞에는 적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지키며 주체사상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우리 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이끄는 한 우리에게 뚫고나가지 못할 난관이란 없으며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정신과 투쟁기풍을 빛나게 이어나감으로써 주체의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농촌사상혁명수행을 위한 군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리 량 원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사상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이 강화됨으로써 농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전국의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은파군안의 농업근로자들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있으며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을 비상히 다그쳐나가고있다.

현실은 농촌사상혁명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으며 농촌사상혁명수행을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는 바로 여기에 농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며 농촌문제해결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농촌에서의 사상혁명은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개조사업이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하며 그들의 모든 활동을 규제한다. 농촌의 주인이며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민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하여야 농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있다.

농촌사상혁명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군당위원회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군당위원회는 농촌사상혁명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우리 당의 말단집행단위이다. 따라서 농촌에서 사상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군당위원회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모든 군당조직들이 농촌당조직들을 옳게 발동하고 농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해나갈 때 당의 의도대로 농촌사상혁명을 적극 추진시킬수 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농촌사상혁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당조직들이 사상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

우리는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군의 특성에 맞게 사상사업의 옳은 방법론을 세운데 기초하여 그를 적극 밀고나갔다.

은파군은 재령벌을 끼고있는 우리 나라 곡창지대의 하나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여러차례에 걸쳐 현지지도하여주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은혜로운 해빛이 뜨겁게 미친 유서깊은고장이다.

군당위원회는 바로 이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군안의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키워 위대한 수령님의 공산주의농촌건설구상을 남먼저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왔으며 이 과정에 우리는 당조직정치사업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농촌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에서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농업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원리적으로 진행할 때 높은 실효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원리교양은 사회현상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의 바탕에 놓여있는 원리와 리치,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깨우쳐주는것으로서 그것은 사람들을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로동계급에 비하여 기술, 문화적으로 뒤떨어져있을뿐아니라 사상의식수준에서도 많이 뒤떨어져있는 농민들인 경우에 그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원리교양에서 군당위원회가 힘을 넣은것은 농업근로자들을 주체사상의 원리로 확고히 무장시키도록 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사상혁명의 중심과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135페지)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농업근로자들을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로 견지히 무장시킬 때 그들속에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울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농업근로자들을 주체사상의 원리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학습강사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로 어떻게 튼튼히 무장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학습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학습강사들의 역할에 많이 달려있다.

그러나 군당일군들이 여러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학습회에도 참가하고 당원들과 학습담화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료해한데 의하면 일부 학습강사들이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학습을 능숙하게 지도하지 못하고있었다. 원래 원리교양은 심오한 리론을 가르쳐주는 사업인것만큼 알기 쉽게 풀이를 잘해야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일부 학습강사들은 농업근로자들의 수준에 맞게 주체사상의 원리를 옳게 해설해주지 못하고 학습제강에 있는 내용들을 실정에 맞게 잘 설명하지 못하고있었다.

군당위원회는 여기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학습강사들이 열을 알고 하나를 가르쳐야 한다는 원칙에서 강의를 하고 학습토론을 지도하게 하였으며 학습강사들을 주체사상의 원리로 철저히 무장시키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는 학습강사들을 위한 강습과 《학습강사의 날》을 계기로 모든 강사들이 학습제목의 내용을 리치를 따져가며 완전히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강의제강을 원리적으로 작성하도록 장악지도하였으며 주체사상의 원리학습을 실속있게 하고있는 적성협동농장의 한개 학습반을 본보기로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조직진행하였다.

적성협동농장의 학습반을 본보기로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은 제기된 학습문제를 해설할 때에는 농민들이 일상적으로 보고 느끼는 생동한 사실과 자료를 결부시키는것이 가장 효과적이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해설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람이 자연과 사회에 얽매여사는것이 아니라 사람은 땅을 다스려 논밭을 가꾸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계와 농약을 만들어 농사를 헐하게 하며 사회를 자기의 리익에 맞게 개조해나간다는것을 생동한 현실과 자료를 결부시켜 해설하여줌으로써 농업근로자들로 하여금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것을 똑똑히 리해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근로자들을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그들의 특성에 맞게 조직진행됨으로써 오늘 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농업근로자들속에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도 생동한 현실과 밀접히 결부하여 원리적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갔다.

경험은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원리적으로 진행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에서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또한 긍정적모범을 통한 대중교양방법을 구현하여 농민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해나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군중교양의 기본방법은 사람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이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219페지)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방법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람들의 사상개조의 특성 그리고 근로대중의 사상감정에 맞는 위력한 대중교양방법이다.

긍정적모범을 통한 대중교양방법을 구현하는데서 군당위원회는 무엇보다먼저 이 사업을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였다.

숨은 영웅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사상의지대로만 살며 일하고있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이다.

그들의 모범은 사람들에게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으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군당위원회가 중요하게 틀어쥐고나간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우리 당이 바라는것이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묵묵히 일해나가는 사람들을 찾아내여 내세우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진행한것이다.

이 과정에 우리는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알맞는 다수확품종을 얻기 위하여 자체로 온실을 꾸려놓고 20여년간 연구사업을 하여오는 협동농장의 평범한 로당원의 아름다운 소행과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15년간 해마다 자체로 자급비료를 수십톤 생산하여 정보당수확고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는 은파읍의 한 농장원의 모범적사실을 비롯하여 군안의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사실들을 찾아낼수 있었다.

군당위원회는 이러한 긍정적모범을 적극 내세워주고 일반화하기 위하여 군방송과 기동예술선전대활동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군안의 농업근로자들속에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한 일이라면 누가 보건말건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일해나가는 혁신자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궁정적모범을 통한 대중교양방법을 구현하는데서 군당위원회가 힘을 넣은것은 또한 사상적으로 뒤떨어진 농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속에서 궁정적모범을 의도적으로 키우고 그것을 조장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간것이다.

일반적으로 생활이 높아져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이 없어짐에 따라 일부 농민들속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는 현상은 우리 군의 경우에도 없지 않았다.

군당위원회는 사상적으로 뒤떨어진 이런 사람들을 인내성있게 교양하여 그들속에서 나타나는 궁정적사실들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우리는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이 뒤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개별교양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농민들의 정서에 맞게 작업반교양실에 문화교양수단들을 갖추어주고 텔레비존화면을 통하여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 《농민영웅》, 《불타는 마음》 등을 감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이많은 로당원들을 준비시켜 지주놈의 동산밑에서 천대받고 못살던 지난날과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된 오늘의 현실을 대비하여 이야기해주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파거처지를 잊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사상적으로 뒤떨어진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혹은 집체적으로 짜고들어 교양하고 자주 깨우쳐줌에 따라 그들속에서는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앞세우며 농장일에 더욱 성실하게 참가하는 궁정적사실들이 수많이 나타나게 되였다.

우리 군의 강안리를 비롯한 많은 협동농장들에서는 로인들이 스스로 작업분조를 뭇고 농사일을 적극 돕고있으며 적성리의 어느 한 농장원은 자기 집에서 50여마리의 닭을 기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닭알들을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궁정적측면들을 적극 지지해주고 조장발전시켜주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지난날 사상적으로 뒤떨어졌던 적지 않은 사람들을 참다운 농업근로자로 교양개조할수 있었다.

실천적경험은 궁정적모범을 통한 대중교양방법을 적극 구현해나갈 때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체실정에 맞게 다양한 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이대여 농업근로자들속에 충성심을 키워주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한것은 농촌사상혁명수행에서 우리가 이룩한 중요한 경험의 하나이다.

은파군당위원회는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과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군의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조직전개하였다.

여기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관심을 돌려온것은 우리 군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적지들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뜨거운 은덕이 깃들어있는 사적지들을 잘 꾸리고 사적내용을 통하여 군안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한것이였다.

군당위원회는 우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단위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은덕이 깃든 사적지들을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이 되게 정중히 꾸리는데 깊은 주목을 돌리였다.

우리는 사적지를 꾸리는 과정이 곧 대중속에서 충성심을 키우는 과정이 되게 교양사업을 짜고듦으로써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뜨거운 충성심을 가지고 사적지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사적지를 꾸린 다음에는 군적으로 이에 대한 참관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와 수령님께서 지니신 높은 덕성, 당중앙의 령도의 현명성을 실감있게 체득시켰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굳게 다지게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또한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로동자들과는 달리 농민들은 자연적, 계절적 제약성을 받으면서 넓은 포전에서 분산되여 일하고있다. 따라서 농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정치사업은 그에 맞게 조직진행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는 농사일의 시기별공정에 맞게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다양하게 조직진행하였다.

봄갈이와 모내기가 시작될 때에는 뜨락또르운전수들의 결의모임도 조직하고 모내기가 끝날무렵에는 물관리공, 비료, 농약 시비공들을 모여놓고 당의 주체농법을 가르쳐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치사업이 알찬 열매를 맺도록 하자면 한두번의 해설강의나 결의모임을 조직진행하는것으로는 안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전과정이 곧 정치사업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하는것이다.

군당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관점과 립장에서 정치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지난해 강안협동농장에서 기계로 모내기를 100% 하여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도 모내기를 제철에 끝낸 과정이 그 실례의 하나로 된다.

지난해 봄에 있은 일이였다. 모내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자면 많은 로력이 요구되였다. 그러나 군당위원회는 사람들의 머리수를 계산하면 로력이 부족하지만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충성심을 높이어 발휘하게 한다면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제 날자에 모내기를 끝낼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면한 모내기전투를 앞두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돌이대였다.

여기서 특히 군의 책임일군들이 영화필림을 가지고 협동농장작업반에 내려가 모내기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속에서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에 대한 실효모임을 조직한것은 그들속에 주체농법관철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키워주고 충천한 기세를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였다. 그리고 군당책임일군들이 직접 농장원들과 같이 모내기도 하고 방송차를 리용하여 경제선동도 힘있게 벌려나갔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곡창지대의 하나인 태상벌의 적지 않은 부침땅을 가지고 해마다 많은 지원로력을 받아야 모내기를 끝내던 강안협동농장이 지난해에는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앞당겨끝내고 뒤떨어진 다른 협동농장을 로력적으로 지원까지 할수 있었던것이다.

현실은 사상교양사업의 과녁이 일단 설정된 다음에는 거기에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돌이대야 사람들의 정치사상생활에서는 물론 혁명과업수행에서도 커다란 은을 나타내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은파군당위원회는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일정한 성과와 경험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초보적인 성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앞당겨점령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쳐나갈것이다.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정책 관철을 위한 중요한 요구

김 인 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함경북도 당단체들의 과업》이 발표된 때로부터 25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력사적인 로작에서 당사업과 인민정권사업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함경북도안의 당단체들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 로작은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 정애하는 로작에서 제시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당안에 혁명적 질서와 규률을 세우는것이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여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전투적부대입니다. 우리 당에는 강한 혁명적질서와 혁명적규률이 필요합니다.

당내에 혁명적 규률과 질서가 서지 않고는 당이 전투적인 부대로 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3권, 217페지)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운다는것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적규률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전투력의 원천이다.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선진분자들로 이루어진 전위부대이며 강철같은 규률에 의하여 유지되는 조직적부대이다. 혁명적규률을 떠나서 당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으며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이끌어나갈수 없다.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를 세운 당만이 자기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 인민대중의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은 자기의 결정과 지시를 통하여 전당을 움직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령도적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전당에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나선다.

혁명적규률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옳게 구현함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전당이 하나의 규률에 따라 한몸과 같이 움직일 때 성과적으로 관철된다. 당중앙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은 아래에서 올라온 의견이다. 그것은 광범한 당원대중의 의사를 대표하며 전당의 조직적의사이다. 따라서 당의 정책과 결정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집행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규률이다.

당의 혁명적규률은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적지도를 밀접히 결합시킨 규률이

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당의 조직원칙이며 혁명적규률의 기초이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은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유일적으로 지도할수 있게 하는 규률이다. 그것은 이 규률이 모든 당원들은 당조직에, 아래당조직은 웃당조직에, 전당은 당중앙에 복종시키는 혁명적인 질서와 규률을 확립하기때문이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을 튼튼히 세워야 당안에 당중앙이 제시하는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할수 있다.

우리 당의 규률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옳게 구현함으로써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규률이다. 이 규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립장을 가질수 있게 하며 당정책을 끝까지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혁명적규률은 광범한 당원대중의 자각성과 헌신성에 기초하여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는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킬 때 성과적으로 관철된다. 광범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업은 힘있는 정치사업과 함께 그들의 행동의 통일성과 유일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자각적인 규률을 요구한다.

혁명적인 조직규률은 조직에 망라된 성원들의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준수되는 규률이며 그들의 자각성에 기초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규률이다. 로동계급의 당에는 당원대중의 정치적자각성에 의하여 준수되고 유지되는 자각적인 규률만이 있을수 있다. 강제에 못이겨 준수되는 규률은 당원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할수 없다. 당원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 굳은 결심을 가지고 당에 스스로 들어온 혁명가들인것만큼 자각적인 규률속에서만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할수 있다. 당원들이 당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것은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의 요구를 잘 알고 그것을 스스로 준수하며 당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과정이다. 당원들은 당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과정에 당조직을 귀중히 여기며 당의 결정과 지시를 언제나 존엄있게 대하고 그것을 순간의 지체와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는다.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투쟁속에서 당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어김없이 관철하게 되며 당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게 된다. 이처럼 자각적인 당규률은 당원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규률은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정치적자각에 기초한 규률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수령의 사상과 당의 방침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우리 당원들의 의사와 념원이 그대로 구현되여있다. 우리 당원들은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과정을 곧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의 발현과정으로 여기고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한 성원으로 된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당정책을 끝까지 어김없이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으로 살며 투쟁하는것보다 더 중요하고도 보람찬 사업은 없다. 우리 당원들이 높은 충성심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당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은 언제나 훌륭한 열매를 맺고있는것이다.

혁명적규률은 매개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임으로써 당의 로선

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는 당조직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조직들은 당의 결정과 지시를 직접 조직집행하여야 할 사명을 지닌 정치적조직이다. 매개 단위에서 당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해당 단위의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에 달려있다.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은 혁명적규률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혁명적규률은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당사업과 당활동은 일정한 행동규범과 질서를 통하여 실현되는것만큼 당조직들이 당의 활동원칙과 규약상요구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여야 당정책의 능숙한 조직자, 철저한 집행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혁명적당규률의 중요한 요구이며 매개 당조직들이 지닌 첫째가는 의무이다.

우리 당조직들의 사업과 활동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어떻게 관철해나가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당조직들이 패기있고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되자면 당안에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한다.

매개 당조직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 당이 내세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의 결정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집체토의와 옳은 집행대책의 수립, 세밀한 분공조직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정상적인 총화와 재포치사업 등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 당조직만이 조직력

이 있고 규률성이
될수 있다. 모든
조직들이 강한 조
직정치사업을 힘
어떤 조건에서도
정책을 빛나게 관

이처럼 당안에
세우는것은 당의
지시를 성과적으
확고한 담보로 되

위대한 수령
당건설 사상과
위하여 우리 당은
확립하기 위한
다. 그리하여
결정지시를 무조
혁명적기풍이 튼

당중앙의 현명
명적규률을 세우
당의 전투력이
며 전당, 전국,
유일적령도따라
앙집권적규률이

우리 당의 중
당의 결정과 지
철하는 정연한
가 튼튼히 선데

전당에 당중앙
체계와 질서가
서는 당중앙위원
부터 하부말단에
쭉쭉 내려가고있
때에 우에 반영
기체와 같이 질
다. 이것은 우리
성과 그 관철에
도 범하지 않고
건설사업을 급임
나갈수 있게 하

우리 당의 중
모든 활동을 당
고 당중앙의 의
풀어나가는 혁
서 표현되고있

모든 문제들을

칙, 결정과 지시는 당
로된다. 당조직들은
는 직접 조직집행하여
정치적조직이다. 매
책이 성과적으로 관철
하는것은 전적으로 혁
의 전투적 기능과
당조직들의 전투적
적규률에 의하여 확
명적규률은 당조직들
중요한 요인이다.
은 일정한 행동규범
실현되는것만큼 당조
칙과 규약상요구에
여야 당정책의 능숙
집행자로서의 임무
수행할수 있다.
성동지의 교시와 그
정책을 무조건 접
하는것은 혁명적당
이며 매개 당조직들
의무이다.
사업과 활동은 다름
의 교시와 당의 방
투쟁이다. 따라서
기능과 역할이 얼마
위대한 수령님의
어떻게 관철해나가
한다. 당조직들이
전투적조직으로
로선과 정책, 결정
저히 관철하는 혁
한다.
정책관철을 위한
없이 짜고들고 대
조직적극성을 불
운 그 어떤 어려
수행해나갈수 있
철저히 관철하기
집행대책의 수립,
집행정형에 대한
치사업 등을 진공
조직만이 조직력

이 있고 규률성이 강한 전투적조직으
될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조직들이 강한 조직규률에 기초하
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
어떤 조건에서도 당의 의도에 맞게
정책을 빛나게 관철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튼튼
세우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
지시를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하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구현
위하여 우리 당은 당안에 혁명적규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다. 그리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결정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
혁명적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안에
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게 되
며 전당, 전국, 전군이 당중앙위원
유일적령도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앙집권적규률이 튼튼히 서게 되였

우리 당의 중앙집권적규률은 전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철하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
가 튼튼히 선데서 나타나고있다.

전당에 당중앙의 지도밑에 사업
체계와 질서가 확립됨으로써 우리 당
서는 당중앙위원회의 의도가 중앙으
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쪽쪽 내려가고있으며 아래의 의견이
때에 우에 반영되고 전당이 하나의
기체와 같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다. 이것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정책
성과 그 관철에서 사소한 편향과 오
도 범하지 않고 전반적인 혁명투쟁
건설사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
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

우리 당의 중앙집권적규률은 전당
모든 활동을 당중앙위원회에 집중시
고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모든 문제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튼튼히 선
서 표현되고있다.

모든 문제들을 당의 의도를 기준으

하여 풀어나가며 모든 사업을 당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직집행하는것은 우리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당의 결정과 지시들이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드팀없이 집행되고있다.

우리 당은 오늘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사업하는 체계와 규률,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강한 규률이 확립된 전투적당으로 되였다.

당이 제시하는 로선과 정책이 모든곳에서 빛나게 관철되고있으며 전당이 오직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며 모든것을 당의 의도에 따라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세워진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업적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은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이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제2차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지난해말에 있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8차전원회의는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올해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자기 부문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5개지구전선의 기본건설을 다그치며 석탄과 광물, 전력 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올해 우리앞에 나선 모든 경제건설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튼튼히 세우는데 있다.

전당에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규률을 세우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9권, 236페지)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는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끄는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일군들과 당원들이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에서 확고히 의거하여야 할 행동준칙과 활동규범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정책을 떠나서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으며 한시도 살수 없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는 당정책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무조건 관철하여야 할 의무만이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이 준 혁명임무에 대해서는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조건이 좋은것과 나쁜것을 가리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며 일해나가야 한다.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규률을 확립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한치도 어길수 없는 지상의 명령이며 그것을 끝장을 볼 때까지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기풍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을 중도반단하는것은 곧 혁명의 칠제와

담보를 의미하며 당원의 본분을 어기는 것으로 된다.

당이 준 과업을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식으로 집행하여서는 당의 결정과 지시를 끝까지 관철할수 없다. 새로운 과업이 제기되면 이미 하던 일을 줴버리며 이 일, 저 일 벌려만 놓고 어느 하나도 끝장을 보지 못하는것은 당정책에 대한 옳은 태도가 아니며 우리 당원들의 일본새와는 인연이 없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되도록 언제나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없는것은 찾아내고 있는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온갖 가능성과 예비를 총동원하여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요령주의,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것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할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전망은 휘황하며 투쟁 목표와 방도는 명백하다.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경제건설전투를 얼마나 기운차게 밀고나가는가 하는것은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지도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조직전개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기성의 경험이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지도로써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결정과 지시 관철을 위한 투쟁을 옳게 조직할수 없으며 오늘의 벅찬 사회주의경제건설전투를 잘해나갈수 없다.

우리 일군들이 책임성과 창발성이 없이 자리지킴이나 하거나 우에서 내려보내는 지시를 되받아넘기는 식으로 일한다면 어느 하나의 당정책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없다. 당정책이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은 중요한 당적규률이며 우리 일군들이 지닌 숭고한 임무이다.

일군들은 요령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적 사업태도를 철저히 극복하고 왕성한 패기와 혁명적정열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생기발랄하게 조직전개해나가야 한다.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혁명과업수행을 떠난 당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당생활지도가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실천투쟁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이 본신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그들에게 당적분공을 주며 그것을 옳게 집행하도록 적극 도와주며 분공수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고 다시 새 분공을 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과업수행정형을 놓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평가하며 사람들을 료해하고 담화할 때에도, 회의를 지도하거나 학습회를 집행할 때에도 혁명과업수행문제와 결부하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충성심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고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튼튼히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지식은 사람들의 창조적능력

조 성 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과학지식을 가지는것은 사람들이 객관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하는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창조적인 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창조적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개조변혁해나가게 하는 능력이다.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써 형성되고 높이 발양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식은 곧 사람의 창조적능력이며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을 새 사회 건설의 역군으로 만들려면 그들의 지식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행본, 4페지)

아는것이 힘이며 지식은 곧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이다.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변혁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은 그들의 육체적힘과 함께 지식을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한다. 사람의 창조적능력을 이루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지식이다. 지식과 결부되지 못한 사람의 육체적힘은 자연계에 작용하는 맹목적인 힘이나 다름없으며 결국 아무것도 창조해낼수 없는 무력한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을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려면 그들의 지식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식은 사람자신과 객관적대상의 실태를 반영한 의식이다. 지식에는 사물현상들의 내적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법칙, 자연과 사회 개조의 방도에 관한 지식들이 포함된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지향과 요구로부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변혁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끊임없이 벌린다. 이 과정에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들의 내적본질과 발전법칙을 인식하고 그것을 체계화한것이 바로 지식이다.

지식은 다른 의식형태들과 구별되면서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작용한다.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는 사상의식과 달리 지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있는 사물현상들의 본질적속성과 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지식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제약되며 다른 의식형태들의 영향을 일정하게 받는다. 지식의 형성과 작용 방향을 규정하는것은 사상의식이다. 다른 한편 지식은 사상의식을 비롯한 다른 의식형태들의 형성과 작용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식은 사상의식형성의 전제이다.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는 결코 빈터에서 생겨나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세계에 대한 지식 특히 사회의 본질과 그 발전법칙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옳바로 내세울수 있다.

지식은 이와 같이 사상의식을 비롯한 다른 의식형태들에 의하여 제약되면서도 그것들의 형성과 작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지식은 사람들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능력으로 된다.

지식이 창조적능력으로 되는것은 무

야 한다.

알아야 앞을 내다볼수 있으며 아는것 만큼 실천하게 된다.

지식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실천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게 함으로써 그 성과적수행을 담보한다.

사람들이 자연을 개조하는 로동활동과 사회를 변혁하는 혁명활동을 벌리자면 먼저 그 목적과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그에 따라 실천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실천활동에 목적과 방향을 부여하는것은 사상의식이다. 지식은 사상의식이 부여한 실천활동의 목표와 방향의 과학성을 담보한다. 사람들이 미리 설정한 목표와 방향, 행동계획이 얼마나 과학적이며 정확한가 하는데 따라 그들이 벌리는 창조적활동의 성과여부가 좌우되게 된다.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과 사회 개조의 전망을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정확한 투쟁 목표와 방향, 행동계획에 따라 창조적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한다.

만약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그 개조를 위한 투쟁에서 방향을 잃고 주관주의와 맹목성을 피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을 소유하여야 그 개조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과 정확한 방도를 찾아내는것은 실천활동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과학지식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수단과 방도를 찾아내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실천활동을 힘있게 떠밀어준다.

자연과 사회는 사람의 주관적욕망이나 육체적힘만으로는 성과적으로 개조변혁할수 없다. 그것은 정확한 방도와 위력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개조변혁할수 있다. 자연과 사회 개조의 수단과 방도는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과학지식에 의하여 탐구되고 마련되게 된다.

사회현상과 그 발전법칙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에게 사회를 개조하는 옳바른 방도를 찾아내고 위력한 투쟁무기를 가질수 있게 한다. 자연의 제 현상들과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에게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정확한 방도를 찾아내고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데 따라 사람들은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혁명활동과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로동활동에서 창조적능력을 더욱 높이 지니고 그것을 적극 발휘할수 있게 된다.

과학지식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실천활동에서 사람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 성과를 담보한다.

승리에 대한 확신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활동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자기 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지식을 가짐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낡은것은 반드시 멸망하고 새것은 필연적으로 승리한다는 객관적진리를 파악하여야만 일시적인 실패와 우여곡절에도 동요없이 최후승리를 확신하고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이 어렵고 복잡하면 할수록 과학지식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의 두 측면인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이 지식에 의하여 담보된다는데 지식이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지식이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으로 된다는것은 인류사회의 발전력사가 실증하여주는 엄연한 진리이다.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인 동시에 그

들의 창조적능력이 끊임없이 증대되고 발전해온 력사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능력의 발전은 곧 자연과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과학적인식과 지식이 깊어지고 발전해왔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지식은 극히 단순하고 낮은 상태로부터 복잡하고 높은 상태에로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은 지식 발전의 이러한 력사에 따라 더욱더 높아지고 끊임없이 증대되여왔다.

인류사회의 초기에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단계에 머물러있었으며 추상적사유에로의 발전을 크게 이룩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지식수준은 감성적경험, 직관적지식의 울타리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가지고있었던 낮은 수준의 지식은 석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생산도구를 만들어쓸 창조적능력밖에 가질수 없게 하였다.

사람들의 추상적사유가 점차 발전하게 됨에 따라 지식은 객관세계의 사물현상들의 본질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한데로 심화발전하게 되였다. 지식의 발전은 사람들이 청동기나 철기와 같은 보다 능률적인 생산도구를 만들어쓸수 있게 하였으며 나아가서 기계를 비롯한 발전된 생산도구를 만들어쓸수 있는 비교적 높은 단계의 창조적능력을 소유할수 있게 하였다.

오늘에 와서 사람들의 과학적 인식과 지식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과학분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매우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으며 자연과학분야에서도 수학과 물리, 화학을 비롯한 기초과학들이 빨리 발전하고 전자공학과 자동화공학 등 기술공학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과학지식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사람들의 과학기술지식의 발전은 그들의 창조적능력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았다. 생산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실현해나가며 태양계와 무한한 우주공간을 지배하는데로 나가고있는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소유하고있는 지식, 창조적능력이다.

이 모든것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이 곧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식은 곧 창조적능력으로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우리 혁명을 령도해오시는 전과정에서 사람들을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교육사업을 언제나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다같이 배우며 발전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전변되였다. 그리하여 정치리론수준이 높고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능력있는 120만의 민족간부들과 중학교졸업정도의 일반지식수준을 가진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투쟁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심화발전하고있는 우리 혁명과 건설의 객관적현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더 높은 창조적능력을 소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정치실무적자질이 높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한 능력있는 일군들을 더 많이 키워내며 실천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익히고 공고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과학지식을 소유한 능력있는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하여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의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지휘의 옳은 배합

유 시 영

제2차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더욱 개선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를 옳게 배합하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철저히 실현하고 독립채산제를 옳바로 실시하여 경제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84년, 단행본, 9페지)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의 하나는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를 옳게 배합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는 당과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에 의하여 발전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경제이다. 그런것만큼 그 어떤 한두사람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사회주의경제를 제대로 관리운영할수 없다.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에 맞게 그것을 관리운영해나가자면 반드시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를 옳게 배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의 집체적지도는 다름아닌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이다. 그것은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철저히 극복하고 대중의 지혜와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위력한 지도방법으로 된다. 집체적지도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게 하며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경제관리에 적극 참가시켜 대중적인 경제관리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집체적지도와 함께 유일적지휘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의 주되는 형식의 하나로 된다.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 유일적지휘는 당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한 다음 행정경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행정지휘관에게 집중시키고 그의 유일적인 지휘밑에 생산과 경영활동을 진행해나가는것을 그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다.

유일적지휘는 지난날의 지배인유일관리제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지배인유일관리제가 개인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제관리형태였다면 유일적지휘는 당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행정경제적문제를 행정지휘관의 유일적인 지도밑에 집행해나가는 경제관리방법이다. 또한 지배인유일관리제가 행정식, 명령식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제관리형태였다면 유일적지휘는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우에서 행정지휘관이 경제사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경제관리방법이다.

유일적지휘는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무질서한 현상들을 성과적으로 극

복할수 있게 한다. 현대적기술과 발전된 분업에 기초하고있는 대규모사회주의적생산에서는 사소한 자연발생성이나 무규률적인 현상도 생산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경제관리운영에서 통일성과 일치성을 보장하려면 반드시 행정지휘관의 유일적인 지휘를 실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를 배합한다는것은 바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와 행정지휘관의 유일적지도를 옳게 배합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며 행정지휘관의 유일적지휘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집체적지도가 보장되는 기초우에서만 행정지휘관의 유일적지휘가 가장 원만히 실현될수 있으며 유일적지휘가 안받침되여야 경제관리에서 집체적지도의 위력이 충분히 발휘될수 있다.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를 옳게 배합하는것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와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지도관리원칙이다.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를 옳게 배합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당의 령도와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의 령도와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다. 당의 령도와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그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당의 령도와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떠난 사회주의경제관리란 있을수 없으며 그것을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 당의 령도와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는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 당의 경제정책과 그것을 구체화한 국가의 시책들, 당과 국가가 제시한 경제과업들을 어김없이 집행하는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의 옳은 배합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상태와 기술기능수준으로부터 자재 및 후방물자의 공급정형에 이르기까지 실정을 충분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당의 경제정책과 그 구현인 국가시책들을 옳바로 집행하기 위한 정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기업관리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경제적인 모든 조건들을 원만히 갖추어나가며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사회주의적인 질서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킬수 있게 한다. 이것은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를 옳게 배합하여야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당의 령도와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실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를 옳게 배합하는것은 또한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사회주의경제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객관적인 경제법칙과 과학기술의 목적의식적인 리용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발전한다는데 있다.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주의경제가 발전하여 그 규모가 커지고 생산의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질수록

그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다.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려면 대중의 지혜를 높이 발양시키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생산자대중은 사회주의적생산과 관리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인 담당자이다. 생산의 실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것은 생산자대중이며 경제관리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는것도 다름아닌 생산자대중이다. 그러므로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야 현실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수 있으며 객관적경제법칙과 생산의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옳바른 대책을 세워나갈수 있다.

생산자대중에 의거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정확히 세우는것과 함께 그 집행에서 엄격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옳바로 세웠다 하더라도 그 집행에서 엄격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로력과 생산수단의 랑비를 막을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없게 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치차와 같이 맞물려돌아가는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경제에서는 엄격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떠난 경제관리의 과학화, 합리화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의 옳은 배합은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지혜를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경제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대책을 정확히 세울수 있게 하며 그 집행에서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당위원회는 당일군들과 행정일군들, 핵심적인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을 망라하고있으며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있기때문에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면 생산자대중의 창발적인 의견들을 제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종합체계화하여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과학적인 대책들을 정확히 세워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지휘관의 유일적지휘는 행정경제사업전반을 튼튼히 장악하고 기술지도와 원료, 자재의 보장을 비롯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정확한 계획과 지령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게 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조직성과 규률성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게 한다.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는 이처럼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를 높이 발양시키는 문제와 경제관리에서 조직성과 규률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에 그것을 옳게 배합하면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데 대한 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를 옳게 배합할데 대한 원칙이야말로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경제지도관리사업을 진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원칙으로 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 때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을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를 옳게 배합할데 대한 원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에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경제정책을 관철하며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모든 문제들을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분공을 조직함으로써 집체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지배인이 기업관리전반을 장악하고 행정경제사업을 유일적으로 지휘하도록 당적으로 안받침해주고있다.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를 옳게 배합하는 원칙을 정확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경제관리의 합리화와 가치법칙의 옳바른 리용

윤 기 정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며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경제건설투쟁의 성과여부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어떤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관철해나가는가 하는데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 농민시장 등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령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로작은 주체의 사회주의경제리론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혁명성을 확고히 고수한 위대한 문헌이며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경제관리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강령적문헌이다.

력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에 관한 주체적리론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은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사회로 이행하던 인류력사발전의 첫시기에 발생하여 장구한 로정을 거쳐왔다. 한때 사람들에게 물신숭배성을 강요하였던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이 오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 그들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무하게 되였다. 변화된 력사적조건은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경제적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옳바른 방도를 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성격에 대한 심오한 분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령도하는 과정에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가치법칙을 사회주의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시였다.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가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15년동안 우리 나라 경제관리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과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오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경제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관리를 합리화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그것을 더욱 확대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이 요구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에 맞게 경제법칙들을 옳게 인식리용할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모든 경제일군들은 경제관리운영에서 가치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 *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92페지)

사회주의경제관리는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과정이다. 경제법칙을 어떻게 인식리용하는가에 따라 경제관리의 수준이 규정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요구에 맞게 사회적생산과정을 조직하고 지휘하여야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다.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사회의 성격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으로부터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경제법칙들이 작용한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과도적성격이 극복되면 없어지는 경제법칙들이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작용하게 될 경제법칙들도 있다. 그리고 가치법칙과 같이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경제법칙들도 작용한다. 이러한 각이한 성격의 모든 경제법칙들을 적절히 리용하여야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는것이다.

가치법칙은 상품생산의 경제법칙으로서 상품생산이 진행되는 모든곳에서 작용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상품생산이 있게 되는것만큼 가치법칙이 반드시 작용한다. 가치법칙이 맹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가치법칙이 제한된 범위에서 작용하며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무한다.

이로부터 사회주의국가는 가치법칙의 리용형태인 가격, 원가, 수익성, 독립채산제와 같은 경제적공간을 통하여 사회적로동의 랑비를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하며 국가축적을 계통적으로 높이도록 자극하고 통제한다. 국가는 또한 가치법칙을 작성된 계획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한다.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할 때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기업소경영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다.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실천적경험으로부터 제기되는 원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경제관리분야앞에는 가치법칙을 어떤 위치에 놓고 어떻게 리용하여야 하는가하는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력사적경험은 가치법칙을 잘못 리용하면 경제관리사업에서 우경적 혹은 좌경적 오유를 범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가치법칙의 의의를 지나치게 평가하여가지고 가치공간들을 망탕 리용하게 되면 경제관리에 자본주의적방법을 끌어들이는 우경적편향을 범하게 되며 반대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무시하고 가치법칙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지 못하고 많은 생산수단과 로력의 랑비를 가져오게 하는 좌경적편향을 범하게 된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가치법칙을 정확히 리용하여야 경제관리를 합리화하는 문제를 제대로 풀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일련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가치법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이 경제법칙을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는데서 견지

하여야 할 원칙들과 그 실현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생산물의 생산과 교환 과정의 각이한 성격에 맞게 가치법칙의 작용문제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것은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법칙을 리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물이 상품으로 되는 경우와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품이 아닌 경우가 있는것만큼 가치법칙도 서로 다르게 작용하게 된다.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사이, 협동적소유들사이, 사회주의적소유와 개인적소유사이의 생산물류통에서는 생산물이 상품으로 되기때문에 가치법칙이 내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전인민적소유내부에서 진행되는 생산물교환에서는 생산수단이 상품적형태를 취하는것만큼 가치법칙이 형태적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품성을 잃은 생산물의 생산, 교환 과정과 상품성을 띤 생산물의 생산, 교환 과정을 엄격히 구분하여 가치법칙을 형태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요구가 제기된다.

생산물의 생산과 교환 과정의 경제적특성에 따라 가치법칙을 서로 다르게 리용할데 대한 원칙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지난날 가치법칙의 작용을 일률적으로만 보고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대로 리용하지 못하였던 제한성이 극복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와 기업소들의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은 가치법칙을 정확히 리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의 하나이다.

가치법칙은 결코 자동적으로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노는것이 아니다. 이 역할은 오직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가치법칙은 어디까지나 낡은 사회의 유물과 관련된 경제법칙이며 생산물교환에서 등가성의 원칙이 예외없이 관철될것을 요구하는 경제법칙이다. 만일 가치법칙의 작용이 국가의 유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와 엄격한 통제 밖에 놓이게 되면 경제발전에서는 계획성의 원칙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자연발생성, 맹목성의 요소가 생길수 있다.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할 때만이 낡은 사회의 유물인 가치법칙을 맹목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철저히 복무시킬수 있으며 그것을 계획적인 경제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리용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 과도적성격과 관련하여 국가기업소들이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게 된다. 국영기업소들은 다같이 단일한 국가소유의 기업소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생산수단을 리용하고 관리하며 경리를 운영하는데서 마치도 서로 다른 소유의 기업소들처럼 활동한다. 이렇게 매개 경영단위들이 상대적독자성을 가지는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공간들의 옳은 리용을 통하여 생산수단을 절약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경제운영을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가치법칙을 그 목적과 사명에 맞게 리용하자면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적지도를 굽임없이 강화하면서 그와 함께 경영단위들의 상대적독자성을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적지도와 기업소의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의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경제관리에서 기필코 좌우경적편향을 범할수 있게 된다.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가치법칙을 정확히 리용하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또하나의 원칙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은 낡은 사회의 유물과 관련되여있는 경제법칙인것만큼 그것은 사람들의 낡은 사상 잔재와 직접적으로 결합될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사상교양사업을

홀시하고 가치법칙만을 내세우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는데 부정적결함을 가질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그들이 자각적으로 관리운영에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생산수단을 다루고 사회의 물질적부를 창조하는것은 근로대중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도 근로대중이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자각적으로 일하도록 하여야 생산도 잘되고 경제관리도 잘해나갈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무시하고 물질적자극을 필요치 않는것으로 여기거나 경제운영에서 가치공간의 리용을 도외시하여서는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할수 없게 된다. 오직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워 정치도덕적자극을 강화하면서 물질적자극을 적절히 배합하여야 가치법칙을 경제관리를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옳게 리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치법칙을 리용하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경제리론과 실천 분야에서 오래동안 해결되지 못한채 남아있었던 문제가 훌륭히 풀리게 되었으며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는 옳바른 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 경제리론발전과 경제관리실천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업적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해나가고있는 오늘 변천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가치법칙을 더 잘 리용하는것을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경제관리분야에서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자면 무엇보다도 경제일군들이 가치법칙의 작용과 리용문제에 대하여 원칙적립장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낡은 사회의 잔재가 남아있는 과도기에는 가치법칙과 같은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여야 경제관리를 합리화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의 의의를 지나치게 평가하여가지고 경제관리를 자본주의적으로 하려고 하여도 안되지만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무시하고 가치법칙의 의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것도 잘못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95페지)

가치법칙을 정확히 리용하는 문제는 많은것이 경제일군들의 사상관점과 립장에 달려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가치법칙에 대한 옳은 인식과 립장을 가지지 못하였기때문에 한때 경제일군들속에서는 가치법칙의 작용을 무시하고 그것을 리용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반대로 가치법칙을 망탕 적용하여 경제관리운영에서 도리여 나쁜 결과를 가져온 일도 있었다. 현시기 중요한 문제는 가치법칙을 잘못 리용하면 개인리기주의를 조장시키고 생산과 류통에서 무정부성을 조성시킬수 있다는데로부터 가치법칙의 작용을 경원시하려는 경향을 극복하는것이다. 가치법칙의 리용문제를 경시하는것은 그것을 지나치게 내세우는것과 마찬가지의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경험은 경제일군들이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옳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경제에 대한 지도와 기업관리운영을 해나가야 경제관리의 합리화를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경제일군들은 현시기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는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가치법칙을 경

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조적수단으로 잘 리용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제시된 리론과 방침들을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은 가치법칙을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는데서 제기되는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 특성에 알맞는 경영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관련하여 있게 되는 경제범주로서 국영기업소들의 계획적관리운영방법이다.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은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생산수단을 자기것처럼 리용하고 관리하면서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당과 국가의 의도와 요구를 반영한 국가법령과 국가계획의 범위안에서 그리고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독자적으로 다른 기업소들과 경제거래를 맺는다. 그리고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면서 자체수입으로 비용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일정한 리익을 주어야 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첫시기부터 기업관리에 독립채산제원칙을 도입하여왔으며 경제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독립채산제적경영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왔다. 이 과정에 실지체험을 통하여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 생산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합리화할수 있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 귀중한 경험을 쌓을수 있었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설비공칭능력, 물자소비기준, 로동정량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계획실행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는것과 함께 현물지표별계획수행보다도 생산액계획수행에 치중하거나 제품의 질제고에 무관심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과정에 짧은 경험에 로대하여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의 대렬을 빨리 늘여 사무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소경영활동은 인민경제부문별에 따라, 생산공정에 따라 매우 각이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독립채산제규정은 다종다양한 기업소경영활동을 규범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인민경제부문들의 특성에 맞게 독립채산제규정들을 끊임없이 완성하여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이 더 잘 정규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자재공급사업에서 상업적형태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자재공급사업을 잘하여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대주어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상업적형태는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원자재를 정확히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된다.

아직 사람들의 머리속에 기관본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생산수단의 공급을 상업적형태를 통하여 실현하지 않고 계획에 따라 그저 공급하기만 한다면 기업소들이 자재, 원료를 되는대로 받아서 랑비할수 있다. 자재, 원료를 공급할 때 팔고사는 형식을 리용하면 자재공급계획에서 빠뜨리였거나 필요없는것을 예견한것과 같은 부족점들이 보충되고 고쳐질수 있다. 상업적형태를 충분히 리용하면 또한 기업소들에서 자재의 값과 수송비를 따지게 되고 자재를 귀중히 여기면서 더 잘 보관관리하게 되며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하여 애쓰게 된다.

상업적형태를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자재상사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자재상사는 생산수단의 류통이 상품류통의 형태를 취하는 사정과 관련하여 상업적형태로 생산수단의 계획적공급을

보장한다. 자재상사들이 일을 잘하면 적은 자재라도 필요한 기업소에 알맞춤하게 공급하여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할수 있으며 또 기업소들은 타산이 없이 필요한것, 필요없는것을 망탕 받아다가 묵여두거나 랑비하는 일을 하지 않을수 있다.

자재상사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자재공급에서 통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자재상사를 통해서만 유일적으로 자재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자재공급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를 보장할수 있으며 매 시기 제기되는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자재보장사업을 기동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그리고 자재상사들에서는 자재를 계획과 계약에 따라 내리공급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우며 감독, 통제 기관들에서는 자재공급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가치형태를 매개로 하여 사회적로동지출에 대한 계산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가치형태는 상품이 아닌 생산물을 생산하는 사회적로동의 크기를 계획하고 계산하며 원료, 자재, 로력 상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된다.

인민경제를 계획화하고 경제운영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계산을 바로하여야 한다. 엄격한 계산제도를 세워야 나라의 자연부원, 생산능력, 설비, 원료, 자재, 로력 등에 대한 타산을 바로할수 있으며 인민경제계획작성과 그 수행을 위한 사업을 옳게 조직진행할수 있다.

국영기업소들에서 경제계산을 바로하자면 유일적인 계산기준이 요구된다. 서로 다른 생산요소들을 계산하는 유일한 기준은 사회적로동이다. 모든 생산물은 산 로동과 과거로동에 의하여 생산되며 기계설비, 원료, 자재 등 각이한 구성을 가지고있는 생산요소들은 로동의 산물이라는 의미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이러한 사회적로동은 생산물이 상품적형태를 취하는것만큼 그에 맞게 가치형태를 띠게 된다.

국영기업소들에서 가치형태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경제계산은 지출된 생산비와 생산결과를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기업소의 관리운영정형을 정확히 평가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가치형태를 리용하여 기업소들에서 원료, 자재, 로력의 절약적리용을 보장하고 물자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도록 자극한다.

사회적로동지출에 대한 계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계산체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경상계산과 원가계산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래야 엄격한 계산제도를 세우고 기업소경영활동에 대한 옳바른 평가를 하여 독립채산제원칙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다.

가치형태를 리용하여 생산과 류통에 대한 통제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설비, 원료, 자재, 로력 등 생산요소들의 리용상태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며 물자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고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자극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재정은행기관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의 리용문제가 매우 복잡한 내용을 담고있는것만큼 이 법칙을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는 방도에도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가치법칙의 리용방도가 아무리 다양하다고 하여도 구경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히신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데로 지향되여야 한다.

모든 경제일군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가치법칙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옳게 리용함으로써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내부예비동원과 생산조직사업

김 득 성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제2차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 인민의 이 장엄한 진군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운영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예비를 찾아내며 생산을 빨리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6권, 22페지)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는 재생산과정에 인입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효과적으로 리용되지 못하고있는 생산의 여러 요소들로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는 생산장성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예비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고 생산에 대한 지도와 조직사업을 개선하는데 따라 계속 무진장하게 생겨난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의 목적은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사회주의적생산의 이러한 목적에 맞게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 물질적부의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하며 그러자면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동원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여야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을 더 들이지 않거나 적게 들이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으며 사회적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축적을 늘여 생산을 빨리 장성시킬수 있다. 만일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사회적로동을 랑비하고 사회적재생산과정을 지연시키게 되며 나아가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빨리 증진시키는데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된다. 이것은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실현하며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여왔다.

우리 당은 특히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됨에 따라 내부예비를 동원하는데 더욱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예비동원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전후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개건하던 때로부터 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진 오늘에 이르

는 전기간 생산과 건설에서 언제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견지하여올수 있었으며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기적과 혁신을 련이어 창조할수 있었다.

경험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이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들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나라의 경제규모와 생산잠재력이 대단히 커지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진 오늘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생산을 계속 늘일수 있으며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정치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조직사업을 짜고드는데 있다.

정치사업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이며 생산조직사업은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생산계획을 세우고 생산준비 특히 기술준비를 짜고들며 전반적인 생산과정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하는 기술경제적인 사업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거기에 생산조직사업을 안받침할 때 생산장성의 모든 가능성들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생산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생산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보다 완전히 리용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는것이다. 생산능력은 있는 설비와 자재들을 비롯하여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리용하여 일정한 기간안에 최대한으로 만들어낼수 있는 생산물의 량을 말한다. 그러므로 방대한 생산능력을 가지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그것을 옳게 리용하는 문제는 기본건설을 다그쳐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는 사업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계설비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게 되면 추가적투자없이 있는 밑천으로 생산을 훨씬 장성시킬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현존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지 않는다면 커다란 경제적밑천을 마련하여놓고도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칠수도 없다.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완전히 리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생산조직사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빈틈없는 생산조직사업은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한 기본고리의 하나로 된다.

생산조직사업을 과학적으로 짜고들면 기계설비들의 리용률을 끊임없이 높이고 생산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기술경제적조건들을 마련할수 있으며 생산을 전문화하고 생산공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밀하게 세울수

있다. 생산조직사업을 짜고들면 또한 협동생산을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경제부문과 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잘 맞물릴수 있으며 전사회적범위에서 생산자원을 효과있게 동원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로대를 더 잘 리용할수 있다. 생산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이 내부예비동원의 중요한 방도로 되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생산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이 내부예비동원의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절약제도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로력과 자재, 설비 등 사회적로동을 가장 적게 들이고 최상의 경제적성과를 이룩하도록 절약제도를 강화하는것은 곧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된다.

절약은 축적을 빨리 늘이고 사회적생산의 장성속도를 높이기 위한 힘있는 수단의 하나이다. 기계설비, 원료, 자재와 같은 생산수단들과 로력을 절약할수록 생산물의 원가는 낮아지고 사회순소득은 증대되며 따라서 축적을 늘일수 있는 물질적원천이 확고히 마련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절약은 축적의 물질적원천을 조성하고 동원하는데서뿐아니라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여 주어진 자금으로 생산을 더욱 확대할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는데서도 커다란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절약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절약제도를 강화하는 문제는 생산조직사업을 개선하여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경제법칙과 현대적생산의 기술공학적요구에 맞게 생산조직사업을 잘하면 로력과 기계설비, 원료, 자재 등 생산자원의 사장과 랑비를 철저히 없앨수 있으며 원단위소비기준을 끊임없이 낮출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적로동을 적게 들이고 최상의 생산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생산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이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인민경제의 발전속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생산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이 내부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킬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이다.

사회주의경제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자들은 생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으며 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다. 그런것만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옳게 조직동원하기만 한다면 생산장성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생산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 때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된다. 생산조직을 바로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에게 생산과제를 명백히 줄수 없고 생산조건을 충분히 보장할수 없으며 경제사업에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화할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정치사업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인다 해도 생산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나아가서 그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생산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을 늘이기 위한 창조적로동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생산조직사업을 개선하

는것이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며 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이 나서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생산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현시기 생산조직사업을 개선하여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며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84년, 단행본, 9페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공장, 기업소들이 자기 능력을 다 내도록 하는것은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계설비들을 만가동시키고 거기에 만부하를 걸면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킬수 있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개별적인 공장, 기업소들에서뿐아니라 그와 련관된 단위들에서도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힘있게 추동함으로써 계획규률을 강화하고 협동생산을 순조롭게 진행하며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생산조직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나선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화사업을 잘하고 자재보장사업과 협동생산조직을 짜고들며 인민경제계획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생활을 정규화하여 480분로동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단위시간에 생산능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예비동원을 위한 생산조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생산준비를 잘하는것이다.

생산에서의 성과는 그에 필요한 기술과 로력, 설비, 원자재 및 연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데 따라 크게 좌우된다. 생산준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기술준비이다. 기술준비는 제품을 설계하고 그 제작방법을 규정하며 시제품을 만들어내는것과 같은 중요한 기술경제적인 사업이다.

생산준비 특히 기술준비를 잘하지 않고서는 기술공정으로 전환된 현대적공업생산을 옳게 조직할수도 없으며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도 없다. 기술준비를 잘해야 생산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등을 미리 타산하고 생산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있으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설비들을 더욱 현대화하고 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준비 특히 기술준비를 잘하는것은 내부예비동원을 위한 생산조직사업에서 원칙적요구의 하나로 되며 기업소경영활동을 개선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대적공업생산의 요구에 맞게 생산준비 특히 기술준비를 확고히 앞세워 생산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는 기

술경제적조건들을 원만히 마련하여야 한다. 기술준비에서는 설계사업을 적극 개선하고 기술장비들을 잘 정비하며 앞선 기술공정과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드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내부예비동원을 위한 생산조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생산과정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휘를 잘하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는 현시기 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예비는 생산과정에 대한 장악과 지휘를 개선하는데 있다. 사회적생산의 전반적과정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휘하여야 로력, 설비, 자재 등 생산요소들을 합리적으로 결합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필요한 경제실무적대책을 제때에 세워 생산을 중단없이 진행할수 있다. 생산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휘는 모든 근로자들이 하나의 규률과 질서에 따라 일치하게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힘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며 사회적로동생산능률을 더욱 장성시킬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생산과정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들을 남김없이 동원하여야 한다. 특히 생산과정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하기 위한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그에 따라 생산과 건설을 진행해나가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생산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생산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은 생산을 책임진 일군들에 의하여 조직진행되며 생산과정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투쟁도 다름아닌 일군들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지휘된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생산의 기술공학적요구에 맞게 생산 조직과 지휘를 옳게 짜고들수 없으며 따라서 내부예비동원을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일군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생산 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갈때 생산장성의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다.

일군들이 내부예비동원을 위한 생산조직사업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는 혁명적립장을 튼튼히 지니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특히 일군들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을 빛나게 구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현대적인 생산지휘수단들과 전자계산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지휘의 과학성과 기동성을 보장하며 경영활동을 더욱 과학화하여야 한다.

오늘 내부예비동원을 위한 생산조직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과업으로 나서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생산조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건설의 집중화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채 을 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을 다그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의 집중화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건설의 집중화는 기본건설분야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며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기본건설을 벌어놓지 말고 집종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것입니다. 국가자금을 동결시키지 않도록 시작한 기본건설은 제때에 끝내며 투자된 자금이 빨리 은을 나타내게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9권, 524페지)

건설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는것은 로력과 자재, 설비를 중요한 건설대상에 집중하여 조업기일을 앞당기고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인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건설의 집중화는 선후차와 경중을 가려 해당 시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심고리를 이루는 건설대상들을 옳게 규정하고 모든 건설력량을 거기에 집중하여 최단기간안에 완공해나가는것을 그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다.

건설에서 선후차를 옳게 가려내는것이 기본건설을 집중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면 중요건설대상에 힘을 넣어 그 조업개시를 최대한으로 앞당기는것은 건설을 집중화하는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요구로 된다. 건설에서 선후차와 경중을 잘 가리지 못하면 해당 시기 건설력량을 집중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규정할수 없으며 중요건설대상에 화력을 집중하지 않고서는 건설을 순차성있게, 중점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수 없다.

이것은 건설의 선후차를 잘 가려내는 문제와 중요건설대상에 힘을 넣어 섬멸전을 벌리는 문제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이 두 문제를 다같이 옳게 풀어나가야 건설의 집중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건설의 집중화방침은 기본건설의 속도를 더욱 높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려면 기본건설을 잘하여야 한다. 기본건설에 힘을 넣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살림집, 문화후생시설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고 이미 있는 생산설비들을 개건확장하는 사업을 다그쳐야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해나갈수 있다.

기본건설을 잘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건설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해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건설의 집중화는 무엇보다도 모든 건설력량을 총동원하여 해당 시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심고리를 이루는 부문과 단위들을 빨리 추켜세움으로써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기본건설은 많은 로력과 설비, 자재를 동원해야 하

는 방대한 사업이다. 반면에 해당 시기 건설에 돌릴수 있는 로력과 설비, 자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여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본건설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실현해나가는가 하는것은 건설에서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기본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건설을 집중화해야만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건설의 집중화는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할데 대한 혁명투쟁의 근본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기본건설에서 선후차와 경중을 옳게 가리고 해당 시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부문과 단위들에 투자를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주어진 건설력량으로 건설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면서도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곧 기본건설의 속도를 높여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으로 된다. 이와 함께 건설을 집중화하여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심고리를 이루는 부문과 단위의 생산능력을 빨리 높이면 그와 련관된 부문들과 단위들의 생산을 늘이는데도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

건설의 집중화가 기본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기본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는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이다. 기본건설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으로 더 많은 건설을 보장하여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으며 인민생활도 빨리 향상시킬수 있다. 기본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는 건설을 집중화하는데 있다.

건설의 집중화는 중요한 건설대상에 건설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을 우선적으로 돌려 건설기간을 줄이고 조업개시를 앞당김으로써 기본건설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고 최단기간안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한다. 건설의 집중화는 또한 건설력량의 분산으로 하여 생기는 물자와 로력의 랑비를 미리 막고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임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더 큰 보탬을 준다.

이 모든것은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야말로 기본건설분야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를 밝혀준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당의 이 방침을 틀어쥐고나가는 바로 여기에 기본건설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건설의 집중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앞에 방대한 건설과업이 나서고있는 현시기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건설부문로동계급앞에는 5개지구전선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남포갑문 건설과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건설부문에서는 력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선후차를 가려 건설을 집중적으로 하며 건설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고 앞선 시공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건설의 질을 높이고 건설대상들의 조업기일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84년, 단행본, 7페지)

현시기 건설부문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은 5개지구전선의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는데 있다.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나가는 력사적과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조국청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질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워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순천지구전선, 안주지구전선, 청진지구전선, 남포지구전선, 함흥지구전선의 5개지구전선건설을 적극 밀고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석탄과 전력, 강철과 유색금속, 천 및 화학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5개지구전선건설장들에서 승리의 북소리 세차게 울려나갈 때 주체조선의 영웅적기개를 더욱 높이 떨칠수 있으며 위력한 자립적인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다.

이와 함께 남포갑문 건설과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야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튼튼한 밑천을 마련할수 있으며 먹는 문제에서부터 공산주의적시책을 실시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방침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5개지구전선의 기본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보장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라의 모든 건설력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거창한 사업이며 기본건설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갈것을 요구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제기된 과업은 방대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짧은 기간에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의 집중화는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 중요한 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가기 위한 근본열쇠로 된다.

건설의 집중화는 건설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뚜렷한 투쟁목표와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함으로써 5개지구전선건설장들과 대자연개조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수 있게 한다. 건설의 집중화는 또한 기본건설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에 건설기계와 대상설비, 건설자재를 우선적으로 대주고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나감으로써 건설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건설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건설의 집중화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건설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으로부터 시공에 이르는 건설의 전과정에 걸쳐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며 건설대상의 조업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국가계획기관들과 건설부문에서는 건설의 집중화방침의 요구에 맞게 5개지구전선의 기본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을 다그치기 위한 대상별 건설계획을 세밀하게 맞물리는 사업부터 짜고들어야 하며 건설의 첫공정인 설계를 비롯한 기술준비를 앞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 건설에서 더 많은 예비를 찾아내고 로력과 자재, 자금의 랑비를 미리 막을수 있으며 시공단계에서 속도전을 적극 벌려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부문에서는 낡은 경험과 기성관례를 마스고 모든 일을 새롭게 착상하고 참신하게 전개하며 왕성한 사업의욕과 투지에 넘쳐 새 기준, 새기록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특히 모든 건설자들은 지난날의 작업 방법과 순차를 절대시하지 말고 혁신적안목에서 앞선 시공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며 건설작업의 기계

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건설의 질을 높이고 로력과 자재, 자금을 적게 들이면서도 건설대상의 조업기일을 앞당겨나가는 가장 빠른 길로 된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건설의 집중화방침을 관철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5개지구전선전설과 대자연개조사업에 대한 물질기술적보장과 지원을 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계공업부문과 건재공업부문에서는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에 필요한 건설기계와 대상설비,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7페지)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에서의 성과여부는 필요한 건설기계와 대상설비, 건설자재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물질기술적인 보장사업과 지원사업을 떠나서는 건설의 집중화, 정상화를 실현할수 없고 중요건설대상들에서 건설속도를 높일수도 없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계획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협동생산을 강화하여 건설기계와 대상설비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건재공업부문과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원만히 대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수송부문에서는 방대한 건설물동을 제때에 날라다주어야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건설의 집중화방침을 관철하여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기본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건설의 집중화방침을 관철하는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지휘하는것은 다름아닌 경제지도일군들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야 건설의 집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수 있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광범한 대중을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방대한 건설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기 위한 전투 조직과 지휘를 깐지게 해나가야 하며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제기되는 문제를 깊이 료해하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그것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수많은 건설자들이 중요건설대상에 집중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그들의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리하여 건설장마다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해야 하며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건설의 집중화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건설의 집중화방침을 관철하여 기본건설에서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창조해나감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빛나게 점령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수송은 인민경제의 선행관

김 시 호

수송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illegible]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수송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수송은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라는것을 밝히시고 수송을 앞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80년대속도》창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당의 수송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송을 확고히 앞세워나가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은 곧 수송이며 수송은 곧 생산입니다. 수송문제를 원만히 풀지 않고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으며 생산과 건설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60페지)

원래 수송은 화물이나 려객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놓는 사회적로동이다. 수송과정을 통하여 원료와 자재, 설비 같은것들이 생산단위에 운반되며 생산된 제품들이 소비지에 옮겨진다.

생산과 유통이 발전됨에 따라 독립적인 생산부문의 한 형태를 이룬 수송은 현대적생산의 필수적구성부분으로 된다. 수송에 의하여 채취공업과 가공공업, 공업과 농업을 비롯하여 경제부문사이, 지역들사이 그리고 사회원료의 채취로부터 완제품이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이 밀접히 련결되게 된다.

생산부문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생산규모가 발전할수록 수송의 역할은 더욱 높아진다. 수송을 떠나서 생산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수송을 동반하지 않는 현대적생산이란 있을수 없다. 생산은 곧 수송이며 수송은 곧 생산이다.

현대적생산에서 수송이 노는 거대한 역할로부터 수송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고리의 하나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수송을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

수송이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라는것은 그것이 다른 경제부문에 앞서나가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며 수송을 앞세운다는것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수송을 빨리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수송을 앞세운다는것은 생산의 장성에 수송능력의 조성을 시간적으로 앞세우며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현물적으로 원만히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수송을 확고히 앞세워나가는것은 무엇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수송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생산을 정상화하며 전반적인민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사회적생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자면 생산의 기본요소를 이루는 원료와 자재, 설비들이 제때에 충분히 보장되여야 한다. 생산과정이 생산수단의 부단한 소비과정인것만큼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들과 원료, 연료를 잘 보장하지 않고서는 생산을 옳바로 진행할수 없다.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이러한 물질적조건들은 수송에 의하여 보장된다. 아무리 현대적인 공장을 일떠세워 생산능력을 크게 조성하여도 수송이 미처따라가지 못하고 긴장성을 띠게 되면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으며 이미 마련해놓은 경제적밑천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된다. 결국 수송의 긴장성은 생산의 긴장성과 파동성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수송을 앞세울데 대한 요구는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히 다져질수록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지금 우리 나라에 마련된 경제토대가 대단히 위력하고 그 생산잠재력이 비상히 큰 조건에서 수송사업을 강화하여 원료와 자재를 더욱 원만히 보장한다면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수송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또한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며 균형경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의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이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고있으며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사회주의경제의 이러한 특성에 맞게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여러 경제부문들과 생산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옳게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 발전된 사회적분업과 협업에 기초하여 움직이는 사회주의경제는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생산소비적련계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계획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할수 있다. 만일 개별적인 생산단위들사이에 맺어지는 경제적련계의 어느 한 고리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도 그것은 련관된 모든 단위들과 부문들은 물론 전반적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게 된다. 수송을 앞세워야 인민경제의 방대한 수송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키며 다양한 생산소비적련계를 원만히 실현하여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이처럼 수송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며 확대재생산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한다.

수송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제2차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올해에 순천지구전선, 안주지구전선, 청진지구전선, 남포지구전선, 함흥지구전선의 5개전선건설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려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야 한다. 또한 남포갑문 건설과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적극 벌려 나라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며 경공업에서 혁명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 거창한 투쟁과업은 수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대규모의 기본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건설자재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요구하는 석탄과 쇠돌, 기계설비를 비롯한 막대한 량의 물동을 제때에 빨리 실어날라야 기본건설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이미 마련해놓은 생산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확장되는 화력발전소들과 화학공장들, 금속공장들과 탄광, 광산들이 제때에 은을 내게 하자면 지금부터 필요한 수송능력을 예견성있게 마련해야 한다. 결국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문제도, 5개지구전선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새로운 생산능력을 마련하는 문제도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수송을 앞세워야 순조롭게 풀릴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철도의 수송능력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전기기관차와 화차를 더 많이 생산하고 철도전기화구간을 계속 늘이며 운수수단과 장비를 중량화, 고속도화, 자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또한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며 통과능력이 긴장한 구간들에 복선과 우회선, 련결선을 새로 놓아 나라의 철도망을 더욱 완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렬차의 견인중량과 운행속도를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고 수송능력을 빨리 늘일수 있다.

철도의 수송능력을 늘이는것과 함께 자동차와 배 수송능력을 높이며 관수송, 콘베아수송, 삭도수송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우리는 자동차생산을 늘이고 큰 짐배들을 대대적으로 무어내며 자동차길을 정비보강하고 새로운 항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광수송관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송관들과 벨트콘베아수송선, 삭도를 많이 건설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널리 리용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수송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치는것이다.

수송의 현대화는 운수부문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며 수송능력을 훨씬 늘이고 수송수단들의 운행에서 안전성을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특히 철도의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은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며 수송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철도운수를 현대화한다는것은 철도의 전기화를 완성하고 철도를 자동화하며 짐을 싣고부리는 일을 기계화하는 등 철도의 모든 운수수단들과 운수시설들을 최신기술로 장비하고 철도수송의 전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지난 기간 철도를 현대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철도운수를 최신기술로 장비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철도를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철도의 전기화를 완성하는것이다. 철도의 전기화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철도건설을 위한 우리 나라 철도운수발전의 기본방향이며 철도수송의 현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는 가까운 몇해안에 전국의 철도전기화를 실현함으로써 전기기관차에 의한 일원화수송체계를 완전히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의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구간자동화와 역구내자동화, 조차장자동화를 다그치며 사령지휘체계를 무선화, 텔레비존화하고 짐을 싣고부리는 일을 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철도차량들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고 레루의 중량화를 실현하며 철길궤도구조를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수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것이다.

철도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위하여 복무하는 수송수단이다. 인민경제의 그 어느 부문, 어느 단위도 철도를 리용하지 않는데가 거의 없으며 철도수송과 떨어져 생산을 진행하는데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철도를 잘 도와주고 그 발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그들의 마땅한 의무로 된다.

오늘 철도를 비롯한 운수부문을 현대적인 기술수단들로 튼튼히 장비하며 이미 마련된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모든 사업은 운수부문일군들의 혼자

힘만으로는 원만히 풀어나갈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전당, 전국, 전민의 힘있는 지원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철도수송사업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힘껏 도와줄 때 수송사업에서는 더 큰 성과가 이룩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철도전기화와 운수수단들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선비와 자재, 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하며 전용선을 정비보강하고 짐을 싣고부리는 일을 기계화하는것을 비롯하여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사업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수송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데서 나서는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운수부문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운수부문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당의 운수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수송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운수부문의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모두가 다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당의 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운수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애로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이겨내면서 있는 로력, 있는 수송 수단과 장비로써 더 많이 수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수부문의 당조직들은 또한 일군들로 하여금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언제나 들끓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실정을 깊이 파악하고 수송조직을 과학적으로 짜고들며 수송전투를 패기있게 벌리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수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수송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수단들을 자체로 창안제작하며 수송수단의 운영과 수송활동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때에 풂으로써 수송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철도운수부문의 당조직들은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이 현시기 철도수송을 추켜세우기 위한 중요한 고리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수송전사들속에 깊이 들어가 이 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철도수송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수송사업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80년대속도》창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할것이다.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합리적방도

전 금 진

지난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련합회의를 열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새로운 획기적조치를 취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에서는 이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련합회의는 우리 나라에서 날로 짙어가고 있는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와 미국과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시켜 3자회담을 열고 여기서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하여 제의하였다. 이것은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중대한 발기로 된다.

이 구국대책은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전쟁의 화근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원하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며 우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는 평화적이며 애국적인 방안이다.

（1）

3자회담을 열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조선문제를 대결과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진지한 노력의 표시로 된다.

지금 우리 나라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은 가장 위험한 전쟁화약고로, 미국의 핵전쟁기지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매우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짓부시고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자》, 단행본, 5페지)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긴장되여있으며 새 전쟁의 위험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있다.

근 40년동안이나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은 우리 조국강토에서 물러갈 대신에 오히려 영구강점을 노리면서 남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지배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안전이 미국본토의 안전과 직결》되고있기때문에 남조선이 《미국의 리익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되고있고 조선반도는 《미국전략의 제1선》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들면서 남조선을 아세아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전략적요충지로 더욱더 전변시키고있다.

미제의 이 전략적목적에 따라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군무력이 끊임없이 증강되고 남조선괴뢰군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있으며 모든 인적물적자원이 범죄적인 새 전쟁준비에 투입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군의 지휘밑에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도발적인 전쟁연습이 매일같이 벌어지고있으며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지금 한창 진행되고있는 《팀 스피리트 84》합동군사연습은 지금까지 최대규모라고 하던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병력과 전쟁수단들을 투입하고있는 극

히 모험적이며 도발적인 전쟁소동이다.

더우기 미제는 남조선에 핵무기고를 만들어놓고 핵무기를 수많이 전개하였을뿐아니라 무모한 핵전쟁연습까지도 벌림으로써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성을 날로 증대시키고있다.

지금 크지 않은 남조선땅에는 핵폭탄과 핵포탄을 비롯한 1,000여개의 전술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인 《에프 16》전투폭격기와 《랜스》미싸일, 《오네스트죤》미싸일, 《서전트》미싸일 등이 배비되여있다. 멀지 않아 미제는 남조선에 대량살륙무기들인 중성자탄과 《퍼싱2》중거리미싸일, 순항미싸일까지 배치하려고 꾀하고있다.

남조선이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대륙을 겨냥하는 미제의 핵전초기지로 되고있는것은 전체 조선인민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더욱 엄중한것은 오늘 급속히 재생되여 또다시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자위대》의 조선반도진출을 비롯한 해외파병과 남조선괴뢰군의 아세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출동을 《합법화》하기 위한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을 마감고비에서 다그쳐나가고있는것이다.

지금 미국, 일본, 남조선 사이에는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기 위한 공동연구가 추진되고 공동작전계획이 세워지고있으며 공동군사훈련이 꺼리낌없이 진행되고있다.

미제호전광들은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서 새 전쟁이 일어나면 아세아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보복전쟁》을 일으킬것이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것》이라느니, 《제2의 조선전쟁은 핵전쟁으로 될것》이라느니 하고 공공연히 폭언하고있다.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벌어지고있는 이 모든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우리 나라에서 전쟁, 핵전쟁의 위험이 래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로, 잠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3천리강토 전체가 핵전쟁의 마당으로 변하고 남북의 겨레가 핵전쟁의 희생물로 될뿐아니라 그것은 쉽사리 조선반도의 경내를 벗어나 세계전쟁으로 확대되여 인류를 핵전쟁참화속에 몰아넣게 될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족이 외세에 의한 핵전쟁의 희생물로 되고 사랑하는 조국강산이 외세의 핵전쟁터로 되며 주변나라들이 전쟁의 참화를 겪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현사태는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효과적이고도 결정적인 방도를 강구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전쟁의 위험을 막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대화와 협상을 실현하는것이다.

대결과 힘의 정책으로써는 결코 조성된 사태를 수습할수 없으며 현난국을 타개할수 없다.

대결정책에 의하여 초래된 오늘과 같은 긴장상태를 대결정책으로 완화할수 없고 힘의 정책에 의하여 빚어진 전쟁위험을 힘의 정책으로 해소시킬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론리적귀결이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민족내부문제와 국제문제들을 무력에 의거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뿐이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리익을 줄수 없고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현시대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제국주의의 간섭과 침략을 반대하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오늘에 와서는 누구도 남에게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짓밟히고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힘의 위협앞에서 자기의 정당한 위업과 신성한 권리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의 현명한 령도밑에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피로써 쟁취한 민족의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 각오가 되여있는 존엄있고 용감한 인민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인민이다.

우리 인민앞에서 《힘의 정책》이 통할수 없다는것은 이미 30여년전 조선전쟁에서 확증된 력사적진리이다.

우리는 미국과 이미 한차례의 전쟁을 하였다. 우리는 우리 강토를 파괴하고 우리 혈육들을 희생시키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평화가 귀중하고 조국통일이 절박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결코 전쟁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는 오직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힘의 정책, 대결정책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길로 방향전환하여야 한다.

서로 만나 대화를 하여야 쌓인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찾을수 있으며 분쟁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3자회담을 열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바로 복잡한 조선문제를 어떻게 하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의 표시로서 그것은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과 노력의 또하나의 뚜렷한 증거로 된다.

(2)

3자회담제안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구국대책이다.

3자회담은 우리 나라에서 오래동안 지속되고있는 긴장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항구적인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협상방식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인민의 요구와 세계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144폐지)

조국이 분렬된후 오래동안 미해결문제로 남아있으며 국제정치의 중심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는 조선문제는 우리와 미국과의 접촉과 대화를 떠나서는 해결될수 없다.

원래 조선문제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의 결과로 발생되였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복잡성과 장기성을 띠게 되였다.

지난 조선전쟁도 우리와 미국사이의 전쟁이였고 조선정전협정도 우리와 미국사이에 체결된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남조선당국자들과의 회담도 해보았고 유관국가들과의 국제적회담도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조선에서 평화를 담보할수 있는 실권자들이며 정전협정의 체약당사자들인 우리와 미국사이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조선에서 평화를 보장할수 없고 평화통일도 실현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통제밑에 있으며 남조선에서 미제는 군사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침략무력을 증강하고 핵무기들을 끌어들이며 대소규모의 전쟁연습들을 지휘하고 남조선괴뢰군을 무장시키며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과 범죄적인 핵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은 조선의 평화를 보장하고 조선의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장애를 제거해야 할 회피할수 없는 책

입을 지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오래동안 지속되고있는 긴장상태를 가시고 항구적인 평화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와 미국사이에 회담을 열고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배제할데 대한 근본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평화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여서는 안되며 남조선당국과도 제기되는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미제의 대아세아전략에 가담하여 남조선을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을뿐아니라 일본반동들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면서 반공,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정세가 극도로 첨예해지고 평화가 끊임없이 유린되고있는것은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남조선당국을 군사적대결에로 부추기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당국이 또한 미국의 전쟁정책을 적극 집행하고있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평화를 유린하고있는 남조선당국도 마땅히 미국과 함께 회담에 나와야 할 립장에 있으며 따라서 그 회담은 3자회담방식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가 3자회담을 열고 거기에서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맺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를 제안한것은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새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전제를 마련하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중대한 조치로 된다.

우리와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이 남조선으로부터 자기 군대와 무력을 철수시키는것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나서는 기본문제이다.

조선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전쟁을 일시 중단할데 대한 협정이지 공고한 평화를 담보하는 협정은 아니다.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30년이상이나 지속되고있는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긴장상태가 가셔지지 않고 전쟁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더욱 커가고있다.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에 조미회담을 열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하여 거듭 제기하였으나 미국의 무성의한 태도와 부당한 립장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험이 날로 짙어가고있는 오늘이야말로 조선의 공고한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수만리 떨어진 미국이 조선땅에서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있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조미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우리의 평화협정제의에 응해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하게 되면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근원이 없어질것이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기본담보가 마련되게 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는 문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이 철거하면 다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이 대치되여있는 현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가실수 없고 공고한 평화를 담보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완전하고도 항구적인 평화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제기되고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북과 남사이에서도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말며 군대와 군비를 대폭축소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한다.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이 채택되면 우리 나라에서 정세를 긴장시키고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원이 제거되게 되고 공고한 평화가 도래할것이며 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3자회담제안이 실현되여 조국통일의 전제가 마련되면 북과 남은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통일대화를 열수 있게 될것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지역이 각각 자치제를 실시하면서 하나의 통일적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다.

통일적련방국가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총의를 집결하여 창건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북과 남의 당국과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망라하는 전민족대회와 같은 정치협상회의가 마련되여야 한다.

련방국가가 창설되면 북과 남의 어느 일방도 자기의것을 타방에 강요할수 없고 어느 일방도 타방을 무력으로 밀어버릴수 없게 될것이며 각이한 사상과 주의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한나라안에서 화목하게 살수 있게 될것이다.

련방국가는 대외적으로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누구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로 될것이며 어느편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어떤 정치군사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적인 나라로 될것이다. 그리고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평화적인 나라로 될것이다.

실로 새로운 3자회담제안은 조선에서 오래동안 지속되여온 긴장상태를 종식시키고 전쟁의 위험을 영영 제거하기 위한 평화강령이며 온 겨레에게 평화통일의 밝은 전망을 안겨주는 새로운 획기적인 구국대책이다.

(3)

3자회담을 열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지체없이 실현되여야 한다.

지금 3자회담을 열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내외에서 강력한 반향과 지지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정부들과 인민들, 지어 자본주의나라 인민들과 공정한 국제여론은 이 제안을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발기라고 하면서 그를 적극 지지해나서는 한편 미국정부와 남조선당국이 지체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회담마당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3자회담제안은 어느 일방의 리해관계만 반영한것이 아니라 3자의 리해관계를 다같이 공정하게 반영하고있으며 거기에는 지금까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주장하여온 립장과 제안들도 충분히 반영되여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제안에 대한 립장과 태도 여부는 진정으로 우리 나라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조선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가 안하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심으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당치않은 구실을 들고 회담앞에 난관을 조성하지 말고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3자회담제안은 아직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로부터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고있다.

그들은 3자회담을 외면하면서 그 무슨 《남북대화》니, 《유관국회의》니 하며 횡설수설하고있다.

《남북대화》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고있는 주장이다.

나라의 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이 기본립장에 따라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남북대화를 발기하고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

하여왔다.

그러나 경험은 외세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의 대결정책으로 인하여 평화가 짓밟히고있는 조건에서는 남북대화를 아무리 하여도 그것은 통일을 위한 대화로 성공시켜나갈수 없다는것을 실천으로 확증해주었다.

현실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조선의 평화문제는 정전협정의 체약당사자도 아니고 실권도 없는 남조선당국자만을 상대로 한 대화로써는 해결할수 없다.

남조선의 모든 무력을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이 좌지우지하고있고 남조선당국자들은 괴뢰군의 통수권도 가지고있지 못한 형편에서 설사 그들과 마주앉아도 책임있는 대화를 할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나라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는 현시점에서 이 긴박한 문제를 풀데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남북대화를 하자는것은 결국 풀어야 할 근본문제를 덮어두고 미군의 영구강점을 허용하며 외세에 의존해서 살아가자는것외의 다른것이 아니다.

《유관국회의》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그것은 문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모호한 주장이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조선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이 있고 또 조선전쟁에 참가한 나라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미국과 같이 우리 강토를 직접 강점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전쟁위험을 조성하면서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깊이 개입하고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첨예한 긴장상태와 전쟁의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있는 유일한 외부세력이다.

바로 우리는 미국과 해결할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들과 회담하자는것이며 우리 나라 문제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는 다른 나라들과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을뿐아니라 현실적으로 누구도 그러한 회담에 참가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 나라에서 오래동안 지속되고있는 첨예한 긴장상태와 전쟁의 화근을 뿌리뽑고 조선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려는 념원에서 출발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3자회담제안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접수되지 못할 하등의 리유와 조건이 없으며 그들은 하루빨리 회담마당에 나와야 한다.

3자회담이 열리면 모든것이 잘 풀려나갈것이며 3자에게 모두 리익을 가져다줄것이다.

오늘에 와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열리는가 열리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3자회담이 실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오늘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민족적과제이며 시대적요구이다.

3자회담을 하루빨리 실현하여 긴장상태를 가시고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공고히 함으로써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조선의 공고한 평화와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과 전인류를 위한 정의의 위업이다.

이 성스러운 민족적위업을 실현하여 민족분렬의 비극과 재난의 력사를 끝장내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그 누구도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 당과 인민은 조선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담보하며 조국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게 될 3자회담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의 《전통문화개발》책동의 반동적본질

채 희 국

최근 남조선괴뢰도당은 이른바 《전통문화개발》책동을 벌리면서 제놈들이 마치도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는 《애국자》인듯이 분장해나서고있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군사파쑈통치체제를 부지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남조선괴뢰도당의 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교활하고 파렴치해지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건설에서 낡고 반동적인것을 되살리려는 복고주의와 민족문화의 전통과 유산을 거부하는 민족허무주의는 다같이 민족문화의 창조적발전을 저해하며 민족의 주체성을 살리는데 장애로 됩니다.》(《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행본, 5페지)

복고주의는 민족문화의 창조적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며 인민들을 우매화하는 반동적인 사상독소이다.

낡고 반동적인것을 되살리려는 복고주의로써는 민족문화의 전통과 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킬수 없으며 민족문화의 개화발전도 이룩할수 없다.

남조선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전통문화개발》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민족문화의 전통과 유산 가운데서 낡고 반동적인것을 되살려 제놈들의 매국배족적인 정치적목적에 리용해보려는 범죄적행위이다.

지난날 민족허무주의를 고취하면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깔보고 파괴하고있던 남조선괴뢰도당은 최근에 이르러 이른바 《전통문화개발》책동을 본격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이른바 《민족주체성확립》을 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여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그 무슨 《문예중흥계획》과 문화재관리운영체계까지 조작하여 문화재를 조사등록하고 보수를 하는것처럼 소동을 벌리고있다. 그리고 문화재발굴과 고전자료의 번역출판, 박물관과 《민속촌》 건설 등 각종 허울좋은 놀음을 꾸미고있다. 놈들은 또한 반동적인 《충효》사상과 《호국》정신을 《배양》한다는 간판밑에 《위인선렬유적》과 옛 전투장인 《국방유적》들을 꾸린다고 소란을 피우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이처럼 《전통문화개발》놀음을 벌리면서 제놈들을 마치도 민족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관심을 돌리고있는 《애국자》로 내세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날 민족문화를 로골적으로 유린말살해온 사대매국노로서의 제놈들의 정체가 드러남에 따라 그것을 가리우고 《애국자》로 둔갑하기 위한 음흉하고 반동적인 책동이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민족문화를 홀시하고 닥치는대로 파괴하던 남조선괴뢰도당이 지금에 와서 《전통문화개발》놀음을 벌리고있는것은 철두철미 제놈들의 반동적인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고 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전통문화개발》소동의 반동성은 《애국애족》의 탈을 쓰고 북과 남의 대결과 반공의식을 고취하여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합리화해보려는데 있다.

놈들은 앞으로 북과 남사이의 《문화정통성에 대한 경쟁이 격화》될것이며 그러한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전통문화의 우위성을 확보하는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떠벌이면서 력사유적들을 《정비》하여 파렴치하게 외곡리용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그것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유적

놈들을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승공통일》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미끼로 리용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놈들은 고구려문화와 신라문화사이의 공통성보다도 차이점을 절대화하고 그 이질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은 하나의 피줄을 가진 단일민족이 아니며 통일된 력사보다 분렬된 력사가 몇배나 더 긴 민족이라는 용납 못할 망발을 늘어놓고있다.

이것은 철두철미 제놈들의 매국배족적인 민족분렬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날조한 궤변이다.

놈들은 또한 지리적으로 남쪽에 위치하고있던 신라에 의하여 《삼국통일》이 이룩된것처럼 력사를 외곡하면서 오늘의 조국통일도 남으로부터의《승공통일》로 되여야 한다는 망발을 줴치고있다.

경주에 이른바 《통일원당》과 김유신의 동상까지 세워놓고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을 조작하여 류포시키고있는 사실은 놈들이 북과 남의 대결책동에 얼마나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력사적사실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일이 없었고 또 그러한 힘도 없었다는것을 실증하고있다.

신라의 통치배들은 령토확장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백제와 고구려를 침공하는데 외세까지 끌어들이였으며 지어 고구려를 패망시킨 다음에 대동강이북의 넓은 땅을 내줄데 대하여 외세와 비밀협정까지 맺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던것이다. 신라통치배들의 이러한 배족적음모는 우리 선조들의 애국적투쟁에 의하여 파산을 면치 못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떠들고있는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이란 완전히 날조한것이며 력사적진실에 대한 파렴치한 외곡이다. 신라의 령토확장야망을 실현하는데 앞장섰던 김유신은 흉악한 민족반역자이며 백제와 고구려의 10여만의 동족을 학살하고 외세까지 끌어들인 천추에 용납 못할 사대매국노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이러한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외곡하여 김유신을 높이 내세우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300년이 걸린것처럼 오늘의 조국통일도 먼 앞날에 가서 제놈들에 의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는듯이 떠들고있다.

이것은 사실상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고 장차 《승공통일》을 실현해보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흉악한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그리고 남조선괴뢰도당이야말로 제놈들의 매국배족적정체를 감싸고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는 슬기로운 민족의 력사까지도 서슴없이 외곡날조하는 극악한 민족반역자이라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집요하게 벌리고있는 《전통문화개발》책동의 반동성은 제놈들이 마치도 민족문화의 《옹호자》인듯한 환상을 류포시켜 저들의 범죄적인 사대매국행위를 《애국》의 탈로 은폐해보려는데 있다.

민족문화는 민족의 력사의 산물이다.

민족문화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곧 자기 민족에 대한 관점과 태도의 표현으로 된다. 자기 인민과 민족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는 민족문화를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보호관리하는것을 영예로운것으로, 숭고한 의무로 생각한다.

력사적경험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는 민족문화를 사랑하고 그의 개화발전을 위하여 힘썼으나 나라와 민족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매국배족의 무리들은 례외없이 민족문화를 유린하고 파괴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지금 력사유적의 《대대적인 발굴정비》요, 《박물관과 전통문화관의 대대적설치》요 뭐요 하면서 제놈들을 마치도 민족문화의 《옹호자》로,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는 《애국자》로 자처해나서고있다.

놈들은 지난날 민족문화를 허무주의적으로 대하고 파괴한 제놈들의 죄과를 전적으로 력사가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사학가들이 빨리 잘못된 점을 바로잡

고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제넘는 《훈시》까지 하고 있다.

이것은 미일두상전에게 나라와 민족을 송두리채 팔아먹고 민족문화유산까지도 닥치는대로 파괴하고있는 남조선괴뢰도당이 제놈들의 매국배족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애국자》로 가장해보려는 가소로운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의 민족반역행위는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미일침략자들에게 《선물》로 섬겨바치거나 팔아먹으며 내버려두어 도난과 도굴을 당하게 하고 지어 토굴적으로 파괴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놈들은 1953년 12월에 부산문화재창고화재사건을 조작하여 국보급의 문화유물 3,454점을 미제에게 섬겨바쳤고 1954년에도 수만점의 유물들을 미국에 실어갔다. 남조선의 력대괴뢰들은 이른바 《전시회》라는 명목밑에 수많은 문화유물들을 미국과 일본에 반출하여 팔아먹었다. 문화재에 대한 보존대책을 취하지 않는데로부터 경주의 신라고분과 충청남도 서천군의 문화재들처럼 남조선도처에서 력사유물들이 외국인과 불량배들에 의하여 도굴, 도난당하고있으며 군용지와 군용도로, 관광지를 건설한다는 간판밑에 첨성대와 불국사의 석가탑, 서울의 육상궁과 함양군의 동립사들이 파괴당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지금도 의연히 국보급의 문화유물들을 미일상전에게 뢰물로 섬겨바치거나 파괴하고있는것은 바로 놈들의 《전통문화개발》책동이 《애국자》의 탈을 쓰고 감행하고있는 기만책동이라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고 매국배족행위와 사기협잡에 의하여 제놈의 더러운 지위를 부지하고있는 남조선괴뢰도당이 아무리 교활한 기만술책을 다하여도 이미 드러난 매국노의 정체를 가리울수는 없으며 더우기 애국자로 둔갑할수는 없는것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전통문화개발》책동의 반동성은 남조선에 복고주의를 부식시키면서 남조선인민들을 우매화하고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는데 있다.

민족문화건설에서 낡고 반동적인것을 되살리려는 복고주의는 민족문화의 창조적발전을 저해하며 민족의 주체성을 살리는데 장애로 되는 반동적사상독소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지금 《전통문화개발》이라는 간판밑에 낡고 반동적인 문화와 풍습을 되살리고 류포시키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고있다.

그것은 이른바 《민속촌》건설놀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놈들은 경기도 룡인군과 제주도에 성황당, 관상집, 량반집, 기생집, 선술집, 주막집 등과 같은 봉건시대의 초라한 집과 고리타분한 낡은 생활풍습을 그대로 차려놓은 이른바 《민속촌》이라는것을 만들어놓았다.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관람객과 외국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지어 추잡한 기생놀이까지 벌리면서 민족의 존엄을 짓밟게 하고있다.

복고주의를 부식시키기 위하여 날뛰고있는 놈들은 미신놀음인 굿까지 대대적으로 되살려 장려하고있다. 여러 지방의 굿들을 주어모아놓고 《풍물굿잔치》놀음을 벌리기도 하고 이른바 《민속축전》을 열고 《진도시킴굿》, 《강릉단오굿》 등과 같은 미신적인 굿놀음을 공공연하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지금 남조선의 거리와 마을들에는 무당들이 활개치며 돌아다니고 있으며 지어 점쟁이, 관상쟁이, 풍수들이 뻐젓이 간판을 내걸고 사기협잡을 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 이처럼 복고주의적인 미신놀음이 성행하게 된것은 남조선괴뢰도당이 그것을 제놈들의 군사파쑈통치체제를 비호하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리용하고있기때문이다.

각종 미신놀음은 인민들을 우매화하고 오늘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남조선괴

되도당에게서가 아니라 인민들자신의 《숙명》적인 《팔자》에서 찾게 하는 악독한 사상독소를 부식시키고있다.

남조선에서 성행하고있는 미신놀음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정신적마약이며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반동적독소인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장려하는것이 《전통문화개발》이라고 줴치고있는것은 남조선 괴뢰도당이야말로 저들을 비호해주는것이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고 매여달리는 비렬하고 가련한 인간쓰레기들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남조선괴뢰도당의 《전통문화개발》책동의 반동성은 민족의 슬기와 창조적지혜가 깃들어있는 문화유물과 력사유적지들을 추악한 돈벌이수단으로 리용하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오늘 경주의 형편은 그 전형적인 실례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은 그 무슨 문화유적지를 꾸린다는 간판을 들고 경주에 수많은 유흥장을 꾸려놓고 그곳을 기생관광지역으로 전변시켜놓았다.

그리하여 지금 경주는 반동관료배들과 외국관광객들의 추잡한 술놀이터로 전환되고 불국사의 뜰과 석굴암일대는 미제침략군의 란무장으로 전변되고말았다.

이것은 《전통문화개발》책동이 바로 돈벌이를 위하여 꾸며낸 놈들의 광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돈벌이를 위하여 《전통문화개발》이라는 간판을 내놓은것은 신성한 민족문화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우리 인민의 슬기와 존엄을 유린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조선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하나의 피줄과 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안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우수한 민족문화전통과 고상한 풍습과 도덕을 간직하여온 문명한 민족이다.

슬기롭고 유구한 우리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낡고 반동적인것을 되살리려는 복고주의와 고유한 민족문화의 전통과 유산을 거부하는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하며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썩어빠진 반동문화를 부식시키는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야 한다.

민족문화의 고유한 전통과 우수한 유산을 살리며 그것을 현대적미감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만 참다운 민족문화를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은 미제와 력대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반동적문화《정책》으로 말미암아 고유한 민족문화가 혹심하게 유린말살되고 썩어빠진 미제의 반동문화와 왜색왜풍을 본딴 패륜패덕이 판을 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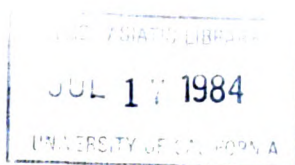
유구한 민족문화까지 유린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미일침략자들에게 팔아먹고있는 남조선괴뢰도당은 조선인민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말살하고 자주성과 존엄을 짓밟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청산하고 하루빨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근 로 자 1984년 제3호(루계 503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4년 3월 1일 발 행• 1984년 3월 3일

ㄱ—4546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호

평 양 근로자사 1984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4 호(504)

차 례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당리론선전일군들과 한 담화
1974년 4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 정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께서는 1974년 4월 2일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당리론선전일군들과 담화하였다.

근로자편집위원회는 김정일동지의 담화가 있은 때로부터 10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문헌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전문을 게재한다.

최근에 한 사회과학자가 주체철학과 관련하여 자기의 의견을 적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내용을 보아도 아직 우리 학계에서 주체철학에 대하여 정확한 리해를 가지고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주체철학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새로운 철학입니다.

주체철학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체계화된 사람위주의 철학입니다. 주체철학이 사람위주의 철학이라는것은 단순히 인간문제를 연구하고 해명하는 철학이라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체철학이 사람위주의 철학이라는것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밝힌 철학이라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지를 보내온 사회과학자의 견해를 보면 주체철학을 마치 인간철학과 같이 리해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다른 일부 사회과학자들속에서도

나타나고있습니다.

원래 인간철학은 발생한지도 오래고 또 여러가지 류파가 있지만 그것들은 다 순수 인간문제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인간철학은 세계관을 주는 과학으로서의 철학의 본래의 사명을 부인하고 주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문제를 론하는 하나의 인생철학입니다.

주체철학은 이와는 다릅니다. 주체철학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혔습니다. 주체철학의 근본문제는 순수 인간문제가 아니라 세계와 사람의 관계문제이며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단순히 인생관이 아니라 세계관을 밝힌 원리입니다. 주체철학은 사람중심의 세계관, 주체의 세계관을 밝힌 철학입니다.

주체철학은 인간에 대한 견해도 새롭게 밝혔습니다.

력사적으로 보면 인간문제는 오래전부터 철학의 연구대상으로서 수많이 론의되여왔으나 완성된 철학적해명이 주어지지 못하고있었습니다. 맑스주의고전가들은 인간문제에 대한 유물변증법적견해를 확립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철학적해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본질을 사회관계의 총체로 규정하고 인간의 활동에서 물질적생산과 사회경제관계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문제에 대한 유물변증법적견해를 세웠지만 자연과 사회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주체철학은 처음으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이룬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주었으며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옳바른 철학적해명을 주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견해에서 주체철학과 인간철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체철학이 인간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존재로 보는것과는 달리 인간철학의 제창자들은 인간의 사회적성격을 부정하고 사람을 본능에 의하여 지배되는 존재로, 세계와 동떨어진 고립되고 무능력한 존재로 봅니다. 세계에 대한 과학적리해와 혁명적변혁을 부정하는 부르죠아인간철학은 비애와 염세, 극단한 개인주의를 고취합니다.

우리는 부르죠아인간철학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인간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해명한 주체철학의 독창성을 옳바로 리해하여야 합니다.

주체철학을 리해하는데서 사람을 위주로 하여 밝힌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

에 대해서도 옳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체철학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를 세우고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대의 혁명적세계관으로서의 주체철학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체철학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세계를 개조하며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세계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물질세계의 모든 변화발전이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하고있으며 이것이 마치 선행철학과 구별되는 주체철학의 새로운 견해인듯이 리해하고있습니다.

세계가 의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물질로 이루어져있고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자체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고 변화발전한다는것은 이미 유물변증법에 의하여 밝혀졌습니다. 세계가 본질에 있어서 물질이고 물질로 통일되여있으며 그자체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고 변화발전한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체철학은 새로운 문제, 세계의 주인이 누구이며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해명하였습니다. 주체철학은 자연과 사회는 사람이 지배하며 사람에 의하여 개조된다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철학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습니다.

주체철학은 이처럼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며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된다는것을 밝힌것이지 결코 물질세계자체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것을 주장하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체철학이 밝힌것은 사람이 세계의 개조자이며 사람에 의하여 세계가 개조된다는것이지 세계의 모든 변화가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이 아닙니다. 물질세계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세계의 모든 변화발전이 사람에 의하여 일어나는것으로 리해하는것은 주체철학을 잘 모르는데로부터 나온것입니다. 주체철학이 밝힌 세계에 대한 견해를 해석하는데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그릇되게 해석하여서는 안됩니다.

주체철학을 옳게 리해하는데서 또한 자주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것이 중요합니다.

주체철학은 처음으로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해명하는데서 력사적전환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체철학이 밝힌 자주성문제를 리해하는데서 그릇된 견해들이 있

습니다.

이번에 사회과학자가 보내온 편지를 보아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은 사람의 자주성을 생명물질일반이 가지고있는 생존하려는 자연적속성이 발전되고 완성된것으로 리해하고있습니다.

자주성은 사회적존재로서 사람이 가지는 속성이며 따라서 그것을 생명물질의 자연적, 생물학적 속성의 발전완성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사람의 자주성을 생명물질일반의 자연적속성이 발전완성된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본질에 있어서 진화론적고찰방법입니다.

물론 우리는 진화론 그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장구한 진화발전의 산물이라는것은 이미 오래전에 과학에 의하여 확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지만 사람의 자주성은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자주성은 사회적산물입니다. 자주성은 자연이 아니라 사회가 인간에게 부여하는 속성이며 자연계로부터 물려받은것이 아니라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속성입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자연적, 생물학적 속성을 부여한다면 사회는 인간에게 사회적속성을 부여합니다. 사람의 자주성은 사회생활, 사회적실천의 요구이며 반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람만이 자주성을 가질수 있는가를 진화발전의 견지에서 생명물질일반과 대비적으로 고찰할수는 있을것입니다.

사람의 자주성은 사람이 오랜 진화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특유한 육체적기관과 떼여놓고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발전된 유기체가 있음으로 하여 사람은 다른 생명물질들이 가질수 없는 특유한 기능인 사유기능과 로동기능을 가지며 따라서 자주성도 가지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람의 자주성도 그 유기체와 같이 진화발전에 의하여 생겨난것처럼 보려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람의 속성인 자주성은 사회 이전에는 그 어떤 맹아적형태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존재할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자주성은 생명물질일반이 가지고있는 단순히 육체적존재를 유지하려는 본능적속성과는 질적으로 구별됩니다. 사람의 자주성은 사회적존재로서 살며 발전하려는 속성입니다. 사회적존재로서 사람이 가지는 자주성을 생존하려는 본능적인 생물학적속성으로부터 설명하려는것은 부당한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존재와 자연적존재, 사회적속성과 생물학적속성의 근본적차이를 해소시키는것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존재로서 사람이 가지는 자주성은 어디까지나 사회력사적범주이며 따라

서 자주성문제는 사회력사적견지에서 보고 리해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자주성을 생명물질의 자연적속성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여 사람자체를 물질적존재로 보는것을 부인하는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물질적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단순한 물질적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객관세계에 종속되고 순응하는 다른 생명물질들과는 달리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지배하고 개조변혁해나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속성인 자주성을 자연적속성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존재인 사람과 생명물질일반의 근본적인 계선을 모호하게 만들며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생명물질일반의 수준으로 낮추는것으로 될것입니다.

자주성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주요한 속성을 이루지만 그것이 사람이 가지는 사회적속성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주성과 함께 창조성, 의식성도 사람의 사회적속성을 이룹니다. 물론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은 다같이 사람의 사회적속성을 이루면서도 서로 다른 측면을 표현하고있습니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람의 속성이며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의 속성이며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람의 속성입니다.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은 서로 구별되면서도 호상 밀접히 통일되여있습니다. 자주성을 떠나서 창조성을 충분히 발양할수 없으며 창조성을 떠나서 자주성을 옳게 실현해나갈수 없습니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의식성을 전제로 하며 또 그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회적속성을 리해하는데서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옳게 인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주체철학은 인간의 본성과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그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철학사상도 이룩할수 없었던 주체철학의 커다란 공적입니다.

오늘 주체철학은 세계인민들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우리는 과학리론일군들이 주체철학을 깊이 연구하여 정확히 해설선전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주성을 비롯하여 주체사상을 리해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앞으로 전개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말을 아직은 전달하지 말고 과학리론일군들속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질수 있게 학습과 연구를 심화시키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위대한 령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반만년을 헤아리는 유구한 민족사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시대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고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숭고한 념원을 안으시고 세련된 령도로 모든 단계, 모든 형태의 혁명투쟁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체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영광스러운 로정은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새기원이 열리고 천지개벽의 위대한 력사가 창조된 우리 혁명의 자랑찬 년대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명맥을 굿굿이 이어나가는 밑천이며 주체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으로 된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령도사를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아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 *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위업의 개척자이며 령도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혁명위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84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며 수령의 령도밑에 완성된다. 수령의 혁명활동,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위업의 그 어떤 승리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혁명위업의 승리적인 전진과정에 이룩된 모든 혁명업적은 그 어느것이나 다 수령의 위대성,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잇닿아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공산주의운동의 어제와 오늘뿐아니라 래일에도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혁명위업의 규모와 그 변혁적성격이 커질수록 수령의 령도적역할의 의의도 더욱더 커진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과 함께 그 위업계승자의 성함과 결부되는것은 완전히 합법칙적인것이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주체위업은 그 숭고한 리념과 목적으로 하여 인류해방위업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주체혁명위업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구현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미래를 훌륭히 개척해나가는 가장 성스러운 위업이다. 이 혁명위업에 의하여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참다운 길이 열리게 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최

상의 높이에서 반영하고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주체위업의 위대성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개척되였다.

심오한 내용을 담고있는 혁명위업을 새롭게 개척하는것은 혁명의 새기원을 열어놓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것은 력사적시대가 달라지고 혁명실천이 요구한다고 하여 저절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새롭게 개척하는 력사적과제는 오직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을 지니고 혁명의 앞길을 환히 내다보며 세련된 령도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실천적 경험과 모범을 창조할수 있는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빛나게 해결될수 있다. 혁명위업의 개척은 로동계급의 수령이 인류와 력사 앞에 쌓아올리는 가장 위대한 공적의 하나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는 길은 매우 험난한 력사의 초행길이였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부터 반일의 기치밑에 의병투쟁과 독립군운동도 해보았고 애국문화정치운동도 진행하였으며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등장함에 따라 공산주의운동도 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운동들은 그것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탁월한 수령이 없었던탓으로 하여, 옳바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정확한 전략전술이 없었던탓으로 하여 피의 교훈을 남긴채 쓰라린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 민족수난의 암담하던 시기에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주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영명한 수령을 모시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였으며 피타는 갈망이였다.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는 오로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빛나게 실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기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인류사상사가 도달한 모든 선진사상들과 진보적인민들의 투쟁력사를 깊이 분석하시고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신데 기초하여 혁명운동의 앞길을 독창적으로 탐구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의 지향과 인민의 념원,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의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도사상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옳은 투쟁강령을 가지고 대중에 의거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벌려나가는 혁명의 전위조직들을 결성하시고 그에 대한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지도사상, 주체사상이 마련되고 그것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혁명의 핵심력량이 꾸려짐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새롭게 전개되게 되였으며 그때로부터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주체위업이 시작되였다.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은 조선혁명이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주체위업이 시작됨으로써 지난날 남에게 억눌리우고 짓밟히던 우리 인민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사대와 교조로 하여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던 진통의 력사를 끝장내고 자주의 궤도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은 조선혁명이 주체의 혈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순결하게 이어나갈수 있는 시원을 열어놓았다.

주체위업이 개척된 때로부터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

한 투쟁으로 확고히 전환되였으며 그때로부터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은 또한 인민대중의 혁명운동 특히는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주체위업이 개척되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힘차게 전진하는데 따라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깊이 자각하게 되였으며 그들의 민족해방운동은 세계제국주의에 강력한 타격을 안겨주는 혁명력량으로 더욱 장성강화되게 되였다.

실로 주체혁명위업의 개척,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행정에 이룩하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빛나는 첫 혁명업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위업은 지난 반세기가 넘는 기간 영광에 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령도는 혁명위업의 개척과정에서만 아니라 그 승리적전진과정에서도 확고히 보장되여야 한다.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의 업적은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탁월한 령도로 하여 더욱더 빛난다.

조선혁명은 처음부터 남달리 간고한 로정을 헤쳐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투쟁의 앞길은 간고하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였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승리의 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여왔으며 조국땅우에는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걸어온 거창하고 심각한 전변의 력사적로정은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였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구원되고 지난날 수천년을 두고도 이룩할수 없었던 세기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된 위대한 변혁과 기적의 창조과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형의 혁명적당과 국가, 혁명무력을 마련하는 력사적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그것을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당으로 강화시키시였으며 로동자, 농민의 참다운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강력한 정규무력을 건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뭉친 강철의 전투대오로, 생기발랄하고 패기에 넘쳐 전진하는 위대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확고히 이끄는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탁월한 령도로 우리 혁명을 굽임없는 앙양에로 이끄심으로써 지난날 력사의 후진대렬에서 빛마저 잃었던 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존엄있고 부강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그 이름을 높이 떨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긍지높고 힘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주체의 해빛넘치는 사회주의락원에서 사람마다 크나큰 포부와 찬란한 미래를 안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나라,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주체조선의 참다운 모습이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지위와 처지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전변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전해질 자랑찬 승리이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력사적공적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영광의 투쟁로정은 시대와 력사 발전에 미친 거대한 영향으로 보나 이룩된 업적의 비할바없는 풍부성으로 보나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혁명의 령도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천리마운동은 그 뚜렷한 실례의 하나이다. 천리마운동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력한 대중적진군운동인 천리마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전인민적투쟁으로 온갖 난관을 뚫고 혁명과 건설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를 창조와 변혁으로 빛내인 천리마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군중에 의거하고 그들의 창조력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는 인민을 위하여 걷고걸으신 수령님의 현지지도력사에서 뚜렷이 볼수 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낮에 밤을 이어 온 나라 방방곡곡의 크고작은 공장들과 농촌, 교육기관들과 문화기관들을 찾으시여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새로운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온 나라를 창조와 혁신,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게 하고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생활은 광범한 대중의 힘에 의거하며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방법이야말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는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방법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은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령도적풍모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현재와 가까운 앞날뿐아니라 혁명발전의 먼 장래까지도 환히 내다보시며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투쟁목표와 적중한 투쟁구호를 제때에 제시하시여 인민대중을 계속혁신, 계속전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그 어떤 역경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의 의지와 혁명적전개력, 비상한 조직적수완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확고히 이끌어나가시며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나아가시여 언제나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그것은 실로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에 빛날 위훈의 력사를 창조하고 우리의 혁명위업이 비약의 한길로 줄기차게 달려올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과정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당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 날이 갈수록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당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주체위업의 영원한 계승성, 그 종국적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하여야 할 장기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승리적으로 개척된 혁명위업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되지 않으면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우리 당은 오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완성하는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실천투쟁은 주체위업을 튼튼히 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한데로 지향되고있다.

우리 당은 주체위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이다.

당을 공고화하는 사업,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는 사업을 꾸준히 벌려나가는것은 당의 혁명적성격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주체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당을 영원히 그 창건자인 수령의 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서 이룩된 성과로 하여 우리 당 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당은 당과 혁명 발전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조직지도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높은 단계에로 심화되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순결하게 계승발전되게 되였으며 간부대렬과 당대렬이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지고 새로운 혁명적사업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우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는 력사적인 전환이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조직사상적기초가 쌓아지고 주체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체제가 튼튼히 서게 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인류의 최고리상과 념원을 실현하는 가장 보람찬 투쟁이다. 이 투쟁은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계승하고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여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기본전략목표와 근본방도를 밝히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종국적승리의 길, 수령님의 의도와 구상을 혁명과 건설에 전면적으로 구현하는 참다운 길을 열어놓았다.

웅대한 전략을 펼치고 비상한 혁명적 전개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사람과 사회,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력사적위업이 힘있게 전진할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의 위력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이것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위력한 사상적, 물질적 조건이 확고히 마련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면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튼튼히 쌓아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조선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할 때까지 투쟁을 멈출수 없다.

주체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해나가자면 우리 혁명대오를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다져야 한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져야 혁명위업의 승리가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우리 혁명대오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는것은 주체위업의 개척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계승되여오는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우리 혁명은 이 고귀한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고 그 불패의 위력에 의거함으로써 굽임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해올수 있었다.

80년대에 살며 혁명하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리던 시기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니였던 불굴의 혁명정신을 순결하게 따라배워 당과 수령을 위대한 령도자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동지적 단결을 더욱더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전당, 전민, 전군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승리에 대한 신심과 완강한 투지를 가지고 억세게 전진할 때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는 확고부동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비약과 혁신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홍 싱 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려명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위대한 사상과 세련된 령도로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오시면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세기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혁명발전과 우리 혁명위업 수행에 공헌한 위대한 업적의 하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경제건설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에로 힘있게 이끌어오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는 짧은 기간에 강력한 중공업과 현대적인 경공업, 발전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고 나라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일신되였으며 인민생활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게 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여 이 땅우에 현대적인 사회주의적자립경제를 일떠세운 경이적인 사변의 자랑찬 력사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될수 있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비약과 혁신으로 가득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자랑찬 투쟁로정을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다.

* *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할뿐아니라 경제를 고도로 발전시켜 근로자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물질적부를 끊임없이 생산하게 되여야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경제건설을 다그치는것은 근로자들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하며 사회주의적사회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력사발전의 필연적과정을 앞당기는것과 직접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기술경제적락후성을 극복하고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토대를 마련해나가는 거창한 혁명적변혁과정이다. 그것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낡은 유물들을 없애며 전진도상에 가로놓이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 복잡한 투쟁과정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은 지

구상에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세력이 남아있고 그들의 파괴암해책동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더욱더 복잡성과 장기성을 띠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부닥치는 이 모든 난관과 시련을 승리적으로 뚫고나가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갈수 있으며 근로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립장을 물질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이 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특성으로 하여 경제를 끊임없이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되여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집니다.》(《김일성저작집》 제23권, 445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내여 일하며 생산이 계획적으로 장성하고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관련하여 있게 되는 생산장성의 항구적인 가능성과 예비이다.

사회주의사회에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킬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고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빠른 발전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경제는 전사회적규모에서 유기적으로 련결되여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있는 대규모의 경제인것만큼 그것을 옳바로 움직여 생산과 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을 보장한다는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대규모의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의 빠른 발전은 오직 로동계급의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서만 이룩될수 있다.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공고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끊임없는 앙양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갈때만이 사회주의사회에 있는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경제건설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 대담한 투쟁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당의 전략과 전술이며 모든 경제활동의 지침이다. 옳바른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이 있어야만 근로인민대중에게 명확한 목표와 투쟁방향을 제시하여 그들을 생산과 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조성된 정세와 제기된 혁명과업을 깊이 통찰하시고 가장 정확한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 대담한 투쟁목표를 제시하시여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쌓을데 대한 방침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방침 그리고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과 6개년계획을 수행할데 대한 과업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 투쟁과업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예견한 것들이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

시하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방대한 규모의 건설과 생산의 비약적인 장성을 예견하고있는것으로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전례없이 웅대한 경제건설목표인것이다. 이러한 경제건설 로선들과 목표들은 빨리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을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으며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중심고리를 명확히 밝히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며 끊임없이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적극적인 경제실무적대책들을 제때에 세우고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비약과 혁신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당중앙위원회 함흥전원회의에서 150만톤의 유색금속고지를 점령하는것을 경제사업에서 풀어야 할 중심고리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1,000만톤 선광능력의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을 일떠세우는것과 같은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게 하시였다. 보통이면 10년이 걸린다는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을 불과 1년동안에 건설한 이 높은 속도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대비약, 대혁신의 빛나는 본보기로 되고있다.

지금 순천지구전선, 안주지구전선, 청진지구전선, 남포지구전선, 함흥지구전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비상히 빠른 속도는 5개지구전선건설을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중심적인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거기에 주되는 힘을 집중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실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여주신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대담한 투쟁목표가 있음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모르고 언제나 비약과 혁신의 한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 언제나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자력갱생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며 투쟁기풍이다.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건설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거기에 의거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을 적극 동원하고 자기의 자금과 기술에 의거하여야 경제를 주동적으로 그리고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나라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시는데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주로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자원, 자기의 민족간부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 사회주의공업화로선과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방침을 비롯한 우리 당이 내놓은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과 방침들에는 주로 우리 인민자체의 힘과 지혜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는 혁명적립장이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앞에 어려운 임무가 나설 때마다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인민을 새로운 위훈과 혁신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래동안 사람들의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농업지도체계가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이룩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사회

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게 하는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심화발전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공업지도체계를 창설하시고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을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옳바르게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시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경제적 락후성과 침체를 없애버리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오시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은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정확한 방침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에 관한 사상과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으로서의 속도전에 관한 사상,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 《80년대속도》창조투쟁과 영화실효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우리 당이 내놓은 사상리론과 방침들은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건설력사를 새로운 비약과 혁신으로 찬연히 빛내여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인민이 준엄한 시련과 중첩되는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게 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이 땅우에 위대한 비약과 혁신의 자랑찬 새 력사를 펼쳐놓았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축성하던 시기에 벌써 5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2년반에, 현물지표별로는 4년동안에 완수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던 1960년대에는 공업생산을 매해 평균 12.8%의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후 모든것이 부족하였던 간고한 조건에서도 파괴된 경제를 단숨에 복구하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불과 1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하였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고 경제규모가 전례없이 커진 조건에서도 우리의 공업은 1970년—1980년사이에 해마다 평균 16.1%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6개년계획을 1년이상이나 앞당겨끝낸데 이어 방대한 제2차 7개년계획도 빛나게 수행해나가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공업총생산액을 1980년대말에 가서 1946년에 비해서는 무려 1,000배로 늘이게 될 웅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최근시기에도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는 농업부문에서도 확고히 견지되여왔다.

일반적으로 한해에 농업생산을 2～3%만 늘여도 큰 성과라고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1974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알곡생산을 30%이상 장성시키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1982년에는 우리 나라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95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는 또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한것이다.

오늘 우리의 경제는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과 현대적인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그쯘히 갖춘 위력한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로 되였으며 그 기술장비수준도 대단히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지난날 간단한 농기구 하나 번변히 만들지 못하던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와 뜨락또르는 말할것도 없고 20메터대형선반, 자동선반과 반자동선반을 비롯한 현대적인 공작기계들을 생산하고있으며 새로 건설하는 공장, 기업소의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이와 함께 높은 과학기술과 정밀도를 요구하는 여러가지 자동화수단들이 많이 생산되어 생산의 자동화와 원격조종화가 널리 실시되고있다. 이렇듯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현대적인 중공업제품과 경공업제품들을 훌륭히 만들어내고있으며 여러가지 공업제품과 농산물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고있다.

위력한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건설한 결과 우리 인민은 지난날 락후한 경제를 가지고있었던탓으로 수모받고 멸시받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힘있고 발전된 민족으로서 세계의 수많은 크고작은 민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떳떳이 나서게 되였다.

경제발전의 비약적인 높은 속도가 이룩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강화됨에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도 끊임없이 향상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온갖 근심걱정을 모르면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방직공업과 식료가공공업, 일용품공업을 비롯한 경공업이 빨리 발전하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자원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비날론공업을 창설하고 비날론생산량을 계속 늘임으로써 해마다 매 사람들에게 수십메터씩이나 되는 많은 천이 차례지고있다.

농업생산이 끊임없이 늘어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식량을 자급자족하고있으며 인민들에게 거저나 다름없이 식량을 넉넉히 공급하고있으며 수산업의 든든한 물질기술적토대에 의거하여 해마다 수백만톤의 수산물을 생산하고있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에서부터 공산주의적시책을 실시하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이 찬란한 현실로 전환되여가고있다.

도시와 농촌에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고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와 농촌의 수도화, 뻐스화가 실현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고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전체 인민들이 다같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제도가 폐지되고 전반적무상치료제와 가장 높은 형태의 무료의무교육제가 실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세금걱정, 병나면 치료받을 걱정, 후대들을 공부시킬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문화적으로나 그 어떤 근심걱정과 불편도 모르고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력사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매우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에로 이끌어오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참으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근본요구

백 농 기

우리 당은 1970년대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원리적문제들을 새롭게 밝히고 이 사업을 더욱 심화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였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모든 령역에 걸쳐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게 되였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와 업적을 계속 공고발전시키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 *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여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전당과 온 사회에 사상의 유일성을 보장함으로써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려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83페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이 사업은 전당과 온 사회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유일적으로 지배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개조하는것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은 결국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 그들을 철저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문제에 귀착된다. 이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성과적으로 해결된다.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확고히 지배하고 관통되게 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오직 그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

신적특질은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데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정신적풍모를 훌륭히 갖추게 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칠수 있게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자연과 사회,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것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고 조절통제한다. 사상의식의 규제와 조절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투쟁에서 사람들의 역할은 결국 그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인것이다.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고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높이자면 그들을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인민대중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혁명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여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온 사회에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차게 하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전당과 온 사회에 사상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게 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가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자면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목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완성하자는데 있다.

우리 당이 밝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울데 대한 혁명적방침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할데 대한 원칙적요구들과 그 실현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어떻게 더 잘 받들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을 주고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나갈 때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와 우리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더 잘 실현해나갈수 있다.

전당, 전국, 전군이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것은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고도의 조직성과 의식성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은 전당, 전국, 전군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조직체계를 세우고 강한 혁명적 규률과 질서에 따라 전개되여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광범한 대중을 조직화하고 그들의 창조적힘을 하나의 목적달성에로 동원하며 대중의 활동에 의식성을 부여하는것은 오직 수령의 혁명적령도에 기초한 지도의 유일성과 통일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지도에서의 유일성과 통일성이 보장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요구를 옳게 실현할수 있게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건설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 특히 정책적문제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률이 전당과 온 사회에 확고히 서게 한다. 그리고 당, 정권기관 및 근로단체들이 다같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행동의 일치성과 통일성을 확고히 실현하게 한다. 이와 함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와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는 혁명적기풍이 전당과 온 사회를 지배하게 한다.

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주체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였으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있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1페지)

조선로동당은 우리 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다. 조선혁명의 승패와 우리 인민의 운명은 결국 우리 당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우리 당앞에 그 어느때보다도 자기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일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정치적사업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위대한 정치적사업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오직 당의 확고한 정치적령도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해결하여야 할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령도력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떠나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자체의 목적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의 성과적수행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우리 당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온 사회에 힘있게 뿜어줄수 있으며 사람과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이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확고히 보존하고 끝까지 고수할수 있게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이 지배하게 함으로써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하여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사회의 심장, 혁명의 추진력으로서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한다. 당사업에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우리 당을 전투적이고 생기발랄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 혁명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게 하는 사업도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 의해서만 확고히 담보될수 있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단결은 곧 힘이며 혁명투쟁에서 단결보다 더 위력한것은 없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할 때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게 되고 우리 당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게 되며 이 위력한 단결의 힘에 의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더욱 힘있게 추진되여나가게 된다.

당의 통일단결은 사람들의 행정적, 실무적 단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혁명의 한길에서 함께 싸워나가는 혁명동지들사이의 사상의지적인것으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결합으로 될 때에만 힘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사상의지적단결은 같은 뜻과 사상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받들어나가는 혁명동지들간에만 있을수 있는 공산주의적관계로서 그것은 당의 통일단결의 기초를 이루며 그 공고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이러한 통일단결의 바탕에 놓여있는 공통된 사상과 의지는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당과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려는 끝없는 충실성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할 때에만 혁명적동지애가 높이 발양될수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숭고하고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으며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이룩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여 전당의 철옹성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을 기본으로 삼고있다. 당안에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이 침투하는것을 막고 당의 사상적순결성을 가장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양할수 있게 하는 사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그러므로 유일사

상체계를 철저히 세워나갈 때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가장 힘있는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이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고 령도적역할을 강화할수 있게 하는 원천으로 된다.

이렇듯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백방으로 높이며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로 된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필연성과 그 본질적내용,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제반 원칙적요구들과 그 실현을 위한 혁명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모든 원칙적요구들은 우리 당과 인민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된다.

참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근본요구로 제시하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밝힌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은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더한층 심화발전시킨 사상리론적재부의 하나로 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보람찬 투쟁속에서 우리 당은 더욱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비상히 풍부한 경험과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고 불패의 위력을 지니게 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의 전과정은 우리 당이 공산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비상한 조직력과 세련된 령도로 광범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조직자, 령도자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공산주의향도자로서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확고히 지니였으며 광범한 대중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견결히 지키며 우리 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오늘의 복잡하고 긴장한 정세속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하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전당이 뭉치고 전군이 뭉치며 전민이 굳게 뭉쳐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거창한 혁명적변혁과정을 추동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우리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

차 철 원

오늘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사상의지적 및 조직적 통일단결인 동시에 참다운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의식적 통일단결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의 중요원천이 있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그 힘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다그쳐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1)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혁명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에서 승리하려면 혁명투쟁에 많은 사람이 참가하여야 하며 그들사이에 통일과 단결이 보장되여야 합니다. 혁명사업에 참가하고있는 사람들사이의 진정한 통일과 단결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504～505페지)

혁명투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직과 단결이다. 혁명은 혼자서는 할수 없다. 혁명투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이 보장되여야 한다.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떠나서는 혁명이 전진할수 없으며 그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 인민대중의 힘은 곧 그들의 단결에 있다.

한편 혁명이 전진하고 승리하는 과정에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되며 이에 따라 혁명을 보다 높이 발전시킬수 있는 혁명력량이 마련된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떠난 혁명투쟁이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혁명투쟁을 떠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도 생각할수 없다.

이와 같이 혁명대오의 통일단결과 혁명투쟁은 서로 뗄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단결은 곧 혁명이고 혁명은 곧 단결이라고 말할수 있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문제는 혁명에 참가하는 사람들, 혁명동지들의 호상관계문제이며 그 통일단결에는 혁명하는 사람들의 동지적단합이 안받침되게 된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문제와 관련하여 혁명적동지애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혁명적동지애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다시말하여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사이에 맺어지는 사랑이다. 혁명대오안에 있으면서 딴 사상을 가지고 딴꿈을 꾸는 사람은 진정한 동지가 아니고 가짜동지이며 가짜동지들사이에는 참다운 동지애가 있을수 없다.

사람들사이의 참다운 동지적관계와 혁명적동지애는 오직 혁명투쟁과정에서만 이루어지며 공고화된다. 혁명투쟁을 떠나서는 혁명적동지애가 있을수 없다.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혁명활동,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믿고 사랑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맺어지는 사랑만이 가장 고상하고 순결한것으로, 더없이 굳세고 열렬한 사랑으로 된다.

인간에 대한 사랑에는 여러가지가 있

다. 부자간의 사랑과 모자간의 사랑이 있으며 부부간의 사랑, 친우들간의 사랑도 있고 동지들간의 사랑도 있다. 이 여러가지 사랑가운데서 가장 값있고 귀중한 사랑은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이다. 부자간의 사랑이나 모자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도 그것이 동지적사랑으로 결합될 때에만 참말로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될수 있다.

혁명투쟁속에서 맺어지는 혁명가들사이의 참다운 사랑은 혁명가들을 동지적으로 단합시키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확고한 사상적기초와 조직적기초우에 이루어지며 또한 여기에는 도덕적요인도 작용한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에 작용하는 이 요인들은 바로 혁명적동지애와 뗄수 없이 련관되여있다.

혁명적동지애는 동지호상간의 건전한 사상적단합을 이룩하게 함으로써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굳게 단합시킨다.

혁명대오의 단결은 사상의지적인 통일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것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만이 공고한것으로 된다. 혁명대오의 이러한 사상의지적단합은 동지적사랑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혁명동지들사이의 사상적공통성에 기초하여 맺어진 사랑은 서로 믿고 도우며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행정에서 그들사이의 사상적 일치성과 순결성이 더욱 확고한것으로 되게 한다.

혁명적동지애는 또한 혁명대오를 조직적으로 더욱 굳게 결속시키게 한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질뿐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조직에 망라되여 조직의 강한 규률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여나가는 과정에 더욱 공고화된다. 혁명동지들사이의 믿음과 사랑은 그들이 같은 혁명조직에 망라되여 그 어떤 분파도 허용하지 않는 원칙적인 투쟁을 통하여 혁명대오를 조직적으로 건전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따라서 혁명적동지애가 높아질수록 혁명대오의 조직적 및 행동상 통일이 더욱 의식화되고 공고화되게 된다.

이와 함께 혁명적동지애는 혁명동지들사이의 도덕적, 의리적 관계속에서 맺어지는것으로 하여 그것은 혁명대오를 서로 돕고 이끄는 도덕의리적인 단합으로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

이렇듯 혁명적동지애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사상적 및 조직적 기초, 도덕적기초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결국 혁명적동지애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참말로 진실한것으로,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불패의 혁명적단결로 되게 한다.

진정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가들사이의 동지적단합이다.

원래 공산주의혁명대오는 수령을 중심으로 뭉친 혁명동지들의 대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작용하는 혁명적동지애는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뜻을 같이하는 혁명가들간의 관계이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개되는 조직적활동, 수령이 제시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발휘되는 동지애이다.

그것은 수령이 안겨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혁명적절개와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혁명적의리에 기초하고있다.

진정한 혁명적동지애는 바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충실성에 기초하여 강화되는 혁명가들의 동지애이다. 이러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곧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유지공고화되는 혁명가들의 동지적단합인것이다.

(2)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동지적단합의 참다운 모범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대성과 불패성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4페지)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혁명승리의 길을 헤쳐온 불패의 통일단결이며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혁명전사들의 철석같은 동지적단합이 확고히 안받침되여있다. 이 통일단결은 그 어떤 이색적인것도 끼여들수 없고 어떠한 힘으로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가장 공고한 동지적단합에 기초한 위대한 통일단결이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동지적단합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공고화된 전통적인 단합이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첫 주체의 혁명대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로, 가장 믿음직한 혁명동지들로 키우시는 과정에서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시기 행세식맑스주의자들속에서는 진정한 동지적결합이란 생각할수 없었다. 그들은 순전히 종파적목적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규합함으로써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단합을 옳게 실현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참다운 혁명동지들을 획득하는 사업으로부터 새로운 혁명대오를 꾸리는 사업을 시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명의 혁명동지를 얻기 위해서도 수백수천리의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였으며 혁명동지를 키우시는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온갖 정력을 다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열혈청년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르면서 곳곳에서 수많이 모여들었으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무한한 영예와 긍지를 안고 오직 주체혁명위업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아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돌려주신 동지적사랑이야말로 비길데없이 깊고 넓은 위대한 사랑이였으며 수령님에 대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성의 열도 역시 끝없이 높은것이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속에서는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라는 관점,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서게 되였으며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심과 흠모감 그리고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 모든 충성을 다하려는 혁명적의리가 높이 체현되여 있었다.

참으로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체의 혁명대오안에서는 혁명적동지애가 끓어넘치였으며 이 과정에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참다운 동지적단합의 전형이 창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루어놓으신 주체의 혁명대오는 급속히 자라나 불패의것으로 장성강화되였으며 이 과정에 우리 혁명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의 위대한 전통이 마련될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은 해방후 전면적으로 계승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바로 이 위력한 힘에 의거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빛나게 수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

키고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온갖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동지적단합,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대를 이어 고수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것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데서 합법칙적요구로 된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참다운 동지적단합,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켜나가지 않고서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없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계승되여 내려오는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이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고있다.

로간부들과 젊은 간부들, 로당원들과 젊은 당원들 할것없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결같이 무한한 충성심을 가지고 우리 당중앙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있다. 그리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는 가장 숭고한 혁명적동지애가 차넘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수령, 당, 계급, 대중은 조직사상적으로뿐아니라 동지적으로도 완전한 전일체를 이루고있다. 바로 여기에 전당과 온 사회의 칠통같은 통일단결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게 결속되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가 확고히 보장됨으로써 우리 당이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는 당의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고있으며 우리 혁명대오가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지고있다.

(3)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통일단결과 순결성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당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36페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와 인간에 대한 가장 심각한 개조를 거쳐 사람들사이의 사회적관계를 완전무결한 공산주의적인 동지적관계로 전환시킬것을 요구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혁명대오의 동지적단합, 사상의지적인 통일단결을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더욱 튼튼히 세우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는데서 기본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충실성,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기본고리가 있으며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새로운 높이에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함께 손잡고나아갈 때 그들사이에는 혁명적동지애가 끓어넘치게 되고 전당의 통일단결이 더욱 공고발전될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갈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사이에 원칙적인 동지적관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적동지애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혁명동지들사이의 원칙적인 사랑인것만큼 그것이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예리한 비판과 자기비판의 토대우에서 맺어져야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위한 인간개조사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가장 조직적이고 규률적이며 사상정신적풍모와 문화적소양 등 모든 면에서 완성된 인간으로 키우는 성스러운 사업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동지애는 이에 맞게 맺어져야하며 모든 면에서 서로 요구성을 높이면서 원칙적인 통일단결로 빌전시켜나가야 한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동지적단합,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혁명적동지애가 높이 발양되고 일상적인 투쟁속에서 통일단결의 위력이 실제적결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추상적인 동지애, 머리속에만 있는 동지애는 아무런 의의도 못가지며 실지 혁명투쟁에 적극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통일단결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 일상적인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발양되여 실제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힘을 합치게 하는 그러한 혁명적동지애 다시말하여 실천과 밀접히 결부된 동지애만이 참다운 혁명적동지애이며 이에 기초한 통일단결만이 혁명투쟁을 떠미는 추진력으로 작용할수 있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80년대에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투쟁속에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당면하여 올해에 3개구간선의 기본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려 높은 생산적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뚫고 전진하는 대오, 서로 돕고 이끌며 기적과 혁신만을 창조하는 불패의 전투대오로서의 우리 혁명대오의 위력을 떨쳐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양시키며 우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모두가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청년공산주의자들,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김혁, 차광수, 서정애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혁명적동지애와 원칙적단결의 가장 귀중한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이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귀감으로 된다.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 보여준 모범은 그 내용으로 보아 매우 심원할뿐아니라 그것이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 창조된것으로 하여 더욱 큰 감화력을 가지며 불멸의 생명력을 가진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고귀한 모범을 적극 따라배움으로써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끝없이 높이고 이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당과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부모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는 의연히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우리는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뭉쳐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철학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 방도를 밝혀주는 혁명적세계관

박 승 덕

로동계급의 혁명적철학은 탁월한 수령들에 의하여 창시되고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된다. 전진하는 시대와 심화되는 혁명운동의 요구에 맞게 로동계급의 철학이 발전풍부화되여야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무기로서의 혁명적세계관의 역할을 높일수 있고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고무추동할수 있다.

주체철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우리 당에 의하여 발전풍부화되고있는 로동계급의 새로운 철학이다. 주체철학은 우리 시대와 혁명 발전의 필연적요구를 구현하여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으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문헌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는 주체철학의 근본특징과 내용, 독창성과 력사적지위가 심오하게 밝혀져있다. 이 문헌에 의하여 주체철학의 과학성과 혁명성이 전면적으로 론증되고 로동계급의 철학발전에 공헌한 그 빛나는 업적이 힘있게 과시되였으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로서의 주체철학의 견인력과 생활력이 비할바없이 증대되게 되였다.

* *

주체철학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앞길을 옳바로 밝혀주는 혁명적세계관이다.

운명에 대한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절실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면 자신의 사회적처지와 생활형편을 개선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것은 개인과 계급 그리고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구로, 사활적인 리해관계로 된다. 계급의 리해관계를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철학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자면 반드시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인류사상사에 존재한 철학들은 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사람의 운명문제에 대하여 론의하였다.

관념론은 세계의 시원을 물질과 동떨어진 정신으로 보고 그것에 의하여 모든것이 규정된다고 인정한데로부터 사람의 운명도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신비주의적인 견해를 주장하였다. 형이상학적유물론은 세계의 시원이 물질이라고 옳게 보았으나 세계가 고정불변하다고 그릇되게 간주함으로써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을 개변할수 없고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숙명론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이러한 철학들은 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착취계급의 운명에만 관심을 돌렸으며 사람의 운명문제에 옳바른 대답을 주지 못하였다.

맑스주의철학은 력사상 처음으로 유물론과 변증법을 결합시킴으로써 사람의 운명에 대한 유물변증법적립장을 확립하였다. 유물변증법에 의하여 물질이 의식을 규정한다는 원리가 사회현상에까지 적용되고 자연, 사회, 인간사유가 변화발전하는 일반적법칙이 해명됨으로써 인간의 운명에 대한 신비주의적이며 숙명론적인 견해가 극복되였으며 사람의 운명이 개변될수 있다는것이 밝혀졌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운명에 대한 신비주의적이며 숙명론적인 견해를 부정한 유물변증법적립장을 전제로 하고 사람을 고찰의 중심에 놓는 새로운 원칙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문헌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철학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세계를 개조하며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주체철학은 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뚜렷이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세계관적문제들을 풀어나간다. 주체철학에서는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가 제기되고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이 밝혀져있다. 주체철학은 모든 철학적문제들을 사람을 위주로 하여 고찰하고 풀어나감으로써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옳바른 방도를 밝혀준다.

주체철학은 무엇보다먼저 사람의 운명개척의 근본원리를 밝혀준다.

철학이 사람의 운명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주려면 운명의 주인이 누구이며 운명을 개척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밝혀야 한다. 그래야 사람의 운명이 자기자신에 의하여 지배되는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사람의 운명이 자기자신의 힘에 의하여 개척되는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힘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를 옳게 풀수 있다.

물론 세계의 시원에 관한 문제를 밝히는것은 사람의 운명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의 시원에 관한 문제가 과학적으로 해결되여야 사람의 운명개척의 조건인 객관세계의 물질성과 그 운동법칙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질수 있다. 그런데 사람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개척되는것만큼 운명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려면 사람과 세계의 관계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에 정확한 해답을 주어야 한다.

주체철학은 사람과 세계의 관계,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과학적 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천명함으로써 사람의 운명개척의 근본원리를 독창적으로 밝혔다.

주체철학이 제기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사람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담고있다.

사람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당사자이며 세계는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환경이며 조건이다. 사람의 운명은 세계를 개조하고 지배하여야 개척된다. 사람이 세계를 얼마나 개조하고 지배하는가 하는것은 사람의 운명이 개척된 정도를 표현한다.

사람의 운명문제는 순수 인간문제가 아니라 세계와 사람의 관계문제이다. 세계와 사람의 관계문제는 세계에서 사람이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 세계개조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이므로 사람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로 된다.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를 옳바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인간에 대한 완벽한 해명이 주어져야 한다.

인간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견해는 사람이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이라는것을 밝히는것과 함께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밝혀야 확립될수 있다. 사람이 사회관계에 의하여 제약되고 인간의 활동이 사회에서 작용하는 물질세계의 일반적법칙에 의하여 규정

된다는 리해만 가지고서는 사회관계와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옳바른 인식을 가질수 없다.

주체철학은 처음으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옳바른 철학적해명을 주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본질적속성이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람의 속성이며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의 속성이나.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람의 속성이 의식성이다. 자주성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로 표현되고 창조성은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로 표현되며 의식성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담보한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주인으로 되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주는 독창적인 철학적원리를 내놓았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주체의 철학적원리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이기때문에 자기 운명을 지배하는 주인으로 된다. 사람의 지배대상인 객관세계가 사람의 운명을 규정할수는 없다. 사람은 세계개조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도 결정적역할을 한다. 사람에 의하여 개조변혁되는 객관세계는 사람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밝힌 사람의 운명개척의 근본원리로 된다.

사람의 운명개척의 근본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힌 주체철학은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운운하는 인간철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주체철학은 단순히 인생관이 아니라 사람과 세계의 관계, 세계관을 밝힌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그러므로 주체철학은 인간과 인생자체에 대한 반동적본질에 세계관을 해소시키는 인간철학에 원칙적으로 대립된다. 주체철학은 사람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존재라는 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중심의 세계관, 주체의 세계관을 밝혔다. 때문에 주체철학은 인간을 본능에 의하여 지배되는 존재, 세계와 동떨어진 고립되고 무능력한 존재로 보고 세계에 대한 과학적리해와 혁명적변혁을 부정하는 부르죠아인간철학과는 아무러한 인연도 없다.

주체철학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천명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근본원리를 밝혀주었다.

주체철학은 다음으로 사람의 운명개척의 합법칙성을 밝혀준다.

철학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운명개척의 근본원리를 밝혀야 할뿐아니라 운명개척과정에서 작용하는 합법칙성을 해명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행정은 자연과 사회를 자신에게 리롭게 개변하고 복무시켜나가는 과정이며 그것은 일정한 합법칙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람에 의하여 세계가 지배되고 개조되는 합법칙성을 파악하여야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정확히 사람의 운명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주기 위해서는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운명개척의 합법칙성을 알아도 올바른 방법론이 없이는 그것을 성과적으로 구현할수 없으며 세계를 [illegible]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없다. 인민대중은 운명개척의 [illegible]인 방법론을 틀어쥐여야 세계를 올바

로 대하고 평가할수 있으며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세계를 사람의 의식밖에 독립하여 존재하는 물질로 보며 끊임없는 변화발전속에서 고찰하는 관점과 립장은 물질세계의 합법칙성에 맞게 사람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의 운명이 개척되는 과정은 물질세계의 합법칙성에 맞게 이루어질뿐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람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가 실현되여나가는 행정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에게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옳바른 방법론을 주려면 사람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고 평가하는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여야 한다.

주체철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밝힘으로써 운명개척의 옳바른 방법론을 천명하였다.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며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것은 주체철학이 밝힌 운명개척의 방법론이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면 자신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여야 한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에 맞게 자신의 자주적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물현상을 보고 평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의 운명이 개척되여나가는 과정은 그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온갖 사회적 및 자연적 요인들이 극복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마련되여나가는 로정이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자신에게 복무하도록 만들고 모든 사물현상을 사람에게 가치있는 대상으로 전환시켜야 세계에서의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마땅히 자신의 자주적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을 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사람의 자주적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방법론을 견지하여야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할수 있고 세계의 모든것을 자기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킬수 있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면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여야 한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것은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에 맞게 자신의 창조적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사물현상의 운동발전에 대한다는것을 말한다.

사람의 운명이 개척되여나가는 과정은 사람이 자기의 창조적활동으로 객관세계의 맹목적이며 자연발생적인 운동을 자신에게 종속시켜나가는 행정이다. 사람은 외부세계에 작용하는 객관적법칙을 활용하여 사물현상의 운동을 틀어쥐고 자연과 사회를 자신의 요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개조하여야 자기의 사회적처지와 생활형편을 개선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응당 자신의 창조적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여야 한다. 사람의 창조적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방법론에 의거하여야 인민대중은 자기자신을 더욱더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자신의 창조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변해나갈수 있다.

주체철학은 이렇듯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내세우고 사람을 위주로 하여 모든 철학적문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우리 당에 의하여 심화발전되고있는 주체철학은 인류의 진보적사상발전과 해방위업수행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문헌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철학은 자연과 사회는 사람이 지배하며 사람에 의하여 개조된다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철학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습니다.》

주체철학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마련하였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요구하였다. 우리 시대처럼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도 원칙적인 사회적의의를 가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력사발전과 시대의 전진운동을 좌우하는 원칙적인 문제로 나섰다. 우리 시대앞에 제기된 이 절박한 과제는 주체철학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주체철학이 사람의 운명에 대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관점을 확립하고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옳바른 방도를 명시함으로써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인 숙원과 절절한 념원이 비로소 혁명적세계관으로 전화되고 그것을 현실에 꽃피울수 있는 휘황한 앞길이 열려졌다. 여기에 주체철학이 인류의 진보적사상발전에 이바지한 불멸의 업적이 있다.

주체철학은 또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

혁명운동이 민족국가단위로 다양하고 폭넓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는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의 힘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밝힐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요구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밝힌 주체철학에 의하여 훌륭히 실현되였다.

주체철학은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지혜를 좀먹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멍에로부터 인민대중의 사상해방을 이룩하고 매개 나라 인민들이 혁명의 주인이 되여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해나갈수 있게 한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됨으로써 각이한 력사적조건과 발전단계에 있는 인민들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여기에 주체철학이 인류의 해방위업에 이바지한 력사적공적이 있다.

주체철학의 진리성과 정당성, 그 불패의 생활력은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혁명의 실천에 의하여 힘있게 과시되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감으로써 자주, 독립,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왔으며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 존엄있고 긍지높은 민족으로 되였으며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세기적변혁과 력사적승리는 그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져다준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아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아가야 할것이다.

인간에 대한 과학적해명은 주체철학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

김 형 일

주체철학은 사람위주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주체철학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과 세계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을 새롭게 밝혔다.

주체철학의 위대성과 독창성은 인간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문헌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철학의 근본특징을 밝히시면서 특히 사람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해명을 주시였다. 문헌에서 사람의 본질적특성이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주체철학을 리해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풀수있는 근본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인간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는것은 사람의 운명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정확히 밝혀야 사람의 운명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가지고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인류사상사에 존재한 철학들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하게 론의하였으며 많은 철학자들이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지난 기간에는 인간에 대한 완성된 철학적해명이 주어지지 못하였다.

맑스주의는 인간문제에 대한 유물변증법적리해를 확립함으로써 인간문제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맑스주의는 사람의 본질을 사회관계의 총체로 규정하고 인간의 활동에서 물질적생산과 사회경제관계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였다.

주체철학은 사람을 사회관계속에서 보면서 인간의 본질적특성을 새롭게 밝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문헌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철학은 처음으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이룬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주었으며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옳바른 철학적해명을 주었습니다.》

주체철학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해명을 주고 인류사상발전에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였다.

력사적으로 사람에 대한 론의에서 제기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람의 본성에 관한 문제였다.

모든 물질적존재는 고유한 성질, 속성을 가진다. 사물의 고유한 속성은 다른 사물들과의 차이를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이다.

사람의 고유한 속성, 본질적속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야 다른 물질적존재들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사람의 특성

을 명확히 하고 사람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확립할수 있다.

지난날에는 사람이 리성을 가지고있다든가,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로동도구를 만든다든가 그밖의 여러가지 면에서 동물과 구별된다는것이 론의되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의 특성의 어느 한 측면은 밝혀주지만 사람의 본질을 규제하는 속성을 밝혀주지는 못한다.

사람에게 고유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속성, 다시말하여 사람의 고유한 활동의 원천을 이루는 근본속성이 밝혀져야 사람의 본질적속성이 해명되게 된다.

사람의 본성을 해명하는 력사적과제는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해결되게 되였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다른 모든 물질적존재들과 구별되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이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주성은 생명물질일반의 살려는 성질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자주성은 외부세계에 순응하여 살려는 성질인것이 아니라 외부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주인으로 살려는 속성이며 단순히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성질인것이 아니라 세계의 주인으로서 발전하려는 속성이다.

자주성은 사람에게 고유한 자주적인 활동의 근본원인으로 되는 속성이다. 자주성에 의하여 사람의 고유한 활동의 목적이 규정된다. 사람의 고유한 온갖 활동은 자주적인 요구에 의하여 일어나고 자주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된다.

사람은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존재임으로 하여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주적인 활동을 벌리며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갈수 있게 된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사람이 창조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개조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주성이 사람의 고유한 활동의 목적, 방향을 규정하는 속성이라면 창조성은 사람의 고유한 활동을 떠밀어주는 능력을 특징짓는 속성이다.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는 세계를 개조하는 활동을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으며 사람의 창조적활동은 그것을 떠밀어주는 창조적능력에 의해서만 진행될수 있다.

다른 생명물질의 운동, 생명활동도 운동능력, 생활능력에 의해서만 진행될수 있지만 사람의 고유한 창조적능력은 생명물질일반이 가지고있는 운동능력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사람의 고유한 창조적능력은 자연에 주어져있는것을 그대로 리용하는 활동능력인것이 아니라 세계를 개조하여 새것을 만들어낼수 있는 활동능력이며 자연발생적으로 작용하는 운동능력인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운동능력이다.

사람은 창조성,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낡은것을 변혁하고 새것을 만드는 창조적활동을 벌리면서 세계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고 리로운것으로 개변시켜나가며 자신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발전시켜나간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통일적으로 발현되는 사람의 본질적속성이다. 자주성을 떠난 창조성이나 창조성을 떠난 자주성이란 있을수 없다. 자주성이 발휘되여야 창조성이 작용할수 있으며 창조성이 작용하여야 자주성이 실현될수 있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의식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원래 의식성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가장 고급한 속성이다. 의식은 사람의 생명활동을 보장하는데서 중추의 역할을 하는 뇌수의 고급한 기능이며 사람의 고유한 활동,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은 의식의 지휘밑에 진행된다.

사람은 의식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자주성을 가진 자주적존재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고 자주적인 요구를 행동목적으로 제기할수 있으며 창조적활동을 벌리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연과 사회에 관한 과학지식도 가질수 있다.

의식성을 떠나서는 사람이 자주성을 발휘할수도 없고 창조적능력을 가질수도 없으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존재로서 살며 활동할수 없다.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은 의식적으로만 진행될수 있다. 그러므로 자주성, 창조성과 함께 의식성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이루게 된다.

주체철학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람의 본질적속성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인 사람의 본질적속성문제에 완벽한 과학적해명을 주었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의 발견, 이것은 주체철학이 인류사상발전에 이바지한 참말로 위대한 업적이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속성이라는것을 명확히 밝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람의 사회적속성입니다. 세계에서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으로만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며 자기의 목적을 실현해나갑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오직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만 고유한 것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0페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해명하는데서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그것이 자연적속성인가 아니면 사회적속성인가 하는것이 첨예하게 제기된다.

지난날 유물론철학은 사람을 초자연적, 정신적 《힘》에 의하여 지배되는 존재로 본 종교와 관념론의 그릇된 견해를 반대하면서 사람을 물질적존재로 보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자연적, 생물학적 존재로 보는데 머물렀으며 사람의 본성에 관한 문제도 자연적속성에 관한 문제로 다루었다. 그러다나니 다른 물질적존재와 구별되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옳바로 밝힐수 없었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타고난 자연적속성인것이 아니라 사회력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속성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다는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자연적속성으로 보게 되면 사람을 단순한 자연적, 생물학적 존재로 보는데로 떨어지게 된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결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것이나 자연에 의하여 주어진것이 아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자연적, 생물학적 속성을 부여한다면 사회는 인간에게 사회적속성을 부여한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자연이 아니라 사회가 인간에게 부여하는 속성이며 자연계로부터 물려받은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발전되는 속성이다.

동물도 생활과정에서 속성, 생활력을 획득할수 있다. 그러나 동물의 속성, 생활력은 생물학적개체에만 체현되여 있을수 있고 생물학적유전을 통해서만

후대에게 물려질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람은 자기의 속성, 생활력을 개체에만 체현하는것이 아니라 사회화하여 대를 이어 후대들에게 물려준다. 그리하여 사람의 속성, 생활력은 개체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적인것으로 되여 사회적으로 리용될수 있으며 사회력사적으로 축적되고 발전할수 있게 된다.

사람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활동과정에서 얻은 경험이나 지식을 서로 교환하며 사회공동의 재부로 축적하고 대를 이어 물려준다. 또한 자연과의 투쟁에서 획득한 물질적수단들도 사회공동의 재부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축적하고 물려준다.

물론 개별적인 사람은 사회생활과정에서 창조된 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를 다 자기의것으로 가지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의 사회적집단, 사회에 의해서는 다 리용될수 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과학지식, 물질기술적수단들의 발전정도에서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정도가 표현된다. 그런것만큼 사람의 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가 사회적으로 창조되며 력사적으로 축적되고 발전한다는것은 곧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회적속성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사람은 목적의식적으로 맺어지는 사회적관계에 기초하여 사회적집단에 결합되여사는 사회적존재이다.

사람들의 사회적집단, 사회는 개별적인 사람들의 기계적인 모임인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유기적인 전일체이다. 사회적집단을 이루는 개별적인 성원들은 끊임없이 도태되여도 사람의 사회적집단자체는 력사적으로 계속 보존되고 발전한다.

사람은 사회적관계를 통하여 사회적집단에 결합된다. 사회적관계는 사람의 사회적결합방식이다.

사람의 결합방식, 사회관계는 동물의 결합방식, 관계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동물의 결합방식은 타고난 본능적인 생물학적속성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는 달리 사람의 사회적결합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작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사회적관계는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호상작용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결합방식이다.

사회적관계는 사람의 생활과정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목적의식적인 창조적활동에 의해 이룩되는 귀중한 전취물이다.

사람은 자연적, 생물학적 결합방식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적관계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결합되여사는 존재인것으로 하여 사람의 속성은 사회적속성으로 된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속성은 그 우월한 생물학적, 자연적 바탕을 떠나서는 있을수 없다.

사람에게 발전된 유기체가 있으므로 사람은 다른 생명물질이 가질수 없는 특유한 기능인 사유기능과 로동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니고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할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결합될수 있다.

사람의 발전된 뇌수는 동물의 심리와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사람의 사회적의식이 이루어질수 있는 생물학적바탕으로 되며 뇌수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게 발전된 사람의 육체는 자연을 개조하는 창조적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리적바탕으로 된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우월성으로 하여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사회적존재로 되는것이 아니다.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관계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결합되여살지 못한다면 사회적속성을 지닐수 없다.

사람만이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사회적존재이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자연적존재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람의 속성은 자연적, 생물학적 속성인것이 아니라 사회적속성인것이다.

주체철학이 인간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준것은 세계관발전과 인류사상발전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의 본질적속성이 가장 정확히 밝혀짐으로써 선행한 모든 철학적세계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중심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 확립되게 되였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임으로 하여 세계에서 지배적지위,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세계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게 된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곧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주인이며 세계의 유일한 개조자이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을 단순히 세계의 한부분으로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내세움으로써 종래와는 달리 세계의 주인이며 개조자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대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확립하였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중심의 세계관이 밝혀진것은 세계관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으로 된다.

주체철학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밝히고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을 천명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 이르게 하였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어떻게 보며 그들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데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높이가 규정되게 된다.

지나온 인류력사에는 수많은 철학사상들이 있었지만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옳게 밝히지 못한데로부터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세계관적높이에서 옳게 평가하지 못하였다.

주체철학은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특출한 존재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수준에 올려세운 위대한 력사적공적을 이룩하였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의 본질적속성에 대한 완성된 철학적리해가 전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수준에서 평가됨으로써 인간의 사회적성격을 부정하고 사람을 본능에 의하여 지배되는 존재로 보며 세계와 동떨어진 고립되고 무능력한 존재로 보는 온갖 그릇된 주장의 부당성과 비과학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였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과학적리해와 혁명적변혁을 부정하고 비애와 염세, 극단한 개인리기주의를 설교하는 부르조아인간철학의 반동성이 여지없이 폭로되게 되였다.

참으로 주체철학에 의한 인간에 대한 과학적해명은 인류의 사상발전과 해방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업적으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인민생활향상과 경공업발전

김 복 신

오늘 우리 당은 경공업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령도하고있다.

경공업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나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정당한 방침이다.

경공업은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소비품을 생산하는 부문으로서 그것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공업을 발전시키는 목적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 당은 시종일관 인민생활을 높이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주체적립장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시키왔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경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고 소비품생산이 끊임없이 늘어나게 되였으며 경공업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구체적현실은 경공업발전에서 이미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소비품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오늘 끊임없이 향상되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소비품에 대한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으며 그것은 지난날과는 비할바없는 높이에 이르고있다. 더우기 우리 당은 가까운 앞날에 인민들의 생활을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원대한 목표를 제기하고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새로운 생산능력을 마련하는 한편 지금 있는 생산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공업제품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경공업부문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인민소비품생산을 짧은 기간에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려면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신년사》, 1984년, 단행본, 8폐지)

우리 당이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는 15억메터의 천고지를 앞당겨점령하며 여러가지 질좋은 양복천, 외투천, 샤쯔천 생산을 늘이고 편직물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입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신발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신발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각종 일용품의 량과 가지수를 지금보다 훨씬 늘이고 갖가지 가구와 가정용 세탁기와 랭동고, 텔레비존수상기를 비롯한 가정용품과 문화용품 생산을 더욱 빨리 늘이는것이다.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은 먹는기름문제를 우리 나라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완전히 해결하며 주식물과 부식물 가공품생산을 늘이고 여러가지 청량음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고있다. 이밖에 지방의 실정에 맞게 고장재생산

을 대대적으로 늘이며 주름지합을 비롯한 종이포장재와 플리에틸렌수지포장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 제품포장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것을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언제나 적극적인 투쟁목표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온 우리 당은 오늘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과업을 명시하여 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었다.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무엇보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이다.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나가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나서는 중요한 투쟁과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면 물질적부의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는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물질적생활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자주적인 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모든 근로자들이 풍족한 물질생활을 누리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언제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소비품생산을 늘여 근로자들의 끊임없이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이 경공업에서의 혁명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목표들이 수행되면 인구 한사람당 천생산량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로 될것이며 인민들의 옷차림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또한 우리 인민들은 현대적인 가구들과 부엌세간들 그리고 여러가지 질좋고 값싼 일용품들을 리용하게 될것이며 다양하고 영양가 높은 주식물과 부식물, 여러가지 청량음료를 공급받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경공업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자주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하기 위하여 힘을 넣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를 건설한 보람은 인민들의 유족한 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생활이 유족하고 문명해질수록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느끼게 된다.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주면 그들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자기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며 그것을 고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일하게 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들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쳐물리칠수 있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보람찬 생활을 안겨준 우리 당과 인

민정권을 옹호하고 고수하려는 불같은 한마음으로 억세게 싸운데 있다.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는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할수록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게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더 큰 성과가 이룩되게 된다.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우리 인민들이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되면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군사파쑈통치를 짓부시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을 주게 될것이며 그들을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파탄시키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게 될것이다. 경공업의 획기적인 발전은 또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이 실현된 다음 령락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기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실로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침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당의 부름이라면 물과 불 속에라도 뛰여들어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충직한 인민이 있다. 또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경공업을 건설한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다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되였으며 자체의 공고한 원료기지를 가진 튼튼한 경공업기지가 마련되여있다.

이와 함께 기계공업과 화학공업을 비롯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중공업과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 경공업을 더욱 현대화하고 생산을 늘이는데 필요한 기계설비들과 원료들을 원만히 생산해내고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9권, 236페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품성이며 오늘 경공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닌 사람만이 당정책을 가장 뜨거운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언제나 높은 혁명적열정과 지칠줄 모르는 사업의욕을 가지고 무비의 완강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공업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립장과 관점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특히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낸 락원의 10명 당원들과 오늘 사회주의건설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지니고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본받아 경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당이 의도하고 관심을 돌리고있는 중요한 문제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경공업발전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데서 자기의 창조적지혜와 정열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듦으로써 모든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이다.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이미 마련된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소비품의 생산을 빨리 늘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이며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데서 현시기 우리 당이 제기하고있는 중요한 요구이다.

경공업의 모든 부문들에서는 설비를 잘 정비하고 관리하여 고장으로 인하여 가동하지 못하는 기대들이 없도록 하며 그 기술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여 모든 설비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계획과 원료, 자재 보장계획을 세부적으로 맞물리고 원료와 자재를 생산에 앞서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하며 기동적인 생산지휘를 보장하여 생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경공업공장들에서 소비품생산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지표별로 수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고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모든 기계설비들을 만가동시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소비품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방침이다.

지방공업은 주로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적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있다. 지난 기간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오늘 우리 나라 매개 군마다에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이 건설되여있으며 그 생산비중은 나라의 소비품생산량에서 많은 몫을 차지하고있다.

우리는 전후 모든것이 부족하였던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의 방침을 받들고 지방의 원천을 적극 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1,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을 일떠세운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지방공업발전에서 다시한번 일대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지방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공장들을 정비보강하고 생산공정들을 더욱 합리화하며 기술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지방공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특히 지방공업부문의 일군들은 자기 지방의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자체의 원료기지를 더욱 확대하며 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지방자체로 해결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이다.

오늘 과학과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현대적기술수단들이 노는 역할은 급격히 높아지고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현대화하여야 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일수 있으며 원가를 낮추고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

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기술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기계설비들을 더욱 쓰기좋고 성능이 높은것으로 끊임없이 갱신하고 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새로운 기술수단들과 앞선 생산공정, 생산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걸리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것은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주인된 립장에서 이 부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기계공업, 화학공업, 채취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생산을 늘이는데 필요한 기계설비들과 원료,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 소비품생산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이 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당의 의도에 맞게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고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고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다.

경공업부문의 당조직들은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경공업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의 본질과 의의, 수행방도를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이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온갖 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고 그들을 적극 내세워주어 그들이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은 일군들로 하여금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언제나 들끓는 현장에 들어가 현실을 깊이 파악하고 생산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당의 방침 관철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공업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할것이다.

주체농법은 농업생산의 끊임없는 앙양을 담보하는 과학농법

김 상 명

지금 온 나라의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에 농촌경리부문앞에 제시하신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 이것은 위대한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20돐이 되는 올해를 농업에서의 대풍으로 뜻깊게 장식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한두해안으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농업부문앞에 나서고있는 이 영예로운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영농원칙과 영농방법을 옳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진행하는것이다.

농업생산과정은 그 직접적담당자인 사람들이 농작물의 생활환경과 생물학적본성을 지배하기 위한 투쟁과정이다. 농업에서는 공업에서와는 달리 생산과정이 생물체인 농작물의 자체증식과정으로 되여있다. 농작물은 자체의 고유한 생물학적법칙에 따라 자라나며 그 과정에 토지와 자연기후조건을 비롯한 생활환경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는다.

그러므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영농원칙과 영농방법을 과학적으로 규정하는 문제가 선차적으로 나선다. 과학적인 영농원칙과 영농방법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으며 나라의 기후풍토조건에 맞게 농사를 잘 지을수도 없다.

농업생산에서 이처럼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과학적인 영농원칙과 영농방법은 주체농법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졌다.

주체농법은 적지적작과 적기적작, 포기농사 같은 과학적인 영농원칙들과 종자개량, 토지관리, 시비체계, 물관리를 비롯한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이 영농원칙들과 영농방법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농작물의 생물학적본성과 생활환경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옳게 리용할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마련해주며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켜 농업생산을 계속 늘일수 있게 한다. 다시말하여 주체농법은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농사에서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주체농법의 혁명적본질이 있으며 그 정당성과 위력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주체농법은 농업생산에서의 끊임없는 앙양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집약적인 농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과학농법이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집약농법입니다. 주체

농법은 토지와 물, 농기계, 화학비료를 비롯한 농업의 생산수단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단위당수확고를 높일수 있게 하며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19페지)

주체농법이 휴경농법, 윤작농법을 비롯한 종래의 모든 농법들과 구별되는 근본특징의 하나는 그것이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게 하는 과학농법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집약농법이라는데 있다.

주체농법이 농업생산의 끊임없는 앙양을 확고히 담보하는 과학농법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기후풍토조건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요인의 하나는 토지와 기상기후 같은 기후풍토조건이다. 농업에서 토지는 생산이 진행되는 장소로 될뿐아니라 농작물이 자라는데 절실히 필요한 수분과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된다. 토지와 함께 기상기후조건도 농작물의 중요한 생활환경을 이룬다.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풍토조건은 지대마다 다르고 뜰짜기마다 다르며 한뜰짜기안에서도 필지마다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토지와 기상기후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다.

주체농법은 바로 기후풍토조건에 맞게 모든 지대들에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는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농법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은 모든 지대들에서 포전을 단위로 하여 작물과 품종을 옳게 배치하고 농사일들을 제철에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기후풍토조건을 잘 리용하여 농업생산을 계속 늘일수 있게 확고히 담보한다. 이와 함께 과학적인 토지관리, 물관리, 시비체계 같은 영농방법들은 모든 지대들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원칙뿐아니라 개별적지대, 개별적포전의 구체적인 토양조건과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농사를 짓기 위한 정확한 방도들을 명백히 제시해주고있다.

이것은 주체농법이야말로 구체적인 기후풍토조건에 맞게 농사를 지어 단위당수확고를 높이고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농법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주체농법이 농업생산의 끊임없는 앙양을 확고히 담보하는 과학농법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농업생산에서의 성과는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가 짓지 못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농작물들은 매 생육단계마다 온도, 빛, 영양물질, 물기 등에 대한 요구가 서로 다르다. 이러한 요구들을 제때에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농작물들은 자기의 생산능력을 최대로 발휘한다.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주체농법은 농작물의 생물학적본성과 그 생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한 생물학의 최신연구성과들과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주체농법은 농작물이 높은 수확을 낼수 있도록 생산기술공정을 과학화하고있다. 그리하여 매 생육단계별로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들을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기술준비를 앞세우고 생산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추진함으로써 단위면적에서 가장 높은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한다.

주체농법은 생산기술공정뿐아니라 재배방법도 과학화하고있다. 이것은 곧 육종과 채종, 작물과 품종 배치로부터

시작하여 김잡이와 가을갈이에 이르는 농작물재배의 전과정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진행해나갈수 있게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이처럼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게 하는 바로 여기에 주체농법이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농법으로 되는 또하나의 근거가 있는것이다.

주체농법이 농업생산의 끊임없는 앙양을 확고히 담보하는 우월한 농법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농업의 집약화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된다.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선진적인 영농방법은 농업생산의 집약화이다.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면 경지면적의 자연적제한성을 극복할뿐아니라 적은 토지를 가지고도 단위당수확고를 높여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다.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문제는 위대한 주체농법에 의하여 완전히 해결되였다. 주체농법은 그자체가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집약농법인것이다.

주체농법은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인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고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집약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농법은 포전별로 토양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세밀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토지개량사업을 짜고들며 자연 그자체로써는 줄수 없는 여러가지 비료를 구색에 맞게 치도록 함으로써 메마른 땅도 기름진 땅으로 만들수 있게 한다. 또한 포기농사원칙을 관철하여 토지리용률을 더욱 높이고 그 생산성을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한다.

주체농법은 이와 함께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보장함으로써 단위면적당수확고를 높이고 전반적인 농업생산을 계속 늘일수 있게 한다.

이렇듯 주체농법은 가장 과학적이며 집약적인 농법인것으로 하여 농업생산의 끊임없는 앙양을 확고히 담보하는 우월한 농법으로 되며 농업문제,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나가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무기로 된다.

주체농법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자랑찬 현실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장성하였다. 주체농법을 관철하여 1974년에 이미 700만톤이상의 알곡을 생산해내고 1979년에 900만톤의 알곡생산목표를 돌파한 우리 인민은 오늘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주체농법을 관철한 결과 우리 나라의 정보당 알곡수확고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세계적으로 논벼 정보당수확고는 제일 높다. 또한 남새와 과일, 공예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다른 모든 부문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 농업발전에서의 성과들은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혹심한 이상기후현상을 극복하면서 달성된것으로 하여 더욱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1970년대부터 미치기 시작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농사를 망치고 엄중한 농업위기, 식량위기를 겪고있다.

한랭전선의 영향은 우리 나라에도 혹심하게 미치여 력사에 드문 왕가물과 랭해를 비롯한 이상기후현상이 련이어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온갖 불리한 이상기후현상들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벌방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할것없이 모든곳에서 해마다 풍년작황을 마련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주체농법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며 주체농법대로만 농사

를 지으면 그 어떤 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면서 농업생산을 계속 늘여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된 위대한 주체농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올해에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해야 하며 가까운 앞날에 알곡 1,500만톤고지를 점령하는데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산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고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의 시비량을 더 늘이며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며 고기와 알, 과일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넉넉히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84년, 단행본, 9페지)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올해에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무엇보다도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주체농법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는데 있다.

농업생산을 책임지고있는 직접적담당자는 다름아닌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다. 그러므로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농법에 대한 립장과 관점을 바로 가지고 오직 그대로만 일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올해에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수 있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당이 내세운 높은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열쇠가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어떤 조건에서도 주체농법이 밝혀준 기술규정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그대로 집행해나가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한가지 농사일을 하여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알뜰하고 깐지게 해나가야 하며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농산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영농공정들을 제철에 질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올해에 또다시 만풍년을 이룩해야 한다.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농업정책, 위대한 주체농법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주체농법은 그자체가 과학농법, 집약농법인것만큼 농사를 지도하는 사람이나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다같이 현대농업과학기술지식으로 더욱 확고히 무장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주체농법을 깊이 체득하지 못하고서는 농업생산을 지도함에 있어서 발언권을 가질수 없으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도 없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낡은 경험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체농법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여 농업과학기술을 튼튼히 소유해야 하며 특히 지도일군들이 여기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주체농법학습에서는 지난 시기 농업생산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당면한 영농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할수 있으며 주체농법을 어기는 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다.

주체농법을 관철하여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또한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드는데 있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전례없이 강화되고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모든 영농공정이 빈틈없이 맞물려져있는 오늘 농업생산에서의 성과는 조직지도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농업생산의 운전대를 틀어쥔 농촌경리부문의 지도일군들은 맡은바 혁명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영농공정별로 계획화사업을 더욱 세밀하게 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대책들을 제때에 세워야 한다. 일군들은 한가지 일을 조직하여도 반드시 집행되여 은을 낼수 있도록 실속있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총화사업과 재포치사업을 심화시켜 농업생산의 모든 공정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분석한데 기초하여 조직지도사업을 심화시켜야 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의 앞장에 서서 주체농법관철에로 그들을 힘있게 이끌고나가야 한다.

주체농법을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또한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는데 있다.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리용하여 농사를 짓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농업생산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농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이고 농촌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주체농법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농업생산도 계속 늘일수 있다.

국가경제기관일군들은 농촌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하며 당면한 영농사업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뜨락또르와 이동식탈곡기, 모뜨는기계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생산을 더욱 늘여야 하며 화학공업부문과 광업부문에서는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을 구색에 맞게 생산보장해야 한다. 또한 운수부문에서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설비자재들을 제때에 실어다주어 당면한 영농사업에 지장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농촌을 실속있게 도와주는 길이며 제2차7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일군들의 혁명적일본새이다.

주체농법을 관철하여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는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1,000만톤의 알곡고지 점령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경제지도일군들이 취한 행정실무적인 대책들이 제대로 은을 내게 할수 있다.

농촌경리부문의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그들로 하여금 주체농법이 밝혀준 기술규정은 어길수 없는 철칙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깐지게 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예술영화 《불타는 마음》에 대한 실효투쟁을 당면한 영농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결같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농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력을 높이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며 주체농법을 어기는 사소한 현상도 철저히 극복하도록 당적지도를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오늘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고있는 투쟁과업은 방대하지만 그 전망은 휘황찬란하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주체농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농업생산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비약을 이룩해야 할것이다.

로동의 차이를 없애는것은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

리 기 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념원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다. 그리하여 지난날 가혹한 착취와 억압, 사회적불평등을 강요당하던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근로자들을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유물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종국적으로 해방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그들이 완전한 평등을 누리게 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이 력사의 일정에 오른 오늘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로동의 차이를 없애는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면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이룩되지만 사회주의사회에는 아직도 정신로동과 육체로동, 중로동과 경로동, 공업로동과 농업로동 사이에 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 이러한 로동의 차이가 남아있게 되는것은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생산력과 기술 발전수준에서의 차이와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기계기술의 적용이 자본가들의 리윤획득에 유리한 범위에만 국한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빨리 발전한다. 그러나 낡은 착취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경제부문들사이, 생산공정들사이의 생산력과 기술 발전수준에서의 차이를 한꺼번에 없앨수는 없다. 이로부터 인민경제부문들과 일부 생산공정들사이에 로동강도와 로동의 안전성, 문화위생성에서의 차이가 비교적 오랜 기간 남아있게 된다. 이것이 중로동과 경로동,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비롯한 로동에서의 차이의 기본내용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로동의 차이는 로동조건과 함께 근로자들사이의 문화기술수준의 차이와도 관련되여있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도 사회성원들의 문화기술수준이 같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은 사회적생산을 진행하는데서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에서의 이러한 차이로 하여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 숙련로동과 미숙련로동의 차이가 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게 되는 이 모든 로동의 차이는 낡은 착취사회의 유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지배계급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이 가져온 력사적산물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평등을 누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로동생활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의 차이를 없애는것은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조건에서의 본질적인 차이를 없애고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은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만드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제6권, 276페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것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로동의 차이를 없애는것은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로동생활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문화적부는 로동에 의하여 창조되고 끊임없이 늘어난다. 로동생활을 떠나서 정치생활이나 물질문화생활을 원만히 진행할수 없게 된다. 로동생활은 정치생활을 보다 더 자주적인것으로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튼튼한 물질적담보를 마련해주며 물질문화생활에 대하여 규제적인 역할을 한다.

로동생활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혁명적실천활동과정이다. 로동생활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을 더욱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개조해나가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로동생활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므로 로동생활에서 평등을 실현하여야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근로자들사이의 평등을 보다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로동생활에서 평등을 실현한다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참가하며 로동의 종류와 특성에 관계없이 다같은 조건에서 일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물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로동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며 로동의 차이를 낳는 사회경제적요인이 없어지고 모든 근로자들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자기자신과 사회를 위한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게 된다. 이것은 로동생활에서의 거대한 변혁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정치생활에서 평등이 보장되고 로동생활에서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던 사회적구속이 청산되였다 하더라도 힘든 로동과 쉬운 로동이 있게 되면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을 보장할수 없다. 로동생활에서의 불평등을 낳는 사회경제적요인이 없어진 다음에도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구속하고 로동생활의 평등을 저애하는 기본요인은 낡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로동의 차이에 있다. 그러므로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동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여 자동화되고 원격조종화되는 기계들이 사람들의 로동을 대신할 정도로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게 될 때 로동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며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게 된다. 로동의 차이가 없어져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면 로동을 생활상 제1차적요구로 전환시킬데 대한 력사적위업을 더 빨리 수행할수 있다.

이렇듯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바로 여기에 로동의 차이를 없애는것이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로동의 차이를 없애는것은 또한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고르롭게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잘사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인 우월성이며 특성이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고르

롭게 향상시켜 생활수준에서의 평등을 실현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은 기본적으로 분배몫에 의존하게 된다. 착취와 빈궁의 근원이 없어진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일정한 차이가 있게 되는것은 그들에게 차례지는 분배몫이 서로 같지 않은것과 관련되여있다.

근로자들의 분배몫에서의 차이는 로동의 차이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생산물분배의 중요한 기준은 그들이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는데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로동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하여 근로자들이 지출하는 로동의 량과 질이 서로 같지 않게 된다. 이로부터 근로자들이 물질문화적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소모한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충분히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자면 로동의 차이에 상응하게 분배몫을 서로 다르게 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물질적으로 더 우대해주게 된다.

분배관계에서의 이러한 차이와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의 차이는 로동의 차이가 없어질 때에라야 완전히 없앨수 있다. 나라의 전반적인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로동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면 근로자들이 다같이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문화적부를 창조해내게 된다. 그때에 가서는 분배관계에서 차이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며 나아가서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의 차이도 없어지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의 차이를 없애는것이 분배관계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전제를 마련해줌으로써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고르롭게 향상시킬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로동의 차이를 없애는것은 또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데도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된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는것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사회의 물질생활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경제적처지와 물질생활조건들에 의하여 제약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로동의 차이를 없애는것은 바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물질적조건들을 튼튼히 갖출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빨리 벗어날수 있게 한다.

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생산공정들을 최신 과학과 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로동을 흥겹고 보람찬것으로 만들면 근로자들이 로동에 더욱 성실히 참가하게 되며 자기 맡은 초소를 지켜나가는 궁지를 가지게 된다. 또한 나라의 전반적인 생산력과 기술 발전수준이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서고 나아가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될 때 근로자들속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들이 더 빨리 없어지게 된다. 이처럼 로동의 차이를 없애는것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의 차이를 없애는것이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되며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인간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완성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에 토대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24페지)

로동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는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형성되고 지속되여온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심각한 사회경제적변혁인것만큼 정확한 투쟁방침과 방도가 세워지고 옳은 령도가 보장되여야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일찌기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청산하여 로동생활에서 대립관계를 완전히 없애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생산력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과업을 전면에 내세우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기술혁명수행에서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3대기술혁명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점차적인 방법으로 로동의 차이를 없애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제시하시여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까지 없애기 위한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지난날 현대문명으로부터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인민은 오늘 발전된 기계기술로 튼튼히 장비된 일터에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중로동과 고열로동, 유해로동이 있는 공업부문들에서 생산설비와 기술공정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여 채취공업과 금속공업, 화학공업과 세멘트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의 기술장비가 더욱 개선되였다. 특히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기간적인 중공업부문의 생산공정을 자동화, 원격조종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근로자들은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에서 벗어나게 되였으며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도 훨씬 줄어들게 되였다.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오래전에 수리화와 전기화가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오늘은 기계화, 화학화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러 부침땅 100정보당 뜨락또르가 이미 평지대에는 7대, 중간 및 산간 지대에는 6대씩 차례지고 화학비료시비량은 정보당 1.5톤을 훨씬 넘어섰다. 지난날 원시적인 농쟁기로 힘겹게 일하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은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일을 헐하고 능률적으로 하고있다.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생산이 자동화됨에 따라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까지 종국적으로 없앨수 있는 조건들도 훌륭히 마련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는 물론 크고 자랑

조선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리 도 준

지난 1월에 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련합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로서 우리와 미국사이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가 내놓은 이 새로운 제안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념원하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인민의 요구와 세계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144페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며 원칙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온 겨레와 세계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우리의 3자회담제안은 현시점에서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조선의 평화통일의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로 된다.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무엇보다도 지금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긴장상태와 전쟁의 화근을 뿌리뽑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전환적인 대책이다.

3자회담은 조선문제해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게 함으로써 조선문제해결의 평화적국면을 열어놓게 한다.

오늘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관건적고리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 긴장격화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있다.

3자회담을 진행하여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하게 되면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근원이 없어질것이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기본담보가 마련되게 될것이다.

3자회담에서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과 함께 북과 남사이에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군대와 군비를 대폭 축소할것을 예견하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면 우리 나라의 평화는 공고한것으로 되고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한 이후의 평화와 안전보장문제가 담보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될것이다.

조선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와 직결되여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공고히 하는것은 곧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것이다. 그런것만큼 조선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3자회담제안은 아세아와 세계인민들의 념원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제안이 실현되

면 그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 공고화하는데도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3자회담제안이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에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또한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국면을 열어놓게 하는 합리적인 조치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이다. 따라서 그것은 민족주체적힘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그 어떤 외세의 개입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는것이다.

3자회담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가시고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를 협의해결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를 제거하고 통일을 위한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게 된다. 3자회담을 통하여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이 채택되여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전제가 조성되면 북과 남은 통일대화를 열고 력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갈수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온 겨레에게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밝은 전망을 안겨주는 획기적인 구국대책으로 된다.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또한 미국이나 남조선당국의 요구와 의사도 충분히 고려하고있는 공명정대한 제안이다.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3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여있다. 3자회담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조미회담을 제기한 이후에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자신이 이미 공식적으로 표명하였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비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제기해온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도 지난 시기 미국이 3자회담을 제기하였을 때에 그것을 찬성하였던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있는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협상방안이다.

참으로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의 위험을 영영 제거하기 위한 평화제의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할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대책으로 된다.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에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그 정당성과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광범한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정계와 사회계, 국제기구와 단체들은 군중집회와 성명, 기자회견과 담화발표, 련대성편지 등 각종 형식과 방법으로 우리의 3자회담제의를 적극 지지하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3자회담에 응해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3자회담을 열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이 발표되자 중국의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인민들은 그것을 선참으로 지지찬동하였으며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베이징방송을 비롯한 여러 신문과 방송들은 우리의 새로운 제안을 지지하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취급하였다.

3자회담을 열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쏘련 당과 정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쏘련의 따쓰통신과 그리고 여러 신문과 방송들은 우리의 새로운 제안을 지지하는 보도와 론평들을 크게 실었다.

다른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 그밖의 수많은 나라들에서도 우리의 새로운 제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과 10일 프랑스의 빠리에서는 36개 나라와 10개 국제기구들에서 온 68개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기

한 3자회담제안을 지지하는 국제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우리의 3자회담 제안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였으며 세계 각국 정부와 국회, 정당 및 사회단체, 국제기구들과 전세계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그리고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와 미국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만장일치로 각각 채택하였다.

우리의 3자회담제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하는것을 일관한 원칙으로 내세우시고 변천되는 정세의 요구에 따라 매 시기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이번에 제기된 3자회담제안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온 겨레에게 번영하는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자회담제안을 내놓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신데 대하여 높이 칭송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대민족회의 의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제기한 새로운 발기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의 간부들도 이에 대하여 기뻐하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아프리카나라의 한 외교관은 우리의 3자회담제안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시기 위하여 바쳐오신 끝임없는 로고의 구체적인 반영이며 가장 정당하고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강조하고있는바와 같이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가장 정당한 방안인것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그처럼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는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제안이 실현될 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앞길에는 반드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조선에서의 평화를 담보하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평화제안으로 공인되고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의 로골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는 어느때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로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그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바로 조선반도에서의 이러한 긴장상태와 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조선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제기한 것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우리의 이러한 새 제안을 조선반도의 평화뿐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한 평화제안이며 시기적절하게 제기한 정당한 조치라고 하면서 적극 지지해나서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이 우리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팀 스피리트 84》 군사연습과 같은 모험적인 새 전쟁, 핵전쟁 연습에 광분하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면서 그들에게 3자회담제안을 즉시 받아들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웽그리아의 한 일군은 《조선정부의 새로운 평화회담제안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의 근원, 아세아에서 전쟁발원지를 제거하기 위한 주동적인 조치이며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조치》라고 하면서 우리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스리랑카의 한 외교관도 《이제 미

국이 평화회담에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조선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가 하는것이 명백해질것이다. 이 제안이야말로 조선의 통일을 위한 가장 공명정대한 평화발기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국제적인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세계평화를 유지공고화할것을 바라는 인류공동의 념원에 부합되는 평화제안인것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는것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세계정치에서 초미의 문제의 하나인 조선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을 지지하고있을뿐아니라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3자회담에 하루빨리 호응해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 채택한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하는 성명에서 모든 나라 국회와 정부들이 이에 적극 호응하여 3자회담제안을 지지해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말가슈를 비롯하여 가이아나, 프랑스, 단마르크 등 세계 각국의 조선친선협회와 런대성위원회들도 우리의 새로운 제안을 지지하면서 그에 하루빨리 호응해나설것을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있다. 지어 영국의 《비비씨》방송까지도 한때 미국이 남조선을 참가시켜 북조선과 회담하겠다고 주장해왔는데 정작 북조선이 3자회담을 하자고 하니까 왜 회피하는지 알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대하여 비난하였다.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이처럼 강력한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있는 반면에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을 일대 혼란과 수세에 몰아넣고있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미국은 아직 3자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립장을 내놓지 못하고 수세에 빠져 당황해하고있다.

우리의 새로운 제안이 나간 이후 미국은 처음에는 《4자회담》을 들고나오다가 다음에는 《남북간당사자대화》를 주장하였으며 최근에 와서는 우리의 3자회담제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는 고귀한 제안》이라고 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우리의 새로운 조치의 정당성과 세계의 공정한 여론에 압도되여 남조선당국자들도 진퇴량난의 처지에 빠져있으며 미제의 괴뢰로서의 가련한 신세를 더욱 더 드러내놓고있다.

전두환도당은 3자회담이 열리면 저들이 손님격으로 되지 않겠는가고 신경을 쓰면서 이른바 《남북당사자간의 대화》나 《주변관계국회의》 같은것을 들고나와 상전의 비위를 맞추며 비렬하게 처신하고있다.

일본의 한 출판물이 《북의 3자회담제의에 대하여 미국은 4자회담을 제기하고 일본은 6자회담을 들고나오는 등 일관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북의 평화공세목적이 그만큼 달성되고 미국과 남조선은 또다시 수세에 몰린듯한 인상을 세상에 주고있다.》고 론평한것은 바로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참으로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것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으며 그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다.

오늘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민족적과제이며 시대적요구이다. 이번에 내놓은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이 절박한 문제에 명백한 해답을 주고있다. 오늘에 와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돌파구가 열리는가 열리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 정당성이 확증된 3자회담의 실현여부에 달려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인민의 념원과 세계의 공정한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3자회담제의에 지체없이 호응해나서야 한다.

남남협조와 경제적자립

황 한 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의 요구를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남남협조를 실현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회의결정으로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남협조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은 세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와 민족, 인민들이 경제분야에서까지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완전한 독립과 해방을 이룩할수 있는 참된 길을 밝힌 혁명적인 방침이다. 이 방침은 어제날 천대받고 압박받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여온 세계의 자주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올바른 길을 밝혀준다.

남남협조는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기술적으로 서로 협조하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발전도상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남협조를 실현하는것이 필요합니다.》(《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단행본, 57페지)

남남협조는 제국주의, 신식민주의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다같이 자주, 자립의 길로 나가며 집단적인 힘에 의거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진정한 협조관계이다. 이 협조관계는 과잉상품의 판매시장이나 리윤원천을 획득하기 위한 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발전된 나라와 뒤떨어진 나라들사이의 예속적인 경제관계도 아니다. 그것은 블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 자주성과 평등, 유무상통과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를 실현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남남협조는 그 목적에 있어서도 지난날 제국주의자들과 가졌던 경제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발전도상나라들자체의 공동의 힘에 의하여 경제적자립을 이룩할것을 목적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경제관계이다. 다시말하여 남남협조는 제국주의의 새로운 지배와 예속의 가능성을 배격하고 완전한 경제적해방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투쟁에서의 단결과 협조이다. 이것은 남남협조가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그 어떤 수출무역규모나 봉사거래폭을 늘이기 위한 단순한 협조관계가 아니라 세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와 민족, 인민들의 경제적해방을 다그치고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에 의거하여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없으며 사회적진보를 이룩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적본성으로 하여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데 대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그들은 결코 발전도상나라들에 경제적해방을 선사하지 않는다. 1980년 8월 유엔경제특별총회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은 1차산품, 연료동력, 무역, 개발, 통화금융의 5개 분야에서의 《포괄교섭》을 내놓았으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나라들에 의하여 거부당하였다. 메히꼬의 깐꾼에서 있은 22개국 남북수뇌자회의에서도 불공평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그릇된 립장과 태도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새 국제경제질서의 확립과 관련하여 모색되고 전개되여온 전과정은 제국주의자들과의 그 어떤 《론의》나 《협상》으

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줄기차게 전개되여왔으나 불공정한 금융통화제도와 불합리한 경제관계 특히는 원료는 눅은 값으로 팔고 공업품은 비싼 값으로 사지 않으면 안되는 불평등한 무역관계와 예속적인 국제분업체계는 그대로 유지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적자립을 위한 투쟁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략탈,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의하여 커다란 난관을 겪고있으며 이미 정치적독립을 이룩한지 오랜 발전도상나라들가운데도 완전한 경제적해방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는 나라가 적지 않다.

최근 102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원료수출이 차지하는 몫이 85%이상 되는 나라가 76개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발전도상나라들이 식민지시기에 물려받은 기형적이며 편과적인 경제구조를 가시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발전도상나라들의 풍부한 자연부원과 고귀한 로동의 열매를 빼앗아가며 이 나라들의 경제적독립을 방해하고있다. 그들은 이른바 《원조》와 《협조》의 미명밑에 발전도상나라들에 기여들어 이 나라들의 경제를 예속시키고 저들의 침략과 략탈의 목적에 복종시키며 나아가서는 정치적독립까지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남남협조를 실현하여야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남남협조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확립의 중요한 일환이며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는 가장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책이다. 그것은 제국주의나라들과의 협상력과 대항력을 높여 평등하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요구를 관철할수 있게 하는 힘있는 방도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세계원료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남남협조를 실현하여 원료를 주지 않으면 제국주의자들은 큰 타격을 받으며 곤경에 빠지게 된다. 1981년현재 자본주의나라들의 동력의 석유의존률을 보면 미국이 41.1%, 일본이 63.4%, 서부독일이 45.4%, 영국이 38.1%, 프랑스가 52.8%, 이딸리아가 66.4%였다.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은 이러한 석유의 대부분을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수입하고있다.

제국주의나라들은 마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아니면 발전도상나라들이 살아나갈수 없는것처럼 떠벌이고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들이 발전도상나라들에 의존하지 않고는 자기 생존을 유지할수 없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원료구입뿐아니라 상품판매, 자본수출에서도 발전도상나라들에 크게 의존하고있다. 1982년의 지역별경상수지의 호상관계를 보면 카나다를 포함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7개국의 경상수지는 235억딸라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발전도상나라들은 720억딸라의 적자를 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발전도상나라들에 막대한 과잉상품과 과잉자본을 수출하여 저들의 경상수지를 보장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발전도상나라들이 남남협조를 실현하여 제국주의자들과 거래하지 않으면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맥을 추지 못하며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것은 발전도상나라들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사이에 존재하는 불공평한 경제질서를 바로잡는것만이 아니다. 세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 협조를 강화하여 자주성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형태의 국제경제관계를 수립해나가는 그자체도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일환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남남협조를 실현하면 그것은 곧 세계경제에 폭넓고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로 된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 형성되는 새로운 국제경제관계는 교류원칙과 조직형식, 거래방법과 특혜제도 등에서 자본주의 국제경제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여기에서는 진정한 협조와 평등, 호혜의 관계가 작용한다.

남남협조를 통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나가게 되면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현실적으로 무력한것으로 되게 되며 세계적판도에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식민주의적방법으로 발전도상나라들을 착취하고 략탈하여 저들의 생존을 유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시도는 파탄되게 될것이며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에 의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가 보다 성과적으로 건설되게 될것이다.

이처럼 남남협조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략탈을 막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다그침으로써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적자립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 내부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것과 함께 남남협조를 실현하여 경제기술적교류를 강화하여야 한다.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인 자립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나라들사이의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매개 나라는 자원의 분포와 기술개발, 생산경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나라들사이에 유무상통하여야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에 의거하고 남북협조에 의해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적자립과 해방을 이룩할수 없지만 지난날 같은 처지에 있었으며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려는 공통된 지향을 가진 나라들인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비상히 다그치게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는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많으며 발전도상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친다면 남남협조를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다.

남남협조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되여있는 자금과 기술, 원료와 자재들을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수 있는 현실적방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세계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 건설을 해온지 이제는 대체로 몇십년씩 되였기때문에 나라마다 한두가지이상의 좋은 기술과 경험은 다 가지고있고 경제적기초도 일정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토대에 의거하여 경제적협조를 강화하고 서로 좋은 경험과 기술을 교류한다면 발전된 나라들의 도움이 없이도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 나갈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58페지)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체의 힘으로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으며 이 잠재력은 남남협조에 의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리용될수 있다.

남남협조는 무엇보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국주의나라들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내부자금으로 축적을 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난관의 하나는 자금부족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할수 없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의 결과 발전도상나라들의 공업생산이나 농업생산이 축적을 할수 있는 잉여생산물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있다.

자금의 부족,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건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며 더우기 발전도상나라들에 필요한 자금은 일반적인 자금이 아니라 현대적기계설비와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구입할수 있는 외화형태의 자금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것을 리용하여 《원조》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단으로 이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도상나라들의 이러한 자금문제도 개별적으로 풀려면 어려운 일로 되여있으나 서로 협조를 강화하여 있는 자금들을 융통한다면 능히 해결할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그 내부에 막대한 자금예비가 있다. 실례로 발전도상나라들이 석유판매에서 얻은 딸라만 하여도 1983년현재 그 잔고는 약 3,600억딸라에 달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이 자금만 효과적으로 리용하여도 경제를 더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석유판매수입금이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에 리용되지 못하고 제국주의나라들에 흘러들어가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석유딸라》를 노리고 석유생산국들에 대한 무기판매를 확대하며 또한 저들의 은행지점들을 설치하여 딸라를 긁어들이고있다. 석유판매수입금은 제국주의나라들의 정부증권의 구입, 대은행들의 예금, 대기업들의 주식투자, 부동산증권 등의 형태로 광범히 서방나라들에 흘러들어감으로써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건설자금으로 리용되지 못하고있다. 1979년에 《석유딸라》라고 하는 석유판매수입금이 리용된것을 보면 2,360억딸라였는데 그가운데서 구라파화폐시장과 미국, 기타 자본주의나라들에 흘러들어간것이 1,981억딸라(83.9%)였고 발전도상나라들내부에서 리용된것은 불과 379억딸라(16.1%)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투자리윤이나 리자, 부등가교환에 의하여 해외에로 나가는 자금을 내놓고도 이 막대한 석유판매수입금만이라도 서로 융통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경제건설을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는것이다.

남남협조는 또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나서고있는 어려운 기술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도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의 기술적락후성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가 빚어낸 가장 심각한 후과의 하나이며 이것으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은 아직도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략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이 서방제국주의나라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로 기술문제를 능히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이미 독립한지 오래고 경제건설을 해본 력사도 수십년이 되기때문에 서로 교류할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있다. 이 나라들가운데는 석유 채취와 가공 기술을 가진 나라도 있고 물고기가공기술을 가진 나라도 있으며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기계화의 경험과 기술을 가진 나라도 있다. 그리고 크고작은 발전소와 공장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경험과 기술을 가진 나라도 있으며 집짐승기르기경험을 가진 나라도 있다. 이러한 경험과 기술은 식민지통치에서 물려받은 기형적이며 편파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새 사회 건설과정에서 직접 얻어낸것들이기때문에 발전도상나라들의 실정에 맞으며 특히 공업화가 아직 크게 진척되지 못한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은을 낼수 있는것들이다. 100여개에 달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이 한가지의 기술만 내놓아도 100가지이상이 되고 10가지 기술을 내놓으면 1,000가지이상이 된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자기의 힘으로 경제를 새로운 기술적토대우에 일떠세울수 있는 귀중한 밑천이다.

남남협조는 또한 발전도상나라들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유무상통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오랜 기간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나라의 경제구조에서 광물원료와 농산물원료의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한두종의 수출자원을 개발하는데 치중하였기때문에 독립후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원료, 자재의 부족을 심하게 느끼고있다. 어떤 나라에는 석유는 많으나 철광석이 부족하며 반대로 철광석이 많은 나라에서는 석유가 없어 경제건설에서 곤난을 느끼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원료생산구조는 기형화되여있으며 적지 않는 나라들에서 외화수입의 80%이상을 원료수출에서 얻고있으나 대부분 나라들의 수출품은 한두종으로 제한되여있다. 례하면 중근동나라들은 석유수출에서 수입의 95~99%를 얻고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동수출에서 수입의 약 90%를, 다른 나라는 철광석수출에서 외화의 4분의 3을 벌고있다.

원료생산의 이러한 기형성과 편파성으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은 자기가 생산한 원료를 제국주의자들에게 헐값으로 빼앗기고있는 반면에 부족한 원료, 자재는 그들로부터 비싼 값으로 수입하고있다.

그러나 발전도상나라들에는 원료자원이 풍부하다. 현대공업의 《전략원료》로 알려져있는 석유, 철광석, 동, 망간, 석, 보크사이트 등의 생산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은 세계생산량의 많은 몫을 담당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가지고있는 원료자원은 시간이 흐르고 탐사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방대한 규모에 이르고있다는것이 판명되고있다. 1970년—1980년사이에 세계유색금속매장량(사회주의나라 제외)의 증대비률을 보면 보크사이트는 2.8배, 망간광은 4배, 크롬광은 1.8배, 티탄은 2.1배, 동은 1.6배, 니켈은 1.9배, 연은 1.4배, 아연은 1.5배, 코발트는 3.3배, 당그스텐은 2배, 석은 1.2배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이러한 원료자원을 유무상통한다면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원료, 자재를 비싼 값으로 사오지 않아도 경제를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원료를 개발하고 가공처리할수 있는 공업적토대도 가지고있다. 이 나라들의 공업생산은 독립후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며 1950년—1980년사이에 그것은 5배이상 늘어났다. 이 나라들의 공업생산능력은 아직 절대적규모에서 그리 크지 못하다고 하지만 도달한 수준은 벌써 세계의 공업생산에서 무시할수 없는 자기의 뚜렷한 지위를 확보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흑색금속공업만 보아도 1972년—1982년사이에 선철생산은 950만톤으로부터 1,670만톤으로, 강철생산량은 1,540만톤에서 2,700만톤으로 각각 늘어났다. 그러므로 발전도상나라들은 이러한 공업적토대에 의거하여 원료와 연료들을 개발하고 가공처리하여 서로 융통한다면 지금 제국주의나라들이 당하고있는것과 같은 원료연료위기를 겪지 않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이상의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천명하시고 금번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 결정으로 채택된 남남협조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이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략탈을 막고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참된 길을 밝힌 가장 현명한 방침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기대를 걸지 말고 남남협조를 실현하여야 그들의 지배와 략탈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이바지할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데서 선차적의의를 가지는 분야로부터 다방면적인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농업분야에서 먼저 협조를 강화하여 새로운 농법의 연구개발, 관개공사와 육종사업, 농업과학연구사업과 농업기술일군양성사업 등을 풀어나가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공업분야에서도 협조를 확대하며 특히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경공업에서부터 호상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인재의 양성과 교육, 보건,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다방면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남남협조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쌍무적협조와 지역적 및 지역간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면서 전반적인 남남협조를 추진시키는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모여앉아 원칙을 론하고 일반적인 문건을 채택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발전도상나라들이 호상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실천에 옮겨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발전도상나라들이 필요하고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실현하면서 점차 그 폭을 넓히며 협조와 교류를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현시기 남남협조를 힘있게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남남수뇌자회의를 하루빨리 소집하는것이다. 이것은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호상협조의 방대한 가능성을 탐구하여 유무상통하기 위한 힘있는 정치공약을 하고 실천행동에로 넘어가기 위한것이다.

지난 시기 발전도상나라들은 호상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념원으로부터 여러가지 전문가회의와 부장급회의를 열고 협조의 내용과 형식, 방도들에 대하여 일련의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남남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다. 그러나 남남협조와 같은 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위급에서 론의하고 결정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힘을 합쳐 하루빨리 남남협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남협조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근 로 자 1984년 제4호(루계 504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4년 4월 1일 발 행• 1984년 4월 3일

ㄱ—4594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5호

평 양 근로자사 198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5 호(505)

차 례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더욱 다그쳐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가 발표된 때로부터 1년이 된다.

론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원칙적인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혁명의 교과서이며 우리 시대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그들의 념원을 실현하는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론문에는 백수십년동안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국제공산주의운동 그리고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들이 심오히 분석총화되였으며 인간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리론과 전략전술들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생명력은 그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공감,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지도적지침으로 되는 참다운 혁명사상은 한 나라, 한 민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의 공명을 받게 되는것이다. 론문은 그 사상리론의 심오성과 진리성, 정당성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있다.

생활은 론문에 담겨져있는 사상리론이 공산주의혁명실천에 참다운 지침을 주는 창조적리론이며 대중의 심장을 움직여 대중으로 하여금 언제나 투지와 기백과 열정에 불타게 하는 고무적기치라는것을 남김없이 확증해주고있다.

* *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우리 당 활동의 사상리론적총화이다. 여기에는 공산주의위업을 드팀없이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이 구현되여있다.

우리 당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는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우고 모든 활동을 거기에 집중시키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에 의하여 력사적문헌이 발표되고 론문에서 밝혀진 사상리론들이 우리 시대 혁명실천의 위력한 무기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우리 당중앙이 이룩한 귀중한 업적으로 된다.

문헌의 중요한 사상리론적공적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이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한다는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심오히 천명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운동의 어제와 오늘뿐아니라 래일에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할것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는 전기간에 결정적역할을 한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에 의하여 확증된 혁명의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선진사상가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리상으로 내세운 때로부터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공산주의기치밑에 로동계급이 피어린 투쟁을 벌리기 시작한 때로부터도 백수십년이 지나갔다. 이동안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지구를 배회하는 유령으로부터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혁명투쟁의 무기로, 산 현실로 전환되였으며 공산주의의 붉은 기발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세차게 나붓기고있다. 력사는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공산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과정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들의 불멸할 공적으로 아로새겨진 영광의 력사이다. 공산주의운동력사를 장식하는 빛나는 혁명업적들은 그 모든것이 수령의 령도와 잇닿아있다.

공산주의위업은 한세대에 완성되는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하여야 할 장기적인 사업이다. 공산주의혁명위업수행을 위한 전행정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그것을 옳바로 운영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혁명위업에 대한 수령의 령도가 공산주의운동이 시작되는 첫시기부터 그것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종국적으로 완성되는 전력사적기간에 언제나 근본문제로 나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혁명의 력사적경험은 이 진리를 확증해준다.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새로운 시원이 열리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위대한 혁명이다.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은 오늘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이처럼 우리 당이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발전완성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힌것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한 더없이 귀중한 공헌으로 된다.

문헌의 사상리론적공적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더욱 빛내인데 있다.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을 고수하고 실현해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당이 걸어온 투쟁로정은 주체사상을 순결하게 이어오며 빛나게 구현하여온 자랑찬 력사로 수놓아져있다.

혁명이 간고한 환경속에서도 자기의 항로에서 리탈하지 않고 계속 승리의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이 창시한 지도사상의 순결성이 확고히 고수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그와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면서 모든 사상리론활동을 주체사상의 원리와 원칙들로 일관시켜왔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혁명학설로 규정하고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혁명과 건설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천명한것은 주체사상의 모든 원리와 명제들을 절대적인 진리로 삼고 그것을 확고히 이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근본립장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우리 당은 하나의 방침, 하나의 리론을 내놓아도 그것이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철두철미 주체사상으로 관통되게 하고있다.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수령의 사상

을 심화발전시키는것은 그것을 고수하고 계승하기 위한 원칙적요구이다.

우리 당은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이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을 구성부분으로 하고있는 사상리론체계라는것을 밝혔으며 그에 기초하여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에서는 주체적인 립장과 원칙을 지키는것이 주체사상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로 된다는것을 심오히 해명하였다.

주체사상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하자면 당 및 국가 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주체적인 립장과 원칙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을 중요내용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혁명적인 립장과 원칙으로 된다. 우리 당은 주체적인 립장과 원칙이 공산주의운동의 원리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공산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길을 명확히 밝혀주었다.

수령의 사상을 순결하게 옹호고수하는 혁명적립장은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도 튼튼히 견지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이다.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할수 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종국적승리의 길을 열어놓았으며 사람과 사회,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이리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보장된 사회,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력사적념원은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다. 우리 당이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이 불멸의 혁명업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자랑이며 긍지로 된다.

력사적문헌의 사상리론적공적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과 투쟁방침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굽임없이 전진한다. 공산주의위업의 전진과정은 그 누구도 걸어본적이 없는 생소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창조적과정이며 심각한 계급투쟁과정이다. 심오한 내용을 담고있는 공산주의위업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승리적으로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 올바른 전략전술을 가져야 한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와 그 실현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는 전기간에 걸쳐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놓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리론을 내놓음으로써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와 그 실현방도를 뚜렷이 밝혔다.》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는 공산주의위업실현과정에 제기되는 개별적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술적목표들과는 달리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를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총적방향을 규정해준다.

공산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구속,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사상정신생활분야에서나 물질생활분야에서 자주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이다. 공산주의사회의 이러한 본질적요구는 사회생활의 2대분야를 이루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다시말하여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과정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되고 완성되며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과정에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와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가 확립되게 된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이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기본전략목표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에 의하여 공산주의의 두 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이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투쟁목표가 뚜렷하게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가장 올바로 다그쳐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이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력사적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혁명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낡은 착취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시작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없애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완성되게 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을 다같이 가지고있다.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과 우월성을 표현한것이며 그 과도적성격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비한 사회주의의 미숙성을 표현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는 과정은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이 강화되고 그 과도적성격이 극복되여나가는 과정이다.

우리 당은 이처럼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와 실현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 발전풍부화시켰다. 이것은 우리 당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 이바지한 또하나의 불멸의 력사적 공적으로 된다.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힘차게 전진시킬수 있었으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동시에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3대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이다. 우리 당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조직령도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생활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고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게 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이 힘있게 다그쳐짐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과학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우고 근로자

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으로부터 해방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빛나는 성과가 달성되였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공산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과정에서 언제나 모든 승리의 열쇠를 당을 강화하는데서 찾고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을 영원히 그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높은 단계에로 심화되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순결하게 계승발전되게 되였으며 당의 통일단결이 더욱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고 새로운 혁명적사업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력사적인 전환이 이룩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다져지고 주체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체제가 튼튼히 서게 되였다. 이것은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근본담보가 마련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에서 밝혀진 사상리론들의 높이와 그를 구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우리 당의 위대성과 그 령도적권위를 그대로 확증해준다. 위대한 사상, 위대한 실천은 위대한 당에 의하여 창조된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대성은 그 수위에 모시고있는 령도자의 위대성이다. 탁월한 령도자의 지도밑에 가장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쌓고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고무적힘을 주는 당만이 위대한 당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거창한 설계도를 펼치고 인민대중을 이끌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걸출한 조직자, 세련된 령도자이다.

우리 당의 절대적권위는 우리 당이 시대와 혁명의 기수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향도해나가는 불패의 위력의 근본원천으로 된다.

우리 당은 그 높은 권위와 위대성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있으며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확고히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끝없이 빛내이고있다.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닌 위대한 당을 받들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상의 영예이며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우리 인민은 참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의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수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할수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에서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당면한 투쟁과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이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고지이며 이 고지를 점령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혁명의 정치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만드는 인간개조사업이며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사회개조사업이다.

당조직들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강화하며 농민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도록 하며 인테리를 참다운 로동계급적인테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대학졸업정도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에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적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강화하고있으며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 있다.

혁명하는 사람은 정세가 복잡하고 반혁명의 발악책동이 강화될수록 높은 혁명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더욱 분발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완강한 투지를 가지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혁명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답게 앞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긴장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제2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비약과 기적을 창조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담보하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할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할수 있다.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고 공산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향도자이다.

당의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다져야 한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승리에 대한 확신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가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혁명적기풍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리던 시기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고나갔던것처럼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중앙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은 전일적인 구성체계를 가진 불멸의 사상

리 상 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반세기가 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의 빛나는 결실이며 조선혁명의 사상리론적총화이다.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영광스러운 조선혁명발전의 승리적로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이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되여온 자랑찬 력사이며 그것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된 보람찬 년대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백전백승의 위력은 그 구성체계의 독창성과 전일성, 혁명성과 뗄수 없이 결부되여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로 다시금 정식화하시고 그 구성체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구성체계를 과학적으로 밝힌것은 우리 당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차지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력사적지위를 명백히 하고 그 독창성과 심오한 진리성을 힘있게 론증한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으며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상, 리론, 방법은 모두 주체의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을 구현한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이며 과학적학설이다. 따라서 그것은 일정한 내용과 그에 상응한 구성체계를 가지고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인 맑스-레닌주의는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사회주의의 세가지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맑스-레닌주의는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준비기와 수행기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혁명사상으로서 투쟁무대에 등장한 로동계급에게 자기의 력사적사명과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그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력사발전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여나오는것만큼 시대가 변하고 혁명이 발전하면 그 내용과 구성체계도 달라지게 된다.

력사의 새시대,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있는 독창적인 혁명사상

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라고 한 과학적인 정식화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내용에서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고 구성에서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로 이루어져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힌데 기초하여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를 천명하고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을 전개한 혁명적세계관이며 혁명의 지도사상이다.

주체의 리론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힌 혁명의 지도리론이다.

주체의 방법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추동력인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해나가는 방법을 전개한 혁명의 지도방법이다.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모든 원리와 명제, 모든 사상리론적내용들은 이 세가지 구성에 전일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으로 이루어져있는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갖추어야 할 완벽한 구성체계를 가지고있는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

일반적으로 혁명사상의 구성체계에 관한 문제는 그 사상의 심오성과 내적정연성, 위력을 규제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내용이 얼마나 폭넓고 깊이있으며 론리적으로 얼마나 정연하고 실천적으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그것이 어떤 구성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어떤 철학사상에 기초하여 체계화되여있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구성체계를 과학적으로 밝히는것은 그 력사적지위를 해명하는데서나 변혁적의의를 옳게 리해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은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구성체계를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그 독창성과 심오성, 전일성과 불패의 위력을 뚜렷이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구성체계의 독창성은 무엇보다먼저 주체시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실천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구성체계이라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오는것만큼 시대와 혁명 발전의 높이는 그 구성체계의 특징을 규제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이다. 19세기 40년대 구라파의 일부 발전된 나라들에서 자본의 지배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시작된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은 오늘 먼리 전진하여 전세계적범위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고있으며 력사상 가장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는 혁명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새시대는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앞에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숭고한 위업을 완수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할데 대한 력사적과제를 내세웠다.

시대와 혁명 앞에 나선 이 력사적과제를 옳게 해결하자면 우선 인민대중에게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겨주고 력사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는 새로운 혁명사상을 밝혀주어야 하였으며, 그러자면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인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전개된 새로운 세계관을

창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시대의 혁명앞에 나선 력사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자본주의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테두리를 벗어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주어야 하였다. 이 요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추동력인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새로운 혁명리론을 내놓음으로써만 해결될수 있었다.

혁명운동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의 규모가 전례없이 확대되고 사회적변혁에서 노는 그들의 역할이 비상히 강화된 력사적조건은 광범한 대중을 혁명에로 조직동원하는 령도문제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혁명을 해나가는 령도방법을 내놓아야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바로 주체시대의 혁명운동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적세계관인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구성체계가 자주성을 위한 주체시대 인민들의 혁명실천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새로운 구성부분들로 이루어져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그 구성체계가 시대성과 현실성을 가장 높이 체현하고 있으며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주는 다방면적인 사상과 리론을 담고있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구성체계의 독창성은 또한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개되고있는 전일적인 구성체계이라는데 있다.

과학적학설로서의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위력은 그 전일성에 있으며 그것은 혁명사상의 구성부분들이 어떤 철학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는가 하는데 따라 규제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철두철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으로서 여기에는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전개하고 체계화하는 사상적, 리론적, 방법론적 기초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주체사상에는 온갖 형태의 지배와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높이 체현하고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려는 의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반영한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집약적으로 담겨져있다. 주체사상에는 또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와 그것을 구현한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사회력사원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 그리고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들이 다 밝혀져있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에는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방법론, 다시말하여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며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주체적 관점과 립장이 반영되여있다.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이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구성체계의 사상적, 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되는 리유가 있다.

그러므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구성부분들은 이러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게 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하고있으며 근로

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전술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됨으로써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의 발생발전의 합법칙성과 그 수행방도를 정확히 밝혀주는 과학적인 혁명리론으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학설로 되게 되였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혁명적령도에 관한 리론과 방법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된것으로 하여 주체의 령도방법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적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학적인 령도방법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혁명적인 령도예술로 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구성부분들은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원리, 하나의 방법론으로부터 출발하고 거기에 기초하여 전개되고있음으로 하여 뗄수 없이 련결된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있다.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이 전개되고 체계화될수도 없으며 그것이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질수도 없다.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구성부분들이 주체사상을 사상적, 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는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라고 하는 참다운 의미가 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이렇듯 그 구성부분들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된것으로 하여 내적정연성과 론리성, 과학성과 혁명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구성체계의 독창성은 다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집대성하고 있는 혁명적인 구성체계이라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사명은 철두철미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의 앞길을 정확히 밝혀주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이러한 사명을 다하려면 그것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구성체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자각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에 맞게 개조변혁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합법칙성과 전략전술을 알아야 한다. 또한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는 방도를 가질 때에만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앞길을 밝혀주는 참다운 혁명사상으로 되자면 그들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안겨주는 사상과 혁명투쟁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리론 그리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밝혀주는 주체사상과 혁명투쟁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담은 혁명리론,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방도를 밝힌 령도방법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사실은 그 구성체계가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집대성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이러한 구성체계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자주성을 위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멸의 등대로 되고있으며 세계를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불패의 전투적기치로 되고 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심오성, 과학성과 전일성,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사에서 차지하는 특출한 력사적지위와 거대한 변혁적역할은 그 구성체계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로 정식화하고 그 구성체계를 과학적으로 심오하게 밝힌것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이 이룩한 탁월한 사상리론적업적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혁명적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특기할 력사적사변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구성체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그 내용과 구성에서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구별되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라는것이 정확히 해명되게 되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이 맑스-레닌주의와 계승성을 가지면서도 독창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올바로 리해하는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로 정식화되고 그 구성체계가 밝혀짐으로써 또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력사의 새시대인 주체시대의 혁명운동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나왔으며 자주성을 위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이며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라는것이 력사적으로나 리론적으로 더욱 힘있게 론증되게 되였다. 이것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 탁월한 사상이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향도하는 가장 정확한 혁명사상이라는것을 밝힌 우리 당의 력사적공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고 그 구성체계를 올바르게 해명한것은 특히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사상정신생활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의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로 정식화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조선혁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오늘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되고 있을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혁명적신념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백전백승의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진 영 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한 귀중한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총화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주체의 리론을 새로운 원리와 명제들로 풍부히 하고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론문에 밝혀져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함께 이 사회의 과도적성격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리론이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3대혁명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사회의 력사적지위와 특징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계속혁명의 필연성과 과업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사회주의사회의 특징을 밝히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전략전술을 옳게 세우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사회주의사회의 특징을 정확히 밝혀야 공산주의사회에 비한 사회주의사회의 미숙성과 그 근원을 올바로 찾고 공산주의건설방도를 과학적으로 세울수 있다.

론문은 사회주의사회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그 과도적성격에 있다는것을 밝히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게 되는 근원은 낡은 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에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이러한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과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로 하여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와 구별되며 과도적성격을 띠게 된다.》

사회주의사회가 과도적성격을 띤다는것은 사회생활의 근본원칙은 공산주의적이지만 아직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는 사회로서 공산주의 높은 단계에 비하여 력사적제한성을 가지고있는 사회라는것을 의미한다.

물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확립됨으로써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게 된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적근로자들사이에는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이 이루어지며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되고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가 본질에 있어서 공산주의적성격을 띠는 사회라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적성격이 그 본질적특징으로 되고있지만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와 구별된다. 사회주의사회는 낡은 착취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락후성과 유물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사회이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공산주의사회의 참다운 모습을 다 갖추지 못한 사회이다.

사회발전과정의 련관성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는 불가피하게 선행한 착취사회, 자본주의사회가 가지고있던 여러가지 낡은 요소와 측면들을 물려받지

않을수 없게 되며 그것은 낡은 사회의 유물로서 사회에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사회주의제도의 수립과 함께 형성되였거나 또 새롭게 형성되는 공산주의적요소들은 짧은 기간에 인차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발전되고 완성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는 점차 극복되여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과 공산주의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미숙한 요소들이 남아있는 사회로 특징지어진다.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이 극복되여나가는 과정이며 그러한 과도적성격이 완전히 없어질 때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계급적차이와 로동의 차이,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는 이 사회의 과도적성격을 특징짓는 주되는 측면들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계급적대립은 청산되지만 계급적차이는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계급적차이는 친선적인 두 기본계급인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은 다같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며 사회주의적근로자이다. 그러나 로동계급과 농민이 계급적차이를 가지게 되는것은 그들이 의거하고있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가 다른것과 관련된다. 모든 사회관계의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이며 온갖 계급적차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전인민적소유에 의거하고있는 로동계급과 협동적소유에 의거하고있는 농민은 생산활동과 생산물의 분배방식이 서로 다르고 사회경제적처지에서 차이가 있으며 사상정신적으로도 농민은 로동계급에 비하여 뒤떨어져있다.

로동계급은 공산주의사회를 대표하는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며 농민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로동계급화되여야만 공산주의에로 갈수 있는 계급이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고 농민을 로동계급화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조건에서만 공산주의적사회관계를 확립할수 있다.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가 있고 그에 기초한 계급적차이가 아직 남아있는것은 사회주의사회가 공산주의사회와 구별되는 과도적사회라는 뚜렷한 표현이다.

계급적차이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특징짓는 중요한 측면이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곧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사회는 계급적차이뿐아니라 로동의 차이도 남아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로동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로동이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되지만 아직 생활상 제1차적요구로 되지 못하고 근로자들의 로동에서 본질적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의 차이는 주로 육체로동과 정신로동, 중로동과 경로동,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에서 표현된다. 로동의 본질적차이가 있다는것은 힘든 로동이 남아있고 로동생활에서 사회적평등이 보장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다음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되며 로동생활에서 평등한 지위를 차지하려는것은 자주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근로자들이 힘든 로동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원만히 보장될수 없다.

로동생활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사업은 다름아닌 인간의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진행된다. 사회적으로 보면 로동생활이 있고서야 소비생활도 있을수 있으며 문화생활도 있을수 있다. 인간생활에서 로동생활이 차지하는 위치로

부터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로동이 즐거운것으로, 생활상 제1차적요구로 되게 하는것은 공산주의건설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력사적과제로 되며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과도적성격을 띠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착취와 빈궁의 근원은 종국적으로 청산되지만 사회성원들사이의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의 차이는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모든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으리만큼 물질문화적재부가 넉넉히 창조되지 못하며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의 차이로 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데 사람들의 역할도 같지 않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원칙이 실시되며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규정하는 분배몫에서 불가피한 차이를 낳게 된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는 견지에서 보더라도 교육과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는것을 비롯하여 문화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사람들의 문화생활수준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나라의 전반적지역이 고르롭게 발전되지 못하고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이 남아있는 한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도 차이가 있게 된다.

물질문화생활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사람들의 수요에서 기본은 물질적수요와 문화적수요이다. 사회주의건설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의 충족을 최고원칙으로 하여 진행되게 되며 혁명과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의 차이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경제와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여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산주의적원칙이 실현될 때까지는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의 차이가 남아있게 되며 그러한 사회는 아직 과도적사회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게 되는 근원은 낡은 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에 있다.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짧은 력사적기간에 다 극복할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 낡은 사회의 유물로서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이 있다는것은 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아직 공산주의사회가 요구하는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사회의 생산력도 그러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것이다.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비한 사회주의사회의 미숙성, 과도적성격을 표현하는 모든 측면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이처럼 낡은 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과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완전한 사회적 평등이 보장되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와 구별되며 과도적성격을 띠게 된다.

론문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그 근원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힘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방도를 과학적으로 세울수 있는 리론적기초를 확립하였으며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공산주의적성격을 다같이 고려하면서 옳은 정책을 세워 편향없이 관철해나갈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자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자면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청산하기 위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그들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할뿐아니라 낡은 사회의 유물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사회주의사회에서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낡은 착취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시작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로써 끝나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없애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완성되게 된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주의사회가 과도적성격을 띠게 되는 근원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3대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사회의 주인은 사람이며 사람의 모든 행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사상을 개조하고 사상을 발동하는것은 모든 문제해결의 선결조건이며 근본열쇠이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야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극복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사람의 머리속에 사상적공백이란 있을수 없고 사상생활에서의 답보는 곧 후퇴를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혁명을 계속 강화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수 있고 밖으로부터 자본주의사상이 침습해들어올수 있으며 생활이 넉넉해지는데 따라 사람들속에서 점차 혁명적열의가 식어지고 일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극복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상혁명을 언제나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사상혁명에서 기본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가장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정확히 밝혀주는 혁명학설이다.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만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할수 있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이 집단주의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극복하는데서 나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 문제도,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극복하자면 사상혁명을 앞세우는것과 함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기술혁명은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며 그들의 물질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사회주의사회에 로동의 본질적차이가 남아있고 인민들의 높아가는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는것은 과학과 기술,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아직 낮은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켜야 모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인민들의 물질적복리

를 끊임없이 증진시킬수 있다.

오늘 기술혁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모든 생산활동을 철저히 과학화하여야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다.

문화혁명은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며 그들의 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자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뿐아니라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지식과 체력은 사람의 창조적능력의 떼수 없는 구성부분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지식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모두가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하고 물질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민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요구, 문화적수요는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인간생활을 정신적으로 체험하며 고상한 감정과 아름다운 정서를 가지고 즐겁고 명랑하게 일하며 생활하려는것은 사회적인간에게 고유한 문화정서생활의 요구이다. 사람들이 문학예술을 즐기며 생산과 생활을 다 문화적으로 해나가려 하는것은 이러한 문화정서생활의 요구와 관련되여있는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키는것과 함께 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는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문화적수요가 무시된 사람의 생활은 참다운 의미에서의 인간생활이라고 말할수 없다.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며 그들의 높아가는 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교육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과학과 문학예술, 보건과 체육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분야를 빨리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적인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처럼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공산주의적문화를 창조하여야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를 비롯하여 로동조건과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고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리론은 참으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극복하고 공산주의건설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는 방도를 뚜렷이 밝혀준다.

우리 인민은 3대혁명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유물을 성과적으로 극복하면서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3대혁명리론의 진리성과 생활력은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실천에 의하여 빛나게 확증되고있다.

론문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에서 밝혀진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3대혁명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사회의 특징과 계속혁명의 필연성, 3대혁명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혀줌으로써 공산주의혁명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키는데 특출한 기여를 하였다.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극복할데 대한 리론은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편향없이 건설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준다.

우리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3대혁명에 관한 주체의 리론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할것이다.

탁월한 전략전술의 위력을 파시한 력사적인 전투

—무산지구전투승리 45돐에 즈음하여—

최 인 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진행된 무산지구전투는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탁월한 령군술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력사적인 전투였다.

무산지구전투는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대부대국내진공작전의 하나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산지구에로의 진출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굳게 안겨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조선혁명을 굽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올리는데 그 중요한 전략적목적이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 조국광복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전략적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온성지구에 나오시여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남호두회의와 서강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로 진출할데 대한 방침을 다시금 제시하시고 국경일대에서의 여러 전투들과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승리적으로 조직지휘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굽임없이 확대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9년 4월 북대정자회의에서 또다시 조국으로 진출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넘어가 일제 침략자들에게 련속 타격을 가하고 조국으로 또다시 진군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권, 191~192페지)

조선인민혁명군이 또다시 조국으로 진출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주도권을 틀어쥐고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당시 항일무장투쟁의 급속한 발전에 의하여 혼란에 빠진 일제는 대륙침략계획실현에서 《암》으로 되고있던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소멸》하려고 《동변도토벌작전》이란 명목밑에 대병력으로 동기《대소탕전》에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이 승리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놈들의 공세는 여지없이 분쇄되고 적들은 사방에 분산된채 제 소굴에 처박혀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었다.

동기《토벌》작전에서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당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산속에서 다 얼어죽었다.》는 요언까지 퍼뜨리면서 조국광복에 대한 인민들의 희망마저 없애버리려고 획책하였으며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파괴하고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 학살하였다.

바로 무산지구진공방침은 이른바 《토벌》작전에서 실패하고 수세에 빠진 일

게에게 적극적인 반격전을 들이대여 놈들을 련속타격하기 위한 대담하고 주동적인 방침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또다시 조국으로 진출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또한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마련된 현실적조건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제시된 과학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오는 급격히 확대되고 간고한 전투들을 통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강력한 무장대오로 자라났다.

특히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조선인민혁명군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국내진공작전을 주동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꾸려지게 되였다. 이와 함께 조선인민혁명군의 국경일대와 국내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조국진군작전을 원만히 벌려나갈수 있는 튼튼한 대중적지반도 마련되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또다시 조국으로 진출할데 대한 국내진공방침은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 현명한 방침이였다.

실로 무산지구에로의 국내진공작전방침은 일제침략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에게 혁명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안겨주며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전술적 방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을 밝히신데 기초하여 탁월한 령군술과 전법으로 무산지구전투를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 조국진출을 위한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도록 하신데 기초하여 무산지구진공전투를 조직지휘하시였다.

정치군사적준비, 후방물자를 충분히 마련하는것은 모든 전투와 군사행동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일제침략자들의 이중삼중의 삼엄한 국경경비진을 뚫고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땅 무산지구에로 진출하기 위한 작전에서 이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벌린 춘기반격전은 조국진출의 전투준비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1939년 봄 압록강연안의 장백현 구가점전투, 15도구전투, 반절구전투 등 국경요충지들에서의 전투들은 일제의 물샐틈없는 국경경비체계에 일대 혼란을 조성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춘기공세를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고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였으며 피복과 식량, 탄약을 비롯한 전투에 필요한 군수물자들을 충분히 갖추었다. 이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으로 진출하여 무산지구전투를 승리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탁월한 전법과 기묘한 전술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산지구진공작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조성된 정황에 따르는 림기응변의 전술을 취할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위력의 원천의 하나이며 승리의 요인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98페지)

령활한 전술과 전법을 각이한 정황조건에 맞게 잘 활용하는것은 유격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탁월한 전략적방침은 령활한 전술과 전법이 안받침될 때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무산지구전투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림기응변의 령활한 유격전술과 전법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4도구목재소물 돌이치고 청산방향으로 돌어가는 적수

송대를 습격하는 속임전술로 적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게 하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감쪽같이 조국땅에 진출시키시였다. 그리고 멀리 가는체하고 적의 코밑에 살짝 돌아앉는 기만전술로 청봉에서 10리밖에 안되는 건창에서 또다시 숙영을 조직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행방을 찾아 헤매는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치있는 씨름군이 상대방의 약점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선손을 써서 이기는것과 같이 적들이 야간경계에 골몰하고있을 때 대낮에 삼지연을 거쳐 일행천리동정하여 100여리의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무포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무산지구전투의 최종작전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시였다.

적들을 계속 수세와 피동에 몰아넣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빛나는 예지와 비상한 군사적안목으로 국내진공작전의 최종진군지점을 적들의 군사적요충지의 하나이며 류벌중심지인 로은산지구로 정하시고 분산기동전술을 능란하게 적용하시여 신사동과 신개척일대의 적들에게 청천벼락을 안겨주고 그곳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시였다. 그리고 유인매복, 포위전술로 대홍단벌로 밀려드는 적의 대부대를 격파하심으로써 무산지구전투를 빛나게 결속지으시였다.

이처럼 무산지구전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활한 유격전술과 전법들을 능숙히 활용하심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침략자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고 국내진공작전에서 또다시 승리를 이룩한 력사적인 전투였다.

대중속에서 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려 국내진공작전의 정치군사적목적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한것은 무산지구전투를 승리에로 조직지휘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군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무산지구전투는 단순히 혁명적무장력으로 적들을 들이치는 작전으로서만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데 그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산지구진공작전의 정치적목적을 명철하게 규정하시고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군사행동계획을 세우시였으며 몸소 대중정치사업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봉, 신사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벌리신 정치활동과 신사동인민들에게 하신 강령적연설은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었으며 모든 애국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성전에 과감히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대중정치활동의 숭고한 모범에 고무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청봉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연안의 백두산주변과 무산지구를 중심으로 한 두만강연안의 북부조선일대에서 적들에 대한 일대 섬멸전과 함께 광범한 군중을 대상으로 하여 구두선전, 개별담화, 출판물의 배포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군중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적극적인 정치활동으로 신사동인민들에게 광복의 큰뜻을 깊이 심어주시고 청봉의 아름드리나무들에 《조선청년들, 속히 달려나와서 항일전에 힘있게 참가하자.》, 《일어나라, 단결하라, 전세계 로력대중들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자.》 등 힘있는 글발들을 새기신것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벌린 정치활동의 빛나는 귀감으로 되였다.

조국진군작전의 전과정에 정치활동과 군사활동을 능숙하게 배합함으로써 무산지구진출의 정치군사적목적은 훌륭히 실현되게 되였고 그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게 되였다.

무산지구전투에서의 조선인민혁명군의 빛나는 승리는 조국광복의 위업수행에서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무산지구전투의 승리는 조선인민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억세게 싸우고 있다는것을 널리 시위하고 망국의 비운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신념과 투쟁열의를 더욱 높이 북돋아주었다. 무산지구전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게 되였다.

무산지구에로의 진출과정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은 참다운 조국애와 혁명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튼튼히 가지게 되였다.

북대정자로부터 무산지구에로의 준엄한 행군길에서 당시 일제의 총칼밑에 억눌려있던 우리 나라의 참담한 현실과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광복된 래일에 대하여 들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감명깊은 말씀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로 하여금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슴불타게 하였으며 원쑤치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여도 혁명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게 하였다.

무산지구전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지고 일본제국주의의 종국적패망을 더욱 촉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무산지구에로의 진출을 통하여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튼튼한 대중적지반우에서 무장투쟁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무산지구작전과 그 승리는 일제의 《총독정치》와 그 관할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정치적타격으로써 조선에 대한 놈들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았으며 놈들의 멸망을 예고하는 준엄한 선고로 되였다.

실로 무산지구전투의 력사적승리는 혁명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고난의 행군을 빛나는 승리로 총화하고 전국적범위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어올리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여놓았다.

무산지구전투에서의 조선인민혁명군의 승리는 민족적자주권을 위해 투쟁하는 국제로동계급과 세계 피압박, 피착취인민들에게 무장을 들고 억세게 싸워나갈 때 그 어떤 식민지아성도 격파하고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무산지구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여 반제민족해방투쟁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오늘도 우리 인민에게 백절불굴의 투지와 승리의 신심을 굳게 안겨주고 우리모두를 영웅적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력사의 땅 무산지구에 조국광복의 홰불이 세차게 타오르던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왔다. 그러나 그때의 침략자들이 되살아나 미제와 한짝이 되여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책동에 피눈이 되고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멸망에 처한 제놈들의 발악적책동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 남조선괴뢰도당이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놈들이 얻을것이란 죽음과 시체뿐이며 우리가 잃을것이란 원한의 분계선뿐이다.

위대한 령도로 한세대에 강대한 미일 두 제국주의를 꺼꾸러뜨리고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의 군사사상과 탁월한 령군술을 빛나게 구현하여나가고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진하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힘은 필승불패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은 혁명적 출판보도활동의 지도적지침

윤　경　택

오늘 우리의 출판보도물은 참다운 주체의 출판보도물의 면모를 뚜렷이 갖추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복무하고있다.

우리의 출판보도물이 지니고있는 높은 권위와 출판보도사업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와 주체적출판보도 사상과 리론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은 비범한 예지로 1970년대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놓고 그 요구에 맞게 출판보도물건설과 출판보도활동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문헌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은 력사적문헌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된 주체의 출판보도 사상과 리론을 밝혔다.

우리 당에 의하여 더욱 심화발전된 주체적출판보도 사상과 리론은 우리 시대 혁명적 출판보도물건설과 출판보도활동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전투적기치이다.

＊　　　＊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보도물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해 복무하는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이길수 있는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무기없는 군대가 적과 싸워이길수 없는것처럼 로동계급의 당이 예리하고 전투적인 사상적무기인 출판보도물을 가지지 않고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적출판보도물과 같은 위력한 사상적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적출판보도물을 자기의 수중에 튼튼히 장악하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게 하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올바른 지도적지침을 가져야 한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출판보도 사상과 리론에 의하여 지도되지 않고서는 당적출판보도물이 혁명의 무기, 투쟁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다할수 없다. 이것은 반세기가 넘는 영광에 찬 혁명의 길을 걸어온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력사적총화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보도물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끄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출판보도 사상과 리론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참다운 출판보도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적출판물을 창간하며 그것을 사상적무기로 하여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

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투쟁에서 출판물이 노는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주체의 출판보도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주체위업의 승리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출판보도물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온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영광스러운 력사는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이 발전풍부화되고 승리하여온 빛나는 력사이며 혁명적출판보도물의 모범이 창조되여온 자랑찬 년대기이다.

혁명의 심화발전과 변화된 새로운 환경은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사상적무기인 출판보도물이 자기의 력사적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올바른 지도적지침을 밝혀줄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이 절박한 문제는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비범한 예지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출판보도사상과 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였다. 우리 당이 밝힌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출판보도물건설과 출판보도활동에서 나서고있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해답을 주고있는 위력한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밝혀진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이 혁명적출판보도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완성된 출판보도사상이라는데 있다.

원래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보도물은 혁명의 수령에 의하여 창간되고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로 강화발전된다. 따라서 수령의 사상을 전파하고 옹호고수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보도물의 본성적요구이다.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혁명적출판보도물의 역할을 심오하게 통찰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보도물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새롭게 해명함으로써 그것이 명실공히 수령의 출판보도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우선 당적출판보도물의 위치와 역할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정식화하고 그의 성격과 사명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출판보도물의 성격과 사명을 옳게 밝히는것은 혁명적 출판보도물건설과 출판보도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출판보도물의 성격과 사명이 옳게 규정되여야 그것이 뚜렷한 목적과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예리하고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 당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본질적요구와 혁명적출판보도물의 발생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우리의 출판보도물은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이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혁명적출판보도물이라는것을 천명함으로써 우리의 출판보도물의 본질적특성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우리 당은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모든 사회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나아가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을 주체의 출판보도물의 기본임무로 규정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출판보도물의 성격과 사명, 임무가 과학적으로 정식화됨으로써 우리의 출판보도물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있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오

며 출판보도활동에서 항구적으로 의거하여야 할 사상리론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출판보도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옳게 밝히는것은 혁명적출판보도물의 성격을 견결히 고수하고 전투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주체의 원칙을 근본초석으로 삼고 출판보도사업을 철저히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진행하며 취재집필사업에서 종자론과 속도전을 구현할데 대한 내용들은 우리 당이 밝힌 출판보도활동의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이다. 출판보도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요구들이 명백히 밝혀짐으로써 우리의 출판보도물들은 그 어떤 잡사상에도 오염되지 않고 오직 주체의 혈통만을 빛나게 이어나가며 출판보도활동을 언제나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벌려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혁명적출판보도물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새롭게 밝힌것은 참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보도물건설에 이바지한 우리 당의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우리 당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이 혁명적출판보도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출판보도사업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출판보도사상이라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출판보도사상이 혁명적출판보도물의 참다운 지도사상으로 되자면 그것이 출판보도물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출판보도 사상과 리론 분야에서 해결을 기다리던 수많은 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줌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보도사상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반전풍부화된 주체적출판보도사상에는 신문보도리론과 통신보도리론, 방송보도리론과 잡지편집리론은 물론 기사창작리론으로부터 사진보도리론에 이르기까지 출판보도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체계화되여있다. 혁명적출판보도사상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됨으로써 출판보도물건설과 출판보도활동을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에 기초하여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렇듯 우리 당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은 혁명적출판보도물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출판보도사상으로, 출판보도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이 혁명적출판보도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철저히 극복하고 출판보도사업을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참신하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담보를 마련해주고있는데 있다.

출판보도사업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며 생기발랄하고 참신하게 조직전개되여야 출판보도물들이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추동할수 있다. 출판보도활동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낡은 틀과 기성관례를 대담하게 마스고 출판보도활동을 혁명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다.

우리 당은 출판보도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줌으로써 출판보도물의 전투적위력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주었다.

기자, 편집원들이 기성관념에서 단호히 벗어나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하고 새로 출발한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과 속도전, 사상전의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한것은 우리 당이 출판보도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제시한 중요한 방도들이다.

그리하여 출판보도사업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마

스고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우리의 당적 출판보도물이 주체의 출판보도물의 참다운 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고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전투적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또한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발간된 혁명적출판물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전투성과 호소성, 참신성, 생동성을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주체의 혁통을 만대에 빛내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의 출판보도사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맞게 출판보도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준 탁월한 사상과 리론이며 우리 시대 혁명적출판보도물건설과 출판보도활동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발전풍부화된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은 그 내용의 심오성과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실천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으며 출판보도사업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에서 출판보도물의 역할이 강화되였습니다. 출판보도사업에서 주체가 튼튼히 섰으며 출판보도물의 사상리론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출판보도물은 당사상사업의 예리한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00폐지)

오늘 우리 당 출판보도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우리의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이 자기의 투쟁로정에서 일대 전성기를 맞이할수 있게 된것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혁명적출판보도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준 결과이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출판보도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우리의 출판보도물들이 주체의 출판보도물로서의 면모를 더 훌륭히 갖출수 있게 된것이다.

출판보도물이 그 성격과 사명에 맞게 자기의 면모를 갖추는것은 출판보도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선결조건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보도물은 사상적 내용과 수준에서는 물론 편집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출판보도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줌으로써 신문과 통신, 방송, 잡지, 도서 등 출판보도분야에 오래동안 남아있던 형식주의의 낡은 틀이 마사지고 출판보도사업전반이 패기에 넘쳐 참신하게 벌어지게 되였다.

출판보도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난 결과 무엇보다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정치사상적수준이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출판보도물의 내용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고 기사와 편집물들에 당정책적대가 똑바로 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출판보도물에 주체성과 당성, 로동계급성과 인민성이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다.

출판보도물의 내용과 형식에서 우리식의 특질을 살리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모든 출판보도물이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투쟁과 생활을 기본으로 반영하게 되고 대중의 요구와 기호에 맞게 만들어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주체의 출판보도물로서의 참다운 면모를 뚜렷이 갖추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쳐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혁명적출판보도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또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출판보도활동에 철저히 구현된것이다.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이 있다 하여도 혁명적인 사업방법에 의거하지 못할 때에는 출판보도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수 없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창조하신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사업방법으로서 혁명적출판보도활동의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우리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여 출판보도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줌으로써 우리의 출판보도사업에서는 기성관례와 재래식사업방법이 청산되고 출판보도선전이 보다 전투적이며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게 되였다.

출판보도사업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당정책이 인민대중속에 제때에 침투되고 그들의 요구와 지향이 출판보도물에 민감하게 반영되여 출판보도물이 당과 대중을 하나로 련결시키는 위력한 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더욱 훌륭히 수행하게 되였다.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이 철저히 구현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품위있는 훌륭한 문제작들이 수많이 창작되였으며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정치사상적수준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기자, 편집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출판보도사업의 성과는 그 직접적담당자들인 기자, 편집원들의 풀격과 정치실무적자질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는것을 밝히고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당의 참된 문필전사로 교양육성하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였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기자, 편집원들의 위치와 임무를 새롭게 밝히고 그들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문필전사로 철저히 준비하며 정치실무적자질을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기자, 편집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지니고 정치실무적자질을 갖춘 참다운 문필전사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이것은 당의 령도밑에 출판보도분야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의 하나이다.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적출판보도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하여온 영광스러운 로정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출판보도사상이 빛나게 관철되여온 승리의 로정이였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된 자랑찬 나날이였다.

우리의 출판보도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출판보도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감으로써 당의 문필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확고한 담보

김 병 률

오늘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와 우리 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여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수호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것을 호소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원쑤들의 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시며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지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투쟁기세는 매우 좋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이러한 혁명적열의와 투쟁기세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령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위원회들을 튼튼히 꾸리며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들은 해당 단위에서 최고지도기관이며 모든 부문사업의 참모부입니다. 어느 부문에서나 당정책을 옳게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위원회들의 령도적역할에 결정적으로 달려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5권, 280페지)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인다는것은 해당 단위에서 당조직이 모든 사업의 정치적참모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며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세움으로써 당조직을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당은 당원들이 있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조직되여 활동하는 각급 당조직들로 이루어져있다. 그런것만큼 전당을 강화하자면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이 해당 부문에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당의 위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다.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의 령도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은 혁명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 조선혁명의 승패와 우리 인민의 운명은 결국 우리 당의 령도에 달려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이 심화될수록,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운 투쟁이 벌어질수록 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여야 우리 인민은 간고하고 복잡한 조

국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 사업은 각급 당조직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에서 당의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전투적단위이다. 당조직들이 당의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사업은 다름아닌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조직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안팎의 온갖 원쑤들의 책동을 물리치면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해나가는 복잡하고 거창한 사업이다. 따라서 당조직들이 기백이 없고 전투적으로 사업하지 않는다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관철할수 없다.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혁명적기풍을 지녀야 당조직들은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이 왕성한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당사업과 당활동을 혁명적으로 벌려나가는 바로 여기에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또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림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전당과 온 사회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혁명력량을 튼튼히 다지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우리는 혁명앞에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용감하게 전진할수 있다.

오늘 적들의 발광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조건에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하여야 한다. 치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결속하지 않는다면 적과의 날카로운 투쟁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결국 혁명의 전취물을 성과적으로 지켜낼수 없다.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다. 이러한 통일단결은 각급 당조직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실현된다. 당은 각급 당조직을 통하여 일군들과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지도하며 광범한 군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맺는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이 간부들과 당원들,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우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당대렬을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의 기본임무이며 주되는 과업이다.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높아야 간부를 선발배치하고 교양하는데서 당적원칙을 철저히 지킬수 있으며 모든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튼튼히 키워 당대렬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이러한 정치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친 전당의 통일단결이 눈동자와 같이 고수되게 된다.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도 각급 당조직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보장된다. 대중은 당조직을 통하여 당과 잇닿아있는것만큼 당조직들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속에서 활발히 움직

여야 그들은 당조직들의 활동에서 당의 손길을 느끼고 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표시하게 된다. 그리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당을 따르고 당과 함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가게 할수 있다. 이처럼 당조직들의 적극적인 조직정치사업에 의해서만 당대렬과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이 이룩되며 그것은 원쑤들의 온갖 책동으로부터 우리 혁명을 철저히 보위하고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또한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투쟁전선이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광란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나라에 조성된 첨예한 정세는 우리에게 모든 힘을 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강력한 경제력은 남조선괴뢰도당을 더욱 압도하고 놈들을 국제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당사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기 위한데로 지향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는 응당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당사업은 바로 각급 당조직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진행된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할 숭고한 임무를 지니고있다.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돌려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제2차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해야 할 무거운 과업은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일것을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당조직들이 앙양된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벅찬 생산실천의 요구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5개지구전선의 기본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리며 인민생활을 훨씬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참으로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는 것은 당의 령도력을 강화하고 혁명대오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실현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그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에 옳게 구현해나갈수 있는 현명한 방침들을 제시하였다.

이 방침들에는 당위원회들을 튼튼히 꾸리고 집체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방침, 하부지도체계를 옳게 세우고 아래 당조직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할데 대한 방침, 기층당조직인 세포를 강화할데 대한 방침 등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여 있다.

우리 당의 방침에 의하여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밝혀짐으로써 당사

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모든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전반사업을 틀어쥐고 그에 대한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강화하여 나아가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당건설사상이 당사업실천에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각급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참모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98페지)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비상히 높아진 결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사업, 당활동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중심을 두고 실속있게 벌어지고있으며 구체적실정에 맞게 주체사상교양과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교양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이 과정에 당원들속에서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으며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전당이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철석같이 뭉쳐져있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조직적으로 굳게 단합되여있다. 이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그 어떤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 혁명을 오직 주체의 한길로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이 높아짐으로써 전당에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의 로선과 방침, 당의 결정과 지시를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철저한 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새로운 높이에로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는것이다.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안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우리 당에는 모든 당조직들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모든 당원들이 세워진 질서와 행동규범에 따라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서있다. 그리하여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면모가 새로와지고 당사업기풍은 근본적으로 일신되게 되였다.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는데서 이룩된 성과, 이것은 실로 혁명적당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업적의 하나이다.

오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의하여 우리 혁명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더욱 높일것을 제기하고있다.

조성된 정세와 우리앞에 나선 무거운 혁명임무의 요구에 맞게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위원회들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들이 집체적지도원칙을 견지하여야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올바로 처리할수 있으며 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의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다. 당위원회들은 당의 로선과 방침이 제시되면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고 분공을 구체적

로 조직하며 분공된 과업을 철저히 행하도록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다.

이와 함께 포치한 사업을 제때에 총 하고 재포치하면서 제기된 과업이 끝 지 관철되도록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 켜나가야 한다.

아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 는 조건에서 지도하는것은 우리 당의 관한 방침이다.

당조직들은 늘 당정책관철정형을 구 체적으로 장악하고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 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우의 당조 직들은 아래당조직들의 활동정형과 사 업실태를 언제나 환히 꿰들고 제때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 요한 요구이다.

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이 며 당사업과 당활동은 당원들의 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원들이 언제 어디 서나 선봉적역할을 놀아야 당의 전투력 을 강화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원 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어려 운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군중 을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전위적기 수로 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과 혁명의 요구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며 사선도 먼저 헤쳐나가는 진짜배 기혁명가, 참다운 당원이 되도록 만들 어야 한다.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여 혁명과 건 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해서는 또한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 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당조직들의 전투력은 중요하게 사회 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나타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떠난 순 수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당사업은 반드시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하며 당조직정치사업은 사회주의경제건 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경제사업을 안받침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경제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생산과 건 설에서 앙양을 일으켜나가는 당조직만 이 전투력이 강한 산 조직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당사업을 개선하여 당앞에 나서고있 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각급 당조직들이 행정경제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 들의 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 다. 당조직들은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 원칙의 요구에 맞게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지휘관의 유 일적지휘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당적지 도를 심화시켜나가야 하며 행정경제사 업에서 유일적지휘를 실현하는데 지장 을 주는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못하 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당일 군들의 행정대행을 철저히 없앨수 있으 며 당내부사업을 실속있게 하면서 경제 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줄수 있다.

이와 함께 문건이나 만들고 통계나 받아들이는 식으로 당사업을 대치하려는 경향을 없애야 하며 혁명과업수행에 모 를 박고 사람과의 사업을 계속 심화시 켜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당 사업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없애고 당의 의도에 맞게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하여 서는 당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일군들은 늘 아래에 내려가 아래일 군들을 친절히 가르쳐주고 실속있게 도 와주어야 하며 군중과 같이 생활하면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방도를 찾고 군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또한 절대로 세도를 쓰지 말고 틀을 차리지 말아야 하며 언제 어 디서나 인민들이 생활하는대로 소박하 고 겸손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주체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우리 인민의 진군을 힘있 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인 투쟁기풍

리 성 린

공산주의승리의 길은 투쟁과 창조로 이어져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이 심어준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혁명정신을 안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투쟁로정을 걸어왔다.

오늘 우리 인민은 1980년대를 우리 민족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승리로 장식할 커다란 포부를 안고 력사적인 진군길을 다그치고있다. 이 진군길에서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고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커다란 비약이 이룩되고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일어나고있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는 계속혁신하고 계속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투쟁기풍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과시하고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1980년대를 새로운 륭성과 번영의 영광스러운 년대로 빛내여야 한다.

*　　*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고유한 투쟁기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들에게는 침체와 답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혁명가들에게는 오직 부단한 혁신과 전진이 있을뿐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5권, 24페지)

공산주의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열렬한 혁명가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사람과 사회, 자연을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혁명의 과정이다. 혁명은 한자리에 머물러있는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을 요구한다. 혁명의 길에 나선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한시도 투쟁을 멈출수 없으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가야 한다.

혁명투쟁에서 거둔 승리는 그것이 아무리 큰것이라 하여도 새로운 승리를 위한 밑천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위업을 완성하기도전에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도취하여 투쟁을 멈추고 혁명을 그만두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이다. 혁명가들에게는 오직 투쟁과 전진, 창조와 혁신만이 있을뿐이다.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공산주의혁명의 앞길에는 수많은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여있으며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확신하고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주저할줄 모르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갈 때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혁명가들이 지닌 이러한 투쟁기풍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에 바탕을 두고있는 사상정신적특질이다.

혁명투쟁과정에서 발현되는 사람들의 투쟁기풍, 혁명적사업태도의 높이는 그들이 지닌 혁명관에 의하여 규정된다.

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어 기풍을 가지고 혁명투쟁을 벌려나가 가 하는것은 결국 혁명관이 어떻게 섰 가 하는데 달려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이 고히 선 사람만이 혁명발전의 합법칙 을 옳게 인식하고 혁명의 앞날을 확 성있게 내다보면서 온갖 난관과 시련 헤치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굽임없이 혁신 하고 굽임없이 전진하는 혁명가의 높은 기풍을 발휘할수 있다.

이처럼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것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고 높이 발휘하여야 할 고상한 투쟁기풍으로 된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혁명적인 투쟁기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며 부단히 혁신하는것은 영웅적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1권, 547페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혁명적기질이다. 우리 인민은 자기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헌신성과 희생성이 강하며 굽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혁명정신이 높은 인민이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이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혁명적기풍으로 되는것은 빨리 달려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과 관련된다.

우리 인민은 낡은 사회로부터 매우 뒤떨어진 경제와 문화를 넘겨받았으며 오래동안 일본제국주의의 예속에서 착취와 략탈을 당하여왔다. 이리하여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는 무지와 몽매, 락후와 빈궁만이 강요되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이 일으킨 3년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모든것이 파괴된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력사적조건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걸으며 한시도 멈춰서지 않고 혁명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굽임없이 달려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인민은 이처럼 오래동안 어렵게 살아왔고 뒤떨어져있었기때문에 남달리 혁명성이 강하며 남보다 빨리 전진하려는 열망과 지향이 비상히 높다.

빨리 달려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강렬한 지향과 요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승리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혁명투쟁과정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적기개로 체현되고 숭고한 투쟁기풍으로 확립되였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투쟁기풍은 인민들이 빨리 달려나가려는 지향과 요구를 가진다고 하여 곧 확립되는것이 아니다. 혁명실천과정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이러한 지향과 요구는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로 전환될수 있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지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전진하는 투쟁로정에서 공고화된 혁명적기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정확한 혁명로선과 투쟁구호를 제시하시고 혁명을 굽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오시였다. 투쟁이 간고하고 난관이 중첩되여도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는 적중한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여 인민들을 굽임없는 혁신과 비약에로 불러일으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령도풍모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인민을 조직령도하

시여 천리마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온 나라에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적투쟁기풍이 차넘치게 하시였다.

혁명적대고조는 아무때나 일어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빨리 달려나가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이 하나로 결합될 때 비로소 발생발전하게 되는것이다.

전후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혁명적대고조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천리마운동의 봉화를 지펴올리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가져온 위대한 결실이다. 혁명적대고조, 이것은 남보다 빨리 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투쟁기풍과 혁명적기개를 집중적으로 상징하고 있는것이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기풍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우리 당의 령도밑에 더욱 높이 발양되고 우리 혁명을 떠미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나날에 우리 당이 진두에서 조직령도한 속도전의 진군은 천리마운동의 계속이였다. 이 력사적인 진군속에서 일대 민족적 번영과 룡성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주체조선의 영예가 더욱 높이 떨쳐지게 되였다. 이것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내달리도록 한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천리마와 속도전의 대진군속에서 일찌기 1950년대에는 《천리마속도》, 《평양속도》, 1960년대에는 《비날론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하였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속도 《70일전투속도》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와 같은 기적적인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처럼 우리 인민은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적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기에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가장 짧은 기간에 빛나게 완수하고 우리 나라를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낡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의 흔적을 영원히 쓸어버리고 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전진하여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 때 점령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세기적인 변혁과 비약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멀리 전진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혁명이 전진하고 무거운 혁명과업이 제기될수록 혁명가들은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투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빨리 발전하는 우리 혁명과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전진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가지고 투쟁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제2차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를 경제발전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서게 하며 물질문화생활을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담보하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할수 있게 하는 영예로운 사업이다. 이 거창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온 사회를

체사상화하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으며 조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우리 인민의 투쟁은 매우 긴장하고 복잡한 정세속에서 진행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군사적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적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우리 인민앞에는 적들의 이러한 횡포한 도전을 물리치고 우리 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할 엄숙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과업이 어렵고 방대할수록 우리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긴장하고 동원된 태세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전진하여야 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초소와 일터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일대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 우리 조국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될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서의 무거운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투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완강한 투지를 가지고 온갖 장애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하며 혁명의 시대에 사는 사람답게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여야 합니다.》(《신년사》, 1984년, 11페지)

우리는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살고있다. 혁명하는 사람은 정세가 복잡하고 무거운 혁명과업이 제기될수록 높은 혁명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더욱 분발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높이 발휘되였던 투쟁정신을 본받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당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끊임없이 전진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천리마대고조시기 온 나라에는 당정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였다. 강선과 검철을 비롯한 온 나라의 로동계급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요구라면 온갖 난관을 뚫고 제힘으로 그것을 훌륭히 관철해냈으며 실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발휘하였던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또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가야 한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사업에 대한 책임성은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전진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모든 사업의 성과는 그것을 담당수행하는 사람의 사업태도에 달려있다.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일하면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무런 성과도 거둘수 없다. 주인답게 일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일하게 되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휘하는것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자기 초소에서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일거리를 만들고 일감을 찾아서 하는 일본새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온갖 난관과 애로를 주동적으로 극복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전진을 이룩할수 있으며 혁명과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경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불사르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며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또한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대담하게 전진하고 끊임없이 혁신해나가야 한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과 미래에 대한 락관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결한 혁명정신의 하나이다. 자기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깨닫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져야 사람들은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애로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그리고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을 지녀야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휘황한 앞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발전법칙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혁명적락관주의로 튼튼히 무장하며 혁명의 승리를 굳게 믿고 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자신의 체험과 오늘의 현실을 통하여 당의 령도를 따라 나아갈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는것을 굳게 믿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주체위업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공산주의미래에로 우리 인민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이 있기에 륭성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오늘이 있고 보다 휘황찬란한 공산주의미래가 약속되여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아가야 할것이다.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위력한 담보

리 진 규

오늘 재일조선인운동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항로를 따라 력사의 닻을 올린 재일조선인운동은 총련을 주체사상화하는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조국과 혁명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재일동포들은 주체사상의 견결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로 자라나고 총련은 주체형의 혁명적인 해외공민단체로 강화되였으며 총련애국사업에서는 일찌기 없었던 커다란 전진과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재일조선인운동이 조국의 통일과 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력사에 자랑찬 위훈을 새기며 세계 해외교포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고있는것은 총련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킨 결과에 이룩된 고귀한 열매이다.

* *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의 근본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관통하고있는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이며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입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은 주체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는 주체의 애국운동이다. 재일조선인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의하여 그 력사적시원이 열리고 김일성주의 기치밑에 빛나는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김일성주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며 생명이다. 김일성주의를 떠나서는 조선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그 어떤 재일조선인운동도 생각할수 없다.

재일조선인운동이 주체의 애국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영원히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의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총련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총련의 각급 기관안에 위대한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할수 있으며 재일조선인운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주체적인 재일조선인운동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주체의 기치밑에 재일동포들을 하나의 애국력량으로 묶어세우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참된 주인으로 키워주시였으며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승리적으로 뚫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

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스러운 력사의 항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총련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를 재일조선인운동에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총련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모든 기관, 모든 성원들이 한결같이 움직이게 할수 있고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는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오늘뿐아니라 장래발전을 위한 튼튼한 담보이다.

재일조선인운동은 주체의 혁명위업과 함께 승리하며 전진하는 숭고한 애국위업이다. 재일조선인운동을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애국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장래발전을 위한 담보를 마련하는것이다.

이 중대한 문제는 총련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질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인이며 담당자인 재일동포들 특히 젊은 세대들을 수령과 그 위업에 대를 이어 충실한 주체형의 참다운 해외공민으로 훌륭히 키울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총련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되고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해외교포단체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재일조선인운동으로 하여금 세월이 흐르고 사나운 풍파와 시련이 닥쳐온다해도 끄떡함이 없이 충성의 대를 변함없이 이어나가게 할수 있다.

총련은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이 사업에 커다란 힘을 돌려왔다. 총련이 걸어온 전로정은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온 영광스러운 로정이다.

총련결성후 첫시기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중심을 이룬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밝히신 주체의 애국운동로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이였다.

이 시기 재일조선인운동은 로선을 전환하고 새 출발을 하였으나 재일동포들의 사상은 그에 맞게 철저히 전환되지 못하고있었다. 한편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전환을 방해하여온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총련결성후에도 음으로양으로 새 로선을 시비하면서 대오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는 분파적행동을 계속하고있었다.

총련은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적경험과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주체적인 애국운동로선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전기관적으로 널리 조직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 동포들속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없애고 주체적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밝혀주신 투쟁 원칙과 방침을 자로 하여 주체적인 애국운동로선의 관철을 방해하면서 총련의 지도권을 장악해보려고 책동한 종파사대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리였다. 그리하여 오래동안 재일조선인운동안에서 막대한 해독을 끼쳐온 종파사대주의자들을 조직적으로 청산하고 총련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였다.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1967년 5월이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였다.

이 시기 내외반동들은 총련을 파괴탐

압하며 재일동포들의 애국운동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내외반동들의 책동을 주동적으로 짓부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을 굽임없이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를 총련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서 찾으시고 여기에 힘을 넣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밝히신 방침에 따라 총련은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총련은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을 김일성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각급 기관과 단체, 사업체들에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을 새로 정중히 꾸리고 그것을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으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교양망들과 간부양성기관들의 학습강령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학습에 기본을 두도록 하였다. 한편 총련은 재일동포들속에 유일사상교양자료들을 대대적으로 출판보급하고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동지혁명활동략력》,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대한 대중적인 학습운동을 널리 벌리였다.

유일사상교양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고 경애하는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철석같은 신념을 확고히 간직하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총련대렬의 원칙적단결이 한층 강화되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재일조선인운동에 보다 심오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은 1974년 2월 총련 제10차전체대회를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더욱 전면적으로 강화되였으며 그것은 그후 총련을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되였다.

총련의 주체사상화는 재일동포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참다운 해외공민으로 만들며 총련의 조직건설과 애국활동에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이다. 총련의 주체사상화는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계속이며 심화발전이다.

총련은 대오를 주체사상화하는 애국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개선하고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하는것은 재일동포들을 주체형의 참다운 해외공민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그것은 특히 온갖 반동적사상조류가 범람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살고있는 재일동포들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주체의 혁명적신념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참되게 살아나가도록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로부터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데 기본을 두고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였다.

총련은 각급 기관안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고전적로작들과 수령님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주신 강령적교시로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이와 함께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혁명전통학습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한편 총련은 조국에서처럼 정연한 학습체계를 세워 토요집체학습, 간부 및 대중 강연, 10일강습을 제도화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통달모임, 문답식학습경연을 널리 조직진행하였으며 《충성의 독서운동》을 꾸준히 밀고나갔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 사업은 재

일조선인운동의 장래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사업을 통하여 한층 심화되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장래발전을 위한 기초를 강화하는 사업은 재일동포들의 애국운동을 대를 이어 주체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장래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사업은 다같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대를 이어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총련은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장래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갔다.

총련은 일군들과 동포들에게 수령의 혁명위업 계승문제를 원리적으로 체득시키는 한편 우리 조국에서 이 문제가 가장 빛나게 해결된데 대하여, 그것이 우리 혁명과 재일조선인운동 발전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였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향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의 위대성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전기관적으로 조직된 집중강습들과 《인민의 지도자》(1), 《위대한 풍모》, 《민족의 영광》에 대한 학습운동은 일군들과 동포들속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끌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일본전국각지에서 널리 상영된 기록영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속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모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체득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총련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킨 결과 재일조선인운동에서는 새로운 혁신과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무엇보다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오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자랑을 가슴에 안고 긍지높이 살아가고있으며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국땅에서도 민족적 존엄과 영예를 견결히 지키고 더욱 빛내여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려는것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확고한 신념이다. 오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자신과 후대들의 모든 운명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전적으로 맡기고있으며 그 어떤 시련의 시기에도 오직 수령님과 당을 따라 나아갈 철석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 총련조직이 그 어느때보다 힘있는 조직으로 강화되였다. 총련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일군들과 동포들로 핵심진지가 튼튼히 꾸려지고 전체가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였다. 또한 총련의 모든 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여 더 많은 동포들을 교양하여 묶어세움으로써 총련의 군중적지반이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그리하여 총련은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는 모든 기관들이 주체사상으로 맥박치는 생기발랄한 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총련의 애국사업에서도 자

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재일조선인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동포대중운동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에 최대한으로 이바지하는것이며 바로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성심이 표현되여야 한다.

오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 불타는 마음을 안고 조국통일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으며 이 길에서 애국의 꽃, 충성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가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대행진이 벌어졌을 때 팔순이 넘은 한 동포는 《내 살아 생전에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의 광장에 모시는것이 소원이였다. 이 길이 그 광장에 잇닿은 길이라고 생각하니 아무리 걸어도 피곤한줄 모르겠다.》고 하면서 지팽이에 의지하여 여러날이나 행진에 참가하였다. 바로 그러한 충성심을 안고 오까야마현의 한 분회장은 환갑잔치를 뒤로 미루고 5일간이나 통일의 길을 걸었고 지바현에서는 66호의 동포가정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들딸, 며느리, 손자에 이르는 온 집안이 떨쳐나 조국통일대행진에 참가하였다.

지금 재일동포들은 공화국에서 내놓은 새로운 3자회담제안 실현을 위한 500만명서명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안고 사회주의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재일동포들의 운명은 조국의 운명과 련결되여있다. 오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민족적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가슴펴고 살아가고있는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영광스러운 당이 빛내여주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기때문이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계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이 있고 자기들의 참다운 삶과 행복이 마련되고있음을 심장으로 느끼고있다. 그렇기때문에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며 당의 품인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할 굳은 결의를 가다듬고있는것이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70돐을 빛나게 맞이하기 위한 《300일간 애국혁신운동》기간에 총련의 애국적상공인들과 각계각층 동포들은 수많은 공장설비들과 각종 기계, 기자재들, 정성품들을 어버이 수령님께 충성의 선물로 삼가 드리였다. 여기에는 해와 달이 다하도록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70만 재일동포들의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과 애국심이 그대로 스며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속에 날과 더불어 더욱 억세게 뿌리내리고있으며 그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을 힘차게 떠밀어주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있다.

재일조선인운동이 걸어온 영광찬 로정과 오늘의 자랑찬 현실을 통하여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나가는 바로 여기에 모든 승리의 근본열쇠가 있음을 굳게 확신하고있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체사상을 재일조선인운동에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아갈것이다.

생산정상화와 자재공급사업

김 태 극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창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료와 자재를 제대로 대주며 그것을 극력 아껴쓰도록 하는것은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4권, 250페지)

자재공급은 계획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정조직사업이다.

자재공급사업을 잘하여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대주어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진행하여 생산계획과제를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며 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여나갈수 있다. 자재를 계획대로 보장하면 기계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고 원자재를 절약하며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출수 있으며 인민경제 부문사이의 균형을 옳바로 보장할수 있게 된다.

만일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면 생산순환과정이 중단되고 생산에서 파동성을 가져오게 되며 기업소경영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자재공급사업을 잘하는것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자재공급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면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현대적생산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자재공급체계를 세워주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 자재공급체계는 자재를 우에서 책임지고 아래에 내려다주는 새롭고 독창적인 우월한 자재공급체계이다.

대안의 자재공급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자재공급에서 중앙집권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동시에 생산현장의 요구에 맞게 자재를 책임적으로 날라다주어 인민경제에 대한 계획적지도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생산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되였다. 또한 생산수단의 계획적공급을 철저히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자재류통에서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여 생산수단의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공급과 분배를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협동생산조직을 잘하며 자재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자재의 합리적이며 절약적인 소비를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대안의 자재공급체계는 그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문제의 하나인 생산수단의 공급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대안의 자재공급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자재공급사업을 더욱 개선하는것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인

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이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고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계속 창설되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가 확고히 견지되고있다. 특히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방대한 규모의 5개지구전선건설이 다그쳐지고 남포갑문건설과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자재공급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하여 공장, 기업소들과 사회주의건설전투장들에 자재를 생산에 계획적으로 앞세우며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장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이와 함께 자재를 우에서 아래에 책임적으로 날라다주며 자재를 합리적으로, 절약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는 강한 재도와 질서를 세우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 당은 최근 심화발전되고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자재공급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취한 조치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대안의 자재공급체계의 요구대로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계획과 계약에 따라 자재상사를 통하여 내리공급하는 정연한 질서와 규률을 세우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사를 통하여 모든 자재를 내리공급하며 웃기관과 그 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 계획외에 자재를 공급하거나 원천이 없는 추가지령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다.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당의 조치는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와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을 정확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모든 자재를 계획과 계약에 따라 자재상사를 통하여 내리공급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자재공급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자재공급은 고도로 조직화된 유기체를 이루고있는 사회주의경제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에서 재생산과정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생산물을 실현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보장하는 사업을 통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조직하여야 한다.

자재공급사업이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자면 중앙집권적원칙에서 계획과 계약에 따라 자재를 공급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만일 자재공급사업을 중앙집권적원칙에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생산단위들이 산발적으로 하게 되면 전사회적범위에서 생산을 당의 의도와 국가의 전반적리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진행할수 없으며 조직화된 사회주의경제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게 된다.

우리 당은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전문적인 자재공급기관인 자재상사를 통하여 내리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자재공급사업을 올바로 진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놓았다.

우리 당의 조치에 따라 자재상사들은 자재의 수요와 공급을 맞물리는 계약사업, 자재를 확보하고 장악하며 분배하는 사업, 제품판매를 실현하며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자재를 조절공급하는 사업 등을 대안의 자재공급체계의 요구대로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진행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재공급에서 사소한 자연발생성의 요소와 무규률적인 현상도 허용하지 않으며 당정책적요구와 전반적인민경제의 리익에 맞게 사회적생산의 전반을 보다 조직화할수 있게 되였다.

자재를 계획과 계약에 따라 자재상사를 통하여 내리공급하는것은 또한 인민경제발전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인민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법칙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는 오직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계획적으로 축적하며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써만 발전할수 있다. 경제발전의 계획성과 균형성은 자본주의경제와 다른 사회주의경제의 본질적특성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발전에서 계획성과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재공급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기술공정의 요구에 맞게 계획대로 종합적으로 공급하여야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생산을 련속적으로, 률동적으로 진행하며 계획과제를 제때에 수행할수 있게 된다.

자재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모든 자재를 계획과 계약에 따라 자재상사를 통하여 통일적으로 내리공급하게 되면 생산수단을 대량소비하는 현대적인 대규모생산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재공급체계는 경제부문들사이, 생산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올바로 맞물리며 자재 공급과 리용에서 기관본위주의를 없애고 자재예비를 전면적으로 동원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분배리용할수 있게 한다.

계획적인 자재공급은 생산의 전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생산을 강화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계획에 예견한대로 제때에 자재를 충분히 공급하게 되면 생산을 정상화하여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고 협동생산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함으로써 련관된 부문들에서 국가계획대로 생산을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게 된다.

자재를 계획과 계약에 따라 자재상사를 통하여 내리공급하는것은 또한 이미 마련된 경제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게 한다.

이미 마련된 경제적토대를 잘 리용하는것은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이다. 대규모사회주의경제는 커다란 생산잠재력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을 옳게 리용한다면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짧은 기간에 생산을 훨씬 늘이며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자재를 계획과 계약에 따라 자재상사를 통하여 생산단위들에 대주게 되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련속적으로 진행하며 기계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고 생산능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된다. 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재관리를 짜고들게 함으로써 기계설비, 원료, 자재를 비롯한 생산수단의 사장과 랑비를 없애고 그것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한다.

이처럼 자재를 계획과 계약에 따라 상사들을 통하여 내리공급하는것은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있는 설비와 자재,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계획과 계약에 따라 상사들이 공급하며 우에서 자재를 아래에 내리공급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울 때 경제관리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낡은 자본주의적기업관리의 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혁명적군중로선을 확고히 구현할수 있으며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적극 발동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자재를 계획과 계약에 따라 자재상사들에서 내리공급하는것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대안의 자재공급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게 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자재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직접 조직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자재공급사업도 다름아닌 경제지도일군들에 의하여 설계되고 조직집행된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재공급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취한 조치에는 현시기 경제지도일군들과 자재공급일군들이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방향과 구체적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서있다.

경제지도일군들과 자재공급일군들은 자재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적의도를 깊이 파악하고 그 어떤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그것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은 자재공급을 위한 행정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드는데서 중요하게 표현되게 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 특히 웃기관일군들은 책임성을 높여 언제나 생산조직과 함께 자재공급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생산정형과 자재실태를 환히 꿰들고 필요한 행정경제적대책들을 제때에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경제정책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재공급 방향과 선후차를 옳게 규정하며 자재공급 규률과 질서를 강하게 세우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

자재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자재상사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자재상사는 사회주의자재공급의 기본단위이며 생산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책임진 전문적인 자재공급기관이다.

자재상사들은 국가계획에 기초하여 자재의 수요를 규격별, 기업소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계약에 정확히 맞물리며 계약규률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상사들은 언제나 계획과 계약에 예견된대로 자재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종합적으로 보장하며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자재를 기동적으로 조절공급함으로써 국가계획이 정확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계획외에 자재를 주거나 원천이 없는 추가지령을 떨구는것과 같은 무규률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오직 계획과 계약에 따라 자재를 공급하는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한다.

자재상사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제품판매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자재상사들이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이란 곧 자재의 공급과정으로 된다. 자재상사들은 국가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공장, 기업소들에 자재를 계획과 계약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정확히 맞물려 내리공급하며 판매조직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자재상사들은 자재공급에서 상업적형태를 잘 리용하여 공장, 기업소들이 자재보관관리를 개선하고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해 애쓰도록 통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리행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된대로 자재를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자재공급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이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각급 당조직들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자재공급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도록 이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심화시키며 행정경제일군들로 하여금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도록 힘있게 이끌어나갈 때 자재공급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될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자재공급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재공급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로력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는것은 생산장성의 중요한 방도

윤 서

지금 온 나라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창조투쟁으로 세차게 들끓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에 의하여 날로 고조되고있는 이 장엄한 진군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절박한 문제의 하나는 로력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인민경제의 로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것이다.

나라의 로력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새생활창조에 떨쳐나선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로동을 떠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그자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재부가 창조되며 전체 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물질적담보가 확고히 마련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키며 나라의 로력자원을 적극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는 근로자들속에서 사상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로력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로력예비를 적극 탐구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생산이 늘어나는데 따라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로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나아가서 전반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것은 곧 로력예비를 동원리용하는 사업을 잘하는것이 경제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서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력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어야 하는것은 로력이 모자라는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되고있는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새로운 생산부문들이 계속 창설되고 경제의 규모가 빨리 늘어나므로 남아돌아가는 로력이 있을수 없다. 실업자문제로 하여 큰 사회적물의가 계속 일어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실업이 있을수 없을뿐아니라 로력이 모자라는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력문제를 제때에 풀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없으며 결국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도 앞당길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로력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력랑비를 없애고 로력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로력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는것은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5개지구

천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해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제2차7개년계획의 고지를 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나가자면 건설기계와 대상설비, 건설자재와 로력을 충분히 대주어야 한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고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건설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자재는 조직사업만 잘한다면 자체로 능히 생산보장할수 있지만 날로 늘어나고있는 로력수요를 충족시킨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로력수요를 보장하는데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청장년로력문제를 푸는것이다.

오늘 5개지구전선건설장들과 대자연개조전투장들에서는 물론 채취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에서도 청장년로력을 더 많이 보내줄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이처럼 긴장한 나라의 로력문제, 특히 청장년로력문제를 풀어야 생산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이러한 현실적요구에 맞게 로력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기술혁명을 더욱 다그치는 한편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를에서 로력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데 있다.

오늘 로력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비생산부문과 경로동부문의 청장년들을 5개지구전선건설장들과 대자연개조전투장들, 채취공업부문 등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시키고 청장년로력을 뽑아낸 부문들에서는 가정부인들을 비롯한 유휴로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면하게 제기되고있는 로력문제를 빨리 해결하여 생산을 더욱 높이고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행정사업을 잘하여 있는 로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며 한사람당생산액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결정적담보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1권, 361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력예비는 기술혁명을 다그치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일하고있는 로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유휴로력을 경제건설에 적극 받아들이는데 있다. 일하고있는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는것은 생산부문의 로력비중을 더욱 높이고 근로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여 같은 수의 로력으로 물질적부의 생산을 빨리 늘인다는것을 의미하며 유휴로력을 경제건설에 적극 받아들인다는것은 일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마련해주어 나라의 로력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한다는것을 말한다.

일하고있는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문제와 유휴로력을 경제건설에 적극 받아들이는 문제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이 두 문제를 다같이 풀어나가야 로력예비를 남김없이 탐구동원하여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는것이다.

현시기 로력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경제발전을 다그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생산부문의 로력비중을 더욱 높이고 청장년들을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시켜 일하고있는 로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사회의 물질적부는 오직 생산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로동에 의하여 창조되는것만큼 생산부문의 로력비중을 높이는것은 있는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총생산액과 국민소득을 빨리 늘이고 나라의 경제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로 된다.

생산부문로력을 늘이는데서 깊은 판

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청장년로력배치를 잘하는것이다. 생산부문 특히 채취공업과 같이 전반적인민경제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산부문들과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거창한 규모의 건설장들, 대자연개조를 위한 보람찬 전투장들에는 아직 다른 부문에 비하여 힘든 로동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여기에는 마땅히 한몫씩 맡아서 해제낄수 있는 청장년로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생산부문로력을 더욱 늘이면서도 근로자들의 체질에 맞게 로력을 배치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범위에서 비생산부문로력을 극력 줄이고 생산부문, 그가운데서도 직접부문로력을 더욱 늘이는 원칙에서 로력조절을 잘하며 특히 비생산부문과 경로동부문의 청장년들을 5개지구전선건설장들과 대자연개조전투장들, 채취공업부문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생산부문로력비중을 더욱 높이고 청장년로력배치를 개선하면 지금 일하고있는 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긴장한 로력문제를 푸는데 큰 보탬을 줄수 있으며 나아가서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속도를 계속 높여나갈수 있다.

현시기 로력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생산을 빨리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유휴로력을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받아들여 나라의 로력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로력수요에 비하여 그 원천이 제한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긴장한 로력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유휴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있다.

유휴로력을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받아들이면 전사회적범위에서 로력자수를 더욱 늘일수 있으며 그만큼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고 나라의 경제발전속도를 높일수 있다.

실업이 청산된지 오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오늘 유휴로력은 그리 많지 못하며 그 대부분이 가정부인들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유휴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알맞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는것이 필요하다.

유휴로력을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가정부인들을 비롯한 유휴로력들을 비생산부문과 경로동부문에 배치하여 그들이 자기의 체질에 맞는 직업을 가질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탁아소, 유치원 같은 어린이보육교양시설들과 직장상점을 비롯한 상업편의봉사시설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일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의 긴장한 로력문제를 더 잘 풀수 있을뿐아니라 근로자들의 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고 녀성들을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시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도 다그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청장년로력조절을 잘하고 유휴로력을 적극 동원리용하는것이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로력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모든 일군들은 로력예비를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긴장한 로력문제를 빨리 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로력예비를 동원리용하는 사업을 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는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먼저 로동행정일군들은 로

동자, 기술자, 사무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240∼241페지)

로력예비를 동원리용하는데서 성과여부는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적 생산과 관리의 직접적담당자인것만큼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잘하여야 대중을 발동하여 더 많은 로력예비를 찾아낼수 있으며 한공수의 로력이라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로력예비를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부가 늘어나야 자신들의 생활도 보다 윤택해진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로력전선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야 한다. 일군들은 특히 비생산부문과 경로동부문의 청장년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잘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후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시기 청년들이 바다에로, 탄광에로 앞을 다투어 진출하던것처럼 당이 내세운 중요전선들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오늘 로력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또한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드는것이다.

로력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은 전사회적범위에서 벌려나가야 하는것만큼 조직지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각급 정권기관일군들과 로동행정일군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 부문별, 직제별로 로력구성비률을 새롭게 규정해주는 한편 로력원천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고 근로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봉사망을 늘이고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모든 근로자들에게 생활상불편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일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어야 한다. 일군들은 특히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혁명을 다그치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어 로력을 더욱 절약하며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들에서 로력예비를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이 적극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로동행정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로력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직접 틀어쥐고 힘있게 떠밀어주어야 하며 로동행정사업에서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당적지도를 심화시켜야 한다.

로력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은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고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력예비를 동원리용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재정규률의 강화와 원에 의한 통제

변 승 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80년대속도》창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재정관리를 짜고드는것이다. 특히 재정규률을 강화하여 있는 원료와 자재, 자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는 문제는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재정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재정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사업은 인민들이 번 돈을 인민을 위하여 바로 쓰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가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 통제하는것이 바로 사회주의재정사업이다.

사회주의재정사업의 범위에는 화폐자금을 조성하고 리용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 생산과 교환, 분배, 소비 등 재생산의 모든 고리들이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재정관리사업을 잘해나가기 위해서는 화폐자금을 조성하고 리용하는데서 지키야 할 공동행동준칙과 규범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한다.

재정규률은 나라와 인민의 소유로 되고있는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인민들이 번 돈을 인민을 위하여 바로 쓰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한 질서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같이 지켜야 할 공동행동준칙이다. 재정규률을 강화하여야 사회주의국가가 전반적나라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화폐자금을 마련하고 리용하는 사업을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계획적으로 보장할수 있으며 재정관리를 당의 정책적요구와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맞게 올바로 해나갈수 있다. 또한 그래야 사회주의적소유를 철저히 보호하고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재정규률을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는 재정관리 규정과 규범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잘 지키도록 교양하는 한편 재정적공간을 리용하여 통제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재정규률을 세우기 위한 여러가지 통제적공간들가운데서 중요한것의 하나는 원에 의한 통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계획을 분기별, 월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엄격히 통제하며 기업소들에서의 경영활동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4권, 20~21페지)

원에 의한 통제는 화폐적공간을 리용하여 진행하는 통제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일정한 기간 상품화폐관계가 존재하며 사회경제생활의 여러 분야에 화폐적계산이 필수적으로 있게 된다. 원에 의한 통제에서 기본은 은행통제이다.

원에 의한 통제는 나라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서 다른 형태의 통제수단과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원에 의한 통제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화폐자금을 리용하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통제를 실시하는것

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은 화폐형태를 리용하여 재산되고 분배된다. 공장, 기업소들과 생산과 교환, 분배, 소비에 이르는 재생산의 모든 고리들에서 화폐자금을 리용하는만큼 원에 의한 통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 그리고 나라살림살이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로 된다.

원에 의한 통제의 특징은 또한 화폐적공간을 리용하여 일상적이며 체계적으로 통제를 실시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재생산과정에 이루어지는 물자재산의 모든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화폐자금과 맞물려지는 조건에서 원에 의한 통제는 화폐자금을 마련하고 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원에 의한 통제가 다른 통제와 구별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그것은 재정규률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재정에 대한 계획적관리를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재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국가가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분배리용하게 된다. 계획성을 떠나서 사회주의재정을 옳게 관리하거나 나라살림살이를 바로 꾸려나가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재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나라의 재정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재정의 계획적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과제를 무조건 수행하고 축적된 자금을 제때에 국가수중에 집중시키도록 하며 국가자금을 계획에 예견된 범위내에서 정확히 공급받아쓰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분배리용하여 사회주의재정의 계획적관리를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재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는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때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원에 의한 통제는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일상적이며 체계적인 통제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받은 축적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며 축적된 자금을 제때에 국가수중에 집중시킬수 있게 함으로써 자금의 계획적인 조성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기관, 기업소들로 하여금 국가로부터 필요이상의 자금을 받거나 부당하게 자금을 받아쓰는 현상을 극복할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자금을 지정된 목적에 정확히 쓸수 있게 한다. 이것은 원에 의한 통제가 재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재정규률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또한 자금의 랑비를 없애고 그것을 가장 절약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자금의 랑비를 없애고 그것을 절약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재정규률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자금의 절약적이며 합리적인 리용을 떠나서 재정규률의 강화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수행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자금을 절약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있는 자금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으며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자금적수요를 보다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자금을 절약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금을 철저히 계획된 범위내에서 지정된 목적에 꼭 필요한것만큼 쓰는

규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사회주의재정규률의 이러한 요구는 원에 의한 통제를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원에 의한 통제는 공장, 기업소, 기관들의 경영활동을 따져보고 꼭 필요한 자금만을 정확히 공급할뿐아니라 자금리용에 대한 일상적인 통제를 통하여 계획에 예견된 범위에서만 자금을 쓰며 일정한 지출기준에 엄격히 립각하여 지정된 목적에만 자금을 리용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게 한다. 그리하여 자금의 류용과 랑비를 없애고 절약적이며 합리적인 리용을 보장함으로써 재정규률을 철저히 세울수 있게 한다.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또한 국가와 사회 재산을 보호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울수 있게 한다.

국가사회재산을 보호하는것은 사회주의재정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바로 여기에 재정규률을 강화하는 주되는 목적이 있다.

국가와 사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화폐자금의 운동에 대응하는 설비와 물자 재산의 류동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원에 의한 통제는 설비와 물자 재산의 류동에 대한 화폐적 계산과 통제를 옳게 실시함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재산관리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게 한다. 이것은 또한 국가사회재산을 탐오랑비하거나 침해할수 있는 틈을 없앨수 있게 하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재산관리에서 책임성을 높이고 제정된 규률과 질서에 복종하는 기풍을 세울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원에 의한 통제는 국가사회재산을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재정규률을 강화하는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이 재정의 계획적관리를 실현하고 자금의 절약적이며 합리적인 리용을 보장하며 국가사회재산관리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게 함으로써 재정규률을 철저히 확립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규률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제2차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며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히 순천지구전선, 안주지구전선, 청진지구전선, 남포지구전선, 함흥지구전선의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들에서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해서는 있는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을 절약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화폐적공간을 리용하여 물자재산과 기계설비의 리용과정을 옳바로 통제한다면 많은 원료와 자재를 절약할수 있으며 추가적인 투자없이도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그 위력이 비상히 강화된 오늘 공장, 기업소들에서 원료와 자재, 자금을 1%만 절약하여도 방대한 량의 생산예비를 얻을수 있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생산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규률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나라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규률을 철저히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

보다도 모든 일군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것이다.

인민들이 번 돈을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문제는 이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있는 일군들이 어떤 태도와 립장을 가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질 때 그들은 나라의 돈을 한푼이라도 아껴쓰며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게 된다.

모든 일군들은 사회주의재정관리의 주인이 다름아닌 자기자신들이라는것을 깊이 깨닫고 재정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하며 한푼의 돈, 한덩어리의 석탄, 한그람의 기름이라도 절약적으로 가장 효과있게 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일군들은 돈에 대한 인식을 옳바로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돈은 류통수단, 지불수단의 기능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규률을 어기며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산을 애호관리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현상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규률을 철저히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 당의 재정총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단체들에서는 재정예산집행정형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186페지)

당의 재정총화방침은 재정관리를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재정예산집행에 대한 대중적 감독과 통제를 강화할수 있게 함으로써 재정규률을 철저히 세울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단체들에서는 당의 재정총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재정예산집행정형에 대한 총화를 정상화, 제도화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매일 생산계획실행총화와 재정총화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재정규률을 강화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재정총화제도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된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그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옳바른 방법론에 기초하여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국가기관, 재정은행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기관, 기업소들과 위원회, 부를 비롯한 중앙기관들 그리고 재정은행기관 등 재정활동이 진행되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기 임무에 맞게 재정규률을 강화하여야 전반적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갈수 있다.

기관, 기업소들은 일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진행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재정규률을 엄격히 지키고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을 합리적으로, 절약적으로 리용하여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위원회, 부를 비롯한 중앙기관들은 기업소들의 재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 온갖 랑비현상을 없애고 경리운영을 개선하며 국가예산을 바로 집행하도록 지도통제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정은행기관들은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위치

에 있다.

재정은행기관들은 모든 부문,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국가예산을 어김없이 집행하며 국가자금을 바로 쓰도록 굽임없이 통제하고 검열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다. 그러므로 재정은행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모든 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고 사회주의적경리를 옳게 운영하며 국가에서 정한대로 재정을 정확히 관리하도록 통제를 굽임없이 강화하는 것은 국가자금의 효과적리용과 국가예산의 성과적집행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여기에서 은행은 나라의 국고를 책임진 중요한 기관으로서 돈을 발행하고 그 류통을 조직하며 국가자금을 공급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의 전과정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원에 의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은행기관들은 기본건설자금과 류동자금, 생활비자금등 모든 자금을 반드시 기업소의 계획수행률과 생산조건을 따져보고 계획된 범위에서 필요한것만큼만 공급해주어야 하며 재정규정에 어긋나는 돈은 한푼도 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은행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의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재산의 등록, 평가, 감독 사업을 통하여 그 관리 및 리용에서 사회주의적 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기업소들사이에 주고받는 물자의 대금결제과정을 통하여 계획 및 계약 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규률을 철저히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울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며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것을 생활화, 습성화하게 되며 따라서 재정규률도 철저히 서게 된다. 그러므로 당의 방침과 현실의 요구를 옳게 반영하여 재정관리에 관한 법규범과 규정들을 완성하고 대중속에 널리 해설침투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관리분야에서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는 또한 검열감독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검열감독사업을 강화하여야 재정관리사업에서 나타나는 부족점을 제때에 바로잡을수 있으며 원에 의한 통제를 더욱 심화시켜나갈수 있다.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재정통제기관들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검열감독사업을 강화하여 법규범과 규정을 어기고 국가사회재산을 랑비하는 현상과 타협없이 투쟁하여야 한다.

재정규률을 강화하자면 일군들이 우리 당의 재정 정책과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실천활동을 통하여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우리 당의 주체적인 재정정책과 재정사업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재정관리지식을 폭넓게 소유함으로써 재정사업을 당의 의도대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고 재정규률을 엄격히 세움으로써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리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부정부패의 원흉

김 형 룡

최근 전두환역도는 그 무슨 《부정부패의 일소》에 대하여 자주 떠들고 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패심리추방》이요, 《무질서심리추방》이요 하면서 《깨끗한 정치》를 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며 《권력층의 부정부패》가 더이상 발붙일수 없게 하겠다고 떠벌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제놈의 더러운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

전두환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부정부패의 원흉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부정부패행위는 매우 심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14페지)

일반적으로 부정부패행위란 당대사회의 법적기준이나 도덕적규범에 어긋나는 범죄행위로서 그것은 착취사회의 필수적동반물이다.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은 저들의 통치체제와 략탈질서를 합리화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반동적인 법과 규범을 만들어 그것을 근로대중에게 강요한다. 그러나 반동지배층들은 저들이 만들어놓은 형식상의 《법》과 《규범》의 초보적요구마저 무시하고 더 많은 재부를 긁어모으기 위한 부정부패행위를 일삼는다. 그리하여 착취사회에서는 언제나 착취계급과 반동통치배들의 부정부패행위가 성행하게 된다. 특히 제국주의나라들에서 부정부패행위는 극치를 이루고있다.

권력만능, 황금만능의 현대제국주의하에서 부정부패행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만연되고있다. 그것은 정치적《적수》를 음흉한 방법으로 매장시키며 경쟁기업을 파탄시킬뿐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의 부정부패행위는 그들의 식민지에 그대로 옮겨져 더욱 로골적이고 파렴치한것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전두환괴뢰도당에 의하여 감행되고있는 부정부패행위가 바로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전두환역적은 괴뢰대통령감투를 주어쓰기가 바쁘게 《구악의 일소》니 《청렴결백》이니 하고 떠들어왔으나 현실은 그가 선행한 그 어느 괴뢰들보다 더 파렴치하고 악랄한 부정부패의 원흉, 왕초라는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이고 있다.

전두환도당이 괴뢰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은후 남조선에서는 종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놀라운 부정부패행위들이 련이어 감행되고있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1981년이후 오늘까지의 길지 않은 기간에 전두환괴뢰도당이 저지른 부정부패행위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는것이다. 1981년 1월의 《미국쌀부정도입사건》을 비롯하여 같은해 12월의 《식중독룡줄입사건》, 1982년 4월의 《리철희, 장령자부부 어음사기사건》 그리고 뒤이어 《영풍개발공사부정사건》과 《명성그룹부정사건》 등이 남조선에서 꼬리를 물고일어났다. 이밖에도 《저열탄사건》, 《3대은행부정사건》, 《철도청부정사건》 등 수많은 부정부패사건이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놈들이 감행하고있는 부정부패행위의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년간에 드러난 이러한 부정부패행위만 놓고보더라도 그것은 리승만괴뢰도당이나 박정희괴뢰도당때에 비하여 그 건수가 엄청나게 많으며 또 그 규모가 비할바없이 큰것이다.

박정희괴뢰도당때에 드러난 《3분폭리사건》, 《사카린밀수사건》, 《새 나라 자동차사건》, 《워커힐사건》을 비롯한 여러가지 부정부패행위들은 그 규모가 몇십, 몇백만딸라를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두환괴뢰도당이 정권을 가로챈 이후 3년간 남조선에서 일어난 부정부패행위는 십만이나 백만딸라의 규모에서가 아니라 억대의 규모에서 감행된것들이다.

《리철희, 장령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은 그 뚜렷한 실례의 하나이다. 1년 2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무려 7,111억원(약 10억딸라)에 해당하는 어음을 《불법》으로 사채시장에 류통시켜 1,801억원(2억 6,000만딸라)을 사취한 이 사건은 경제령역에서 감행된 전례없는 최대의 부정부패사건이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부정부패행위가 얼마나 큰 규모에서 우심하게 감행되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최근년간에 일어난 어음사기사건들과 각종 사기협잡사건들은 남조선에서의 부정부패행위가 이제는 어느 한 물품의 밀수나 밀매와 같은 크지 않은 거래를 매개로 해서가 아니라 《재벌》의 운명을 건 기본경제활동방식의 하나로 전환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공영토건》, 《영풍개발》, 《명성그룹》 등 대기업과 《재벌》은 부정사건이 드러남과 함께 파산몰락의 운명을 면할수 없었던것이다.

최근년간 남조선에서의 부정부패행위는 전두환괴뢰도당의 직접적인 비호와 조종밑에 감행된것들이였다.

전두환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괴뢰정권을 가로챈 초기부터 부정과 부패 행위를 일삼아왔다.

전두환괴뢰도당은 《5.17폭거》를 단행하여 남조선의 모든 《실권》을 틀어쥐게 되자 곧 부정부패행위에 나섰다. 전두환역적은 이른바 《권력형부정축재자》들을 《처벌》한다는 허울좋은 명목밑에 구정치인들을 체포, 감금하고 그들로부터 2,000억원의 막대한 돈을 빼앗아 그중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나머지 대부분은 제놈의 개인소득으로 사취하였다. 이와 함께 전두환괴뢰도당은 전 괴뢰정권과 특별히 밀착되여있었다고 하는 회사사장족속들을 괴뢰보안사령부 고문실에 끌어다가 위협공갈하여 막대한 돈을 빼앗아냈으며 그 대부분을 제놈의 사유재산으로 만들어버렸다. 뿐만아니라 전두환도당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집권 18년간에 걸쳐 부정축재하여 해외에 도피시킨 막대한 재산을 교활하고 음흉한 수법으로 가로채여 제 주머니에 쓸어넣었다. 전두환역적은 오래동안 치정관계를 맺고있던 박정희놈의 딸년을 구슬리고 전 중앙정보부요원놈을 위협공갈하여 스위스와 홍콩, 미국의 로스안젤스 은행들에 예금시켜놓았던 도피자금 5억딸라의 비밀구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것을 새로운 비밀구좌번호로 바꾸어놓는 방법으로 가로챘으며 대리인을 내세워 경영하던 박정희역도의 부동산까지 제놈의 소유물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전두환괴뢰도당이 군사파쑈적인 강권을 휘둘러 재물을 강탈하기에 얼마나 미쳐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금욕과 물욕에 눈이 뒤집힌 전두환역도는 제놈의 심복들, 일가친척들을 내세워 부정부패행위를 일삼고있다.

남조선사회를 일대 혼란에로 몰아넣은 《리철희, 장령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은 비록 장령자라는 한갖 보잘것없는 년의 손에 의하여 저질러졌지만 사실 그 배후에서 전 민정당 사무총장, 전 괴뢰재무부장관, 전 괴뢰재무부차관 등 수급졸개들이 조종하였으며 그뒤에서 전두환역적의 처삼촌이란자가 실무적인 작간을 하고있었다. 그리고 이자는 제놈의 당조카인 전두환놈의 녀편네를 통하여

전두환괴뢰도당의 지시와 명령을 받았으며 사취금의 철저한 부분을 《정치자금》으로 섬겨바쳤다. 이것은 대형어음사기사건의 범행자로 알려진 장령자는 사실 보잘것없는 하수인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장본인은 다름아닌 전두환괴뢰도당이라는것을 실증하고있다. 그러므로 내외여론이 이 사건을 《리철희, 장령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이 아니라 《전두환, 리순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이라고 부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라고 할수 없다.

1983년 8월에 폭로된 《명성그룹 금융부정사건》도 전두환역도가 제놈의 장인을 내세워 거액의 금액을 가로챈 대형부정사건이다. 전두환역도의 장인놈은 《명성그룹》회장으로 하여금 사채업자들로부터 긁어모은 자금중에서 1,066억 5,800만원(약 1억 4,000만딸라)을 위장사채로 빼돌려 경영자금으로 리용하게 하고 이 과정에 판매액을 루락시키거나 비밀구좌를 만드는 방법으로 탈세행위를 하여 112억 1,300만원(1,400여만딸라)을 가로채먹었다.

《리철희, 장령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이 전두환역도의 처삼촌을 배후조종자로 하여 부정축재한 사건이였다면 《명성그룹》사건은 전두환역도가 장인을 내세워 감행한 부정축재사건이다.

이미 드러난 다른 대형부정부패사건에서도 사정은 매한가지였다.

전두환역적이 자기의 가까운 친척인 전창환을 《가야산업》의 회장자리에 앉히고 감행한 《건설회사부정사건》은 그런 실례의 하나이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 각종 부정부패행위가 썩어빠진 전두환군사파쑈통치의 필수적 동반물인 동시에 전두환괴뢰도당자신이 대형부정사건들의 원흉이며 왕초라는것을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꼬리를 물고일어나고있는 대형부정부패사건들은 매우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고있다.

우선 부정과 부패 풍조를 남조선사회생활전반에 만연시켜 불신과 부정이 판을 치게 하고있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도 맑아지는 법이다. 군사파쑈독재체제하에서 괴뢰우두머리인 전두환역적자신이 부정부패의 원흉으로 되고있으니 남조선사회에서 그밑이 썩을것은 뻔한 일이다. 사실 오늘 남조선에서 부정부패행위는 사회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치고있다.

괴뢰행정부의 장차관, 괴뢰국회의 《국회의원》, 괴뢰법원의 《법관》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밑의 괴뢰공무원, 괴뢰경찰, 괴뢰군장교 등은 물론이고 《관영》기업체, 크고작은 회사, 지어 문화예술, 보건, 교육 기관들에서까지 뢰물, 사기협잡, 부정폭리 등 각종 형태의 부정부패행위가 전례없이 성행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사회는 우로부터 밑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병들고 썩어가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의 부정부패행위는 또한 남조선경제의 혼란과 파탄을 일층 가속화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부정부패행위는 그것이 매우 규모가 큰 경제부정사건이 많은데 중요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큰 규모의 부정사건은 혼란된 경제질서와 은행금융의 문란 등에 뿌리박고있는것이지만 그것은 다시 어음의 정상적류통, 자금의 회전, 기업경영 등에 커다란 충격을 줌으로써 금융뿐아니라 류통과 생산에까지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부정사건이 터지는바람에 《번성》하던 《재벌》이 하루아침에 파산몰락되게 되고 금융시장이 마비되여 자금류통이 동결되고 부패어음사태가 빚어져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등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있다. 《리철희, 장령자부부 어음사기사건》 직후 남조선경제전반에서 일어났던 극심한 혼란상은 그의 일단을 말해준다.

전두환괴뢰도당의 부정부패행위는 경제적혼란을 조성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가일층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어내고있다.

련이어 일어나는 어음부정사건, 금융

부정사건은 관련기업들을 파산몰락케하고 인플레를 심화시킴으로써 실업을 증대시키고있다. 많은 기업들과 은행들이 무더로 파산됨에 따라 수많은 로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과 극소수 착취계급의 재부의 축적과정은 계속되고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빈궁화는 더욱 촉진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부정부패행위와 그것으로 하여 일어나고있는 인민들의 불만은 전두환괴뢰도당과 그를 조종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을 곤경에 몰아넣고있다.

전두환역적은 제놈의 장기집권과 향탁을 위한 수단으로 부정부패행위를 일삼고있다.

전두환역적이 괴뢰정권의 우두머리자리를 유지하고 부귀영화의 밑천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쪽같이 감행하려던 부정부패행위가 세상에 여지없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민족의 배신, 매국노로서뿐아니라 부정부패의 원흉, 왕초로서의 정체를 더는 가리울수 없게 되였다.

지금까지 전두환역도가 감행해온 대형부정부패행위는 미일상전에게 각종 리권,특혜를 보장하고 미일독점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키며 레간놈을 비롯한 미일반동들에게 《정치자금》과 뢰물을 섬겨바치는것과도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다.

미국 언래스커산《식중독통조림사건》, 전두환괴뢰도당이 미국의 협잡군들과 짜고 감행한 《미국쌀부정도입사건》들이 바로 그러한것들이였다.

남조선에서 부정부패의 원흉이 다름아닌 전두환역도라는것이 드러남으로써 전두환괴뢰도당과 그를 비호하고있는 미제와 일본반동들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증오심과 항거의 기운은 더욱 커지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날이 갈수록 반미, 반괴뢰 투쟁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전두환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는 일대 혼란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이 상전을 등에 업고 온갖 부정부패행위를 일삼고있으나 그것으로써는 제놈의 더러운 목숨을 부지해나갈수 없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식민지괴뢰의 멸망은 불가피하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그의 충실한 앞잡이인 전두환괴뢰도당을 철저히 타도하여야 남조선에서 온갖 사회악을 없앨수 있으며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 그날을 앞당길수 있다.

미제의 극동침략전략과 일본의 군국화

정 동 욱

오늘 조선반도를 둘러싼 극동지역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며 새 전쟁, 핵전쟁의 위험성은 날로 증대되고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미제와 일본반동들, 남조선괴뢰도당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기인한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아세아태평양지역 특히 극동지역을 중요시하고있다.

미제는 침략적인 극동전략에 기초하여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며 추종국가와 괴뢰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저들의 침략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반동들도 미제의 극동전략에 편승하여 군국화를 다그치면서 조선반도에서 미제의 《대리전쟁》을 하기 위한 길에 공공연히 나서고있다.

오늘 극동지역에서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새 전쟁도발 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 앞에 나서고있는 절박한 과제로 된다.

(1)

미제의 극동침략전략은 놈들의 세계제패전략의 중요한 고리이다.

미제는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는데서 극동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미제의 극동침략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을 군사전략적거점으로 삼고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며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반동들을 저들의 《돌격대》로 내세워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전조선과 아세아대륙,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해보려는데 있다.

미제가 극동지역을 중요시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극동지역이 세계의 다른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저들에게 유리한 전략적지대라고 보고있는데 있다.

극동과 아세아 지역은 방대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가지고있고 넓은 시장을 이루고있다.

미제는 이 지역의 경제적의의를 크게 보면서 이 지역을 침략과 략탈의 주요대상으로 삼고있다.

지금 남조선과 일본은 미제의 주요상품시장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태평양지역에 대한 무역액은 서구라파에 대한 미국의 무역액을 릉가하고있으며 1982년에는 그것이 130억딸라나 더 많았다.

그리고 미제는 일본을 첨단기술의 중요한 제공자로, 앞으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데 필요한 《동맹자》로 리용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극동지역을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을 가진 지역으로 여기고 있다.

극동지역에는 미제가 정치경제적으로 뿐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지배하고 통제하는 남조선과 미제의 종속적인 손아래 동맹자인 일본이 있다.

미제는 정치경제적인 문제뿐아니라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남조선과 일본에 지시하고 요구할수 있으며 남조선을 전초기지로 하고 일본을 전방기지로 하여 새로운 핵전쟁까지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보장받고있다.

미제는 바로 이러한 전략적유리성으로부터 극동지역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것이다.

미제가 극동지역을 중요시하는것은 또한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반동들을

전조선과 아세아대륙에 대한 침략전쟁의 교두보로 내세우는 문제가 《성숙》되였다고 타산하고 있다.

괴뢰도당은 상전인 미제에게 남조선에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마그리 섬겨바치고있다. 그리고 날로 격화되고있는 저놈들의 파쑈통치체제의 전면적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찾아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방대한 경제적잠재력과 풍부한 침략전쟁경험을 리용하여 미제의 《대리전쟁》을 담당수행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저들의 하수인과 대리인들을 내세워 단기전과 장기전, 상용무기전쟁과 핵전쟁 등을 감행할수 있는것이 극동뿐이라고 타산하고있다. 한편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반동들은 지금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저들의 《힘》의 부족을 느끼고 《대리전쟁》의 담당자를 찾고있는 미제의 교활한 야망에 편승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미제호전광들은 바로 이러한 군사전략적견지로부터 극동지역을 저들의 침략목적을 쉽게 실현하는데서 구라파나 중동지역보다 더 유리하고 중요한 지역이라고 서슴없이 떠벌이고있는것이다.

미제가 극동지역을 중요시하는것은 또한 서구라파나라들이 자기의 《지휘봉》에 잘 따르려고 하지 않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제패전략수행에서 난관이 조성되고있는것과도 관련되여있다.

지금 서구라파나라들은 《구라파화》를 지향하면서 미국에 대한 상대적독자성을 요구해나서고있다.

서구라파나라들은 지난날처럼 미제의 《지휘봉》에 잘 따르려 하지 않고있으며 많은 문제에서 미제와 의견 대립과 충돌을 일으키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는것이다.

궁지에 빠진 미제는 극동지역을 중요시하는데로 나아가고있다.

최근 미제는 저들의 대외침략정책과 군사전략에서 종전의 《구라파중심주의》를 태평양 특히 극동지역을 중시하는데로 정책적《방향전환》을 하고있다.

미제가 극동지역을 중요시하는것은 결코 놈들이 추구하는 세계제패야망의 근본적인 변경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전략상에서의 《수정》과 보충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그리고 미제가 력사적으로 감행해온 침략적인 대조선, 대극동전략의 연장에 불과한것이다.

미제의 극동침략전략에서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는것은 조선반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전략적거점으로 하여 전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고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97페지)

미제가 극동전략에서 조선반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는것은 놈들의 극동전략에서 조선반도가 차지하고있는 전략적지위의 중요성과 관련되여있다.

조선반도는 극동지역의 중심에 놓여있고 아세아대륙의 관문으로 되고있다. 그리고 지하자원도 많다. 더우기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의 동방초소인것이다.

이로부터 미제는 《세계를 지배하려는자는 아세아대륙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되며 아세아대륙을 제압하려는자는 조선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폭언하면서 조선반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강도적 론리와 침략야망밑에 력사적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을 감행해왔던것이다.

미제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얼마

나 악랄하게 책동하였는가 하는것은 근 150년에 걸친 놈들의 조선침략의 력사가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제는 이미 1845년에 미국국회에서 침략적인 《조선개방안》을 토의한 때로부터 20세기초까지만 하여도 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직접적인 《포함외교》를 감행하였고 제국주의렬강들과 치렬한 각축전을 벌리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는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였을뿐아니라 전조선을 먹어보려고 1950년에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특히 력대미국통치배들중에서 가장 호전광인 레간은 《현세기의 나머지 기간에는 동아세아가 세계의 초점》으로 된다고 떠벌이면서 조선반도를 미국의 《사활적인 리해관계지역》으로 선포하고 우리 공화국에 침략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미제의 극동침략전략의 주요내용은 또한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직접적인 《힘의 대결》을 추구하고있는것이다.

미제는 조선반도를 구라파와 중근동과 함께 《다발보복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침략전쟁도발예정지로 설정한 《3대전역지대》의 하나로 삼고있다. 미제는 극동지역을 《1980년대의 힘의 대결을 위한 시험장》으로 공공연히 선포하고있다.

미제가 극동지역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증강하고 핵무기와 미싸일을 배비하면서 《선제타격》을 예상한 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으며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반동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전조선과 아세아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공동작전을 감행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은 바로 그것을 잘 말해준다.

미제의 극동침략전략은 이렇듯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들에게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들씌우기 위한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있으며 일본《자위대》와 남조선괴뢰군을 값싼 대포밥으로, 《대리전쟁》의 담당자로 내세워 제놈들의 침략야망을 손쉽게 실현하고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교활한 침략적인 전쟁계획인것이다.

미제는 지금 침략적인 극동전략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면서 남조선을 전쟁발화점으로 삼고 새 조선전쟁과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여기에서 미제가 당면한 전략목표로 내세우고있는것은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반동들을 군사적으로 밀접히 결탁시키고 일본반동들을 부추겨 일본의 군국화를 하루빨리 실현시키는것이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일본반동들에게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대륙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열어주는것으로 된다.

(2)

미제국주의자들은 극동침략전략에 따라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시켜 일본의 군국화를 다그치게 하고있다.

일본에 대한 미제의 정책은 일본반동들에게 일본의 군국화를 실현하게 하는 실제적인 담보와 구실을 마련해주고 있다.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후 국제정세와 일본안에서의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본군국주의를 계단식으로 되살리는 범죄적인 행위를 감행하였다.

최근년간에 이르러 놈들은 일본반동들에게 대대적인 군비확장과 3각군사동맹조작, 공동군사작전과 주일미군유지비의 부담 등을 로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요구에 전면적으로 순응하면서 그에 편승하여 일본의 군국화를 적극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

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망상하면서 국내체제의 파쑈화를 다그치고있으며 해외침략의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 26페지)

일본반동들이 미제를 등에 업고 군국화를 다그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데 있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범죄적인 책동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원래 큰 나라를 등에 업고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는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적으로 감행해온 상투적수법이다.

일본의 근대력사는 그러한 사실들로 가득차있다.

1867년에 일본반동의 우두머리인 도꾸가와 요시노브라는자는 미국대통령에게 <조선반도에 미국기발이 휘날리게 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모략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1874년에는 일본반동들이 미제로부터 8,000만발의 총탄을 받아가지고 대만을 무력침공하였다가 참패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미제를 비롯한 렬강들에 의거하여 중국반동정부로부터 50만냥의 배상금을 받음으로써 미제를 등에 업고 침략을 감행하여 <횡재>하는 맛을 보기도 하였다. 일제는 1905년에 맺은 <가쯔라—타프트협정>, 제2차<영일동맹협약>, <포츠마스강화조약>에 기초하여 제국주의렬강들과 공모하여 온갖 모략책동을 다하다가 끝내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 모든 사실은 큰 나라를 등에 업고 해외침략을 감행하는것이 바로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침략수법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미제를 등에 업고 침략의 길에 나서고있는것은 팽창될대로 팽창된 일본독점자본이 현 경제위기와 원료난, 시장난으로부터의 출로를 해외침략에서 찾으려고 하는것과도 관련된다.

미제의 침략적인 극동전략과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야망에 따라 지금 일본에서는 <군사대국화>가 급속히 추진되고있다.

일본의 군국화는 철두철미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요와 조종 밑에 다그쳐지고있다.

그것은 미제의 요구에 따라 일본의 이른바 <방위전략>이 변경되고있는데서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반동들에게 자기의 <대리전쟁>을 담당수행하도록 군사전략과 전략목표를 세우게 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요구에 따라 전적으로 <방어>를 위하여 작성되였던 종전의 <전수방위전략>을 공격적인 침략전쟁을 위한 <선제타격전략>과 <적극적인 대응전략>으로 바꾸어놓았다. 또한 일본<자위대>의 군사작전지역을 극동과 아세아태평양 지역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일본의 <불침항공모함화>와 4개 해협의 봉쇄, 1,000마일<해상교통로방위>의 침략적인 3대전략목표를 내놓고있다.

그리고 지난날 일본의 북부지역에 군사력을 많이 배비하던 <1정면전략>을 북부지역과 함께 우리 나라에 가까운 서남부지역에도 군사력을 증강하는 <2정면전략>으로 변경시켰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책동은 바로 일본<자위대>가 미제의 <대리전쟁>을 담당수행하려는 단계에까지 나가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일본의 군국화가 미제의 조종밑에 추진되고있는것은 또한 미제의 요구대로 일본무력을 조선반도에 예봉을 돌리게 배비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미제는 저들이 극동전략의 예봉을 조선반도에 돌리고있는것처럼 일본의 <자위대>무력도 그렇게 배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에 따라 일본반동들은 지금 일본의

서남부지역에 륙해공군무력을 배비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다.

일본반동들은 구마모도에 있는 륙상《자위대》의 제4사단의 병력을 7,000명으로부터 9,000명으로 늘이고 조선반도에 가장 가까운 쯔시마에도 련대규모의 무력을 새로 배치하고있다. 우리 나라 동부일대를 작전지역으로 삼고있는 비행장인 쯔이기기지와 뉴다바루기지를 확장하고 새로 도입한 《에프15》전투기들을 배비하였다. 그리고 해상《자위대》인 사세보방면대를 증강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의 극동전략의 요구에 따라 일본무력의 예봉이 조선반도에로 공격적으로 돌려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또한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따라 군사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함으로써 군국화를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일본을 《군사대국화》하기 위하여 해마다 군사비를 대폭 증가하고있다. 1970년에만 하여도 15억 8,000만딸라에 지나지 않던 군사비가 1984년에는 무려 125억딸라로 급격히 증가되였다.

일본반동들은 또한 5차무력증강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이른바 《새 방위력정비구상》에 기초하여 만든 6개년무력증강계획을 수행함으로써 《군사대국화》를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침략적인 6개년무력증강계획에서는 보병사단을 13개로부터 17개로, 호위함을 60척으로부터 90척으로, 《에프15》전투기는 138대로부터 175대로 각각 늘일것을 예견하고있다.

이러한 침략적인 무력증강계획이 실현되면 일본은 독자적인 《선제타격능력》과 《전쟁지속능력》, 《미국과 작전을 분담하여 수행할수 있는 전투능력》을 가진 《군사대국》으로 될것이다.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야망은 미제가 도발하는 지역전쟁과 세계전쟁에 가담하거나 단독적으로 지역전쟁을 치를수 있는 군사력을 준비함으로써 조선과 아세아대륙에 대한 흉악한 침략목적을 추구하고있는것이다.

(3)

미제의 극동전략에 따라 진행되고있는 미일남조선사이의 군사적결탁과 전쟁도발책동은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고있다.

미일남조선사이의 군사적공모결탁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제의 침략적인 세계전략과 극동전략의 중요한 한 고리이며 미제와 그 손아래동맹자, 괴뢰들사이에 맺어진 종속관계의 력사적산물이다.

미제는 반제혁명력량과의 《힘의 대결》정책수행에서 나타나고있는 《힘》의 부족과 《공백》을 자기의 종속국가들과 괴뢰들을 결탁시키는 방법으로 보충하고 메꾸어보려고 꾀하고있다.

미일남조선사이의 군사적공모결탁은 전쟁의 방법으로 지금 겪고있는 정치경제적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찾으려는 그들의 리해관계의 공통성과 관련되여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종밑에 미일남조선사이의 침략적인 공모결탁은 현실화되고있는것이다.

미제와 일본반동들, 남조선괴뢰들사이의 공모결탁은 그 우두머리들의 호전적인 기질에 의하여서도 적극 추진되고있다.

미제의 우두머리 레간은 그 어느 선임자들보다도 가장 호전적인 전쟁광신자이고 나까소네는 교활한 군국주의자이며 전두환역도는 동족살륙에 이골이 난 인간백정이고 군사깡패이다. 이러한 호전분자들이 공모하여 꾸며내는것이란 오직 전쟁을 위한 음모와 모략 밖에 있을수 없다는것은 불을 보듯이 명백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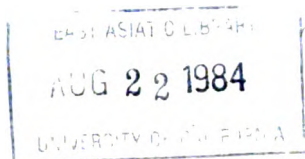
미일남조선사이의 군사적공모결탁은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에서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호

평 양 근로자사 1984

제 6 호(506)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작가, 연출가들과 한 담화
1970년 6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 정 일

최근 영화부문의 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좋은 영화들을 여러편 만들었습니다.

올해에 만든 예술영화 《안해의 일터》와 《처녀리발사》도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제때에 옳게 들고나온 작품들입니다. 이 영화들은 우리 당이 내놓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영화를 창작하는 사업은 아직도 우리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있습니다. 영화부문의 작가, 예술인들이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우리 당의 력사적위업 수행에 더 잘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혁명적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하며 그 사상예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나는 오늘 영화부문의 작가, 연출가들이 모인 기회에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혁명적영화창작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의의가 있는 문제를 들고나와야 한다

문학과 예술의 중요한 사명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데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력사적과업입니다. 착취계급이 청산된 다음에도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뿌리빼지 않고서는 혁명을 계속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제때에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습니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려면 무엇보다먼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제기되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들고나와야 하며 그에 옳바른 해답을 주어야 합니다.

창작가들이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틀어잡자면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으로 무장하고 당정책의 견지에서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혁명적방침을 적극 옹호하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옳바르게 풀려면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정확히 알고 당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당의 사상과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고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리해할수 없으며 따라서 당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아무런 기여도 할수 없습니다.

지금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에 나간다고는 하지만 공장과 농촌에서, 도시와 마을에서 벌어지고있는 위대한 혁명적변혁과정을 깊이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서 사회적의의가 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민감하게 포착하여 작품에 제기하지 못하고있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잘 모르는데 그 원인이 있는것입니다. 사실 어떤 작품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훌륭한 혁명가, 애국자의 본보기로 되는 원형에 기초하여 형상을 창조하였지만 그 성격도 생활도 현실에서 보고 듣는것보다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창작에서 왜 이런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창작가들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변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하고 우리 시대에 자라나는 공산주의적인간들의 성격에서 새로운 특질들을 똑바로 보지 못하기때문입니다. 이런데로부터 작품에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할수 없고 새롭고 아름다우며 혁명적인 인간전형을 그려낼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창작가들이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실에 나가서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 보다 깊은 관심을 돌린다면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생활속에서 얼마든지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찾아낼수 있을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모든 사회성원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교양개조하지 않고서는 건설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

를 철저히 극복하고 그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꾸준한 사상교양과 심각한 사상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수 있습니다. 예술작품에서 그려야 할 심각한 극은 바로 이러한 생활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시기 창작가들이 현실에 나가서 관심을 돌려야 할 절실한 문제들이란 어떤것들이겠습니까?

사람들을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의 가슴속에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깊이있게 심어주는것입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응당 여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심을 키워주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감동깊게 형상하여야 합니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심은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고상한 풍모를 이루는 기본징표입니다. 충성심은 공산주의적세계관에 기초한 확고한 신념으로 될 때에만 진실한것으로 되며 그러한 충성심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것으로 되는것입니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심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여야 합니다.

창작가들이 현실에 나가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면서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간다면 혁명하는 우리 시대에 가장 보람있게 산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심은 어떻게 간직되고 표현되여야 하는가 하는 의의있는 문제들을 풀라잡을수 있을것입니다. 이런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작품에 제기하고 풀어야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실지 도움을 주게 되는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누구나 다해야 합니다. 완성된 공산주의자란 없습니다. 지난날 혁명투쟁을 잘하고 실천을 통하여 단련된 사람이라고 하여도 계속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 성실히 참가하면서 부단히 사상수양을 쌓지 않으면 전진하는 대오에서 뒤떨어지게 될수 있고 변질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나가자면 로동계급도 혁명화해야 합니다. 그가 로동자라고 하여도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여나가지 않으면 자기 계급의 근본을 잊어버릴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변질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문제를 이런 각도에서 보고 구체적으로 심화해나가면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나서는 절실하고 가치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창작가들이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는 작품을 쓰려면 근로자들의 생활을 당정책적견지에서 분석하고 문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을 혁명화하는것은 결국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가셔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주어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운다는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발로되는 개인주의, 리기주의, 보수주의, 소극성과 같은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들을 예리하게 보

고 혁명화의 각도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 창작가들은 이런 측면에서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관점과 안목이 예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예술영화 《꽃피는 마을》의 작업필림을 보고도 이야기하였지만 어떤 작가, 연출가들은 현실생활에서 사회적문제를 잡느라고 하지만 그것을 당정책적견지에서 보지 못하기때문에 문제를 세우는 각도에서 당적요구와는 거리가 멀게 되는것입니다.

《꽃피는 마을》도 농민들의 혁명화를 위한 투쟁에서 종자를 잡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가치있는 작품으로 될수 있습니다. 사회적문제를 잡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결함이나 찾아내고 거기에만 매달리려 해서는 안됩니다.

창작가들은 종자를 잡을 때 먼저 그 종자를 가지고 창작한 작품이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영향을 미치겠는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정치적성격을 똑똑히 보지 못하고 현실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비본질적인 현상에 매달리면 생활을 외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활에서 문제를 골라잡을 때에는 반드시 사회적본질을 체현하고있는 전형적인 문제를 쥐여야 합니다.

예술에서 전형적인것은 사회적본질을 체현하고있는것이며 그것은 언제나 정치적인것에서 예리하게 드러납니다. 창작가들은 문학예술에서 전형성에 관한 문제가 예술적인 문제이기전에 정치적인 문제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작가가 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몸바쳐나서도록 이끌어주려면 생활을 정치적견지에서 보고 사회적본질을 체현하고있는 전형적인 문제를 들고나와야 합니다.

작품에서 사회적문제를 잡을 때에는 현실생활의 요구와 교양적목적에 맞게 잡는것이 중요합니다.

작품에서는 사람들의 혁명화에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는 큰 문제도 설정할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상으로 밝혀낼수 있는 문제여야 합니다.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내세운다고 하면서 작품에서 형상으로 실현할수 없는 그 어떤 정치적문제를 내세우고 생경하게 로출시킨다면 사람들을 감동시킬수 없습니다.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에서는 사람들의 혁명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느 한 측면씩 제기하고 심화시키는것이 좋습니다.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는 얼마나 큰 문제를 제기하였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의있는 문제를 깊이있게 풀어내였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하면 먼저 자신을 혁명화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가정을 혁명화하고 분조와 작업반을 혁명화하며 나아가서 직장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한 측면씩 잡아 깊이있게 밝혀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중한 국가 설비와 자재들이 눈비에 맞아 못쓰게 되고있는것을 보고도 가슴아파하지 않고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생활도 혁명화의 각도에서 잘 의의있게 그려낸다면 사람들의 혁명교양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것입니다.

사람들의 혁명화에 이바지하는 작품을 쓰려면 문제를 정확히 잡아야 할뿐아니라 그것을 당정책에 맞게 잘 풀어야 합니다.

창작가들이 현실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의의있는 문제를 잡았다고 하여도 그것을 당정책에 맞게 잘 풀지 못하면 창작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최근에 내놓은 영화문학작품들을 보아도 종자는 좋은데 그것을 당정책에 맞게 잘 가공하지 못하여 설익은 작품으로 되게 한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한 로동일가의 혁명화문제를 취급한 작품이라든지, 녀성들의 혁명화문제를 취급한 작품 같은것을 놓고나온 문제는 다 생신하고 좋은것들입니다. 그런데 창작가들이 그것을 당정책에 맞게 잘 풀지 못하고있습니다.

창작가들은 언제나 당정책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뿐아니라 그것을 당정책에 맞게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와 생활의 물음에 옳바른 해답을 주는 좋은 작품을 내놓을수 있습니다.

창작가들이 오늘의 로동자가정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실천투쟁에서 단련된 사회주의건설자로서의 그들의 고상한 정신적풍모와 보람찬 생활을 파악하는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있으며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가고있습니다. 작가들이 우리 시대 근로자들의 이러한 새로운 성격을 보지 못하면 일부 로동자들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현상들을 일면적으로 과장하게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혁명화과정은 심각한 사상투쟁을 통하여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인 동시에 생활환경이나 사업조건도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변혁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창작가들은 우리 당이 앞으로 전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것을 벌써 다 실현한것처럼 그려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활을 창조하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고 그저 행복한 생활환경만 그려서는 행복한 생활의 의의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합니다. 행복한 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창조적투쟁속에서 마련되며 바로 그 투쟁에 참가하여 몸바쳐일하는데 혁명의 주인으로 된 사람들의 영예와 보람이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이 혁명화문제를 취급하려면 응당 오늘의 사회력사적조건에 맞게 새로운 관점에서 생활을 보고 그 생활이 제기하는 문제를 깊이있게 밝혀내야 합니다.

언제나 당정책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당정책에 맞게 풀어나가는

창작가만이 우리 당이 내놓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을 실현하는데 진실로 도움을 주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혁명화과정을 깊이 있게 그려야 한다

사회주의현실을 문학예술작품에 반영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이 자신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나가는 과정, 다시말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나가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입니다.

《붉은 선동원》을 만들던 때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방침에 따라 벌써 인간개조사업이 전군중적운동으로 진행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상혁명이 더욱 심화되여 혁명화투쟁이 가정과 인민반, 마을에까지 깊이 들어가는 단계이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응당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 생활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본보기들을 생동하게 그려내야 할것입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자신을 혁명화해나가는 새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해나가는 새시대의 인간전형을 창조한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마음만 먹고 이악하게 달라붙으면 주인공처럼 능히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도록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업도 생활을 보다 새롭고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사람들의 리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리상에 맞게 개조되고 발전된 새로운 생활은 다시 인간에게 작용하여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면서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해나가게 됩니다.

자연개조, 사회개조가 아무리 거창한 규모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인간의 개조로부터 시작되며 그 결과도 인간의 개조에 귀착됩니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인간개조를 기본으로 하여 생활의 발전과정을 깊이 인식하고 옳바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사람들의 개조과정을 깊이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본보기로 되는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을 잘 그려내는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며 행동하는 긍정적주인공의 모습을 감명깊게 그려내면 뒤떨어진 사람들이 그에 비추어보면서 자신의 혁명화과정을 더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학예술에는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의무를 깊이 자각하고 투쟁속에서 당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단련해나가는 사

람들의 모습을 생동한 생활자료를 가지고 깊이있게 형상해낸 작품들이 많지 못합니다. 당과 혁명이 부르는곳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초소라도 서슴없이 뛰여드는 인간들, 남이 보건말건, 누가 알아주건말건 오직 당을 믿고 한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깊이있게 그려낸다면 그것이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 얼마나 좋은 교재로 되겠습니까.

사실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견결하게 살며 싸워나가는 사람들, 혁명화의 좋은 본보기로 되는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쇠돌을 캐거나 쇠물을 뽑는 로동자들속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농민들속에도 있고 인테리들속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고 사상의식을 개조해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뿐아니라 자신의 사회정치생활을 개척하며 정치적생명을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성실하게 살며 싸워나가고있는것입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에 깊이 들어가서 근로자들의 혁명화의 본보기로 될수 있는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전형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그려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학예술에는 이런 새형의 인간전형을 깊이있게 그린 작품들이 많지 못하며 또 그리는 경우에도 부정에 비하여 긍정을 미약하게 그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도 어디까지나 긍정적모범을 더 많이 내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본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낡은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목적은 그들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하여 공산주의사회에까지 데리고가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본보기로 될수 있는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전형을 내세우고 사람들이 그 기준에서 자기를 돌이켜보고 따라가기 위하여 노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동무들이 영화로 만들려고 하는 《사과딸 때》에도 결함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긍정적주인공은 아직 자기의 사상적대를 확고히 세우지 못하고있으며 부정과의 투쟁에서도 견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주인공의 새로운 발기를 적극 지지하여나서야 할 사로청원들의 형상이 응당하게 강조되지 못하였습니다.

작품이 새시대의 새로운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는것만큼 사로청조직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들의 성격을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당이나 근로단체에 들어서 조직이 주는 분공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도 자기의 창조적발기를 끝까지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로청조직에 의거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조직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사로청조직선을 의의있게 잘 그려야 작품의 정치사상성도 더욱 높일수 있고

현재 약하게 그려져있는 긍정의 역할도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우리 시대 청년들의 성격에서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있는 혁명적조직성을 뚜렷하게 살려낼수 있습니다.

작품에서 긍정의 대를 튼튼히 세우고 그 힘을 두드러지게 살려내기 위해서는 조직의 역할을 잘 그리는것과 함께 온갖 낡은것에 대한 긍정인물들의 비판정신을 높여야 합니다.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온갖 불건전한것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징표의 하나로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양육성된 새 인간들의 고상한 품성의 한 측면을 이룹니다.

《사과딸 때》의 주인공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자라난 새세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들은 쾌활하고 락천적이며 난관앞에서 굴할줄 모르는 강의한 의지를 지닌 생기발랄한 성격의 소유자들이며 자신의 헌신적인 노력과 꾸준한 수양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뿐아니라 부정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뒤떨어진 사람들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교양개조하여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키워내는 참다운 인간개조자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성격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의 형상에서도 우리 시대에 자라난 새 인간들의 이러한 전형적인 성격이 생동하게 살아나게 되여야 합니다.

사과가 썩는것을 가슴아파하며 나라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주인공이 사람의 사상이 병들어가고있는것을 보고 소극적으로 몇마디 말이나 해주어서는 그의 형상이 관중의 마음을 뜨겁게 공감시킬수 없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현상은 사회주의사회에 있을수 있는 부정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속에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의식적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부정인물은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 있는 부정인물은 주관적으로는 당의 정책을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여나가려고 하지만 습성화된 개인주의, 리기주의, 주관주의, 요령주의, 보수주의, 소극성과 같은 낡은 사상 잔재때문에 사업과 생활에서 과오를 범하며 결국 시대의 발전에 미처 자기를 따라세우지 못하고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병집을 제때에 고쳐주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들자신을 망치게 할뿐아니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다그쳐나가는데 큰 장애를 조성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정이 비록 자그마한것이라고 하더라도 드러내놓고 날카롭게 비판하여야 합니다.

낡은 사상에 대한 비판은 본질에 있어서 자본주의사상에 대한 비판이기때문에 언제나 비타협적이고 견결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비타협성, 견결성, 철저성, 이것은 사상투쟁의 원칙적요구입니다. 물론 대상과 내용에 따라 비판의 형식과 방법은 여러가지로 다를수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나 비판은 부정의 사상적본질을 예리하게 분석평가하고 시정방도를 가르쳐주는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비판에서 목표가 똑똑치 않고 그 내용이 투철하고 예리하지 못하면 예술작품

이 사상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없습니다. 비판이 사상투쟁의 무기, 혁명화의 무기로 되려면 대상을 똑바로 찍어야 하며 대상이 가지고있는 낡은 사상을 겨눈데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여야 합니다.

비판은 정치성의 표현일뿐아니라 인간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비판은 동지의 결함을 자기 허물처럼 아파하고 그를 옳은 생활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애쓰는 높은 인간성에서만 나올수 있습니다.

부정적현상을 깊이있고 날카롭게 비판하려면 낡은 생활에 기초하고있는 그 사상적근원을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따라서 비판은 계급교양의 요구에 맞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현실생활을 담는 작품들에서 계급교양의 내용을 안받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알게 함으로써 그에 기초하고있는 낡은 사상 잔재가 얼마나 해독적이고 위험한것인가를 깊이 인식시키려는데 주요한 목적의 하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의 처지와 끝없는 행복과 희망찬 래일이 약속되여있는 오늘의 처지를 대비하여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습니다.

계급교양은 대상의 특성에 맞게, 생활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여야 합니다. 계급교양을 한다고 하여 억지로 그 내용을 가져다붙여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창작가들이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기만 하면 계급교양을 할수 있는 생활계기들을 얼마든지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나가는 과정은 본질에 있어서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의 탄생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에서 사람들의 혁명화과정을 깊이있게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부정의 개변과정을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정인물의 형상은 개조과정과 개변된 이후의 생활을 잘 그려주어야 진실해지고 교양적의의도 커집니다. 부정의 개조과정을 한두번 비판을 받은 다음에 인차 개변되여 일을 잘하는 식으로 쉽게 처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창작가들속에는 일반적으로 부정을 쉽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작가들은 흔히 부정인물이 자기 일을 몰래 대신해주는 주인공의 행동에서 감동을 받거나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을 엿듣는것으로 개변의 계기를 도식화하고있습니다.

부정인물마다 그가 락후하게 된 생활동기가 다르고 또 행동표현도 같지 않은데 고쳐나가는 과정이 어찌 꼭 같을수 있겠습니까. 부정의 개변과정을 생활에서와 같이 여러모로 진실하게 그려내야 사람들이 그에 자기를 비추어보면서 교훈을 찾

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제외한 부정들은 다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까지 데리고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술작품에서 부정인물이 개변된 다음의 생활을 잘 그리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회와 집단의 도움을 받고 실천투쟁속에서 갱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성격과 건전한 생활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혁명화야말로 인간의 정치적생명을 진정으로 빛내이게 하는 참다운 생활의 길이라는것을 생동하게 느낄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개조과정을 보여주는데서 그들의 사상생활에서 일어난 새로운 전변을 잘 그리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이 혁명화되여 점차 공동로동과 집단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면서 동시에 가정과 직장, 인민반과 마을이 혁명화되여가는 모습도 잘 그려야 합니다.

부정인물들의 형상에서는 그들과 집단과의 관계를 똑바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저절로 새로운 혁명의식을 가지는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혁명의식은 공동로동이나 집단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실천투쟁을 벌려나가면서 꾸준히 사상수양을 쌓아나가는 과정에 점차 자라나서 확고하게 박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회생활과 공동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 때에만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새로운 인간으로 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인간을 개조한다는것은 곧 그의 사상의식을 개조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인물의 개조과정도 그에게서 개인리기주의가 없어지고 집단과 공동소유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사상의식의 발전과정을 진실하게 그릴 때에만 새로운 인간으로 자라나는 그의 모습을 설득력있게 보여줄수 있습니다.

《꽃피는 마을》에 그려진 영삼로인의 성격은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아직 일관성이 약합니다. 터밭을 가꾸는데만 정신이 팔려있던 그는 둘째아들이 뜨락또르를 잘못몰아서 랭상모판문짝들을 짓부셔놓았다고 할 때에도 공동재산에 손해를 주고 농사일에 지장을 주게 되였다는 생각보다 변상할 걱정부터 합니다. 그리고 놀고있는 집재목을 유치원어린이들의 놀이터를 꾸리는데 쓰자고 말하는 맏아들에게 부자간에도 네것내것이 있는 법인데 하물며 조합물건과 내 집 물건을 뒤섞을수 있느냐고 내놓고 말할 정도로 리기주의의 뿌리가 깊습니다. 이런것들은 그의 성격에 알맞는 매우 생동한 생활적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집단로동과 공동생활에 참가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영삼로인의 새로운 생활리념과 심리를 보여주는데서는 아직 부족점이 있습니다.

예술작품에서는 낡은 사상에 물젖은 사람들의 행동을 생동한 개성으로 보여주는데만 그칠것이 아니라 그가 조직과 집단의 방조밑에 어떻게 낡은 사고방식과 오유를 고치고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되여 새생활을 창조하고있는가를 깊이있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꽃피는 마을》에서 유치원놀이터를 꾸리는데 쓸 재목과 결부된 이야기 같은것은 하나의 형상으로 완결시켜놓아야 합니다. 농장청년들이 달구지에 실어놓은 재목을 끌어내린 영삼로인이였던만큼 개조된 뒤에는 그 자신이 재목을 맞들어 실어주며 유치원으로 어서 가져가라고 독촉하게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 하나의 계기를 잡았으면 그것을 끝까지 심화시켜 하나의 의의있는 문제를 밝혀내는 형상으로 완결시켜놓아야 성격을 뚜렷이 살릴수 있고 그 형상이 교양적가치도 있게 됩니다.

부정인물의 그릇된 행동은 그가 사상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데서 나오는것만큼 개변된 뒤의 생활과의 대조에서나 긍정인물들과의 대비에서 그 본질이 뚜렷이 드러나게 그려야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수 있는것입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생활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신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해나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혁명화과정을 더욱 생동하게 형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시대정신을 옳게 구현하여야 한다

그 어떤 문학예술도 시대와 사회제도를 떠나서는 인간을 시대의 전형으로 그릴수 없으며 력사발전의 본질이 체현된 전형적인 생활을 담을수 없습니다. 인간과 생활을 시대와 사회제도와의 관계속에서 그린 문학예술작품만이 진실로 사실주의적인것으로 될수 있으며 시대와 생활의 참다운 거울로 될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제도가 달라지면 사람도 생활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의 로동자, 농민은 그전날의 로동자, 농민과 다르고 그들의 생활도 그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지 않은 문학예술작품들에서는 사회주의현실을 오늘의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원만하게 보여주지 못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창작가들이 아직도 오늘의 시대정신을 심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시대정신은 시대와 생활의 기본지향을 반영합니다. 우리 시대는 혁명하는 시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가는 보람찬 혁명의 시대입니다. 우리 인민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세대에 미제침략자들을 남녘땅에서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조선혁명의 완성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습니다.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는 우리 인민의 이러한 투쟁정신은 그대로 우리 시대의 지향으로 되고있습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시대정신을 옳게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속에 들어가서 생활이 제기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잡고 그것을 시대의 지향에 맞게 그려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체현하고있는 전형적인 생활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창작가들이 인민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천리마의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는 혁명적현실을 따라갈수 없으며 벅찬 새생활의 기상을 노래할수 없습니다.

얼마전에 창작가들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제기한 연출대본 《녀자뜨락또르운전수》를 놓고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여봅시다.

이 작품의 창작가들은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고있는 새로운 사변들을 깊이 연구하고 체험하지 못한데로부터 당의 부름을 받들고 농촌에 진출한 처녀뜨락또르운전수의 생활을 그리면서도 그것을 오늘의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옳게 그리지 못하고있습니다.

창작가들이 농촌에 진출한 청년들의 생활을 옳게 그리려면 새세대들을 농촌에 진출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똑바로 알아야 하며 당의 호소를 받들고 농촌으로 나간 젊은이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뜨겁게 체험하여야 합니다.

당이 오늘 청년들을 농촌에로 부르는것은 사회주의농촌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며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도록 농촌진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녀자뜨락또르운전수》에서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농촌으로 진출한 처녀뜨락또르운전수의 보람찬 생활을 줄기차게 그려나가면서 그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줄 대신에 그를 며느리로 삼으려고 애쓰는 분조장의 우스운 행동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돌려지고있습니다.

창작가들은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인 뜨락또르운전수를 주인공으로 내세운것만큼 응당 그의 생활을 오늘의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그려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그가 사회주의농촌의 주인으로서 분조장과 같은 뒤떨어진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특히 농촌청년들을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나서도록 하며 그들을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게 준비시켜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모든것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주인공의 사상적지향으로 보아 어느 이야기줄거리가 주되는것으로 되여야 하겠는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주인공이 왜 농촌으로 자원하여왔습니까? 모범로동자의 딸인 그는 로동계급속에서 자라나면서 어려서부터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주인공은 청년들을 농촌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는 보람찬 투쟁에 청춘을 바치려는 일념으로 학교를 졸업하자 곧 농

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불타는 지향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엮어나가면 거기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힘찬 기상과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이 뜨겁게 안겨올것입니다. 창작가들이 주되는것은 뒤에 밀어놓고 부차적인것을 앞에 내놓았기때문에 작품의 기본흐름이 시대정신과 어긋나게 되였습니다.

창작가들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치밀하게 그려내는데 주의를 더 돌려야 합니다.

이 작품에는 응당 우리 당의 자위적인 국방사상이 깊이있게 구현되여야 합니다. 주인공을 비롯한 녀자뜨락또르운전수들의 형상에서 당의 자위적인 국방로선을 관철하려는 전투정신을 깊이있게 보여준다면 그들의 성격이 얼마나 힘있고 의의있는것으로 되겠습니까. 주인공은 유사시에 남자뜨락또르운전수들이 땅크병으로 전선에 나간다면 녀자들이 그뒤를 맡아나서야 하며 당이 부른다면 자기들도 땅크를 몰아 원쑤 미제를 쓸어버리는 전투원이 되여야 한다는 견결한 혁명정신을 가지고있는 우리 시대의 전형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나와야 주인공과 농촌처녀들의 형상에서 사람들은 위대한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나날이 변모되여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혁명적현실을 보고 시대정신을 뜨겁게 받아들이게 될것이며 새세대의 힘을 진실로 믿게 될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강조해야 할것은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폭로하고 이를 반대하여 억세게 투쟁하는 주인공들의 견결한 반제정신입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입니다. 사람들은 미제와 일제라는 말만 들어도 적개심에 불타 두주먹을 부르쥐군합니다. 이 불같은 증오와 적개심은 력사적으로 타오른것으로서 그 무엇으로써도 끌수 없습니다.

주인공은 우리 인민의 이 견결한 반제혁명정신을 안고있어야 합니다. 주인공은 뜨락또르운전기술을 배우는것이 원쑤를 맞받아싸우는 전투와 같다는 사상으로 농장처녀들을 교양하여 그들이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갖추고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인공에게는 집안에서 안온한 이야기나 하고 책상머리에서 조는것과 같은 생활이 어울릴수 없습니다. 실없는 사랑에 대한 한담이나 자질구레한 신변잡사에 매달리는것과 같은 형상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건전한 리상과 생활에 맞지 않습니다. 혁명적영화예술에는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사상 등 온갖 잡사상의 자그마한 요소도 발붙일곳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주인공은 생산혁신자로, 능숙한 경제조직자로, 열렬한 정치선전자로 형상되여야 합니다. 시대정신의 체현자란 위대한 주체사상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새형의 공산주의자입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마땅히 주체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사, 무조건적인

옹호자로 되여야 하며 우리 혁명위업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영예로운 근위대. 결사대로 되여야 합니다.

주인공은 농장원들과 청년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 대한 당의 원대한 구상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인공이 선전자, 교양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때 농장원들은 그를 농촌에 파견된 로동계급의 참된 딸로서 뜨겁게 믿고 사랑하게 될것이며 그를 따라 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될것입니다.

창작가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비추어 생활을 볼줄 알고 현실에서 당정책의 거대한 생활력을 볼줄 안다면 혁명하는 시대의 기상을 세현산 성격을 얼마든지 잘 형상할수 있을것입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시대정신을 옳게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시대를 특징짓는 전형적인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것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의 기본요구입니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예술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기때문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진실을 떠난 예술은 인민의 리해관계를 옳게 반영하지 못하며 따라서 인민의 사상감정을 대변할수 없고 그들의 사랑을 받을수 없습니다.

문학과 예술은 참다운 생활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옳바른 대답을 주어야 합니다.

주어진 생활을 누리는데 만족하는 인간은 새로운 생활,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창조할수 없습니다. 인간의 참다운 생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속에 있습니다.

창작가들은 시대의 지향에 비추어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높은 리상과 그것을 실현할수 있다는 신심을 주며 그들의 생활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이기때문에 가장 고귀하다는것을 깊이 깨우쳐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고상한 목적과 미래에 대한 굳은 신념을 주는것은 혁명교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민이 활기있고 명랑하고 락천적인것은 그들이 모두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고 자기가 수행하고있는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있으며 자기 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에서는 생활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하며 미화분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을 왜소하게 그리는것도 나쁘지만 미화분식하는것도 좋은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그리지 않고 현실에 없는것을 묘사하거나 과장하면 생활의 본질을 외곡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옳게 보여주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믿지 않게 됩니다.

동무들은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양산이나 쓰고 유모차나 밀고다니는것으로 보여줄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런것은 우리 현실에서만 볼수 있는 새로운 생활도 아니며 또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의의있는 생활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한 생활에 대한 인식을 옳게 주기 위해서는 창작가들이 로동계급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그 혁명적내용을 밝혀내야 합니다. 생활에서 색다른것이나 강조하여 사람들이 안일하고 사치한것에 그 어떤 호기심을 가질수 있게 생활을 색칠해서는 안됩니다.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가, 또 어떤 리상이 가장 참다운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건전한 리해를 사람들에게 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한몸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모든 힘과 재능을 바쳐 투쟁하는데 참다운 리상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생동한 형상으로 새겨주는 그런 예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술은 오직 혁명적인 생활속에서 새로운 성격을 창조할 때에만 생겨납니다. 새로운 성격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창작가들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에 대한 공산주의적 관점과 리상을 옳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화려한 생활이나 보여주어서는 혁명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형상을 내놓을수 없으며 우리 근로자들에게 옳은 생활관점과 건전한 미감을 세워줄수 없습니다.

생활을 분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지적해야 할것은 생활의 본질을 보지 않고 현상을 과장하는 폐단입니다.

어느 한 영화의 작업필림에서는 주인공이 직장을 그만두려고 할 때 탁아소에서 어린이들에게 인삼탕을 먹이는것을 보고 당의 은혜로운 품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다시 열성껏 일해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사람들에게 이런것은 자연스럽게 안겨오지 않습니다. 인삼탕은 지금 모든 아이들에게 다 먹이는것도 아니고 또 인삼탕을 먹이는것을 보고 당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다는것이 진실치 못합니다. 어린이와 어머니들에 대한 당의 배려를 똑바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인삼탕을 먹이는 이야기를 할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어린이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키워주는 본질적인 측면을 그려야 할것입니다.

생활을 분식하는 경향은 결국 사람들의 성격을 리상화하는데로 떨어지게 됩니다.

생활을 분식하는데는 창작가들의 보신주의도 작용하고있는것 같습니다. 부정인물이나 부정적현상을 그리면 우리 현실을 외곡하지나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편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인물과 현상을 덮어두는것이 오히려 우리 현실을 외곡하는것으로 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술은 정치에 복종되여야 합니다. 혁명을 더 잘하고 건설을 더 잘하도록 사람들을 조직동원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 우리 예술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사

명을 달성해야 할 예술에서 정치성을 높이는것은 필수적입니다.

작품의 정치성을 높이려면 창작가들이 확고한 정치적립장에 서서 생활을 깊이있고 진실하게 그려야 합니다. 창작가들은 생활의 세부를 그려도 그 사상적본질과 정치적의의를 깊이있게 밝혀내야 하며 인간을 그려도 그들의 정치적립장과 신념이 똑똑히 나타나게 형상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는데서 우리 근로자들의 높은 계급의식을 강조하는것은 작품의 정치성과 사상성을 높이는데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고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정신에는 높은 계급의식이 안받침되여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야말로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임을 사람들은 체험을 통하여 깊이 알고있습니다. 창조적로동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로력투쟁에서의 영웅성은 바로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높은 계급적자각에서 나오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파쑈통치밑에서 고통받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으며 그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새생활을 안겨주려는 념원과 지향을 안고 정력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화에서 한가롭고 사치한 생활이나 보여주고 그런 생활에 미련을 던져줄수 있는 형상을 보여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을 강조하여야 하며 그것을 계급교양의 견지에서 풀어야 합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을 미화분식하거나 왜소화하는 경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더욱 높이고 그 전투적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새시대의 생활을 반영하는 영화에서는 노래도 시대정신에 맞게 되여야 합니다. 영화의 노래가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기상을 담아야 사람들을 흥분시키며 투쟁에로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

작곡가는 시대정신과 주인공의 아름다운 지향을 담은 노래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노래에서는 목적지향성이 뚜렷하고 생활에 대한 신념과 창조적기백이 높으며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체현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밝고 씩씩하고 약동하는 정서가 강하게 울려나와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 동떨어져서 순수 자연이나 노래하는 음악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자연을 노래하는 경우에도 거기에 사람들의 생활감정이 뜨겁게 담겨져있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지향을 시대와 련결시키고 자신들의 생활을 혁명의 전진운동과 결부시킬줄 압니다. 생활에 대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태도, 고상한 사상감정을 가지고있는것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우리 근로자들이 지니고있는 뚜렷한 성격적특징입니다.

작곡가들은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우리 근로자들의 성격적특징을 그에 알맞는 색갈의 선률로 진실하게 표현할수 있으며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성격과 그들의 생활정형에 맞는 노래를 지을수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는 영화에서는 근로자들의 보람찬 로동을 노래하는 경우에 트릉가요라고 해서 딱딱하고 메마르게만 해서는 안됩니다.

로동가요는 힘있고 발랄하면서도 부르기 쉬워야 합니다. 통속성은 대중가요의 인민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로동가요는 인민의 사상감정을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음악형식으로 표현한 노래이므로 그 선률이 투명감이 나면서도 부드럽고 소박하고 생동해야 합니다.

서정가요에서도 통속성을 살리는것이 중요합니다. 예술성을 높인다고 하여 인민의 비위에 맞지 않고 부르기 힘든 곡조를 만들어내는것은 기교본위주의이며 형식주의입니다. 인민들에게는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적정서가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데 알맞는 민족적선률이 있으며 그것은 시대와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더욱 세련되며 풍부해집니다.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음악에 대한 기호와 취미에 맞지 않는 선률을 만들어내는 기교는 참다운 기교가 아니며 그것은 음악을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할뿐입니다. 음악창작에서 작곡가들이 직업화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작곡이 직업으로 되면 심장이 불탈수 없고 오선지에 심장의 맥박을 적어넣는것이 아니라 단순한 음악기호를 라렬하게 되므로 거기에서 참다운 음악이 나올수 없습니다.

오늘의 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인민적음악을 창조하려는 작곡가는 근로자들의 성격과 생활에서 새로운 특성을 찾고 그것을 진실하게 드러낼수 있는 새롭고 특색있는 선률을 찾아내야 합니다. 류사성은 구체적인 체험을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표상을 그대로 옮겨놓는데서 생깁니다.

약동하는 생활속에서 언제나 마를줄 모르는 샘물처럼 맑고 생신하고 풍부하게 흘러넘치는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을 훌륭하게 노래하려면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결합된 음악을 창작하여야 합니다.

창작가들은 생활을 소박하게 형상하면서 예술적품위를 높일줄 알아야 합니다. 형상화되지 못한 소박성은 유치한데로 떨어지며 쓸데없이 멋부리는 형상은 진실하지 못하여 오히려 예술적품위를 떨굽니다.

시대정신은 인민의 지향과 결부되여있으며 그것은 인민의 생활속에 구현되여 있습니다. 창작가들은 언제나 인민과 함께 살며 인민의 목소리로 시대정신을 노래하는 참다운 예술가로 되여야 합니다.

창작에서 독창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며 끊임없이 전진하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문학예술분야에서도 자기들의 보람찬 생활을 반영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작품들을 창작하여줄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은 그 사회적내용에 있어서 어느 력사적시기보다 비할바없이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을뿐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세계 각 대륙의 혁재적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하여 견결히 싸우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도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더욱 심화발전되여나감으로써 그 내용이 매우 심오하고 풍부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는 문학예술은 응당 사상적내용에 있어서 풍부하고 심오하여야 할뿐아니라 예술적형상에 있어서도 새롭고 비반복적이여야 합니다. 그러나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발전의 이러한 객관적요구에 다양하고 특색있는 작품창작으로써 원만히 대답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창작가들이 오늘의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예술적요구에 맞는 작품을 내놓자면 우선 현실생활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저마다 특색있게 들고나와야 할것입니다. 창작가가 새로운 문제를 들고나오는것은 작품을 독창적인것으로 되게 하는 선결조건이며 출발점으로 됩니다.

그런데 어떤 창작가들은 문제설정자체에서부터 독창성을 발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이야기한바 있지만 동무들이 새로 내놓은 구두수리공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문학은 이미 만든 예술영화 《처녀리발사》와 이야기거리도 비슷하고 작가가 말하려는 사상에서도 별로 새로운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구두수리공은 인민들의 편의를 일상적으로 돌봐주고있는것만큼 그들의 생활도 잘 그리면 사람들에게 좋은 교양을 줄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작가들이 엇비슷한 이야기줄거리를 가지고 같은 주제의 작품을 연거퍼 만들어내려는데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주제와 구성, 양상에서 《처녀리발사》와 별로 다른것이 없습니다. 다만 《처녀리발사》의 주인공인 리발사자리에 구두수리공을 앉혀놓았을뿐입니다.

직업이나 직종을 바꾸어놓는것으로써는 새로운 형상세계를 개척해나갈수 없습니다. 창작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보다 쉬운 일은 없을것입니다. 오늘은 리발사를 구두수리공으로 바꾸어놓고 래일은 구두수리공을 뻐스차장으로 바꾸어 비슷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꾸며낼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작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형상을 되풀이하는것은 창작이 아니라 모방입니다. 창작이란 말그대로 새로운 형상을 창조해내는것입니다.

창작가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 있다면 아깝기는 하지만 아주 버리거나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달리 형상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혁명적예술가의 립장이며 품성입니다.

생활이 다양하고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도 다양하며 예술가들의 창작적개성도 각이한것만큼 반드시 예술형상은 새롭고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가들은 새로운 작품을 내놓아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기여할수 있으며 영화의 형상세계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넓혀나가면서 자기 시대의 예술을 개화발전시키는데도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예술가는 새것을 탐구하는 시대의 선구자이며 인민을 교양하는 교양자입니다. 창작가들은 어떤 작품을 만들든지 시대와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명심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창작가만이 시대와 인민이 바라는 새로운 문제를 대담하게 내세우고 그것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감동적인 형상으로 의의있게 풀어낼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제는 언제나 새로운 인간에 대한 주제, 새로운 생활에 대한 주제입니다. 매일과 같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는 우리의 현실에는 예술형상의 바탕으로 될수 있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생활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창작가들이 시대와 인민의 요구를 해결하려는 높은 창작목표를 세우고 현실에 깊이 들어가 인간과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체험하고 연구한다면 얼마든지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를 찾아낼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피상적으로 대하면서 책상머리에 앉아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다른 작품을 본따서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새로운 주제를 밝히고 새로운 형상을 창조할수 있는 의의있는 종자는 생활속에서만 잡아쥘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창작의 원천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창작가에게는 생활을 언제나 새로운 눈으로 보며 생활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주견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밝힐줄 아는 힘과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가들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인민들의 새로운 미감에 맞는 특색있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문제를 잡아쥐여야 할뿐아니라 그것을 독창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창작에서 새로운 문제를 잡아쥐는것은 작

을 특색있게 만들수 있는 전제로 되지만 아무리 문제가 새로와도 그것을 독창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면 작품은 특색있는것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작품이 독창적인것으로 특색있게 되려면 문제도 새롭고 그 형상도 새로와야 합니다.

영화형상을 창조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작단의 모든 성원들이 확고한 창작적주견을 가지고 도식과 모방을 배격하면서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야 영화형상이 특색있게 될수 있습니다. 작가는 작품의 종자로부터 양상에 이르는 모든 형상요소들을 특색있게 살려 새로운 문학형상을 창조하여야 하며 연출가는 새로운 형상 수단과 수법들을 탐구하여 그것을 영화형상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여야 합니다. 특히 배우는 인간의 형상을 직접 화면에 그려내는 예술가인만큼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 천편일률식으로 쉽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험있는 배우는 역을 맡으면 그 인물이 자기가 이미 창조한 인물들과 다른 어떤 새로운 성격을 가지고있는가, 새로운 인간형상으로 나타날수 있는 인물인가 하는데 관심을 돌립니다. 자기가 맡은 인물이 이미 나온 영화의 인물과 비슷하거나 새로운 성격적특징이 없을 때 배우는 아무런 창조의욕도 가지지 못할것입니다. 인물의 성격이 새로울 때에만 배우는 창조적열정에 불타게 됩니다.

물론 인물의 성격이 새롭다고 하여 그 형상이 곧 새롭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인물인 경우에도 연기에서 틀이 생기게 되는것은 배우가 인물의 성격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을 가지고 연기를 하기때문이며 설사 인물의 성격을 옳게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 연기에서 인물의 일반적인 륜곽이나 그려놓는데 머무르기때문입니다. 연기에서의 틀은 배우가 창조자로서의 독자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거나 인물의 개성을 자기의 개성으로 바꾸어놓는데서 생깁니다.

어떤 배우의 연기를 보면 역인물이 아니라 배우자신이 그대로 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배우가 지난날의 창작경험에만 매달려 자신의 생활체험을 인물형상에 그대로 옮겨놓는데서 생기는것입니다.

배우가 새로운 인물을 형상한다는것은 새롭게 생활한다는것을 말합니다. 배우는 인물을 맡을 때마다 그의 내면세계와 심리의 움직임을 깊이 파악하고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한데 기초하여 인물의 성격을 새롭게 체현해나갈 때에만 낡은 연기의 틀에서 벗어나 참신한 형상을 창조해낼수 있습니다.

배우는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서 나타나고있는 새롭고 아름다운 사상감정과 심리를 꿰뚫어보며 그것을 자기의 생활체험과 창작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진지하게 체험하고 생동하게 체현하려는 창조적립장에 서서 인물의 성격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배우는 인물의 성격을 깊이 파악하고 개성적으로 살려내는데 심혈을 기울일 때에만 새로운 인간의 형상을 창조할수 있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인민의 생활을 사랑하며 생활에 대한 그들의 리상을 높여주고 그것을 현실에서 빛나게 실현하도록 고무하여주는 인민의 옹호자이며 교양자입니다.

창작가들은 언제나 현실에 깊이 들어가서 인민들의 높은 리상에 비추어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기 위한 탐구와 혁신의 길을 꾸준히 밟아나가야 합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사람들의 혁명화문제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자라나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인간의 전형을 더 많이 그려내야 합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아직도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본보기가 될수 있는 로동계급의 생활을 담은 영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데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있는 로동계급을 형상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는 동시에 농민들과 인테리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군중의 혁명화과정을 여러모로 깊이있게 그려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시대와 인민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전취물을 철옹성 같이 보위하자

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국제자본주의의 포위속에서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나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력사적시기에 제국주의의 침략의 위험을 면할수 없다. 제국주의와 장기적으로 대치하여있는 력사적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은 견결한 반제적립장을 견지하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만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으며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조선혁명은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승리하여왔으며 오늘도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를 반대하는 첨예한 투쟁속에서 그 완성의 길을 개척해나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들씌워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이며 우리 혁명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다.

34년전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또다시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군사적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습니다.》 (《신년사》, 1984년, 10폐지)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일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독립은 적들의 횡포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조선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정책의 계단식확대이며 세계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으려는 모험적인 책동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그곳을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며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모험적인 전쟁정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다.

오늘 미제는 조선반도를 《미국전략의 제1선》으로, 1980년대 《힘의 대결을 위한 시험장》으로 선포하고 남조선을 새로운 세계전쟁, 핵전쟁의 위험한 발원지로 더욱더 전변시키고있다.

미제는 남조선과 그 주변에 군사기지들을 늘이고 침략군대와 함께 핵무기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전쟁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남조선에 4만여명의 침략군대를 주둔시키고 1,000여개의 핵무기와 수많은 핵운반수단들을 끌어들여 그곳을 위험한 전쟁화약고로,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킨 미제국주의자들은 최근에는 사정거리가 조선경내를 훨씬 벗어나는 《퍼싱 2》중거리핵미싸일과 순항미싸일 지어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을 받고있는 중성자탄까지 배비하여 조선반도를 핵전쟁마당으로 전변시키려 하고있다.

조선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미제의 책동은 그들이 빈번히 벌리고있는 모험적인 군사연습에서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미제가 남조선괴뢰들과 해마다 년례

행사처럼 벌리고있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의 위험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 우리 나라 주변의 침략무력을 일시에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전면공격하기 위한 립체적인 작전훈련이며 전쟁행위이다.

미제는 지난 《팀 스피리트 84》합동군사연습을 벌리기 위하여서만도 미국의 본토와 태평양, 일본과 필리핀 등지에 있는 미군기지로부터 여러 군단 및 사단 사령부와 보병 및 공수 려단, 항공모함전단, 상륙기동부대, 미제7함대소속 해상전투부대들로 구성된 해상기동부대와 그밖에 미군소속의 주요사령부산하 각급부대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 수역에 집결시켰다. 또 이 군사연습에는 《비52》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수많은 핵적재기들과 각종 미싸일들이 동원되였다.

미제가 수십만의 미군 및 괴뢰군 병력과 최신장비들을 투입하여 벌린 《팀 스피리트 84》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준비상태를 총검열하는 《예비전쟁》이였으며 《핵시험전쟁》이였다.

조선반도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미일남조선 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으로 하여 더욱 위험한것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3각군사동맹을 조작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아세아침략의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일본《자위대》무력을 새로운 조선침략전쟁에 내몰려 하고있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제의 대아세아침략전략에 가담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고 망상하고있으며 또다시 해외팽창의 길에 나서는 첫걸음으로 남조선에 대한 전면적재침투를 노리고있다.

미제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이 터질 위험이 더욱 커지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은 남조선괴뢰도당의 무모한 책동에 의하여 더욱 조장되고있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떠받들고 군사적모험을 추구하는데서 연명책을 찾고있는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전쟁은 위기를 더욱더 고취하고있으며 동족을 적대시하는 반공화국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상전의 전쟁전략에 따라 남조선괴뢰군을 완전한 전투태세에 몰아넣고 《림전태세확립》과 《초전필승》을 떠들면서 정세를 더욱 위험한 국면에로 이끌어가고있다.

이 모든것은 오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전쟁책동으로 하여 조선에서 정세가 항시적으로 긴장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면적인 전쟁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평화애호정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인내성있는 노력에 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는 긴장한 정세의 원인이 마치도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에 있는듯이 떠들면서 사태를 전도시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침략자로서의 저들의 흉악한 정체를 가리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의 공정한 여론들도 인정하고있는바와 같이 조선에서의 긴장상태의 원인은 그 어떤 《남침위협》이 아니라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꾀하고있는 남으로부터의 《북침》위협에 있다.

우리는 《남침》하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이미 여러차례 천명하였으며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우리는 금년초에 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련합회의와 최고인민회

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 또다시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와 미국사이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는 전쟁의 위험을 막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주동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한 전환적인 대책으로서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시종일관한 성의있는 노력의 표현으로 된다.

우리의 3자회담제의는 현시점에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협상방도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우리의 3자회담제의를 열렬히 지지하고있으며 3자회담이 하루빨리 실현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것을 기대하고있다. 3자회담을 실현하여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평화통일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무모한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에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우리의 3자회담제의에 호응하여야 하며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철수시키는 길로 나와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도 미제에 추종하여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초기지로, 전쟁마당으로 내맡기는 민족반역의 길로 나갈것이 아니라 우리의 합리적인 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의에 성실하게 대할대신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면서 긴장과 대결, 전쟁의 길로 나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힘》으로 남을 굴복시키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미제침략자들이 무기를 휘두르며 조선에서 끝끝내 전쟁을 도발하는 길로 나간다면 놈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오직 참패와 죽음밖에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미제의 새 전쟁도발음모를 단호히 짓부시며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을 철옹성같이 수호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앞에는 적들의 횡포한 도전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견결히 지키며 우리 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할 엄숙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0페지)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사회주의전취물은 우리 인민이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에서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혁명의 귀중한 재부이며 밑천이다.

일찌기 주체위업이 개척되던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숙원을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조국땅우에는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담보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확고히 마련되였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우리 인민의 오늘뿐아니라 후손만대의 행복과 조국의 끝없는 륭성과 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웅적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전취물을 빼앗으려는 원쑤들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써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감행할 때마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놈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안기였다.

우리 인민은 전후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침략과 방해책동이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림으로써 일찌기 볼수 없었던 기적과 비약을 창조하였으며 동방일각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력한 사회주의보루를 다져놓았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있게 전진함으로써 자기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놓은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을 철옹성같이 수호하여왔으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그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승리한 혁명은 이미 쌓아올린 경험과 업적,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통하여 인민들의 혁명운동발전에 커다란 작용을 한다.

우리 인민이 미제침략자들의 모험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 때 그것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확고한 신심을 주고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게 될것이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된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성과는 또한 원쑤들의 전대미문의 폭압속에서도 반파쑈민주화, 반미자주화, 조국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힘있게 고무할것이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성과가 크면 클수록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얻어 원쑤들을 맞받아 과감히 싸울것이며 반미, 반파쑈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다.

이처럼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미제침략자들의 무모한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는것이다.

정치사상적힘은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이며 적에 비한 우리의 근본적우월성도 바로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있다.

우리는 혁명전쟁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적들의 침략책동에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며 만일 적들이 덤벼든다면 한사람같이 일떠나 싸울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단결하여 항일혁명선렬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전사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당과 수령을 보위하고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는데서 자기의 충성심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당의 명령지시라면 물과 불 속에라도 뛰여들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자기의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미제의 새 전쟁 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철옹성같이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우리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투쟁전선이다.

오늘의 복잡하고도 긴장한 정세속에서 우리 혁명을 튼튼히 보위하고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력은 나라의 모든 위력의 물질적기초이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지는것은 정치적위력과 군사적위력을 확고히 보장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할뿐아니라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과 정당성을 과시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시킬수 있다.

지난 시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물리치면서 조국을 튼튼히 보위하고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올수 있은것은 경제건설을 잘하여 나라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왔기때문이다.

우리는 정세가 긴장하고 원쑤들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면 될수록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우리의 혁명기지를 물질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수행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이다.

천리마의 혁명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력사를 위대한 영웅서사시로 찬란히 수놓게 한 사상정신적원동력이다. 우리 당은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이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전후 재더미속에서 천리마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대고조를 일으켰던것처럼, 속도전의 혁명정신으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건설력사를 빛내이는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하였던것처럼 경제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며 《80년대속도》창조운동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여야 한다.

언제나 자기 힘을 믿고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며 그 어떤 난관도 맞받아 나가는것은 천리마의 혁명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의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있는 자재, 있는 로력, 있는 자금으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오늘의 거창한 경제건설전투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혁명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어려운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오늘 지도일군들은 높은 각오와 책임성을 가지고 전투를 패기있고 능숙하게 조직지휘해나가야 한다. 무슨 일에서나 지도일군들이 확고한 결심과 완강한 투지를 가지고 결단성있게 밀고나가야 군중이 용기와 신심에 넘쳐 힘차게 전진해나가게 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신심을 가지고 대오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야 하며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들어 생산자대중이 힘껏 일할수 있게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계획화사업을 틀어쥐고 모든 부문, 모든 고리들이 빈틈없이 맞물리게 하며 기술적지도를 잘하고 원료, 연료, 자재들을 충분히 보장해주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원쑤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사회주의건설성과로써 짓부셔버려야 한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다.

오늘 조선문제는 세계정세발전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미제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언제까지나 남조선을 저들의 침략적기지로 틀어쥐려고 책

동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하여 만일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섭사리 조선의 범위를 벗어나 아세아와 세계의 넓은 지역에로 확대될수 있다. 조선의 평화는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조선반도에서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조선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근원을 없애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하는것으로 된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막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으며 그것을 자기들의 숭고한 의무로 간주하고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조선의 통일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대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다.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날로 확대강화되여가고있는 국제적련대성은 조선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고무로 되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우리는 우리 당이 제시한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의 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국제무대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증강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은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로동계급,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과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며 남남협조를 실현하고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더욱 늘이며 국제무대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들의 손발을 얽어매놓아야 한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완성하고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통일단결이 있으며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의 무모한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

리 주 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은 백두밀림에서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이 영광스러운 투쟁행정에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고 그것이 끊임없이 계승발전되여온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긍지로 된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로동계급의 위업은 대오의 통일단결이 이룩되고 단결된 힘에 의하여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인민대중은 수령의 령도밑에 단결의 무기로써 원쑤와 맞서며 단결의 힘으로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킨다. 단결되지 못한 인민대중은 피흘려 싸워도 실패를 면할수 없다.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혁명의 불패성, 인민의 영웅적기질과 민족의 강대성은 혁명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에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

혁명의 길에 나선 공산주의자들은 혁명대오의 단결을 귀중히 여기며 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투쟁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력사적과정에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굳은 통일단결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고귀한 전통이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3페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고귀한 전통은 무엇보다도 혁명의 령도자, 위대한 수령을 단결의 중심에 모시고 혁명대렬을 충성의 대오로 굳게 결속시킨것이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확고한 중심을 가지는 것이다.

단결의 중심은 혁명대오를 하나의 력량으로 굳게 결속시키는 근본핵이다. 단결의 중심이 없으면 대오가 하나로 뭉칠수 없다. 단결의 공고성과 위력은 전적으로 그 중심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공산주의운동에서 단결의 중심은 혁명의 최고령도자, 탁월한 수령이다. 탁월한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로동계급의 수령만이 혁명적단결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고 세련된 령도로 대오를 하나의 강력한 통일체로 꾸리며 그것을 공고발전시켜나간다. 혁명하는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단결의 중심, 탁월한 수령을 모시는것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은 없다.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신 그때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자주시대의 새 력사가 펼쳐진 1920년대후반기에 들어서던 때

우리 인민의 처지는 말할수 없이 비참하였다. 강도 일제의 식민지파쑈통치로 말미암아 온 강토는 피바다, 불바다 속에 잠겨 우리 민족의 운명은 말그대로 생사존망의 위기에 놓이고 조선은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고있었다. 인민들은 침략자들에게 항거하여나섰으나 이끌어줄 령도자가 없고 단결되지 못한탓으로 하여 쓰라린 실패와 피의 교훈만을 남기였을뿐이였다.

령도자에 대한 온 민족의 피타는 갈망과 절절한 념원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 인민은 단결의 확고한 중심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망국의 비운속에서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던 우리 인민에게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준엄한 혁명의 난국을 헤쳐나가시는 걸출한 령도자이시였으며 천만사람을 한품에 안아키우시는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자애로운 인민의 수령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것은 우리 혁명의 참다운 시원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력사의 빛나는 출발점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우리 인민을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에서 해방하고 혁명의 미래에로 이끌어주실수 있다는것을 생활의 진리로 체득한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우리 혁명을 이끄신 때로부터 단결의 중심을 가진 첫 대오가 꾸려지게 되였으며 수난의 력사를 겪어오던 조선혁명이 자주의 기치밑에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새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의 진리를 찾고 영생하는 혁명가의 정치적생명을 지니게 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2천만 겨레가 목마르게 기다리던 위대한 령도자는 오직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이시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우리 인민의 감격과 희망을 한데 모아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을 이끌어줄 한별동지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그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가장 긍지높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하게 되였다.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조선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추대한것은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가장 커다란 사변이였다.

피타게 갈망하던 위대한 수령을 모신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 감격과 환희는 비길데 없이 높고 컸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창작된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얼마나 열렬히 흠모하고 높이 모시였는가를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의 하나이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혁명의 령도자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확고히 높이 모시려는 절절한 심정을 담아 혁명시인 김혁동지가 지은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적들이 살판치는속에서도 널리 보급하였으며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모시고 받들어나갔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단결의 중심을 확고히 고수하고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것을 투쟁과 생활의 철칙으로 여기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철옹성같이 옹호보위하는것, 이것이 바로 투쟁의 첫날부터 혁명대오에 차넘친 철석같

는 신념이며 불굴의 의지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옹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장군님의 안녕을 지키는 일이라면 수백리 먼길도 단숨에 달려왔으며 날아오는 적탄도 서슴없이 몸으로 막아나섰다.

이국의 눈덮인 황야에서 《친구들! 진정으로 조국, 조선을 사랑한다면 김일성동지를 받들고 싸워야 하오. 당신들이 조선청년으로서 진정 인간답게 살려거든 김일성동지를 찾아가야 하오!》라고 웨치며 최후를 마친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의 투쟁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단결의 확고한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기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령도자,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간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는 결코 그 어떤 책에서 얻은것도 아니였으며 단순한 론리적사고의 귀결도 아니였다. 그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현명성을 심장깊이 체득한데서 생겨난 불변의 신념이였다. 때문에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중심은 처음부터 확고부동한것이였으며 간고한 시련도 많았지만 그것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철옹성같이 옹호보위함으로써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것으로 되였으며 조선혁명의 명맥은 굳건히 수호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향도성으로,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충성의 대오로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력사가 창조되고 위대한 단결의 전통이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조선혁명이 그처럼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자기의 혈통을 끗끗이 이어나갈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이 쌓아올린 가장 고귀한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단결의 훌륭한 전통은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을 영원히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로 된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고귀한 전통은 또한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사상의지적인 전일체로 굳게 묶어세운것이다.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 단합을 이룩하는것은 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사상의 유일성은 대오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을 담보한다.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만이 공고한 통일로 될수 있으며 실무적인 단합으로써는 결코 참다운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깨여지지 않는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하자면 위대한 사상에 기초한 단합으로 되여야 한다. 단결의 위력은 사상의 위대성에 있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사상적기초는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에는 혁명의 총적목표와 방향, 그 수행을 위한 전략전술이 밝혀져있으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집대성되여있고 시대의 정신이 구현되여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며 통일단결의 유일한 사상적기초로 삼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통찰하시고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의 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대이며 인민대중을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는 단결의 기치였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의 혁명적단결의 첫대오가 탄생하고 성장하여왔으며 조선혁명은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항일혁명대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전일적인 지배를 확립하고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룩된 가장 순결한 통일체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살벌한 속에서도, 간고한 전투와 행군이 계속되는 조건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드는것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항일혁명대오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실천하는 혁명가들의 대오로 튼튼히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위한 사업은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사상조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조선혁명을 말아먹고 공산주의운동을 사분오렬시키던 온갖 반혁명적사상이 극복되고 대오의 사상적순결성이 철저히 보장되게 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들이였을뿐아니라 그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들이였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시기 청봉밀영에서 혁명의 배신자 임가놈의 반혁명적정체를 발가놓으시고 북대정자회의에서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킵시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대오안의 사상적유일성을 보장하고 단결을 이룩해나간 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하나를 생각하고 한걸음을 걸어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대로만 실천하는것이 항일혁명대오에 차넘친 참다운 투쟁기풍이였다.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이 철저히 관철되였으며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자주적립장에서 민족해방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투쟁대오에서 승리하며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고귀한 전통은 다음으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공고한 통일단결을 실현한것이다.

혁명적동지애는 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의 하나이며 그 공고성의 원천으로 된다.

공산주의혁명대오는 수령을 중심으로 뭉친 혁명가들의 대오이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가들사이의 동지적단합이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동지호상간의 건전한 사상적단합을 이룩하고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될수 있으며 도덕의리적으로 결합된 진정한 대오의 통일단결을 보장할수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가장 공고하고 진실한 동지적단합을 실현하고 간고한 시련을 이겨낸 불패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모범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서 동지를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혁명동지를 키우고 묶어세우는 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였다. 혁명의 길에서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할 참된 동지를 얻고 키우는 일이라면 멀고먼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않으시고 걸으시였으며 모든것을 다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의하여 동지애로 넘친 항일혁명대오가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동지

가 없이는 혁명을 할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혁명동지들을 위함이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시며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를 베풀어주시였다.

좌경모험주의자들의 무모한 5. 30폭동으로 하여 원쑤들의 폭압이 살판치던 때에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옥중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여 쇠약해지신 몸도 돌보심이 없이 위험에 처한 혁명 조직과 동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는 사생결단의 길을 헤치시였다. 혁명대오를 와해시키기 위해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꾸며낸 《민생단》문서보따리에 불을 지르기도 하시고 원쑤와의 결전에서 희생된 한 전사를 추모해주시기 위하여 백리길을 다시 돌아서신분도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신 한없이 깊고 뜨거운 사랑과 공산주의적덕성은 혁명가들이 동지적으로 굳게 결합될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기에 자신의 참다운 삶과 행복이 있고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서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철석같은 십장의 맹세를 다지고 혁명전사의 의리에 끝까지 충실하였다.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적동지애와 고결한 의리의 숭고한 미풍으로 살며 준엄한 시련으로 가득찬 항일혁명의 로정을 과감히 헤쳐나갔다. 그들은 조국광복을 위한 하나의 투쟁대오에서 언제나 고난과 시련도 함께 이기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며 서로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해나가는 혁명동지들이였다. 동지들의 신변에 위험이 닥쳐오면 자신의 한몸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 동지애로 살며 싸워온 항일혁명선렬들의 고상한 기풍이였다.

혁명적동지애로 차넘친 항일혁명대오안에서의 동지적관계는 언제나 원칙적이였다. 그리하여 동지들속에서 나타난 사소한 결함도 용화묵과되지 않았으며 비판과 자기비판 속에서 진실한 동지적단합이 확고히 보장되여나갔다.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이처럼 수령과 혁명전사들사이에 완전한 혼연일체를 이루고 동지적뉴대로 굳게 결합된 가장 공고하고 진실한 통일단결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대오는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함으로써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백전백승하여왔다.

참으로 항일혁명투쟁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혁명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의 고귀한 전통을 이룩한것으로 하여 그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언제나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전통은 우리 당과 인민이 빛나게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 *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속에서 새로운 높이에로 계승발전되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살며 당을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걸어나가고있는것이 우리 사회의 자랑찬 면모이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은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원동력이며 그 종국적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통일단결과 순결성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당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우와 같은 문헌, 36페지)

우리는 아직 혁명의 길우에 있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의연히 멀고 험난하다.

우리 인민은 지금 적들의 횡포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 있다.

우리 인민앞에는 적들의 횡포한 도전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우리 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할 무거운 임무가 제기되고있다.

오늘의 복잡하고 긴장한 정세속에서 우리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어야 하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이자 곧 혁명승리이고 혁명승리는 곧 단결에 있다. 적들과의 치렬한 투쟁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단결할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수 있다.

우리는 항일혁명선렬들이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뭉치자는 구호를 들고 단결을 이룩하였던것처럼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모든 승리의 조직자, 고무자이며 통일단결의 기치이다.

우리 당의 두리에 전당과 전체 인민이 굳게 뭉칠 때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철옹성같이 다져나갈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니였던 숭고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의 통일단결은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의식적인 단결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 혁명대오를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당이 내세운 로선과 방침들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혁명가들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나갈수 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김책, 장철구 등 공산주의자들이 지닌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따라배워 그것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혁명적신념으로 삼고 우리 당을 받드는 길에서 80년대의 불굴의 혁명전사가 되여야 한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의식적인 단결은 우리 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철통같이 뭉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동지들사이의 관계를 원칙적으로 맺으며 동지들속에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화묵과하지 말고 제때에 비판하고 교양함으로써 우리의 단결을 참말로 의식적인 단결로 만들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한명의 락오자도 없이 전진하는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력사물창작의 중요한 요구

리 령

오늘 우리 문학예술앞에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혁명적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인민들의 고상한 미학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문학예술의 다른 주제분야와 함께 력사물을 취급하는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도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력사물은 력사적 인물과 사실들에 대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선조들의 슬기롭고 용감한 애국적투쟁에 대한 생동한 표상과 민족적긍지를 안겨줄뿐아니라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절실한 사회정치적문제들에 심오한 철학적해답을 주어 인민대중을 주체의 사회력사관으로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우리 당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 력사물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력사물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문예방침을 제시하고 그 구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줌으로써 이 분야에서 일찌기 없었던 획기적인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각색완성된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의 창작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그 빛나는 확증으로 된다.

* *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력사물을 취급하는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적관습이 진하게 배여있는 지난날의 생활을 그리는 경우에는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이 중요하다.》(《영화예술론》, 54페지)

력사물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력사적 인물과 사실을 당대의 구체적인 사회력사적 환경과 조건에서 고찰하면서 그것을 오늘의 시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미감에 맞게 그린다는것을 의미한다.

력사물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지난날의것에 대한 허무주의적태도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다 막고 그것을 가장 정당하게 반영하며 작품의 인식교양적기능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력사물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서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사실주의의 본성적요구와 관련된다.

사실주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며 그 발생발전의 합법칙성과 본질을 밝힘으로써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것을 요구한다.

생활을 력사적견지에서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하여야 사람들에게 작품에 그려진 생활을 실지 사실처럼 믿을수 있게 할뿐아니라 그에 대한 옳은 리

해와 표상을 주며 그들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있다.

사실주의의 이러한 요구는 력사물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잘 구현하면 할수록 더 깊이있고 폭넓게 해결될수 있다.

력사주의적원칙은 모든 사건과 사실들을 당대의 구체적인 력사적환경에 맞게 다루고 처리할것을 요구한다면 현대성의 원칙은 로동계급의 립장과 관점에서 력사적사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것을 우리 시대의 절실한 사회정치적문제들을 해명하는데 귀결시킬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에 철저히 의거할 때만이 력사적 인물과 사실을 그리는데서 사실주의의 본성적요구를 보다 높은 경지에서 구현할수 있으며 문학예술이 인식교양적기능과 전투적사명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주의의 요구를 구현하는데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 것은 묘사대상의 특성과도 관련되여 있다.

력사물에서 취급하는 과거 사회의 인물과 사실들은 다 복잡하고 심각한 모순속에 있으며 당시로서는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경우에도 거기에는 이러저러한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이 포함되여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력사적 인물과 사실 속에서 언제나 력사주의적견지에서 선진적이고 진보적인것을 존중하는 동시에 오늘의 견지에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대하면서 반드시 진보성과 함께 그 제한성을 갈라보지 않으면 안된다.

진보적측면과 제한성을 갈라보지 않고 뒤섞어놓거나 어느 한 측면만을 평가할 때에는 력사적 인물과 사실을 있은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할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문학예술작품은 로동계급적 선이 뚜렷하지 못하여 인식교양적기능도 옳바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력사물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서는것은 또한 력사물의 사명과 기능의 특성과 관련되여있다.

력사물의 사명과 기능은 력사적사실을 단순히 기록하여 전달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들에게 력사적사실의 본질적특징과 그 진보성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며 거기에 담겨져있는 제한성과 관련하여 밝혀지는 심각한 력사의 교훈과 투쟁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주체의 사회력사관과 높은 계급의식으로 교양하는데 있다. 력사물의 사명과 기능은 특히 사람들에게 지난날의 선진적이고 애국적인것에서 민족적 긍지를 가지게 하면서도 그것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우리 시대의 위대성에 대한 혁명적자부심과 끝없는 행복감을 안겨주는데 있다. 이것은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이 력사물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고수하는것과 뗄수 없이 밀접히 련관되여있는 매우 심중한 사상미학적문제라는것을 말해준다.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반일투쟁을 한 력사적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데서 그의 반일애국사상일면만을 내세우고 시대적제한성을 외면한다면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한 환상을 줄수 있으며 지난날의 애국주의를 찬미하고 고취하는 복고주의적편향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의 계선을 모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력사물은 그 주제사상실현의 특성으로 하여 력사주의적원칙과 함께 현대성의 원칙을 보다 깊이있게 구현할것을 요구한다.

력사물에서는 혁명전통물이나 현대물의 경우와는 달리 공산주의적인간학이 내세우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람들에게 삶과 투쟁의 심원한 진리를 안겨주는 모든 문제들이 주로 주인공들의 성격의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과 그들의 활동이 남긴 준절한 력사적교훈을 통하

여 제기되고 해결된다.

력사물의 이러한 특성은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등이 주체의 사회력사관과 민족자주의식을 체득하지 못한 주인공들의 애국활동을 통하여 인민대중은 반드시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으며 민족자주의식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나가야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해명한데서 잘 표현되고있다.

오늘 력사물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혁명전통물과 력사물의 계선을 명백히 긋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일반력사물창작에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과의 계선을 똑바로 긋고 등장인물들의 형상을 시대적제한성속에서 옳게 그릴데 대한 창작원칙을 밝혀주고있다.

혁명전통물과 일반력사물의 계선을 긋는것은 문예작품창작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는것과 관련되는 매우 심중한 정치적문제이다.

이 량자간의 계선을 똑바로 긋기 위해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그 이전시기 애국운동의 본질적차이를 옳게 인식하고 일반력사물창작에서 과거 애국운동의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을 명확히 밝혀내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과 그 이전시기의 애국운동은 그 력사적시기와 계급적성격, 력사적 지위와 의의 등에서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서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그러나 과거의 애국운동은 주로 봉건시대나 부르죠아민족운동시기에 애국명장들과 반일의병장들, 애국문화운동자들에 의하여 벌어진것으로서 거기에는 선진적이며 진보적인 측면과 함께 이러저러한 사회력사적 및 계급적 제한성이 내포되여있다.

이러한 사실은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에서 과거 애국운동의 진보성과 함께 그 제한성을 똑바로 밝혀낼때만이 혁명전통물과 일반력사물의 계선을 명백히 그을수 있으며 우리 당의 혁명력사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주며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그 순결성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이처럼 력사물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력사적 인물과 사실의 진보성과 제한성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작품의 인식교양적기능을 높이게 할뿐아니라 혁명전통물과의 계선을 똑바로 긋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력사물창작에서 해당 시기의 사회적운동의 사상적 및 계급적 기초를 밝히는것은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사상미학적문제이다. 이것은 사회적운동의 계급적성격과 본질적특징을 옳게 규정하며 시대상과 인물들의 사상적바탕을 깊이있게 밝히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적운동의 사상적기초를 옳게 밝혀야 우선 그 계급적성격과 본질적특징을 정확히 규정할수 있다.

자주성을 위한 모든 사회적운동은 일정한 계급의 리해관계와 지향을 반영한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생발전한다. 이것은 사회적운동의 계급적성격과 본질적특징이 그 기저에 놓여있는 사상의식의 계급적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안중근과 리준이 관여하였던 19세기말~20세기초의 애국문화운동과 의병운동은 민족주의운동의 기본조류로서 당시 인민들의 민족적자각을 높여주고 반일애국정신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진보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심중한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이 운동은 반제반봉건적립장이 불철저하였을뿐아니라 대렬의 통일과 단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분산성을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진보성과 제한성을 가지게 되는것은 이 운동이 민족주의에 그 사상적기초를 둔데 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와 혁명연극 《혈분단국회》는 의병들의 애국적투쟁에도 불구하고 명예욕에 사로잡힌 상층부의 자리다툼과 무능력, 무책임성과 배신 등으로 하여 무의미한 희생만 내는 당시 의병운동의 본질적인 약점을 진실하게 묘사함으로써 민족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이 운동의 계급적본질과 특징을 집약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러한 사상예술적성과는 민족주의의 계급적 본질과 제한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에 의하여서만 가능하였다.

사회적운동의 사상적기초를 밝히는것은 또한 시대적특징과 등장인물들의 사상적바탕을 해명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시대의 특징은 당대의 대표적인 사상조류와 그를 반영한 사회적운동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시대의 특징을 옳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사회적운동을 작품의 기본사건과의 유기적련관속에서 폭넓게 그리면서 그 본질적특징을 집약적으로 밝혀내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시대의 특징을 생동하게 드러내게 할뿐아니라 력사적인물들의 전형적성격을 옳게 창조할수 있게 한다. 사회적운동과 그것이 벌어진 력사적시대에 대한 사실주의적묘사를 떠나서는 그 시대, 그 운동의 소용돌이속에서 활동한 주인공들의 성격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없다.

우리 당은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단순히 이야기거리안에서 놓여놓지 말고 반드시 시대의 성격과 특징으로부터 출발하여 형상할데 대하여 밝혀주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 등에서는 작품이 기본이야기거리에만 매달리지 않고 당대의 애국문화운동, 국채보상운동, 반일의병운동 등 대표적인 애국운동을 폭넓게 반영하면서 주인공들의 성격을 다면적으로 파고듦으로써 시대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묘사하고 주인공들의 성격도 깊이있고 설득력있게 전형화할수 있었다.

사회적운동의 사상적기초를 해명하는것은 그 운동에 관여한 인물의 사상적바탕을 밝히는것과도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애국문화운동과 리준의 사상적제한성의 경우가 이것을 실증하여준다.

애국문화운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였던 리준은 애국문화운동이나 의병운동으로써는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을 건질수 없다는것을 통감하고 외세의존의 길로 나간다. 그의 이러한 사대주의적인 경향은 애국문화운동이 든 《내수외학》의 구호에 걸려있던 구미자본주의렬강에 대한 환상과 일정하게 관련되여있었다.

이것은 사회적운동의 사상적기초를 투철하게 밝힐 때만이 그것을 근본바탕으로 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련관되여있는 사회적운동과 시대와 인물들을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에서 진실하고 심도있게, 전형적으로 설득력있게 그려낼수 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력사물창작에서 인물의 성격규정을 똑바로 하는것은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사상미학적문제의 하나이다.

인물의 성격규정을 정확히 하는것은 전형창조에서 일반화의 요구를 실현하는 기본고리로서 다른 계렬의 인물과의 계선을 긋게 하는 기준점으로 된다. 그것은 성격창조의 출발점이며 귀결점이기도 하다.

리준, 안중근 등은 당시로서는 열렬한 애국자들이였으나 그들의 성격은 애국명장들이나 공산주의자들과는 구별되는 애국지사로 규정된다. 그것은 이들이 력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다르고 그 애국심의 사상적바탕이 다르기때문이다.

성격규정의 기본요인의 하나를 이루는 애국심의 사상적바탕에 대하여 볼

대 각이한 력사적시대에 활동한 애국자들 사이에는 본질적차이가 있다. 봉건시대 애국명장들의 애국심의 바탕에는 봉건충군사상이 놓여있었다면 반일의병운동자들과 애국문화운동자들을 비롯한 1910년을 전후한 시기 반일투쟁을 한 사람들의 애국심의 바탕에는 민족주의 사상과 리념이 놓여있었으며 공산주의자들의 애국심의 바탕에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놓여있다. 더우기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한 항일혁명투사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가장 고상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특징지어진다.

이와 같이 여러 계렬의 애국자들이 지닌 애국주의의 사상적바탕이 서로 다른것만큼 애국심의 발현 형태와 높이, 그들의 성격적특성에서도 응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만일 어떤 애국지사의 사상적바탕에 대한 구체적파악이 없이 그의 절절한 애국충정과 높은 지조를 일면적으로 강조하던 나머지 그의 시대적제한성을 약화시킨다면 인물의 성격규정이 모호해질뿐아니라 그를 혁명투사와 같은 위치에 올려세우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 등에서 정당하게 보여준바와 같이 안중근과 리준은 칠성판에 오른 나라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 귀중한것을 다 바쳐나선 당대의 열렬한 애국자들이였으나 민족주의의 사상적바탕에서 벗어나지 못한 애국정신을 지녔기에 그들은 국권회복의 길을 개인테로나 외세의존에서 찾는것과 같은 심각한 제한성을 발로시켰던것이다.

력사적인물의 성격적특징을 전면적으로 밝히면서 형상적력점을 적중하게 찍는것은 전형창조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원래 성격을 전면적으로 그리는것은 큰 규모의 작품창작에서 일반적으로 나서는 사실주의적요구이다. 성격의 특징을 일면적으로가 아니라 다면적으로 밝혀야 실지생활에서처럼 성격의 전모를 립체적으로 보여줄수 있다. 그래야 또한 생활을 풍부하게 반영하여 사람들을 다방면적으로 교양할수 있다.

성격을 전면적으로 묘사하는것이 력사적인물의 형상창조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인물성격자체가 진보적측면과 제한성을 다 가지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 두 측면가운데서 어느 한 측면을 놓친다면 인물의 성격을 진실하게 전형화할수 없을뿐아니라 다른 한 측면을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하는 편향을 가져올수 있으며 더군다나 지난날의 애국지사들의 성격을 항일혁명투사들의 성격과 별반 차이가 없게 형상할수 있게 된다.

항일혁명투사들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그리는데서 기본이 그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정신적특질을 다면적으로 풍부하게 형상하는데 있다면 력사적인물의 경우에는 그들의 진보성과 제한성을 다같이 전면적으로 그리는데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이 활동한 사회력사적시대와 성격적특징이 다를뿐아니라 인물형상이 노는 인식교양적기능이 서로 같지 않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성격의 본질적측면을 전면적으로 그리면서 형상적력점을 바로 찍는것은 력사적인물의 형상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함께 특히 현대성의 요구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성격창조에서 형상적력점을 어떻게 찍는가 하는것은 인물의 본질적특징을 현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미감에 맞게 어떻게 드러내보이는가 하는 문제와 결부된 긴요한 사상미학적문제의 하나이다.

진보성과 제한성을 가지고있는 력사적인물의 경우에는 그의 지위를 바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례컨대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반일투쟁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의 성격을 철저한 반일투사로, 민족적영웅으로 력점을 찍어 형상할 필요는 없으며 장면마다 그의 력사

적 및 계급적 제한성을 똑똑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력사적인물형상과정의 어느 한 계기에서도 이 점을 놓치면 그의 진보적측면이 일면적으로 돋보이게 할수 있으며 진보성과 제한성을 포괄하여 전면적으로 그리는데 대한 원칙적인 요구를 옳바로 해결할수 없게 된다. 특히 제한성이 대체로 력사적인물들의 애국적활동속에 깔려있는것만큼 그것을 옳게 밝히지 않을 때에는 제한성이 똑바로 드러날수 없으며 따라서 력사물이 인식교양적기능도 옳바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력사적인물의 경우에 그의 지위를 바로 규정하고 시대적제한성을 밝힌다는것은 결코 그의 진보성을 약화시킨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의 창조자들은 주인공 리준이 큰 나라를 등에 업고 국권을 회복하려고 한 사상적제한성을 옳게 밝힘으로써 그의 애국적인 활동은 과장함이 없이 사실그대로 진실하고 감명깊게 보여주면서도 외세의존과 사대주의는 망국의 길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심오하게 밝혀줄수 있었다.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시대와 그 성격의 특징에 맞게 쓰는것은 력사물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또하나의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이다.

극작품에서 형상창조의 기본수단인 대사는 등장인물들이 활동하는 시대와 구체적인 정황에 맞아야 하며 특히 그것은 등장인물들의 성격적특질과 정신세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것이여야 한다. 대사를 쓰는데서 이러한 형상적요구를 옳게 해결하여야 인물성격의 본질과 시대의 특징을 진실하게 밝힐수 있다. 그래야 또한 대사가 생활과 성격의 론리와 시대의 미감에 맞게 안겨오게 할수 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와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적인물의 성격창조에서 나서는 절실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력사물창조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훌륭히 구현한 고전적본보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공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념비적력사물로 각색완성되여 이룩한 빛나는 사상예술적 성과들은 력사물창작에서 력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킨데 대한 주체적문예방침의 정당성과 진리성, 그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이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힌 주체적 문예사상과 리론들은 력사물을 취급하는 작품창작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창작가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문예 사상과 리론, 방침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창조적탐구를 긇임없이 심화함으로써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이룩해놓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위대한 업적을 고수발전시키며 다양한 주제분야에서 긇임없는 창작적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구

송 병 덕

지금 우리 당은 짧은 기간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실현에로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고있다.

우리 당의 의도대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대규모의 중앙경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4권, 398페지)

지방공업은 주로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소비품에 대한 지방적수요를 보장하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는 사회주의공업이다.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은 대규모의 중앙경공업과 함께 자립적민족경제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루고있으며 인민생활을 높이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지방공업은 지방에 널려있는 원료원천과 자재, 로력을 동원리용하여 여러가지 종류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함으로써 소비품에 대한 다양한 지방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커다란 우월성을 가진다. 지방공업의 발전은 생산기지를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켜 생산과 공급을 보다 순조롭게 할수 있게 하며 많은 사회적로동을 절약할수 있게 한다.

모든 지방들에서 자력갱생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면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여 공업의 지리적배치를 합리적으로, 균형적으로 함으로써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한다. 지방공업의 발전은 공업과 농업의 경제적련계를 강화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고리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지방공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대규모의 중앙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여 경공업의 골간을 꾸리고 그 기술장비를 강화하는 한편 전인민적운동으로 지방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짧은 시일안에 훨씬 늘일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공업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매 지방마다에 소비품에 대한 수요의 많은 부분을 담당할수 있는 튼튼한 인민소비품생산기지가 마련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락후한 수공업밖에 없던 우리나라의 매 군들에 짧은 기간에 평균 18개이상의 지방산업공장들이 꾸려져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많은 소비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지방공업에서 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기본요구의 하나로 나선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방공업의 발전정도에 따라 경공업혁명의 성과가 중요

적 및 계급적 …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 계기 …
그의 진보적 …
게 할수 있 …
관하여 …
인 요구 …
다. …
들의 …
그것 …
성이 …
터 …

… 이라면 대규 … 생산을 급 … 규모의 지방 … 생산을 결정적으 …

… 인민소비품 … 보장하는 튼튼한 소 … 있다. 그러므로 … 발전을 떠나서 소비 … 의 수요를 원만히 … 인민소비품생산을 늘 … 혁명의 성과를 기대할 …

… 지방공업은 시초원료생 … 생산에 이르는 생산순 … 화와 직물류, 철제품 … 재, 식료품류를 비롯 … 종의 소비품을 보장할 … 를 갖추고있다. 우리 … 마다에는 지방공업을 … 있는 풍부한 원료원천이 있 … 퍼져진 중앙공업의 덜음지 … 있다.

… 이 모든 공정과 다양한 생산 … 원료원천을 가지고있는 … 생산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 적으로 리용한다면 국가투 … 늘이지 않고도 소비품의 량과 … 빨리 확대할수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커다란 생산능력을 가지고있는 지방공업의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늘이는 바로 여기에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인민소비품생산을 장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지방들에서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원칙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원래 혁명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 생활을 자체로 꾸려나가야 한다.

지방의 살림살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나라살림살이의 필수적구성부분을 이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의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창조적 로력과 투쟁으로 꾸려나가야 할 자기의 살림살이이다. 매개 지방의 살림살이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그 지방인민들자신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집살림살이를 꾸리는것과 같은 알뜰하고 깐진 솜씨로 지방경제를 발전시켜나간다면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고 전반적나라살림살이에 큰 보탬을 줄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꾸려나간다고 하여 지방들에서 자체로 할수 있는것까지 나라에 의존한다면 국가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고 나아가서 지방경제자체도 급속히 발전시킬수 없으며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도 잘 풀어줄수 없게 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수입의 압도적부분을 지방공업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지방공업생산을 늘이는것은 예산수입을 늘여 지방의 살

림살이를 자체로 꾸리는데 필요한 자금원천을 성과적으로 조성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그리고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소비품생산을 확대하고 지방의 예산수입을 늘여나가면 그만큼 국가축적을 기본건설과 사회문화시책을 실시하는데 더 많이 돌릴수 있게 됨으로써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게 된다.

지방공업의 발전은 주민들의 화폐수입도 늘일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생활을 윤택하게 꾸려나갈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는데서도 커다란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지방의 예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인민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할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성적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물질문화생활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진 오늘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당과 국가의 배려에 의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였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생활조건이 개선되고 화폐수입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더 질좋고 맵시있는 여러가지 문화용품과 일용품,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규모중앙경공업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는것과 함께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소비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없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없다. 더우기 한두해안에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빛나게 관철하자면 경공업부문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참으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그러므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받들고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이 더 많이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자체의 튼튼한 원료생산기지를 꾸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이 내세운 중요한 원칙은 지방자체의 원료에 의거하여 생산을 보장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121페지)

원료원천의 견지에서 볼 때 지방공업은 지방자체의 원료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공업이다. 지방의 원료를 가공하여 소비품에 대한 다양한 지방적수요를 충족시킨다는데 지방공업의 커다란 생활력이 있다. 지방공업이 중앙의 원료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지방공업이라고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꾸리는것은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자체의 원료기지를 가져야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소비품들을 제대로 생산보장할수 있다. 만일 지방공업부문에서 원료를 중앙공업에 의존하게 되면 지방의 예비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없게 되며 근로자들의 수요구조에 맞는 소비상품을 제때에 생산보

장할수 없게 된다.

지방공장들에 원료를 넉넉히 대주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공업원료기지를 정비보강하여 그것이 은을 내게 하는 한편 건설중에 있는 중소화학공장들의 조업을 다그쳐야 한다. 지방들에서 탄산소다공장, 가성소다공장, 칠감공장 등 중소화학공장들과 여러가지 원료와 소재가공기지를 꾸린다면 화학제품과 규격소재를 비롯하여 원자재에 대한 지방적수요를 능히 자체로 보장할수 있다.

이와 함께 재배 및 자연 원료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연원료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식료품가공원료, 초물제품원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원료작물들을 많이 심고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정보당수확고를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또한 정연한 수매사업체계를 세우고 농부산물들을 제때에 수매하며 낡은 자재들과 공업의 부산물, 페설물들을 널리 회수하여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원료와 자재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매개 지방의 특성에 맞게 자체로 원료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묻혀있는 원료원천을 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원료를 떨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는것이다.

생활이 향상될수록 질좋은 여러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쓰려는것은 사람들의 공통된 욕망이다. 사람들이 쓰는 소비품의 량과 품종, 그 질은 곧 그들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소비품은 다른 제품과는 달리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건인것만큼 맵시있고 질기고 다종다양해야 하며 량적으로 많아야 한다. 그래야 급격히 높아지는 근로자들의 생활상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다. 또한 매개 지방들에서 질이 높은 여러가지 소비품들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근로자들은 지방공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원료기지조성과 공장건설, 기술을 발전시키는 모든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제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는것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이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기술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일수 없다. 지방공업부문들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생산공정을 자동화하며 능률적인 생산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능공로력을 고착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이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야 한다.

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지방들에서 인민들이 요구하는것이라면 무엇이나다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구체적실정에 맞게 업종과 품종을 규정하고 생산을 전문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소비품의 종류와 생산량을 훨씬 더 늘이며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 끌어올려야 한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지방공업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체의 힘으로 꾸리고 관리해나가야 하는것만큼 그것이 얼마나 은을 내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지방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경험은 일군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집행하는 지방들에서는 례외없이 지

방공업이 잘 관리운영되고 인민생활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방공업에서 혁신을 이룩하자면 그 관리운영사업을 책임지고있는 일군들부터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은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잘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지방공업부문의 일군들은 계획을 세우는 사업으로부터 원료와 자재를 보장하고 설비를 점검보수하며 로력을 관리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잘하려면 일군들이 관리운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현실을 환히 꿰들고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생산지휘를 기동적으로 하며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경제적대책들을 제때에 세워야 한다.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생산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걸린 고리를 제때에 풀며 그들이 생산과 기술,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지방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사회적지원을 강화하는것은 지방공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지방정권기관들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소비품에 대한 지방의 수요를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은 전체 인민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므로 모든 부문에서 지방공업을 지원하는것은 마땅한 의무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에서는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여기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는것은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혁명의 중요한 요구이며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이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할것이다.

생산능력의 효과적리용은 사회주의 공업건설의 기본원칙

조 신 연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지금 있는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높일수 있고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99페지)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에 언제나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리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속도는 일정한 기간에 사회총생산물 또는 중요제품의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났는가에 따라 평가되며 사회총생산물과 중요제품의 생산량은 생산능력의 크기와 그 리용수준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본건설을 다그쳐 새로운 생산능력을 계속 조성하는것과 함께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한다는것은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기계설비들을 만부하로 돌려 그것들이 실지생산에서 자기의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며 최상의 생산성과를 내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생산실적을 생산능력에 일치시키며 생산능력만큼 제품을 생산해내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생산능력은 설비의 기술적인 상태와 기술공정의 완비정도, 원료와 연료, 자재의 보장정도를 비롯한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이 최상인 조건에서 낼수 있는 최대생산량으로 표현된다. 사회적생산은 원래 복잡한 공정으로 이루어지는것만큼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하여 생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이 제대로 다 작용하지 못할수 있다. 때문에 생산능력과 실지생산량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생길수 있으며 생산실적이 생산능력에 비하여 낮을수 있다. 이로부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생산실적을 생산능력에 최대한으로 접근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공업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무엇보다도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짧은 기간에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게 한다.

적은 밑천으로 생산을 장성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질수록 생

산을 빨리 늘이려면 새로운 경제토대를 축성하는것과 함께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물론 새로운 생산능력을 더 많이 조성하지 않고서는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생산능력을 계속 늘이는것은 생산장성, 경제발전의 선결조건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는 방법으로만 생산을 늘이자면 그와 관련한 기본건설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며 오랜 시일이 걸리게 된다.

이와는 달리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고도 짧은 기간에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게 한다.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완전히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기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만가동시키면 로동생산능률이 높아지고 제품생산량이 빨리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여 추가적인 투자없이도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낼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들을 기술적으로 더 개조하고 불비한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며 생산의 자동화수준을 높이면 생산능력이 처음에 조성한것보다 높아지게 된다. 그리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적게 하고도 생산을 훨씬 더 늘여나갈수 있다. 이것은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이 적은 밑천으로 짧은 기간에 생산을 장성시키는 보다 유익하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또한 새로운 생산능력을 더 많이 조성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의 목적은 날로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데 있다. 사회주의적생산의 목적에 맞게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해서는 기본건설을 다그쳐 새로운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원천은 국민소득에 의하여 형성되는 축적이다.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당면한 소비도 계통적으로 늘이면서 더 많이 축적하여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려면 국민소득을 빨리 늘여야 한다.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국민소득을 빨리 늘이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국민소득은 사회총생산물의 규모가 커지는데 따라 늘어나는것은 물론 사회총생산물의 규모가 일정한 조건에서도 생산수단이 적게 소모되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있게 리용하면 사회총생산물이 늘어날뿐아니라 고정재산의 마멸과 원료, 연료, 자재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것을 비롯하여 생산물단위당 생산수단의 소모량이 적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국민소득이 더 많이 창조되게 됨으로써 소비를 계통적으로 늘이면서도 생산적건설을 위한 축적을 증대시킬수 있게 된다. 또한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있게 리용하는 방법으로 생산을 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다양한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 때 전사회적범위에서 사회적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이처럼 이미 조성한 생산능력을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국가축적을 증대시키고 많은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을 절약하여 생산을 늘이기 위한 새로운 경제적밑천을 더 많이 마련할수 있게 한다.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또한 인민경제의 균형을 옳바로 보장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한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인민경제의 적극적인 균형을 전제로 하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계획에 따라 치차와 같이 맞물려돌아가는 사회주의경제는 련관된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에 정확한 균형이 보장되여야 제

대로 움직일수 있으며 굽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할수 있다.

인민경제의 균형은 련관된 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생산물의 량적일치성, 다시말하여 해당 생산물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량적으로 맞아떨어지게 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 매개 부문과 단위들의 생산능력이 이러한 균형보장을 전제로 하여 조성되며 그에 기초하여 생산과 분배, 교환과 소비가 계획화되게 된다. 따라서 인민경제의 어느 한 부문, 어느 한 단위에서라도 해당 제품을 계획대로 생산공급하지 못하면 련관된 부문과 단위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서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위한 균형은 오직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능력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면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에 맞물린 제품을 현물지표별로, 일별, 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대줄수 있다. 그리하여 련관된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에 주고받는 생산물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협동생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이 당면한 생산의 량적장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생산능력을 더 많이 조성하며 인민경제의 적극적인 균형을 실제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방대한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위력한 생산토대를 마련하여 놓았다. 우리 인민이 지금까지 다져놓은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 사회주의적농촌경리는 굉장한 위력과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가지고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만도 우리는 대안중기계종합공장과 김책제철소 랭간압연직장, 1,000만톤 능력의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현대적인 대규모의 공장, 기업소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이미 있던 공장, 기업소들을 개건확장하였다. 우리 나라에 마련된 이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능력의 리용수준을 단 몇%씩만 높여도 어려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더 건설하여 얻는것과 맞먹는 생산장성의 예비가 나올수 있다.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우리앞에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지금 우리 인민은 제2차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마지막고비에서 힘차게 벌리고있다. 특히 우리는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하기 위한 방대한 규모의 기본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이 목표가 실현되면 공업총생산액은 1946년에 비하여 무려 1,000배로 늘어나게 되며 1946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공업제품을 단 8시간동안에 생산해내게 된다. 이러한 목표를 불과 몇해동안에 실현하려면 5개지구전선건설을 비롯하여 새로운 생산능력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건설을 적극 다그쳐야 한다. 전례없는 대규모의 기본건설을 짧은 기간에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과 자금으로 해제끼자면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것은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이다.

지금 있는 생산능력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을 더욱 늘여야 설비와 자재, 자금이 더 많이 나올수 있으며 그

것으로 방대한 기본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능력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제품의 생산량을 늘이면 그만큼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할수 있을뿐아니라 중요건설대상에 력량을 집중하여 조업기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다.

현시기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도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를 건설한 보람은 인민들의 유족한 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먹고 입고 쓰고살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이 누구나 다같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이룩되고있지만 인민생활을 더욱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업들이 많다. 지금 있는 생산능력을 잘 리용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짧은 기간에 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더 늘이고 질을 훨씬 높여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민들의 생활상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이처럼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절박한 과업으로 나선다.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기계설비들을 직접 다루는것은 생산자대중이며 그들의 활동을 규제하는것은 사상의식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옳은 방도를 찾아낼수 있으며 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다. 근로자들의 힘과 지혜를 옳게 발동할 때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이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천리마대고조시기에만 하여도 강선의 로동계급은 6만톤밖에는 생산할수 없다고 하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편을 밀어냈으며 김책제철소 로동계급은 19만톤 공칭능력설비에서 27만톤의 선철을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그것을 옳게 발동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있게 리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해설침투하여 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생산자들이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기계설비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이 충분히 은을 내게 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경제조직사업은 생산자대중이 경제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조직하고 필요한 경제기술적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나타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힘있는 정치사업에 빈틈없는 경제조직사업이 안받침되여야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

경제조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 맡은 부문과 단위, 공장, 기업소들의 중요설비들의 생산능력을 정확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계획을

바로세우고 기술준비와 자재보장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드는것이다. 현대적생산은 기술공정이며 여러가지 원료와 자재를 대량적으로 소비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현대적생산의 특성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기술준비를 앞세우며 자재보장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기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만가동시킬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정확히 실현하고 생산을 기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자재를 우에서 책임지고 아래에 날라다주는 체계를 철저히 세워 근로자들에게 생산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어야 한다.

설비관리는 경제조직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설비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공장, 기업소의 생산능력은 다름아닌 기계설비들의 생산능력이다. 설비관리를 잘하여야 설비의 성능을 제대로 보존하고 그 수명과 가동시간을 늘이며 단위시간당생산성을 높일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설비의 점검정열제도와 계획적예방보수제도를 철저히 세우고 모든 설비들을 제때에 점검보수하며 근로자들이 자기 맡은 설비에 정통하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대로 설비를 다루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로력관리사업을 개선하여 480분로동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기능공로력을 고착시키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여 누구나 다 한몫씩 훌륭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이 최대한으로 은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오늘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야 생산능력을 계속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으며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 지금 있는 기계설비들을 더 능률적인것으로 개조하고 이빠진 공정을 보강하고 불비한 공정을 완비하며 선진적작업방법을 널리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이 계속 큰 은을 내며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채취공업, 특히 석탄공업과 전력공업, 수송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나라의 전반적인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석탄은 주체공업의 식량이고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수송은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 석탄공업을 비롯한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수송을 앞세워야 끊임없이 늘어나는 원료와 연료, 전력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다. 나라의 전반적인 생산능력이 얼마나 큰 위력을 나타내는가 하는것은 결국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수송을 앞세우는가 앞세우지 못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수송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서 자기들이 지닌 무거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원료와 연료, 전력을 제때에 대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에서는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수송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 부문을 물질기술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많은 정력과 지혜를 발동하여야 하는 책임적인 사업이며 생산을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것이다.

정확한 경제계산과 과학적인 경제관리

홍 동 억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경제계산을 바로하는것은 경제관리를 더욱 짜고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정확한 경제계산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언제나 복잡하고 다양하며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회경제 현상과 과정을 올바로 장악하고 정확히 분석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경제 현상과 과정의 합법칙성을 밝히고 당의 정책적의도와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경제계산은 객관적인 경제현상들과 경영과정을 계통적으로 관찰하고 계량계측하며 기록계산하는 경제적활동의 한 고리이다. 경제계산은 업무계산, 부기계산, 통계계산의 형태로 실현된다. 업무계산과 부기계산은 주로 개별적인 기업소적범위에서 일어나는 경영업무와 자산의 운동과정을 건별로, 수자적으로 기록계산하는 형태이며 통계계산은 그것들을 사회적범위에서 개관하고 종합하는 계산형태이다.

업무계산, 부기계산, 통계계산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면서도 통일적인 경제계산체계를 이루면서 호상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된다.

경제계산을 바로하면 사회경제현상의 객관적실태와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경영활동을 과학화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올바른 대책을 세울수 있다.

경제계산은 사람들의 사회경제생활의 요구에 의하여 발생한 때로부터 사회가 발전하고 생산의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그 의의와 역할이 끊임없이 강화되여왔다. 그러나 사회경제제도의 성격에 따라 경제계산의 의의와 역할은 근본적으로 달리 제기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계산은 리윤추구와 사유재산의 관리 및 보호 그리고 사회의 온갖 부패상을 위장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는데 리용된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계산이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고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계산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경제적수단으로 리용된다. 사회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월한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경제현상을 외곡하는 허위적이며 비과학적인 자료를 얻어내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 그 어떤 사회경제적근원도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계산은 사회경제현상의 객관적실태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것을 개조해나가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보장하는데 적극 복무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계산은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는 엄격한 계산과 과학적인 통계에 기초하여서만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4권, 206페지)

사회주의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와 발전된 기술에 기초하고있는 현대적인 대규모경제이며 모든 경제활동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고도로 조직화된 경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이 서로 밀접한 생산소비적련계를 맺고있으며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계획적으로 동원되고 계획적으로 분배리용된다.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자면 경제계산을 바로하여 객관적인 경제실태를 정확히 장악하고 계획화사업을 비롯한 경제조직사업을 과학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정확한 경제계산은 무엇보다도 인민경제계획을 바로세울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계획을 바로세우는것은 사회주의계획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경제발전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수도 있다.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워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경제발전 규모와 수준 그리고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의 현실태와 그 전망 등 생산의 모든 요소들과 요인들을 옳바로 타산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계획 항목들과 지표들을 새롭게 갱신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작성에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는 경제계산을 옳바로 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경제계산은 업무계산, 부기계산, 통계계산을 통하여 공장, 기업소들에서 일어나는 경영업무와 자산의 운동과정을 건별로 기록계산하며 그것을 전사회적규모에서 수자적으로 개괄하고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인 경제실태를 정확히 파악할수 있게 하며 그에 기초하여 경제발전전망을 과학적으로 예견할수 있게 한다. 경제계산을 바로하면 기초자료를 얻어내며 그것을 종합하고 가공분석하며 항목별로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계산업무활동의 전과정에서 정확성을 보장할수 있다. 그리하여 경제계산은 경제발전을 예견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원만히 보장하고 계산자료들의 정확성을 담보함으로써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게 한다.

정확한 경제계산은 또한 인민경제계획집행에 대한 조직과 지휘, 총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

경제발전계획을 세우는것은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의 첫공정에 지나지 않는다.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을 보장하자면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계획집행에 대한 조직과 지휘, 총화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계획집행에 대한 조직과 지휘, 총화 사업을 옳바로 할수 있는 정확한 기초자료들은 경제계산을 통하여 보장되게 된다.

경제계산을 바로하면 기계설비들의 성능과 가동정형, 원료, 자재의 보장과 그 리용정형, 로력의 리용정도와 일군들의 기술기능수준 등 경영활동전반을 세밀히 장악할수 있다. 그리하여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영활동을 개선하며 맡겨진 국가계획을 수행해나가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수 있게 한다.

경제계산은 계획수행정형을 인민경제부문과 단위별로 그리고 질량적으로, 지표별로 그 내용을 밝힘으로써 경제지도일군들이 계획수행에서 나타난 결함과 원인을 똑똑히 찾고 총화를 실속있

게 할수 있게 하며 뒤떨어진 부문과 단위, 지표들을 추켜세워 전반적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올바른 대책을 세울수 있게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경제계산이 인민경제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집행에 대한 조직과 지휘, 총화 사업을 짜고들기 위한 기초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정확한 경제계산은 인민경제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인민경제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그것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한사람당생산액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인민경제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해서는 물자재산의 상태를 정확히 장악하고 그에 대한 분석평가를 옳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제계산은 물자재산의 상태와 그 리용정형을 계통적으로 기록하고 종합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아직 동원리용하지 않고있거나 잘못리용하고있는 물자재산을 적극 찾아내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또한 공장, 기업소들의 재산과 생산물을 량적으로, 가치적으로 확정하고 등가성의 원칙에서 경제거래를 원활히 할수 있게 함으로써 물자재산 관리와 류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국가사회재산을 망탕 다루거나 랑비하고 류실하는것과 같은 무규률적이며 주인답지 못한 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그것을 절약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적극 보호할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경제계산을 바로하는데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경제계산을 바로하는것은 현시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새로운 중공업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이미 있던 공장, 기업소들이 개건확장되였으며 그 기술장비수준도 훨씬 높아졌다.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비할바없이 크다. 이미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토대의 위력과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는 여기에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중요한 방도가 있다.

특히 순천지구전선, 안주지구전선, 청진지구전선, 남포지구전선, 함흥지구전선의 5개전선건설과 남포갑문 건설,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대자연개조를 위한 전투장들에서 요구하는 기계설비들과 자재를 원만히 대주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여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전례없는 방대한 기본건설과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인민경제부문사이, 부문내부사이의 련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생산적소비의 규모는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경제의 규모가 방대하고 부문들과 단위들사이, 재생산고리들사이의 련계가 전례없이 밀접하고 복잡해진 조건에서 경제계산을 바로하여야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옳게 보장할수 있으며 방대한 량의 물자재산의 운동을 정확히 장악하고 그것을 절약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통제를 강화할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

의 모든 전투장들에서 생산과 건설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이것은 경제계산사업을 강화하는것이 현시기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교리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경제계산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경제계산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며 계량계측제도를 바로세우고 경제계산을 정확히 하며 기업관리에 전자계산기, 산업텔레비죤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여 경영활동전반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54~355페지)

경제계산을 바로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산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것이다.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것은 경제계산에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이다. 정확한 경제계산자료란 다름아닌 과학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계산자료이다. 과학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못한 계산자료는 아무런 의의도 없으며 그러한 자료는 오히려 경제관리에서 혼란과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게 한다. 과학성과 객관성은 계산사업의 생명이며 그것이 보장된 경제계산자료만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경제계산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계산방법론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다.

경제계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경제현상의 변화과정을 구체적인 수자로 반영하고 종합체계화하는 사업인것만큼 옳은 방법론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계산업무량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오늘의 조건에서 경제계산의 방법론을 바로세우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매개 계산형태들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과 수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계산에서 보다 완성된 수학적방법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영활동을 환히 꿰들수 있도록 계산지표들을 세분화대하고 경제계산을 세부화하여야 하며 현대적기계수단들이 도입되는데 맞게 여러가지 경제계산형태들사이의 방법론적통일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경제계산을 바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계산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경제계산은 물자재산통계를 내고 생산실적을 기록하는 단순한 산수적계산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초계산자료를 종합하고 량적지표와 질적지표를 대비분석하여 경제 현상과 과정의 합법칙성을 밝혀내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으로서 여기에는 수많은 계산단위들과 기계수단들, 사람들이 참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계산은 오직 통일적인 경제계산체계와 정연한 질서를 세워 모든 단위들과 사람들이 유일한 계산 체계와 질서에 따라 움직일 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일군들은 유일적인 경제계산체계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통일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모든 계산활동을 조직진행해나가야 하며 계산 규정과 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지키지 않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특히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업무계산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종업원들의 출퇴근으로부터 설비의 리용정형, 자재, 제품의

입출고 그리고 생산물의 거래와 실현과정에 이르는 모든 경영활동과정을 정확히 기록계산하고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경제계산을 바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계산사무를 적극 기계화하는것이다.

계산사무를 기계화하는것은 경제계산의 과학성과 객관성, 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경제계산을 기계화하면 기초계산으로부터 계산자료의 분류, 집계, 비교, 판단, 선별, 자료처리에 이르는 모든 계산업무들을 기계와 기계체계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계산업무량도 짧은 시간에 신속정확히 처리할수 있다. 또한 많은 계산로력을 절약하면서도 계산지표들을 세분확대할수 있다. 그리하여 과학성과 객관성이 보장되고 전면적으로 세분확대된 자료들을 신속히 얻어낼수 있게 된다.

우리는 전자계산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계산기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그 리용률을 높이며 모든 계산사무를 기계화하여야 하며 점차 생산공정이 자동화되는데 맞게 경제계산의 종합적인 기계화와 자동화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계산 기관들과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경제계산을 바로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계산 기관들과 일군들은 계산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직접적담당자들이다. 아무리 계산방법론이 바로서고 계산사무가 기계화되여도 그 직접적담당자들인 경제지도일군들과 이 사업을 맡아보는 근로자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제대로 은을 낼수 없으며 계산사업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경험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생산의 모든 요소들과 그 변화과정을 수자적으로 정확히 장악하며 제때에 올바른 대책을 세워나가는 단위일수록 경제관리가 개선되고 국가계획과제도 넘쳐수행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있는 오늘날 과학적인 계산사업을 홀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해가지고서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옳바로 관리운영할수 없다.

계산 기관들과 일군들은 자기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계산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계산사업을 옳바로 조직진행해나가야 한다. 또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계산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한자리에 오래동안 고착시키며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하나의 계산을 하고 하나의 계산자료를 다루는데서도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이 경제계산에 대한 옳은 태도와 관점을 가지며 계산사업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제계산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모든 경제계산을 과학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청년학생운동

한 영 읍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미제의 조종밑에 진행된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사이의 침략적이고 매국적인 《회담》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한 6.3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20년이 지나갔다.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정책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6.3봉기의 의로운 투쟁정신은 오늘도 의연히 살아있으며 그것은 남조선에서 외세를 반대하고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1964년에 있었던 6.3봉기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반대하며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기 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애국적인 구국항쟁이였다.

미제는 1960년대초부터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결탁시킴으로써 《아세아반공집단체제》를 형성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침략전략에 따라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반동들과의 굴욕적인 《회담》을 《조기결속》하기 위한 매국배족행위를 로골적으로 다그쳤다. 이것은 구국일념에 불타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남조선에서 대중적인 투쟁이 폭발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되였다.

1964년 3월 24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을 도화선으로 하여 시작된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반동들간의 매국적이며 침략적인 《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은 이해 6월에 들어서면서 절정에 이르러 드디여 대중적인 반《정부》폭동으로 발전하였다.

봉기한 청년학생들과 군중들은 남조선괴뢰들과 일본반동들사이의 《회담을 결사 반대한다》, 《박정권타도하라》, 《일본군국주의를 박살하라》, 《미국은 가면을 벗으라》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청와대》로 육박해들어갔다. 이 대중적봉기에는 서울의 청년학생들을 선두로 하여 무려 59만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말미암아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반동들사이의 《회담조기타결》책동은 저지파탄되였다.

6.3봉기는 1960년 4월인민봉기이후 남조선에서 일어난 가장 큰 대중적인 반제, 반《정부》 투쟁으로서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6.3봉기는 또한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굴함없이 싸우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애국적기개와 불굴의 투쟁정신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남조선인민운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슬기롭고 용감한 반제, 반파쑈민주화투쟁은 6. 3봉기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였으며 날을 따라 강화발전되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1960년대에 이어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애국투쟁을 벌렸으며 1979년에는 10월민주항쟁으로 마침내 《유신》독재의 원흉인 박정희역도를 파멸시키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특히 그들은 1980년 5월 영웅적광주인민봉기를 통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았다.

광주인민봉기이후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

화를 위한 투쟁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온갖 탄압책동에도 불구하고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지난 4월과 5월에만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남조선전역의 50여개 대학학생들이 《독재정권타도하라》, 《민족통일》, 《학원사찰 중지하라》, 《강제징집반대》 구호를 웨치며 기동경찰과 투석전을 벌리면서 격렬한 반파쑈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이 간고한 투쟁속에서 더욱 각성단련되고 투쟁핵심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으며 청년학생운동이 날을 따라 심화발전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은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의 요구가 결합되고 의식화, 조직화되여가면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반미반파쑈투쟁을 통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비록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나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날을 따라 강화발전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16페지)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외세의존정책과 파쑈화책동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주도적이며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다.

새것에 민감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지난날의 투쟁경험에서 교훈을 찾고 자기들의 애국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되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투쟁이 반미자주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반미, 반파쑈민주화 운동으로 확고히 전환된데서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반미자주화투쟁은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지난 30여년간에 걸친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찾은 피의 교훈에 기초한 필연적귀결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며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억압말살하고있는 장본인이라는것을 력사의 교훈을 통하여 똑똑히 체득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미제를 《침략자》, 《광주학살의 공범자》로 락인하고 그에 투쟁의 화살을 돌리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양키는 물러가라》, 《미국의 신식민주의를 반대한다》, 《반파쑈, 반미 투쟁 만세》 등의 구호밑에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며 미제식민지통치의 하수인인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을 타도하기 위한 반미, 반파쑈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에서 반미기운이 급속히 높아지고있는 속에서 애국적청년학생들은 1980년 12월에는 광주에서, 1982년 3월에는 부산에서 숭미사대주의사상문화적 침투의 거점인 《미국문화원》에 불을 질렀고 지난해 9월에는 대구에 있는 《미국문화원》에 대한 폭파투쟁을 벌리였다. 1982년 4월 강원대학교 학생들은 수천명의 모임장소에서 저주로운 미국기발을 불태워버렸으며 대중적반미자주화투쟁을 호소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11월에 레간의 침략적행각을 계기로 남조선청년학생들속에서는 30여건의 강력한 반미, 반전반핵, 반괴뢰 투쟁이 벌어졌다.

모든 사실들은 현시기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의 예봉이 바로 침략자미제를 반대하고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로 힘있게 돌려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청년학생운동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은 주되는 내용으로 되고있으

며 그것은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미자주화운동발전에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되고있는것은 다음으로 선진적청년학생들이 자기들의 정치투쟁을 로동운동과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한 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청년학생운동은 오직 광범한 로동자, 농민 대중의 투쟁과 밀접히 결합될 때에만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벌려온 반파쑈민주화투쟁의 경험과 교훈은 이 진리를 더욱 똑똑히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광주인민봉기이후 청년학생운동을 로동운동과 결합시키기 위한 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그들은 로동계급이 반미반파쑈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며 《조직된 근로대중》이 청년학생운동과 결합될 때 비로소 반미반파쑈민주화투쟁은 확실한 전망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로동자들속에 침투하여 사상계몽활동과 련대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로동자, 농민들을 위한 야학장소에 들어가 배워주기도 하고 그들에게서 배우기도 하고있다.

최근에 알려진 《근로야학회사건》만 놓고보더라도 그것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이 광범한 로동자대중속에 들어가 활동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또한 많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로동3권 쟁취하자》, 《농민권익 쟁취하자》, 《로동자, 농민의 권리를 탄압하지 말라》 등 여러가지 적극적인 투쟁구호를 제기하고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지지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청년학생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추향이며 그 심화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일본의 출판물들이 남조선에서는 80년대에 들어와 대중투쟁의 《내용과 성격이 변하고있다》고 하면서 청년학생들과 로동자들이 손을 잡고 《대규모적인 반체제운동으로 나갈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있다고 론평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이 심화발전되고있는것은 또한 선진적청년학생들이 《리론무장》과 《정치적의식화》를 대중투쟁의 선결문제로 제기하고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사상과 리론, 혁명운동경험들을 널리 연구보급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혁명은 대중을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지만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높이 발양될수 없으며 혁명투쟁에서 큰 역할을 놀지 못한다.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객관적진리이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자기들의 실천투쟁경험을 통하여 이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오늘 남조선청년학생들속에서는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따라배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으며 그 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가고있다.

전라남도 목포시내 청년지식인들은 《오성회》라는 지하조직을 뭇고 《김일성방송대학》 강의를 체계적으로 청취하였으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선진적청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수록한 혁명서적들을 탐독하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의식화운동에서 또한 주목되는것은 지하《리념써클》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는것이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리념써클》활동은 이미 1960년대 중반기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시기와 같이 광범히 벌어

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오늘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지하《리념써클》은 전문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에만 110여개가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한다.

《리념써클》들에서는 년차별 목표와 계획 밑에 진보적서적들의 탐독과 연구토론, 실천투쟁의 결합을 통하여 청년학생들을 의식화하며 단련시켜나가고 있다.

남조선에서 대학생들은 대체로 4~5년을 주기로 부단히 교체되지만 그들의 투쟁은 중단없이 계속되면서 심화발전되고있다. 학생들에 대한 남조선괴뢰도당의 반동사상주입책동은 자본주의에 대한 찬미와 반공으로 일관되여있으나 남조선의 진보적청년학생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사상을 깊이 체득하기 위하여 힘쓰고있다. 학생세대는 부단히 교체되지만 투쟁이 계속되고 반동사상이 집요하게 주입되지만 청년학생들이 선진사상을 체득하게 되는 대조적현상의 밑바닥에는 《리념써클》을 비롯한 의식화활동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게 깔려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어용신문들까지도 《학생들의 움직임뒤에는 〈지하대학〉으로 불리우는 음성써클이 있고 그들의 행동의 원동력은 〈의식화운동〉에서 나오고있다.》라고 쓰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식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고있을뿐아니라 진보적서적들을 번역출판하거나 복사하여 널리 보급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사상계몽활동도 힘있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리론무장》과 《정치적의식화》를 다그치며 대중적사상계몽활동을 널리 벌리고있는것은 청년학생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보여주는것이며 남조선에서 혁명운동과 대중투쟁의 잠재적력량이 더욱더 강화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하여주는것이다.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은 미제와 력대남조선괴뢰도당의 가장 포악한 식민지군사파쑈통치가 계속되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왔으며 전반적혁명운동과 대중투쟁의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이것은 20년전 6.3봉기에서 발휘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적기개와 불굴의 투쟁정신의 단순한 반복과정이 아니라 그들의 투쟁이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단계에로 강화발전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와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남조선혁명운동발전에서 커다란 혁명적역할을 하고있는 청년학생운동을 말살해보려고 온갖 발악적책동을 다하고있으나 그것은 청년학생들의 불만을 더욱 증대시킬뿐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가 계속되고 인민들의 자주적권리가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는 조건에서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일어나는것은 불가피하다.

반제자주화의 시대적흐름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지 못할것이며 날을 따라 더욱더 강화발전되여나갈것이다.

미국의 반동적경제정책과 그 전면적파산

리 근 환

오늘 미국은 력사상 류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있는 이러한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제도의 필연적산물이며 레간의 반동적인 경제정책의 직접적인 후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경제위기를 막을수 없으며 그 파국적후과를 면할수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본주의세계의 경제위기는 더욱 더 심각하여질것이며 그 후과도 더욱 파국적인것으로 될것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15페지)

생산의 파동성은 자본주의경제의 고유한 속성이며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제도의 피할수 없는 현상이다.

자본주의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경제위기를 모면할수 없다. 더우기 자본주의적《처방》과 기만술책으로써 그를 《극복》해보려고 하는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1970년대 미국독점자본의 대리인이였던 닉슨과 카터는 날로 심각화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호언장담해나섰다가 끝내 파산을 면치 못하였다.

선임자들의 쓰라린 교훈을 아랑곳하지 않은 레간은 대통령《선거공약》에서 자기가 대통령감투를 쓰게 되면 심각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경제적《번영》을 이룩해놓겠다고 위선적인 궤변을 늘어놓았다. 집권한 다음 그는 1981년 2월 미국국회상하량원합동회의에서 이른바 《강력한 미국의 재건》을 위한 기만적인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레간의 반동적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말하여 군사비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정부의 지출을 축감하며 금융을 긴축하고 세금을 낮추며 정부에 의한 각종 경제적규제조치를 완화한다는것이였다. 이러한 경제정책을 실시한다면 1984년까지 미국련방정부예산의 균형을 바로잡고 세률을 25% 낮추며 실업률도 4%수준까지 저하시킬수 있다고 하였다.

레간이 내놓은 경제정책이란 그 어떤 《새로운것》이 아니며 이미 있던 부르죠아경제 리론과 궤변으로 미화분식된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독점자본의 리익에 복무하는 반인민적인 경제조치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레간이 대통령감투를 쓰게 되였을 때 미국의 군수독점체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독점재벌들이 그의 집권을 《미국 군수독점체들의 번영과 부흥을 예고하는 력사적사변》이라고 환성을 올린 사실이 그것을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레간이 집권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입버릇처럼 되뇌이던 미국경제의 《회복》과 《성장》은 한갖 망상에 불과한것이였다.

지금 미제의 경제위기는 레간이 집권하기전보다 더욱 심각화되였으며 1930년대초의 대경제공황의 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

력사상 류례없는 방대한 국가예산적자와 무역적자, 날로 늘어나는 실업과 인플레로 하여 미국경제는 암담한 처지에 빠져있다. 하기에 레간행정부의 고위인물들과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채권국으로부터 채무국으로, 제2류급의 나라로 전락될 위험이 조성되고있다고 비명을 올리고있으며 주지사들과 국회의원들은 레간에게 경제정책의 변경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레간의 반동적경제정책이 전면적으로 파산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독점자본의 대리인인 레간의 경제정책이 파산된것은 무엇보다도 침략과 략탈을 합리화하고있는 반동적인 《신자유경제론》에 의거한데 있다.

황당한 사이비《리론》에 기초한 《정

책>은 파산되기마련이다.

레간이 의거한 《신자유경제론》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경제생활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와 《개입》을 완화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자유》를 극력 보장해줌으로써 사회에 대한 공급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반동적인 부르조아경제리론의 한 조류이다.

《신자유경제론》의 주장자들은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위기의 기본요인을 자본주의제도자체에서 찾지 않고 류통과 분배 분야에서 찾으면서 모든 경제문제들을 그에 귀착시켜 론의하고있다. 그들은 지어 경제위기까지도 화폐와 신용, 가격과 리자, 저축과 조세 등을 조절하면 《극복》할수 있는듯이 허황한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특히 이러한 《리론》의 대표적인 학파인 프리드만의 시카고학파는 정부가 지난날처럼 케인즈《리론》에 기초하여 사회경제생활을 규제하고 조절할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동조절작용》을 존중하면서 시장을 자유개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해나서고있다. 프리드만은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개인의 《자유》와 시장기구의 《효률성》을 억제하는 정부에 의한 가격규제와 관세의 할당, 생산량과 임금의 통제 등을 완화하거나 페지하여야 하며 정부는 다만 통화발행량만 조절하고 루진세대신에 23.5%의 《단일균일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정부가 이러한 《리론》에 기초하여 경제정책을 세운다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뿐아니라 《안정된 경제》를 유지해나갈수 있다는것이다.

프리드만의 이러한 경제《리론》은 제국주의시기에 있을수 없는 이른바 《시장의 자동조절작용》을 절대화하는 허황한 부르조아경제리론이다. 그것은 또한 자본주의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보다 많은 리윤을 얻어보려는 독점자본 특히 군사산업복합체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고있는 반동적인 부르조아어용경제리론인것이다.

레간은 바로 이러한 허황하고 반동적인 《신자유경제론》을 자기의 경제정책의 《리론적기초》로 삼았던것이다.

레간이 비과학적이고 반동적인 《신자유경제론》에 매여달리게 된것은 일련의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미제의 력대집권자들에게 복무한 각종 부르조아경제리론의 반동성과 비현실성이 드러날대로 드러난 조건에서 레간은 정계와 학계에서 도외시되고있던 《신자유경제론》에라도 의거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국의 주요 부르조아경제학조류들은 력대집권자들에게 어용경제리론을 제공해주다가 모두 파산당하고말았다.

케인즈의 《리론》은 정부가 《개입》하여 공공기업의 투자를 늘이게 하는 방법으로 경제위기를 모면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수 있다는 허황한 궤변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론》은 오래동안 미국집권자들에게 복무해오다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용경제리론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말았다. 1960년대에 득세하였던 로스토우의 반동적인 《경제성장단계론》과 《후진국개발론》은 생산의 기술적, 량적 지표만을 절대화하면서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신식민주의를 미화분식하는것으로 하여 전 미국대통령 케네디에게 복무하다가 파산을 면치 못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적자유경제와 정부가 《조절》하는 이른바 《계획적경제》를 절충하여야 한다는 사무엘손의 《혼합경제론》도 1970년대에 그 허위성과 반동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말았던것이다. 반동적인 부르조아경제학계가 이처럼 위기에 처하고있는 조건에서 레간은 부득불 보잘것 없는 《신자유경제론》에 매여달리게 되였던것이다.

호전광인 레간이 《신자유경제론》을 자기의 경제정책의 《리론적기초》로 삼은것은 또한 그것이 군비확장과 침략전쟁을 극력 합리화하고 미화분식하고있는데 있다.

《신자유경제론》은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대대적인 군비

독강과 침략전쟁에서 찾아야 한다고 실고하고있다. 이것은 탐욕적인 군수독점자의 리익을 대변하고있는 레간의 호전적인 지향과 요구에 부합되는것이였다.

무지막지한 레간은 바로 이러한 허황하고 반동적인 《신자유경제론》의 주장자들이 만들어준 각본대로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을 하였다. 레간은 대통령감투를 쓴 다음에도 그들을 경제담당 보좌관과 정부고관 자리에 들여앉히고 제놈의 경제정책을 만들게 하였다.

레간의 경제정책은 미국에서조차 버림받고있던 반동적인 《신자유경제론》을 정책화한것으로 하여 세상에 공포된 첫날부터 이미 파산을 예고하고있었다.

미국독점자본의 뒤받침밑에 레간이 집권한지 3년이 지난 오늘 그 예고는 완전히 현실화되고말았다.

레간의 반동적인 경제정책이 파산된것은 또한 그 경제정책자체의 모순과 파련되어있다.

력사의 흐름과 시대의 요구를 가로막아나서는 반동적인 통치배들의 《정책》이란 자체모순과 기만성을 특징으로 하고있다. 멸망을 앞두고 최후발악하는 통치배들의 《정책》에서는 그것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레간의 경제정책은 궁지에 빠진 미제의 처지와 요구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체모순으로 가득차있다.

그것은 감세정책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레간의 반동적인 경제정책은 기만적인 감세조치를 출발점으로 삼고 저축증가, 기업투자의 촉진, 생산성제고, 세입의 증대를 거쳐 궁극적으로 경기회복과 재정적자의 축소를 이룩해보려는 사고방식에 기초한것이였다.

현실은 레간의 이러한 《구상》이 한갖 망상과 위선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레간은 제놈의 감세정책을 모든 사람의 《복리》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것처럼 미변이면서 종전의 최고 70%로부터 최하 14%였던 소득세률을 최고 50%로부터 최하 10%로 낮추는 놀음을 벌렸다.

그러나 그 감세조치는 미국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증대시켜놓았다.

자본가들과 통치배들과 같은 소득이 많은자들의 세금률은 20%나 낮아졌으나 근로대중의 세금률은 불과 4%만 감소되였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세률이 높아진 지방세를 부담하게 되였다.

레간의 허울좋은 감세정책은 실제상 부자를 위한것이였고 근로대중을 기만하고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반동적인것이였다.

감세정책은 또한 레간의 기대대로 저축을 증가시켜 기업투자자금을 마련한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통치배들은 소득세률을 낮추면 면세된 금액만큼 저축이 증대될것이고 이 저축금을 기업투자자금으로 리용할수 있을것이라고 망상하였다.

그런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난해 한분기의 저축률만 하여도 4%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것은 1975년부터 1981년까지의 년평균저축률보다도 낮은것이였다.

저축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한 자금도 기업투자자금으로 리용되지 못하고 거의 전부가 정부의 예산적자와 채무액을 메꾸는데 리용되고말았다.

미국행정부의 예산적자는 1980년에 596억딸라였는데 1983년에는 그것이 1,954억딸라로서 3배이상 늘어났으며 정부채무액은 무려 1조 6,000억딸라라는 천문학적수자에 이르렀다. 미국정부는 이 방대한 예산적자와 채무액을 메꾸기 위하여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1981년에는 990억딸라를, 1982년에는 1,520억딸라를 꾸지 않으면 안되였다.

레간의 이러한 조치는 기업투자자금의 감소를 초래케 하여 미국사회전반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시키고 경제위기를 더욱 격화시켰다.

그리하여 레간은 《감세공약》을 헐버

리고 증세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어 앞으로 983억딸라의 세금을 징수할데 대한 《세금인상법안》에까지 서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감세정책을 핵으로 하는 레간의 경제정책의 전면적파산을 뚜렷이 말해주는것이다.

레간의 경제정책의 모순은 또한 기업활동에 대한 이른바 정부규제조치의 완화정책에서도 발로되였다.

정부규제조치의 완화정책이란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경제기술적인 통제를 위한 법과 규정들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자본가들에게 기업활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주고 나아가서 경기회복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였다.

이 정책은 전적으로 자본가계급에게만 유리한것이였으며 물가의 등귀와 생활환경오염의 증대 등 엄중한 사회경제적후과를 빚어내게 한 반동적인것이였다.

소비품가격에 대한 레간행정부의 규제완화조치는 그 실례로 된다.

독점이 지배하고 독점가격이 형성되여있는 조건에서 소비품가격에 대한 규제조치의 완화는 독점자본에게 소비품의 가격을 체계적으로 올릴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미국독점자본가들은 레간의 이러한 조치를 기화로 소비품가격을 올려 최대리윤을 얻을수 있었다. 한편 근로대중의 생활처지는 종전보다 더욱 악화되였다.

제품과 설비에 대한 레간행정부의 기술적규제의 완화조치는 자본가들로 하여금 제품과 설비를 생산하는데서 공해문제를 아랑곳하지 않게 하였다.

미국에서는 레간의 집권시기에 공해현상이 더욱 증대되였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량에 대한 규제기준을 낮추어줌으로써 도시의 가스공해를 급격히 증대시킨것은 그 실례의 하나이다.

레간행정부가 감행한 정부규제조치의 완화정책의 모순은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관계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레간은 미국자본가들에게 무역에 대한 규제조치를 완화해주면서 대외수출을 장려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 시장의 자유개방과 미국상품에 대한 수입량의 증대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미국시장에 대한 다른 나라 상품의 침투를 억제하는 보호무역주의정책을 감행하였다.

오늘 《미일무역전쟁》이 심각히 벌어지고있는것은 그 전형적인 실례이다. 미제는 일본에 저들의 소고기와 귤, 기타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할것을 강요하면서도 일본이 자동차와 강재, 천연색텔레비죤 등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억제하고있다.

경제에 대한 레간의 규제조치의 완화정책은 여러가지 모순을 내포하고있고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미국안에서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비난과 항의를 받고있다.

레간의 경제정책의 모순은 통화관제조치와 임금억제정책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미제의 력대통치배들은 경제가 침체되였을 때에는 흔히 금리를 낮추고 화폐의 공급량을 늘임으로써 자본가들에게 자금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인플레를 조성시켜놓았다. 그와 반대로 인플레가 조성되였을 때에는 금융긴축정책을 감행하여 대부자금의 금리를 올리고 통화공급량을 줄임으로써 인플레를 억제해보려고 꾀하였으나 결국 생산을 감소시키는 후과를 빚어내였다.

그런데 레간은 만성적인 인플레와 대량적인 실업에 경제침체까지 겹쳐있는 조건에서 금융긴축정책과 임금억제정책을 감행함으로써 실업과 기업파산을 증대시키고 인플레도 억제 못하였으며 결국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켜놓았다.

지금 미국에서는 자금난이 조성되여 수많은 기업체들이 파산당하고있으며 실업은 증대되고있다. 지난해 11개월동안에만 하여도 미국에서는 2만 8,200여개의 기업체들이 파산되고 실업자는 무려 1,200만명에 달하였다. 임금억제정책에 의하여 최저임금제에 대한 규제조치까지 완화됨으로써 취업로동자들의 실질임금뿐아니라 명목임금까지도 계속

낮아지고있다.

레간의 고금리정책은 미제의 무역수지적자를 증대시키고 자본주의세계의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려놓았다.

미제의 고금리정책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딸라시세의 상승은 자기의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미국상품의 수입대금을 종전보다 더 많이 지불하게 된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상품의 수입을 줄이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다. 그 결과 미국의 무역적자는 늘어나게 되였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1982년도에 472억딸라였는데 1983년도에는 그것이 694억딸라로 늘어난 사실이 그것을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무역적자가 이처럼 늘어남에 따라 대외채무액이 증대되고 해외대부자본의 상환이 늦어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미국금융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있으며 은행들이 련이어 파산당하고있다.

1982년에 미국은행의 파산건수는 40여건이였으며 1983년에는 5개의 큰 은행이 지불능력이 없는것으로 선포되고 주요은행 26개가 파산되였다. 이것은 40년래의 최고기록이였다.

레간의 고금리정책은 이처럼 미국자체의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있을뿐아니라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위기도 증대시키고있다.

그리하여 레간의 고금리정책은 지금 자본주의세계에서 경제문제의 범위를 벗어난 중요한 정치문제로 제기되고있으며 미제와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대립과 모순을 격화시키고있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모든 사실은 레간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모순에 차고 허황하며 반동적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레간의 기만적인 경제정책은 전면적으로 파산되고 그 반동성은 세계면전에서 드러날대로 드러났다. 하기에 미제의 반동정객들도 《미국은 레간정권밑에서 더욱 빈곤해졌다》고 개탄하고 있다.

지난 3년동안 레간이 감행한 위선적인 경제정책은 호전적인 군비확장, 새 전쟁정책으로 말미암아 미국통치배들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대적인 군비확장정책은 레간의 경제정책의 전면적파산을 이미 예고하였을뿐아니라 그 파산의 주되는 요인으로 되였다.

력대미국통치배들가운데서 가장 반동적이고 호전적인 레간은 제놈의 《경제정책》의 전면적파산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경제위기의 심화와 《인기》의 저락으로부터의 출로를 군비의 대대적인 확장과 새 전쟁, 세계전쟁에서 찾으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대대적인 군비확장, 침략과 전쟁이라는 《처방》으로써는 멸망해가는 미제의 운명을 결코 구원할수 없다.

력사는 전쟁광신자들에게 차례지는것이란 오직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발악적책동을 다하여도 전면적위기에 처하여 죽어가는 제놈들의 운명을 돌려세울수 없으며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자주화를 지향하는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근로자 1984년 제6호(루계 506호)

편 집 위 원 회

편곳•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4년 6월 1일　　발 행• 1984년 6월 3일

ㄱ—45153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7호

평 양 근로자사 1984

제 7 호(507)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심화시키자

지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우리 당이 창조하고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는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는 숭고한 력사적위업이다. 이 위업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아직 그 누구도 실천해보지 못한 생소한 사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자연개조사업은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들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투쟁, 다시말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 수행된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을 낡은 사상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할수 없으며 그들에게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보장해줄수 없다.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를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3대혁명은 그에 맞는 옳은 혁명지도방법을 확립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3대혁명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한것을 목표로 하는만큼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을 요구한다.

혁명지도방법은 혁명투쟁의 성격과 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혁명지도방법은 결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혁명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되고 완성되여나가는것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창조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과학적이며 현대적인 혁명지도방법을 마련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입니다. 경험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에 맞게 3대혁명을 더욱 조직화하고 적극화하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21페지)

우리 당이 창조한 3대혁명소조운동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발전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조직화하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며 모든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져있는 사회이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사업을 고도로 조직화하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다.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조직화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은 인민대중의 조직되고 단
…하여 전진하며 승리한다.
…로 굳게 조직되고 단결되여
…에서나 건설사업에서 참으로 놀라운 힘을 나타낸다.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3대혁명에서도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철저히 조직화하는것이다. 3대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는 혁명인것만큼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모든 분야에서 고도로 조직적인 투쟁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되는데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조직화하는 문제는 3대혁명소조운동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고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을 위한 투쟁을 고도로 조직화한다.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3대혁명을 조직화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켜야 3대혁명을 당의 의도에 맞게 목적지향성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를 위한 거창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당이 지도하는 운동이므로 당이 의도하는대로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고도로 조직화할수 있게 한다.

당정책을 잘 아는 큰 규모의 지도력량인 3대혁명소조는 중간다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생산단위에 들어가 당의 구상과 요구를 대중에게 제때에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3대혁명수행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의도를 드팀없이 관철하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조직화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맞게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키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옳게 보장하는것이다.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옳게 보장하지 않고서는 당의 구상을 실현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데 전체 인민을 한결같이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결국 3대혁명을 더욱 조직화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바로 소조원들의 구성상특성으로 하여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밀접히 결합시켜 3대혁명을 적극 조직화해나갈수 있게 한다.

3대혁명소조에는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지도능력과 사업경험이 있는 당핵심들과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참신한 새세대청년인테리들이 망라되여있다. 3대혁명소조는 이처럼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일군들로 지도력량을 구성하고있으므로 광범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상적지도와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과학기술적지도를 훌륭히 결합시킬수 있다. 이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주의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데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조직화하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당이 창조한 3대혁명소조운동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적극화하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혁명과업인 3대혁명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거창한 투쟁이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3대혁명은 수백만 근로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된다. 3대혁명에서의 성과는 그것을 얼마나 적극화하는가, 거기에 인민대중을 어떻게 광범히 참가시키는가 하는데 따라 크게 좌우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고도로 적극화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을 위한 투쟁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3대혁명을 적극화하자면 구체적인 대상과 실정에 맞게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광범한 대중으로 하여금 3대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중이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야 3대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해당 단위의 당조직과 합심하여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며 군중적운동으로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한다.

3대혁명소조들은 지난날의 낡은 수공업적인 지도방법의 틀을 마스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감으로써 3대혁명을 더욱 적극화한다.

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문구조가 복잡해진 조건에서 한두사람의 일군이 아래에 내려가 지도하는 방법으로써는 아래실정을 전면적으로 깊이 료해할수 없을뿐아니라 걸린 고리도 정확히 찾아낼수 없으며 복잡하게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줄수 없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큰 집단의 지도성원들이 현실에 내려가 혁명적군중로선과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아래일군들을 진심으로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왕성한 패기와 정열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한다.

3대혁명소조를 통한 지도방법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사람자체를 투쟁대상으로 하고있는것이 아니라 낡은 사상을 투쟁대상으로 하고있는것이다.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함에 있어서도 3대혁명소조들은 어디까지나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그들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상하가 합심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다그치도록 한다.

바로 여기에 3대혁명소조운동이 다른 형태의 지도방법과 구별되는 근본특징이 있으며 그것이 3대혁명을 고도로 적극화하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우리 당은 3대혁명을 조직화, 적극화하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인 3대혁명소조운동을 창조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직접 틀어쥐고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왔으며 소조들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그 수행방도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우리 당은 또한 3대혁명소조들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워주었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면서 소조들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왔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3대혁명소조들은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올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3대혁명소조운동에

언제나 활력과 생기를 넣어주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그 거대한 위력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3대혁명소조운동이 심화발전된 결과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새로운 높이에서 굽임없이 전진하고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사업기풍은 몰라보게 달라지고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이 이룩되고있다.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고있다.

현실은 우리 당이 창조하고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는 3대혁명소조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으며 이 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바로 여기에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80년대속도》창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3대혁명로선과 3대혁명소조운동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80년대속도》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생산과 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는 과정에 창조되는 비상히 빠른 경제발전속도이다. 그러므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이룩하여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계속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실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3대혁명소조운동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42폐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심화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당적으로, 전사회적으로 3대혁명소조사업을 도와주고 힘있게 떠밀어주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방침이다. 이 방침에는 3대혁명을 더욱 조직화, 적극화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앞당겨 실현하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굽임없이 일으켜나가려는 혁명적립장이 철저히 구현되여 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소조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떠밀어주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당적으로 힘있게

도와주고 떠밀어주는데서 성진제강소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매우 교훈적이다. 이곳 당조직들은 3대혁명소조들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소조들이 제기하는 창발적의견들을 적극 지지해주면서 소조원들을 힘있게 떠밀어줌으로써 주체적인 철생산방법을 빨리 받아들이는데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것이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해나가는 보람찬 투쟁이며 당의 령도적권위를 높여나가는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그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이 운동을 통하여 이미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3대혁명소조들의 사업을 잘 도와주자면 소조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져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3대혁명소조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파견한 지도력량이라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의견을 허심하게 받아들이며 소조원들의 사업과 생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소조원들이 3대혁명의 전위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심화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소조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어떻게 심화발전시키는가 하는것은 그 직접적담당자인 소조원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최근시기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룡등탄광과 대안중기계종합공장, 평안북도 정주군에 파견되여있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보여준 모범은 이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 이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신조로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나감으로써 3대혁명소조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모든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들처럼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완강하게 투쟁한다면 그 어떤 어렵고 방대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는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성과를 굽임없이 이룩해나갈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3대혁명소조들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는것이다.

3대혁명소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옳게 관철되도록 하는것이 자기의 본신임무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해당 단위에서 당정책을 제때에 정확히 관철하도록 적극 추동해야 한다.

당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당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3대혁명소조들은 확고한 당적원칙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서 나타나는 온갖 그릇된 현상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모든곳에서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조직과 합심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3대혁명소조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에서 3대혁명을 위한 투쟁을 책임지고 조직집행하며 3대혁명소조는 3대혁명수행을 지도방조하고 추동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3대혁명소조들이 당조직과 합심하여야 3대혁명수행에서 당의 의도를 옳게 구현할수

으며 해당 단위의 모든 인군들을 발동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그처나간수 있다. 그러므로 3대혁명소들은 해당 단위의 당조직과 눈 긴밀 협조하면서 사업하는 기풍을 칠저히 워야 하며 주인다운 립장에 확고히 서 3대혁명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책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자기의 임무를 옳게 수행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따라배워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

이신작칙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기풍이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방법이다. 순천세멘트공장과 자강도 송원군 송파협동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감으로써 대중의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당정책관철에서 전위투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이러한 모범을 본받아 당정책을 관철하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언제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함으로써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나가야 하며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해당 단위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도록 힘있게 추동해야 한다.

겸손성과 소박성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늘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가지고 예절바르게 행동해야 하며 인군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도와주는 동지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일과 해이를 철저히 배격하고 언제나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긴장하게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대중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소조활동기간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생산자대중속에서 배우고 현실을 체험하며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는 귀중한 기간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소조기간에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는 동시에 실천투쟁속에서 로동계급의 불타는 충성심과 높은 계급의식,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불굴의 혁명정신을 배우고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자기의 활동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3대혁명소조원들의 첫째가는 생명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의 친위대, 돌격대답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당중앙의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당중앙에 제때에 집중시키고 당중앙의 결론과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의도대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인군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창조성은 우리 당 활동의 근본특징

정 성 철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과 자랑찬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승리와 성과들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모든것을 우리 식대로 창조적으로 해나가고있는 우리 당 활동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은 자기 활동에서 창조성을 견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동원하여 끊임없는 기적과 변혁을 이룩해올수 있었다.

창조성은 자주성과 함께 우리 당 활동에 일관되여있는 근본특징을 이룬다.

창조성을 견지하여야 당건설과 당활동을 혁명의 요구와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정확히 전개해나갈수 있다.

창조성이 우리 당 활동의 근본특징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과 관련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활동을 벌려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19페지)

로동계급의 당의 성격은 당의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지도사상은 불변의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창조적학설이다.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창조적본성을 가장 높이 체현하고있으며 당과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을 창조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옳바른 지침이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운동의 민족부대들이 창조성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더는 전진할수 없었던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하고 사대와 교조로 얼룩졌던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을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나온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성, 의식성과 함께 창조성이 사람의 본질적특성이라는것을 해명하고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데서 사람의 창조적능력을 적극 발휘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적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은 또한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인민대중을 사회력사의 주체로 보고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성을 키우고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혁명과 건설을 능동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지도적원칙을 밝혀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창조성을 키우고 그들의 창조력을 높이 발휘하여 세계를 개조하고 인류력사를 개척하며 혁명운동을 전진시켜나가게 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기때문에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창조성을 고유한 근본특성으로 하고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그것을 드놀지 않는 혁명적신념으로 하고있음으로 하여 모든것을 혁신적안목에서 보며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제때에 민감하게 포착하고 언제나 그것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풀어나가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침체와 답보를 허용하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창조의 력사를 끊임없이 펼쳐나가고 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니고 창조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다.

창조성이 우리 당 활동의 근본특징으로 되는것은 또한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기본사명과 관련된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영광스러운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위대한 사업이며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공산주의사회건설은 사회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룩하기 위한 어려운 사업이며 사람과 사회, 자연을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창조적인 사업이다.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운동인 공산주의운동의 특성에 맞게 로동계급의 당이 로선과 정책을 창조적으로 제시하고 광범한 대중의 창조력을 적극 발양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다.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은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복잡한 사업이다. 그것은 또한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을 없애고 사회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가장 훌륭한 조건으로 전변시키는 거창한 사업이다.

우리 당이 기본사명으로 내세우고있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이처럼 위대하고 창조적인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당이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혁명과 건설의 전반을 령도하는데서 언제나 창조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것은 완전히 합법칙적인것이다.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 활동에서 창조성이 높이 발양되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창조적지혜와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당은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창조적위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위대하고 존엄있는 당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심각한 력사적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창조성을 견지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는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으며 교조주의에 사로잡힌 종파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쓰라린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참다운 공산주의운동은 사대주의, 교조주의와의 날카로운 투쟁속에서 발전하였으며 이 투쟁과정에 조선혁명에서 주체가 확립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발전하는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남을 모방하거나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온갖 경향을 철저히 반대하며 모든것을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창조성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활동에 의하여 우리 인민들의 창조적지혜와 창발성을 좀먹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사상조류로서 청산되였으며 혁명과 건

설의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앙양이 끊임없이 계속되고있으며 나라의 위력이 더욱더 커지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그 본성과 사명,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으로부터 언제나 자기 활동에서 창조성을 튼튼히 견지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활동은 창조성으로 하여 빛나고 특출하며 전례없는 혁명적앙양과 세인을 경탄시키는 혁신을 가져오고있다.

우리 당 활동의 창조적특성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데 이르기까지, 혁명의 새로운 원리와 방도들을 밝히는것으로부터 기성리론과 남의 경험을 섭취하는데 이르기까지의 모든 분야에서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우리 당 활동의 창조적특성은 무엇보다도 혁명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제시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투쟁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옳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 혁명의 주객관적조건을 잘 타산하고 그에 맞게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규정하여야 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60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로선과 정책을 창조적으로 규정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의 요구와 자기 인민의 지향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켜 나갈수 있는가 없는가를 좌우하는 원칙적문제이다. 당이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없애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여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독창적으로 세워야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확고히 이끌수 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리익과 우리 인민의 근본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창조적으로 규정하고 집행해나간다.

조선혁명의 리익과 우리 인민의 요구는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는데서 출발점으로, 기초로 된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리익과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는것이라면 그 무엇에도 관계함이 없이 그것을 자기의 로선과 정책으로 대담하게 내세우고 끝까지 관철해나간다.

우리 당은 로선과 정책을 작성함에 있어서 언제나 주체적요인, 내부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거기에 기본을 두고있다.

혁명은 주체적요인, 내부적요인에 의하여 일어나고 발전하며 추동된다. 주체적요인, 내부적요인에 기본을 두는것은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과학성과 혁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우리 당은 객관적요인, 외부적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주체적요인, 내부적요인의 준비정도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비록 객관적인 환경과 조건은 불리하다 하더라도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여있을 때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는 확고한 립장으로부터 자기 로선과 정책을 독창적으로 규정하고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혁명의 주객관적조건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규정할뿐아니라 주체적요인, 정치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면서 로선과 정책의 성과적집행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주체의 사상론을 주장하고있는 우리 당은 어느 하나의 로선, 어느 하나의 방침을 관철하는데 있어서나 항상 대중을 교양하고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정치적자각성과 혁명적열의는 그 어느때보다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언제나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새로운 로선과 정책을 내세우고 그 관철에로 광범한 인민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혁명과 건설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세워진 로선과 정책이라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옳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자기 나라의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우리 나라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에게 가장 잘 접수되고 그들자신의것으로 전환될수 있는 로선과 정책을 창조적으로 규정하고있다.

우리 당의 총적임무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공산주의사회건설의 새로운 길을 밝힌 완전히 독창적인 로선이며 우리 당 활동의 창조성을 집대성하고있는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이다.

우리 당은 혁명의 옳바른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있고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인색화할수 있는 정치적력량과 물질적토대가 마련된 주객관적조건을 심오히 통찰한데 기초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에 제기하였다. 이 강령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개되여온 우리 혁명을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와 공산주의리상사회를 빨리 실현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강령은 공산주의사회의 면모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투쟁방침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는 독창적인 강령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람과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장엄한 력사적진군을 진두에서 령도함으로써 우리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인간개조, 자연개조, 사회개조의 모든 령역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오게 하였다.

우리 당 활동의 창조적특성은 또한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원리들과 방도들을 독창적으로 내놓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새로운 원리와 방도를 탐구하여야 혁명운동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고 투쟁과정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다.

특히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새로운 력사적시대, 공산주의건설이 력사적일정에 오른 오늘의 조건에서 혁명의 원리와 원칙, 방도들을 창조적으로 밝히는것은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의 새로운 원리들과 방도들을 창조적으로 밝히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의 모든 리론활동은 언제나 주체의 혁명위업을 추진시키고 완성하는데로 지향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해답을 주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당은 철두철미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새로운 원리들과 방도들을 제시하고있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법론에 의거하여야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심오하게 천명하고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옳바른 방도를 밝힐수 있다.

우리 당이 밝힌 사회력사적운동에 관한 과학적인 리해는 창조성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당은 사회에서 작용하는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이 해명된 조건에서 사회력사적운동은 주체의 운동

이며 그것은 고유한 합법칙성을 가진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였다. 그리하여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에 대한 리해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고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 성격과 추동력이 새롭게 해명되게 되였으며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에 대한 과학적리해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혁명위업수행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에 대한 원리를 새롭게 밝힌것은 우리 당 리론활동에서의 창조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위업이라는것을 천명하고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며 수령의 령도밑에 완성되게 된다는 혁명위업발전의 합법칙성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였다.

또한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그 발전과정은 곧 당의 창건자인 수령의 사상으로 전당을 일색화하는 과정이라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수령의 위업 계승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창조적인 해답을 주었다.

그리하여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원리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확고한 초석의 하나로 되게 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는 사상리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모든 당원들을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함으로써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의 심장, 혁명의 추진력으로서의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과 령도적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기성리론과 남의 경험에 창조적으로, 비판적으로 대하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창조적특성의 하나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기성의 혁명리론과 남의 경험을 참작하게 되는것만큼 그에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로동계급의 당은 기성리론에 원칙적으로 대하고 남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섭취하여야 선행리론과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할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지도하는데서 기성의 리론이나 공식이 아니라 산 현실에 출발점을 두는 원칙을 견지하였으며 남의 경험에 대하여서는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대하며 어디까지나 자기의 경험을 위주로 하여 혁명앞에 제기되는 실천적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창조성을 잃고 남의 경험을 믿어놓고 숭배하며 자기 실정에 맞지 않는것까지 통채로 삼키는 교조주의적태도를 철저히 배격하고있으며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에 관한 방침들, 주체적 당건설, 국가건설, 경제건설, 문예건설에 관한 방침들은 결코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남의 경험에서 얻은것이 아니며 그것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혁명실천과 인민대중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방침들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방침들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당 활동의 창조적특성은 또한 대중동원의 독창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에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것만큼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운동의 승패를 좌우하는 원칙적문제이다.

당의 전투력과 위력은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어떻게 조직동

원하는가 하는데서 표현되며 군중을 동원하기 위한 혁명적인 방법과 전투적인 형식을 가진 당이라야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끌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고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구호를 제때에 제시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당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혁명의 요구와 끊임없이 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 맞게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와 같은 전투적구호들을 제시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와 영웅적위훈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당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으로서의 속도전에 관한 방침, 전진과 혁신을 저애하는 낡은 사상에 집중포화를 들씌우기 위한 사상전에 관한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으며 사람도 사회도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전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부터 천리마운동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전개되여온 우리 나라에서의 대중운동의 력사적경험을 더욱 발전풍부화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를 구현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발기하고 새로운 대고조, 《80년대속도》창조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함으로써 날에날마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렇듯 창조성은 우리 당 활동의 고유한 근본특징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당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자기 활동에서 창조성을 견지하고있음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고있으며 혁명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고있다.

우리 당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주체형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은 더욱더 전투적이고 생기발랄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하고있으며 권위있고 존엄있는 당으로서의 위력을 온 세상에 자랑떨치고있다.

창조적활동으로 빛나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이며 그것은
는것을 새롭게
력사적운동,
한 리해에서
되였고 력사
중심으로 하
성격과 추동
으며 주체의
운동에 대한
확립되게
  혁명위업
절대적지위
를 새롭게
에서의 창

  우리
수령의 위
납의 혁명
고 승리
밀에 완
합법칙

  또한
정은 끝
로 전
운 진
할데
며 수
천적
주었

  그
원리
초석
위업
적

히
이
우
로
상
고

감행하였다. 외세에 아부하는
들을 강압하여 조선을 식민
시킨 일제는 우리 나라를 극
적무권리와 경제적파산과 문
뒤덮인 인간생지옥으로 만

민은 일제의 식민지폭압에 항
연히 일떠섰다. 전국도처에
격멸》, 《국권회복》을 웨치며
과 독립군운동, 애국문화운
어졌고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
삼중의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여
농민들이 투쟁하였다.
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의 상층
지하고있던 부르죠아민족주의자
민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운동에
길 생각은 하지 않고 《독립자금》
탕진하면서 《칭원》의 방법으로
얻어보려 하였다. 그리고 서로
시하면서 자기 파 세력의 우세를
려는 분렬주의적망동에 광분하고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의 이러
치적취약성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갈망하는 인민들의 반일운동은
흐름속에 결합되지 못하였으며
다 쓰라린 실패와 심각한 교훈만
기였다.
삼천리강산에 망국의 비운이 서리
민족이 재생의 길을 찾아헤매이던
의 시기에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직선생님께서 우리 나라 민족해방
의 지도자로 나서심으로써 반일독
동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다.
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반일력
을 굳게 묶어세우지 않고서는 빼앗긴
나를 다시 찾을수 없고 민족의 존엄
지켜나갈수 없다는것을 통절히 느끼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투쟁의 첫시기
터 민족단합의 새 력사를 펼치시여
면의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
민족의 단합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
하신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자주독립의 기치밑에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민족자주정신을 확고히
견지하신것이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사람은 어딜 가나 조선사람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조선독립은 누구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력사는 외세의존이 곧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가르쳐주었다.》

민족해방운동은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예속국가 인민들이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민족적위업이다. 자주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은 남을 쳐다보거나 남의 힘을 바랄것이 아니라 민족주체적힘을 믿어야 하며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그래야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을 성과적으로 때려부시고 참다운 민족적독립을 이룩할수 있다.

민족이 굳게 뭉치지 않고서는 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실수 없고 국권회복도, 민족의 전도도 바랄수 없다는 것은 우리 나라 부르죠아민족운동의 주되는 총화였으며 망국의 력사가 확증해준 엄연한 진리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력사의 심각한 교훈과 민족해방운동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시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민족자주정신을 구현하심으로써 조선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발전의 길을 따라나아가게 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신 민족자주정신은 자기 인민의 힘을 굳게 믿고 그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다. 이것은 외세의존과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민족주체적힘으로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할데 대한 자주적립장과 반제적립장을 뚜렷이 반영하고있었다.

민족자주정신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신 조선독립은 기어이 조선사람의 손으로 해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혁명적 신념과 의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우리

인민을 가장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으로 보시고 대중의 힘을 끝없이 믿으시는데로부터 나온것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혁명활동 전기간에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을 지니시고 제국주의자들, 식민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과 기대도 가질것이 아니라 끝까지 비타협적으로 싸워야 하며 나라의 독립은 《청원》이나 《개량》의 방법이 아니라 민족자력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시였다. 그리고 삼천리금수강산을 대대로 꽃피워나가며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려는 강의한 의지와 숭고한 념원을 견결히 지켜나가시였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롬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이 노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선생님께서는 준엄한 시련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몸이 찢겨 가루가 되여도,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반드시 조선사람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계시였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민족자주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민족의 슬기와 아름다움, 민족적정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애국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온 민족을 뭉치게 하는 사상정신적기초로 되였다.

자주적립장과 반제적립장으로 일관된 민족자주정신이 뿌리내림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자기의 힘을 믿고 단결하여 싸워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 사상을 가지게 되였으며 조선민족해방운동은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처럼 김형직선생님께서 자주독립의 기치밑에 민족자주정신을 높이 추켜드심으로써 민족단합의 참다운 길이 열리고 조국땅우에 새 력사의 려명이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민족의 단합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업적은 또한 광범한 군중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조직을 결성하여 민족해방운동의 주체적인 반일혁명력량을 마련하여나가신것이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중요한것은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는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힘을 합쳐 조직을 무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혁명조직을 뭇고 거기에 광범한 반일군중을 묶어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장차 유리한 기회가 다가올 때에 전민족이 일어나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합니다.》

혁명투쟁은 대중을 각성시키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되며 선각자들로 조직을 뭇고 거기에 광범한 군중을 망라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운동지도자들은 응당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사업을 잘해나가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당시 독립운동을 《지도》한다고 하는 상층분자들은 사대주의와 분파적, 지방주의적 망동을 일삼으면서 민족해방운동을 엄중한 위기에 몰아넣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민대중에게 민족자주의식과 반일애국정신을 뿌리깊이 심어주며 그들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결속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광범한 무산민중을 선진사상으로 깨우쳐주고 조직에 묶어세워 민족해방

운동의 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려나가시였다.

혁명활동의 첫시기에 벌써 독서회, 인심친목회 등 조직들을 내오고 수많은 청년학생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꾸준히 교양하시였으며 점차 활동범위를 넓히시여 평양일대와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등 곳곳에서 동지들을 규합하고 군중을 각성시켜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면밀한 준비에 기초하시여 1917년 3월 23일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건설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내세운 대규모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다. 이 숭고한 투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선국민회는 치밀한 조직체계와 강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가지고있었다.

조선국민회는 바로 자기의 숭고한 목적과 정확한 투쟁방도,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지고 국내외를 포괄하는 여러 지역에서 합법적활동과 비합법적활동, 정치활동과 군사활동을 밀접히 결합하여 광범한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조선국민회가 결성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강력한 혁명조직을 가지고 반일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새로운 길에 들어설수 있게 되였다.

무산자대중의 일치단결을 자주독립의 진로로, 유일무이한 방략으로 규정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를 통하여 광범한 대중을 계몽시키고 단결시키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의 우수한 성원들을 국내외의 여러 지역에 파견하시는 한편 몸소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신진사상을 보급하고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높여주었으며 조선국민회 조직을 쉼임없이 확대해나가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한사람의 동지라도 더 규합하고 하나의 파괴된 조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신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적들의 백색테로가 횡행하는 험난한 길을 수없이 걸으시였던것이다.

김형직선생님의 정력적인 활동과 지도밑에 불과 반년 남짓한 사이에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경기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곳과 장백, 길림, 무송, 림강, 삼원포 등 멀리 국외에까지 조선국민회 하부조직들이 결성되고 그 두리에 광범한 대중이 굳게 결속되여나갔다. 조선국민회 조직에 대한 일제의 대검거선풍으로 하여 1917년 가을에 있은 《105인사건》은 조선국민회가 결성초기부터 거대한 위력을 가지고 광범한 계층의 선진분자들을 망라시켜 그들을 묶어세워나가는 힘있는 무기로 되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준다.

조선국민회 조직이 급속히 확대되고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함에 따라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 종교인들과 중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반일애국사상으로 무장하게 되고 그들의 단결이 점차 강화되여 민족주체적인 혁명력량을 마련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게 되였다.

실로 김형직선생님께서 력사의 새벽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인민들을 민족자주의식으로 계몽각성시키고 하나의 통일적인 조직에 결속하여나가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참다운 민족단합의 새 력사가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자주독립의 기치밑에 모든 반일운동자들과 독립운동단체들의 분파행동을 막고 반일세력의 통합과 행동통일을 강화하도록 한것은 김형직선생님께서 민족의 단합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의 하나이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선 독립운동단체들의 분렬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단합은 힘이며 분렬은 파멸입니다.

우선 단합시켜 그 력량을 보존하며 부단히 교양하여 그들을 점차 무산혁명을 지향해나서도록 굳고히 몰려세워야

합니다.》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문제는 완고한 민족주의자들의 사상적락후성을 극복하고 사분오렬되여있던 반일세력의 통일과 공동행동을 이룩하는것으로서 당시 민족해방운동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였다. 모든 독립운동단체들의 단결과 련합을 이룩하여야 일제와 맞서싸울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키울수 있었으며 간악한 일제의 리간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단합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었다.

3.1봉기를 전후하여 압록강연안일대와 만주의 여러곳에는 《보약사》, 《대한독립청년단》, 《독군부》 등 군소독립운동단체들이 제각기 갈라져 활동하고있었다. 이 단체들은 원래 조직초기부터 자기의 《세력권》을 넓히기 위하여 서로 싸움질만 하면서 분렬을 추구하고있었고 일제의 야수적탄압과 회유기만책동에 몹시 동요하고있었다. 독립운동단체들의 분립을 방지하고 그것을 부산혁명의 길로 이끄는것은 반일세력의 통합과 행동통일을 이룩하고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독립운동단체들의 단합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그 통합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고 독립운동단체들속에 들어가시여 단결의 필요성과 혁명의 선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해설하여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자들의 반일적요소를 적극 지지해주시는 한편 비조직적이며 수공업적인 투쟁방법과 대중을 홀시하는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아주시고 반일독립운동에서 행동통일을 이룩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진보적사상과 풍부한 정치적식견 그리고 고매한 덕망 앞에서 독립운동자들은 탄복을 금치 못하였으며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진심으로 받들어나갔다. 지이 권세만을 앞세우며 분렬에 이골이 난 독립운동단체의 《두령》들까지도 선생님의 지도를 성실히 받으면서 서로의 의견상이를 점차 극복하고 단결과 련합의 길로 나아갔다.

반일세력의 통합과 행동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획기적인 계기로 된것은 독립운동단체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련합체를 결성한것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반일운동대렬의 단합을 위한 인내성있는 투쟁을 벌려 이룩하신 성과에 토대하여 1925년 8월 력사적인 무송회의를 소집하시고 독립운동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민족단체련합촉진회를 창설하시였다. 민족단체련합촉진회가 창설됨으로써 림원산야에서 삼삼오오 분산되여 활동하던 독립운동단체들이 공동보조를 맞추어나갔으며 광범한 애국력량이 자주독립의 기치밑에 굳게 단합되여나갔다.

전민족의 단합을 위한 투쟁을 무장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나간것은 김형직선생님께서 민족단합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서 이룩하신 또하나의 고귀한 업적으로 된다.

적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가하는 무장활동은 사람들의 정치적각성을 비상히 촉진시키고 그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무장활동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해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력사적인 관전회의에서 무기를 가진 원쑤는 오직 무기를 가지고 때려눕혀야 한다는 무장활동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 성원들과 선진적인 청년들을 군사간부로 키우시는 한편 무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무장대를 조직하시는 등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시였다. 선생님의 령활한 지도밑에 무장대들은 국경일대와 국내에까지 진출하여 군사활동을 맹렬히 벌림으로써 일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일제의 통치기관과 경찰기관들을 대담하게 기습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적들에게 커다란 정치군사적타격을

가하는 무장대들의 이러한 활동은 인민들에게 광복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의 단합을 힘있게 촉진하였다.

참으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탁월한 지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민족단합의 새로운 길이 개척되고 반일민족해방운동은 민족자주의 길을 따라 점차 통일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서는 력사적시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 ⁂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자주독립의 기치밑에 민족단합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고귀한 업적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서의 첫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ㅌ.ㄷ》를 결성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통일단결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항일혁명투쟁은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된 힘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이 마련되게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불패의 통일단결이였으며 그 공고성과 생활력에 있어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통일단결이였다.

우리 인민은 이 위대한 통일단결의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제때에 당과 혁명주권과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고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또한 이 위대한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가져올수 있었으며 사회주의혁명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세기적변혁을 이룩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속에서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자랑찬 면모이다.

새 력사의 려명을 안아오시며 민족해방위업에 쌓아올리신 김형직선생님의 빛나는 혁명업적을 돌이켜보고있는 우리 인민은 선생님께서 지니셨던 민족단합의 숭고한 리념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갈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것이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기본담보이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근본열쇠이다.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위하여 우선 북과 남의 애국력량이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합하여야 한다. 민족의 단결을 실현하여 여러 분야에서 북과 남이 힘을 합쳐나가는것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좋고 통일을 앞당기는데서도 유익하다.

북과 남의 전체 애국력량이 외세를 배격하고 통일단결을 이룩해나갈 때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은 혁명군대의 본질적특성이며 불패의 위력의 원천

리 병 룡

우리 인민이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때로부터 31년이 지나갔다.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적인민의 승리였으며 제국주의침략무력에 대한 혁명군대의 승리였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정치사상적으로 우월한 혁명군대의 힘은 불패이며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엄연한 진리로 확증하였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은 현대적무기나 수적, 기술적 우세에 있는것이 아니라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있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은 혁명군대의 본질적우월성이며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전쟁의 력사가 증명하는바와 같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군대는 비록 무장에서 뒤떨어졌다 하여도 최신무장을 갖춘 적과 싸워 능히 이길수 있습니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이야말로 혁명무력의 본질적우월성이며 그 불패성의 원천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53~54폐지)

정치사상적우월성은 혁명군대의 본질적우월성이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은 착취계급의 반동군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혁명군대의 특성과 그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월성이다.

혁명군대가 착취계급의 군대는 가질수 없는 정치사상적우월성을 가지게 되는것은 자기의 고유한 본성과 관련되여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고 강화발전되는 혁명군대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당의 령도밑에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이로부터 혁명군대는 혁명무력의 창건자이며 령도자인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혁명적본분으로, 제일생명으로 삼게 되며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을 가지게 된다. 혁명군대는 또한 자기의 계급적본성으로부터 장병들사이의 혁명적동지애와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가지게 되며 모든 군인들이 군사복무를 신성한 의무로, 영예로운 일로 여기고 군사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게 된다.

혁명군대의 이러한 본성으로부터 정치사상적우월성은 그의 본질적우월성으로 된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은 무장력과 그 활동에서 사람과 그의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주체의 군사원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월성이다.

무장력은 사람과 무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군사활동에는 사상, 기술, 체력, 전법, 무장장비, 진지 등 여러가지 주객관적요인들이 작용한다.

사람, 군인대중은 무장력의 가장 기본적이고 능동적인 요소이며 전쟁승리의 결정적력량이다. 물론 전쟁에서 무

기, 전투기술기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쟁에서 무기, 전투기술기재와 같은 군사기술적요인의 위력은 그것을 다루는 주인인 사람, 군인들이 어떻게 사상적으로 준비되여있으며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무장력구성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람, 군인대중이며 전쟁승리에 작용하는 여러가지 요인들가운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사람의 사상의식이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은 이와 같이 착취계급의 반동군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혁명군대의 특성, 군사활동의 주체인 사람과 그의 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서 혁명무력의 본질적우월성으로 된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은 혁명무력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이 혁명무력의 불패성의 원천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혁명군대에 대한 당과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혁명군대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는 혁명무력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며 그 불패의 위력의 근본요인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아야 전군이 군사활동과 전투행동에서 통일성과 일치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어떤 강적도 때려부실수 있는 불패의 전투력을 가질수 있다. 비록 혁명군대라고 하더라도 당과 수령의 유일적령도가 실현되지 못하고 통일적지휘가 보장되지 못하면 아무런 힘도 발휘할수 없으며 그러한 군대는 사실상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군인들이 오직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전군이 당과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여나가는 혁명무력만이 불패의 위력을 가진 강철의 대오로 될수 있다.

혁명무력인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우리 혁명무력의 생명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인민군대가 자기의 본성을 지키고 본분을 다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인민군대의 본성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은 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혁명무력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높이 발양된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의 다른 모든 내용들은 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고있으며 또 그 구체적인 발현인것이다.

충실성을 근본핵으로 하는 정치사상적우월성을 가지고있는 인민군대의 모든 장병들은 자기의 철석같은 신념으로부터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게 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당의 자위적인 군사로선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된다. 그리하여 수백만 군인대중이 당과 수령의 명령, 그를 관철하기 위한 지휘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일치하게 움직이게 하며 혁명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

우리 혁명무력이 자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온 빛나는 력사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싸웠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수많은 인민군전사들이 수령님만세를 높이 부르며 조국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1211고지와 351고지를 비롯한 우리 조국의 높고낮은 봉우리마다에서 인민군영웅전사들은 경애하는 최고

사명관동지의 명령을 수행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높은 혁명적각오와 백절불굴의 투지를 안고 불사조와 같이 싸워 원쑤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으며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지켜내고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이것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싸우는 혁명군대는 불패이며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군대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이 혁명군대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혁명군대를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된 강철의 대오로 만들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은 혁명군대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며 전쟁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혁명무력의 위력은 단결에 있으며 단결을 떠나서 백전백승하는 그의 전투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전대오가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된 혁명군대만이 계급적원쑤들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가장 첨예하고 간고한 투쟁인 혁명전쟁에서 거대한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혁명군대는 오직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은 인민군대를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된 불패의 대오로 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지휘관과 전사, 군인호상간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동지애와 상하일치의 미풍을 높이 발양하게 하며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게 하는것은 정치사상적우월성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침략군대나 식민지고용군대에는 계급적본질로부터 동지애와 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계급적처지가 서로 다르고 리해관계의 불일치로 하여 거기에는 순전히 금전관계, 직위에 의한 맹목적인 복종관계만이 있을뿐이다.

미제의 식민지고용군대인 남조선《국군》안에는 불신임과 갈등, 모순이 가득차있다. 남조선괴뢰군안의 장교들과 사병들사이에는 혹심한 차별대우가 적용되고 장교들은 사병들을 마소처럼 부려먹고있으며 사병들에게는 무시무시한 기합이 수시로 가해지고있다. 시기와 질투, 알륵과 적대감으로 가득찬 제국주의침략군대와 식민지고용군대안에서는 진정한 동지적관계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수 없으며 이러한 반동군대는 자기의 취약성으로 하여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은 인민군대와 같은 혁명군대만이 가질수 있는 본질적우월성이다.

제국주의침략군대는 가질수 없는 정치사상적우월성을 가지고있는 인민군대의 병사나 군관, 장령들은 모두가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진정한 혁명동지로 굳게 결합되게 되며 참다운 동지적관계를 맺게 된다.

우리 인민군전사들은 다 당과 수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하나의 사상, 하나의 리상을 키우며 자라났고 투쟁의 한길에서 동지적사랑을 맺은 사람들이다. 공화국영웅 안영애를 비롯한 수많은 인민군전사들은 혁명의 전우를 위하여 자기의 피와 생명도 서슴없이 바쳤으며 동지들의 안전을 위하여 육탄이 되여 원쑤들을 맞받아나아갔다.

혁명군대의 군인들은 이렇게 모두가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총을 들고 싸우는 혁명전사들이며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같이 피를 흘리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참다운 혁명동지들이다.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혁명군대의 지휘관이나 대원들사이에는 자그마한 대립도 있을수 없으며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공산주의적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혁명적동지애로 하여 대오의 통일단결을 사상의지적으로뿐아니라 또

거운 동지적사랑으로 더욱 굳건히 다져지게 한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은 혁명군대안에서뿐아니라 혁명군대와 인민대중사이에 사상과 행동에서의 일치성을 보장하게 하고 군민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성전에 떨쳐나서게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군대는 참다운 인민의 군대이며 이 군대의 군인들과 인민들은 다같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어깨겯고 함께 싸워나가는 계급적형제이며 혁명전우들이다.

인민군대의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은 바로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에 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과 같이 혁명군대는 인민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으며 전투에서 승리할수도 없다. 혁명무력은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속에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정상적으로 보장받을 때에만 거대한 위력을 가지게 되고 원쑤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백전백승하게 된다.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은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악랄한 《토벌》을 물리치고 유격근거지를 지켜내였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남강마을 녀성들을 비롯한 전선지구 인민들은 불비속을 뚫고 싸우는 고지에 탄약과 식량을 보장하여 인민군대의 전투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것은 군대와 인민이 진정한 혁명동지로 굳게 뭉쳐 제국주의침략을 전인민적항전으로 타승해나가는 여기에 혁명무력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은 이처럼 혁명적동지애와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미풍을 높이 발양하게 함으로써 전군에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고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결합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을 이룩하게 하며 혁명무력을 백전백승의 위력을 가진 전투대오로 만들게 한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이 혁명군대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군대로 하여금 전쟁과 전투의 모든 행정에서 고상한 전투도덕적품성을 발휘하게 하는 요인으로 된다는데 있다.

군인들의 사상상태, 그들의 전투도덕적품성은 혁명군대의 불패성과 위력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전쟁과 전투에서 이기는가 지는가 하는것은 결코 군사기술적수단이나 자연지리적조건이 좋은가 나쁜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군인들의 사상정신상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을 가지고있는 혁명군대는 전쟁의 전과정에서 고상한 전투도덕적품성을 발휘하게 되며 정치사상적위력으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승하게 된다.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은 모든 군인들이 백절불굴의 투지와 견결한 혁명정신을 가지고 전쟁의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수 있게 한다.

전쟁과 전투에서 부닥치는 모든 난관과 시련은 자연과의 투쟁에 비할바없이 간고하고 엄혹한것이다. 특히 전쟁은 무장투쟁수단이 발전할수록 더욱 격렬한 투쟁형태를 띠게 되고 보다 간고한 시련을 동반하게 된다. 혁명전쟁에서 부닥치는 이러한 난관과 시련은 오직 견결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전투도덕적품성을 가진 군인들만이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은 무기나 기술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한 군대와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혁명적헌신성에 있다. 전투행동에서 발휘하는 군인들의 의지와 투쟁력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 준엄한 난관과 시련앞에서 군인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와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사상문제이다. 때문에 군사활동에서 정치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의식

의 역할을 높여 모든 군사문제를 풀어 나가야 혁명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혁명전쟁은 결국 높은 사상의식을 가진 군인대중이 고상한 전투도덕적품성을 발휘할 때 승리하게 된다.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숭고한 혁명정신과 무비의 희생성, 높은 조직성과 강한 규률성, 대중적영웅주의와 용감성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정치사상적우월성으로 하여 혁명군대의 군인들은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가지고 온갖 정신적 및 육체적 부담도 이겨내면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완강하게 싸워나가게 된다.

정치사상적우월성에 기초한 고상한 전투도덕적품성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의 인민군용사들은 가렬처절하였던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대비조차 할수없이 우세한 적과 맞다든 엄혹한 조건에서도 순간의 동요와 추호의 비관도 모르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싸웠다.

적들의 5만여명의 병력과 300여척의 함선 그리고 1,000여대의 비행기에 1개중대의 인원과 단 4문의 포로 맞서싸운 월미도의 영웅전사들을 비롯한 영용한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고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수 있으며 간고한 싸움에서 자기는 희생된다 하더라도 혁명은 승승장구하며 조국은 영원히 번영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성을 높이 발휘하였다.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 미래의 휘황한 전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끓는 청춘을 바친 수많은 영웅전사들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언제나 백전백승할수 있었던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사상적우월성은 혁명군대에 대한 당과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고 대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전쟁에서 고상한 전투도덕적품성을 높이 발양하게 함으로써 혁명무력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의 뚜렷한 시위로 된다.

현대적무기보다 비할바없이 더 위력한 정치사상적우월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가장 포악하고 강대한 미일 두 제국주의침략군대를 타승할수 있었으며 오늘도 원쑤들의 악랄한 반동공세를 혁명적공세로 짓부셔나가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인민군대안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감으로써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우월한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문화정서적소양

강 광 근

문화정서적소양은 사람들의 품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사람의 가치와 품격은 물론 그가 어떠한 사상,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세계관에 따라 사람들은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닐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혁명적세계관을 지닌 사람만이 사회와 력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적극 참가할수 있으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억세게 전진할수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자신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정서교양을 잘하여 그들의 문화정서적소양을 높여야 한다. 혁명적인 사상과 함께 고상한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녀야 사람들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비롯한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을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으며 언제나 생활을 락천적으로, 문명하게 꾸려나갈수 있다.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가지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적인간으로서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닐수 없으며 혁명적랑만과 환희에 넘치는 다양하고 풍만한 생활을 누릴수도 없다.

고상한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니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일도 잘하여야 하며 그와 함께 문화적소양도 높아야 합니다. 웃기도 하며 인정미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은 당성이 강하면서도 인간성과 문화성이 풍부하여야 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6권, 233～234페지)

고상한 문화정서적소양이라는것은 자주성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척도로 하여 아름답고 숭고한것과 그렇지 못한것을 똑바로 가려보며 언제나 생활을 락천적으로, 문명하게 꾸려나갈줄 아는 자질과 수양정도를 의미한다. 로동계급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생활을 풍만하게 꾸리며 예술도 훌륭히 감상할줄 아는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떠나서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지니고있다. 언제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속에서 삶의 참다운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락관적으로 사고하고 혁명적랑만에 넘쳐 생활하는것이 바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다. 다정다감하고 인정미가 차넘치는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품격을 이룬다.

고상한 문화정서적소양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열정과 패기에 넘쳐 힘차게 투쟁하며 가장 아름답고 풍만한 생활을 창조하도록 힘있게 추동한다.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닌 사람이라야 난관앞에서도 비관하지 않고 락천적으로 살며 인민대중을 끝없이 격동시키는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 감정과 정서가 메마른 사람은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질수 없으며 무미건조한 생활밖에 할수 없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고상한 문화정서적소양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언제나 락관과 신심에 넘쳐 전진하며 아름답고 문명한 생활의 창조자로, 그 향유자로 된다. 열정과 패기에 넘치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품격과 그들의 랑만적인 생활을 담보하는것은 다름아닌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인것이다.

고상한 문화정서적소양은 또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인민의 충복답게 대중의 감정과 생활을 깊이 리해하고 그에 맞게 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게 확고히 담보한다.

인민의 충복이 되여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사업을 실속있게 전개해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중의 생활은 다양하고 풍부하며 그들의 개성과 준비정도는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해나가자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할뿐아니라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녀야 한다.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은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고상한 감정, 인민적인 풍만한 정신세계인것으로 하여 언제나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도록 힘있게 추동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니고있기때문에 다양하고 섬세한 인간들의 감정과 풍부한 내면세계를 깊이 파악하고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전개하며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의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한다. 혁명과 투쟁으로 한생을 보내면서도 열정에 넘쳐 생활을 랑만적으로 꾸려나가며 주어진 환경과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사업을 창조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는 고상한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니고 있는 바로 여기에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그들이 언제나 백전백승하는 비결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빛나는 구감은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향도성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싸운 청년공산주의자들이다.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고상한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녔기에 그들은 민족의 태양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감격과 긍지를 격조높이 노래불러 《조선의 별》과 같은 불멸의 혁명송가를 창작할수 있었으며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고넘으면서도 언제나 락천적으로 살며 투쟁할수 있었다. 이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투철한 혁명적수령관과 가장 풍만한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닌 참된 혁명가들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반세기가 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로정에서 영원히 빛나고있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모든 일군들이 자신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고상한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닌 참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절실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며 당면하게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 나라의 장엄한 현실은 날로 높아가는 근로자들의 물질적수요와 함께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줄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요구는 원래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구속에서 벗어나 물질적으로 유족한 생활을 누릴수록 더욱 높아진다. 지금 우리 근로자들은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보다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근로자

들의 날로 높아가는 이러한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자신부터 정서적소양을 더욱 높이고 문화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일군들이 자신의 정서적소양을 빨리 높이고 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문화생활을 조직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온 사회에 혁명적열정과 랑만이 차넘치게 할수 있으며 대중을 발동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전체 인민이 문화정서생활을 잘해나갈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우리 나라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생활을 정규화하고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할수 있는 튼튼한 법적기초인 사회주의로동법이 제정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로동법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하며 8시간 학습하는 원칙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조직할데 대하여 규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까지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사회주의로동법에 의하여 우리 근로자들은 로동생활뿐아니라 문화정서생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국가부담에 의한 정휴양제의 혜택까지 받을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의 취미와 기호에 맞게 문화정서생활을 진행할수 있는 물질적조건도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우리 나라에는 만수대예술극장과 평양대극장, 함흥대극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이 튼튼히 꾸려져있으며 로동자구와 농촌리들에까지 문화회관과 영화관이 즐비하게 건설되여있다. 또한 문화혁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도 이미 오래전에 실현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은 그 어디에서나 대전성기를 맞이하여 개화되고있는 주체예술을 마음껏 감상하면서 문화정서적인 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혁명의 수도 평양에 일떠선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조밀하게 전개되여있는 크고작은 도서관들과 도서실들은 로동시간이 끝난 근로자들로 하여금 소질에 맞게 독서도 계획적으로 할수 있도록 온갖 편의를 보장하여주고있다.

산천경개가 수려하여 명승의 나라로 이름높은 우리 나라에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휴양소와 정양소들이 아담하게 꾸려져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공원과 유원지들, 현대적인 유희시설들도 그쯘히 건설되여있다. 근로대중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휴양소, 정양소들과 공원, 유원지, 유희시설들은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문화정서적인 생활과 휴식을 마음껏 즐길뿐아니라 청춘의 정력을 되찾게 하는 거점으로 되고있다.

로동당시대에 와서 건설된 이 모든 문화시설들은 우리 나라에 전체 인민의 정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물질적담보가 확고히 마련되여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이러한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함으로써 문화정서생활을 잘할데 대한 당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옳게 리용하지 않는다면 생활이 명랑할수 없고 행복스러울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로동과 생활을 유쾌하고 문화적으로 꾸리도록 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5권, 606폐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정서적소양을 높이고 모든 근로자들이 문화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도일군들의 관점부터 바로세워야 한다.

문화정서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일군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의 관점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그들의 정서적소양을 빨리 높일수 없을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문화생활도 개선할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문화정서생활을 강화하는 사업을 외면하거나 실무적으로 대하는것은 그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부족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언제나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일군들은 특히 시간이 있을 때나 한가한 사람만이 문화정서생활을 하는것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경향을 철저히 배격해야 하며 자신의 정서적소양부터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자신의 정서적소양을 빨리 높이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문화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데 적극 이바지하려면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생활에서 아름다운것을 제때에 찾아내고 기쁨을 맛보며 생활을 풍만하게 꾸려나가는 고상한 문화정서적소양은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만 체득할수 있다. 폭넓은 지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닐수 없으며 나아가서 자기가 맡은 혁명과업도 실속있게 해나갈수 없다. 사람은 아는것만큼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며 아는것이 많을수록 인품이 올라가고 사업상권위도 서게 된다. 아는것이 많아야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당정책선전도 자연스럽고 로숙하게 진행할수 있으며 그들을 적극 발동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고상한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니게 하는 다방면적인 지식은 결코 하루이틀사이에 손쉽게 가질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만 소유할수 있는것이며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학습을 실속있게 할 때에만 빠른 기간에 체득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여 자신의 문화정서적소양을 빨리 높여야 한다.

여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읽고 감상하는것이다.

문학예술은 추상적인 론리로가 아니라 생활그대로의 형식,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현실적인 인간처럼 숨쉬고 사고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산 인간의 모습과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각이한 분야뿐아니라 혁명동지들과의 관계와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의의있는 모든 인간생활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반영되여있으며 서로 다른 정황에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려져있다. 이것은 문학예술이야말로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사상과 다방면적인 지식, 풍부한 정서를 지니게 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모든 일군들은 독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공산주의적인간전형을 형상한 혁명적인 소설들과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전소설들을 계획적으로 읽음으로써 자신의 식견을 더욱 넓히고 생활을 풍만하게 꾸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인식교양적가치가 큰 영화들을 깊이있게 감상하여 혁명적영화주인공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고상한 풍모를 따라배우며 그들처럼 정열적으로 사업하고 문화적으로 생활해야 한다. 또한 음악, 무용, 미술작품 감상도 널리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언제나 혁명적랑만에 넘쳐 살며 투쟁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자신을 훌륭히 준비해나갈수 있다.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여 자신의 문화정서적소양을 높이려면 우리 인민

의 유구한 력사도 잘 알아야 한다. 자기 인민의 력사를 잘 알아야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옳게 계승발전시켜 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력사학습을 통하여 외래침략자들과의 투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인류최초의 금속활자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려자기 같은 우수한 문화유산들을 남긴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하루빨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여 반만년에 걸친 민족의 자랑찬 력사를 더욱 빛내일 굳은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일군들의 정서적소양을 빨리 높이고 근로자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는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더 잘 보장하여주는것이다.

주관적인 욕망이나 일반적인 호소만으로는 결코 일군들의 정서적소양을 높일수 없으며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문화생활을 마련해줄수도 없다.

오늘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더 잘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문제는 모든 부문들에서 사업과 생활을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이다.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학습도 계획적으로 하고 문화휴식도 마음껏 즐기게 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출퇴근질서, 작업교대질서, 로동시간리용질서를 비롯한 제정된 질서와 규률을 엄격히 지키며 근로자들에게 일감을 톡톡히 주고 생산조직과 자재보장사업을 빈틈없이 하여 480분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해야 하며 로동시간이 끝나면 모두가 다 문화정서적인 생활과 휴식을 잘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여 로동시간에는 최대의 마력을 내여 일하도록 하고 휴식시간과 학습시간도 철저히 보장해주는 일군이 바로 인민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훌륭한 지휘관이라고 말할수 있다.

문화정서생활조건을 잘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이미 마련된 문화시설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극장, 영화관, 유원지, 명승지들에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편리하게 문화시설리용질서를 잘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문화생활을 충분히 하도록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이미 마련해놓은 모든 문화시설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문화정서적수요도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일군들의 정서적소양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문화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당조직들의 지도를 옳게 안받침하는데 있다.

당적지도를 옳게 안받침하여야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철저히 세울수 있으며 낡은 생활방식을 빨리 없애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당일군들부터 문화정서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어디에서나 독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생활을 혁명적이면서도 다양하고 변화가 있게 꾸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문화정서생활을 잘하기 위한 투쟁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생기발랄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를 깊이 파악하고 문화정서생활을 개선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 랑만과 패기가 넘쳐흐르게 하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조선화와 주체미술건설

량 연 국

미술은 문학예술의 다른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활을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반영하는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이다. 일정한 력사적시기와 사회제도에서 사는 사람들의 정치, 경제, 문화생[illegible] 조형적형상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반영하는것이 미술의 특성으로 되고있다.

미술은 그 어느 형태의 예술형식보다 [illegible] 직관적명료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illegible] 인상깊게 표현하여 사람들을 사상정서적으로 교양하는데서 [illegible] 작용을 한다.

[illegible] 인민대중의 지향을 진실하게 반영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미술은 사람들을 [illegible]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illegible]로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illegible]으로 절실하게 제기되는 [illegible] 예술적해답을 주는것으로 [illegible]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illegible] 이바지하게 된다.

[illegible] 미술이 사상미학적으로 인민 [illegible] 요구에 맞게 이바지하려면 [illegible] 창조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illegible] 미술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illegible] 사회주의적민족미술건설 [illegible] 제시하고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 미술을 창조하고 발전시[illegible]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왔다.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 미술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당의 방침은 미술분야에서 [illegible] 기본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illegible] 방침이며 민족적형식에 [illegible] 내용을 담은 주체미술건설의 [illegible] 지도적지침이다.

[illegible] 미술은 당의 주체미술건설 방침을 [illegible] 관철함으로써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미술, 민족적인 색채가 풍만한 사회주의미술로 활짝 꽃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미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미술건설 방침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 그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

* *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미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으며 조선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미술을 건설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창조한 아름다운 민족예술가운데서 조선화를 비롯한 우수한 민족미술형식들도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조선화는 우리 인민의 정서에 맞는 훌륭한 미술형식이다. 조선화에는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이 뚜렷하게 체현되여있다.》(《영화예술론》, 280페지)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 미술을 발전시킨다는것은 조선화의 특성을 모든 미술형식들에 구현하여 미술을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만든다는것을 말한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미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미술을 자기 나라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자기 나라 인민들의 감정과 정서, 취미에 맞지 않는 미술은 인민들의 사랑을 받을수 없다.

자기 나라 인민들의 정서와 감정에 맞는 미술은 민족적형식의 바탕우에서만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민족적형식이란 자기 나라 인민들이 좋아하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 그러한 형식이다. 따라서 민족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야 자기 나라 인민들의 감정과 정서에 맞고 근로대중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인민적인 미술을 건설할수 있다.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조선화가 우리 미술의 기본바탕으로 되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 독창적인 방침이다.

조선화가 주체미술건설의 바탕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오랜 력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전통적인 미술형식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자기 나라 인민의 감정에 맞는 미술의 바탕은 어떤 미술형식이든지 다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력사적과정에 형성공고화되고 해당 민족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는 고유한 민족미술형식만이 될수 있다.

유구한 력사와 민족적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미술형식은 그 나라 인민들의 민족적감정과 정서, 심리적특성에 맞게 발전한 전통적인 미술형식으로서 민족적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한다.

우리 나라에는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화와 함께 근세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유화와 해방후 새롭게 개척된 산업미술을 비롯하여 각이한 발전단계를 가진 여러가지 미술형식들이 있다.

이 모든 미술형식들가운데서 조선화만큼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풍부하고 심오하게 간직하고있는 미술형식은 없다.

조선화는 오랜 옛날부터 자기의 뚜렷한 민족적특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우리 나라 미술의 주류를 이루면서 발전하여온 전통적인 미술형식이다. 거기에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취미, 창조적지혜와 예술적재능이 뚜렷하게 체현되여있다. 이렇듯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민족적특성을 체현하면서 찬란한 전통적가치를 풍부히 간직한 바로 여기에 조선화가 우리 미술을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주체미술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바탕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조선화가 주체미술건설의 기본바탕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우리 인민의 생활과 감정을 풍부하게 담을수 있는 훌륭한 미술형식이라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어떤 미술의 형식이 그 나라 미술발전의 토대로, 바탕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오랜 력사를 가진 민족미술형식이여야 할뿐아니라 인간과 그의 생활을 포괄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할수 있는 훌륭한 조형적형식이여야 한다. 오랜 력사를 가진 미술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과 생활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담는데서 제약성을 가진다면 민족미술발전의 바탕으로 될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화와 함께 공예나 조각 등도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조각과 공예는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담는데서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의 여러 미술형식들가운데서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며 다른 미술형식의 발전을 조건짓고 제약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술형식은 조선화이다. 조선화는 그 어느 미술형식보다도 인간과 생활을 구체적인 환경과 세부에 이르기까지 풍부하게 담을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이처럼 조선화는 생활반영의 범위와 심도가 넓고 깊으며 그 진실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우수한 조형적형식으로서 주체미술건설의 바탕으로 된다.

조선화가 주체미술건설의 바탕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우리 나라 미술

의건설자들의 정서와 지향에 맞 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당은 주체미술건설에서 조선화 하는 주도적위치와 그의 결정적 부터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 발전시키기 위한 원칙적인 요구 밝혀주었다.

화를 바탕으로 하여 주체미술을 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요구는 다먼저 미술분야에서 사대주의와 허무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을 완전히 없애며 조선화를 위주로 미술을 힘있게 발전시키는것이다.

난날 봉건통치배들과 어용화가들은 나라의 고유한 미술형식을 홀시하 다른 나라 미술형식만을 숭상하였으 길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를 강점한 기간 유구하고 찬란한 조선화전통을 유린하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오늘 미제침략자들과 일본반동들은 남조 게서 온갖 퇴페적인 미술조류들을 마 퍼뜨리는 한편 조선화를 말살하는데 되는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나라의 오랜 미술 사에서 온갖 낡고 반동적인 미술을 편으로 하고 조선화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투쟁이 첨예하게 벌어져왔으며 또 오늘도 조선화는 미술분야에서 불건전 한 사상을 없애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 는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있다는것 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술분야에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등 반동적인 경향과의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리는 동시에 조선화를 위주로 우리 미술을 힘있게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미술의 주체성과 혁명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없다.

조선화를 힘있게 발전시켜야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며 민주미술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반동미술조류들의 침습을 제때에 철저히 막아낼수 있다.

조선화를 우리 나라 미술발전의 바탕으로 삼으라는것은 결코 옛날것을 복고주의적으로 본따라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술분야에서 복고주의가 허용되면 미술유산에 남아있는 낡은 요소들이 되살아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흐리게 하며 사회주의미술의 건전한 발전을 저애한다. 그러므로 조선화를 민족적바탕으로 하여 주체미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조선화유산에 남아있는 낡고 보수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비판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조선화를 위주로 하여 우리 미술을 발전시킨다고 하여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좋은 미술형식을 줴버려서는 안된다.

한 나라의 미술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미술형식이 있게 되는것은 인류문화발전과정에서 생겨난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의 고유한 조선화와 함께 유화를 비롯한 갈래가 다른 좋은 미술형식들도 받아들여 우리 미술을 풍부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문제는 자기 나라의 고유한 미술형식과 다른 나라의 미술형식을 어떤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대하며 무엇을 위주로 발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다른 나라 미술형식보다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미술형식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 창작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다른 나라 미술형식에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구미에 맞는것만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식으로 소화하여야 미술분야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울수 있다.

조선화를 앞세워나가면서 미술의 여러 종류와 형태들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민족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주체미술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미술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조선화뿐아니라 미술의 모든 분야를 조선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정서와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모든 미술가들이 조선화화법에 정통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미술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조선화의 우월성

을 뚜렷하게 보여주며 미술의 모든 종류와 형태들이 의거하는 민족적바탕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나선다. 조선화를 앞세워 발전시켜야 그의 우수한 예술적특성을 미술의 다른 형태들에 구현하여 민족적색채가 그윽한 혁명적인 미술을 창조할수 있다.

그러므로 미술가들은 선묘기법과 세화기법, 몰골기법을 비롯한 조선화의 묘사기법을 다양하게 개척하고 그 표현형식들을 풍만하게 창조하여 사상예술적수준이 높은 조선화를 창작하는데 신차격힘을 돌려야 한다.

미술가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우리의 안료와 기자재들을 더 잘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것은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 미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선명하고 연하고 부드러운 조선화의 색채적특성은 오랜 력사를 통하여 이루어진것으로서 우리 인민의 미감에 따르는 독특한 색감을 반영하고있다. 여기로부터 조선화의 색채적특성에 맞는 안료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오랜 력사를 통하여 조선화와 함께 발전하여온 안료들의 좋은 특성을 살리면서 우리 시대 인민들의 미감에 맞는 안료들을 만들어써야 조선화를 비롯한 모든 미술작품창작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울수 있다.

조선화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 나라 미술발전의 특성과 사회주의미술의 사명과 임무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는 독창적인 주체미술건설방침이며 우리 미술을 철두철미 조선혁명과 우리 인민에게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미술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길을 밝혀주는 가장 정확한 지침이다.

오늘 조선화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되고 주체미술건설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미술은 무엇보다먼저 조선화 《용해공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한 영상을 모신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기념비적화폭들을 창조함으로써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미술가들이 창조한 《락동강할아버지》, 《남강마을의 녀성들》, 《강철의 전사들》, 《강선의 저녁노을》 등 수많은 우수한 조선화작품들은 우리 인민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상적무기로 되고있다.

훌륭한 민족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화는 그 내용에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일뿐아니라 또한 우리 시대의 요구와 현대적미감에 맞는 주체적인 민족미술형식으로 활짝 꽃피고있다.

조선화는 지난날 순수 자연만을 먹색으로 그리던 부족점을 완전히 가시고 혁명적이고 락천적인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채색화로써 민족적색채를 더욱 빛내이고있다.

우리의 미술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술의 여러 종류와 형태들에 조선화의 우수한 예술적특성을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대기념비미술로부터 세공미술에 이르는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정서와 지향에 맞는 주체미술로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미술이 대전성기를 맞이하고 혁명적미술의 본보기로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된것은 조선화를 바탕으로 하여 주체미술을 건설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귀중한 결실이며 그 위대한 승리로 된다.

우리 미술가들은 주체미술의 대화원을 마련하는 길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이 이룩한 업적을 튼튼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감으로써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건설과 로동의 합리적조직

윤 문 영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현시기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은 나라의 로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근로자들의 창조적 열의와 재능을 적극 발양시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25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로동은 모든 재부와 행복을 창조하는 원천이다. 로동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가 창조되고 생산력이 발전하며 사회가 전진한다. 로동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나갈수도 없으며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갈수도 없다.

사람들의 창조적로동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한다. 과학과 기술이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고있는 오늘날 사람들의 로동은 과거의 락후한 로동도구로써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었던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해내고있다.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이 생산과정에 도입되고 생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로동조직은 짜고들어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물질적부의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나라의 로력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근로자들의 창조적 힘과 재능을 적극 발양시키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조직은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이룩할수 있도록 로력을 완전히 그리고 능률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이다. 여기에는 나라의 로력자원을 적극 탐구동원하며 로력후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인민경제의 로력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으로부터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작업 단위와 교대 조직, 작업조건보장 등 제반 대책들이 포함된다.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할수록 근로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그것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은 무엇보다 나라의 로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할수 있게 한다.

사회의 물질적부는 오직 근로자들의 로동에 의해서만 창조되는것만큼 나라의 로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는 것은 사회총생산액과 국민소득을 빨리 늘이고 나라의 경제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로 된다. 더우기 실업이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로력이 모자라는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나라의 로력원천을 적극 동원하지 않고서는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로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으며 생산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없다.

물론 생산을 늘이는데는 로력자의 머리수를 늘이는 방법과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로력의 리용을 전제로 하는 것만큼 로동조직을 짜고들지 않고서는 생산을 빨리 늘일수 없다.

디우기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

다. 새로운 생산부문들과 단위들이 창설되고 확장, 기업소들의 생산능력이 확장되는만큼 기능로력을 비롯한 많은 로력이 절실히 요구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범위에서는 로력원천을 적극 동원하고 로력후비를 육성하여 인민경제의 로력수요를 계획적으로 충족시키며 로력을 배치하고 합리적인 생산단위를 조직하는 등 실천적대책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기업소적범위에서는 로력배치, 작업단위들과 교대조직, 여러가지 작업공정들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사업을 파고드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나라의 로력자원을 동원리용하기 위하여서는 현재 일하고있는 로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유휴로력을 생산에 적극 인입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로동조직을 짜고들어 비생산부문로력을 극력 줄이고 생산부문 그가운데서도 직접부문로력을 늘이며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작업단위와 작업공정, 작업교대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면 로력의 랑비를 없애고 지금 있는 로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절대적인 로력을 늘이지 않고도 같은 수의 로력을 가지고 물질적부의 생산을 더 늘여 사회순소득을 높일수 있으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로동조직을 짜고들어 직장에 나가지 않는 가정부인들을 비롯한 유휴로력들이 자기의 희망에 따라 일할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림시적인 작업단위들을 잘 조직하고 그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도록 탁아소와 유치원, 편의시설들을 잘 꾸려주면 가정부인들을 비롯한 유휴로력들을 생산에 적극 인입할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나라의 긴장한 로력문제도 성과적으로 풀고 근로자들의 생활도 빨리 높일수 있으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도 다그쳐나갈수 있다.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은 또한 근로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높이 발양할수 있게 한다.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그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로동을 조직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생산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는 근로인민대중이며 그들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근로인민대중의 열의와 재능을 최대한 발양시킬 때 자연을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근로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로동조직을 잘하는것이다. 로동조직을 잘하여야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을뿐아니라 근로자들이 생산과정에서 높은 열의를 내여 일할수 있게 된다.

로동조직을 잘하는데서 기본은 로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것이다. 그것은 로동조직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가 근로자들을 생산과정에 인입하며 그들이 능력껏 일할수 있도록 사람들의 생산활동을 조직하는데 있다는것과 관련된다.

로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것은 근로자들을 성별과 년령, 체질, 희망과 기술기능수준에 맞는 직종이나 일터에 배치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근로자들이 맡은 일에 대한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된다. 만일 로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이 자기의 준비정도와 능력에 맞지 않는 직종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들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준비되고 높은 과학지식과 기술기능을 소유하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게 된다. 이것은 결국 사회적으로 막대한 로력을 랑비하고 로동생산능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근로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높

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는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 때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근로자들의 성별과 년령, 체질에 따라 어렵고 힘든 부문에 청장년로력을 배치하며 녀성들이 할수 있는 직종과 일터를 규정하고 여기에 녀성로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것을 비롯하여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체질에 맞는 일터에서 높은 능률을 내여 일하게 된다. 또한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어 기계설비의 능력과 생산기술공정의 특성에 맞게 전문지식과 기술기능을 가진 일군들을 배치할 때 그들은 창조적 열의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된다. 이것은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근로자들을 준비정도와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하게 하여야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적극 동원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은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개선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로동생활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로동생활을 떠나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어 근로자들에게 희망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로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면 그들은 자기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 로동조직을 짜고들어 로동생활을 정규화하면 그들이 로동에 적극 참가하면서도 학습도 정상적으로 하고 휴식도 충분히 할수 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더욱 보람차고 흥겨운것으로 만들고 문화정서적인 생활에 대한 요구도 원만히 충족시켜 그들에게 더욱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

이 모든것은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이 로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며 근로자들의 로동과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요구를 원만히 보장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우리앞에 방대한 경제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새로운 중공업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이 수많이 건설되고 공업의 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지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의 힘있는 지인민에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이 힘있게 다그쳐짐에 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로대가 마련되여가고있다.

새로 건설되는 공장, 기업소들이 제때에 은을 내도록 하며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드는데 있다.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어야 새로 건설되는 부문과 단위들 그리고 5개지구전선과 대자연개조전투장들에서 요구되는 로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로력랑비를 없애고 있는 로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이것은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여기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전투장들에서 요구되는 로력을 제때에 보장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중요방도가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먼저 로동행정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40~241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조직은 결국 사람과의 사업이며 중요하게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이다. 그것은 로력랑비를 없애고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한사람당생산액을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로동조직을 개선하는 문제가 구경은 근로자들이 얼마나 자각적으로 로동에 참가하는가, 다시말하여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졌는가 못가졌는가 하는데 따라 크게 좌우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은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동을 즐기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자각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근로자들속에서 자기의 혁명초소를 튼튼히 지키며 어느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당과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에게 필요한것이라면 귀천을 가리거나 대소경중을 따지지 말고 오직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 바쳐 충실히 일하도록 정치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탄광, 광산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존경하는 분위기를 세워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로력적열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자기 초소를 훌륭히 지켜나가는 숨은 영웅들을 적극 찾아내여 그들의 모범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줄 때 모두가 다 그들처럼 성실히 일해나갈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자기의 창조적지혜와 정열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로동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이다.

로동계획화는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로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기초로 된다. 로동계획화사업을 잘하여야 나라의 로력자원을 탐구동원하며 로력후비를 양성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인민경제로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로동조직을 바로하자면 나라의 로력원천과 수요를 옳게 타산하여 그것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린 계획을 세우는것이 필요하다.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로력보충조절계획을 세워 인민경제발전계획에 예견된 로력수요를 제때에 보장하며 인민경제 부문들과 지역들에 근로자들을 정확히 조절배치해야만 로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특히 로동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에서 생산부문로력자수의 우선적증대를 보장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로력자들을 규정하는 원칙에서 로력을 배치하며 직접부문로력의 비중을 높일수 있게 로동계획화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현시기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비생산부문과 경로동부문에서 일하는 청장년들을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시키고 그대신 가정부인들을 인입하기 위한 사업을 치밀히 짜고드는것이다. 그리하여 청장년들

이 청춘의 기백과 정열이 약동하는 전투장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우며 가정부인들이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규률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로동규률은 로동법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의 법적규률이다. 로동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로력의 랑비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을 하나의 목적실현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로동생활을 정규화하여 로동과 학습, 휴식을 옳게 보장해줄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출퇴근질서, 로동시간리용질서, 작업교대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로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480분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로동시간안에 각종 회의와 강습을 비롯하여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을 마음대로 조직하거나 생산로력을 때내여 다른 일에 동원시키는 무규률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생활조직을 짜고들어 로동과 휴식과 학습을 옳게 배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로동을 정규화하고 학습을 정상화하며 휴식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사업의 성과여부는 결국 이 사업을 직접 맡고있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의 경제정책 집행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로동을 어떻게 조직하며 생산과 건설을 얼마나 빨리 다그쳐나가는가 하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 맡은 사업을 얼마나 실속있고 능률적으로 수행해나가는가 하는데 좌우된다.

언제나 생산과 건설이 진행되는 현실에 들어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한공수의 로력이라도 더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로동조직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것이 경제지도일군들이 지녀야 할 사업기풍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이러한 혁명적사업기풍을 소유하는것과 함께 경제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당의 경제관리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기 부문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정통하여야 로동조직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듦으로써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관리운영방법

최 원 철

사회주의경제를 옳바로 관리운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과학적인 경제지도관리원칙을 세우고 그에 맞게 공장, 기업소들의 모든 경영활동을 조직진행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기업소경영방법에서 독립채산제의 적용을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시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는 국영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관리운영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96～397페지)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요구에 맞는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기업관리운영방법이다. 기업소경영방법에서 독립채산제를 옳바로 적용한다는것은 기업소들이 국가의 계획적지도와 통제밑에 경영상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벌려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수익성을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독립채산제는 기업소의 경영활동결과에 대한 물질적관심성의 원칙에 기초하며 경리운영에서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독립채산제가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관리원칙에 철저히 의거하면서 생산자들의 물질적관심성을 자극하고 가격, 원가, 리윤과 같은 가치공간들을 리용하여 사회주의기업소를 운영해나가는 기업관리운영방법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기업소경영방법에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게 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적성격과 함께 과도적성격을 가지고있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으며 생산력수준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을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또한 로동이 물론 영예롭고 보람찬 일로 되여있지만 아직 그것은 공산주의사회에서처럼 생활상 제1차적요구로 되지 못하고있다. 공산주의사회의 낮은 단계로서의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과도적특성으로 하여 사회주의국영기업소들은 다같은 국가소유의 기업소이기는 하지만 경영활동에서 제각기 상대적독자성을 가지며 그들사이에 서로 네것내것을 따지고 엄격한 등가계산을 하게 되는것이다.

상품화폐관계가 존재하고 경영상독자성이 있는 조건에서 생산물의 생산과 류통에서 가치법칙이 형태적으로 작용하며 경영활동결과에 대한 물질적관심성이 작용하게 되는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있게 되는 이러한 경제적관계들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을 전제로 하고있는 독립채산제를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중요한 공간

으로 리용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관리의 기본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그들이 기업관리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독립채산제는 어디까지나 경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보조적수단으로 적용되게 된다. 더우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하고있는 공산주의적기업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가 확립된 우리 나라에서 독립채산제는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복종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독립채산제는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생산력발전수준과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에 맞는 기업관리운영방법이며 따라서 그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수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생산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고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합리화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97페지)

기업소경영방법에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생산자들의 창조적적극성과 로력적열성을 높이며 그들이 기업관리에 잘 참가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자대중은 공장, 기업소의 주인이며 생산과 관리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기업소경영활동의 성과여부는 결국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재능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러므로 생산자들의 열의와 창발성을 동원하는것은 언제나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요구로, 사회주의기업소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관건적고리로 된다.

기업소경영활동에서 생산자들의 창조적적극성과 로력적열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와 과도적특성에 맞게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배합하여 그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관심과 물질적관심을 불러일으키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정치도덕적자극은 로동의 결과에 대한 여러가지 정치적평가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실현되며 물질적자극은 사회주의로동보수제의 실시와 경영활동결과에 대한 물질적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데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자극을 적절히 배합하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생산자들의 생산의욕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게 한다.

독립채산제기업소들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우면서 여러가지 형태의 정치적평가를 옳게 실시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치도덕적자극을 강화한다. 이것은 생산자들의 정치적각성을 불러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생산에서 높은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추동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독립채산제는 로동에 대한 물질적자극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기업관리운영방법이다. 독립채산제기업소는 국가로부터 받은 자재와 자금으로 경영활동을 벌려 국가에 리익을 주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물질적평가와 보수를 받으며 반대로 국가에 손실을 주었을 때에는 물질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독립채산제기업소에서는 국가계획의 실행정도에 따라 생활비자금, 기업소기금, 상금, 장려금을 적립하여 쓸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계획을 넘쳐수행한 기업소집단과 개별적근로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혜택이 추가적으로 차례지게 되며 그렇지 못한 기업소집단과 개별적근로자들에게는 그만큼 보수가 적게 돌아가게 된다. 다시말하여 자기가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분배받을수 있게 된다.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실시되는 이러한 물질적자극은 생산자들속에서 생산의욕을 높이고 경영활동을 개선해나가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도록 추동한다.

이처럼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데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며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구현함으로 하여 그것은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적극성과 로력적열성을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독립채산제는 또한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더욱 조직화할수 있게 한다.

경영활동을 짜고드는것은 기업소들이 국가앞에 지닌 의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경영활동은 생산을 비롯하여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업이다. 계획작성, 생산조직, 설비관리, 자재공급, 제품판매, 로동조직, 재정관리와 같은 사람들의 경제적활동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영활동을 옳게 짜고들지 않고서는 생산에서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기업소를 제대로 움직여나갈수 없다. 특히 기업소의 경제토대가 강화됨에 따라 경영활동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질수록 기업관리전반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그래야 현대적생산의 요구에 맞게 모든 물질기술적조건들을 충분히 보상할수 있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에 맞게 공장, 기업소들을 올바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경제적공간이다.

독립채산제는 공장, 기업소들로 하여금 국가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와 통제 밑에 물질적관심성의 원칙과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을 리용하여 경영활동을 벌려나갈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독립채산제기업소에서는 국가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면서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동원적이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 독립채산제는 또한 기업소들에서 매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매일, 매주, 매달 계획과제를 똑똑히 주며 그 실행정형을 직장별, 작업반별, 개인별로 정확히 총화하고 평가하게 한다. 그리하여 기업소와 생산자들이 생산계획, 원가계획 등 국가계획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게 하며 생산지도를 개선하고 로력관리, 설비관리, 자재관리, 재정관리를 비롯한 모든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맡겨진 계획을 완수 및 초과수행하도록 자극한다. 독립채산제는 원가, 가격, 리윤과 같은 가치공간들을 경제계산의 도구로, 경제적자극수단으로 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소의 계획수행정형과 손익관계를 정확히 따지며 생산성과의 요인과 경영활동결과에 대한 물질적보수의 규모를 옳게 장악하고 타산할수 있게 하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기업소경영방법에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면 모든 생산자들이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업에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보다 실속있게 하게 된다.

독립채산제는 또한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생산내부예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게 한다.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절약은 제품의 원가를 낮추고 공업의 내부축적을 늘이는 원천으로 되며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실현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생산의 내부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기업소경영방법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적용하는데 있다.

공장, 기업소들이 자기가 번 수입으로 모든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는 원칙에서 경영활동을

벌려나가는것은 독립채산제의 중요한 특성이다.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면 공장, 기업소들이 절약하고 증산하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되며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적극 애쓰게 된다. 특히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직장, 작업반, 개별적인 종업원들에 이르기까지 현물지표별생산계획과 함께 원가계획과 절약과제를 주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통제하며 생산자원과 자금을 절약하고 랑비와 오작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수송비, 출장비, 사무비와 온갖 비생산적지출을 극력 줄이며 국가에 경제적손실을 주는 경우에는 그 크기에 따라 그만큼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책임지도록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은 깐진 살림살이기풍을 세우고 생산과 경영활동의 모든 고리들에서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의 경제적성과를 이룩하게 된다.

독립채산제기업소에서는 기계설비의 리용률과 기술혁신의 경제적효과성을 고려하여 집단과 개별적생산자들이 받는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에 영향을 주게 되여있다. 그런것만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기계설비의 생산능력을 높이며 로력, 자재, 자금은 적게 쓰면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나가게 된다.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페설물과 부산물을 효과있게 회수리용하며 유휴자재와 원료들도 더 많이 찾아내여 생산에 동원하게 됨으로써 나라살림살이에 큰 보탬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면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게 됨으로써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와 자금으로 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으며 기업소의 수익성도 높이고 국가축적도 더욱 늘여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업관리운영을 옳게 해나가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할데 대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특히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생산과 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적용하도록 로동정량과 물자소비기준, 제품의 가격수준을 정확히 제정하기 위한 정연한 기준화사업체계를 세워주었으며 작업반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 공장, 기업소, 직장 순재정총화제도, 월, 분기 및 년간 재정총화제도, 지역별, 대상별 재정총화제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었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올라선 나라의 경제를 보다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모든 생산자들이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열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알뜰하고 깐지게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 경제건설의 실천적경험과 오늘의 현실은 독립채산제가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고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우월한 방법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경제적공간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오늘 우리앞에는 독립채산제를 비롯한 경제적공간들을 적절히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개선강화해나가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공장, 기업소들이 독립채산제를 옳바로 적용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독립채산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는것이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원칙적요구

이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방침이다. 독립채산제는 공장, 기업소들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우리 당이 경제관리에서 목적의식적으로 리용하는 중요한 경제적공간이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할데 대한 당의 의도와 방침을 깊이 파악하고 그 관철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물론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장, 기업소들이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는데서는 여러가지 애로에 부닥칠수 있다. 우리는 전진도상에 가로놓이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독립채산제를 옳게 실시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완성하는것이다.

모든 규정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를 옳게 반영할 때만이 실천적의의를 가지며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낼수 있다.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규정인 경우에 그것은 해당 시기 나라의 경제형편, 기업소경영실태와 기술발전수준 등을 반영한것으로서 사회경제적조건이 변함에 따라 보충완성되여야 기업관리에서 은을 나타낼수 있다.

오늘 우리의 경제규모는 전례없이 커지고 인민경제부문들사이, 생산단위들사이, 재생산고리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는 더욱 밀접해졌으며 생산의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지고 생산속도가 비상히 빨라지고있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과 기술기능도 훨씬 높아졌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이러한 현실에 맞게 독립채산제규정을 더욱 완성하는것은 기업소경영활동을 옳게 규범화하며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그러므로 기업소경영활동의 구체적 특성과 현실적조건에 부합되게 독립채산제규정을 더욱 완성함으로써 그것이 은을 내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의 대렬을 늘이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수입을 끊임없이 늘이면서도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서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제힘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면서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자는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주되는 목적이 있다. 국가에 리익을 주지 못하는 기업소는 사실상 독립채산제 기업소라고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체의 특성과 구체적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토대우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기업소들의 대렬을 늘여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어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데서는 그것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국가의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며 종업원 한사람당생산액을 높이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며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자극이 되도록 옳게 적용하여야 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대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옳바로 실시해나감으로써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기업관리에서 원가공간의 합리적리용

한 인 호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의 하나는 경제적공간들을 잘 리용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에서는 여러가지 경제법칙들이 작용하며 그에 상응하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공간들이 리용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공간들은 공장, 기업소들의 기업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물론 기업관리를 개선해나가는 사업은 경제적공간들을 리용하는것으로만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관리에서 경제적공간들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경제적타산을 바로하지 못하게 되며 사회적로동을 랑비하고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원가공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생산물의 원가가 기업소사업전반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지표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8권, 321페지)

원가는 생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것과 관련한 기업소의 모든 지출을 화폐형태로 표현한것이다.

일정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는 생산수단이 소비되고 사람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이 소모된다. 다시말하여 원료, 자재가 소비되고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재산이 마모되며 근로자들의 로동이 지출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제품이 만들어지며 완성된 제품은 수요자기관, 기업소들에 판매되게 된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과정에 소비된 생산수단과 로동보수의 몫을 돈으로 표시하는것이 바로 원가이다.

원가는 기업소사업전반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지표로 된다.

기업소경영활동의 질적수준은 지출에 비하여 얻어진 경제적효과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집중적으로 표현되게 된다. 로력과 생산수단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질좋은 생산물을 값눅게 만들어내면 경영활동수준이 높다는것을 의미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경영활동수준이 낮다는것을 의미한다. 설비리용률, 물자원단위소비기준, 류동자금회전률과 같이 개별적인 측면들을 반영하는 지표들과는 달리 원가는 기업소의 기술장비수준과 원료보장조건, 기술관리, 자재관리, 로력관리, 재정관리 등 경영활동의 모든 측면들과 그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 리용의 효과성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여기에 원가가 다른 질적지표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며 그것이 기업소사업전반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지표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원가공간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국가재산을 자기의 소유처럼 책임적으로 애호관리하는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가지고있지 못하다. 또한 로동의 차이가 남아있으며 로동이 생활상 제1차적인 요구로 되지 못하고 있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특성에 맞게 기업관리를 잘해나가기 위해서는 생산을 자극하고 지출을 통제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가치법칙과 상품화폐관계를 반영한 원가와 같은 경제적공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

여야 한다.

원가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한다는것은 원가를 경제적도구로 틀어쥐고 그것을 생산을 발전시키며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 적극 복무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원가공간을 잘 리용하여야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물자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절약적으로 쓰도록 자극하고 통제할수 있다.

원가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독립채산제의 요구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독립채산제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는것이다. 이 요구를 실현하여야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은 수익성을 보장하고 국가축적을 계통적으로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으며 자기의 사명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독립채산제의 요구대로 경영활동을 잘해나가자면 채산을 바로 맞추어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의 주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생산을 더 많이 늘이는데 있다. 그러나 생산을 늘이는것이 경영활동의 주되는 목적이라고 하여 채산을 맞추지 않고 생산만 늘이는 방향으로 나갈 때에는 막대한 원료와 자재, 로력과 자금을 랑비하게 되며 지출을 초과하고 수입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여 나중에는 국가앞에 지닌 의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된다.

채산을 바로 맞추기 위해서는 생산을 늘이면서도 자기가 생산한 제품들에 지출된 비용의 크기를 확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대비하면서 그것들사이의 옳은 균형을 보장하여야 한다. 채산을 맞추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원가공간을 잘 리용하여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원가는 생산물에 지출된 모든 비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것만큼 원가를 따지보면 설비와 로력의 리용정형, 물자소비기준의 준수정형과 관리비지출정형을 환히 꿰뚫수 있으며 지출에 비한 리익금의 크기를 정확히 알수 있다. 다시말하여 판매수입에서 지출을 보상하기 위한 몫과 리윤의 규모를 규정할수 있으며 경영활동의 재정적결과를 확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할수 있다. 원가에 의하여 밝혀진 자료들은 경영활동과정에서 나타난 좋은 점은 적극 살리고 부족점은 고치도록 자극과 통제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공장, 기업소들로 하여금 적은 지출로 보다 많은 생산을 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소비된 생산수단과 로력보수의 몫을 보상하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금을 보장하도록 적극 추동한다.

원가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또한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있는 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게 한다.

절약은 증산의 예비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 있는 원료와 자재, 있는 로력과 자금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칠수 있다.

절약투쟁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물질적생산분야에서 물자재산을 극력 아끼쓰는것이다.

재생산의 견지에서 볼 때 생산은 여러 고리들가운데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한다. 생산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인 동시에 로력을 리용하고 생산수단을 소비하는 생산적소비과정이기도 하다. 생산과정에서 원료와 자재,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 재생산의 다른 고리들에서보다 더 많은 절약예비를 찾아낼수 있다. 물론 분배, 류통, 소비분야에서의 절약도 중요하지만 생산분야에 가장 큰 증산절약예비가 있는것으로 하여 물질적생산분야에서의 절약투쟁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생산분야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모든 지출의 기술경제적 기준들을 잘 알고 그것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원가공간을 리용하여 제품생산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규모를 항목별로 정확히 규정해주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면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한토막의 강재, 한방울의 연유라도 극력 아껴쓰는 기풍이 더 잘 발양되게 된다. 그리하여 나라의 귀중한 물자재산과 자금을 망탕 다루거나 랑비하며 경제적타산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것과 같은 그릇된 현상들이 더 빨리 없어지게 된다. 원가공간을 리용하여 지출을 정확히 규정해주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게 하는것은 또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조직을 더 잘하고 원료, 자재, 로력의 소비기준을 극력 줄이며 물자구입과 제품판매조직을 짜고드는 등 경영활동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을 세우도록 자극하게 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기풍을 발양하게 하고 지출을 극력 줄이기 위한 실무적인 조치들을 세워 절약투쟁을 더 잘해나가게 하는 여기에 원가공간이 기업관리에서 노는 커다란 작용의 하나가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 원가공간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지금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며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를 위한 투쟁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 나선 이 모든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규모의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이 있어야 한다.

제기된 과업은 매우 아름찬데 나라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은 일정하게 제한되여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생산과 건설을 계속 비약적인 속도로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원료와 연료, 자재를 충분히 대주는것과 함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있는 자재와 설비, 있는 로력과 자금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그러자면 원가공간을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의 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방대한 량의 원료와 자재를 소비하고있는 오늘 원가공간을 잘 리용하여야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고 원료, 자재를 극력 아껴쓰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물적 및 인적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다.

현시기 증산절약의 가장 큰 예비의 하나는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는것은 공업의 내부축적을 늘이는 원천이며 상품가격을 낮추는 기초이며 인민들의 물질적생활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이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조건으로 된다.

원가를 극력 낮추어야 기업소의 수익성을 높여 국가축적을 더 많이 보장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질좋은 여러가지 상품을 값싸게 공급하여 그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다.

이 모든것은 원가공간을 옳게 리용하는것이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원가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원가계획을 바로세우는것이다.

원가계획은 일정한 시기의 개별적생산물의 원가수준과 원가저하목표, 기업소적인 원가규모 등을 규정해주는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한 항목의 하나이다. 원가계획을 잘 세울 때 생산자대중들로 하여금 뚜렷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절약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가게 할수 있으며 원가공간이 경영활동을 자극하고 통제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되게 할수 있다.

원가계획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물자인단위소비기준과 로동정량, 설

비능력과 그 리용률, 관리비지출과 같은 기술경제적기준들을 선진적이며 동원적인것으로 되게 체계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물자원단위소비기준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로동정량을 낮게 정하는 방법으로 원가계획에 인부러 《예비》를 조성할 때에는 결국 계획원가가 높아지게 되므로 기업관리의 합리화와 전반적인민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원가계획을 바로세우려면 기술경제적기준들을 갱신하는것과 함께 원가저하요인을 세밀히 타산하고 원가계획이 기술발전계획을 비롯한 다른 계획항목들과 세부적으로 맞물려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국가투자에 의한 기술장비의 개선, 생산의 전문화와 집동화, 자재보장 등 인민경제적요인들을 고려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기업소가 자체로 원가를 낮추기 위한 생산내부적요인에 주목을 돌리는것이다.

자체로 원가저하예비를 찾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산자대중을 적극 발동하는데 있다. 예비는 바로 생산현장에 있으며 그것은 대중의 힘과 지혜가 발동될 때 더 많이 탐구되며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된다. 계획일군들은 당의 계획화방침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킴으로써 지출을 극력 줄이도록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원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세워진 계획에 기초하여 매 직장, 작업반들에 절약과제를 구체적으로 주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원가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과학적인 원가계산제도를 세우는것이다.

정확한 원가계산제도를 세우는것은 매개 기업소와 직장, 작업반 및 개별적인 근로자들이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과학적인 원가계산제도를 세워야 재정계획과 원가계획의 실행과정을 일상적으로 장악통제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며 경영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올바른 대책을 세울수 있다.

원가계산제도를 바로세우는데서 선차적인것은 시초계산을 표준화, 과학화하는것이다. 같은 부문안에서 시초계산을 제각기 서로 다르게 조직하면 계산업무의 복잡성을 가져올뿐아니라 시초계산에 근거한 부기계산과 통계계산의 과학성을 보장할수 없게 된다. 동일한 기술공정을 거쳐 같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부문들에서는 작업반, 직장들에서의 시초계산을 표준화, 과학화하여 그 통일성을 보장하며 제정된 계산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원가계산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또한 계산조직을 세부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원가계산의 중요한 목적은 단순히 일정한 기간의 실적원가를 확정하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원가계획의 실행과정을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세부적으로 통제하여 절약투쟁을 강화하자는데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물자소비정형을 원인별, 제품별, 원가항목별, 직장, 작업반별로 제때에 장악통제할수 있도록 계산조직을 세부화하며 자체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원가계산방법론을 더욱 개선완성하여야 한다.

생산물의 원가저하와 질제고 문제를 다같이 풀어나가는것은 원가공간을 옳게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생산물의 원가와 질은 밀접한 련관속에 있다. 원가를 낮춘다고 하여 질을 떨구거나 질을 높인다고 하여 원가를 무턱대고 더 들이는것은 경제적의의가 없다. 따라서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과 생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결부시켜 진행하는것이 원칙적인 요구로 나선다.

원가저하는 질제고과정을 다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것은 로력과 생산수단을 합리적으로 리용한 결과가 원가저하에서뿐아니라 생산물의 질제고에서

도 나타나는것과 관련된다. 생산수단과 로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기술경제적대책을 세우면 랑비가 없어지게 되며 적은 지출로 생산물을 보다 알뜰하고 쓸모있게 만들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 질제고는 원가저하과정을 다그치는데 작용한다.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키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리는것은 생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술경제적방도들이다. 이와 같은 방도들은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는데도 적극 작용한다. 또한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과정에 오작품과 불합격품으로 인한 손실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 생산물의 원가가 낮아지게 된다.

원가저하와 질제고가 밀접한 련관속에서 서로 작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원가저하와 질제고는 오직 치밀한 경제조직사업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설비관리와 자재관리, 로력관리, 재정관리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원가를 낮추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생산물의 원가를 낮춘다고 하면서 질을 떨어뜨리거나 질을 높인다고 하여 원가를 많이 들이지 않도록 원가저하와 질제고 문제를 통일적인 과정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원가공간을 가격, 리윤, 생활비와 같은 다른 경제적공간들과 밀접히 결부하여 리용하여야 한다.

원가공간을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원가공간리용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는것이다.

원가공간을 기업관리개선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리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원가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있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원가공간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져야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리용하여 기업관리를 개선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척되고 경제의 규모가 매우 커진 오늘 원가공간에 대한 관점은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생산을 늘이는것이 선차적인 과업이라고 하여 제품의 량적장성에만 치우치고 원가를 타산하지 않는다면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없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나갈수 없으며 결국은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지장을 주게 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원가계획작성으로부터 계산총화에 이르는 원가공간리용의 전과정이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있는 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원단위소비기준을 철저히 지키며 그것을 더욱 낮추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경제지도일군들부터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건설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원가를 비롯한 경제적공간의 리용과 관련한 실천적문제들을 환히 꿰들고있어야 하며 그것을 자기 부문 사업에 능숙하게 적용할줄 알아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원가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생산물의 원가를 극력 낮춤으로써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질, 이것은 사람과 집단, 사회의 실제적장성의 척도이다

(1984년 3월 22일 전국당대표자회에서 한 연설)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또도르 쉡꼬브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후 지난 40년동안 우리 인민은 벌가리아공산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고 사회주의사회를 공고발전시키며 정신문화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새 인간을 육성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기간 특히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이후 당정책의 중심에는 항상 근로하는 사람과 그들의 요구와 리익, 그들의 희망과 지향이 놓여있었다.

바로 이러한 정책은 4월총로선의 구현으로서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인민들의 정치도덕적통일을 강화하며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에서 평등을 끊임없이 실현할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조국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당당한 긍지를 가지며 전체 인민이 이것을 자랑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만도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달성한 성과를 평가하면서 약점과 부족점 앞에서 눈을 감아서는 안되며 그리고 벌가리아인민공화국에서의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더욱더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나서는 새로운 문제들을 볼줄 알아야 한다.

현단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가장 절박하게 나서는 관건적문제는 질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언제나 우리 당앞에 제기되고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가능성에 맞게 해결하여왔다. 그러나 나라의 발전의 객관적조건과 관련하여 량적지표를 주로 강조하여왔다.

지금은 형편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제는 질에 대한 문제가 객관적요구로서, 경제기술적, 사회정치적 및 사상적문제로서 총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그것은 새로운 견해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대할것을 요구하는 과업이다.

우리는 질에 대한 문제를 현재와 미래의 관건적인 문제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관건적문제로 본다.

높은 질은 몇개 부문에서만 아니라 모든 부문, 모든 재생산과정에서 그리고 전사회적규모에서 요구되며 이룩되여야 한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질문제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토의하는것, 이것이 당중앙위원회의 기본의도이다.

공업제품의 질을 개선하는데서 소기의 첫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세계시장의 요구에 응할수 있는 높은 질적지표를 가진 제품의 몫은 1983년하반기에 같은 해 상반기에 비하여 약 2배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긍정적변화는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등에서 이룩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룩한 성과에 결코 만족할수 없다.

질과 우리 나라에서의 발전된 사회주의 건설의 몇가지 객관적 합법칙성에 대하여

당의 립장에서 새롭고 주요한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높은 질이란 질문제를 발전된 사회주의 건설의 객관적법칙과 합법칙성에 맞게 제기하고 해결할 때 비로소 달성될수 있다는것이다.

여기에서 객관적합법칙성이란 어떤것인가?

객관적합법칙성으로서 첫번째로 념두에 두고있는것은 과학기술혁명이다. 오늘 높은 질은 오직 과학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키고 최신과학기술적성과들을 이룩하는데 기초하여 보장할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에 기초하여 현존기술과 공학 그리고 생산물들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기본투자문제에 새롭게 대하는것이 필요하다. 기본투자의 70~75%는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생산능력을 갱신하는데 돌려져야 한다. 이 방향에서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둘째로, 과학기술적진보를 주요하게 담당하고있는 생산부문들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면서 갱신과정을 통하여 생산구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고 완성하여야 한다.

셋째로, 질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방도를 찾기 위한 벌가리아 학자들과 과학연구집단의 창조적노력이 없이는 높은 질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여기에는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많은 로력을 과학기술적진보 즉 공학부문에 돌려야 한다. 우리의 과학연구단위들이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나라들의 해당 연구기관들과의 협동을 심화시켜야 하며 발전된 나라들과의 과학기술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과학기술적, 생산적 경험을 리용하는데서 벌가리아과학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가장 새롭고 가장 전망성있는 과학기술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이고 적용할수 있는 과학연구기관들과 과학통보기지를 창설할 때가 되였다. 학자들과 연구소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들의 창발적인 발기와 활동을 저애하는 관료주의적장벽을 허물어버려야 하며 벌가리아학자들에게 사회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오늘 벌가리아과학자들이 이룩한 새로운 발전과 성과에 대한 도덕적 및 물질적 자극을 위한 새로운 규범과 그들을 더 높이 존중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는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을 작성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투쟁을 지도하고 조직하는 일군들은 벌가리아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수준을 잘 알아야한다.

과학기술적진보와 질, 질과 과학기술적진보, 이것은 우리 지도사업의 원칙으로 되여야 한다.

객관적합법칙성으로서 두번째로 념두에 두고있는것은 사회주의적사회관계, 특히는 사회주의적소유에 대한 소유자와 주인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것이다. 이것은 사람과 로동수단, 사람과 과학기술적진보, 사람과 제품의 질 사이에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련계를 맺게 하는 실천적방도이다.

소유자로서의 국가와 주인으로서의 로동집단사이의 관계는 인민경제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데서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로부터 제기되는것은 무엇인가?

—이로부터 제기되는것은 모든 근로자들, 모든 로동집단들이 현대적인 공학과 기술을 생산에 빨리 도입하며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질높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작업반채산제를 널리 받아들이는것이다. 그것은 생산자와 질사이의 직접적인 경제적련계를 실현하는 기본조직형태이다. 새로운 형태의 작업반채산제를 통하여 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며 생산물과 그 질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지게 된다. 경제적기초우에서 작업반들을 조직하는 사업을 무제한 연기해야 할 원인은 전혀 없다.

—로동집단들이 진정한 주인의 권한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그들과 국가

사이의 관계가 경제적기초우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협정원칙이 우선 적용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로동집단들은 잡다한 사무로부터 해방될것이며 높은 질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창발성을 발양할수 있을것이다.

객관적합법칙성으로서 세번째로 념두에 두고있는것은 가치법칙과 그와 련결된 상품화폐관계의 객관적작용이다.

이로부터 제기되는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제기되는것은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로는 질을 높일수 없다는것이다. 오직 새로운 경제적방법과 새로운 경제기구들을 마련할 때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이다. 그렇게 하여야 가치법칙과 상품화폐관계의 요구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을것이다.

둘째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생산과 시장사이의 경제적련계와 모순을 해결하는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대외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능력을 가지며 그 수요가 높아질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게 될것이다. 우리에게는 높은 질을 제기하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맞서게 하는것이 특히 필요하다. 상품의 질에 대한 기준은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이거나를 막론하고 같아야 한다.

셋째로, 질문제해결의 중요한 공간은 생산자들사이의 경제적경쟁을 벌리는것이다.

넷째로, 높은 질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격제정사업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필요하다.

질과 가격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언제나 처리되여야 한다. 가격은 실제적가치와 그 생산에 지출된 필요로동에 따라서 설정되여야 한다. 사용가치단위당가격은 낮추면서도 더 높은 질에 대하여서는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질이 낮은 상품, 류행에서 뒤떨어진 상품, 수요가 없는 상품에 대한 가격은 생산자의 부담으로 현저히 낮추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출제품의 국제시장가격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여기에서는 무역부가 기본책임을 지고있으며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참견은 필요가 없다.

다섯째로, 질과 로동보수사이의 련계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질은 로동에 대한 물질적자극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로동의 질과 생산된 제품의 질이 로력보수의 등급을 규정하는데서 기본요인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여섯째로, 질을 높이는데서 국가예산과 재정신용활동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합리적인 상금체계, 가격조절체계 그리고 관세와 세금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생산을 빨리 도입하며 현존능력을 기술공학적으로 빨리 개조하는 사업을 자극하여야 한다. 이 경제적공간들은 또한 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하고 수입하는것을 제한금지하는데 리용되여야 한다.

객관적합법칙성으로서 네번째로 념두에 두고있는것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전개자인 인민대중의 증대되는 역할이다.

전반적의의를 가지는 이 객관적합법칙성은 발전된 사회주의건설에서 더욱더 큰 힘으로 나타나고있다. 지금은 그것이 질문제를 해결하는데서도 나타나야 할 시기이다.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것은 우리 인민의 모든 계층의 리익에 의거할것을 요구하며 모든곳에서 더 잘,더 질적으로 일할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 그리고 인테리, 전체 인민의 힘과 지혜를 총동원할것을 요구한다. 높은 질을 위한 투쟁에 근로대중을 적극 인입하며 매 사회주의근로자들의 로동과 창조력을 완전히 리용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과 모든 로동집단들이 더 높은 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며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겠는가에 대하여

의견과 제의를 내는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로동계급에 대한 문제, 그 들가운데서도 로동자들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높이기 위한 문제가 응당 첫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 그에 상응하게 모든 로동집단에 기술기능수준이 높고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로동자들로 우수한 핵심을 꾸리는것이 필요하다. 이 핵심은 과학기술적성과를 도입하는데서도 질을 높이는데서도 그리고 전체 로동집단을 앞으로 전진시키는데서도 기둥이 되여야 한다.

청년들의 직업상숙련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를 가지는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지향은 더욱더 많은 청년 로동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30살전 년령기에 가장 높은 기능에 도달하는것이다.

가장 힘든 문제는 간부들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에게는 간부들이 필요하다. 간부들 즉 학자들과 높은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과 지도일군들이 필요하다. 기술의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는것도 그리고 질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것도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있다.

생산에서 그리고 우리의 전체 로력전선에서 전문가들의 귀중한 역할을 평가할 때가 되였다. 전문가들에 대한 레닌의 특별한 관심에 대하여 상기하여보자. 특별히 중요한것은 전문가들이 세계 과학과 기술, 실천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알도록 하는것이며 고등교육기관들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높여주는것 등이다.

고등교육을 받는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현존실무는 매우 심각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고등교육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졸업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생산과 사회관리에 참가시키며 되는대로가 아니라 현대 과학과 기술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일할수 있도록 준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지도일군들은 항상 새로운 과학의 높은 봉우리에서있어야 하며 높은 질을 위한 전인민적투쟁에서 지도적역할을 놀아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 어제날의 표상으로 살며 일하는 지도일군들이 적지 않으며 생활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구상과 자기의 관점을 개선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지도일군들이 적지 않다. 관료화되고 제동기로, 장벽으로 된 지도일군들, 새로운 모든 시도들을 억제하는 지도일군들과 타협하여서는 안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경쟁과 선거의 방법을 적용하면 로동집단의 신임을 받는 능력있고 실무적이며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지도일군들과 전문가들을 선발하고 내세우는 우리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수 있을것이다.

높은 질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기구들에 대하여

객관적법칙들을 리용하여 질을 성과적으로 개선하려면 해당한 기구들을 마련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것은 당 중앙위원회 1월전원회의결정에 따라 대폭 개정한 경제기구규정을 적용하는것이다. 여기에서 타협과 동요는 있을수 없다.

다시한번 강조할것은 경제기구에서의 기본핵은 로동집단, 그 각이한 성원들, 지도기관들의 수입이 작업의 질과 그 결과와 결부되게 하는데 있다.

과학연구분야와 기술도입분야에서 그리고 기술도입기관과 생산기업소사이의 호상관계분야에서 현존하는 기구들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여야 한다. 여기에서도 기본으로 되는것은 높은 과학기술수준과 높은 질에 의하여 이룩된 과학적성과에 대하여 과학연구집단뿐아니라 생산자들과 소비자들도 더 많은 경제적, 물질적, 도덕적 리해관계를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계획화기구의 본질적개선도 필요하다. 질은 국가계획의 모든 고리들에 관통되여야 한다. 국가계획에서 량적장성은 높은 질에 기초하여야 한다. 계획은 예견한 량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먼저 그 제품들이 예견한 질적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수행된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기본이며 본질적인것이다.

조직기구들과 관리기구들은 당중앙위원회 1월전원회의결정에 따라 시급히 개선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그 기관들은 구조적으로 재편성되여야 하며 해당한 고리들의 기능과 활동범위들이 규정되여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것이 경제기관들과 기업소들 그리고 로동집단들의 사업의 질을 높이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관리의 질제고를 위한 전제로 된다고 인정한다.

지금 모든곳에서 계획, 기술공학, 계약, 로동, 재정 및 외화 규률을 강화하는것이 어떤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가 하는것을 설복할 필요는 없다. 규률을 강화함에 있어서 새로운 경제기구규정과 현행로동법에 규정되여있는 모든 경제적자극과 제재수단을 리용하여야 한다.

질을 위한 투쟁에서 법적기구들을 과소평가하거나 등한시하는 현상과는 결코 타협할수 없다. 계약의무를 철저히 리행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며 중재사건을 빨리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질문제와 관련하여 법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사이, 경제지도기관들과 개별적인 근로자들사이의 소송문제를 처리하는데서 공정한 립장을 취하여야 한다.

제품의 질에 대한 현행통제체계는 심각히 비판되고있으며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있다. 검열통제가 질을 높이기 위한 힘있고 효과적인 기구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기술수단을 리용하여 입고검사, 기술공정검사, 출고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생산물의 질에 대한 자체검사를 더욱 폭넓게 적용하며 수출품의 질에 대한 국가검사도 특별히 엄격하게 하고 질이 낮은 상품은 대외시장에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질에 대한 검사에서 주관주의적평가의 영향을 막기 위하여서는 질에 대한 통제에서 자동화수단들을 널리 리용하여야 한다.

질을 관리하는데서는 사회적관리와 국가적관리를 밀접히 결합하는 원칙에서 이룩된 경험을 적용하는것이 합리적일것이다. 구매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국가—사회적기관으로서의 질관리위원회들을 빨리 내오는것이 옳을것이다. 이 사업에는 생산자들만이 아니라 구매자인 기업소, 상업기관, 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이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질제고를 위한 당의 장기적인 강령

질제고를 위한 당의 장기적인 강령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려고 한다. 강령은 당중앙위원회와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토의하고 결정하도록 제기한 매우 중요한 문건이다.

장기적인 강령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무엇인가?

—강령은 질문제의 총괄적인 해결을 위한 경제적, 기술적, 기술공학적, 정치적 및 사상적 방향을 기본적으로 제기해준다.

—강령은 종합적인것이다. 왜냐 하면 재생산과정전반, 그 모든 측면과 요인들을 포괄하기때문이다.

—강령은 장기적인것이다. 왜냐 하면 제8차5개년계획기간말까지와 제9차5개년계획 전기간 그리고 일련의 분야에서는 2000년까지의 질제고를 위한 리정표를 제시하여주기때문이다.

—강령은 진취적인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과학기술적, 사회적 진보과정에 이룩된 최신성과들에 맞게 끊임없이 풍부화되며 근로자들의 사업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수단과 형태들로 보충되기때문이다.

—강령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 전체

인민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는것이다. 인적요인은 강령을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것으로 된다. 다시말하여 강령은 우리 나라에서 성숙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총전략의 불가분리적요소로 보아야 한다. 강령의 집행은 우리의 사회경제적발전을 다그치게 하며 대외무역관계와 과학기술 및 문화 관계에서 믿음직하고 존엄있는 대상자로서의 벌가리아인민공화국의 위신을 더욱더 높이고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회의가 끝나면 즉시 이르는곳마다에서 모두가 다 강령을 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실무적인 사업에 적극 달라붙는것이 필요하다.

질을 높이기 위한 당 및 사상 사업에 대하여

질문제의 전체 포괄적인 성격은 전체 인민들의 힘 그리고 사회적활동과 관리체계의 모든 고리들의 힘을 하나로 통일시킬것을 요구한다. 우리 정치체제하에서 이런 통일적이고 동원적이며 목적지향적인 힘은 다름아닌 벌가리아공산당이다.

바로 벌가리아공산당은 객관적인 사회경제법칙의 요구와 근로대중의 적극성사이의 련계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그렇기때문에 문제에 대한 경제적취급과 정치적취급의 통일을 보장하는것은 높은 질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과 그 조직들의 선차적이며 가장 본질적인 과업으로 된다.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가 만약 사람들의 물질적리해관계와 물질적책임성을 강화하는 경제기구들에 의거한다면 대중의 적극성을 높일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근로자들과 지도일군들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며 모든 활동을 민주주의적으로 통제하는데 필요한 정치사상적조건을 마련하는것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지금 직능들을 구분하는것과 함께 중앙과 지방의 경제기관들에 대한 당조직들의 정치적작용을 강화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당적인 영향과 방조, 검열은 무엇보다먼저 국가기관과 경제기관, 지도간부들의 사업태도와 사업방법, 사업기풍에 돌려져야 한다. 경제적공간들을 틀어쥐며 경제적방법과 경제기구들의 요구를 지키는것은 순 경제문제인것이 아니라 정치적책임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모든 경제 및 국가 지도일군들은 로동집단들의 권리와 리익을 인정하며 그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할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역시 정치적책임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알아야 할것은 우리가 거대한 개혁을 실시하는데서 얻은 결론 그리고 사회주의적소유자로서의 국가와 사회주의적소유의 주인으로서의 집단이 차지하는 위치로부터 오는 결론은 우리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로동집단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는것이다. 로동집단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견해는 질제고를 위한 투쟁에서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진다.

높은 질을 위한 투쟁에서 모든 공산주의자들, 모든 근로자들, 모든 지도일군들의 개인적책임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당조직들은 사업의 질을 평가하는데서 객관성을 견지하고 요구성을 높이며 비판적태도를 취하는데 필요한 심리도덕적분위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회적, 집단적, 개인적 관심성전체를 더욱 철저히 옹호하여야 하며 형식주의적이며 기술신비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행위를 폭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계획규률과 기술공학적규률, 재정규률과 로동규률을 위반하는것과 타협하며 그것을 철저히

제재하지 않고 외면하는 자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질에 대한 관심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이것은 질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치 및 사상 사업의 가장 깊고도 고무적인 구성요소이다. 높은 질을 위한 투쟁에 참가하는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실제적장성, 다시말하여 사상적, 정치적, 도덕적, 직업적 장성의 척도이다.

현국제정세에 대하여

국제형편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잘 알려져있다.

오늘 가장 침략적인 제국주의지배층들의 정책은 몇개의 기본전략적방향에서 실시되고있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력량관계를 사회주의에 불리하게 전변시키려고 미친듯이 군사적으로 무장하고있는것이며 상품과 기술의 판매분야에서 차별조치를 취하는것이며 자본주의나라들의 사회여론을 반쏘, 반공에로 오도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을 사상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와해시키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이다.

이 침략계층들은 군비경쟁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를 쇠퇴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저락시켜 개별적인 사회주의나라들 그리고 사회주의전체를 크게 약화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와르샤와조약성원국들은 력량관계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변화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열핵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에 국제공산주의운동들과 로동운동들, 블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 민족해방운동들, 세계 광범한 인민대중이 적극 참가하고있다. 평화력량은 전쟁력량보다 비할바없이 강대하다.

우리는 평화의 이름으로 력량관계를 제국주의에 유리하게, 전쟁에 유리하게 변화시키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평화의 이름으로 벌가리아인민공화국은 발칸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지역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발칸국가들의 정부들은 이 문제를 일정에 제기하였다. 그것은 전쟁세력에 대한 커다란 정치도덕적승리로 된다.

공산주의사상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십자군원정》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명백하다. 즉 사상분야에서는 타협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에게는 다른 립장이란 없으며 있을수도 없다.

우리들은 로동계급, 농업근로자들, 인테리들, 당, 사회 및 국가 기관들, 로동집단들이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당대표자회결정을 자기의 사활적인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실생활에 구현하는데 모든 힘과 지혜, 지식과 의지를 다 바치리라고 믿는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당의 장기적인 강령이 성과적으로 집행될 때 우리의 전반적위력은 강화될것이며 인류의 평화와 사회적진보,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당, 사회주의국가, 인민으로서의 우리의 민족적 및 국제적 의무는 영예롭게 수행되리라는것을 확신한다.

남조선에 범람하고있는 말세기적인 퇴페풍조

안 기 중

오늘 남조선에서는 말세기적인 퇴페풍조가 홍수처럼 범람하고있다.

민족문화와 고유한 미풍량속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미국식생활양식이 사회생활에서 건전한 모든것을 좀먹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식생활양식과 인간증오사상은 남조선에서 륜리와 도덕을 파괴하며 우리 인민의 유구한 민족문화와 아름다운 생활풍습을 짓밟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암흑과 타락이 남조선 전사회를 지배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499페지)

사회풍조는 해당 사회제도의 계급적 본질과 지배계급의 사상문화적시책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상태에 의하여 많이 좌우된다.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에 기초하고있으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패륜과 패덕, 부화방탕과 개인향락, 방종 등이 지배적인 사회풍조로 되고있다. 이러한 말세기적인 퇴페풍조는 오늘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극치를 이루고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의 건전한 사고력과 상상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저지를수 없는 치떨리는 무시무시한 범죄행위가 대낮에도 공공연히 감행되고있으며 짐승도 무색하여 낯을 돌릴 부화타락한 행위를 비롯하여 말세기적인 패륜패덕이 사회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만연되고있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 널리 류포되고있는 말세기적인 퇴페풍조는 식민지들에 그대로 옮겨질뿐아니라 더욱 우심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굴러떨어진 남조선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사회의 모든 물질적재부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략탈, 치부와 향락의 수단으로 되고있는 남조선은 가장 반동적이고 부패한 미국식생활양식의 전시장으로, 온갖 퇴페풍조가 란무하는 말세기적인 사회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범람하고있는 말세기적인 퇴페풍조는 무엇보다도 파쑈특권층들과 반동적착취계급의 부화방탕한 생활에서 드러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취업인구의 절대다수가 최저생활비의 절반도 안되는 낮은 로임과 소득으로 인간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하고있으며 해마다 1만 2,00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파쑈도당의 악정과 학정 밑에서 살래야 살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

그런데 한줌도 못되는 파쑈특권층놈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일신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던 나머지 인간과 동물과의 한계를 가를수 없으리만큼 광란적인 색정과 부화방탕한 생활로 허송세월을 하고있는것이다.

전두환도당은 일신의 향락과 치부를 위하여 착취와 수탈을 더욱 강화하여 인민들의 마지막푼전까지 악착하게 털어내고있을뿐아니라 온갖 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하여 막대한 재부를 긁어모으고있다.

이미 세상에 폭로된바와 같이 전두환도당은 제놈의 일가족속들과 심복들을 내세워 《3대은행부정사건》, 《의료부문부정사건》, 《건설회사부정사건》, 《리철

회, 장령자부부 어음사기사건》, 《명성그룹부정사건》, 《조은은행금융부정사건》 등 수많은 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하여 수억만금을 횡취하였다.

괴뢰우두머리인 전두환도당자신이 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하고있으니 그밑에 있는 괴뢰특권층놈들과 착취배들의 부정부패행위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는것이다.

전두환괴뢰도당과 특권층놈들은 온갖 사기와 협잡으로 인민들로부터 긁어낸 돈을 제놈들의 안일과 향락, 부화방탕한 생활에 마구 탕진해버리고있다.

괴뢰특권층놈들은 서울의 동빙고동, 성북동, 연희동, 장충동과 부산의 초읍동, 대연동, 온천장을 비롯한 경치좋은 곳들에 궁궐같은 집들을 지어놓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있다. 놈들은 이 집들에 두길도 넘는 담장을 쌓아놓고 그우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늘여놓고 있으며 이른바 《도적방지》를 위한 전자경보장치까지 설치하고있을뿐아니라 제놈들의 부화방탕한 생활에 알맞게 별의별 시설을 다 갖추고있다. 지어 《가정부》라는 명목밑에 전용기생들까지 7~8명씩이나 두고 밤낮을 주색으로 이어가고있다.

괴뢰특권층놈들과 착취배놈들은 이러한 부화방탕한 생활로도 성차지 않아 도처에 《비밀료정》과 《별장》들을 지어놓고 여기에 뻔질나게 드나들고있는것이다. 서울에만도 100여개가 넘는 《비밀료정》들에서 놈들은 술 한상에 로동자 한사람의 1년로임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돈을 뿌려가면서 처마시고있으며 온갖 추잡한짓을 다하고있다. 특히 괴뢰도당의 우두머리인 전두환역적의 부화방탕한 생활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출판물까지도 《전두환은 일본에서 맞아들인 정계인물들을 밤마다 특수비밀료정에 끌고가서 〈토비행〉이라는 패망한 구일본군가까지 부르며 기생들과 추잡한짓을 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놈들이 어느 정도로 썩어빠진 생활에 환장이 되여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은 저들이 죽어서 들어갈 《호화무덤》을 앞을 다투어 만들고있는데서도 그 일단을 볼수 있다. 한 매판자본가놈은 경기도 고양군에 3억원이란 비용을 들여 둘레만 하여도 70메터나 되는 봉분을 만들고 그앞뒤에는 800여평의 련못과 별장, 꽃사슴목장을 꾸려놓았으며 무덤안에는 랭동시설까지 갖추어놓았다고 한다.

권력과 금권을 리용하여 사회적재부를 마구 탕진하며 인간의 건전한 리성과 도덕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이러한 썩어빠진 생활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사회에서만 볼수 있는 말세기적인 퇴폐풍조이다.

남조선에서 범람하고있는 말세기적인 퇴폐풍조는 또한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인간증오에 물젖어 사기와 협잡, 살인과 강탈, 강간과 같은 각종 범죄행위가 수없이 빚어지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사람들을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그들의 생명재산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각종 범죄행위는 《황금만능》의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에 만연되고있는 사회악의 하나이다. 특히 민족의 배신이며 온갖 사회악의 근원인 전두환도당이 괴뢰정권을 타고앉은 이후 범죄행위는 더욱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자료에 의하더라도 1983년 한해동안에 일어난 범죄건수는 81만건이상으로서 1979년에 비하여 거의 2배에 이르고있다. 그중에서도 살인, 강도 등 이른바 《강력범》이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강력범》사건건수가 늘어나는것과 함께 그 수법도 더욱 흉포하여지고있다.

올해 3월 서울시 명곡동에서는 강도놈이 대낮에 어느 한 집에 뛰여들어 집주인들을 칼로 마구 찔러죽이고 금품들을 털어갔으며 성수동에서는 9살과 3살난 어린이들밖에 없는 집에 뛰여든 강도들이 어린 남매를 장농속에 가두어넣고 물건을 훔친 다음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고 한다.

이밖에도 남조선에서는 한 녀성이 보험금을 탐내여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독약을 탄 우유를 먹여 살해한 사건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제자를 유괴하여 돈을 요구하다가 죽여버린 사건을 비롯하여 치떨리는 살인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의 묵인하에 인신매매와 같은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도 드놓고 감행되고있다.

서울에 등지를 틀고있는 14명의 사기한들은 지난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500여명의 10대 소녀들을 일자리를 《알선》해준다고 속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주 등지에 있는 사창가와 술집들에 1인당 25만~40만원씩 받고 팔아넘기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 남조선이 세계적인 범죄의 왕국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에 범람하고있는 말세기적인 퇴폐풍조는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양풍과 왜색에 물젖어 정신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되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5천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계승되여오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이 남조선에서는 양풍과 왜색에 의하여 흐려지고있다. 아름답고 문화성이 높은 조선말보다도 영어와 일본어가 득세하고있다. 일반언어로부터 전문용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상표, 광고, 간판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외래어가 판을 치고있다. 따라서 고유조선말이 외래어에 밀려나 언어생활에서 토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있는 한심한 형편이다. 대중가요와 무용을 비롯한 문화예술도, 몸단장과 옷차림, 례의범절 등 생활양식이 모두 미국식, 일본식으로 바뀌여지고있다. 술집과 춤집, 유흥장들에서는 퇴폐적이고 음탕한 춤과 노래들이 흘러나와 사회환경을 더욱 더 어지럽히고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을 타락에로 이끌어가고있다.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되여가고있는가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출생한 아이들의 산모의 38%가 10대의 소녀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잘 알수 있는것이다.

수십만의 젊은 녀성들이 륜락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남조선에서는 40여만의 녀성들이 《위안부》, 《접대부》라는 명목밑에 미제침략군과 일본의 호색광들, 괴뢰특권층놈들과 반동적착취계급들의 노리개로 온갖 민족적 멸시와 모욕, 천대 속에서 시들어가고있는것이다.

실로 남조선에서의 이러한 부화방탕한 퇴폐풍조는 사회생활의 모든것을 여지없이 좀먹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널리 부식되고있는 말세기적인 퇴폐풍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정책의 직접적산물이다.

남조선에서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있는 미제는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실존주의와 실용주의를 비롯한 가장 반동적인 부르죠아인간철학들을 남조선에 침투시켰으며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을 부식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의 기지방송, 《기지촌》에서의 미제의 《치외법권적》인 생활은 퇴폐적인 사회풍조를 퍼뜨리는 온상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력대사대매국노들이 실시하고있는 민족문화말살정책과 외래문화도입정책은 남조선에서 말세기적인 퇴폐풍조를 더욱 조장시키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미제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문화시책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에서 부식되고있는 퇴폐풍조는 결코 근절될수 없다.

오직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전두환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를 쓸어버릴 때만이 퇴폐풍조를 가실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을 되살릴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밑에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괴뢰도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반대하는 현대부르죠아경제리론

김 수 용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이 집요하게 퍼뜨리고있는 온갖 반동적사상조류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는 새로운 국제경제관계를 세우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고 합리화해보려고 부르죠아어용경제리론들을 수많이 조작하여 신식민주의적 침략과 략탈의 사상적도구로 리용하고있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반대하는 부르죠아반동리론은 낡은 식민지체계의 붕괴와 신식민주의정책을 사회력사적배경으로 하여 조작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미제국주의는 〈후진국공동개발〉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원조〉정책을 해외팽창의 중요한 도구로 삼고있으며 이른바 〈원조〉를 통하여 독점자본의 해외침투의 길을 개척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4권, 166페지)

제2차세계대전후 식민지체계가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반제자주력량이 날로 장성강화되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에 의거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을 계속 착취하고 예속시키는 신식민주의정책에 매여달리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교활한 신식민주의정책을 비호하기 위한 변호론을 요구하였으며 반동적인 부르죠아어용경제학자들은 그 요구에 따라 《후진국개발론》을 조작하였다.

발전도상나라들과 같은 《후진국》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원조》를 받아야만 나라를 발전시킬수 있다는 《후진국개발론》이 발전도상나라들의 배격을 받게 되자 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남북경제론》을 조작해내였다.

《남》의 발전도상나라들은 《북》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남북경제론》도 인차 그 허위성과 기만성이 드러나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어용경제학자들은 지금 《후진국개발론》과 《남북경제론》을 더욱 개악보충한 형형색색의 반동리론들을 또다시 조작하여 저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을 미화분식하고있다. 그리고 발전도상나라들의 국제경제관계문제에 관한 반동리론을 집요하게 퍼뜨리고있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반대하는 현대부르죠아경제리론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그러나 이 반동리론들은 모두 발전도상나라들을 제국주의의 낡은 국제경제 체계와 질서에 더욱 얽매여놓고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는것을 합리화하며 새로운 국제경제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을 가로막으려는 반동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반대하는 현대부르죠아경제리론에서 대표적인것은 《생산요인론》과 《비교우월성론》이다.

이 《리론》들은 본질상 같은것으로서 매개 나라들이 가지고있는 토지, 자본, 로동력 등 《생산요인》의 차이에 따라 생산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만큼 생산비가 적게 드는 수출상품생산을 전문화하여야 한다는 궤변으로 가득차있

다. 그것은 미국의 반동적인 경제학자 흐. 치에르가 《원료생산에서 항시적으로 비교우월성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은 사회생산물생산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을 증대시키지 않고도 높은 소득수준을 이룩》할수 있다고 떠벌이고있는 사실이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이 《리론》의 주장자들은 연료와 원료의 생산은 그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전문화하고 자본이 많이 드는 현대적공업은 자본이 풍부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전문화하여야 한다고 설교하고있다.

이러한 부르죠아경제리론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도 발전도상나라들을 영원히 제국주의의 원료공급지대로 만들고 신식민주의적착취를 계속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는데 있다.

매개 나라가 처한 자연지리적조건과 경제발전의 력사적특성으로부터 나라들사이의 경제적련계와 국제분업은 불가피한것이다.

그러나 국제분업은 매개 나라의 경제발전의 수준과 요구, 자연부원의 개발정도에 따라 부단히 변화발전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요인론》과 《비교우월성론》의 주장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일정한 종류의 원료와 연료만을 생산하거나 품이 많이 드는 제품의 생산만을 전문화하여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이러한 국제분업은 발전도상나라들을 제국주의의 농업 및 공업 원료의 공급지로 전환시키려는 철두철미 략탈적인 국제분업인것이다.

《생산요인론》과 《비교우월성론》은 결국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분업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거기에 발전도상나라들을 얽매여놓음으로써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강도적론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편파적이며 략탈적인 자본주의적국제분업체계를 마스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국제분업체계를 세우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요구를 합리화하는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자주적인 새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현실은 낡은 식민지적국제분업체계를 유지하려는 《생산요인론》과 《비교우월성론》이 허황한 환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생산요인론》과 《비교우월성론》의 반동성은 또한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적자립과 공업화를 반대하고 이른바 무역의 《자유화》와 자본수출을 통한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을 합리화하고있는데 있다.

이 《리론》의 주장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이 현대적공업을 창설하고 최신기술들을 도입한다면 실업자를 대대적으로 증대시킬수 있기때문에 공업화와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페기하여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이자들은 또한 발전도상나라들이 관세를 페지하고 무역을 《자유화》하여야 매개 나라들이 가지고있는 토지와 로동력,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모든 나라들의 경제형편을 《평등》하게 만들수 있다고 떠들고있다.

현시기 발전도상나라들이 실시하고있는 공업화와 보호무역정책들은 본질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침투와 략탈을 반대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려는 이 나라들의 자주적 립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생산요인론》과 《비교우월성론》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이러한 정당하고 진보적인 정책과 조치들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 상품수출과 자본침투를 통한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을 교활하게 가리우기 위한것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이 공업화를 하지 말고 《생산비가 낮은》 원료생산을 전문화하여야 한다는 부르죠아경제학자들의 《론리》는 리론적으로 부당할뿐아니라 실천적으로 반동적인것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이 현대적공업을 창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르죠아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세계시장에서 공업완제품에 대한 독점적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비호하기 위한것이다.

그리고 발전도상나라들이 생산하는 원료상품의 생산비가 낮다는 《리론》은 《자유무역》과 부등가교환을 통한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을 가리우기 위한것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생산하는 연료와 원료의 국제시장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것은 결코 자연지리적조건의 《유리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이 그것을 인위적으로 실제적생산비보다 낮추고있기때문이다. 자료에 의하면 자본주의시장에서 원료상품가격은 1982년에 1981년에 비하여 5.5% 떨어졌으며 1983년에는 그 전해에 비하여 또다시 8.3%나 낮아졌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원료생산의 《유리성》에 관한 부르죠아경제리론의 허위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반동적인 《생산요인론》과 《비교우월성론》은 전적으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해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책동을 극력 합리화하고있는 부르죠아어용경제리론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반대하는 현대부르죠아경제리론의 다른 하나는 《수출주도형경제발전론》과 《외부자극론》이다.

이 《리론》은 악명높은 《경제성장단계론》의 주장자인 미국의 반동경제학자 로스토우를 비롯한 부르죠아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제창되고있다.

이른바 《수출주도형경제발전론》이란 발전도상나라들이 수출품생산부문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를 발전시켜야 락후성과 빈곤을 빨리 청산하고 발전된 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설수 있다는 반동적리론이다.

이 《리론》의 주장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의 자립적인 공업건설은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대외수지의 위기를 조장시키기때문에 《전망》이 없으며 오직 《수출을 목표로 하는 생산》만이 《든든한 전망》이 있다고 줴치고있다.

이 《리론》의 반동적본질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백방으로 방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도구로 복무하고있다는데 있다.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다방면적인 경제구조를 갖추는것은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이로부터 발전도상나라들은 수입에 의존하고있던 제품들을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공업을 건설하는 기본목적은 국내시장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려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자본주의세계의 시장을 장악하고있는 조건에서 발전도상나라들에서의 《수출주도형경제발전》이란 결국 이 나라들이 한두가지의 전통적인 수출품생산만을 전문화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만약 발전도상나라들이 《수출주도형경제발전론》에 추종한다면 식량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쌓는것과 같은 절박하고도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수 없는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들의 경제는 제국주의나라들이 가격결정기구를 틀어쥐고있는 자본주의시장에 더욱더 얽매이게 되고 부등가교환에 의한 착취와 략탈을 계속 당하게 될것이다.

지금 《수출주도형경제발전》정책을 실시하고있는 일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대외채무가 계속 늘어나고있는것은 그것을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어떤 발전도상나라들은 무려 600억~800억딸라의 대외채무를 걸머지고있다.

이처럼 《수출주도형경제발전론》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를 기형화하고 착취와 략탈의 대상으로 만들게 하려는 교활한 반동리론인것이다.

반동적인 현대부르죠아경제학자들이 내놓고있는 《외부적자극론》도 역시 제

국주의나라들의 자본과 상품의 침투와 같은 《외부적자극》을 받아야만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 허황하고 강도적인 《리론》이다.

이 《리론》의 주장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경제발전이 지체되고있는 주요요인은 《기업정신의 결여》와 《기업가의 부족》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오직 《외부자극》에 의해서만 없앨수 있다고 떠벌이고있다. 그자들은 또한 《외부자극》이야말로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의 《락후성의 악순환》을 없애고 《자립적성장》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도라고 설교하고있다.

이 《리론》은 결코 새로운것이 아니다. 그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자체로 자본축적을 보장할수 없는만큼 《외자를 도입》하여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떠벌이던 《후진국개발론》의 재판에 불과한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이러한 궤변을 또다시 퍼뜨리는 목적은 《원조》의 간판밑에 발전도상나라들에 자본과 상품을 침투시키는것을 합리화하며 신식민주의적 종속관계와 착취관계를 계속 유지해보려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실제상 발전도상나라들을 예속시키는 올가미로 되고있다. 그것은 또한 발전도상나라들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자본, 상품침투와 같은 《외부적자극》을 받아야 한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를 더 많이 받아들이며 자본과 상품을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는 파렴치한 론리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부르죠아어용경제학자들이 떠벌이고 있는 이러한 《외부적자극론》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자립적성장》을 담보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적예속을 더욱 강화하게 한다는것이 명백하다. 이 《리론》은 결국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를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자본, 상품에 철저히 얽매이게 하는 완전히 기형적이고 예속적인 경제로 전락시키기 위한것이다. 그것은 또한 발전도상나라들에 자본주의를 부식시키고 자립적민족경제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반동적인 부르죠아어용경제리론에 불과한것이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반대하는 현대부르죠아리론에서 대표적인것은 또한 《세계경제체제창설론》과 《국제경제통합론》을 들수 있다.

이 《리론》은 《로마구락부》에 속한 부르죠아경제학자들이 조작해낸것이다.

이 《리론》의 주장자들은 그 어떤 《초민족적인 국가》나 《국제기구》에 의하여 《조종》되는 《세계적인 단일경제체계》를 창설하여 국가들사이의 모순을 《청산》하고 《세계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현시기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령》이라고 내세우고있는 이 《리론》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공공연하게 합리화하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를 파렴치하게 강요하고있는 극악한 반동리론이다.

이 《리론》의 주장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인류의 공동재산》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체 인류가 관할》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인 계획화를 실현하고 관리체계》를 창설하여야 한다고 줴치고있다.

미국의 반동적인 경제학자 엘. 브라운은 《민족적자주권은 종종 경제적적극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세계적규모에서의 기술보급과 인류의 보다 높은 생활수준의 달성을 방해》하고있다고 지껄이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풍부한 자연부원은 이 나라 인민들의 귀중한 재부이며 새 사회 건설의 튼튼한 밑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죠아어용경제

학자들은 그것을 이 나라 인민들의 재부가 아니라 인류의 《공동재산》이라는 가소로운 궤변을 늘어놓고있는것이다.

지금 발전도상나라들은 지난날 제국주의독점체들이 강탈하였던 재산을 국유화하고 원료와 연료의 가격을 올리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자원략탈책동을 반대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이러한 자주적인 조치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고있다.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부르죠아어용경제학자들을 부추겨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연부원은 매개 나라들의 자원이 아니라 《인류의 공동재산》이며 그것은 마땅히 《국제적인 전문기구》에 의하여 《공동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철면피한 《리론》을 조작해내게 하고있다. 그것은 현대부르죠아경제리론이 위기에 처한 제국주의자들의 운명을 구원해보려고 얼마나 파렴치하게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세계경제체계창설론》과 《국제경제통합론》은 철두철미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에 대한 영구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제국주의자들의 자원략탈행위를 합리화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주의적인 《초민족국가》를 창설하고 그에 의하여 경제문제에 관한 국가들사이의 모순을 《청산》할데 대한 설교도 허황하기 짝이 없다.

나라와 민족이 엄연하게 존재하며 민족국가단위로 혁명과 건설이 벌어지고 민족적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조건에서 민족을 떠난 국가, 《세계정부》란 있을수 없다. 더우기 발전도상나라들과 제국주의자들사이의 대립과 모순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행위로 말미암아 력사적으로 형성되였을뿐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 첨예화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초민족적인 국가》나 국제기구가 《조종》하는 《세계의 단일경제체계》를 창설하여야 한다는 부르죠아경제리론은 결국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낡은 국제경제관계를 유지강화하고 발전도상나라들을 또다시 식민지로 만들어보려는 음흉하고 교활한 설교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어용경제학자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그 어떤 궤변을 조작해낸다 하여도 새로운 국제경제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수는 없다.

력사적경험은 죽어가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책동을 변호해나서는 부르죠아어용경제리론은 례외없이 반동적일뿐아니라 파산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사상적공세를 짓부시고 자주적이고 평등한 국제경제관계가 지배하는 자주화된 세계를 세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근 로 자 1984년 제7호(루계 507호)

편 집 위 원 회

편집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84년 7월 1일 발 행 • 1984년 7월 3일

ㄱ—45184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평 양 근로자사 1984

근로자

제 8 호(50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당의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계급의 당의 위대성, 그것은 지도사상의 위대성이다. 위대한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당만이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을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을수 있다.

우리 당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 혁명적당이다. 세기에 빛나는 우리 당의 력사는 당이 이룩한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으로 하여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시대와 혁명을 향도하는 위대한 사상은 탁월한 수령, 현명한 지도자의 심오한 사상리론활동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활동의 사상리론적총화이다.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것은 우리 당의 지상의 과업이며 당사상리론활동의 근본출발점이다. 우리 당은 주체위업을 중심에 놓고 사상리론활동을 벌리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완성하는데 모든것을 귀착시키고있다.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사상리론활동은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고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의도와 구상이 가장 폭넓고 깊이있게 담겨져있으며 주체의 숨결, 충성의 맥박이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실로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단계에서의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인것이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또한 주체의 사상리론활동의 빛나는 결실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활동을 벌려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19폐지)

주체사상은 우리 당 활동의 지침이며 당사상리론의 근본초석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모든 사상리론을 밝히시였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철저히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여있으며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구성체계에 따라 전개되고 체계화되여있다.

주체적인 립장과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우리 당 사상리론활동의 일관한 요구이다. 우리 당은 사상리론활동에서 이 요구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시대의 지향과 인민대중의 념원을 옳게 반영하며 우리 혁명의 리익과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는 참다운 사상과 리론을 내놓을수 있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위대한 령도로 하여 우리 인민은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공식에도 구애됨이 없이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고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주체성, 창조성으로 특징지어지고 그것으로 일관된 위대한 사상이다.

탁월한 령도자의 위대한 사상리론활동은 전진하는 시대와 더불어 영원히 빛나는 사상리론적재부를 마련한다.

우리 당 사상리론은 무엇보다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시기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집대성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혁명의 지도사상은 력사와 함께 전진한다. 변천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상만이 인민대중을 향도하는 참다운 사상적무기로 될수 있다.

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의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고수되고 세대에 세대를 이어 심화발전한다.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은 심오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위업을 완성하며 인민들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갈수 있는 고귀한 사상리론들을 마련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많은 력사적문헌들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관한 새로운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개척과 그 발전완성과정 그리고 공산주의사회의 면모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로정을 더욱 뚜렷이 하시였다. 우리 당이 천명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리론에 의하여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와 그 실현방도가 명확히 밝혀졌으며 주체적인 문예리론, 주체의 국가건설리론, 경제건설리론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의 리론들이 더욱 풍부화되였다. 그리하여 사람도 사회도 자연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이야말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시기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의 지도적지침이며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담보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우리 당 사상리론은 또한 정연한 사상리론체계를 이루는 혁명의 지도사상인것으로 하여 그 위대성을 빛내이고 있다.

새로운 사상리론을 가설하고 그것을 정연하게 체계화하여 대중의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시대사조로 되게 하는것은 인류문명사에 이름을 남기는 탁월한 사상리론가들의 업적가운데서도 자랑 빛나는것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이 정연한 사상리론체계를 갖춘 참다운 혁명의 지도사상이라는것을 밝히시였으며 독창적인 원리와 명제, 심오한 정식화들로 주체사상의 내용들을 풍부화하시였다. 그리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관한 사상을 축으로 하여 주체의 혁명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당건설력사와 당의 혁명적성격에 맞게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사상과 리론, 방법을 하나의 체계로 정연하게 결합시키고있는것으로 하여 그처럼 위대하며 불멸한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혁명의 전진과정을 힘있게 다그치고 조국땅우에 륭성과 번영의 청춘기를 펼쳐주는 사상정신적재부로 되고있는것은 또한 우리 당 사상리론의 위대성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혁명실천의 지침이며 그 위대성은 혁명위업수행에서 노는 변혁적역할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 당은 반세기가 넘는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의 합법칙적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되여온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의 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인민은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어렵고 복잡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비상히 멀리 전진하였다.

당의 사상리론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생활기풍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 땅우에는 민족적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념원이 훌륭히 실현되고있다. 이 로정에서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발전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지게 되였다.

생활은 우리 당의 사상리론이 혁명실천의 참다운 지침이며 거대한 생활력을 가진 위대한 사상이라는것을 남김없이 확증하고있다.

위대한 사상리론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에 의하여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된다. 우리 당은 심오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주체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적력량이다.

우리 당이 지닌 령도적권위는 당이 쌓은 혁명업적, 무엇보다도 사상리론적업적의 위대성으로부터 오는 권위이다.

불패의 위력을 지닌 위대한 당의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것은 우리의 숭고한 의무이며 최상의 영광이다.

오늘 당의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굳임없이 공고히 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과업이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는것은 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킬수 있는 터전을 닦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하는것을 언제나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왔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력사적인 투쟁과정에 당안에는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킬수 있는 지도체제가 튼튼히 섰으며 우리 당은 사상성과 조직성에서 불패의 전투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 이것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력사적행정에서 이룩한 고귀한 전취물이며 우리 민족사의 창창한 전도를 담보하는 근본원천으로 된다.

이미 마련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굳임없이 공고히 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전진하는 혁명의 요구에 맞게 이 문제를 더욱 빛나게 해결하여야 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나갈수 있으며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축성된 오늘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것은 우리 당 사업과 당 활동에서 나서는 가장 선차적이며 원칙적인 요구로 된다. 이 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을 당의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당의 사상적유일성, 령도의 유일성은 당의 공고성을 규정하는 근본징표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전위조직으로서의 당의 기본면모이다.

당의 사상리론으로 무장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의 사상적유일성을 대를 이어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이다. 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우와 같은 문헌, 21페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력사적위업이다. 이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하자면 당의 사상적유

일성을 대를 이어 보장하는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을 당의 사상리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빛내이기 위한 불멸의 사상이다. 당의 사상과 리론, 로선과 정책에는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주어져있다. 그리고 당의 사상리론에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활동의 위대성, 그 과정에 이룩된 업적의 숭고성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당의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전체 당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영원히 우리 당을 받들어나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닐수 있다.

당의 사상리론으로 무장하는 여기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상의 유일성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며 전당이 철저히 하나의 사상의지로 숨쉬고 움직이는 산 유기체로 강화발전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당의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또한 당의 조직적결속,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단결은 그 중심을 보장하는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만 불패의것으로 될수 있다.

당의 통일단결의 중심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이다. 당이 조직적결속의 중심, 통일단결의 중심을 내세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피코 쓰라린 진통을 겪게 된다.

조직적결속의 중심을 내세우는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전력사적기간에 언제나 나서는 가장 원칙적인 문제로 된다. 비록 지난날에는 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해왔다 하더라도 대를 이어 계승되는 혁명투쟁에서 통일단결의 중심을 내세우는 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한 당은 조직적결속의 전통, 통일단결의 전통을 고수하고 이어나갈수 없게 된다.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단결,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고있는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한 혁명적당이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뭉친 전당의 통일단결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고수되고 불패의것으로 다져지며 당안에 확립된 조직규률이 당원대중의 자각적이며 의식적인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당원들이 당의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당과 수령의 사상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수령의 사상으로 숨쉬고 당의 의지로 움직이며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량식이다. 당의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우리 혁명의 앞길에 어떤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드팀없이 높이 받들고 그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사상의지적단합을 실현한 당만이 조직사상적기초의 위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는것이다.

이처럼 당의 사상리론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공고히 하고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내용으로,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결속된 우리 당의 자랑찬 면모를 더욱더 빛내이기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으로 된다.

전당이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여기에 당의 기초를 그 어떤 광란에도 드놀지 않는 불패의것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당의 령도를 영원히 억센 지반우에서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믿음

적한 담보가 있다.

당의 사상리론으로 무장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 력사적계승성을 깊이 인식하는것이다.

새로운 사상과 리론들은 그 어느것이나 선행한 사상리론과의 계승적련관속에서만 창조되고 발전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사상은 당에 의하여 구현되고 계승되며 당의 사상리론은 수령의 사상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지도사상으로 빛내이게 한다.

우리 당의 모든 사상과 리론, 로선과 방침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전개하고 구체화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며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더불어 영원히 승리하는 불멸의 사상이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있는 탁월한 사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사상리론의 계승성문제는 선행리론의 단순한 반복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그 창조적 발전을 전제로 하고있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현실이 제기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독창적인 해답을 줌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고있다.

우리 당 사상리론의 고유한 력사적지위와 풍부한 내용, 사상리론의 사명의 숭고성을 옳게 파악할 때 당의 사상리론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으로 무장하는 사업을 의식적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우리 당 사상리론의 진수와 기본내용들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시키는데 모를 박고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당의 사상과 리론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에서 형식주의는 절대적 금물이다. 사상교양사업에서 형식주의보다 더 해로운것은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인 로작과 교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학습과 당정책학습을 꾸준히 그리고 실속있게 함으로써 그에 정통하며 당의 사상리론을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전사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할수 있으며 모든 사업을 신심을 가지고 힘있게 전개해나갈수 있다.

당의 사상리론으로 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그것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것이다. 사상리론의 심오성과 다방면성은 그 진리성과 위대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은 비상히 심오하고 끝없이 풍부하다. 그것은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 행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새롭게 해답을 주는 전면적으로 체계화된 과학적인 혁명사상이다.

당조직들은 당의 사상리론의 과학성과 심오성을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진리성을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생활의 참다운 지침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에는 자연과 사회의 운동법칙과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군사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한 정책과 방침들이 다 담겨져있다. 당의 사상과 리론, 로선과 정책은 력사적계승성을 가지며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제시된 사상과 리론, 로선과 정책

들을 력사적으로 깊이 연구하며 혁명과 건설의 어느 한 부문만 아니라 모든 부문의 사상리론들을 폭넓게 학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전면적으로 심오히 체득할수 있고 모든 사업을 당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드팀없이 조직전개해나갈수 있다.

당의 사상리론으로 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연구체득하는것이다.

모든 사상리론은 실천의 반영이며 그 경험의 리론적일반화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은 그것이 혁명실천에 대한 지침으로 된다는데 있다.

우리 당은 일관하게 혁명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상리론활동을 벌리고있으며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우리 당 사상리론활동의 출발점으로 되고있는 혁명실천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끝까지 계승완성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투쟁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거창한 투쟁은 지금까지 예견할수 없었던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줌으로써 조선혁명의 리익과 구체적실정에 맞는 사상과 리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전면적으로 확립할수 있었다.

당조직들은 당의 사상리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철두철미 혁명투쟁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인 오늘 실천을 떠난 사상교양사업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 당의 사상리론으로 무장하는 사업이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진리성, 과학성과 혁명성, 불패의 생활력을 산 현실을 통하여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수 있다.

또한 당의 사상과 리론, 로선과 정책이 실제적으로 구현되고있는 산 현실을 깊이 료해체득한데 기초하여 사상리론학습을 심화시켜야 그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

당의 사상리론으로 무장하는 사업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대를 이어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매우 책임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을 적극 다그쳐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사상리론으로 무장하는것이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선결조건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당의 사상리론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드는데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할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령도

서 윤 석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걸어온 우리 당은 1970년대에 위대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됨으로써 당의 면모가 새로와졌으며 우리 당의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펼쳐지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1974년 8월 2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강령적문헌을 발표하신것은 우리 당사업발전에서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문헌은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높여 주체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문헌이 발표된후 지난 10년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실로 위대한 전진이 이룩되고 불멸의 업적이 쌓아진 자랑찬 년대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당사업에서 일어난 획기적인 전환은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 *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과 당사업에 관한 사상리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과 혁명 발전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선결조건으로서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16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이다. 당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로선과 정책이 제시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이 조직되고 령도된다.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전진하는 시대와 발전하는 혁명의 요구에 맞게 굽임없이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과 기능을 높여야 한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은 1970년대에 이르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이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폭넓고 심각한 혁명이며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면서 공산주의미래에로 나아가는 길을 새롭게 개척하는 류례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심장이며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추진력인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여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확고한 결심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적당건설에 관한 사상리론과 방침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였다.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방침을 밝힌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당의 위대한 강령이며 당사업의 총적임무이다. 당이 이 숭고한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사상과 방침이 제시되여야 한다. 그래야 뚜렷한 목표와 방도를 가지고 당을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나갈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을 건설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당을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총적목표와 근본방도를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이다. 당건설의 총적목표와 근본방도가 옳바로 밝혀져야 당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력사적사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전당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함으로써 당을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총적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근본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당을 영원히 그 창건자이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간다는것이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대대손손 관철하여나가시려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 구현되여있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빛내이며 당사업의 총적임무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우리 당 건설의 근본문제이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야 우리 당을 완전무결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만들수 있다. 또한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사업을 옳게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공산주의사회,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된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령도해나갈수 있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방침은 우리 당의 혁명적본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당건설사상이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그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올바른 길을 밝혀준 위대한 당건설강령이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건

설강령이 제시된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다.

김정일동지께서 언제나 주체사상을 사고와 실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으시고 혁명실천의 요구와 혁명운동의 경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심으로써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건설하는 길이 더욱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이것은 김정일동지께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리론발전과 공산주의위업수행에 이바지한 크나큰 공적으로 되며 우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조직령도한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 력사적위업이다. 따라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주체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키고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고 강화발전되며 수령께 충실한 지도자에 의하여 당의 혁명적성격이 고수되고 그 면모가 완성되여나간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하는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규정하고 모든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주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켜나가자면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확고한 목표와 방향, 기준을 가지고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원칙들이 밝혀져야 한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원칙적문제들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규정하고 이와 밀접히 결부하여 당의 유일적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적요구들을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이 제시됨으로써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의 기본과 중심을 뚜렷이 밝히고 그것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준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모든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귀착된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신조이다.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충성다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는데 기본을 두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고나갔다.

인간개조에서 기본은 사상개조이다. 우리 당은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는 중요한 열쇠를 사상사업에서 찾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유일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사업을 폭넓고 깊이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당원들이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강한 조직생활을 통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실천투쟁속에서 혁명화를 다그치도록 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

게 충성다하는 열렬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이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혁명선렬들의 충실성을 구감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한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구호밑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항일혁명선렬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이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전개되고 《조선의 별》을 비롯한 혁명영화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이 참신하게 벌어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인간개조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혁, 차광수와 같은 불굴의 혁명전사들로 키우기 위한 비상히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세련된 조직력과 혁명적전개력으로 그것을 실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위대성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당의 통일단결은 당의 생명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전체 당원들이 어떻게 결속되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고 벌려나갔으며 당의 통일단결이 철두철미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및 도덕의리적인 단결로 되도록 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모든 당원들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상의지적인 순결체,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여 뭉쳐진 충성의 결정체로 되였다. 이와 같이 필승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려놓은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업적으로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당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전당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다그쳐지고 우리 당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게 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체제가 튼튼히 서게 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옳바로 밝히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끌어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결정적요인으로,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형식주의의 낡은 틀과 재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마스고 당사업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전투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조직령도한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정치사업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그것은 또한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전혀 생소한 사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낡은 틀과 재래식방법을 없애고 당사업을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특히 지난 기간 우리 혁명대오안에 끼여들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부식하여놓은 형식주의의 낡은 틀과 재래식사업방법이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당사업전반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던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마스고 당사업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려나가지 않고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없었으며 우리 당을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없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당사업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을 당사업을 참신하고 혁명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로 제기하고 전당에 정연한 사업체계를 확립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

었다.

당사업체계는 당사업과 당활동을 조직하고 진행하는 형식이며 질서이다.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언제나 중요하게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당사업체계를 확립하는데서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가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우는데 선차적힘을 넣었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제때에 정확히 침투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웠으며 전당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혁명적인 질서와 규률을 확립하였다. 이것은 당안에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이 지배하고 우리의 당사업을 패기있고 전투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당사업에서 행정화, 실무화를 막고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조직들의 전투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였다. 특히 각급 당위원회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정연한 하부지도체계를 세워준것은 우리 당이 당사업을 새롭게 혁신하게 한 현명한 조치였다. 이것은 우리 일군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사무실에 앉아 문서놀음이나 하고 지시나 하던 낡은 틀에서 벗어나 당의 로선과 정책이 집행되는 아래에 더 접근할수 있게 하는데서 커다란 은을 나타내고있다. 이리하여 웃단위로부터 아래단위로 내려가면서 사람과의 사업대상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 백사람이 천사람을 교양하고 움직이게 함으로써 당조직들이 보다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산 조직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그것은 또한 빨리 발전하는 현실에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따라세우고 중앙집권적지도와 민주주의를 가장 밀접히 결합시키며 하부지도에서 과학성과 현실성을 옳게 보장할수 있게 한 요인으로 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당에 정연한 사업체계가 세워짐으로써 당의 구상과 의도가 대중속에 신속정확히 전달침투되고 광범한 대중의 요구가 제때에 당중앙위원회에 집중되고있으며 전당이 당중앙의 의사에 따라 하나로 같이 움직이고있다. 바로 여기에 전당에 정연한 사업체계를 확립한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이 있으며 불멸의 업적이 있다.

우리 당은 또한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 문제를 당사업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제기하고 전당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그들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주체의 사업방법이며 당사업과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확립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는 우리 당을 지도사상에서뿐아니라 지도방법에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대로 건설해나가려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우리 당은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여러 문헌들에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혁명적방침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세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일데 대한 문제,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릴데 대한 문제, 방법론을 옳게 세울데 대한 문제 등 우리 당이 내놓은 모든 문제들은 우리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게 하는 지침으로 되였다. 특히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사를 깊이 체득하며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열네번째 겨울》,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들을 창작하여 영화의 주인공들을 따라배울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효투쟁을 광범히 벌리도록 한것은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따라배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오래동안 내려오던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이 극복되고 일군들속에서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방법으로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당사업과 당활동이 전투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전당에 혁명적기백이 약동하게 된것은 정연한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우리 당중앙의 령도의 위대성과 정당성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는데서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 결과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는것은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며 당의 불패성과 혁명의 전도는 중요하게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의 공고성에 달려있다.

당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우리 당대렬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는 참다운 혁명가들의 대오로 더욱 굳게 결속되게 되였다. 이 대오안에는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가려는 혁명적 신념과 의지만이 차넘치고있다. 바로 이러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수백만 당원들이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있기에 우리 당의 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여나가고있는것이다.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당이 강화되고 그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진 결과 1970년대에는 사람들을 경탄시킨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였고 1980년대에는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그리하여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교육과 문학예술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과학기술이 새로운 높이에서 발전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일찌기 없었던 일대 륭성과 번영의 대전성기에 들어섰다.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는 당의 사상과 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

리 영 대

우리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로부터 시작된 조선혁명은 1970년대에 이르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인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1974년 8월 2일에 발표하신 문헌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당과 혁명대오를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로 튼튼히 꾸릴데 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적극적인 조치에 의하여 당대렬이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튼튼히 꾸려지고 당의 대중적지반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졌다. 그리하여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근본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이것은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방침이 제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10년동안 우리 당사업에서 이룩된 주되는 성과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심각한 변혁과 거창한 창조를 동반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혁명의 정치적력량을 준비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어야 한다. 혁명의 정치적력량은 당을 강화하고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마련된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는 전략과 전술이 작성되고 로선과 정책이 제시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이 조직되고 령도된다.

주체혁명위업의 향도자인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화하는 한편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대렬의 량적장성과 질적공고화를 실현하고 광범한 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워야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일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화하며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당과 혁명대오를 꾸리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이 근로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전투력이 강한 부대로 되려면 당을 이루고있는 매개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사상수준과 기술실무적자질을 높이고 그들의 조직지휘능력과 선봉적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전투력과 위력은 또한 그 대중

적지반의 공고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당은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혁명대오에 묶어세워야만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할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지난 기간 우리 혁명은 참으로 간고하고 시련에 찬 길을 걸어왔다. 이 로정에는 준엄한 혁명전쟁도 있었고 심각한 사회적변혁과 어려운 건설투쟁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대렬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우리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기때문에 언제나 백전백승할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자랑찬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것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것은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투쟁력사가 보여주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싸워온 우리 인민의 투쟁과정이 실증해주고있다.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꾸리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서 매우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 당과 혁명대오를 꾸리는 과정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과정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대를 이어 고수하며 그 숭고한 사명을 끝까지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공고화하는 사업,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인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는 사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력사적진군속에서 빛나게 실천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체제가 튼튼히 섰다.》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18페지)

오늘 우리 당은 당중앙의 령도를 정치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반석같은 조직사상적기초를 가진 전도양양한 당으로, 비할바없이 높은 령도적권위를 지닌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되였다.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투쟁에서 1970년대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로 빛나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던 력사적시기에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는 지도체제를 확립하는데 모를 박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는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우리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간부대렬을 전망성있게 꾸리고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성단련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이 더욱 강화되고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수 있는 혁명의 골간력량이 튼튼히 꾸려졌다.

또한 전당이 중앙집권적규률에 의하여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관철하는 새로운 혁명적 사업체계가 확고히 서게 되였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는 사업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영원히 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 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기 위한 보람찬 투쟁과정에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이 새로운 높이에

서 굳건히 다져졌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공고화된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가장 생활력있는 불패의 통일단결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끝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하고있다. 그것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려는 드팀없는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고있는 통일단결이다.》(우와 같은 문헌, 24~25페지)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과 수령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받들어나가야만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통일단결의 참다운 위력과 불패성의 원천은 혁명이 전진하고 세대가 바뀌여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 확고한데 있다. 원래 확고한 령도의 중심에 의거하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혁명의 세대가 교체되고 대가 바뀌여도 통일단결은 언제나 혁명의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계승성이 옳게 보장되여야 한다.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충실성만이 참다운 충실성이며 대를 이어 옹호고수되고 공고발전되는 통일단결만이 가장 위력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이다. 그러므로 수령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대를 이어 통일단결의 중심을 보장하는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에 있어서는 대를 이어 단결의 중심을 보장하는 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그것은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우리 당의 령도이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위대한 조직자, 령도자로서의 높은 권위와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과정에 우리 인민은 주체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위대한 수령, 탁월한 지도자를 모셔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일찌기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된 때로부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간고한 혁명투쟁로정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불패의 통일단결이 이룩되고 이 통일단결된 위력으로 모든 난국을 뚫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온 영웅적투쟁행로였다. 이 과정에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단결하면 승리하고 단결하지 못하면 승리할수 없다는 고귀한 진리를 체득하였다. 여기로부터 우리 인민은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 혁명의 령도자를 중심으로 통일단결되여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바로 투쟁속에서 찾고 력사적으로 형성된 이 위대한 진리, 이 확고한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에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령도에 끝까지 충실하려는 하나의 지향과 신념을 안고 우리 당중앙을 중심으로 철석같이 뭉쳐있는 바로 여기에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위대성과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 당의 양양한 전도와 우리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은 또한 그것이 당의 위대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자기 당의 위대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게 된다.

당의 위대성과 위력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업적에 의하여 과시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고 시대와 혁명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만이 높은 권위와 존엄을 지닐수 있으며 인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을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행정에서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시대와 혁명 앞에 쌓은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를 마련한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사상리론적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려는 확고부동한 립장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체계로 정식화하고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투적강령과 방침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의 창조적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주체사상의 원리들과 지도적원칙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고 당건설과 국가건설, 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수많은 독창적인 리론들이 새롭게 제시되였다.

오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우리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고 그 견인력과 변혁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는것은 주체사상을 옹호고수하고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창조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이 이룩한 모든 사상리론적업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위대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린 우리 당의 커다란 업적의 하나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은것이다.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세련된 령도예술을 지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밀고나가심으로써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발전과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나라의 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는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우리 당은 대담한 작전과 혁명적전개력으로 전당, 전국, 전민을 속도전의 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경제문화건설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가까운 앞날뿐아니라 먼앞날까지 내다보면서 나라의 만년대계를 마련하고 혁명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당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은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없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오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인간개조와 자연개조 사업에서 이룩되고있는 놀라운 전변들과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는 현실은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해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따라 승리하며 전진하는 력사적행로에서 생활체험을 통하여 당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줄 위대한 향도자는 오직 우리 당밖에 없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으며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되였다.

당의 위대성에 대한 절대적신뢰에 기초한 불패의 통일단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명맥을 대를 이어 꿋꿋이 이어주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은 또한 그것이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신임과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기초하고있는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우리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공산주의미래에로 이끌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위대한 당을 영원히 변함없이 받들어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당의 의지와 인민의 신념이 하나로 결합되여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모든 사람들이 일생동안 혁명의 길에서 보람있게 살며 투쟁하도록 이끌어주는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이다. 우리 당의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인간의 존엄을 빛내이고 참된 삶을 누리고있다.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고 대를 이어 빛나게 하여주는 우리 당의 은덕에 의하여 항일혈전의 불길속에서 고귀한 청춘을 바친 혁명선렬들의 이름과 위훈이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살아있으며 로혁명가들이나 새세대들 할것없이 모두가 당이 가리키는 충성의 한길로 꿋꿋이 걸어나가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품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영원히 사상정신적로쇠를 모르고 언제나 패기와 열정에 넘쳐 살며 일해나가도록 하는 혁명의 품이며 한없이 넓고 자애로운 어머니품이다. 사람들의 오늘뿐아니라 먼 앞날의 정치생활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기에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칭송하고있으며 그 품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정치사상생활과 함께 물질문화생활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면서 온갖 혜택과 배려를 다 돌려주고있다.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온갖 적극적인 조치들을 다 취하고있다.

우리 당은 당사업의 성과도 경제건설을 잘하고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는데서 나타나게 하며 하나의 로선과 방침을 세워도 인민의 념원과 리익이 철저히 반영되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사소한 불편과 아무런 걱정도 없이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들을 보람찬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당에 충성다하는것을 마땅한 혁명적의리로 여기며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당은 인민들에게 끝없는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인민은 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우러러따르는 이러한 위대한 당과 충직한 인민이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친연적으로 맺어진 통일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것이다.

이처럼 당중앙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당의 위대성에 대한 신뢰, 당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뭉친것으로 하여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가장 공고하고 가장 생활력있는 불패의것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 대렬은 조선혁명의 려명기로부터 수령을 높이 받들어온 오랜 혁명투사들, 당과 혁명에 충직한 일군들과 수백만 당원들로 꾸려져있으며 광범한 군중이 당의 든든한 대중적지반을

이루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서로 기맥이 잘 통하고있으며 숨을 쉬여도 당의 의지로 숨을 쉬고 말을 하여도 당의 사상으로 말을 하며 걸음을 걸어도 당의 구령에 맞추어 일치하게 걸어나가는 사상의지적 전일체로 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이 군중속에 뿌리박고있으며 군중속에서 활발히 움직이고있다. 인민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당과 잇닿아있으며 당조직들의 활동에서 당의 숨결을 느끼고있다. 그리하여 당의 사상과 방침이 하부말단까지 지체없이 쭉쭉 들어가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구현되여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당이 한번 호소하면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일어나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이러한 충직한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오늘 우리 당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도 훌륭한 결실로 완성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남포갑문건설을 비롯한 류례없이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으며 1,000만톤의 광석처리능력을 가진 대규모의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은것은 당과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이 있기때문이다.

당과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한 힘에 의하여 주체위업은 더욱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그 종국적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으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투쟁의 길이 간고할수록 우리는 당과 혁명대오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나가야 한다.

당과 혁명대오를 공고히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다.

당의 위대성에 대하여 깊이 체득하는것은 당에 대한 신뢰를 두터이하고 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위대성에 대한 교양사업을 폭넓고 깊이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 당의 창조적사상리론활동과 당의 령도의 현명성, 빛나는 업적에 대하여 깊이있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높은 권위와 위신에 대하여서도 똑똑히 알려주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사상의지적인 통일단결이다. 전당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야 우리의 혁명대오를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을 갖춘 사람들로 튼튼히 꾸릴수 있다.

우리는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우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져있다.

당조직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각계각층 군중들과의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자신과 후대들의 운명을 당과 수령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일편단심 당을 따라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당사업의 성과는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리 화 정

로동계급의 당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서 언제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가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74년 8월 2일에 발표하신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칠데 대한 력사적인 문헌에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경제건설을 령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모든 당조직들이 경제건설에 낯을 돌리고 거기에 당적지도를 집중하며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침이다. 이 방침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경제건설 사상과 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빛나게 구현되여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모든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을 [...]에서 옳바로 지도함으로써 [...]과가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할것을 원칙적인 요구로 내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은 언제나 사회주의건[...]접히 결부되고 사회주의건설을 [...]는데 복종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의 [...] 나타나게 할데 대한 요구는 [...] 당활동을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지향시키고 철저히 복종시키는것[...]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조직들과 [...]들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완전히 [...]는 립장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것을 집중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 당사업과 당활동을 사회주의건설에 [...]향시키고 철저히 복종시켜나가야 [...]업을 더욱 개선하고 사회주의경[...]에서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해[...]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 성과에서 나타나게 할데 대한 방침은 무엇보다 당사업자체의 본성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이다.

당사업은 당을 튼튼히 꾸리고 당대[...]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며 당조직들을 옳게 발동하여 당의 전투적 기능과 [...]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대중의 [...]치적각성을 높여 그들의 무궁무진한 [...]

성을 당정책관철에로 최대한 조
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마디로 당사업은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
직들의 역할을 높여 당앞에 나
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치사업이다. 당사업은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당앞에 나선 혁
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리
해표자이며 그들의 복리를 위하여
는 전위부대이다. 로동계급의 당
명하기 위한 조직이며 혁명과업을
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투부대이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조직의
의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도
혁명을 더 잘하며 당앞에 나선 혁
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는데 그
이 있다.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과업을 떠난 순수한 당사업이란 있
없다. 당사업은 철저히 혁명과업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로 지향되여
하며 그 성과도 혁명과업수행에서
나야 한다.

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하는것이다.

물론 로동계급의 당앞에는 각이한 혁
단계에서 서로 다른 과업이 나선다.
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는 제
주의 및 봉건적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로인민대중을 제국주의 및 봉건적 착
와 예속에서 해방하여야 할 과업이
서게 된다면 사회주의혁명시기에는
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
하여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종국
으로 없애고 근로자들은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들어선 로동계급의 당앞에는 경제건설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게 된다. 낡은 제도를 뒤집어엎고 온갖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근로인민대중을 해방하여 그들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한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은 경제건설을 다그쳐 근로자들이 물질생활분야에서까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일뿐아니라 사회생활의 물질적수요가 완전히 보장되는 매우 풍요한 사회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과 함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경제건설을 다그쳐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수요에 따르는 공산주의적분배를 실현하고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수 있다. 또한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경제건설을 떠나서는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사업은 당앞에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경제건설을 잘하는데로 지향되고 복종되게 된다. 그래야 당이 자기앞에 나서는 혁명과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전투적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불패의 대오로 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한데 대한 당사업방침은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총적임무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할

투쟁과업의 하나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해나가는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하자면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인간개조사업과 함께 경제문화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이 경제건설을 옳게 지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해나가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길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이 수행하고있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은 결국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어떻게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하는것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령도하고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사업, 당활동은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복종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결과도 경제건설의 결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여 모든 경제사업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진행되며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경제사업을 당과 혁명 앞에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조건에서 경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것은 당적지도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사업의 결과는 경제사업에서 나타나게 되며 경제사업의 결과는 곧 당사업을 반영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사업의 결과는 해당 단위의 당사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기준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당조직들이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경제건설에서 당의 정책적요구를 옳게 구현하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경제과업수행에로 적극 동원할수 있으며 경제사업에서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의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할수 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해당 단위의 경제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당사업의 결과가 경제사업에서 뚜렷이 나타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게 할데 대한 당사업방침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당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침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우리 당중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기울여왔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것은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도록 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당사업과 당활동을 경제

과업수행에 복종시켜나갈수 있으며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우리 당은 당일군들로 하여금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정치적과업의 하나이며 그것을 책임지고 당적으로 보장하는것이 바로 당일군들의 기본임무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널리 벌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실지로 책임지게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당사업의 성과도 평가하게 함으로써 당사업이 철저히 경제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으로 되게 하였다. 이것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속에서 경제사업을 홀시하거나 외면하는것과 같은 그릇된 립장과 태도를 극복하고 당사업을 철두철미 경제사업을 보장하는데로 지향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한 경제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어디까지나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로서 그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세우고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발동시켜 당의 정책적요구를 정확히 관철하여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당위원회에서 매 시기 제기되는 경제과업들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에 따라 모든 일군들이 움직이는 정연한 체계를 세웠으며 당위원회의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켜 토의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중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되였다.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은 또한 당원들의 당생활을 경제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당원들의 당생활과 경제과업수행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는것은 당생활자체의 요구이며 당사업을 경제건설을 잘하는데로 복종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생활을 경제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간부들과 당원들의 모든 활동을 경제과업수행에로 지향시키고 그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당원들에 대한 당적분공을 당앞에 나선 경제과업을 해결하는데 모를 박고 조직할뿐아니라 당생활총화를 경제과업수행정형을 중심에 놓고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인 당세포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경제정책관철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 잘 보장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 당은 또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과업수행을 힘있게 떠밀어주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줌으로써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게 하였다.

우리 당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이며 정책적지도이라는것을 밝힌데 기초하여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행정경제사업을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지도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철저히 정치적지도로 되여야 모든 당조직들이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경제사업을 해나가도록 옳은 방도를 세우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통제할수 있으며 당의 경제정책을 아무런 편향없이 정확히 관철할수 있다. 그래야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우리 당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일군들속에서 행정대행, 행정식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경제사업을 지도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왔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당조직들이 근로단체들을 적극 발동하고 군중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우리 당이 당조직들로 하여금 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지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명실공히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고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 과정에 1970년대에는 사람들을 경탄시킨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여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빛나는 승리로 장식하게 되였으며 오늘은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불길속에서 보통이면 10년이 걸리야 할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을 불과 1년동안에 건설하는것과 같은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당일군들이 우리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9권, 23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당의 경제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해나가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일군들자신이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당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그것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며 순간의 지체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데 중심을 두고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도록 하자면 당사업에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고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여야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게 실현하여 광범한 대중을 경제건설투쟁에로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가장 위력한 혁명적 사업방법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없애고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경제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행정식사업방법, 행정대행을 극복하고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경제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아래를 도와주는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언제나 생산과 건설이 진행되는 현장에 내려가 그들과 침식도 같이하고 일도 같이하면서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당일군들은 언제나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니고 아래일군들을 너그럽게 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당원들을 적극 발동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이 그들의 당생활 지도와 평가를 혁명과업수행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총을 잘 쏘고 적과의 싸움에서 용감한 사람을 혁명에 충실한 사람으로 평가하였던것처럼 오늘에는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투신하여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사람으로 평가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본신혁명과업수행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들의 당생활을 지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게 할수 있다.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가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일군들이 열성 하나만 가지고 경제건설을 옳게 지도할수 없으며 거기에 반드시 높은 정치실무적자질과 현대과학기술지식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과 과학기술수준이 높아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사업을 옳게 지도할수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경제관리리론과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공업경영학, 농업경영학을 비롯한 경제지식과 현대적인 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경제건설을 지도하는데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도록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아가야 할것이다.

장악하고 도와주는것은 하부 지도의 중요한 원칙

로 명 주

우리 당의 자랑찬 력사에서 지난 10년간은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온 영광스러운 시기로 빛나고 있다.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하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였다.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도와주는 하부지도원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다.

우리 당이 밝힌 하부지도원칙은 각급 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을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료해장악하고 도와주는것을 그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다.

하부지도의 목적은 모든 당조직들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실속있게 도와주어 당의 로선과 방침들을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게 하는데 있다.

당이 아래를 지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장악하는 사업을 앞세우면서 여기에 도와주는 사업을 결합시키는것이다.

아래당조직들의 사업전반을 철저히 장악하여야 그 움직임과 실태를 환히 꿰들수 있으며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모든 사업을 잘해나갈수 있다. 아래를 철저히 장악하지 않고서는 당의 결정과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관철하는 혁명적인 규률을 세울수 없으며 아래당조직들을 실속있게 도와줄수도 없다.

장악하는 사업과 함께 아래당조직들을 실속있게 도와주는것은 하부지도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이다.

아래당조직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며 당의 방침을 자립적으로 정확히 관철하도록 하자면 그들의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만일 아래를 장악한다고 하여 얽어매놓고 받아내는 식으로 일한다면 아래당조직들의 자립성을 높일수 없으며 결국 하부지도에 대한 당의 의도를 관철해나갈수 없다. 아래의 전반사업을 정확히 장악하는 기초우에서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아래당조직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할수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하부지도원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당사업지도에 철저히 구현하고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최대한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원칙이다. 여기에는 당사업체계와 당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당조직들을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만들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유일적지도를 철저히 보장하려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적구상과 확고한 립장이 담겨져있다.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도와주는 원칙을 관철하는 여기에 혁명하는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새로운 하부지도원칙은 그에 맞는 사업체계와 사업질서를 세워야 그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다.

우리 당은 새로운 하부지도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질서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왔다.

우리 당의 세련된 지도밑에 당일군들이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실속있게 장악지도하는 정연한 하부지도체계가 세워짐으로써 당사업과 당활동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지도가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으며 당과 혁명 발전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장악하고 도와주는 하부지도원칙을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룩된 빛나는 성과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규률이 확립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제때에 침투되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중앙집권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움으로써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17페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안에 강철같은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확립하는것이다.

혁명적규률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힘있는 무기이다.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을 가진 당만이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하나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전투적인 부대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전당에 장악하고 도와주는 하부지도체계가 철저히 세워짐으로써 우리 당안에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가 확립되게 되였다.

당중앙이 제시한 새로운 하부지도원칙을 관철하여 웃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을 장악하고 도와주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당은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조직들이 하나의 조직규률에 의하여 움직이는 전일체로 더욱 굳게 결속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오직 당중앙의 결론에 의하여 처리하는 혁명적질서와 중앙집권적규률이 그 어느때보다도 철저히 세워지게 되였다.

당안에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움직이는 강한 규률이 확립된 결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거침없이 아래에 전달침투되고 있으며 대중의 창발적의견들이 제때에 당중앙위원회에 집중되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며 당의 명령, 지시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고있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은 당이 제시한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도록 확고히 담보한다.

하부지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모든 당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 실태를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그에 맞게 당정책관철의 옳바른 방도를 세워줌으로써 당조직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의 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당이 하라는대로 할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당의 모든 결정과 지시를 순간의 지체나 사소한 드팀도 없이 무조

건 끝까지 관철하는 높은 자각성과 혁명적규률성은 우리 당원들의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있다.

당의 방침과 결정지시들이 제때에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그 어떤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으며 당의 웅대한 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 위대한 현실을 낳고있다. 당중앙의 령도밑에 70년대와 80년대에 일떠선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은 당의 부름에 충실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 당이 밝혀준 하부지도원칙을 관철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는 또한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비상히 높아진것이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 조직되여 활동하는 각급 당조직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전당의 전투력을 강화할수 있고 당의 령도를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밝혀진 장악하고 도와주는 하부지도의 원칙은 각급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게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정연한 하부지도체계에 의하여 웃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아래당 조직들과 일군들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실속있게 도와주는 혁명적기풍이 튼튼히 확립되여있다.

당조직들의 활동은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조직들의 전투력도 다름아닌 당과 수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나타나며 그 과정에 더욱 높아지게 되는것이다.

장악하고 도와주는 실속있는 하부지도를 통하여 모든 당조직들은 당중앙의 의도를 관철하는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우고 당사업과 당활동을 철저히 여기에 복종시켜나가고있다. 웃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아래당 조직들과 일군들에게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신속히 알려주고 그에 맞게 당사업을 전개하며 나타난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아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을 통하여 모든 당조직들이 해당 단위의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고있다. 그리하여 당조직들이 움직이는 모든곳에서는 당의 숨결이 맥박치고 당중앙의 의도가 드팀없이 관철되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이 산 전투적조직으로서의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조직들의 활동은 당일군들의 사업을 통하여 실현되는것만큼 재래식사업방법을 극복하고 모든 당일군들이 생기발랄하고 패기있게 움직여야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아무리 좋은 결정을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일군들이 낡은 틀과 재래식사업방법에 매달리면 당의 결정을 제때에 정확히 관철할수 없으며 그러한 당조직은 당의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산 전투적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되는것이다.

장악하고 도와줄데 대한 우리 당의 하부지도원칙이 철저히 구현되는 과정에 당사업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이 철저히 극복되고 전당에 참신하고 패기있는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이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아래일군들을 불러올려 잡다한 문서나 받아들이던 형식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이 철저히 극복되였으며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아래에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실속있게 도와주는 방법으로 일해나가고있다. 수천척 지하막장과 협동농장의 포전길, 파도사나운 먼바다어장에

이르기까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살며 일하는 그 어디에서나 작업복을 입고 대중과 함께 일하는 당일군들을 만날수 있으며 당사업이 항일유격대식으로 참신하게 벌어짐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아래에 내려가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과정에 당일군들의 지도수준이 높아지고 사업 방법과 작풍이 개선되게 되였으며 당조직들이 대중속에 더욱 깊이 뿌리박게 되였다.

우리 당이 세워준 하부지도원칙은 지도의 과학성과 구체성을 보장하여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이게 한다. 구체적인 실태를 장악하지 못하고서는 현실을 알수 없고 모든것을 정확히 타산할수 없으며 실정에 맞는 옳은 대책을 세울수 없는것이다.

우리 당이 밝힌 하부지도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당조직들은 언제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여도 그것을 정확히 분석판단하고 자기 단위의 실정과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사업을 전개하는 옳바른 방법론을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이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객관적현실과 자기 단위의 사업실태를 환히 꿰들고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산 지도를 주는 전투적조직으로 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장악하고 도와줌데 대한 하부지도원칙을 구현하여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이룩된 빛나는 업적의 하나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철저히 보장해나가기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 당이 밝힌 하부지도원칙을 관철하는 과정에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또한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더욱 강화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각계각층 군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동요없이 싸워나가고있다.》(우와 같은 문헌, 27페지)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는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받으며 대중을 조직동원할줄 아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 인민대중의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사명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당과 인민대중과의 련계의 공고성은 대중이 당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가진 인민은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고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끝까지 싸워나가게 된다.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는 당의 위대성에 대한 확신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

우리 당이 세워준 정연한 하부지도체계는 모든 당일군들이 늘 들끓는 현실에 내려가 인민대중에게 당의 사상리론과 령도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당을 진심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게 한다.

당의 하부지도방침에 따라 당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약동하는 현실에 들어가 대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우리 당이 이룩한 혁명업적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해설선전함으로써 당의 위대성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는 가장 공고하고 절대적인것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

이끌어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있으며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는 여기에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는 전체 인민이 당의 은덕에 끝까지 보답하려는 확고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억세게 전진할 때 더욱 공고한것으로 되게 된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하부지도의 요구대로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며 진심으로 도와주는 과정에 인민들은 우리 당의 품은 곧 자기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보호해주는 자애로운 어머니품이라는것을 깊이 체득하고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을 따라 끝까지 싸워나갈 각오를 더욱 굳세게 가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이 있음으로 하여 영광에 찬 어제와 행복한 오늘이 있는것처럼 우리 당의 품속에서만이 희망찬 래일의 빛나는 삶이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활동을 통하여 당의 숨결을 뜨겁게 느끼고있으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변함없이 당을 따라 나아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과 인민사이의 련계야말로 가장 진실한 혈연적뉴대로 이어진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단결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참으로 전당에 정연한 하부지도체계가 세워짐으로써 우리 당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전투적인 당으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력한 당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가 확고히 보장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며 더없는 기쁨이다.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이 빛나는 성과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내놓으신 방침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진군길에서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우리 당 건설력사에 빛날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장악하고 도와줄데 대한 하부지도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은 당과 혁명에 대한 우리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 당이 밝힌 장악하고 도와줄데 대한 하부지도원칙을 빛나게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중앙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당일군들은 방법에서 로숙하고 작풍에서 원만하여야 한다

문 성 술

당일군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 관한 문제는 당의 권위와 당의 전투력과 관련되는 심중한 문제이다.

당의 높은 령도적권위를 보장하는것은 당일군들의 기본임무이며 당의 전투력은 당일군들의 활동에 크게 달려있다. 당일군들이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 일하고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지닐 때 당의 령도적권위가 더욱 높아지고 당의 전투력이 강화될수 있다.

오늘 당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나가는것이다.

방법에서 로숙하다는것은 모든 일을 심사숙고하여 여유있고 능란하게 처리해나간다는것을 말하며 작풍에서 원만하다는것은 너그럽고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한다는것을 말한다.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을 소유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일관한 요구이다. 주체의 사업방법으로서의 수령님식사업방법은 그 창시과정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방법과 작풍에서 군중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근본문제로 내세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혁명적군중로선을 대중령도의 근본원칙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각성시키고 묶어세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능란하게 조직동원하는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인민적품성의 전형을 창조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을 지니는것을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요구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당일군들이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이 방법에서 로숙하고 작풍에서 원만한 품성을 지니는것은 우리 당의 고상한 사업기풍과 인민적풍모를 그대로 받아안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과 함께 숨쉬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정치적생명의 참다운 보호자, 그들의 행복과 자주적권리의 진정한 옹호자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나가고 있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며 높은 조직적수완으로 그들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것은 우리 당 사업방법의 고유한 특징이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풍모를 지니였기에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며 80년대에 우리 나라를 가장 발전된 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서게 하는 거창한 사업에로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해나가고있는것이다. 당일군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령도풍모를 따라배워 그대로 사업해나갈 때 우리 당안에는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이 더욱 확고히 지배하게 될것이다.

로숙하고 원만하게 사업하는것은 또한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서의 풍모를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의 철저한 옹호자이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다. 당일군들은 아래일군들과 군중을 참다운 혁명동지로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고 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묵묵히 바칠줄 알아야 한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8페지)

당일군들은 직업적인 혁명가이며 당원들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정치활동가이다. 당일군들은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그들을 발동하여 당정책이 정확히 관철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할 영예로운 임무를 지니고 있다.

당일군들이 자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대중을 대하는데서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일군들은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딸들을 대하는 심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나게 유지해나가도록 사업과 생활을 언제나 책임적으로 보살펴주는 고상한 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당일군의 이러한 품성은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을 지닐 때만이 발양될수 있다. 로숙하고 원만하게 사업해야 사람들을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사업과 생활, 특히 정치생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릴수 있다.

만일 당일군들이 로숙하고 원만하게 사업하지 않고 일을 되는대로 거칠게 하거나 편협하고 옹졸하게 사람을 대한다면 그것은 어머니당의 당일군의 풍모가 아니다.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하여야 그들이 언제나 당을 믿고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려는 사상적각오를 튼튼히 가질수 있으며 수령의 전사, 당의 전사답게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싸워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이 로숙한 방법, 원만한 작풍을 지니는것은 당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지지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당의 위대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고있다. 인민대중은 당의 위대성에 대하여 깊이 신뢰할 때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바로 당의 위대성을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지금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에게 지워져있다. 당앞에 나선 이러한 임무는 당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더욱 튼튼히 세워 능숙한 방법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며 원만한 품성을 지니고 그들을 따뜻이 이끌어주어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은 무엇보다도 사업을 구체적현실과 리치에 맞게 처리하는데서 표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는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것인데 이것은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는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159페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그에 기초하여 옳은 대책을 세워나가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사업기

풍이며 모든 사업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구체적현실과 리치에 맞게 사업한다는것은 당일군들의 사업대상인 군중이 일하고 생활하는 현실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능란하게 하기 위한 옳바른 방도를 찾으며 그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일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구체적현실을 무시하고 사리에 맞지 않게 주관적욕망만을 내세운다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풀려나갈수 없으며 무리가 생길수 있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며 사업과정에는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들이 련이어 제기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실정에 어두우면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옳게 파악할수 없으며 옳은 대책을 세워 능숙하게 풀어나갈수 없다. 구체적인 실태를 모를 때에는 주관주의밖에 나올것이 없으며 덮어놓고 내려먹이는 관료주의적오유를 범하게 된다.

로숙한 당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전개하는데서 주관적욕망에 사로잡혀 결론부터 서두르는것이 아니라 구체적실정을 깊이 료해하며 그에 기초하여 사업대상의 특성에 맞게 옳은 대책을 세워나간다.

군전반사업을 당과 수령의 의도에 맞게 이끌어나간 허천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의 일본새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그는 자기 군의 척박한 토질조건에 맞게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듦으로써 지난해 군에 맡겨진 농업생산계획을 훨씬 넘쳐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허천군당위원회의 경험은 구체적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옳은 대책을 세우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보여준다.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은 또한 모든 사업을 신중하게 하고 여유있게 하는데서 표현된다.

대중을 옳게 지도하여 혁명과업을 잘 수행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당일군들이 언제나 사업과 행동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당일군은 여유있고 신중하게 사업하고 행동하여야 제기된 문제를 착실하게 풀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제기된다 해도 덤비지 말고 침착하여야 하며 조급해할것이 아니라 참을성이 있어야 하며 무게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물론 급한 문제가 제기되면 재빨리 판단하고 결심해야 하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빨리 한다고 하여 지나치게 서둘러서는 안되며 급한 일이라고 하여 경솔하게 처리하면 일을 망칠수 있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있는것만큼 사람문제를 특별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사람문제는 결코 그 어떤 실무적인 문제인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다루는 매우 심중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사람문제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거나 주관주의적으로 대하지 말며 여러모로 따져보고 침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당일군은 사람과의 사업을 피상적으로 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기된 문제를 정책적선에서 신중하게 대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대하며 주횡적으로 일을 처리하는것은 당일군의 일본새가 아니며 그렇게 하여서는 권위도 세울수 없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태도와 주횡적인 처리방법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신중하고 여유있게 사업하여야 한다.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은 또한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니고 군중을 너그럽게 대하는데서 표현된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것은 정치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며 그들의 맺혀있는 문제를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는 당일군의 고상한 품성이다.

당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산 사람과의 사업을 생나무꺾듯이 할수 없다. 어디까지나 부드럽고 너그럽게 하여야 하며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심장을 움직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당일군은 인자하고 너그러운 품성을 가지고 군중을 대하며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맺힌 일은 무엇인가 하는것 등 사업과 생활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며 그들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진심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설사 엄중한 과오를 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비판은 엄격히 하면서도 사람을 멀리하지 말고 그가 과오를 고치도록 손잡아이끌어주어야 한다.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사람들을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하자면 무한히 겸손하고 소박하여야 한다.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가지는것은 군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일군들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인민의 충복이다. 대중앞에서 우쭐대고 남을 깔보며 거만하게 행동하는것은 당일군의 태도가 아니다. 당일군들은 겸손하고 소탈하여야 대중과 친숙하게 어울리고 대중이 찾아와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할수 있으며 대중의 신망과 존경을 받을수 있다. 당일군은 자기를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군중과 혁명동지를 존중하며 사람을 대할 때에는 자기를 낮추고 례절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예술영화 《초행길》의 주인공의 형상은 일군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너그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매우 생동하게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공산주의적풍모를 그대로 받아안은 영화의 주인공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넓은 도량을 지니고 오랜 인테리들과 민족자본가들과의 사업을 로숙하고 원만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너그러운 품에 안겨 새 조국 건설에 온갖 지혜와 힘을 다 바칠수 있게 하였다. 영화의 주인공의 고상한 인민적풍모는 오늘 우리 당일군들이 사업과 행동에서 거울로 삼아야 할 참다운 본보기로 된다.

당일군들이 사업에서 로숙하고 작풍에서 원만하여야 한다는것은 결코 령감티를 내거나 원칙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혁명가들은 죽을 때까지 정력과 패기를 잃지 말아야 하며 생리적으로 늙어도 정신적으로는 로쇠하지 말아야 한다. 로숙하고 원만하게 일한다는것은 틀을 차리며 사업과 생활에서 정력과 전투적기백이 없이 앉아뭉개는것과 같은 로쇠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일군들은 정신적로쇠현상을 반대하고 언제나 왕성한 투지와 패기에 넘쳐 모든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일군들이 로숙하고 원만하게 한다고 하여 《호인》격으로 무맥하게 사업해서는 안된다. 당일군은 작풍에서 겸손하면서도 원칙성이 강하고 투쟁력이 있어야 하며 그릇된 현상에 대하여서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견결한 투사가 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 일군들앞에는 방법에서 로숙성과 작풍에서 원만성을 소유함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군중과 동떨어진 귀족당이 아니라 대중을 묶어세우고 이끌어나가는 혁명적당이다. 당이 혁명적군중로선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것은 대중의 교양자, 선전자, 조직자인 당일군들의 방법과 작풍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당일군들이 방법에서 로숙하고 작풍에서 원만하여야 당이 요구하는대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이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그대로 따라배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반드시

따라배우고 그대로 구현하여야 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구감이다.

당일군들이 이 위대한 사업 방법과 작풍을 그대로 받아안아야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기 위하여서는 주체의 당사업리론과 방법론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주체의 당사업 리론과 방법론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독창적인 당사업리론, 당사업방법론이다.

주체의 당사업리론, 당사업방법론을 깊이 체득할 때 사람들과의 사업을 능숙하고 원만하게 하는 사업기풍을 소유하고 옳게 구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그와 어긋나는 온갖 낡은 방법과 그릇된 작풍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일군들의 사업능력이나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표현이다. 일군들이 사상관점을 똑바로 가지지 않고서는 대중과의 사업에서 로숙한 방법, 원만한 작풍을 철저히 세울수 없다.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의 사상적근원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낡은 사상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은 일군들자신이 해야 할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은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낡은 일본새를 고치기 위한 사상투쟁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방법과 작풍에서 낡은 때를 말끔히 씻고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오늘 당일군들에 대한 당중앙의 신임과 기대는 매우 크다.

당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의 당일군으로서의 풍모를 갖추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며 바로 여기에 당의 크나큰 기대와 신임에 보답하는 참된 길이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높은 조직적수완을 가지고 혁명앞에 제기된 과업을 로숙하고 원만하게 해결해나감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와 그 옳바른 적용

김 찬 숙

오늘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보람찬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것과 함께 사회주의분배원칙,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옳게 적용하여 사람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분배원칙,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실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이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을 정확히 받도록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248페지)

사회주의사회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동일한 목적과 리해관계를 가지고 다같이 일하면서 고르롭게 살아가는 가장 인민적인 사회제도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보수를 주는것이 유일한 분배원칙으로 되고있다.

사람들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고 생산력발전수준이 아직 수요에 따라 분배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로동의 차이가 남아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의 량과 질에 따르는 분배원칙,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옳게 지켜야 이 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열의를 높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만일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어기고 평균주의를 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줄수 없으며 그들속에서 놀고 먹거나 될수 있는대로 쉬운 일을 하려는 그릇된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반대로 분배에서 지나친 차이를 둘 때에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일수 없으며 그들속에서 개인리기주의를 조장시키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분배분야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을 극복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를 옳바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로동보수형식을 잘 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는 바로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대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는 로동보수제이다.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의 형태로 실현되는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력발전수준과 근로자들의 준비정도 등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보수형식으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옳게 적용하는것이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원만히 보장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중로동과 경로동, 공업로동과 농업로동, 정신로동과 육체로동 사이에 차이가 남아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생산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지출하는 로동의 량과 질이 서로 다르게 된다.

생산과정에서 지출한 사람들의 정신적 및 육체적 힘에 의하여 로동의 량과 질이 규정되는것만큼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에 기여한 로동을 옳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로동보수에서 일정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 지출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차이를 두고 로동보수를 적용하여야 매개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 소모한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충분히 보상하고 생활을 원만히 꾸려나갈수 있다. 또한 그래야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 분배분야에서의 차이를 줄이며 물질문화생활수준을 균형적으로 높일수 있는 조건을 성과적으로 마련할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옳게 적용하는것은 또한 근로자들의 로력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더욱 높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을 다같이 가지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필연적으로 자기 로동의 결과에 대한 정치도덕적관심과 물질적관심을 가지게 된다. 정치도덕적관심과 물질적관심을 자극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추동하며 그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것은 대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는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생활비와 함께 상금, 장려금과 같은 추가적인 로동보수가 더 차례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기술을 혁신하고 있는 설비와 자재, 로력 그리고 자금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한다. 이처럼 로동에 대한 정확한 물질적평가를 할 때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일한 영예와 긍지를 깊이 간직하며 사회적생산의 장성을 위하여 온갖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적용하는것은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기풍을 더 잘 키우게 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을 사랑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것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이다. 로동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일을 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분배몫이 적게 차례지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로동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가지도록 자극을 주고 통제하게 된다. 다시말하여 놀고먹으려는 낡은 사상에 물질적자극을 주어 누구나 다 일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수 있다. 일을 성실히 하지 않으며 로동규률을 어기는 온갖 그릇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로동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바로 가지도록 자극을 주는 여기에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옳게 적용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의 또하나가 있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적용하는것이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사회적생산을 더욱 발전시키며 로동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바로 가지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은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옳게 적용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과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왔다.

우리 당은 전국적으로 유일적인 생활비등급제를 내오고 인민경제 부문사이, 직종사이의 생활비비률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끊임없이 올리면서 여기에 여러가지 상금제와 장려금제를 옳게 배합하도록 하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도 등급별작업량을 정확히 정하고 로동에 의한 분배량을 체계적으로 늘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화폐수입과 농민들의 분배몫이 체계적으로 늘어나고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끊임없이 높아지게 되였으며 이에 따라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게 되였다.

실천적경험은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야말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우월한 로동보수제이며 그것을 철저히 실시하는 여기에 생산자대중을 경제관리에 주인답게 참가시키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는 로동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는 과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당과 국가의 배려를 실현하는 중요한 경제적공간이다. 따라서 그것을 옳게 적용하는것은 우리 당의 로동정책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인 로동시책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바로 적용하여 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당과 국가의 배려가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 집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옳게 적용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옳은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옳게 적용하기 위한 사업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근로자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줄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하며 근로자들의 열의를 높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또한 당의 의도대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실시하여 대중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옳게 이끌어나가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그 어떤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꾸준히 일하고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며 성실히 일하고있는것은 우리 근로자들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근로자들이 누가 보건말건, 평가해주건말건 성실히 일할수록 그들의 생활을 잘 보살펴주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지닌 응당한 본분이다. 근로자들이 일한것만큼 정치적으로 잘 평가해주는것과 함께 물질적으로 우대해줄수록 그들은 당과 수령의 배려를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몸바쳐나서게 된다.

우리 일군들은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옳게 적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로력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옳게 적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는것이다.

로동정량은 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그것을 바로 정하는것은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할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된다. 로동정량을 바로 정해야 로동에 대한 보수가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정확히 차례지게 할수 있으며 로동계획화와 로력조직, 로력관리를 과학적으로 짜고들고 사회적로동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할수 있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는 로동정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군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고 여기에 과학기술적타산을 잘 안받침하여 선진적인 로동정량을 정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개별적인 공장, 기업소의 선진적인 로동정량을 국가표준로동정량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

평양종합방직공장의 경험은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근로자들의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시키며 새 기준, 새기록 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거기에서 이룩된 성과를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 때 과학적이고 동원적인 로동정량을 정할수 있으며 그것

-을 끊임없이 갱신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옳게 적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로동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하는것이다.

로동에 대한 평가를 잘하는것은 생산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로동정량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로동에 대한 평가를 잘하지 않고서는 로동보수를 바로 적용할수 없으며 그것이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기여하게 할수 없다.

로동에 대한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매개 생산자들의 그날그날의 로동정량수행정형과 생산계획수행정형, 제품의 질제고, 자재절약, 새 기술도입 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분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실지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로동보수를 옳게 줄수 있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실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로동정량이 높아지는데 따라 로동보수를 높여주는것이다.

로동정량이 높아지는데 따라 로동보수를 높일수 있는 원천은 새로운 로동정량을 수행한 결과에 늘어난 종업원 한사람당생산액이다.

로동정량은 단위생산물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표현하므로 로동정량을 높인다는것은 결국 단위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기준로동시간을 그만큼 줄인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높아진 로동정량에 의해 설정된 작업과제를 수행했을 때에는 보다 많은 제품이 생산되게 된다. 이것은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이 늘어나고 로동보수를 더 높일수 있는 원천이 그만큼 많이 조성된다는것을 말해준다. 로동정량이 높아지는데 따라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을 높여주어야 로동자들자신이 기술혁신을 하며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높아진 로동정량을 수행하는데 따라 로동보수를 높여주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생산계획실행정형, 제품의 질제고정형, 설비, 자재의 리용정형에 따르는 장려금과 여러가지 상금제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은행기관들에서 로동보수자금을 정확히 내주고 그것을 옳게 리용하도록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바로 적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은행은 국가자금을 내주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화폐자금을 합리적으로, 절약적으로 리용하도록 통제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은행기관들에서 로동보수자금을 제정된 제도와 질서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 내주고 그것을 제대로 분배하도록 통제를 잘하여야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가 원만히 실시될수 있다.

은행기관들은 언제나 로동보수자금의 지불한도를 철저히 기업소의 국가계획수행정도에 따라 규정하고 계획수행정형을 현지에 나가 확인한 다음에 자금을 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출된 로동보수자금이 근로자들의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정확히 지불되게 하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보수자금을 다른데 돌려쓰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분배원칙,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의 요구대로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정확히 분배받게 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옳게 적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현해나감으로써 생산과 건설에로 근로자들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할것이다.

지방원료기지를 꾸리는데서 얻은 몇가지 경험

강 근 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지방공업건설에서 원료기지조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모든 지방들에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꾸릴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이 내세운 중요한 원칙은 지방자체의 원료에 의거하여 생산을 보장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121페지)

자체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지방공업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며 현시기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지방공업은 주로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사회주의공업이다. 그러므로 모든 지방들에서 자체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지방산업공장들에 원료를 넉넉히 대주어 생산을 정상화하며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지난 기간 우리 삼천군에서는 지방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받들고 자체의 힘으로 재배 및 자연 원료기지를 조성함으로써 식료공장을 비롯한 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에 원료를 원만히 대줄수 있었다.

오늘 우리 군에서는 270정보의 재배원료기지와 100여정보의 자연원료기지를 꾸리고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하여 원료작물의 정당수확고를 높임으로써 해마다 많은 지방공업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갖가지 식료가공품과 일용소비품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하고있다.

지금 삼천군의 지방공업원료생산은 3년전에 비하여 7배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업생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군의 지방예산수입계획을 넘쳐수행하여 군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면서도 많은 돈을 벌어 국가에 들여놓고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신설되여 10년전까지만 하여도 군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리지 못하여 해마다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던 우리 군에서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오늘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면서 많은 리익금을 국가에 바칠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당의 호소따라 천리마의 대진군을 개시하던 1957년 12월 삼천땅을 몸소 찾아주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동안 여러차례의 현지지도를 통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뚜렷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은 은혜로운 향도의 해발을 삼천땅에 뜨겁게 비쳐 농장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군사업을 추켜세우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었다.

우리 삼천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체의 원료

기지에 의거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일정한 성과와 경험을 이룩할수 있었다.

지방원료기지를 조성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우리 군에서 재배원료기지를 꾸리는 과정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였다.

우리에게는 원료기지를 꾸리는데 필요한 적지가 많지 못하였으며 있다면 잡관목이 우거진 야산과 갈대만 무성한 진펄뿐이였다. 더우기 우리가 수행해야 할 방대한 과업에 비하여 로력과 기술수단, 자재가 부족하였으며 모든것을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원료기지를 꾸리는데서 나서는 애로와 난관은 오직 우리 일군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서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끝까지 이악하게 투쟁할 때만이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었다.

삼천군당위원회는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지방원료기지를 꾸리는 사업에 적극 동원하여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감으로써 군마다 200정보의 원료기지를 꾸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훌륭히 관철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지방원료기지를 꾸리는 과정에 우리는 귀중한 경험을 얻었으며 앞으로 지방공업을 더욱 활발히 조직운영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였다.

우리가 얻은 경험은 무엇보다도 군당위원회가 지방원료기지를 꾸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방원료기지를 꾸리는 사업은 자체의 원료기지에 의거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책임적인 사업이며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그러므로 지방원료기지를 꾸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마땅히 당조직들이 틀어쥐고 밀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더우기 군안의 지방공장들에 필요한 원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많은 면적의 재배 및 자연 원료기지를 조성하는것과 같은 자연개조사업은 당정책의 직접적인 집행단위인 군당위원회가 군안의 력량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당적으로 올바로 보장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물론 지방원료기지를 꾸리고 관리하는것은 군의 호주인 군인민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담당수행하여야 할 책임적인 사업인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군당위원회가 이 방대한 사업을 군인민위원회에만 맡겨놓고 당적으로 적극 밀어주지 않는다면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삼천군당위원회는 원료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당경제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는데 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군당위원회부서들과 아래당조직들을 발동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동원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였다.

원료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하여도 군안의 적지 않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과업이 아름차다 하여 주저하거나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자기 단위의 특성과 조건을 내세우면서 적극 나서지 않았다. 이런 실정에서 원료기지 조성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자면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원료기지를 꾸릴데 대한 당의 방침과 그 수행방도를 잘 알고 그것을 자신들의 생활상요구로 받아들이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사상동원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원료기지를 꾸리는 사

업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근로자들속에서 강연, 해설담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으며 일군들속에서 발로되고있는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사상투쟁을 결합시켜나갔다. 특히 우리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 원료기지조성 계획과 전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모두가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적극 떨쳐나서도록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들이댔다. 이것은 광범한 군중을 원료기지를 꾸리는데 널리 인입하며 이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정치사업에 의하여 높아진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물질적성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원료기지를 꾸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드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대중을 발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안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치사업을 통하여 앙양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계속 높여나갈수 없으며 그들에게 힘껏 일할수 있는 조건을 원만히 마련해줄수 없다. 방대한 규모의 원료기지를 꾸리는데 필요한 내부예비를 옳게 동원하자면 힘있는 정치사업에 빈틈없는 조직사업을 안받침하는것이 중요하였다.

조직사업을 짜고드는데서 우리가 힘을 넣은것은 원료기지로 쓸 대상지와 그 개간단계 그리고 로력문제해결방법을 바로 정하는것이였다. 원료기지로 쓸 대상지와 개간단계, 군중동원방법을 바로 정하여야 모내기와 김매기, 가을걷이와 같은 바쁜 농사일을 제때에 보장하면서도 원료기지조성사업을 원만히 밀고나갈수 있었다.

우리는 군책임일군들은 물론 국토관리부문, 농업부문, 지방공업부문 일군들과 진지하게 토의하고 읍에서 가까운 지대를 적지로 선정하였으며 4단계에 걸쳐 분박지구와 수학지구를 비롯한 6개지구를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개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농촌지원기간이 아닌 때와 일정한 계기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원료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에로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 원료기지를 개간하는데서는 기관, 기업소별, 개인별로 투쟁목표를 명확히 주고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며 일별, 주별 총화와 평가사업도 제때에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이러한 조직사업은 원료기지를 꾸리는데 필요한 로력과 기술수단, 자재를 적극 동원하며 모든 단위들에서 기본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면서도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원료기지를 꾸리는 사업정형을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실속있게 지도하는것은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군책임일군들이 들끓는 전투장에 나가 실태를 직접 료해하고 적극 도와주도록 하는 한편 기관, 기업소의 공정계획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조직부와 선전부로 하여금 제때에 당적지도를 따라세우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책임일군들은 아래에 계획적으로 내려가 관계부문일군들과 협의도 하고 걸린 고리도 풀어주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해나가도록 떠밀어주었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는 량정사업소를 비롯한 몇개 단위에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진행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이러한 장악지도사업은 군안의 기관,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원료기지를 꾸리고 관리하는데 일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새땅을 일구는데로부터 가을걷이를 하는 모든 작업을 자기 일처럼 착실하게 해나가게 하는데서 커다란 은을 나타내였다.

한편 군당위원회는 원료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하며 그 실행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돌었다.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재포치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원료기지조성사업에 관심을 돌리도록 하며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키는데서 효과적인 방법이였다.

우리는 총화 및 재포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원료기지조성사업을 몇개 단계로 설정하고 단계별총화와 지구별총화를 배합하여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주로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원료기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것을 자신의 사업으로 받아들이도록 자극을 주고 교양하는 방향에서 총화하였다면 일정한 단계에 가서는 매 단위들에서 원료기지의 관리운영수준을 높이며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하여 정당수확고를 높이도록 각성시키는데 모를 박고 총화 및 재포치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모범을 제때에 찾아내여 널리 일반화하는 사업을 사업과정에 나타나는 일부 부족점들과 편향들을 바로잡기 위한 사상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모두가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원료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되였다.

군당위원회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조직사업을 짜고든 결과 아래당조직들이 움직이고 당원들이 발동되게 되였으며 군중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군자체의 힘으로 많은 면적의 원료기지를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전개해나가는 과정에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고 일군들의 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당사업방법도 보다 개선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군에서는 군당위원회로부터 말단 세포에 이르는 모든 당조직들이 당의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네일내일 가리지 않고 떨쳐나서고있으며 모든 사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군안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하는 군당위원회가 당의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광범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한다면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깊이 체득할수 있었다.

우리가 이룩한 경험은 또한 지방원료기지를 대중적으로 관리하는 질서를 세우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재배원료기지를 꾸리고 관리하는 사업은 농촌지대들에서 로력이 긴장한 시기에 벌리게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농촌지원을 비롯하여 군안의 모든 사업을 제때에 보장하면서 로동자, 사무원들과 가정부인들을 발동하여 원료기지를 꾸리고 관리하자면 군중을 동원하기 위한 묘술을 찾아쥐고 대중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모든 근로자들이 쉽게 접수하고 발벗고나서며 자기 집일처럼 할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하며 옳은 사업질서를 세워야 원료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이 사업에 군안의 기관, 기업소들과 근로자들이 적극 참가하게 할수 있다.

우리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쉽게 접수하고 움직일수 있는 대중적인 사업질서를 옳게 세워나가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원료기지를 꾸리는 과정을 통하여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원료기지를 군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우리는 우선 전문원료기지사업소를 잘 꾸리고 기본로력과 림시로력을 보장해주며 여러가지 농기계를 대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원료기지사업소는 일정한 경지면적을 맡아서 자체로 비배관리도 하고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가면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공장, 과일및남새가공공장을 비롯한 식료공장들에 전문원료기

지작업반을 조직하여 필요한 원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군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 종업원수와 기술수단보유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지면적을 고정적으로 나누어주었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지도와 보장사업은 원료기지사업소와 식료공장의 원료기지작업반이 담당수행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원료기지에 동원되는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를 정확히 관철하여 정당수확고를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우리는 원료기지관리사업에서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일본새를 보이도록 정치사업을 하면서 물질적자극도 적절히 배합하였다. 그것은 유휴로력을 리용하는 경우 그들에게 원료기지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일한것만큼 보수를 주며 계획수행정형에 따라 우대제도 실시하도록 한것이였다. 그리고 원료기지에 림시동원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상교양사업을 적극 벌리는것과 함께 가동정형에 따라 여러가지 물질적자극형태를 적절히 적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이 모든것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맡은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머리를 쓰고 노력하게 하며 원료기지에 대한 관리를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군당위원회는 원료기지에 대한 관리를 대중적인 사업으로 보장하는 한편 원료기지를 꾸린 보람을 실지생활에서 느끼도록 지방산업공장들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주민세대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개선하고 사회급양망들을 활발히 움직여나갔다.

사람들은 자기 노력의 열매를 맛볼때 [illegible] 인한 보람을 느끼게 되며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게 된다.

우리는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을 이겨가면서 원료기지를 조성한 첫해부터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먹는기름과 두부, 콩나물, 고추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가공품을 만들어 주민세대들에 공급해주었으며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사탕과 과자, 강정을 큰돌이 공급하였다. 그리고 사회급양망들에는 국가에서 공급받는외에 많은 원자재를 더 보장하여 단과식당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여러가지 청량음료를 사철 떨구지 않고 공급하도록 하였다.

재배원료기지가 점차 은을 내여 인민생활에 보탬을 주게 되자 군안의 모든 근로자들이 원료기지를 꾸리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든 일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해나가게 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당이 제시한 군중동원방법이야말로 가장 진공적이며 적극적인 대중동원방법이라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이 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능히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우리가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지방원료기지를 꾸려온 전행정은 바로 군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한 보람찬 투쟁로정이였다.

원료기지를 꾸리기 위한 투쟁과정에 우리가 이룩한 경험은 또한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이 모범이 되는가 못되는가에 따라서 아래일군들이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떤 일에서나 지도일군들이 모범이 되고 이신작칙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80페지)

이신작칙은 군중을 교양하고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대중동원방법이다. 지도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몇백

마디의 말보다도 더 큰 감화력과 위력을 가지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쥔 지도일군들이 투쟁의 기수가 되고 인격의 나팔수가 되여 군중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힘있게 이끌어나갈 때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제기되여도 그것을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지난 기간 삼천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모든 지도일군들이 지방원료기지를 꾸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도록 그들을 힘있게 이끌어줌으로써 맡겨진 과업을 원만히 수행해낼수 있었다.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하라는것은 결코 대중과 같이 일이나 수걱수걱하라는것이 아니다. 일도 하고 대중을 격동시키는 선동도 하면서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어 그들을 로력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것이 일군들이 보여주어야 할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이다.

우리 지도일군들은 원료기지를 개간하는 전과정에 언제나 현장에서 긴장한 전투를 벌렸으며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일 때마다 직접 선동원이 되고 속보원이 되여 방송도 하고 속보도 써붙이면서 그들을 투쟁과 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군중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현실에서 걸리고있는 고리들도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풀어나갔다.

어려운 과업이 나설 때 앞장에 서서 난관을 헤쳐나가며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군들의 이신작칙의 모범은 대중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게 된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안의 지도일군들은 늘 현실에 들어가 걸린 고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원료기지를 꾸릴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었다. 원료기지에 동원된 일부 운전수들이 복잡한 지형조건을 앞에 놓고 주저할 때 책임일군들이 뜨락또르에 올라 조향간을 틀어쥐고 그것을 능숙하게 극복해나가기도 하였으며 원료기지를 개간한 다음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수백톤의 소석회를 마련해야 할 과업이 나섰을 때에도 그것을 앞장에서 해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주체농법을 잘 관철하지 못할 때에는 지도일군들이 솔선 모범을 보이면서 그대로 따라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실정에 맞게 주체농법학습을 조직하여 모두가 과학기술적으로 농사일을 해나가도록 이끌었다.

우리 당이 밝혀준대로 군당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일군들이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가지고 사업함으로써 원료기지를 꾸리는것을 비롯하여 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오늘 삼천군안의 일군들은 이신작칙하는것이야말로 광범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방법이라는것을 깊이 체득하고 자신들의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지난 기간 삼천군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는 당의 정책적요구에 비해볼 때 초보적인것에 불과하며 우리 앞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지방원료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여 원료생산을 끊임없이 늘임으로써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계속 높여나갈 불같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당사업을 개선하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당과 수령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이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밑에 강화발전되는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

친선과 단결은 사회주의력량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밑에 친선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의 계급적뉴대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공동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고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1982년 9월에 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중국방문과 1983년 6월에 있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 그리고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진행된 경애하는 수령님의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은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 아세아의 동방으로부터 쏘련, 뽈스까,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체스꼬슬로벤스꼬, 웽그리아, 유고슬라비아, 벌가리아, 로므니아 등 구라파의 중심부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펼쳐진 위대한 친선의 뉴대를 더욱 강화한 이 뜻깊은 방문을 통하여 형제나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단결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력량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 *

공산주의혁명위업은 형제당, 형제나라들의 국제적뉴대를 통하여 승리적으로 추진된다. 사회주의나라들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은 혁명의 전진과 더불어 끊임없이 강화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사회제도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관계에 놓여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전반적인 사회주의력량이 확대되고 제기된 혁명과업이 방대할수록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단결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며 매개 나라들에서 혁명과 건설이 추진될수록 단결과 협조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게 된다. 사회주의력량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된 오늘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전반적인 사회주의력량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국제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통하여 강화발전되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키며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공고발전시키는것은 매개 나라 당들과 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서는 숭고한 임무이다.

80년대 국제정치생활에 불멸의 자욱을 남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 방문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형제당, 형제나라들의 전통적인 친선과 국제주의적련대성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을 강화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됩니다.》

사회주의의 위력은 단결과 협조에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매개 나라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봉쇄와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전체 사회주의력량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위력을 가지고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설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 쏘련 및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방문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가일층 강화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한 력사적사변이다.

단결은 로동계급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로동계급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단결을 가장 귀중한 무기로 삼아왔으며 단결의 힘에 의거하여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왔다. 로동계급의 단결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함에 따라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정치사상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관계로 더욱 발전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의 친선단결의 위대한 기치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이다.

국제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들인 맑스와 레닌에 의하여 창시되고 세계혁명이 전진함에 따라 더욱 발전풍부화된 맑스-레닌주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가지고 자유와 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새 시대에 들어서게 하였다.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은 본래부터 국제주의적이며 로동계급의 국제적련대성은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에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로 나타난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는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승리한 혁명을 튼튼히 보위하고 인류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확고히 담보한다.

국제로동계급의 친선과 단결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한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는 오늘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은 형제당, 형제나라들이 호상관계의 규범을 철저히 지키는 과정을 통하여 진실로 동지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발전한다.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동지적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의 호상관계의 규범은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이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고수하고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충실할때 철저히 준수될수 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밑에 친선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적극적인 활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 외국방문을 계기로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쏘련방문은 전통적인 조쏘친선을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이번 방문과정에 조쏘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영원히 함께 싸워나가려는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의가 표명되였다.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쏘련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

장인 까. 우. 체르넨꼬동지는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맺어진 조선과 쏘련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성과적으로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면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쏘련정부는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사회주의적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우리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것을 여기에서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라고 확언하였다.

형제당, 형제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친분관계를 두터이하고 동지적우애를 깊이하는것은 사회주의력량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의 바탕에는 당과 국가 지도자들의 두터운 동지적믿음과 혁명적의리가 놓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에 형제적사회주의나라 당 및 국가의 최고지도자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시고 동지적이며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회담들을 진행하시였다. 이 과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형제당, 형제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우정과 친분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우리 인민과 다른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의 전투적친선단결의 뉴대가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는 《나와 김일성동지사이에 맺어진 훌륭한 친분관계가 로므니아와 조선사이의 전반적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는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였으며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또도르 집꼬브동지는 조선과 벌가리아사이의 관계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과 사회주의와 평화 위업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일하려는 우리의 공동의 지향과 목적에 기초하여 맺어진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된 회담들에서는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였으며 견해의 일치가 이루어졌다. 회담과정에 이루어진 견해의 일치는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호상리해와 동지적협조의 정신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확고한 립장의 표시로 된다.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 당 및 정부의 지도자들은 우리 나라와의 관계가 상승일로를 따라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상봉과 회담들에서 도달된 합의정신들이 앞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추동력으로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 외국방문이 계급적형제이며 혁명전우들인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이번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또하나의 크나큰 업적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 외국방문은 또한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의 중요한 일환을 이루고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동방초소를 튼튼히 지켜 세계적범위에서의 공산주의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으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지지성원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더욱 다그치도록 우리 인민들을 고무한다.

우리 인민의 투쟁에 언제나 깊은 관

심을 돌려온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혁명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은 우리 당이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성과들을 자신의 성과처럼 기뻐하면서 우리 당이 제시한 웅대한 경제건설목표들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국제적련대성은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를 통하여 끊임없이 강화발전된다.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를 실현하는것은 오늘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새로운 방대한 과업이 제기됨에 따라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방문과정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 그리고 이룩된 합의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계속 확대발전시키도록 확고히 담보함으로써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힘있게 추동하며 서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게 하였다.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 당과 정부 지도자들과 인민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규탄하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우리와 미국, 남조선 사이에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에 굳은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쏘련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까. 우. 체르넨꼬동지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쏘련인민의 변함없는 확고한 련대성을 다시금 천명하였으며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는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이 앞으로도 평화와 사회주의건설과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을것이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언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련대성의 목소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방문하시는 나라마다에서 높이 울려퍼졌으며 세계의 수많은 신문, 통신, 방송들도 이 사실을 광범히 소개선전하면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되며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다그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깊은 관심속에서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방문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고 반제투쟁을 힘있게 추진시키는데서 거대한 기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모험적인 〈힘〉의 정책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국제정세는 매우 긴장하여지고있으며 지구우에는 새 세계전쟁의 위험이 날로 짙어가고있습니다.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반제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제국주의의 지배와 략탈이 존재하는 한 그를 반대하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불가피하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열핵전쟁을 일으키고 인

류를 무서운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를 대대적으로 집결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새 전쟁의 위험성은 아세아에도 있고 구라파에도 있으며 전쟁이 아세아에서 터지건, 구라파에서 터지건 그것은 곧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번지게 될수 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군비경쟁과 핵전쟁도발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현시기 견결한 반제적립장을 지키지 않고서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없으며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없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으며 오직 견결한 반제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하고 튼튼히 지켜낼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방문은 국제혁명력량의 위력을 강화하여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제국주의와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은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력량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지지파산시키며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회주의력량이 반제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계급적전우로서 굳게 뭉쳐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해나갈 때 세계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튼튼히 수호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 방문을 통하여 사회주의력량을 분렬시켜 각개격파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철저히 짓부셔지고 하나의 대오에 굳게 뭉쳐 전진하려는 형제당, 형제나라들의 일치한 혁명적립장이 표명되였으며 단합된 사회주의나라들의 위력이 힘있게 시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구라파에 비핵지대를 창설하며 나토와 와르샤와조약참가국들사이의 평화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이고있는 쏘련을 비롯한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의 노력과 서구라파나라들에 미제의 신형중거리핵미싸일이 배비되는것과 관련하여 취한 대응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하시였으며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형제당, 형제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시였다. 한편 사회주의나라 당과 국가 지도자들은 아세아대륙과 태평양지역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미제의 책동을 견결히 규탄하고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의 팽창주의적이고 신식민주의적인 야망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사회주의의 동방초소와 서방초소를 하나로 련결시키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 쏘련을 비롯한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방문이 가지는 또하나의 커다란 의의가 있는것이다.

력사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격동시킨 수많은 사실들을 알고있으며 이러한 사변들로 하여 미래에로의 인류의 전진은 힘있게 다그쳐졌다.

수만리의 머나먼 로정을 따라 쉬임없이 진행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맺어진 우리 나라와 쏘련 및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의 새로운 개화기를 마련하고 계급적형제들의 전통적인 국제적련대성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방문과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에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세계혁명발전에 기여하신 크나큰 공헌으로 하여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인민들 속에서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령도자로 높은 존경을 받으시였다. 형제당, 형제나라의 지도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걸출한 활동가로, 현시기 세계혁명의 공인된 지도자로 높이 칭송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시대의 혁명발전에 보다 큰 공헌을 하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은 수령님을 진심으로 열렬히 흠모하면서 가장 뜨겁게 환영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당 및 국가 지도자들과 인민들 속에서 이처럼 높은 존경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더없는 영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통하여 이룩하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전투적인 친선단결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혁명적립장이며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을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해나가는 한편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38페지)

우리 당과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자기앞에 맡겨진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충실함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공동의 위업을 실현하는 과정에 맺어진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정치, 경제, 문화등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할것이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폭넓은 교류와 합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그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언제나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왔으며 앞으로도 반제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우리는 미제와 직접 맞서 사회주의의 동방초소를 튼튼히 지키는 한편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기앞에 맡겨진 국제주의적임무를 끝까지 수행해나갈것이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정세를 날로 긴장시키면서 분별없이 책동하고있지만 평화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극치를 이룬 남조선사회

김 광 수

최근 전두환괴뢰도당은 이른바 《빈부격차의 축소》와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나오면서 마치도 저들이 남조선에서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 빈궁과 민생고를 해결이나 할듯이 떠들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의 이러한 주제넘은 설교는 결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비참한 생활난을 해결하고 경제생활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천년래의 민생고를 빚어낸 제놈들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불만을 미사려구로 무마함으로써 식민지통치체계의 위기를 모면해보려는것이다.

사실상 오늘 남조선은 《부익부, 빈익빈》이 세계의 그 어느곳보다도 가장 심하고 경제적으로 극도로 불평등한곳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빈부의 차이가 날로 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이며 근로대중을 기아와 빈궁에로 몰아넣는 암담한 생지옥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601페지)

일반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란 부자는 날이 갈수록 더 큰 부자로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가난에 쪼들리게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은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적모순과 불평등을 뚜렷이 반영하고있는 자본주의제도의 합법칙적현상이다.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국가독점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독점자본가들이 정치기구와 경제명맥을 틀어쥐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극심하게 나타나고있다.

미국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그의 가장 뚜렷한 례증으로 된다.

자본주의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하다고 자처하는 미국에서는 레간의 반인민적인 경제정책과 군비증강책동으로 말미암아 소수 독점자본가들이 날로 부유해지고있는 반면에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은 령락되여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다. 그리하여 미국에는 지금 3,000만의 실업자와 반실업자가 있으며 집도 없고 기아선상에서 헤매고있는 400만의 사람들이 항시적으로 거리를 방황하고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제국주의의 지배밑에 있는 식민지나라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특히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침략과 략탈의 원흉인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미국독점자본이 중요경제명맥을 틀어쥐고있고 그 주구인 전두환괴뢰도당의 특권층이 《국민총생산》의 압도적부분을 장악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사이의 재산과 소득, 생활 수준상의 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있으며 그것이 사회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곳보다도 비할바없이 큰것이다.

남조선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극치를 이루고있는 인간생지옥이다.

남조선에서 커다란 사회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나서고있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무엇보다도 재부에 대한 소유에

있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차이가 극심한데서 나타나고있다.

사회의 재부 특히 생산적재부에 대한 소유는 경제적평등을 가늠하는 기본내용으로 된다.

남조선에서는 재부의 대부분이 한줌도 못되는 전두환괴뢰특권층의 수중에 집중되고있다. 그리하여 반동관료배와 매판자본가, 지주와 괴뢰군부상층놈들이 남조선의 재부의 거의 전부를 틀어쥐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오늘 남조선에서는 전체 주민의 0.3%밖에 안되는 반동적인 특권층놈들이 남조선재산의 45%정도를 장악하고있다고 한다.

전두환괴뢰도당의 특권층놈들은 남조선재산의 근 절반을 차지하고있을뿐아니라 교활한 방법으로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탁탈하여 저들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고있다.

남조선에서 가장 큰 10대《재벌》의 재산총액은 1960년부터 1977년까지의 17년동안에만 하여도 36억원으로부터 무려 6,116억원으로 늘어났다. 오늘 남조선의 30대《재벌》은 《국민총생산》의 76%를 차지하고있으며 1억평에 달하는 부동산(시가로 3조 5,000억원)까지 틀어쥐고있다.

이것은 《부자》의 재산의 증가속도와 그 편중도에 있어서 남조선이 세계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말해주는것이다.

다른 한편 남조선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무산화》과정이 급속도로 촉진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의 미국잉여농산물도입정책과 반동적인 농업정책으로 말미암아 농민경리는 대대적으로 령락파산되고있으며 수백만의 농민들이 땅과 집을 잃고 품팔이군으로 전락되였다. 어민, 수공업자, 도시소상인들도 일감과 일터를 빼앗기고 실업자와 도시빈민, 임금로동자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최근 20년간 남조선주민의 40%를 이루고있는 최하층사람들의 생활처지는 계통적으로 악화되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남조선이야말로 매국배족행위를 하는 미제의 앞잡이들만이 《부자》가 되고 재부를 늘일수 있으며 근로대중은 가난에 쪼들리여 시들어가고있는 인간생지옥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남조선이 권세없고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당해야 하는 망조가 든 썩고 병든곳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또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사이의 소득수준상 차이가 날로 커지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소득은 재부를 마련하고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물질적부를 얻을수 있게 하는 원천이며 계급사회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부자》의 소득은 날을 따라 커지고있다.

남조선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82년에 어느 한 《재벌》의 총무라는자는 1년에 근 100억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자가 한해동안에 긁어모은 소득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어느 한 출판물까지 남조선《재벌》의 총무라는자들의 하루동안의 수입이 적어도 1억원에 이르고있다고 폭로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특권족속들은 특히 각종 부정부패행위를 통하여 저들의 소득을 끊임없이 증대시키고있다. 이미 세상에 드러난바와 같이 남조선의 특권계층들은 사기적인 무역거래와 은행에서의 부정대출, 《어음사기》와 뢰물 등 각종 교활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이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이 정권을 가로챈 이후에만 하여도 남조선에서는 전례없는 부정부패사건인 《리철희, 장령자부부

이용사기사건》, 《명성그룹금융부정사건》, 《미국산부정도입사건》, 《[illegible]사건》 등이 련이어 일어났다. 전두환괴뢰도당의 장인이라는자는 《명성그룹금융부정》행위를 감행하여 무려 11[illegible] 1,3[illegible]만원(1,400여만딸라)을 가로채먹었다.

전두환괴뢰도당의 특권층놈들은 이처럼 형식상의 《법》과 《규범》의 초보적인 요구마저 짓밟고 저들의 재산을 더 많이 긁어모으기 위하여 온갖 부정부패행위를 일삼고있는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로동자와 농민 등 근로대중의 소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줄어들고있다.

로동자들의 대다수는 월생계비의 3분의 1도 되나마나한 매우 적은 로임을 받고있다. 이러한 소득규모는 자본주의나라 로동자들의 로임에 비하여 10분의 1밖에 안되는것이다.

농민들의 소득도 한심한 형편에 있다.

영농비지출은 해마다 늘어나고있으나 농가들의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있으며 농민들이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70년에 농가들이 진 세대당 부채액이 20만원이던데 1983년 7월에는 그것이 17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공식통계자료는 농가들의 어려운 형편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로동자와 농민뿐아니라 중산층의 소득도 줄어들고있다.

중소기업가들은 남조선경제에 대한 미일독점자본과 매판재벌의 독점과 전횡, 괴뢰도당의 조세수탈과 금융적압박 등으로 말미암아 경영유지와 생활에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파산몰락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의 반동적인 저임금정책에 의하여 봉급생활자들도 생활난에 허덕이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등 《부자》와 [illegible] 《빈자》사이의 [illegible]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날로 증대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또한 남조선사회의 반동통치배들과 일반주민들사이의 극심한 생활상차이에서도 나타나고있다.

막대한 재산을 모으고 엄청난 [illegible] 얻고있는 매국배족의 무리들인 [illegible]의 반동관료배들과 매판자본가들은 극히 사치하고 방탕한 나날을 보내고있다. 이자들은 말그대로 사치와 [illegible] 극치에 이른 《천당》생활을 누리고있다. [illegible] 놈들은 자본주의나라들의 억만장자들도 무색할 정도의 《호화주택》과 《[illegible]장》, 《호화무덤》 등을 꾸려놓고 [illegible]식하면서 《영원한 극락》생활을 [illegible] 있는것이다. 지어 남조선의 반동통치배들과 매판자본가들은 먹고 입고 쓰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다른 나라들에서 끌어들여다가 사리사욕과 호화로운 생활에 탕진하고있다.

그러나 근로대중의 생활처지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였거나 일자리가 있다 하여도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는 무려 1,000만명이나 된다. 일자리를 간신히 유지하고있는 로동자들도 기아임금에 명줄을 걸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대부분이 변변한 집을 쓰지 못하고있으며 셋방이나 [illegible] 토굴집과 판자집에서 살고있다.

로동자와 농민들은 또한 날로 늘어나는 세금과 학비, 치료비 등 각종 과중한 부담으로 극심한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다.

한평의 [illegible]를 《국민학교》에서 [illegible] 1,[illegible] 있는 [illegible] 별으로 [illegible] 오늘의 남조선 [illegible] 조건 [illegible] 생활난에 [illegible] 그것은 로동자와 농민들은 [illegible] 수 없으며 [illegible] 할수 없는 [illegible] 있다.

…를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중소기…들 속에서는 자기의 불행한 처지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참…날로 늘어나고있다.

…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1960년대…년 평균자살건수가 2,000여건이였…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것은 무…만건이상에 이르고있다.

…반 사실은 미제가 강점하고있는 남…사회란 식민지파쑈독재가 판을 치…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말살되고있…암흑사회일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극심한…평등하고 썩어빠진 생지옥이라는것을…히 보여주고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남조선의…회경제제도의 필연적산물이다.

…남조선의 식민지적사회경제제도는 사…적부를 극도로 불공평하게 분배함…로써 소수 반동적특권층들은 날로 부…해지는 반면에 절대다수의 근로대중…더욱더 령락되여 비참한 생활에서…허덕이게 하고있다.

미국독점자본과 전두환괴뢰도당의 특…권층이 판을 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낮…은 곡물가격과 눅은 임금에 기초하여…조성된 《국민소득》의 압도적부분이 미…일독점자본에 의하여 …탈당하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반동관료배와 매판자본가, 지주와 괴뢰군부상층놈들의 수중에 들어가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근로대중에게 차례진 보잘것 없는 《소득》마저 각종 명목으로 또다시 추가적으로 략탈하여 제놈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있다.

이리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악순환》을 거듭하여 《부자》는 더 큰 《부자》로, 가난한 사람은 더욱 쪼들리게 되는것이다.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이 지배하는 식민지경제체계가 존속되는 한 남조선에서 재산과 소득의 공정한 분배나 경제생활에서의 참된 사회적평등이란 있을수 없다.

남조선사회에서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고 모든 근로대중이 고르로운 물질문화적생활을 누리자면 오직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전두환괴뢰도당을 타도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비참한 민생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남조선사회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화근인 미제를 몰아내고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날로 앙양되고있는 구라파인민들의 반전, 평화옹호 투쟁

주 현 옥

지금 구라파대륙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핵전쟁의 위협이 날로 커가고있다.

미제는 구라파에서 침략적군사블럭인 나토를 계속 강화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신형중거리핵미싸일을 이 지역에 배비함으로써 구라파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성을 조성하고있으며 구라파와 세계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구라파대륙에는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떠돌고있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핵무기들이 서부독일에 배치됨으로써 독일땅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성이 조성되고있으며 구라파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심히 위협당하고있습니다.》

오늘 구라파에 조성된 정세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구라파인민들은 구라파대륙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전, 평화옹호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 힘차게 벌리고 있다.

구라파인민들의 반전, 평화옹호 투쟁은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구라파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위업이다.

지금 구라파인민들의 반전, 평화옹호 투쟁이 앙양되고있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구라파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 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우세》로 사회주의를 《소멸》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군비경쟁에 미쳐날뛰고있으며 서구라파나라들에 신형중거리핵미싸일을 끌어들여 이 지역의 정세를 극도로 첨예하게 만들고있다.

구라파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특히 레간행정부의 등장과 때를 같이하여 더욱 큰 위험성과 악랄성을 띠고 계단식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다.

력대 미행정부가운데서 가장 반동적이고 호전적인 현 레간정부는 구라파와 아세아, 나아가서 세계를 지배하는것을 대외정책의 총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 야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힘의 정책》을 강행하고있다.

호전광인 레간의 정책은 《힘의 정책》이며 그것은 다름아닌 《핵전쟁정책》이다. 레간도당은 《핵우세》를 배경으로 하여 인민들을 위협공갈하고 세계를 제패해보려고 망상하고있다.

미제는 모험적인 핵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서구라파를 지배하는것을 구라파전략의 기본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를 구라파에서의 《절대적인 핵우세》를 차지하는데서 찾고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1979년 제2차전략무기제한협정(살트 2)이 체결된 이후에도 중거리핵미싸일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구라파에 전개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특히 미제는 1979년 12월에 있은 침략적인 나토국방부장회의에서 미국제 신형중거리핵미싸일인 《퍼싱 2》미싸일과 순항미싸일을 서구라파 나토성원국들에 배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그를 집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미 서부독일, 영국, 이딸리아 등지에 신형중거리핵미싸일의 제1진을 배치하여놓

왔다. 미제는 나토의 본래의 결정대로 미싸일배치를 다그쳐보려고 날뛰고 있다.

나토의 결정에 의하면 1983년 12월부터 1988년까지 도합 572기의 《퍼싱 2》미싸일과 순항미싸일을 서구라파에 배치하기로 되여있다고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선제타격무기인 《퍼싱 2》미싸일과 순항미싸일을 이러한 계획대로 나토성원국들에 배비함으로써 구라파에서는 정세가 긴장하게 되였고 핵전쟁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구라파전략을 실현해보려고 이처럼 《핵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책동을 다그치는 한편 나토성원국들을 저들의 핵전쟁희생물로 리용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오늘 《핵우세》로써 구라파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이 미제의 구라파전략의 총적방향이라면 나토의 핵무장화를 다그쳐 나토나라들을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대포밥으로 내모는것은 미제의 구라파전략의 기본내용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나토성원국들에 미국제신형중거리핵미싸일들을 대대적으로 배비하면서 《한정핵전쟁》이요, 《국부핵전쟁》이요 하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은 유사시 서구라파《동맹국》들을 저들의 《핵인질》로, 《핵피뢰침》으로 삼아 희생시키는 대가로 미국의 안전을 《담보》해보려는 미제의 음흉한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미제는 바로 신형중거리핵미싸일들을 서구라파에 배비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나 《핵우세》를 차지할것을 꿈꾸고있으며 그에 의거하여 구라파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을 위협공갈하고 《힘의 정책》을 마음대로 실시해보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이다. 또한 미제는 나토《동맹국》들을 저들의 전쟁마차에 더욱 얽어매며 나아가서 전구라파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해보려고 어리석게 타산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광란적인 핵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구라파는 전면핵전쟁의 불씨를 안고있는 극히 위험한 새 전쟁발원지의 하나로 급속히 전변되고있으며 구라파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은 구라파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구라파에서는 중성자무기의 생산과 배치를 반대하며 핵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습니다.》(《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단행본, 53페지)

구라파인민들의 반전, 평화옹호 투쟁은 미제의 로골화되는 새 전쟁도발책동과 핵전쟁위협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진보적운동이다.

현시기 구라파인민들의 반전, 평화옹호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그것이 강력한 반미대결투쟁으로 벌어지고있는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제의 핵공갈정책에 대처하여 쏘련과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취하고있는 대응조치들에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서구라파에 배비되고있는 미국의 신형중거리핵미싸일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선제타격할것을 목적하고있는것만큼 그것은 쏘련과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쏘련은 구라파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일련의 긍정적인 제안들을 내놓음으로써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이 끝끝내 서구라파에 중거리핵미싸일을 배치하는데로 나아감으로써 쏘련은 1981년 11월말부터 제네바에서 진행하여온 쏘미중거리핵미싸일축감회담을 중지하고 미제의 핵무력증강책동에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구라파에

서 일방적인 《핵우세》를 차지해보려는 미제의 망상은 좌절되고있다.

반전, 평화옹호 투쟁의 반미적성격은 서구라파인민들의 투쟁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서구라파인민들속에서는 이미전부터 미제와 나토성원국들이 추구하는 핵전쟁정책이 어떤 후과를 가져오겠는가를 우려하면서 미제의 핵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왔다. 특히 1982년 레간의 구라파행각과 때를 같이하여 구라파인민들의 반전, 반핵 투쟁은 더욱더 미제에게 집중되면서 적극화되고있다.

레간놈이 서부베를린에 기여든 1982년 6월 10여만명의 이곳 주민들이 반미폭력시위투쟁을 벌려 미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반전, 반핵 평화옹호투쟁은 서구라파나라들에서 매일과 같이 련이어 일어났다. 1982년 봄 화란과 벨지끄, 이딸리아, 노르웨이를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수십만의 근로자들이 참가한 반전, 반핵 투쟁에 이어 프랑스, 영국, 이딸리아에서 레간놈의 서구라파행각과 군비경쟁책동을 반대하여 50만명에 달하는 군중이 시위를 벌리였다.

1983년에 들어서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새로운 순항미싸일과 《퍼싱 2》미싸일을 구라파지역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로골화함에 따라 반전, 반핵 평화옹호투쟁은 더욱 광범히 치렬하게 벌어지게 되였다.

지난해 12월을 전후하여 서부독일과 영국, 이딸리아 등지에 미제의 신형핵미싸일들이 배비되게 되자 분노한 서구라파인민들은 《서구라파에 미국핵미싸일을 배치하는것을 반대한다!》, 《양키는 미싸일을 걷어가지고 제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미국의 피묻은 무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웨치면서 대중적인 항의시위를 벌렸다.

올해 6월 런던에서는 약 20만명의 각계각층 근로자들이 《7개 선진국수뇌자회의》를 계기로 레간의 군비확장과 핵전쟁정책에 항의하여 대중적인 시위와 집회를 진행하였으며 레간에게 중거리핵미싸일을 서구라파에서 당장 철수할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핵전쟁 도발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사회주의나라들에서뿐아니라 나토에 가입하고있는 나라 인민들속에서도 광범히 벌어지고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구라파인민들의 반전, 평화옹호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이 투쟁이 대중적인 투쟁으로서 폭넓게 진행되고있으며 완강성을 띠고있는것이다.

미제가 서구라파에 신형핵미싸일을 배치하기 시작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과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반핵투쟁월간이 련이어 전개되였다.

쏘련에서는 지난 5월말에 끝난 반핵투쟁월간에 무려 7,600만명의 각계층 인민들이 시위와 집회에 참가하였으며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서도 광범한 사회계층이 반핵투쟁에 참가하여 미제를 단죄하는 목소리를 높이였다.

반전, 평화옹호 투쟁에는 서구라파나라들에서도 광범한 계층이 망라되고있다.

지난해 10월 《전구라파반핵행동의 날》을 전후하여 서부독일, 화란, 이딸리아, 에스빠냐, 희랍, 단마르크, 벨지끄를 비롯한 13개의 나라들에서 400여만명이 떨쳐나 반핵시위에 참가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런던에서는 20만명의 근로자들이 반핵시위에 떨쳐나섰고 이딸리아의 씨칠리아섬에서는 수십만명의 각계층 인민들이 시위와 집회를 열고 미제의 핵전쟁책동을 규탄하였으며 서부독일에서는 수천명의 시위자들이 미제침략군기지에 뚫고들어가 핵미싸일을 실어오는 수송기와 자동차들을 파괴해버렸다. 단마르크의 코펜하겐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벌어진 100만여명의 각계층 인민들의 반전, 반핵 시위투쟁에 의하여 정부기관들과 공장, 학교, 교통, 체신 부문들이 마비상태에 빠져들어갔으며 희랍의 아테네에서도

수십만의 근로자들이 항의시위투쟁을 계속하였다.

서구라파인민들의 대중적인 투쟁에 호응하여 미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련대성시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구라파인민들의 반전, 평화옹호 투쟁은 지금 사회의 각계각층을 포괄하는 거대한 규모에서 진행되고있으며 하나의 광범한 전선을 형성하고있다. 이 투쟁에는 실로 로동자뿐아니라 정계인사들과 국회의원들, 심지어는 군인과 경찰들까지 합류하고있는것이다.

현시기 구라파나라들에서의 반전, 평화옹호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투쟁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더욱더 조직적으로 전개되고있는것이다.

미제의 핵전쟁정책을 반대하여 서구라파의 광범한 인민들이 집회와 시위, 파업을 진행하고있으며 그것이 폭력적 형태로 번져가고있다.

반전, 평화옹호 투쟁은 더욱더 조직성을 띠고있다.

서부독일, 벨지크, 영국, 화란을 비롯한 나토나라들에서 진행된 세계적인 반전, 평화 회의와 토론회는 그것을 잘 말해준다. 지난해 11월 서독사회민주당은 당대회에서 미제의 핵미싸일배치를 반대하기 위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세계평화리사회는 12월 4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을 미국핵미싸일의 서구라파배치를 반대하는 행동주간으로 정하고 공동행동을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반전, 반핵 평화옹호투쟁은 더욱더 조직화되고 적극화되고있다.

반전, 반핵 평화옹호투쟁은 이와 같이 미제의 《동맹국》들인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광범히 일어나고있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나 투쟁형태에 있어서 또 그 조직성에 있어서 새로운 특징을 나타내면서 치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서구라파인민들의 반전, 평화옹호 투쟁은 미제와 나토성원국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화란, 벨지크, 단마르크 등 일련의 나토성원국 지배층들은 자기 나라에 미국제 신형핵미싸일을 배치하는 문제를 반대하거나 보류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서구라파인민들이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에 분연히 일떠서고있는것은 《동맹국》들을 업수이여기면서 자기들을 《핵인질》로 만들어 참혹한 죽음을 강요하려는 미제에 대한 쌓이고 맺힌 울분과 격분의 폭발이다. 그것은 또한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인류에게 또다시 새 전쟁, 핵전쟁 참화를 들씌우려는 미제에 대한 응당한 단죄이며 의로운 투쟁이다.

제반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구라파에서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미쳐날뛰고있지만 그 범죄적성격으로 하여 놈들은 구라파와 세계 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더욱더 고립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궁지에 빠진 레간도당은 지금 미국이 동서방관계의 긴장성을 완화시키는데 그 무슨 관심이라도 가지고있는듯이 가장해나서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레간도당이 미국인민들과 구라파인민들의 불만과 항의를 누잦히고 국내선거자들의 환심을 사서 다가오는 미국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위한 유리한 정치적밑천을 마련하며 나아가서는 조성된 긴장한 국제정세의 책임을 사회주의나라들에 넘겨씌워보려는 교활한 책동인것이다.

미제는 그 어떤 교활한 책동으로써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핵전쟁광신자, 새 전쟁 도발자로서의 저들의 흉악한 정체를 감출수 없다.

오늘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미제의 격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은 놈들을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몰아넣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안팎으로 궁지에 빠진 저들의 처지를 구원해보려고 핵무기를 휘두르면서 《힘의 정책》에 매여달리고있으며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으나 그것

이 결코 구면책으로 될수 없다.

현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세계인민들속에서 더욱 고립배격당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진보적력량과 평화애호력량은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미제에 집단적으로 공격을 들이대여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아세아와 구라파 그리고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광적인 군비확장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다른 나라들에 있는 미제의 군사기지들을 철폐하고 미제침략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철수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의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확대하며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철폐를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미제가 핵무기를 휘두르면서 《힘》으로 다른나라 인민들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핵공갈로써 저들의 침략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반전, 평화옹호 투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핵전쟁도발책동에 더는 매여달리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과 구라파에 끌어들인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침략무력을 당장 철수하여야 한다.

오늘 아세아와 구라파에 조성된 정세는 모든 반제력량이 단합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며 확고한 립장이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군비경쟁정책과 핵전쟁책동을 단호히 배격하며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력량이 더욱 굳게 단합하여 견결히 투쟁할 때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핵전쟁 도발책동은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부패하고 퇴페적인 미국식생활양식

리 영 환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널리 류포시켜 사람들을 정신도덕적으로 타락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고있는 부르죠아생활양식가운데서도 그 전형을 이루는것은 가장 부패하고 퇴페적인 미국식생활양식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식생활양식과 인간증오사상은 남조선에서 륜리와 도덕을 파괴하며 우리 인민의 유구한 민족문화와 아름다운 생활풍습을 짓밟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499페지)

미국식생활양식은 인간의 건전한 륜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극도로 타락케 하는 반동적인 생활양식이다.

일반적으로 생활양식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해당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본질적내용은 해당 사회제도의 계급적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착취사회에서의 지배적인 생활양식은 언제나 그 계급적성격으로부터 출발하여 반동성과 부패성을 띠게 된다. 봉건사회에서는 부패한 량반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봉건적생활양식이 지배하게 되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반동적인 자본가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부르죠아생활양식이 지배하게 된다.

미국식생활양식이 가장 부패하고 퇴페적인 생활양식으로 되게 된것은 그 형성의 사회력사적근원과 관련되여있다.

양키족속들로 말하면 15세기말에 아메리카대륙이 발견된후 영국을 비롯한 서구라파나라들에서 건너간 해적들과 살인강도, 전달군들이였다. 북미대륙에 피묻은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놈들은 원주민인 인디안들을 마구 학살하여 멸족시키고 그 무덤우에 미국이라는 강도의 나라를 세웠다. 그들은 황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말라는 강도적사고방식에 따라 이르는곳마다에서 원주민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재물을 강탈하였으며 온갖 사기와 협잡, 피비린내나는 침략전쟁으로 령토를 확장하였다.

해적적략탈과 노예무역, 침략전쟁과 사기협잡에 의한 령토팽창, 원주민들에 대한 대량적인 학살 등은 북미주대륙을 강점한 양키들의 사고방식으로 되였으며 활동방식으로 되였다.

미국식생활양식은 가장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들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미국식생활양식은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이른바 《프론티아》정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프론티아》정신이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와 략탈을 감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신이 치부하는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생활신조》이다. 이것은 황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모험과 살인, 폭력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강도적사상독소인것이다.

미국식생활양식은 미국에서 광범히 류포된 여러가지 반동사상조류들 즉 자기에게 유익한것이라면 다 《진리》로 여기는 실용주의와 인간활동의 원동력을 인간의 동물적본능에서 찾는 프로이드주의, 비관과 염세, 허무를 부식시키는 실존주의 등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미국식생활양식에서는 황금이 만능이며 따라서 치부가 인간활동의 《최고목적》으로 되고있다. 황금을 위해서는 정치도, 살인도 다 기업으로 삼는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식생활양식은 피비린내나는 침략과 략탈의 력사와 더불어 형성되였으며 반동적인 부르조아사상조류들에 의하여 미화분식된것으로 하여 극도로 반동적이고 부패타락한 생활양식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오늘 미국식생활양식은 자본주의세계에 널리 류포되고있으며 그것은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 엄중한 해독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미제에 의하여 널리 류포되고있는 미국식생활양식의 해독성은 무엇보다도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는 황금만능주의를 부식시키고있는것이다.

오늘 미국에서는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개인의 리익과 향락을 위해서라면 부모형제, 친척, 친우간의 의리도, 사회와 집단, 나라와 민족도 서슴없이 저버리고있다. 뿐만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의 존엄과 명예, 지위와 인격적가치까지도 포함한 모든것이 돈에 의하여 평가되고있다. 그리하여 개인의 리익이 《행동의 기준》으로, 치부가 모든 생활의 《최고목적》으로 되고있으며 돈벌이를 위한 그 어떠한 범죄행위도 다 《정당》한것으로 되고있다.

오늘 미국에서는 돈을 위하여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과 리성, 의리와 량심을 저버리는 추악한 범죄행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한 자본가는 50만딸라의 돈을 위하여 자기의 어머니를 인체보험에 들게 하고는 그가 탄 비행기를 폭파시켜 죽였으며 심지어 돈에 환장이 된 한 녀성은 결혼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8년간에 무려 200여차례나 《남편》을 갈아대며 살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한다.

미국식생활양식은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량심과 의리의 마지막 한쪼각마저 줴버리고 오로지 돈에 굶주린 승냥이가 되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미국사회는 인간의 량심과 도덕의 매장터로, 말세기적인 사회풍조의 전시장으로 되고있다.

미국식생활양식의 해독성은 또한 그것이 사기와 협잡을 고취하여 온갖 죄악을 빚어내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사기와 협잡은 남을 속이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자본주의사회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과렬치한 생활방식이지만 미국에서처럼 사기와 협잡이 성행하고있는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모든 사회관계가 협잡과 사기만으로 얽혀져있다. 《너를 속여야 내가 산다》는것이 미국식의 생활론리로 되고있으며 사기와 협잡, 허위와 기만이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을 지배하고 있다.

우로는 관권과 금권을 배경으로 한 독점자본가들과 반동지배층들의 대규모의 정치, 경제적 협잡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아래로는 하급관리로부터 일반주민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속이고 협잡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현상으로 되고 있다.

사기와 협잡은 특히 독점자본가들과 반동관료배들 속에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으며 그것은 놈들의 출세와 돈벌이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닉슨의 《워터게이트사건》, 레간의 《티베이트게이트사건》과 같은 정치협잡사건 그리고 세계 최대의 경제협잡행위인 《록키드항공회사사건》, 《그라만항공회사사건》, 《벡텔회사사건》 등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른바 국가를 《통치》하고 《관리》한다는놈들부터가 이러한 사기협잡행위를 감행하고있으니 그밑에 있는놈들의 부정부패행위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는것이다.

교활한 의료업자들이 가짜약을 만들어 폭리를 얻고있는것을 비롯하여 건강한 사람들에게 허위진단을 붙여 비싼 진찰비와 약값을 털어내며 학교경영자들이 수험번호에도 없는 유령번호를 합

명단에 올리고 부자집자식들을 입혀 거액의 돈을 받아먹는것과 같은 와 협잡이 사회생활의 구석구석에 일어나고있는것은 그 뚜렷한 실례들.

렇듯 미국사회는 허위와 기만으로 차있으며 사람들간에 서로 속이고 질시하며 물고뜯는것과 같은 현상 자연스러운 일로 되고있다.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야수성을 고하는것은 미국식생활양식이 가져오는 중한 해독성의 하나이다.

인간증오사상과 야수성은 약육강식의 이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서 하나의 생존방식으로 되고있다. 상에 추악한 몰골을 드러내놓는 첫순부터 략탈과 살인, 강도를 본업으로 온 미국자본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오늘 미국에서는 뉴욕을 중심으로 하여 카고, 보스런 등 여러 도시들에 30여의 지부를 두고 6,000여명의 강도들 망라하고있는 세계 최대의 강도단인 마피아》(점은손)를 비롯한 수많은 강단들이 활개치고있으며 이들에 의하 무시무시한 범죄행위가 끊임없이 감되고있다.

미국에서 살인과 강도 사건은 비단 강도단들에 의해서만 감행되고있는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사람을 죽이는것을 기업으로 삼고있는 《살인주식회사》라는 것까지 있는데 이 회사들의 《규정》에 의하면 보통시민을 살해하는데는 500딸라, 정치활동가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2만딸라까지 받는다고 한다.

미국사회에서는 사람들사이에 서로 반목질시하던 나머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때리고 죽이는 현상이 평범한 일로 되고있다.

가정에서 하찮은 일로 하여 옥신각신하다가 안해가 남편을 죽이고 아들이 어머니를 총으로 쏘아죽이며 친구들사이에도 서로 권총을 뽑아들고 죽일내기를 하는것이 오늘 미국사회의 현실이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는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오늘 미국에서는 평균 24분마다 1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있으며 7분마다 1명의 부녀자들이 강간당하고 10초마다 1명의 사람들이 강도들의 습격을 당하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사람의 피를 보고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며 남의 불행과 고통을 쾌락으로 여기는 인간증오사상과 야수성으로 일관된 미국식생활양식의 부패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통치배들까지도 미국이 《국제깽단의 소굴》, 《강도들의 천국》으로 되고있다고 개탄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식생활양식은 또한 사람들에게 부화방탕과 정신적타락을 고취함으로써 엄중한 해독을 끼치고있다.

부화방탕과 정신적타락은 미국식생활양식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육체적향락과 동물적야욕은 정신적공허와 비애에 빠져있는 미국자본가들의 말세기적인 생활풍조이다.

오늘 극도의 부화방탕과 정신적타락에 빠진 미국사람들 특히 미국청년들은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과 포부,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없이 순간의 안일과 향락을 추구하면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것이다.

대낮에 벌거벗고 무리를 지어 학교구내와 거리를 꺼리낌없이 뛰여다니고 길바닥에 나딩굴면서 미친듯이 란동을 부리는것은 미국청년들에게 있어서 보통현상으로 되고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학교의 시설물들을 들부시고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는것도 하나의 향락거리로 되고있다.

미국출판물들이 추려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학교들에서는 한해동안에 7만명이상의 교원들이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있으며 학생들의 기물파괴로 하여 6억딸라이상의 재산피해를 입고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미국의 학교들에서는 교원들이 권총을 차고 강

어떠한가 하면 무장인원들이 경비를 서고있으며 학교입구에는 《무기, 탄약, 칼, 마약 소지자 출입금지》라는 게시판까지 내걸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공허의 출로를 《저승》에서 찾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참극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지난 10년간에만 하여도 미국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2배이상으로 늘어났다.

또한 수많은 미국사람들이 비관과 염세, 절망에 사로잡혀 일신의 향락과 안일만을 추구하던 나머지 인간과 동물과의 한계를 가릴수 없으리만큼 추잡한 생활을 하고있다. 색정주의에 오염된 미국에서는 부화방탕한 생활이 극도에 이르러 10대의 소녀들도 아이를 낳고있는데 그 수는 해마다 무려 60여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모자상간》, 《부녀상간》, 《부부교환》, 《집단결혼》과 같은 동물세계에서나 볼수 있는 저속하고 비렬한 퇴폐풍조들이 사회를 뒤덮고있다. 이것은 부화방탕과 정신적타락을 부식시키고있는 미국식생활양식이 미국사회에 얼마나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식생활양식은 이처럼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부패하고 퇴페적인것들로 일관되여있다.

모든 사실은 미국식생활양식이야말로 현대자본주의사회의 온갖 퇴페풍조와 사회악을 낳는 근원으로서 사람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건전한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사상정신적독소로 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준다.

오늘 가장 부패하고 퇴페적인 미국식생활양식이 홍수처럼 범람하고있는 미국사회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썩고 병들어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썩어빠진 생활양식이 마치 《개성의 자유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는듯이 미화분식하고있으나 그 어떤 궤변으로써도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의 진상을 가리울수 없다. 미국사회는 이미 썩을대로 썩었으며 날이 갈수록 퇴페의 구렁텅이에로 깊숙이 빠져들어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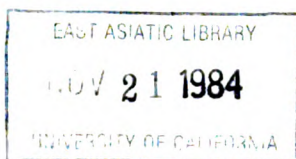
미국식생활양식은 오늘 남조선에도 널리 류포되여 조선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을 짓밟고 인민들의 자주의식을 좀먹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는 말세기적인 퇴페풍조가 더욱더 짙어가고있다.

부패하고 퇴페적인 미국식생활양식이 지배하는 미국과 남조선 사회는 썩을대로 썩었으며 그 멸망은 불가피한것이다.

근 로 자 1984년 제8호(루계 508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84년 8월 1일 발 행 • 1984년 8월 3일

ㄱ—45219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정기간행물번호
제13206호)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9 호

평 양 근로자사 198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9 호(509)

차 례

김 정 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7월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7년이 되였습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참다운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공산주의적교육강령이며 우리 시대 교육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준 력사적문헌입니다.

지난 기간 교육부문일군들이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교육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교육에서 주체가 확고히 서고 교육의 질이 높아졌으며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되여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이 국가의 혜택으로 중등일반교육을 받고있으며 대학이 수많이 일떠서고 120만의 인테리대군이 자라났습니다. 해방후 령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교육사업은 오늘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으며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전체 인민이 공부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되였습니다.

교육사업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사상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민족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교육사업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에는 후대교육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온 우리 교육일군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나는 교육사업에서 우리 교육일군들이 쌓아올린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후대교육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있는 모든 교육일군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부문앞에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인민교육사업과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전국의 교육일군들이 모인 기회에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1.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중요한 요구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어떤 나라와 민족도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사회적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없으며 민족의 존엄과 밝은 앞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사람들을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우며 사회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사회주의교육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입니다.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으며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은 교육에 의하여 원만히 배양됩니다.

물론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활동과정에서도 많은것을 배우며 개조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천활동과정에서 배우는것만으로는 인류가 력사적으로 쌓아놓은 사상과 문화를 충분히 습득할수 없습니다. 특히 새세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로동할 나이가 되여도 사회적실천에 참가하여 제구실을 바로할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류가 쌓아놓은 사상과 문화를 습득하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을 배우고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자질과 풍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것만큼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며 그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자면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사회발전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도 교육사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회발전의 기본령역은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인간개조사업입니다. 사회가 발전한다는것은 결국 자연개조사업이 발전하여 물질적재부가 더 많이 생산되며 사회개조사업이 발전하여 사회적관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변되며 인간개조사업이 발전하여 사람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사상문화적재부를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자라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3대개조사업에서 기본은 인간개조사업입니다. 사회발전을 다그치자면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인간개조사업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하지만 그가운데서도 인간개조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이 사람이며 결국 사람의 사상의식과 문화기술수준에 따라 사회의 발전수준이 규정되기때문입니다.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지 않고서는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높은 속도로 전진시킬수 없습니다. 교육은 바로 사회발전에서 기본을 이루는 인간개조사업을 맡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앞자리에 내세우고 힘을 넣어 빨리 발전시켜야 할 중대한 혁명사업으로 됩니다.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해나가는데서 후대들을 옳게 교육교양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 완성되는 력사적인 위업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때로부터 반세기의 력사가 지나갔으나 주체의 혁명위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아직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였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지 못하였습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완수하려면 앞으로도 오랜 기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떠메고나갈 담당자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입니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장래운명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갈 새세대들을 어떻게 교육교양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는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교대자들인 새세대들을 옳게 교육교양하여야 혁명의 명맥을 굳굳이 이어나갈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으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자면 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교대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도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

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매우 높은 발전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습니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규정하는 본질적차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입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를 전사회적으로 단일화하지 않고서는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에 존재하는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없습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를 단일화하자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것을 방해하는 사회적세력은 없습니다. 지금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지 못하는것은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이 아직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것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아직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사상, 기술, 문화적으로 뒤떨어져있습니다. 농업은 공업에 비하여 기술적으로 뒤떨어져있으며 협동농민들은 로동계급보다 사상문화적으로 뒤떨어져있습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업의 공업화수준을 더욱 높이며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협동농민들의 사상문화수준을 로동계급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려야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길수 있으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있습니다.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자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민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문화수준을 높여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없애야 하며 농업까지도 공업화할수 있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여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길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더욱 높이고 능력있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교육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의 성과가 크게 좌우됩니다. 교육의 수준은 곧 나라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수준으로 되며 문화와 생산력의 발전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교육을 발전시키지 않고 기술혁명과 경제건설의 성과를 바라는것은 한갖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교육사업의 실태는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지난날 우리의 교육사업은 많이 발전하였지만 아직 현실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으며 교육의 질적수준도 그리 높지 못합니다. 특히 기술교육수준은 세계선진수준에 비하여 뒤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혁명을 일으켜 학교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새세대들을 쓸모있는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내며 우리의 교육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일데 대하여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단계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교양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단계에서는 육체적발육이 가장 왕성하게 진행되며 감수성이 빠르고 진취성이 강한 청소년들을 교육교양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세계관의 골격도 서게 되고 사고능력의 기초도 마련되게 됩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단계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사람들의 세계관형성과 지적발전, 품격형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고등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며 사회의 전반적사상문화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통하여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이 중등일반교육을 받게 되며 이 단계를 거쳐서 자기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사회에도 진출하고 대학에도 가게 되며 인민군대에도 나가게 됩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여 모든 새세대들이 완성된 중등일반교육을 받게 하여야 대학들에서 쓸모있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낼수 있으며 사회의 전반적인 사상문화수준을 높일수 있습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중등일반교육의 내용을 옳게 구성하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질은 무엇보다도 교육내용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중등일반교육의 내용

을 옳게 구성하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완성된 중등일반교육을 바로 줄수 있으며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단계의 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습니다.

중등일반교육의 내용은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수 있게 구성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인것만큼 중등일반교육의 내용은 반드시 청소년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워주어 그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할수 있도록 구성되여야 합니다.

중등일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여야 청소년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고상한 품격을 갖춘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울수 있습니다. 중등일반교육에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사상과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중등일반교육에서는 기초과학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수학은 모든 자연과학의 기초로 될뿐아니라 사회현상을 연구하는데서도 중요한 수단으로 됩니다. 수학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과학적인 사고능력을 키워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중등일반교육에서는 수학과 함께 물리학, 화학, 생물학 교육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기초과학분야의 일반지식을 충분히 가르쳐주어야 그들의 인식능력과 응용능력을 빨리 키울수 있으며 나라의 자연과학과 기술과학 발전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할수 있습니다. 세계선진과학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고 과학문화분야에서 국제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가자면 중등일반교육단계에서 외국어교육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중등일반교육에서 주는 기초과학분야의 일반지식과 한가지이상의 외국어를 소유하게 되면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로 될수 있는 과학리론적기초를 튼튼히 닦을수 있습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본고리가 기초과학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학교들에서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교육과 외국어교육에 힘을 넣어 모든 학생들이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단계에서 기술자, 전문가로 발전할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키우며 다른 나라 서적도 볼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중등일반교육에서는 예능교육과 체육교육을 강화하는데도 힘을 넣어야 합니다. 학교들에서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지능교육과 예능교육, 체육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 모든 학생들을 풍부한 문화예술적소양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쓸모

있는 혁명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기초기술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중등일반교육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하자면 그들에게 일반기초지식뿐아니라 필요한 기초기술지식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중등일반교육에서 일반기초지식을 충분히 주면서 기초기술교육을 옳게 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고등중학교시기에 모든 학생들이 전기, 기계에 대한 지식을 비롯하여 현대생산과 결부된 기초기술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기능을 가지며 자동차나 뜨락또르를 비롯하여 생산과 건설에 널리 쓰이고있는 기계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룰줄 알게 하여야 합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중등일반교육단계의 학과목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보고 학생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튼튼히 세워주며 그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합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이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입니다. 자연을 개조하자면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과학적인 기술공정을 정확하게 거쳐야 하는것처럼 사람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자면 인간발전의 법칙에 따르는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쳐야 합니다.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이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들을 능력있는 혁명인재로 키워낼수 없습니다.

학교들에서는 교수사업을 강의일면에만 치우치는 편향을 없애고 교수준비로부터 교수과정, 교수내용의 소화과정과 그에 대한 검열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교육학적과정을 사회주의교육학의 요구에 맞게 잘 맞물리고 교수사업이 그것을 정확히 거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는데서 교육강령에 예견된 형태별교수를 어김없이 집행하며 특히 교수내용을 소화시키기 위한 교수형태를 옳게 적용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것을 배워주어도 학생들이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실험실습과 련습은 배운 리론을 더욱 구체화하고 공고히 하며 응용능력과 실천능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교수형태들입니다. 학교들에서는 실험실습과 련습에 많은 시간을 돌리고 그 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학생들이 집적회로, 전자계산기와 같은 현대화된 과학기술수단들을 직접 다루어보게 하여 거기에 익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교육방법을 개선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방법은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

내용이 옳게 구성되였다 하더라도 사회주의교육의 본성에 맞는 옳은 교육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학생들에게 바로 인식시킬수 없습니다. 교육방법을 개선하는것은 지금 낡은 교육방법이 후대교육사업에 적지 않은 후과를 미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섭니다. 낡은 교육방법은 오늘 교육의 발전을 저애하는 주되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습니다. 교육방법을 개선하여야 교육에서 낡은 잔재를 뿌리뽑고 사회주의교육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습니다.

교육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교수에서 들이먹이는 방법, 베껴주는 방법을 없애고 깨우쳐주는 방법을 구현하는것입니다.

교수에서 들이먹이는 방법, 베껴주는 방법은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키는 매우 유해로운 방법입니다. 교수를 교재내용을 들이먹이거나 베껴주는 방법으로 하고 배운 내용을 기계적으로 외워바칠것을 요구하는 식으로 하여서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사고력을 발달시킬수 없으며 그들에게 사물현상의 본질과 과학의 깊은 리치를 옳게 인식시킬수 없습니다.

학교들에서는 교수내용의 특성과 학생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을 옳게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특히 교수에서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직관교육, 실물교육은 학생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과학적리치를 쉽게 그리고 빨리 인식시키며 그들이 능동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데서 큰 작용을 합니다. 학교들에서는 교육내용의 특성에 맞게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강화하며 학생들이 리해하기 힘들어하는 교수내용일수록 여러가지 형태의 현대적인 직관수단들을 널리 리용하여야 합니다.

교육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시험방법을 고치는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은 교수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소화정도를 검열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시험을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외워바치는 방법으로 쳐서는 학생들의 소화정도도 똑똑히 알수 없고 실력도 바로 평가할수 없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낡은 시험방법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배운 내용에 대한 원리적인 인식과 그 응용능력을 위주로 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방향에서 시험방법을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지고있는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집단의 발전을 보장하면서도 개성의 발전을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특성이며 우월성입니다.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집단의 위력을 적극 발양시킬뿐아니라 사람들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며 그러한 싹을 적극 조장시키고 발전시켜나갑니다. 학생들의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적극 키워주어 남다른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앞으로 나라의 과학기술과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부문에서는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옳게 선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주어 그들을 기

초과학부문과 전문부문의 유능한 인재로 키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하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칠데 대하여

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입니다. 현대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은 그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하여야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높은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고등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고등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기술교육을 잘 하는것입니다.

기술기초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전문기술교육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기술기초교육은 전문기술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초지식을 주기 위한 교육입니다. 기술기초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현대과학과 기술의 기초원리를 깊이있게 습득시켜야 그들이 최신과학과 기술을 더 잘 소유할수 있고 대학기간에 전문지식을 완성할수 있으며 사회에 나가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기술기초교육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해당 전문기술부문의 기초교육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기술기초교육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전문기술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분야가 끊임없이 개척되고 전자계산기와 산업로보트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이 생산에 널리 리용되고있습니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자기 전공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과학기술발전의 최신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여 전문기술교육의 수준을 빨리 높여야 합니다. 특히 기술대학들에서 전자, 자동화 공업부문의 최신과학기술과 현대적인 자동화 요소와 수단들에 대한 교육, 용접과 유압 기술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전공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과학기술발전의 최신성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기술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서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설계교육을 강화하는것입니다. 기술대학들에서는 설계교육에 큰 힘을 넣어 학생들이 어떤 설계도면이든지 다 자유롭게 볼수 있고 여러가지 현대화된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훌륭히 창안설계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주체를 세우는것은 기술교육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기술교육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학생들을 우리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 쓸모있는 기술인재로 준비시킬수 있습니다. 기술대학들에서는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을 많이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공과대학들에서는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우리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풀며 철생산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유색금속 생산과 가공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잘 가르쳐주며 농업대학들에서는 주체농법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발전시키고있는 주체적인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고등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이는데서 사회과학과 기초과학 부문의 교육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사회과학부문전문가를 키워내는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에게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주체의 사회과학리론을 폭넓고 깊이있게 가르쳐주어 그들이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정통하며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수단들이 경제관리에 널리 리용되고있는 현실은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관리운영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사회과학부문전문가를 키워내는 대학들에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속있게 하여 학생들에게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리로부터 시작하여 계획화사업과 로동조직, 설비관리, 기술관리, 재정관리에 이르기까지의 경영활동전반에 대한 관리운영지식을 깊이있게 체득시키며 경제관리에서 전자계산기와 같은 기술수단들을 널리 리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하겠습니다.

수학과 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비롯한 기초과학부문에 대한 교육에도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현대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기초과학의 성과에 토대하고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자립성은 기초과학분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초과학부문들을 발전시켜야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고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수 있으며 과학기술을 주체성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에게 기초과학부문에서 이룩된 최신성과들을 깊이 체득시켜 이 부문 전문가양성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고등교육부문에서 학

생들에게 혁명과 건설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고등교육부문에서 학생들에게 산 지식을 가르쳐주자면 강의와 과학실험, 생산실습을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강의에서 배운 지식은 실험과정에서 더욱 공고화되고 생산실습을 통하여 응용능력과 결부될 때 비로소 실천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으로 됩니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강의의 과학리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기초우에서 필요한 실험과 실습을 빠짐없이 진행하며 그 질을 높여야 합니다. 대학들에서는 실험실습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더욱 깊이 파악하고 공고화하며 그 응용능력을 키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학들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대학은 민족간부양성의 기지이며 과학의 전당입니다. 대학들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없으며 기술자, 전문가들을 바로 키워낼수 없습니다. 대학들에서의 교수교양사업은 과학연구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하며 대학교원들은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능력있는 교육자로 될뿐아니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유능한 과학자로 되여야 합니다. 대학들에서는 교원들속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능력있는 민족간부로 키워내는것과 함께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내놓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학들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합니다. 대학들에서는 교원들을 조직동원하여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고 교수교양사업과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대학들에서 하는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대학들에 연구과제를 통일적으로 주며 연구결과를 제때에 총화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들에 현대적인 실험설비들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교육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과학기술발전의 추세와 인민경제발전의 전망적요구에 맞게 최신과학기술분야의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건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현장기술일군들을 많이 키워내기 위한 대책을 바로세워야 합니다. 지금 있는 기술대학들의 교육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앞으로 전자, 자동화 공업부문과 금속, 기계 공업부문, 간석지부문, 봉사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 요구되는 기술일군들을 키워내는 단과대학들을 내오고 이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기능공들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체계도 바로세우고 생산부문에 진출하는 새세

대들에 대한 기술기능교육을 잘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여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진 조건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기술자들과 함께 기능공들을 많이 요구하고있습니다. 기능공들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는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앞으로 일정한 직종의 기술기능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들을 내오고 거기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급수높은 기능공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것은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자면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현단계에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교육체계입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들을 잘 운영하며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더 늘여 대학을 나오지 못한 근로자들을 공부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텔레비죤방송대학을 실속있게 운영하며 앞으로 록화교육도 널리 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온 나라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교육을 강화하는데서 인민대학습당은 매우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있습니다. 인민대학습당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중요한 기지의 하나이며 통신종합대학입니다. 인민대학습당의 역할을 더욱 높여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대학습당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과학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사회교육을 강화하는데서 큰 몫을 맡고있습니다. 도서관을 잘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하여 모든 도서관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보급자, 사회적학습의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사회교육을 강화하는것만으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습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가지도록 하자면 고등교육기관을 늘이고 사회교육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누구나 다 꾸준히 학습하고 배우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전당, 전민, 전군이 학

습하자!》라는 당의 구호를 받들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며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교원들의 역할을 높이며 교육조건을 개선할데 대하여

교육사업을 개선하자면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교육과학을 발전시키며 교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며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내는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적혁명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들을 더욱 존엄있고 힘있는 존재로 키워내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으며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교육교양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당은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전적으로 교원들에게 맡기고있습니다. 교원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따라 교육사업의 성과와 조국의 미래인 새세대들의 질적상태가 규정됩니다. 교원들은 후대들을 우리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내는 직업적혁명가라는 높은 책임감과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후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야 합니다.

교원들에게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은 교수사업이며 교수사업을 잘하는것은 교원들의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교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현실문제를 옳게 결부하여 교수준비를 잘하며 강의와 학과토론, 실험실습을 비롯하여 과정안에 예견된 모든 형태의 교수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원들은 교수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과외학습을 계획적으로 잘 지도하는 한편 그들이 학습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하며 사회정치활동을 비롯한 과외생활을 실속있게 하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교원들이 맡겨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자면 자질을 높여야 합니다. 교원의 자질은 곧 학생들의 학과실력으로 나타나며 교육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육사업이 현실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는 주되는 원인이 교원들의 자질이 낮은데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요인은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교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학습을 정력적으로 꾸준히 하여 과학리론수준과

교육실무적자질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교원들은 누구나 다 전공부문의 과학기술에 정통하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은 독자적으로 풀어나가며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강의를 능숙하게 할수 있는 높은 자질을 가져야 합니다. 대학교원들은 누구나 다 전공분야의 학위학직을 가져야 하며 강좌들에 현대과학기술에 대한 일정한 견해를 가지고 새로운 발명을 할수 있는 교수, 박사급의 학자들이 적어도 몇명씩은 있게 되여야 합니다. 보통교육부문의 교원들은 전공과목에 정통하고 한두개의 린접과목에 대한 교수능력을 가져야 하며 사범교육을 마치지 못한 교원들은 가까운 몇해안에 모두 자격교원이 되여야 합니다.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교원들을 고착시키며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여야 합니다. 교원들을 고착시키며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여야 그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가지고 후대교육사업에 한생을 바쳐 일할수 있습니다. 교원들은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숨은 노력가, 숨은 혁명가들입니다. 우리는 교원들을 고착시키고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주며 모범교원들을 널리 소개하고 평가하여야 합니다.

교원양성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교원양성사업을 개선하여야 교원들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킬수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일수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고 기술교육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는 우리 나라의 교육현실은 그에 맞게 교원양성사업을 더욱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원양성사업을 개선하여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과학리론적자질이 높은 교원을 많이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교원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교원양성기관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교원양성기지이며 후대교육을 위한 《원종장》입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기관들을 잘 꾸리고 거기에 좋은 사람들을 넣어 교원으로 키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원양성기관들에 나라의 교육발전전망과 교원에 대한 수요를 옳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교원양성지표와 학생모집규모를 바로 정해주고 양성목적에 맞게 교육강령을 잘 만들어주어 교원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키며 사범교육을 받은 모든 학생들이 교원으로서의 높은 교육실무적자질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원양성사업을 개선하는데서 기술교원양성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고등중학교들에서 기초기술교육을 잘 주고 대학들에서 기술교육의 수준을 높이며 앞으로 내오는 단과대학들과 기능학교들을 제대로 운영하자면 기술교원양성

체계를 바로세우고 이 부문의 교원들을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기술교원양성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면서 앞으로 고등중학교의 기초기술과목교원들과 기술기능전문부문학교들의 전공과목교원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학연구원과 박사원 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나라의 교육자, 과학자 후비들을 튼튼히 키워냄으로써 대학의 교원진영과 과학력량을 전망성있게 꾸려나가야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을 발전시켜야 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교육사업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으며 교육의 수준과 효과를 빨리 높일수 있습니다.

교육과학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문제들과 우리 나라 교육현실이 제기하는 긴절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들을 연구하는것입니다. 교육과학부문에서는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체계를 끊임없이 개선완성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형태들을 더욱 발전시키며 앞으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에 대한 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합니다. 학교전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매 교육단계에 따르는 교육의 범위와 수준을 바로 정하고 교육강령을 과학적으로 편성하며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교육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교육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교육과학연구기관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교육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사업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는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고있으며 교육조건에 대한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튼튼한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후대들에게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학교들에 교육설비들을 원만히 갖추어주어야 합니다. 교육설비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와 학과목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많이 개발하며 전자계산기와 록화기 같은 기술기재들과 새로운 과학실험기구들을 교육사업에 널리 리용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교육기자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학교후원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여러가지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들과 과학실험기구들을 많이 생산하여 학교들에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들에서 필요한 과학실험설비들을 자체

로 만들어 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학교들에 여러가지 학습참고서와 과외도서를 많이 출판하여 보내주어야 합니다. 출판인쇄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여러 부문의 사전과 편람, 문제풀이집과 공식집 그리고 과학과 기술, 력사와 문학예술, 체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과외도서와 그림책 같은것을 학생들의 수준과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잘 만들어 많이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학교건설을 앞세우고 여러가지 교구비품들과 학용품들을 원만히 갖추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이 많이 나오고 학생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는 실정에 맞게 교사와 기숙사, 실험실습기지 건설을 국가계획에 맞물려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여러가지 질좋은 교구비품들과 학용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사회주의교육의 로동계급적성격을 고수하고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입니다.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으며 당의 교육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을 실속있게 벌려 그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에 끝까지 충성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여러가지 사회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조직생활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실천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학교들에서 교수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것입니다.

학교의 기본임무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학교들에서 교수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데 주되는 힘을 돌려야 합니다.

교수교양사업에서 기본은 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입니다. 교육강령은 학교들에서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할 법적과제입니다. 학교들에서 교육강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교육의 질을 높일수 없으며 학생들을 능력있는 혁명인재로 키워낼수 없습니다. 당조직들은 학교들에서 교육규율을 엄격히 세워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며 교원, 학생들을 다른 사업에 망탕 동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수교양사업에서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는것과 함께 교수의 정치사상적수준과 과학리론적수준을 높이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당조직들은 모든 교원들이 사회주의교육학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교수를 당정책화하고 교수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 하나를 가르치주어도 우리 혁명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가르처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쓸모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자면 교원대렬을 잘 꾸려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높은 과학리론적자질을 소유한 좋은 사람들로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도, 시, 군 당위원회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교육사업을 잘 지도하는것은 도, 시, 군 당위원회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지금 도, 시, 군 당위원회들에서 당면한 경제사업에만 치우치면서 교육사업에는 관심을 잘 돌리지 않고있습니다. 일부 도, 시, 군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학교나 건설해주면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다하는것으로 생각하면서 마땅히 주의를 돌려야 할 교수교양사업에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습니다. 도, 시, 군 당위원회들은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고 교육사업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교육사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도, 시, 군 당위원회들은 당의 교육정책이 제시되면 제때에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옳은 방향과 방도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당의 교육정책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나타난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아주어 그것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시, 군 당위원회들은 지역안의 보통교육부문학교들에서 과정안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하며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시, 군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보통교육부문의 학교들에 자주 나가 교직원, 학생들에게 제때 제시되는 당정책들도 알려주며 교수교양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들은 도안의 보통교육부문학교들과 대학들을 잘 지도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학당위원회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당위원회가 제구실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도, 시, 군 당위원회들은 교육행정기관들이 자기의 역할을 바로하도록 옳게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은 당의 교육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맡아하는 집행기관입니다. 당의 교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교육행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도, 시, 군 당위원회들은 교육행정기관들에서 교육행정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적으로 집행하도록 안받침해주며 교육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교육행정기관들에서 학교건설과 교육기자재들을 비롯하여 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꾸려주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장악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대학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대학당위원회는 대학의 교수교양사업과 교직원, 학생들의 정치사상생활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대학의 최고지도기관입니다. 대학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교수교양사업을 비롯하여 대학의 전반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잘해나갈수 없습니다. 대학사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열쇠는 대학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대학당위원회들은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대학사업에 대한 지도를 잘하여야 합니다.

대학당위원회들은 무엇보다도 당정치사업을 교육행정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정치사업과 교육행정사업을 밀접히 결합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지도원칙입니다. 당정치사업과 교육행정사업이 밀접히 결합되여야 교수교양사업이 당의 교육정책에 따라 정확히 진행될수 있으며 당정치사업이 교육행정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당정치사업과 교육행정사업을 결합하는데서 교수교양사업을 원만히 보장하는

에 중심을 두고 당정치사업을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대학당위원회가 당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교직원, 학생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교직원, 학생들의 책임감과 혁명적열의를 높여 대학앞에 나선 교수교양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당위원회는 교수교양사업을 중심에 놓고 당정치사업을 벌리며 당정치사업의 결과가 교수교양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직원, 학생들의 조직사상생활에 대한 지도도 그들이 교수교양사업과 학과학습을 잘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하며 대학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철저히 교수교양사업에 복종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학당위원회는 또한 대학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집체적지도와 통일적지휘가 옳게 배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학당위원회는 교육강령을 집행하며 학교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대학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협의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대학당위원회는 집체적으로 협의하여 옳은 대책을 세운 다음에는 분공에 따라 행정책임일군들은 교육행정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당일군들은 행정일군들이 당위원회에서 받은 분공을 제때에 집행하도록 당적으로 적극 밀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교육일군들앞에 나서는 과업은 무겁고 영예로우며 교육일군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나는 교육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당의 교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가져오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을 따라배우자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예술은 당의 위대성과 현명성, 불패의 위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위대한 당의 영광스러운 행로는 탁월한 령도예술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이끄는 자랑찬 투쟁으로 빛난다. 백수십년에 걸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옳바른 지도사상과 함께 세련된 령도예술을 지닌 당의 지도밑에서만 로동계급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투쟁의 길을 걸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과학적인 령도예술을 떠나서는 혁명투쟁의 조직자, 고무자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위대성과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아무리 력사가 오래다 해도 옳바른 령도예술을 가지지 않고서는 당이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은 력사의 유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투쟁을 어떻게 조직령도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당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예술을 지니는 문제는 결코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서만 해결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인민들은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곧바른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탁월한 지도자는 당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제시하며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현명하게 령도한다. 대중에 대한 당의 령도는 곧 당의 수령, 지도자의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의 빛나는 구현이다. 위대한 수령, 탁월한 지도자를 모시지 못한 당은 옳바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가질수 없을뿐아니라 세련된 령도예술을 지닐수 없으며 결국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과정에 창조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주체의 령도예술이다.

주체의 령도예술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모든 전략전술작성의 사상리론적기초이며 혁명적군중로선은 대중령도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이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높여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혁명적본질이 있으며 그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조선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오늘에 이르는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령도예술이 철저히 구현되여 빛나는 결실을 맺어온 자랑찬 행로이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위력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과시된 영광스러운 나날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가까운 앞날뿐아니라 혁명의 먼 장래까지 환히 내다보시고 인민들이 나아갈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언제나 혁명적원칙성을 지니시고 제기되는 문제를 참신하게 보

적령도를 받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은 제기될수 있어도 못해낼 일은 있을수 없다.

인민대중에게 혁명적 열정과 신심을 안겨주는 원대한 목표들을 제시해주고 비상한 담력과 대담한 실천력으로 일판을 크게 벌려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예술이 있음으로 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는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대중운동을 적극 벌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광범한 대중의 힘에 의하여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예술의 또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수행해야 할 사업이다. 광범한 대중이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이 힘있게 추진될수 없다.

인민대중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중운동을 적극 벌려나가는데 있다.

사회와 자연과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어렵고 방대한 사업을 대중적인 운동으로 수행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이 발기하고 령도하는 대중운동들은 광범한 대중을 집단적혁신과 영웅적인 투쟁에로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대중운동을 통하여 이룩되고있는 변혁적인 성과들은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위력을 뚜렷이 보여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이처럼 우리 당의 령도예술에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며 언제나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불러일으켜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등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예술의 빛나는 구감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예술은 위대한 현실을 낳는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예술의 위대성은 기적과 위훈을 낳는 자랑찬 현실에 의하여 확증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찬란한 현실이 펼쳐지고 끝없는 륭성과 번영이 이룩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예술이 가져온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였으며 거창한 건설사업을 진행하여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를 일떠세웠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ㄹ.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1페지)

우리 당이 지닌 령도예술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혁명과 건설은 낡고 뒤떨어진것을 청산하고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필요한 조건과 가능성을 마련하면서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며 그 종국적승리가 이룩된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순탄한 환경에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될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자기 인민의 힘을 굳게 믿고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력갱생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인 투쟁기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지난날 적수공권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

제를 때려부실수 있었으며 해방후에는 일제가 파괴하고간 빈터우에서 새 조국건설의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미제가 일으킨 3년간의 전쟁으로 하여 전후 우리 나라에는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었다. 재더미를 헤치고 또다시 일떠서야 하였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인민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없는것은 찾아내고 부족한것은 만들어내면서 억세게 전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고조를 일으킬수 있었다. 실로 우리 혁명이 전진하여온 전로정은 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새로 창조하면서 거창한 변혁과 위대한 비약을 이룩해온 보람찬 행로였다.

바로 이 력사적인 행정에 우리 인민은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남들이 수백년이 걸려서야 한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오늘은 우리 혁명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시키고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위력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장엄한 투쟁속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고있으며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남포갑문 건설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은 조국의 지도를 변경시키고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튼튼한 터전을 다져나가는 보람찬 사업이다. 수십리 날바다를 막아 건설력사에 전례가 없는 방대한 규모의 남포갑문을 일떠세우는 대자연개조사업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언제나 대담하게 작전하고 필요한 모든 조건을 진두에서 마련해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협산준령을 가로질러 무산—청진사이에 현대적인 대형정광수송관을 짧은 기간에 건설하고 검덕땅에 세계굴지의 대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를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오늘은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있는것이다.

이 자랑찬 현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위력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준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또한 화를 복으로 전변시키고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어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는데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난다. 혁명의 길에는 우여곡절도 있을수 있고 사나운 풍파도 있을수 있는 것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의 위력은 부닥치는 모든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고 역경을 순경으로 변경시키는데서 나타난다.

조선혁명은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으로 하여 준엄한 길을 걸어왔다.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도 간고하였지만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우리앞에 나선 난관도 결코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우리에게는 자재와 자금을 비롯하여 모든것이 다 부족하였으며 나라의 경제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여기에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북진》소동과 당을 정면으로 도전하여나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내외정세는 극도로 긴장하였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벌려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켰다. 말하자면 우리는 화를 복으로 전변시키고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어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비약을

이룩한셈이였다.

화를 복으로 전변시키고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는 주체의 령도예술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의하여 빛나게 구현되여 그 거대한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날뛰는 미제침략자들은 1970년대중엽 《판문점사건》을 일으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세계의 이목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 조선에 집중되였으며 우리의 벗들도 사태발전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이 위기일발의 시기에도 우리 당은 적들의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인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무비의 담력과 강의한 의지를 지닌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여지없이 분쇄되고 생산과 건설에서는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1970년대부터 해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감행하여온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은 올해에 들어와서 더욱 발광적으로 진행되였다. 놈들은 대병력과 최신형대량살륙무기들을 동원하여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규모의 《팀 스피리트 84》합동군사연습소동을 벌려놓고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중앙은 전체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여 원쑤들의 반혁명적공세에 혁명적공세로 맞서나감으로써 대세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였다.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대여 부닥치는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미제의 발광적인 침략과 전쟁 책동은 여지없이 분쇄되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존엄과 영예는 튼튼히 고수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예술은 화를 복으로 만들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예술은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서도 그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나타내고있다.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며 새로운 높은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투적기상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 맞게 투쟁구호들을 제때에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대중의 열의와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그들을 계속혁신, 계속전진에로 적극 추동하고있다. 지난 기간 천리마속도, 평양속도, 비날론속도를 창조하여 사람들을 끝없이 격동시킨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1970년대에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70일전투속도》를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을 힘있게 시위하였다. 그리하여 1961—1970년사이에 해마다 평균 12.8%로 늘어났던 우리 나라의 공업생산은 1970—1980년사이에는 해마다 평균 16.1%라는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통하여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름에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언제나 우리 인민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중앙의 탁월한 령도력은 최근에 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외국방문을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높은 성과로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힘있게 과시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책제철소와 성진제강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를 비롯하여 청진시와 함경북도, 함경남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실무지도하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다그쳐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의 령도예술이야말로 혁명과 건설을 적극 떠미는 위력한 추동력이며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에게는 점령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언제나 불패의 령도력을 지닌 우리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영원히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는것이다.

※ ※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주체의 령도예술을 확립한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의 하나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귀중한 재부로 된다. 우리 당이 지닌 령도예술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당을 견결히 옹호하고 당이 이룩한 업적을 빛내이며 당의 령도를 끝까지 받들어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 당의 령도작풍모를 따라배움으로써 대중지도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이 이룩한 령도예술에는 주체의 령도리론과 령도방법, 대중지도원칙과 그 구현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담겨져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주체의 령도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할수 있게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주체의 령도예술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는 대중지도에서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경험, 생동한 모범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령도사를 깊이 체득하는것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 당의 령도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학습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 오직 주체의 령도예술의 요구대로만 사업하는 혁명적기풍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은 온갖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는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온갖 재래식사업방법의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하며 대중에게 튼튼히 의거하며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왕성한 사업의욕으로 일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예술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하여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충성으로 빛나는 혁명가의 참된 삶

최 혁 구

백두밀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되여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오는 과정에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고귀한 한생을 바쳤다.

혁명선렬들의 투쟁을 돌이켜볼 때마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충성으로 빛나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혁명적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게 된다. 피어린 항일성전의 그날로부터 해방후 민주조선건설의 어려운 투쟁의 나날에 이르기까지 김정숙동지께서 걸어오신 자욱마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며 주체혁명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다 바쳐 온 숭고한 혁명정신과 고귀한 업적이 아로새겨져있다.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여있으며 우리들을 충성의 한길로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 ❀

혁명가의 참된 삶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성다하는데서 빛난다.

사람은 길고 오래 살거나 개인의 부귀와 영달을 추구하는것으로 참된 삶을 누릴수 없다. 인간의 가장 보람있고 값있는 삶은 혁명을 하는데 있다. 혁명은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보람찬 투쟁이다. 사람의 육체적생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치적생명은 영원한것이다.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투쟁하는 바로 여기에 사람들이 영생하는 삶을 누리는 참된 길이 있다.

혁명하는 길에서 영생하는 사람들의 참된 삶은 수령이 안겨준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수령의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수령의 령도따라 억세게 전진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이세계 이어나가며 혁명전사의 존엄을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수령을 위하여 산고 인민대중과 운명을 같이하면서 투쟁하는 혁명가의 한생은 영예와 보람으로 빛나며 비록 육체적생명은 끊어지도 그가 지닌 정치적생명은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 언제나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가지고 수령께 충성다하는 사람만이 참말로 보람있고 값있는 삶으로 한생을 빛내일수 있는것이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참다운 구감이시다.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일찍부터 애국의 정신과 혁명의 큰뜻을 품고 투쟁의 길에 나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혁명의 준엄한 나날에나 광복된 조국땅우에 새 사회를 건설다는 거창한 투쟁의 나날에 오로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의 한마음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공산주의운동의 오랜 력사는 수령과 전사간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하고있지만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생애처럼 그렇게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는 감동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성다하여온 김정숙동지의 순결하고 뜨거운 일편단심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여 가슴속깊이 뿌리내린 불굴의 의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끝없는 충실성은 어떤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철석같은것이였으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불변의 신념으로 한생을 빛나게 살며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오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받들어모시는데서 혁명가의 참된 삶을 빛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지하투쟁과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많은 동지들이 곤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도와주고 보호하여주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8권, 139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사들이 수령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께 충성다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수행되여나간다. 자기의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혁명가의 삶을 고귀하고 숭고한것으로 빛내이는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신것을 최대의 영예,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모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은 김정숙동지께서 수령님을 높이 모시는데서 가장 철저히 견지하신 투쟁과 생활의 철칙이였으크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의지였다.

우리 혁명의 길우에는 혁명의 배신자들과 내외원쑤들의 간악한 모략과 책동이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전사는 천백번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변안전만은 견결히 보위하여야 한다는 충성의 한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장군님을 보위하는 영광스럽고 책임적인 투쟁의 앞장에 서계시였다.

1940년 초여름 대사하치기에서 적들과 불의에 조우하여 전투를 벌릴 때였다. 전투를 지휘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변을 경각성있게 살피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갈대밭속으로 적들이 수령님의 곁으로 기여오는것을 발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변에 위험이 닥쳐왔던 위기일발의 순간, 김정숙동지께서는 급히 몸을 날려 수령님을 막아나서시면서 적들을 싸념김으로써 사령관동지의 신변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시였다.

홍기하전투때에는 생명의 위험한 고비를 넘기시면서 사령부쪽으로 기여드는 적들을 단신으로 유인하여 소멸하시였으며 황거우민영으로 적들이 기여들었을 때에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가시여 사령관동지의 신변을 철옹성같이 지켜내시였다.

장구하고도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이처럼 위험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으나 그때마다 김정숙동지께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보위하신 불멸의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을 끝없이 감동시키고 충성의 한길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안녕과 신변안전을 목숨으로 보위해야 한다는 김정숙동지의 철석같은 신조와 숭고한 충성심은 해방된 조국땅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해방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형형색색의 반동들이 살판치는 속에서도 김정숙동지께서는 백두밀림에서 사령부를 지켜섰던 친위전사의 그 모습그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보위하는 전초선에 서계시였고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드티지 않고 수령님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였다. 1949년 9월 뜻하지 않은 중환으로 생애를 마치는 마지막순간에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안녕만을 바라며 현지지도사업을 보좌해드리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은 수령을 모시는 전사의 립장과 자세는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빛나는 구감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끝없는 충실성은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수행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충직하게 싸우는데서도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던 항일무장투쟁의 그 간고한 조건에서 혁명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 명령지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죽음도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그 숭고한 정신과 강의한 의지, 불면불휴의 노력으로 전투임무와 지하공작, 후방사업 등 맡겨진 과업을 가장 철저히 수행하군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무송현성진공전투에 참가하시여 잘룩목을 지킬데 대한 임무를 받고 일곱명의 녀대원들을 데리고 와지한 게선을 끝까지 견지하신 일이며 대부대선회작전을 준비하던 시기 600벌의 겨울군복을 한달안으로 만들데 대한 아름찬 과업을 받고 열흘이나 앞당겨 끝낸 자랑찬 성과는 혁명임무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무한한 충실성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적들의 삼엄한 감시속에서도 국내 신파와 장백현 도천리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 당소조와 조국광복회하부조직들을 결성할수 있은것은 김정숙동지께서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벌리신 헌신적인 투쟁의 결과에 이루어진 빛나는 결실이였다.

실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걸으신 투쟁과 승리로 빛나는 자욱마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혁명위업수행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며 순간순간을 값있게 살아온 가장 고귀한 삶이 깃들어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조선혁명위업에 충직한 혁명전사들을 키우는데서 혁명가의 참된 삶을 빛내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빨찌산은 단지 적과 싸우는 전사였을뿐아니라 인민을 교양하고 선동하는 선전자였으며 인민을 조직동원하는 조직자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66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충직한 혁명전사들이 굳게 뭉치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떨쳐나설 때 사소한 실패와 우여곡절도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정치활동가로서의 혁명가들의 참된 삶은 자신뿐아니라 대중을 수령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워나가는데서 더욱 빛나게 된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언제나 인민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신뢰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깊이 심어주는것은 인민대중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민족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주체의 빛발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는 《동무들! 김일성장군님은 우리모두의 태양이십니다.

우리모두는 김일성장군님의 해발이 됩시다.》라고 열렬히 호소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꿋꿋이 걸어나가도록 인민들에게 불굴의 신념을 깊이 심어주고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혁명전사의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안겨주는 사업에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광범한 대중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신뢰심을 더욱 두터이하고 반일대중투쟁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없이 고매한 덕성과 혁명적사업방법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인민의 참된 딸이 되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부대가 마을에서 잠간 휴식할 때나 지하공작임무를 수행하는 그 어려운 때에나 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투쟁을 통하여 혁명가로 그들을 하나하나 키워나가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부대가 1936년 장백현 신흥촌에 들렀을 때 외부와 완고하게 담을 쌓고 우울하게 사는 한 녀성의 생활형편을 일일이 돌보시며 꾸준히 교양하시여 그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게 하시였다. 이것은 한사람이나도 더 많이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기 위하여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애가 가져온 결실이였다. 특히 장백현 한강구일대와 국내 여러 지방에서 혁명적대중단체들을 조직하고 군중을 계몽각성시켜 투쟁의 길에 떨쳐나서도록 한 빛나는 업적은 김정숙동지의 혁명적사업방법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언제나 군중속에서 오늘의 처지와 함께 래일의 전도에 대해서까지 차근차근 깨우쳐주시며 충성의 길로 손잡아이끌어주시는 김정숙동지의 활동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나갈수 있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대를 이어 꽃피워나갈 새세대들을 굳건히 키워나가는데서도 혁명가의 참된 삶을 빛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들은 자기자신의 오늘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한 새생활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고귀한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85페지)

수령을 영원히 받들어모시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훌륭히 실현해나갈 새세대들을 튼튼히 키우는것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혁명의 장기성과 간고성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새세대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사업에 언제나 커다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간고한 항일혁명전쟁시기 새세대들을 잘 키우는것을 조국의 미래, 혁명의 장래와 련결시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동단원들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나어린 근위대로 키워나가

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아동단원들을 혁명적으로 키울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에 유격구인민들을 적극 불러일으키시였으며 부모를 잃은 아동단원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동단은 조선혁명의 후비대입니다.

동무들은 당의 지도밑에 공청의 뒤를 따라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 악질 지주, 자본가놈들을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되여있어야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아동단원들에게 혁명의 참뜻을 깨우쳐주고 그들을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열렬한 조국애를 간직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놓고도 아동단원들의 가슴마다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받드는 충성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시였다. 그리고 연예대활동과 군사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아동단원들을 투쟁속에서 단련된 위대한 장군님의 참된 전사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시였다.

새세대들을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키워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훌륭히 꽃피우기 위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에도 혁명의 후비대들을 키우는 데 온갖 지성을 다 쏟아부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받고 혁명가유자녀들을 찾으러 떠나는 일군들을 일일이 만나시여 유자녀들이 하루빨리 장군님의 품에 안기도록 대책을 취해주시고 만경대혁명학원을 비롯한 학교들에 자주 나가시여 혁명의 후비대들이 튼튼히 자라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것은 주체위업의 계승자들을 키우는데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을 그대로 보여준다.

참으로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는 한생을 오로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철석같이 믿고 따르면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전형이시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김정숙동지의 생애는 대를 이어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으며 김정숙동지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은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끝없이 빛나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에 불멸의 위훈을 세운 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까지 충성다함으로써 참다운 혁명가의 보람찬 삶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는 불굴의 혁명전사들이 높이 발휘한 숭고한 혁명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여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백두령봉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통이 큰 작전과 대담한 공격정신

신 동 환

룡성기계련합기업소는 나라의 믿음직한 대형기계생산기지로서 전반적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우리 기업소는 지금 금속설비, 화학설비, 채굴설비를 비롯한 대상설비들과 대형공작기계들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고있으며 다른 나라들에도 수출하고있다.

지난날 자그마한 기계부속품이나 겨우 깎아내던 우리 공장이 지금 주체적기계공업의 위력한 기지로 룡성벌에 튼튼히 자리잡고 국내외에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된것은 모든 일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밀고나가도록 룡성의 로동계급을 이끌어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의 힘을 믿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달라붙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406페지)

모든 일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며 당과 수령이 룡성의 로동계급에게 안겨준 혁명적인 일본새이며 투쟁기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22차례에 걸치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 대한 현지지도는 우리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혁명적대담성과 자력갱생의 기풍을 지니고 생산에서 비약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한 근본원천으로,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룡성의 로동계급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개미가 뼈다귀를 깎아먹듯이 빈터우에서 작은 기계설비들을 가지고 8메터타닝반과 3천톤프레스와 같은 대형설비들을 만들어냈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시기에는 18메터타닝반과 6천톤프레스를 비롯한 수많은 대형설비들을 생산하였다. 이 장엄한 투쟁과정에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는것은 룡성로동계급속에서 전통적인 사업기풍으로 확고히 뿌리내리게 되였으며 우리 공장은 《영웅공장》, 《어머니공장》, 《자력갱생의 본보기공장》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룡성로동계급에게 심어주신 혁명적인 일본새와 투쟁기풍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인 진군길에서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5월 우리 기업소를 현지에서 실무지도하시면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 《힘있는 기업소》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주시였으며 1만톤프레스를 새로 만들데 대한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시였다.

지금 우리 기업소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실무지도에서 주신 과업을 기어이 수행하려는 혁명적열의로 하여 전례없이 들끓고있다.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보통이면 몇년이 걸려서야 만들수 있는 1만톤프레스를 짧은 기간에 제작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당에서 과업을 받은 때로부터 한달 남짓한 기간에 벌써 그 제작에 착수하는 혁신을 이룩하게 되였다. 우리는 1956년 12월전원회의결정을 받들고 천리마의 진군으로 내달리던 그때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1만톤프레스

작에서 선결문제로 나선 주강로를 대
-하게 개조하여 지난 7월중순에는 10
능력의 로를 20톤 능력으로, 20톤 능
의 로를 40톤 능력으로 끌어올리는 혁
고 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우리
상이 안겨준 대담한 공격정신의 위력
가 생활력 그리고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
를 드팀없이 구현해나가려는 룡성로동
계급의 확고한 의지와 혁명적열정을 그
대로 보여주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적
인 일본새와 투쟁기풍으로 힘차게 전진
해나가는 영광의 나날에 룡성기계련합
기업소 당위원회는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였으며 귀중한 경험과 교
훈을 쌓게 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일군들과 생산자
대중이 당의 방침을 기어이 관철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강의한 투쟁정신을 가질
때 일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는 경험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일본새와 투쟁기풍은 사람들의 사상
의 발현이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
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 투쟁해나
가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질
때 사람들은 담력도 커지고 진취성도
생기며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담하게
작전하며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갈
수 있다. 문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의 사고방식과 사상관점에 달려있는것
이다.

기업소당위원회는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상에 의하
여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우리 당의 사
상론에 철저히 립각하여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데서 언제나 사상을 틀어쥐
고나갔으며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불러일으키
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 설비를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당위원회가 진행
한 조직정치사업은 매우 교훈적이
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함흥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던
때에 있은 일이였다. 우리 기업소앞에
는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의 설
비를 8개월동안에 생산보장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것은 매우 높은
목표였으며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
지 않고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방대한
과제였다. 가공조립할 작업량은 기업소
절삭설비들을 모조리 동원시키는 경우
에도 그 가공속도를 2.5배~3배나 높여
야 완수할수 있을 정도의 아름찬것이였
다. 그리고 소재생산에 드는 시간만 해
도 기계설비를 조립완성하여 대상공
장에 보내야 할 시간과 거의 맞먹
는것이였다.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맡겨진 과업이
너무도 무겁고 방대한것이여서 주저하
거나 뒤걸음질치는 경향도 나타났
었다.

이 어려운 생산전투에서 당조직과 당
일군들이 어떤 립장을 가지고 어떤 결
심을 내리는가 하는것은 실로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되
였다.

당위원회는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
광장 설비를 제기일안에 생산보장하라는
것은 당의 요구인것만큼 한걸음도 물러
설수 없다는 확고부동한 립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생산자대중 속에서 절대성, 무
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발양시키기 위
한 조직정치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우리는 천리마대고조시기 당의 호소
를 받들고 빈터우에서 8메터타닝반과
3천톤프레스를 만들던 때의 그 불굴의
정신과 담력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조직
진행하였다.

여기서 특히 전후시기부터 우리 공장
에서 일하고있는 오랜 일군들과 로동자
들을 발동하여 진행한 정치사업은 매우
효과적이였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강연도 하고 경제선동도 벌렸으며 천리
마대고조시기에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전시회도 조직하였다. 이러한 정치사업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검덕제3선광장 설비생산에 떨쳐나서게 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정치사업은 결코 일반적인 호소나 강조로 그쳐서는 안되며 실천투쟁과 결부될 때 은을 나타낼수 있는것이다.

당위원회는 당일군들이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어려운 투쟁의 앞장에 서서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 발벗고나서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소재생산이 걸렸을 때에는 당일군들이 주강직장과 주물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반동하여 걸린 문제를 풀어나갔으며 특대형원추형파쇄기생산에서 애로가 제기되였을 때에도 바로 당일군들이 제작자들과 설계자들 속에 들어가 협의회를 열고 광범한 군중토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강구해나갔다.

이처럼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종업원들이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방대한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 설비를 생산보장하는 과제를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었으며 당과 수령이 안겨준 혁명적사업기풍의 위력을 힘있게 시위할수 있었다. 경험은 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이 확고한 결심과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지고 당정책관철에 달라붙을 때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수 있으며 아무리 높은 목표도 점령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이것이 오늘 혁명하는 시대 일군들의 일본새이며 바로 여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는 비결이 있는것이다.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그들을 발동하고 그들에 의거하여 사업할 때 못해낼 일이란 있을수 없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대중에 철저히 의거하여 그들의 지혜와 창조력을 적극 발동함으로써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공격해나갈수 있었다. 대중과 혼연일체가 된 당조직만이 그들을 대담한 공격전에로 불러일으킬수 있다는것은 우리가 실천을 통하여 체득한 중요한 경험의 하나이다.

당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는 당조직과 당일군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책임적으로 돌봐줄 때 그들은 어머니당의 손길을 뜨겁게 느끼게 되며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게 된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당을 믿고 당조직에 스스로 찾아올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는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사람과의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당위원회의 문턱은 높지 말아야 하며 문은 언제나 열려져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당조직들이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우리 당이 세워준 사람과의 사업체계에 망라시켜 그들과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경우 사람과의 사업, 특히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각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그것은 수많은 기술일군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화되여있으며 중요한 기술문제들이 그들의 힘에 의하여 해결되고있는 조건에서 기업소의 사업성과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것과 많이 관련되여있기때문이다.

지난 시기에도 당위원회는 물론 사람들과의 사업, 특히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기업소의 책임적인 일군들과 《권위있는 기사》, 《이름있는 기능공》들에 국한하여 사업하는 좋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만약 당조직이 이와 같이 만나는 사람들만을 귀상하고 광범한 로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지 않는다면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적극성을 옳게 발양시킬수 없으며 그들속에서 당조직을 경원시하는 현상까지 나타날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과의 사업, 특히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대담하게 그리고 진공적으로 조직진행하였다.

당위원회 집행위원들을 비롯한 책임일군들이 우선 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개별적으로 담당하여 정상적으로 교양하고 이끌어주는 한편 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얼굴도 익히고 허물없이 친숙하게 지내였으며 종업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형편도 알아보고 애로되는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주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당위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당원이건 비당원이건, 오랜 기능공이건 견습공이건 관계없이 언제나 그들을 성의있게 만나주며 부득불 당일군들이 자리를 뜨는 경우에는 후에 그를 다시 찾아서라도 반드시 만나주도록 하였다.

이렇게 모든 종업원들을 성실하게 대해주고 그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게 되니 당조직과 대중과의 련계가 밀접해지게 되였으며 당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침투되여 사람과의 사업을 보다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업상문제뿐아니라 개세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까지 당조직을 찾아와 의논하는것이 하나의 평범한 일로 되였다.

당위원회는 기업소안의 단 한사람도 사람과의 사업에서 제외되여 《고아》의 신세가 되게 하여서는 안되며 사람들의 얼굴에 그늘이 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모든 종업원들과의 사업을 깊이있고 실속있게 진행하여왔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우리는 어머니당의 당일군의 풍모를 발휘하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오늘의 생활뿐아니라 래일의 운명까지도 완전히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은 우리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풍모이다.

사람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질줄 아는 당일군이라야 대중의 믿음과 존경을 받을수 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려하지 않거나 사람들을 낯가림하면서 편견을 가지며 몇몇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서만 관심을 돌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당일군을 따르지 않게 되며 나중에는 그를 멀리하게 된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어주고 완전히 책임질 때 그들이 얼마나 비상한 열의를 내여 일하는가 하는것을 우리는 실생활을 통하여 똑똑히 체득하게 되였다.

기업소의 한 오랜 기술일군과의 사업과정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기업소의 한 설계일군은 수압프레스에 들어가는 공기축세기를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것을 착상하였으나 제기되는 이러저러한 애로들로 하여 주저하면서 연구사업에 대담하게 달라붙지 못하고 있었다.

당조직에서는 그를 만나 그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기되는 난관들을 알아본 다음 대담하게 연구사업에 착수하도록 그를 적극 고무지지하여주었으며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로 방조성원들을 무어주었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방조밑에 연구사업은 시작되였으나 실패가 거듭되고 또 일부 일군들이 그것을 시비하게 되자 그는 맥을 놓고 주저앉게 되였다.

당위원회는 제때에 협의회를 열고 그의 연구사업정형을 토의하였으며 누가 무이라고 하든지 동요하지 말고 한번 해서 안되면 열번, 스무번, 백번이라도 시험을 계속하며 설사 시험에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전적으로 당위원회가 지겠다는것을 명백히 해주었다.

당조직의 믿음과 확고한 립장에서 신심과 용기를 얻은 그는 모든 지혜와 재능을 발휘하여 더욱 대담하게 연구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무려 100여차례의 시험을 거쳐 마침내 새로운 방법으로 공기축세기를 만드는데 성공하게 되였던것이다.

당조직과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어주고 책임적으로 돌봐주는 과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 기업소에서는 당일군들과 생산자대중사이에 동지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뗄수 없는 친숙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였으며 당조직이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결실이며 온 기업소안에 언제나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분위기가 차넘치게 하고 사람들이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대담하게 창조의 나래를 펼쳐나갈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경험은 당일군들과 대중이 사상의지적으로 하나로 결합될 때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이 참신하게 진행될수 있으며 대중속에서는 참말로 놀라운 기적이 창조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기술혁신운동을 당조직이 튼튼히 틀어쥐고 광범한 대중을 여기에 적극 참가시킬 때 기업소가 대담하게 전진하고 끊임없이 혁신해나갈수 있다는것은 우리가 이룩한 또하나의 중요한 경험으로 된다.

우리 시대는 기술혁명의 시대이다. 기술을 떠나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으며 현대적기술이 튼튼히 안받침되여야 생산에서 통이 큰 작전과 대담한 공격전을 들이댈수 있다.

당위원회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을 지킬데 대한 당적요구를 지침으로 삼고 기술혁신운동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그것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갔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기술혁신운동에로 전체 종업원들을 발동하고 온 기업소가 들끓도록 한것이였다.

새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을 기계화, 자동화하는 기술혁신은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것은 몇몇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할수 없으며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창발성을 적극 동원하여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기술혁신운동에 광범한 대중을 참가시키고 이 운동을 그들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도록 한 당위원회사업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다.

당위원회는 후방부문 성원들까지 포함한 기업소의 모든 종업원들에게 기술혁신과제를 주며 분기에 1차씩 기업소적인 기술혁신전시회를 조직하도록 하여 사람들이 기술혁신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아글타글 애쓰게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기술혁신의 선구자이며 전초병들인 기술자, 기능공들이 기술혁신을 일으키는데서 모범을 보이도록 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었다.

기술을 모르고서는 기업소의 당사업을 원만히 전개해나갈수 없다는것을 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우리는 당일군들이 기술혁신에 낯을 돌리며 기술을 알고 당사업을 해나가는것을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당위원회는 당일군들이 기술을 배우며 기술자, 기능공들 속에서 제기되는 기술혁신을 적극 지지해주고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게 하였으며 매개 기술자, 기능공들의 기술혁신과제수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평가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기술혁신사업에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적극 이끌어나가게 하였다.

기술혁신운동에 모든 종업원들이 널리 참가함으로써 우리 기업소에서는 지난 한해동안에 1만여건의 기술혁신안이 제기되고 그가운데서 7천여건이 생산에 도입되여 은을 나타내고있다.

기술혁신운동을 생산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모를 박고 벌려나가도록 한것은 이 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당위원회가 관심을 돌린 중요한 문

의 하나였다.

기술혁신운동은 어디까지나 생산을 그 치자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는것 큼 기술혁신이 생산과 밀접히 결합되 생산에 도입되여야 사람들의 관심속 서 힘있게 벌어질수 있다. 이것은 일 생산지휘성원들이 당면한 생산에만 을 돌리고 기술혁신을 외면한것과 관 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 다.

당위원회는 당면한 생산에서 걸린 문 들을 푸는데 힘을 넣으면서 기술혁신 동을 벌려나가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속있게 짜고듦으로써 생산도 빨리 늘 수 있었으며 기술혁신에 대한 일군들 의 관점과 태도도 바로잡아나갈수 있 었다.

70메터대형문형평삭반을 만들던 과정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준다.

1981년 기업소앞에는 대상설비와 합 게 프레스와 형단조마치를 생산할데 대한 과제가 제기되였다. 이 과제를 완수하자면 수십대의 공작기계가 더 있어야만 하였다. 기업소적으로 걸려있는 평삭, 보링 능력을 늘이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는 과정에 한 기술일군은 평삭도 하고 보링도 하며 볼반작업도 동시에 할수 있는 귀중한 기술혁신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공작기계 생산과 가공방법에서 하나의 혁명과도 같은 대담한 발기였으며 기업소에서 그처럼 걸리고있던 생산능력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창의고안이였다. 그러나 일부 생산지휘일군들은 당면생산이 바쁜 때에 그렇게 판을 벌려놓을 힘이 어디에 있겠는가, 생산이 덜 긴장할 때에 론의해보는것이 좋지 않는가고 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위원회는 기업소의 생산능력을 빨리 늘이기 위하여서는 70메터대형문형평삭반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대담하게 벌려나가도록 조직지도하였다.

대형문형평삭반설계가 끝나고 설비제작에 착수하게 되였을 때에도 일부 사람들은 그 많은 로력과 자재를 어디서 해결하겠는가고 하면서 그것을 국가계획에 맞물려 제작해보려고 하는것이였다. 사실상 추가적인 로력과 자재를 받지 않고 현행생산도 보장하면서 집채같은 대형공작기계를 만든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당위원회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로동자, 기술자들을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당위원회의 립장이 확고하니 대중도 신심을 가지고 떨쳐나서 자체의 힘으로 70메터대형문형평삭반을 만드는것과 같은 대담한 기술혁신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대상설비생산과 대형프레스, 형단조마치 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할수 있었으며 기업소를 새로운 기술적토대우에서 더욱 위력한 대상설비 및 대형공작기계 생산기지로 꾸릴수 있었다.

경험은 당조직들이 기술혁신운동을 책임지고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당면한 생산에서뿐아니라 앞으로 보다 통이 크게 생산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쌓아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기업소의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다 우리 당의 견결한 옹호자, 우리 당 정책의 철저한 집행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나갈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공격해나감으로써 끊임없이 새기준, 새기록을 창조하여 당과 수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해나갈것이다.

성과의 비결은 조직사업에 있다

김 억 만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일을 실속있게 해나가는것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일본새이다.

조직사업이 없이 저절로 되는 일이란 있을수 없다. 조직사업을 하지 않고 성과를 바라는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것과 같은것이다. 일군들은 무슨 일에서나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훌륭히 관철할수 있으며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 어랑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지난 기간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행정에서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때 좋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년간 알곡과 과일을 비롯한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장성을 가져왔으며 수산물생산량도 훨씬 늘어났다. 특히 고기생산량이 전해에 비하여 5배이상이나 높아졌다. 공장과 마을을 알뜰하게 꾸리고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우리 군은 이미 《모범위생군》의 칭호를 쟁취하였다.

우리 군이 이룩한 이러한 성과들은 일군들이 당정책을 틀어쥐고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조직사업을 짜고들 때 모든 사업에서 훌륭한 결실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업의 성과는 조직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7권, 83페지)

조직사업이란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분공을 주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총화하며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가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은 세밀한 조직사업이 안받침될 때 실제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된다.

대담한 작전과 동원적인 계획, 적극한 분공과 구체적인 포치 그리고 실속있는 장악과 정상적인 총화, 끊임없는 재포치로 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은 일군들의 조직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요구로 된다.

작전을 바로하고 계획을 정확히 세우는것은 조직사업의 첫공정이며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선결조건이다. 모든 사업은 작전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것이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고 모든 사업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계획적으로 일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일본새와는 아무러한 인연도 없다. 만일 계획이 없이 되는대로 일하게 되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어느 하나도 똑똑히 지도할수 없으며 주어진 력량과 가능성도 옳게 동원리용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무슨 일에서나 작전과 계획을 바로세워야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주동적으로 해나갈수 있으며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의 정책적요구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이다. 당정책적요구를 옳게 알아야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으며 확고한 주견과 신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갈수

있다.

당정책적요구를 옳게 파악한데 기초하여 자체의 력량과 현실적가능성을 옳게 타산하여야 한다. 력량을 타산하지 않고 현실적가능성을 고려함이 없이 주관적욕망에 사로잡혀 사업을 계획한다면 일을 벌여만 놓게 되고 어느 한 문제도 신속있게 풀어나갈수 없게 된다. 사업을 계획하고 작전함에 있어서 언제나 주객관적 조건과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세워야 그것이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설계와 작전으로 되게 할수 있다.

당의 요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언제나 높이 발휘하여온 혁명적인 투쟁기풍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속도전의 진군을 다그쳐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련이어 일떠세우고 사람들을 경탄시킨 《70일전투속도》와 《80년대속도》를 창조할수 있은것은 바로 이러한 일본새로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혁명적으로 전개한데 있다.

일군들은 무슨 사업을 조직하여도 당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요구에 맞게 통이 크게 설계하고 대담하게 작전하여야 한다.

언제나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야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갈수 있다. 만일 소극성과 보수주의에 사로잡혀 이것저것 앞뒤를 재면서 대담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작전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할수 없으며 대중에게 혁명적정열과 투쟁의욕을 북돋아줄수 없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대담하게 작전하는것은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근본요구이며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시대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기풍으로 된다.

오직 일군들이 투쟁과 전진, 비약과 혁신으로 들끓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언제나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작전할 때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적극성을 옳게 조직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수 있다.

력량편성과 분공의 합리적인 조직은 조직사업에서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공정이다.

무슨 일이든지 설계하고 작전한 다음에는 그것이 정확히 추진되도록 모든 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집중적인 공세를 들이대야 하며 분공을 정확히 조직하여 모든 사람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늘 긴장하게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작전과 계획이 옳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제기된 혁명과업을 담당수행할 력량이 준비되지 못하고 분공이 잘 조직되지 않고서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없다. 력량편성과 분공조직을 바로할 때만이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면서 전반적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최근년간 우리 군에서 축산업을 한계단 추켜세우기 위하여 진행한 조직사업은 매우 교훈적이다.

축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농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우리 군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바다를 끼고있으며 산이 많은 중간지대에 자리잡고있는 우리 군은 축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가지고있다. 문제는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을 옳게 리용하기 위하여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러나 한때 군내의 일부 일군들은 알곡사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군자체로 축산업을 발전시킬수 없는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사업에 적극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하는것이 아니라 모든것을 국가에만 의존하여 손쉽게 풀어보려는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일부 일군들의 이러한 관점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언제가도 군자체로 축산업문제를 해결할수 없었다.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은 우리는 일군들속에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로 하여야 한다는 각오와 결심을 확고히 세워주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심화시키는 한편 실질적인 조직사업을 따라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 군에서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산이 많은 자연경제적조건을 잘 리용하여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였다.

군당위원회는 당의 방침대로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실제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우리는 집체적협의를 거듭하고 군중의 의견을 광범히 듣는 과정에 알곡사료를 대용할수 있고 어디서나 쉽게 얻을수 있는 자연사료원천을 찾아내게 되였다. 그것은 우리 군에 무진장한 잡관목과 풀, 남새줄기를 비롯한 청사료와 여러가지 곡식 대와 속을 가지고도 사료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고 고기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이였다. 사료원천을 찾아냈다고 하여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것은 아니였다. 문제는 주어진 사료원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가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군자체의 힘으로 사료분쇄기를 제작도입할것을 결심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것이 아니였다. 분쇄기에 필요한 수많은 전동기가 있어야 하였으며 주물품가공문제도 자체로 풀어야 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맥을 놓고 주저앉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였다.

조직사업은 하지 않고 이것이 없소 저것이 걸렸소 하면서 조건타발만 하여가지고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었다. 우리는 군내에 있는 기술력량과 수단들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분공조직을 따라세우고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데 모를 박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러한 조직사업은 은을 내기 시작하였으며 도처에서 많은 예비를 찾아낼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자체의 힘과 기술을 가지고 짧은 기간에 공기식고속도사료분쇄기를 만들어 협동농장의 매 작업반과 분조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갖추어놓게 하였다. 축산업에서 기본으로 되는 사료문제가 완전히 풀리게 되였으며 사료단위를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축산업이 추켜서니 거름생산이 늘어나 땅의 지력을 높이는 문제도 해결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알곡사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고기생산을 안전하게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생활을 통하여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다시금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일군들이 확고한 결심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조직사업을 짜고들 때 그 어떤 조건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정상적인 장악과 실속있는 지도는 일군들의 조직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우리 당이 밝혀준 하부지도의 중요한 원칙이다. 이 원칙적요구를 옳게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야 한다.

전투에서 승리하자면 지휘관들이 군인들의 전투사기는 어떠하며 탄약과 식량 예비는 얼마나 있고 적정은 어떠한가 하는것을 환히 꿰뚫고있어야 하는것처럼 우리 지도일군들도 사람들의 사상의식상태와 준비정도, 로력과 설비상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실정에 맞는 지도를 안받침하여야 한다. 구체적이며 실속있는 지도를 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분석판단하여야 하며 군중에 의거하여 실태를 료해하고 그들과 의논하여 옳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실을 떠나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옳게 포착할수 없으며 지도에서 주관주의를 면할수 없다. 사업은 책상머리나 종이장우에서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대중이 살며 일하고있는 현실에서 벌어지고있다.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고있는 현실에서는 일군들이 반드시 알고 풀어주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전반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조직사업을 안받침하여야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옳게 리용할수 있으며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지도를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잡다한 통계나 문서에 포로되지 말고 대담하게 현실에 침투하여 아래의 실태를 손금보듯이 장악하고 편향과 부족점을 바로잡으며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기 위한 지도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의 주인공이 보여준 사업방법은 우리 일군들이 따라 배워야 할 참다운 본보기로 된다. 영화의 주인공은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공장과 지하막장, 학교와 합숙 등에 내려가 대중속에 몸을 잠그고 제기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제때에 풀어주면서 조직지도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는 일군의 전형으로 된다. 모든 일군들이 바로 이러한 기풍으로 일해나갈 때 우리 당 정책은 어디에서나 훌륭히 관철될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포치된 사업진행과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실속있는 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제나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우리 당이 밝혀준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일데 대한 방침은 일군들이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데서 반드시 지녀야 할 사업기풍이다. 일군들이 이러한 기풍으로 일하여야 포치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할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아래당조직들과 지도원들을 통하여 실태를 료해장악하는 한편 료해된 자료에 근거하여 책임일군들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분석판단하였으며 자기의 주견과 결심을 가지고 대책과 방도를 세우고 편향과 부족점을 바로잡으면서 포치된 사업이 성과적으로 관철되도록 이끌어나갔다. 이와 함께 우리는 책임일군이건 지도원이건 당일군이건 행정경제일군이건 할것없이 모든 일군들이 남을 시키거나 부려먹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조직자, 집행자가 되여 실태를 료해장악하고 지도하는 방법으로 일하게 하였다. 이것은 일군들이 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는데서 효과적방법이였으며 사업에서 높은 수확을 거두게 하는 우월한 방법이였다.

사업진행 과정과 결과를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끊임없이 재포치하는것은 일군들의 중요한 조직사업공정으로 된다.

사업을 제때에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것은 제기된 혁명과업을 끝까지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사업을 조직진행하는 과정에는 우결함이 나타날수 있으며 경험과 교훈도 얻게 된다. 따라서 진행한 사업을 제때에 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할수 있으며 련이어 제기되는 새로운 과업들을 언제나 훌륭한 성과로 결속할수 있다.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이미 진행한 사업을 제때에 정확히 총화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을 제때에 총화하지 않고 묵여두면 나타난 우결함을 옳게 찾아낼수 없을뿐아니라 사업과정에 발로된 편향과 결함들도 바로잡아

나갈수 없다.

총화사업은 일반적으로, 만세를 부르는 식으로 하지 말고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모든 사업을 혁신적앙양으로 대할수 있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따라세울수 있다.

총화의 목적은 단순히 이미 진행된 사업을 결속짓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경험과 교훈을 옳게 찾아내고 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하여나가려는데 있는것이다.

어랑군당위원회는 포치된 사업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총화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일정한 경험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는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총화사업을 심화시키도록 하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려왔다.

직관물을 리용하여 진행한 총화는 그 중요한 방법의 하나였다. 우리는 사업과정에 이룩된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도표와 직관물을 준비한 다음 과학적인 통계와 수자를 가지고 총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일군들에게 많은 자극을 줄수 있었다. 이것은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분발하여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가는데서 매우 효과적이였다.

사업총화는 결코 일반적인 호소나 강조로써는 실속있게 될수 없다. 사업의 성과를 현물로 보게 될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더욱 큰 감화력을 주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해당 부문 일군들을 현장에 데리고다니면서 이룩한 성과들을 직접 보게 함으로써 총화의 실효를 더욱 높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총화과정은 많은 일군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확신성있게 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고무추동하는데서 커다란 은을 나타내였다.

사업총화는 결코 몇몇 책임일군들에게 국한된것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광범한 대중이 총화사업을 자신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성실히 참가할 때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는 총화사업을 대중자신의것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그들자신이 자기 사업을 스스로 돌이켜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사업과정에 나타난 긍정적인 자료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일반화하고 부정적인 현상들을 제때에 바로잡아나감으로써 이미 이룩한 성과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확대해나갈수 있었다.

생활은 구체적인 준비에 기초하여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그것이 참말로 대중을 교양하고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천리마에 《80년대 속도》를 가한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새로운 대고조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신심과 용기에 넘쳐 일떠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기세와 열의는 대단히 높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정확하며 거기에는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도 다 밝혀져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조직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은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투쟁기풍이며 혁명적인 일본새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드는 여기에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비결이 있다.

우리는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장악과 지도를 실속있게 하며 총화와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조직사업을 따라세워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일군들이 지켜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며 당정책의 조직집행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경제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지도 수준을 더욱 높이자

최 영 림

경제사업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의 발현형태이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수행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사업을 개선해나가는데서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의 경제지도수준을 높이는것은 각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것은 경제건설이 사회주의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주요혁명과업이며 경제조직사업은 행정경제일군들에게 맡겨진 기본임무로 되기때문이다.

빨리 발전하는 현실은 경제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요구는 인민경제가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가 매우 복잡하여진 사정과 관련하여 절실하게 제기된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적극 발휘하면서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경제지도일군들이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생산지휘와 경제조직사업을 잘해나간다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의도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우리 당의 경제건설방침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경제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우리 당이 제시하는 경제건설방침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드팀없이 관철해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사업은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들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며 그 성과여부는 당정책을 어떻게 접수하고 그 요구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방침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구상과 의도가 훌륭히 구현되여있으며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일군들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로 된다.

우리 당의 경제건설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 부문간균형과 부문내부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계획은 축적과 소비,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사이의 균형을 보장해야 하며 공업과 농업, 공업부문들 사이, 그밖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 사이의 균형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3권, 441페지)

경제부문들사이의 호상관계는 인민경제발전의 균형성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다. 부문간균형을 통하여 인민경제적균형의 보장정도를 파악할수 있다. 축적과 소비,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사이의 균형과 같은 종합적균형들은 무엇보다도 부문간균형이 정확히 보장되여야 옳게 유지될수 있다.

우리 나라의 현 실태를 고려할 때 채취공업의 발전을 가공공업의 발전에 앞세우며 철도운수와 전력공업의 발전을 인민경제 다른 부문의 발전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경제부문간균형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들이라고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채취공업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생명선이다. 금속공업, 기계공업, 경공업을 비롯한 가공공업부문의 발전이 채취공업의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채취공업과 가공공업의 호상관계를 설정하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은 가공공업에 요구되는 원료와 연료를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예비까지도 마련할수 있도록 채취공업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오늘 채취공업과 가공공업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채취공업을 가공공업부문보다 못지 않게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주목을 돌려야 한다.

채취공업의 발전속도와 가공공업의 발전속도의 호상관계를 경제실태에 맞게 잘 조절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 경제건설의 실태와 전망은 채취공업의 발전속도를 그 어느때보다도 빨리 다그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이 요구를 실현하는데서 현시기 가장 중요한것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검덕지구, 무산지구, 안주지구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야 80년대말에 가서 1억 2,000만톤의 석탄고지와 150만톤의 유색금속고지를 점령하고 1,500만톤의 강철고지점령에 필요한 쇠돌을 보장할데 대한 전망목표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이미 많은 힘을 넣어 마련해놓은 나라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할수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도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은 모든 힘을 검덕, 무산, 안주 지구들에 집중하여 그곳에서 일대 생산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수행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실현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또한 채취공업을 경시하려는 조그마한 경향도 철저히 극복하고 모든 탄광, 광산들이 생산을 정상화해나갈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특히 현대적인 채취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보내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채취공업부문에서 기술장비수준을 빨리 높이고 로력을 훨씬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급속히 늘여 가공공업에 필요한 원료, 연료를 원만히 공급해줄수 있다.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 철도운수부문은 방대한 규모의 생산적고정재산을 가지고있으며 그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철도운수와 다른 경제부문사이의 균형관계를 정확히 보장하자면 전반적경제가 발전하고 경제적, 지역적 련계가 확대되는데 따라 늘어나는 수송수요에 철도수송능력의 장성을 최대한으로 따라세우는것이 중요한것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철도부문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투자를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부문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철도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도록 옳게 지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새 철도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며 운수 수단과 장비들을 중량화, 고속도화, 자동화하고 전기기관차와 화차 생산을 늘이며 집합수송, 집중수송, 련대수송을 적극 받아들이고 3화수송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인민경제부문사이의 균형과 부문내부균형을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설정된 균형을 제대로 유지할수 있도록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계획규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흥정할 권리가 없으며 무조건 집행할 의무만이 있을뿐이다. 개별적단위들에

서 계획규률을 어기고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전반적인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으며 인민경제적균형성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계획규률을 엄격히 지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날 계획을 반드시 그날로 수행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그리고 지표별 계획수행총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월초병》을 없애고 계획을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기위한 투쟁을 정확히 벌려야 하며 계획규률을 어기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통제를 가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경공업혁명, 봉사혁명을 일으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더 높일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농사를 잘 짓도록 하는 한편 경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만부하로 돌려 여러가지 일용품과 식료가공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경공업품의 질을 훨씬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생산의 전문화를 널리 실시하는것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생산력배치를 잘하여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을 전문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학공업부문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화학섬유와 합성수지를 비롯한 경공업원료를 더 많이 생산공급해줄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봉사부문에서 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인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상품공급사업을 더욱 잘하는 한편 사회급양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해주며 거리와 마을이 흥성거리게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살림집건설을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살림집문제를 단시일내에 풀며 유휴로력, 유휴자재를 모조리 동원하여 생활필수품생산을 늘이고 사회급양에 대한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수요를 훌륭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가치법칙을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현실의 요구에 맞게 가치법칙을 더 잘 리용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은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경제법칙이라는 사정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낡은 사상잔재와 직접적으로 결합될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있다. 반면에 사회주의국가는 가치법칙의 리용형태인 가격, 원가, 수익성, 독립채산제와 같은 경제공간들을 통하여 사회적로동의 랑비를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하며 국가축적을 계통적으로 늘이도록 자극하고 통제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치법칙을 어떻게 정확히 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경제일군들의 사상관점과 립장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다. 중요한것은 가치법칙을 잘못 리용하면 개인리기주의를 조장시키고 생산과 류통에서 무정부성을 조성시킬수 있다는데로부터 가치법칙의 작용을 경시하려는 소극적인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는것이다. 가치법칙의 리용문제를 경원시하는것은 결국은 그것을 지나치게 내세우는것과 마찬가지의 후과를 낳을수 있는것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당의 의도대로 오늘의 현실에 맞게 가치법칙을 잘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치법칙을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옳게 리용하자면 독립채산제에 대한 규정을 끊임없이 완성하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설비공칭능력, 물자소비기준, 로동정량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계획실행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현물지표별계획수행보다도 생산액계획수행에 치중하거나 제품의 질제고에 무관심한 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해나가도록 하는것은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제지도일군들이 관심을 돌려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와 함께 경제지도일군들은 가격, 원가, 리윤과 같은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그것들을 생산자들이 제품의 품종을 늘이고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데 의욕을 가질수 있도록 잘 리용하여야 한다.

나라의 경제실태를 정확히 장악하고 적절한 조직적대책을 세워 경제사업에서 기동성을 보장하는것은 일군들의 경제지도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복잡한 경제사업을 잘해나가자면 생산지휘로부터 시작하여 경제지도의 모든 고리들에서 기동성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사업과정에 부딪치게 되는 예견치 않았던 문제들, 생산지휘과정에 제기되는 당면문제들을 제때에 옳게 해결할수 있다.

아래를 철저히 장악하는것은 경제지도사업에서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아래를 정확히 장악하여야 실태를 환히 꿰들고 지도를 실속있게 할수 있으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수 있다.

아래를 장악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아래를 장악한다고 하여 혼자만 뛰여다녀서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 일군들이 아래를 바로 장악하자면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일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장구한 기간 몸소 마련하신 혁명의 법칙이다. 이 방법대로 일하여야 경제지도일군들이 나라의 복잡한 경제실태를 손금보듯이 꿰뚫어볼수 있으며 아래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기동적으로 능숙하게 진행해나갈수 있다.

경제지도에서는 일군들이 아래를 잘 장악하는것과 함께 결심채택을 제때에 정확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아래단위에서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옳고그른것, 할것과 하지 못할것을 명백하게 갈라주어야 한다. 책임지는것이 두려워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면서 결심을 제때에 채택하지 않으면 매일, 매시각 변동되는 경제실태에 능란하게 대처할수 없고 올바른 지도를 할수 없으며 결국 경제사업전반에 심중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

경제지도사업에서 기동성을 보장하자면 또한 조직사업을 세밀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업에는 조직사업이 반드시 안받침되여야 한다. 경험은 조직사업을 세밀하게 하지 않고 일반적포치나 하여가지고서는 생산단위들이 원활히 움직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직사업은 특히 어렵고 복잡할 때일수록 더 파고들어야 한다. 경제건설과정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며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야 하는 창조와 변혁의 과정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애로와 난관 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할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조직사업과 능숙한 지휘로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어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또한 조직사업을 환경과 조건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방법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에서 정치사업선행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일군들의 경제지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치사업을 줴버리고 기술경제적인 실무사업에만 매여달려서는 어떤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70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와 경제는 다같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정치와 경제의 통일성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주도적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정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경제적리익을 보호하고 보장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게 한다. 그 어떤 기술경제사업도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조건에서만 훌륭히 수행될수 있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을 높여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켜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정치사업을 소홀히 하고 기술실무사업에만 매여달려서는 경제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어느 단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생산자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정치도덕적자극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이에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로 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하는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었다.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자들의 로동결과에 대한 정치적평가를 잘하고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그들의 생산의욕을 끊임없이 높여주어야 한다. 일군들은 우리 나라 현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상태에 대한 깊은 파악에 기초하여 두 자극을 결합시켜나가는데서 사소한 편향도 범하여서는 안된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의 첫째가는 임무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은 그 모든것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경제사업은 우리 당의 지도밑에 조직전개되고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방침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당에서 맡겨준 혁명과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은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경제건설방침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앞에 나선 경제건설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다. 그러나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불패의 혁명대오가 있으며 간고한 투쟁으로 쌓아올린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못해낼 과업이란 있을수 없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나라 현실의 요구에 맞게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경제조직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감으로써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와 원료자원의 효과적리용

주 용 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건설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원료문제를 자체의 자원으로 원만히 해결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우리 나라 자원에 의거하여 더욱 원만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50페지)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현대화, 과학화와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전략적로선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 자원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원래 원료보장문제는 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고리의 하나이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늘어나는 다종다양한 원료를 질, 량적으로 충분히 보장해야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진행할수 있으며 물질적부의 생산을 계속 늘일수 있다.

더우기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범위에서 원료쟁탈전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와 민족이 자기 나라의 원료자원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는것은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면서 적어도 원료의 70%이상을 자체의 자원으로 충족시킬데 대한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해오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원료기지가 튼튼히 꾸려지고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공업생산부문들이 많이 창설되게 되였으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업원료의 자급률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문제는 나라의 원료자원을 어떻게 리용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자체의 원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원료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여 인민경제를 주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원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도는 자기 나라의 원료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데 있다.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으로 원료에 대한 수요를 넉넉히 충족시킬수 있게 될 때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경제건설의 높은 목표와 방향을 주동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해나갈수 있으며 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자체의 원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또한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경제건설이 추진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부문구조를 계속 완비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원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여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고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유기적인 생산적련계를 보장하며 사회적생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공업부문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수 있게 한다.

자체의 원료자원을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도 커다란 작용을 한다.

원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거기에 들어있는 유용성분들을 모조리 회수리용하면 원료생산에 대한 지출을 크게 늘이지 않고도 여러가지 제품생산을 훨씬 증대시킬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원료자원의 탐사와 채취, 가공 및 수송에 드는 기본투자를 절약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생산물의 원가를 낮출수 있게 함으로써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게 한다. 원료자원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모든 유용성분들을 생산물로 전환시키면 폐설물로 인한 공해현상과 자연환경의 파괴를 미리 막을수 있게 된다.

이 모든것은 원료자원을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이 주체화된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고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원료자원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는것은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1,500만톤의 강철고지와 150만톤의 유색금속고지, 2,000만톤의 세멘트고지를 비롯한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의 중요고지들은 막대한 원료자원을 채취하고 가공해야만 점령할수 있는 매우 높은 목표이다.

이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려면 원료자원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현시기 원료자원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나라의 모든 원료자원을 전면적으로 조사장악하고 그 리용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원료자원은 그자체로서는 아직 한갖 자연부원에 지나지 않는다. 물질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자주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자기 나라의 원료자원을 남김없이 찾아내고 모조리 채취하여야 한다.

원료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한 첫공정으로, 출발적전제로 되는것은 탐사 및 조사 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광물표본실》로 알려져있는 우리 나라에는 여러가지 지하자원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으며 산림자원과 바다자원도 매우 풍부하다. 나라의 자연부원을 모조리 찾아내고 그 확보량을 늘이며 과학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원료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벌려나가자면 탐사 및 조사 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바다자원을 전면적으로 조사, 장악하며 그에 기초하여 원료자원의 종류별로 매장량과 분포상태, 물리화학적조성과 그 놓임새를 정확히 확정하는것이다. 특히 아직 우리 나라에 없거나 부족한 자원들을 적극 찾아내며 검덕, 량강도, 안주 지구와 같은 주요자원지대들을 탐사하는데 힘을 넣는것은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탐사, 조사 사업을 앞세우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기술수단들과 과학적인 탐사, 조사 방법을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하다.

나라의 원료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위한 탐사, 조사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면서 다량채취, 다량운반, 다량처리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그래야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울수 있으며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원료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우리는 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며 운반을 다양화하여 모든 원료자원을 모조리 캐냄으로써

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오늘 원료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원료의 종합적처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이다.

개발된 원료자원을 얼마나 효과있게 리용하는가 하는것은 가공공업부문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가 못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자연에서 채취한 시초원료는 물리화학적 조성과 형태에서 아직 자연적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있을뿐아니라 거기에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여러가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여있다. 광물원료를 비롯한 모든 원료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해내면 같은 량의 원료자원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제품을 값눅게 생산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더 잘 실현할수 있다.

만일 원료자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못쓰게 만들고 막대한 사회적로동을 랑비하게 되며 나아가서 경제건설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가까운 앞날에 1,500만톤의 강철고지와 150만톤의 유색금속고지만 점령하려고 해도 두려 수억톤에 달하는 광석을 채취해내야 한다. 이 광석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면 강철과 여러가지 유색금속을 필요한 량만큼 생산할수 있을뿐아니라 많은 량의 건재와 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공업제품을 얻어낼수 있다. 그러므로 원료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모든 폐설물들을 가공하며 공장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속의 유용성분까지 모조리 회수리용하기 [illegible] 세우는것이 필요하다.

원료를 종합 [illegible] 에서는 금속, 화학, [illegible] 공업부문들에서 원료속에 들어있 [illegible] 성분들을 다 걸러 [illegible] 방법을 [illegible] 들은 더욱 [illegible] 생산과 [illegible] 부산물에 매립 [illegible]

모으는 체계를 세우고 그것들을 해당한 전문화된 기업소에 보내거나 지실들로 생활필수품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소들을 지역적특성에 맞게 조직한다면 원료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다. 이것은 흑색 및 유색 금속광물과 비금속광물, 목재, 석탄을 비롯한 모든 시초원료들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함으로써 일단 채취된 원료들은 완전히 리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원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1차, 2차 가공을 발전시키고 자재의 종류와 규격을 늘이며 그것을 극력 아껴쓰는데도 힘을 넣어야 한다.

원료자원을 효과있게 리용하려면 필요한 성분들을 다 뽑아내는것과 함께 그것을 쓸모있게 다양한 규격과 재질을 가진 자재로 만들며 기술혁신사업을 강화하여 물자의 단위당소비기준을 극력 낮추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 채취하고 가공하는 원료자원을 적재적소에서 보다 유용하게 쓸수 있으며 그 랑비를 막을수 있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재를 규격별, 재질별로 더 잘 만들어내고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절약적으로 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릴수록 생산물의 원가는 더욱 낮아지고 로동생산능률이 높아지며 기본투자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다.

원료자원을 효과있게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원료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원료, 자재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는 오늘 경제발전속도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원료자원을 [illegible] 달려있다.

[illegible] 경제 [illegible]와 로동 [illegible] 그 [illegible] 없이 끊임없는 높은 [illegible] 다그쳐온것처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기세로

힘차게 내달리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원료, 자재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검덕, 단천 지구와 무산지구, 안주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구들에 힘을 넣음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필요한 원료, 연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자면 나라의 원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원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우선 기술혁명을 적극 밀고나가는것이다.

원료자원을 리용하기 위한 투쟁은 결국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변혁하여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나가는 보람찬 투쟁이다. 현대과학기술을 널리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원료자원의 효과적인 리용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갈수 없다.

기술혁명수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놀아야 할 사람은 다름아닌 과학자, 기술자들이다. 나라의 모든 원료자원을 찾아내며 그것을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맡겨저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 원료자원으로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공정들을 많이 연구해내며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생산에 널리 받아들이기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근로자들을 나라의 원료자원을 잘 리용하기 위한 기술발명과 창의고안, 생산합리화운동에 적극 참가시키며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은 원료자원의 리용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원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은 자연으로부터 원료를 채취하고 가공처리하며 리용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인것만큼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나라의 원료자원을 오늘뿐아니라 먼 앞날까지 전망성있게 쓸수 있도록 그 개발순차와 리용방향을 과학적으로 정하며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계획화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원료자원의 리용정도는 사회적생산을 어떻게 조직하는가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생산력의 배치를 개선하며 원료의 종합적리용과 폐설물의 합리적리용에 기초한 생산의 결합화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원료, 자재들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품종과 규격, 재질을 엄격히 따져가면서 용도별로 공급하며 수입원료를 국내원료로 대용하고 부족한 원료대신에 자원이 풍부한 원료를 쓰도록 지도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원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은 단순한 물자절약과 관련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의 인민경제의 주체화방침을 관철하여 나라의 만년대계를 튼튼히 세워나가는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원료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는 평화의 위력한 성새

김 영 남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는 세계정치에서 나서는 가장 첨예한 문제의 하나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막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시대의 엄숙한 요구로 되고있다.

지난 7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솔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이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방문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를 총화하고 이 방문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키며 아세아와 구라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현시기 인류앞에 나서고있는 초미의 문제는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이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여왔다. 계급사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인류는 반동적인 착취계급이 도발한 략탈적인 전쟁으로 하여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 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한 두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수천만 사람들이 희생되였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전쟁의 검은구름은 가셔지지 않고 항시적으로 무겁게 드리우면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여왔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분별없는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세계제패를 망상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우위》로 사회주의를 소멸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군비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대량살륙무기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세계도처에서 평화를 교란하고있다.

날로 격화되는 미제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인류는 지금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세계정세는 극도로 긴장하고 핵전쟁의 위험은 크지만 전쟁은 결코 불가피한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애호력량은 제국주의침략세력에 비할바없이 우세하다.

사회주의는 평화의 위력한 성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현시기 제국주의반동세력과 맞서있는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이며 인류사회발전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결정적요인입니다.》

침략과 전쟁이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라면 평화는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이다.

제국주의는 평화와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제국주의는 평화의 파괴자이며 전쟁의 화근이다. 평화의 무덤우에서만 제국주의는 생존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평화를 상징하고있으며 평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숭고한 리념으로 되고있다.

공산주의는 그것이 하나의 사상조류로 등장한 때로부터 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었으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사

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 왔다. 평화위업에서 쌓아올린 공적으로 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열렬한 평화투사로 공인되고 있다.

평화를 지향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리념은 사회주의가 세계적범위에서 승리한 력사적환경에서 더욱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계급적대립의 근원이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는 국내적으로 인민들을 억압착취하며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계급이나 계층이 있을수 없는것이다. 침략전쟁은 사회주의의 본성과는 아무러한 인연도 없다. 사회주의는 그 본성에 있어서 평화애호적이다.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협을 제거하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의 계급적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대외정책의 근본원칙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은 언제나 침략과 전쟁이 없는 세계,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관하게 투쟁한다.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와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군사적도발도 능히 타승하고 평화를 수호할수 있는 위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는 강력한 정치, 경제, 군사력에 의거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고있다.

사회주의가 세계적범위로 확대되기전까지만 하여도 제국주의자들은 승리한 사회주의를 《포위소멸》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는 한편 세계도처에서 제멋대로 침략과 전쟁의 불을 지를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세계의 정치적력량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에 공산주의《유령》이 떠돌아다닌다고 하던 구라파의 한복판에 오늘은 사회주의가 튼튼히 뿌리내리고 있으며 지구의 동반구와 서반구를 포괄하는 세계의 광활한 지역에서 사회주의는 불패의 력량으로 장성강화되고있다.

사회주의의 위력은 사회제도와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이 긴밀한 뉴대로 련결되여있는데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관계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고있는 계급적형제들사이의 진실하고 공고한 동지적관계이다. 사회주의나라들처럼 국제적으로 튼튼히 단결된 정치세력은 있을수 없다. 오늘 국제무대에 사회주의와 같은 위력한 정치세력이 있음으로 하여 세계의 평화애호력량은 제국주의침략세력에 비할바없이 강력한것으로 되고있으며 진보적인류는 세계의 평화를 수호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사회주의의 정치적위력을 믿음직하게 안받침하고있는것은 강력한 경제력과 방위력이다.

자본주의나라들을 휩쓸고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는 안정되여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생산이 비약적으로 장성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끊임없이 향상되고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된 상태에서 장성하는 사회주의경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으며 제국주의침략세력에 비한 평화애호력량의 우세를 확고히 보장하도록 물질적으로 튼튼히 담보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의 혁명적무장력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제때에 짓부실수 있게 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오늘 사회주의나라들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강력한 군사적보루로 되고있다. 매 사회주의나라들의 방위력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주의의 동방초소와 서방초소는

더욱 튼튼히 꾸려졌으며 진보적인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짓부시고 세계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위력한 성새를 가지게 되였다.

평화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사회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더욱 커지고있다. 이 불패의 위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 확고히 서있으며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인류공동의 위업을 훌륭히 실현해나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나 새 세계전쟁이 방지되고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바로 사회주의나라들이 위력한 힘을 가지고있고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있는것이다.

지금 사회주의나라들은 핵무기고를 동결시키고 군비를 제한축감하며 세계의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며 새 세계전쟁,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은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세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는 미제의 무모한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단호히 규탄하고있으며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와르샤와조약참가국들과 나토사이에 평화적관계를 유지할데 대한 건설적인 제안들을 내놓았으며 서구라파나라들에 미국의 신형중거리핵미싸일이 새로 배비되는것과 관련하여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이미 두차례나 세계대전의 발원지로 되었던 구라파땅에서 새 세계전쟁의 위험을 막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실은 사회주의야말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불패의 성새이며 사회주의의 위력을 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입장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날로 격화되는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사회주의의 동방초소를 철벽으로 지켜왔으며 오늘도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은 전쟁의 위험을 막고 자유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형제적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재부로 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보장하는것을 일관한 대외정책으로 내세우고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형제나라들과의 국제주의적 단결과 련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다. 형제적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것은 1982년 9월에 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중국방문과 1983년 6월에 있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 그리고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은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나가며 사회주의동방초소를 지켜나가는 조중 두 나라 사이의 단결을 더욱 강

…함으로써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공고…하는데서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방문은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이번 방문과정에 사회주의나라들이 복잡한 현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되고 견해의 일치가 이루어졌으며 사회주의력량을 분렬시켜 각개격파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하나의 투쟁대오에 굳게 뭉쳐 전진하려는 형제당, 형제나라들의 공통된 혁명적립장이 표명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방문이 계급적형제들인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전투적인 친선단결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오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이 세계혁명앞에 지니고있는 중요한 임무이다.

평화는 오직 투쟁을 통하여서만 쟁취할수 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전쟁은 방지될수 있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수호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반제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려야 하며 침략의 마수가 뻗치고있는 모든곳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단호한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 인류를 또다시 새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책동하는 미제의 모험적인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없다.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핵군비경쟁을 저지시키고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철폐를 실현하여야 하며 세계의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넓혀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현시기 미제의 새로운 침략전쟁, 핵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의 근본리익, 전반적인 사회주의의 리익을 위하여 언제나 자기의 반제적립장을 끝까지 견지할것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공고한 국제주의적뉴대에 기초하여서만 믿음직하게 담보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휘황한 미래를 위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은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타격을 주어야 하며 그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친선과 단결은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매개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통일단결된 힘으로 세계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수 있다.

긴장된 오늘의 국제정세는 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긴밀히 협조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이 취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적극 지지하고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기초한 친선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전쟁세력을 타승하고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나라들은 국제관계분야에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동지적협조의 원칙에서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계속 강화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계급적형제로서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도는 다방면적인 교류와 합작을 실현하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와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의 리념에 맞게 자체의 힘과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면서 형제나라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류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로 된다. 다방면적인 교류와 합작은 사회주의나라들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려는 제국주의렬강들의 책동을 분쇄하며 매개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전반적위력을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지기 위한 힘있는 수단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 5월과 6월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방문을 통하여 이룩하신 성과를 더욱 빛내이며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 보다 폭넓은 교류와 합작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것이다.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현정세는 정견과 신앙, 사회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단결하여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을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삼고 쁠럭불가담나라들과 제3세계나라 인민들의 성스러운 위업을 성심성의로 적극 도와줌으로써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하며 제국주의침략세력에 대한 평화애호력량의 결정적우세를 확고히 보장해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이 제멋대로 날뛰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가고 국제정세는 평화애호력량에 보다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조선인민은 평화애호적인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평화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 언제나 평화롭게 살것을 바라고있다. 우리 인민은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밑에 세계의 모든 진보적력량, 평화애호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인류의 공동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제2차세계대전발발 45돐과 관련하여—

세계를 전쟁의 불길속에 휘몰아넣었던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난 때로부터 마흔다섯해가 된다.

제2차세계대전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준비되였으며 파쑈독일과 그 동맹자들에 의하여 도발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은 전인류를 노예화하고 전세계를 파쑈화하려는 제국주의전쟁이였으며 세계 민주주의력량이 파시즘과 군국주의 세력을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반파쑈해방전쟁이였다.

파쑈독일은 전쟁을 도발한 첫시각부터 모든 강점지역들에서 몸서리치는 살륙만행을 감행하였으며 인류가 세기를 두고 창조한 물질문화적재부를 닥치는대로 파괴하고 불살라버렸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중국대륙과 아세아의 넓은 지역에서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략탈하는 황페화정책을 실시하였다. 만 6년에 걸친 제2차세계대전은 실로 그 규모에 있어서 전대미문의것이였다. 이 전쟁에는 무려 40개의 나라들이 휩쓸려들어갔으며 1차세계대전때보다 5배나 많은 약 5,000만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다.

그러나 전쟁광신자들, 20세기의 야만들은 그 어떤 발악적인 책동으로써도 저들의 더러운 야망을 실현할수 없었으며 력사의 전진을 멈춰세울수 없었다.

정의의 위업에 일떠선 전세계의 민주주의력량의 단호한 반격에 의하여 파쑈독일과 군국주의일본 및 그 동맹자들은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갔으며 종국적인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이 전세계 민주주의력량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구라파에서 파시즘은 그 숨통이 끊어졌으며 동방에서 아세아대륙을 제패하려던 일본제국주의가 완전히 괴멸되였다. 특히 쏘련의 결정적역할에 의한 파쑈독일의 멸망으로 제2차세계대전이전에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이 독일을 리용하여 쏘련의 위력을 약화시키고 제국주의침략세력을 강화하려던 계획이 근본적으로 파탄되였다.

파쑈독일과 파쑈이딸리아, 일본군국주의가 패망됨으로써 세계는 파쑈화의 위험에서 구원되게 되였으며 인류는 제국주의전쟁의 재난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세력의 배치에서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다. 자본주의세계 즉 제국주의반동세력은 현저히 약화된 반면에 국제민주주의력량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과 그 전과정은 전쟁의 화근, 평화의 교살자는 다름아닌 제국주의이며 인류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것은 전쟁방화자들이 아무리 분별없이 날치여도 인민대중의 정당한 위업을 말살할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은 반드시 저들이 지른 불길에 타죽고야만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세계를 전화속에 몰아넣었던 히틀러와 도죠의 무리들은 력사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였으나 오늘 새로운 전쟁광신자들이 수치스러운 력사의 전철을 밟으면서 또다시 인류를 위협하며 새로운 세계전쟁, 핵전쟁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그리하여 세계에는 제2차세계대전전야를 방불케 하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지구우에는 전쟁의 검은구

롬이 더욱더 무겁게 드리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정세는 극도로 긴장해지고있으며 새 세계대전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42페지)

오늘 인류를 또다시 새로운 세계전쟁, 핵전쟁에로 몰아넣으려는 장본인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다. 호전적인 레간정부는 세계를 지배하려고 망상하면서 새로운 침략전쟁, 열핵전쟁을 미친듯이 준비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준비책동은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군비확장과 군사비증강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한때 파쑈독일과 파쑈이딸리아, 군국주의일본은 제2차세계대전을 준비하면서 군사비를 급격히 늘이고 군국화를 미친듯이 다그쳤다.

파쑈광신자들의 전철을 밟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새로운 세계전쟁준비에 광분하면서 군비확장에 그 어느때보다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84회계년도의 군사비예산을 무려 2,370억딸라로 책정하였으며 1985회계년도에는 그것을 근 3천억딸라로 늘일것이라고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81—1986년 5개년계획》기간에 《핵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2,200억딸라를 투자할것을 예견하고있으며 《엠엑스》미싸일생산에 250억딸라, 핵잠수함건조에 210억딸라, 새로운 전략폭격기 《비1비》생산에 180억딸라를 지출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미제는 지어 《별세계전쟁》무기인 인공위성요격미싸일과 레이자무기개발을 계속 추진시키는데로까지 나아가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무력증강을 위하여 얼마나 서두르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새로운 세계전쟁 준비책동에 광분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제2차세계대전을 준비하던 파쑈전쟁광들이 침략적군사블럭을 미친듯이 확장하던 그 력사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있다.

침략적군사블럭을 조작하고 확대강화해나가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새로운 세계전쟁을 준비할 때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지난날 파쑈독일과 군국주의일본이 바로 그러하였다.

파쑈독일과 군국주의일본은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1936년 11월에 악명높은 침략적군사블럭인 《반공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다음해에는 파쑈이딸리아도 여기에 가담하였다. 그리하여 구라파와 아세아 지역에서 이른바 파쑈련합이 형성되였고 이것을 계기로 하여 파쑈국가들은 세계재패의 야망을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악명높은 침략적군사블럭인 나토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침략적군사블럭을 조작함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 진보적력량을 반대하는 군사적《포위망》을 형성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나토성원국들에 사회주의나라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순항미싸일과 《퍼싱2》미싸일과 같은 신형중거리핵미싸일을 새로 배치하고있다. 구라파에서 《군사적우위》를 차지하려는 미제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하여 이 지역에는 방대한 군사적무력, 특히 핵무기들이 집결되였으며 두차례나 세계전쟁이 일어났던 구라파대륙은 또다시 새로운 세계전쟁, 핵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지역으로 되였다.

미제의 군사블럭정책과 새로운 침략전쟁 도발책동은 나토형의 새로운 군사블럭인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미제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이 터지고 전아세아지역이 전쟁마당으로 될 위험이 더욱 커지고있다.

미제는 이와 같이 군사빨력을 강화함으로써 나토성원국들과 일본을 비롯한 저의 《동료》들을 세계재패를 위한 새 전쟁의 제물로 리용하려 하고있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군비확장과 군사빨력조작을 서두르면서 새로운 세계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

력사는 제국주의자들의 군비확장정책과 군사빨력정책의 귀결은 다름아닌 전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새 전쟁준비를 다그쳐오던 파쑈독일은 구라파에서 1938년 3월에 오지리를 병탄하고 1939년 3월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를 강점하였으며 파쑈이딸리아는 1935년 10월에 에티오피아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고 1939년 4월에는 알바니아를 침략하였다.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31년 9월 중국의 동북지방을 침공하였고 1937년 7월에는 전중국을 삼킬 복적밑에 중일전쟁을 도발하였던것이다.

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해오던 파쑈독일은 1939년 9월 1일 뽈스까를 불의에 침공하였으며 그것을 계기로 하여 전쟁은 전구라파적인 범위로 확대되게 되였다.

세계도처에서 지역전쟁, 국부전쟁을 벌리면서 그것을 점차 확대해나가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새 세계전쟁 도발책동의 상투적수법으로 된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중근동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내륙에서 이 지역인민들을 반대하는 지역전쟁, 대리전쟁을 벌려놓고있다.

중근동을 주요자원지대로, 군사전략적거점으로 틀어쥐며 아랍나라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미제의 책동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는 어느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으며 전쟁상태가 항시적으로 지속되고있다.

미제는 까리브해역과 메히꼬만에서 군사적도발을 련이어 일으키고있으며 지어는 자그마한 섬나라인 그레네이더를 무력으로 강점하는 책동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온두라스반동들과 소모사잔당들을 부추겨 승리한 니까라과혁명을 압살하기 위한 군사적간섭과 무장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오늘 미제에 의한 새 전쟁의 위험이 가장 엄중하게 조성되고있는 지역은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세아, 대평양 지역이다.

미제는 이미 남조선과 일본본토를 저들의 아세아전략을 위한 핵전초기지로 만들고 7함대의 전략적배치중심을 조선동해로 옮겼으며 오끼나와와 괌섬을 핵타격기지로 전변시켰다. 이 수역에 있는 미제의 함선들과 비행기들, 잠수함들에 보다 위력한 신형핵미싸일들을 장비하며 동북아세아와 동남아세아 일대에 미제의 새로운 중거리핵미싸일들을 전개하기 위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미제는 특히 남조선에서 현대적인 자전기재들과 최신살륙무기들로 장비된 4만여명의 미군과 근 100만명의 괴뢰군 그리고 1,000여만명의 준군사인원들을 항시적인 동원태세에 두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남조선에는 이미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와 《랜스》미싸일, 《에프 16》전투폭격기를 비롯한 핵운반수단들이 배비되였다. 미제호전광들은 남조선에 새로 중성자무기와 중거리핵미싸일들까지 끌어들이려 하고있으며 《조선반도유사시》에 핵무기들을 사용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남조선에 침략무력, 핵무력이 끊임없이 증강되는 한편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소동, 핵공격연습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1976년부터 미제가 남조선에서 벌리고있는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은 매해 규모가 커지고있으며 그 도발적인 성격이 더욱더 부각되고있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하여 극동의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악화되고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검은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밀려오고있다.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미제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흉악한 원쑤이며 전쟁도발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새로운 침략전쟁에 매달리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류례없이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발악적책동의 산물이다.

대내외적인 심각한 위기를 겪을 때마다 침략전쟁에서 그 출로를 찾으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생리이며 상투적수법이다.

침략전쟁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경제적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전쟁을 통하여 원료원천지, 상품시장, 자본투하시장을 확대하며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약탈을 전례없이 강화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침략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날로 심화되고있는 사회적불안과 계급적모순을 무마시키고 대중의 이목을 날카로운 국내문제로부터 밖으로 돌리게 하려고 하며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한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당면한 정치경제적위기를 수습하고 뒤흔들리는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침략과 전쟁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것이다.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이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속에서 일어났으며 미제의 조선침략전쟁 역시 그러하였다.

미제는 오늘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국제적으로 더욱더 고립약화되고 [illegible]

[illegible]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책동에도 [illegible] 사회주의력량은 비할바없이 [illegible] 세력나라들과 쁠럭불가담 [illegible] 은 방대한 력량으로 자라났다. [illegible] 반제평화애호력량이 [illegible] 반면에 제국주의세 [illegible] 의 길을 걷고있다.

미제국주의는 오늘 걷잡을수 없는 정치경제적위기에 빠져 허덕이고있다.

미국경제는 《1930년래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으며 미국정부가 취한 일련의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생산의 전반적인 침체와 감퇴, 재정금융상태의 악화, 실업의 증대와 같은 현상들이 더욱더 엄중하게 나타나고있다. 파괴적인 경제위기와 반인민적인 정책의 후과로 인민대중의 불만과 사회적불안이 그 어느때보다도 증대되고있다. 생존의 권리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광범한 계층들을 망라하면서 급격히 확대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수습할수 없는 파국적인 위기에 허덕이고있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모험적인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이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오늘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인류앞에 나서고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세계 진보적인류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이다.》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36페지)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하여 오늘 전쟁의 위험은 더욱더 짙어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전쟁소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지 않고서는 핵전쟁의 위험을 막을수 없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없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침략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오늘 국제정세가 긴장하고 세계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은 크지만 전쟁은 결코 불가피한것이 아니다. 전쟁은

…히 방지될수 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는 세계 사회주의나라들이 서있다.

사회주의는 평화의 위력한 성새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의 어떠한 침략과 전쟁 도발책동도 능히 타승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다. 사회주의는 구라파의 한복판에 튼튼히 자리잡고있으며 지구의 동반구와 서반구를 포괄하는 세계의 광활한 지역에서 불패의 력량으로 날을 따라 승승장구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지구상에 사회주의가 출현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사회주의를 소멸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으나 그것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사회주의를 소멸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책동은 앞으로 영원히 성공할수 없다.

사회주의력량과 함께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 민족해방운동 역시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며 반전평화력량이다. 핵전쟁의 위협이 무겁게 드리우고있는 구라파나라들에서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전쟁세력은 커다란 타격을 받고있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력량이 굳게 단결할 때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전쟁, 핵전쟁 도발책동을 능히 저지파탄시킬수 있으며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변천된 현실을 똑바로 보고 무모한 전쟁정책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파쑈독일과 군국주의 일본 그리고 그 동맹자들이 저지른 죄악의 저주로운 력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계속 무모한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히틀러나 도죠보다 더 큰 참패를 당할것이며 세계력사에 지울수 없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보장하는것은 오늘 세계정치에서 초미의 문제로 된다.

조선문제는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힘》의 방법, 군사적위협이나 전쟁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은 평화를 원하며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일관한 립장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3자회담제의에 지체없이 호응해나서야 하며 《힘의 정책》을 그만두어야 한다.

평화는 구걸해서는 얻을수 없으며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모든 평화애호력량은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려야 하며 침략의 마수가 뻗치고있는 모든곳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단호한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

반제평화옹호력량은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증강과 핵군비경쟁을 저지시키며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철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계의 공고하고 항구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자주의 거세찬 흐름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 밀려들고있다. 모든 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한다면 미제는 세계에서 발붙일곳을 잃게 될것이며 전쟁정책을 마음대로 실현할수 없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의 침략전쟁, 핵전쟁 도발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는 남조선농업

최 창 덕

오늘 전두환괴뢰도당은 이른바 《복지농촌건설》에 대하여 자주 떠들고있다. 놈들은 농업에 힘을 넣어 《식량의 지속적인 증산》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남조선농촌을 《복지농촌》으로 《전환》시킨다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선행괴뢰도당이 들고나왔던 《중농정책》이나 《농업근대화정책》과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농촌수탈원천을 유지확대하며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농업위기의 진상을 감싸보려는 음흉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남조선의 농업은 가장 락후하고 암담한 부문의 하나로서 날을 따라 더욱 령락파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농업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김일성저작집》 제19권, 320페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동적농업정책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40년동안 농업위기가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다. 남조선의 농업위기는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초래되고있는것이 아니라 농업생산의 파국으로 하여 지속되고있는 엄중한 위기이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광범한 근로대중의 생활을 더욱 령락시키고있으며 남조선경제전반을 혼란에로 몰아넣고있다.

남조선농업위기의 심각성은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의 물질적토대가 혹심하게 파괴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남조선에서는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인 농경지가 계속 줄어들고 못쓰게 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해마다 수많은 농경지를 군용지, 군수산업부지로 빼앗는 범죄적책동을 감행하여 남조선의 농경지는 체계적으로 감소되고있다. 1967년부터 1977년까지의 사이 10만 4,500여정보의 농경지가 줄어들었으며 최근년간에도 해마다 1만정보의 농경지가 줄어들었다. 뿐만아니라 괴뢰도당이 치산치수를 하지 않아 많은 농경지가 못쓰게 되고있다. 최근 몇해사이에만도 큰물피해로 인하여 근 17만 4,000여정보의 농경지가 침수 또는 류실, 매몰되였다.

남조선에서는 또한 농경지들이 매우 불안전한 상태에 있다. 남조선의 대부분의 논밭들은 수리시설이 되여있지 않고 지력이 계속 떨어지고있기때문에 쓸모없는 땅으로 전변되고있다. 남조선의 출판물들이 밝힌데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 《수리안전답은 고작 30% 정도에 불과》하며 그밖의 70%의 논들은 가물과 큰물 피해를 면할수 없는것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55만정보의 논이 유[illegible]물한유량이 부족되여 《영양실조》에 걸려있으며 밭도 60%가 《토지개량》을 시급히 해야 할 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난날의 곡창지대였던 남조선의 농토가 오늘에 와서 얼마나 혹심하게 파괴되였는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남조선농업의 기술적수단들은 더욱 한심한 형편에 있다.

남조선에서 영농기술장비는 의연히 원시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따라서 농업생산은 중세기적인 뒤떨어진 기술에 기초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는 0.1대, 파종기는 0.2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기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원시적인 농기구를 가지고 고역에 시달리면서 농사를 짓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에 의하여 빚어진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의 파괴는

조선에서 농업생산의 전면적파산을 져오게 하고 식량위기를 더욱 격화시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남조선농업위기의 심각성은 또한 농경리의 경영위기에서 나타나고있다.

업생산의 침체와 감퇴로서 표현되는 업위기는 곧 농민경리의 경영상위기 된다.

농민경리의 경영상위기는 지속적인 가수지적자와 농가부채의 증대, 농민경리의 령락과 파산으로 나타난다.

.15후 오늘까지의 남조선의 농업력사는 농가수지적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농민경리의 끊임없는 령락과 파산의 력사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영위기는 최근년간 더욱 격심해지고있다.

1970년대말에 폭발된 경제위기가 전례없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일어난 농업생산의 침체와 알곡생산의 감퇴, 생산비의 75%에도 못미치는 낮은 쌀값의 강요와 다른 나라 량곡의 무분별한 도입, 농가들의 농업경영비지출의 증가와 조세를 비롯한 각종 화폐지출의 계속적인 증대는 농가수지형편을 농민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전변시키고있다. 이것은 농가수지적자를 계속 늘이고 농가부채를 해마다 더 크게 루적시키고있는 엄중한 결과를 필연적으로 빚어내고 있다.

그리하여 남조선농민들에게 차례지는 것은 묵은 빚에 덧놓인 새 빚뿐이다.

1979년에 남조선농민들이 진 농가평균부채가 100만원이였다면 1983년에는 그것이 무려 35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것은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이 《농가소득증대》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온 지난 3~4년사이에 사실상 남조선농민들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였으며 전반적으로 령락과 파산의 수렁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해마다 더해지고있는 농민경리의 령락과 파산은 수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게 하고있으며 이것은 남조선농촌을 더욱더 황폐화시키고있다.

리농현상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어느 시기보다 더 심각하고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남조선에서 1976년에 45만 9,000명이였던 리농민수가 1981년에는 무려 88만여명에 달하였으며 그것은 그후에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리농민들중 대부분이 청장년들이며 이들의 비중은 해가 바뀜에 따라 날로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에서의 이러한 리농현상은 농업취업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를 촉진하고 농업로동력의 부족, 영농조건의 악화를 산생시키고있다. 이것은 농민생활령락의 필연적결과인 동시에 농촌을 황페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의 혹심한 파괴와 농민경리의 령락과 파산으로 하여 농업생산이 급격히 줄어들고있다.

남조선출판물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의 알곡생산량은 1977년에 1,047만석이였던것이 1982년에 와서는 그것이 929만석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주곡》으로 되여있는 쌀생산량은 같은 기간에 811만석으로부터 693만석으로, 콩류는 38만석이였던것이 32만석으로 감소되였다. 결과 남조선에서 알곡의 자급률은 1978—1983년사이에 72.6%에서 42.2%로 대폭 떨어졌다.

알곡생산의 이러한 감퇴현상은 그렇지 않아도 첨예한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던 식량위기를 한층 더 격화시켰으며 외국으로부터의 알곡수입량을 더욱 증대시켰다.

1978년에 360만톤이였던 남조선의 수입량곡은 1981년부터 800여만톤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이것은 오늘 남조선알곡생산량의 1.2배가 훨씬 넘는것이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미제의 썩은 잉여농산물판매시장으로, 세계적인 식량기근지대로 더욱 전락되여가고있다.

농업생산의 전반적인 침체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농업이 전례없는 심각한 파국적위기를 겪고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농업이 겪고있는 심각한 위기

는 엄중한 경제적 및 사회적 후과를 빚어내고있다.

농업위기는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의 침체, 알곡생산의 감퇴와 미국잉여농산물도입의 격증을 가져옴으로써 농업과 공업간의 불균형을 더욱 확대하고 경제생활전반에서의 위기와 혼란을 심화시켰을뿐아니라 남조선농산물시장에 대한 미제의 지배를 더욱 강화하게 하였다.

또한 그것은 광범한 근로농민들의 처지를 악화시키고 농촌의 침체화를 가져옴으로써 미제침략세력과 그 앞잡이들을 한편으로 하고 농민대중을 다른편으로 하는 계급적모순을 첨예화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대립을 보다 심각하게 하였다.

남조선에서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농업위기는 결코 우연하게 빚어진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8.15후 오늘까지 체계적으로 실시해온 식민지농업정책과 매국배족적인 책동의 결과이며 특히는 레간정권의 전쟁정책과 강화된 잉여농산물강매정책의 산물이다.

력대미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레간정권은 침략과 전쟁 정책의 요구에 따라 남조선의 모든 물적 및 인적 자원을 군사적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는 한편 잉여농산물강매정책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결과 남조선에서 군사비는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있으나 농업에 돌려지는 자금은 더욱더 줄어들고있다. 례컨대 남조선괴뢰들의 재정예산의 총투자액중에서 농림수산부문에 돌려진 투자액이 1967—1971년에는 16.3%에 지나지 않았으며 오늘에 와서는 그것마저도 4.7%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투자》로서는 농업생산에서 소모된 《자본》도 보상할수 없으며 따라서 단순재생산도 할수 없으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다른 한편 미제는 군사비를 충당하고 군사경제적잠재력강화를 목적한 수출주도형의 식민지하청공업을 위한 차관을 남조선에 쏟아붓는 동시에 잉여농산물을 강권으로 내리먹여 남조선의 농산물시장을 장악함으로써 면화, 대마, 모시를 비롯한 섬유작물, 쌀, 밀, 콩, 강냉이 등 알곡작물 그리고 돼지, 소 등 축산물 생산을 모조리 질식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농업생산토대를 파괴하며 농산물시장을 틀어쥠으로써 남조선농업을 생산과 류통 령역에서 완전히 체계적으로 지배, 통제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농업정책과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있는 전두환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 농업시책이야말로 남조선에서 심각한 농업위기를 낳고있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미제의 식민지농업정책과 전두환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책동이 계속되는 한 오늘의 남조선농업위기는 결코 해소될수 없다.

오직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그 앞잡이들의 군사파쑈통치를 쓸어버리며 조국을 통일할 때만이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올수 있다.

남조선 농민들과 인민들은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미제침략세력을 내쫓고 전두환괴뢰도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근 로 자 1984년 제9호(루계 503호)

편 집 위 원 회

편집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84년 9월 1일 발 행 • 1984년 9월 3일

ㄱ—45245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0호

평 양 근로자사 198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0 호(510)

차 례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대한 전통을 빛내이자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은 통일단결의 위대성과 불패성으로부터 오는 위력이다.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은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당의 가장 중요한 면모이다.

당의 통일단결은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을 한시도 멈출수 없다.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리지 않으면 대렬의 순결성을 고수할수 없으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나갈수 없다.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특히 혁명의 세대교체와 함께 줄기차게 이어져나가야 한다. 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은 혁명의 세대가 바뀔 때마다 통일단결을 고수하지 못하면 변절자, 음모가들이 나타나 당을 몰락하고 혁명에 엄중한 후과를 빚어낸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혁명은 주체위업을 순결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오늘의 력사적조건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킬수 있는 터전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것은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전진하는 혁명의 요구에 맞게 이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여야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으며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이미 마련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끊임없이 다지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으로 된다. 통일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 때 우리 혁명의 앞길에 어떤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드팀없이 높이 받들고 그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위대한 당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이 이룩한 혁명적단결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전형이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감입니다. 항일혁명선렬들이 이룩한 혁명적단결의 전통은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형성된것으로 하여 그 감화력과 생활력이 매우 큽니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은 그 기저에 놓여있는 전통의 위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의 모든 혁명전통이 그러하듯이 통일단결의 전통도 혁명위업이 완성될 때까지 당대렬을 끊임없이 공고히 해나갈수 있는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은 그 위대한 모범의 힘으로 하여 혁명대오의 단합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튼튼한 초석으로 된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의 위대성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령도의 중심,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한 수령님과 혁명전사들사이의 동지적이며 혈연적인 참다운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혁명의 령도자, 향도성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었으며 수령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투쟁하였다. 혁명의 큰뜻을 품고 투쟁의 길에 나섰으나 진정한 령도자를 만나지 못하여 갈길에서 헤매이던 열혈청년 김혁동지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품에 안기게 됨으로써 비로소 참다운 투쟁의 길을 찾게 되였으며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생명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조선혁명의 수뇌부를 지켜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철통같이 굳게 뭉쳐 싸워나갔던것은 그들이 실지투쟁과정을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깊이 체득하고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라야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있었기때문이다.

아직은 당도 정권도 없었고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알수 없었던 그 간고한 시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싸운 불굴의 혁명정신은 그 고결성과 높은 정치사상성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이 가지는 위대성은 혁명대오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끝없이 신봉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단합된 순결한 통일체를 이룬데 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당의 통일단결의 기초이며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이다.

당의 창건자인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투쟁무대에 출현한 이래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제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대렬의 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지 못하면 행동상통일을 이룩할수 없으며 혁명투쟁에서 엄혹한 시련을 겪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교훈도 바로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은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쓰라린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대오안의 사상적순결성을 고수하는것을 첫째가는 의무로 내세우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끝없이 신봉하고 투쟁의 신념으로 삼았으며 종파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혁명적사상조류들을 철저히 반대하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을 견결히 옹호하여 투쟁하였다. 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반대하여나섰던 혁명의 배신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하시였으며 항일유격대원들이 하나의 사상, 수령님의 사상만을 받들고 그 순결성을 끝까지 고수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혁명대오안에는 주체의 사상체계가 꽉 들어찼으며 그 어떤 잡사상도 발붙일수 없었다.

장구하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사상과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을 투쟁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혁명대오안의 사상적순결성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여 투쟁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모범은 그 거대한 감화력으로 하여 오늘도 당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워나가는 우리 당원들을 끝없이 고무하고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대한 전통은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분자들과 반당적조류들을 극복하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튼튼히 고수되고 그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당의 통일단결을 보장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섰던 투쟁대상은 종파주의였

다. 종파분자들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그들은 공산주의대렬안에 잠입하여 혁명이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당에 도전해나섰다. 종파주의를 허용하고서는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할수 없었으며 당이 하나의 통일체로서 존재할수 없었다.

변절자, 시정배로 굴러떨어졌던 종파분자들은 해방후 혼란된 틈을 타서 당의 통일단결을 파피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을뿐아니라 저들의 종파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어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위대한 전통에 확고히 의거함으로써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당안에서 철저히 극복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극복하는것으로 끝날수 없었다. 우리 당은 종파의 오물을 청산한 다음에도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통일을 위한 력사적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켰다.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부딪쳤던 수많은 난관들을 이겨내면서 우리 당이 당안에서 종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위대한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었던것은 바로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과 반종파투쟁의 력사적경험에 튼튼히 의거하여 그것을 훌륭히 구현하였기때문이다.

통일단결을 공고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보람찬 길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 당은 이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모든 당원들이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니였던 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며 드팀없이 구현해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 되자!》라는 구호밑에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이 깊이있고 실속있게 벌어짐으로써 오늘 우리 당의 면모는 더욱 새로와졌으며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통일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졌다.

이처럼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은 그 위대한 위력으로 하여 혁명이 전진하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하지 않고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하여야 할 고귀한 재부로 된다.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밑에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당대렬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한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예이며 크나큰 자랑이다.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은 과거에도 중요하였지만 오늘에도 혁명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욱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 혁명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 길에서 이미 멀리 전진하였다. 그러나 조선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계속 간고한 투쟁을 하여야 한다.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석같이 굳게 뭉쳐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며 영원히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통일단결과 순결성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당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대를

어 고수하고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ㄹ. ㄷ〉의
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
본, 36페지)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첫째도, 둘
도, 셋째도 단결하여야 한다. 전당이
게 단결하면 승리하고 단결하지 못하
 승리할수 없다. 단결이자 곧 혁명승
이고 혁명승리는 바로 단결에 있다.
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위업의 완성을
한 근본전제로 된다.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
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
 문제는 전체 당원들이 당의 위대성
 심장으로 체득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리에 사상의지적으로, 의리적으로 굳
 뭉치는것이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
 위력은 그것이 사상의지적이며 동지
이라는데 있다. 이러한 단합이라야
 어떤 의무감에서 이루어진 단합, 실
적인 단합으로 되지 않고 참다운 의
적이며 혁명적인 통일단결로 될수
있다.
사상의지적이며 동지적인 통일단결의
저에는 혁명의 령도자의 위대성에 대
한 불변의 신념, 자기 수령을 끝없이
르려는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가 놓여
있다.
혁명가들은 누구나 수령의 손길아래
에서 자라나게 된다. 따라서 신념이 강
하고 의리에 밝은 혁명가들은 자기 령
도자를 철석같이 믿고 진심으로 높이
받들어나간다. 이러한 신념, 이러한 의
리를 가진 혁명가들이 자기 령도자, 자
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그러한 통
일단결만이 가장 숭고한것으로, 혈연적
이며 의지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속에서 당의 위대
성에 대한 교양사업을 폭넓고 깊이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창조적사상리론활동과 우리 당 사
상리론의 정당성, 당의 령도의 혁명성
과 빛나는 업적에 대하여 심오하게 인
식시키는것이다.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것은 우리
당의 지상의 과업이며 우리 당 사상리
론활동의 근본출발점이다. 우리 당은
주체위업을 중심에 놓고 사상리론활동
을 벌리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
나게 실현하고 완성하는데 모든것을 귀
착시키고있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시기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들
을 집대성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인것으
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
리 혁명의 전진과정을 힘있게 다그치는
사상정신적재부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이 위대한 사상리론의 혁
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인간개조, 사회
개조, 자연개조를 위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이 땅우
에 민족적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마련
하였으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인민들의 념원을 훌륭
히 실현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이룩한 이 위대한 사상리
론적업적, 혁명업적으로 당원들을 철저
히 무장시킬 때 그들은 당의 사상리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깊이 체득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
며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에서 충
성의 열정을 더욱 높이 발휘하게 된다.

특히 간부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절대적권위와 높은 위신에
대하여 똑똑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높은 령도적권위와 존엄, 위신은 고
귀한 업적과 경험을 쌓은 당만이 지니
게 된다. 우리 당의 높은 령도적 권위
와 위신에 대하여 똑똑히 인식할 때 간
부들과 당원들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혁명하는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을 깊이 간직하게 되며 당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끝까지 싸워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은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높은 령도적권위와 위신에
대한 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것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굳임없는 투쟁을 통하여 원칙적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을 빛내이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질수 없으며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반당적조류를 반대하는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계급투쟁의 당내반영이다. 반당적조류와 이색적요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고서는 당대렬의 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대한 통일단결은 준엄한 투쟁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굳임없는 완강한 투쟁이 없이 당의 통일단결을 보장하는 그 어떤 절대적담보란 있을수 없다.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된 오늘의 높은 요구에 맞게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자면 당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심화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전체 당원들을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견결히 고수하는 투쟁의 기수로 만드는것이다.

당의 통일단결은 당대렬이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혁명가들로 꾸려질 때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질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유일사상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굳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간부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혁명적단결에 지장을 주는 자그마한 요소들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우리 당안에서 종파는 이미 청산되였다. 그러나 종파를 낳을수 있는 낡은 사상요소들이 남아있으며 외부로부터 반동적사상들이 침습할수도 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지방주의, 가족주의 요소를 극복하지 않고 무원칙하게 지내려는 그릇된 경향, 그리고 당에 속을 주지 않고 안존이 로게 행동하거나 자기를 내세우면서 람들을 자기 주위에 끌어당기는것과 은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깊이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간부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 경험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을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력사적인 투쟁경험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예리한 당적, 계급적 안목을 가지고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을 극복하고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모든 당원들이 계급적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마당에서 당과 혁명을 보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으며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어나갈수 있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의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대오가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행동상통일체를 이루는것은 통일단결된 로동계급의 당이 갖추어야 할 조직사상적면모이다. 수령의 사상과 의도에 따라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일 때 당의 통일단결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불패의것으로 될수 있다.

강철같은 규률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근본징표의 하나이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당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의 전투력을 굳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지 못하면 당안에서 불순이색분자들이 나타나 분파가 생길수 있으며 당이 점차 무력해지고 나중에는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 혁명

규 률은 당의 생명이다.

우리 당은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으 하여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공고한 높 에서 실현한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 였다. 당안에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확립됨으로써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 이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한마음한 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였으며 우 당은 산유기체와 같은 전일적인 조 으로, 어떠한 풍파도 뚫고나갈수 있는 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였다. 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위대하고 백 백승하는것이다.

오늘 당의 통일단결을 굳게 다져나가 데서 나서는 기본문제의 하나는 당중 의 유일적지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 강한 규률과 질서를 더욱 튼튼히 세우 것이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높은 수준에 서 강화발전시킬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성해 갈수 있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튼튼히 세우자면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당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안에는 오직 당원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에 기초한 혁명적규률만이 존재할수 있다. 강요에 못이겨 지키는 규률은 공고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그러한 규률에 의하여 움직이는 당은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 고무자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며 당과 운명을 같이한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당안에 세워진 강철같은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당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는것은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요구이다. 그것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모든 당조직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이 내세우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전당을 확고히 지배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일군들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어긋나는 비조직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의 지도밑에 모든 사업을 조직집행해나가는 혁명적규률과 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이 업적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영원히 빛내여 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공고하고 위력있는 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높여주는 위대한 혁명사상

박 충 배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어떻게 보며 얼마나 높이 내세우는가 하는것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고 사회력사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람은 높은 존엄과 가치를 지녀야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으며 사회력사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다.

지구우에 계급사회가 생겨난 때로부터 인민대중은 노예의 쇠사슬에 묶이고 자본의 철쇄에 결박당하여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여왔으며 온갖 인격적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천대와 무권리를 강요당하여왔다. 사람들이 수천년동안 《말하는 도구》로, 자본의 노예로서의 자기의 구슬픈 운명을 탄식하면서 절절하게 념원한것은 자연의 구속과 사회의 예속에서 벗어나 짓밟힌 존엄과 가치를 되찾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이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러한 세기적숙망과 절절한 념원은 인간이 세계와 자기를 알게 하는 진보적사상을 가지지 못하였기때문에 실현될수 없었다.

력사에 존재하였던 모든 반동적사상들은 본질에 있어서 언제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음으로써 사람,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천대와 멸시를 합리화하려는데 있었다.

노예사회와 중세의 봉건사회를 지배한 종교적사상은 인간을 《타고난 죄인》,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사는 가련한 존재》라고 함으로써 노예제도와 봉건적인 신분제도를 옹호하고 합리화하는데 복무하여왔다. 현대부르죠아사회에서는 인간을 《죽음에로 향하는 고독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실존주의적인간론이 판을 치고있으며 사람들에게 타락과 염세, 극단한 개인리기주의를 설교하는 인간부정의 사조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인간의 본질을 외곡하는 반동사상에 물젖어있었기때문에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사는것을 《팔자》로 여기면서 《주어진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여왔다.

력사에는 진보적사상들도 있었다. 지난날에 있었던 진보적사상들은 언제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는데 복무하여왔으나 자체의 본질적약점으로 하여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응당한 높이에 올려세우지 못하였다. 고대와 중세의 진보적사상가들은 물론, 근세의 려명기에 활동한 계몽사상가들도 기껏하여 인간을 자연의 최고산물로, 자연의 한부분으로 보는데 그쳤으며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옳게 밝히지 못하였다.

맑스주의는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온갖 반동적인 사상조류들을 반대하고 진보적인 사상들을 비판적으로 분석일반화한데 기초하여 사람은 단순히 자연적존재인것이 아니라 사회적관계의 총체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 내세우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문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심오한 해명을 보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사람중심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인간의 본질을 외곡하고 그들을 착취계급에게 순

중하도록 하는데 복무하여온 반동사상의 비과학성과 부당성이 여지없이 폭로되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된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는 인류의 세기적념원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창시는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간주되여오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밖이나 기슭이 아니라 그 중심에 확고히 내세우고 그 무엇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한 위대한 선언이였으며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철학은 인간의 본성과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그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8페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사람이 세계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이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유일한 개조자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사람이 세계의 지배자이라는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이며 사람이 세계의 개조자이라는것은 사람이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존재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세계에는 수많은 물질적존재들이 있지만 사람외에 그 어떤 존재도 세계를 지배하며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면서 사는 존재는 없다.

사람이 세계의 지배자이며 개조자이라는것을 밝힌 여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높이 내세운 주체사상의 위대한 공적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가장 발전된 사회적존재이라는것을 천명함으로써 사람이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이며 유일한 개조자로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이 무엇인가를 밝히는것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해명하기 위한 근본문제이며 그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이 정확히 밝혀져야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세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가 하는것이 밝혀지게 된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람의 지위와 역할, 존엄과 가치를 가장 높이 내세울수 있게 하였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속성, 자주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자연과 사회의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한다. 자주성은 외부세계에 순응하여 살려는 성질인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면서 그 주인으로 존엄있게 살려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다. 세계에 자주성을 가진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기때문에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을 반대하고 그것을 지배하면서 살아나가는 존재로 된다. 이것은 자주성이야말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존엄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근본속성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인간의 참다운 존엄은 자주적인 생활속에 있다. 아무리 돈과 재물이 많고

학적으로 론증함으로써 인간의 존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
.

체사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높
는 합법칙적과정과 방도도 명백히
준다.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체는 사람, 인
중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투쟁에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
적역할을 한다는 사회력사원리를 새
게 천명함으로써 사람, 인민대중의
위와 역할, 존엄과 가치가 높아지는
법칙성을 밝혀준다. 인류력사가 인민
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라
것은 인간이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이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더 존
있고 힘있는 존재로 발전하여왔다는
것을 말하여주며 혁명투쟁에서 자주적
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
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자
각하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
하여 목적의식적으로 투쟁함으로써만
자기의 존엄과 가치를 끊임없이 빛내일
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준다.

혁명투쟁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사람들에게 가장 존엄있고 값있게 살며 싸워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안겨준다. 사람은 높은 사상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투쟁을 벌려나가야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그 지위와 역할을 천명함으로써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 내세운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사람,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는 사회제도를 세우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갈 때만이 실제로 높아진다는것을 밝혀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움으로써만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고 사회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력사를 의식적으로 창조해나갈수 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7폐지)

사람의 지위와 역할, 존엄과 가치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제도에서나 다 같은것이 아니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속성인것만큼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사회적으로만 보장되게 되며 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사회제도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 존엄과 가치의 높이를 결정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 작용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인민대중이 소수 지배계급에 의하여 무권리를 강요당하며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는 착취사회에서는 인간의 진정한 존엄과 가치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착취사회는 사회적인간이 돈이나 물건보다 천대를 받으며 사람의 가치가 돈과 재물에 의하여 규정되는 인간부정의 사회이다.

지난날 노예사회나 봉건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노예주와 봉건령주들에게 모든것을 빼앗기고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아왔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도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 횡포한 억압으로 하여 극도의 빈궁과 정치적무권리속에서 자기의 존엄과 가치를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은 착취사회에서도 자신의 투쟁으로 모든 물질문화적부를 창조하고 사회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왔으나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지 못하였기때문에 그들은 의연히 착취와 빈궁의 멍에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력사상 피착취근로대중의 첫 진출이라

고 만할수 있는 노예폭동과 그리고 중세기 농민들의 반봉건투쟁으로 말미암아 노예제도와 봉건제도가 붕괴된것은 그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결과였다. 지난날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착취사회는 끊임없이 교체되면서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착취사회의 발전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억누르고 그들의 창조적로동의 결과를 략탈하는 수단과 방법이 교활해지는 방향에서 착취형태가 바뀌여져온 과정이였다. 그러므로 착취사회가 아무리 발전하여도 인민대중은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그들의 존엄과 가치가 높아질수는 없는것이다.

인민대중은 오직 자기자신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그러한 사회제도하에서만 자기의 존엄과 가치를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으며 빛내일수 있다.

인간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그것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는데서 확고히 보장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착취와 압박, 빈궁과 무권리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존엄과 가치를 실제적으로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에 튼튼히 틀어쥔 우리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존엄있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이 땅에 태여나 뿌리를 내리고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을 살아온 우리 인간의 력사에서 오늘처럼 근로하는 인민대중자신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린 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 인민은 생활을 통하여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자신들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담보되고있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라는것을 심장으로 느끼고 이 고마운 제도의 륭성번영을 위해 온갖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지위와 역할, 존엄과 가치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완전히 발양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할 때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사회건설의 전로정과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공산주의건설사상이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는 과정은 다름아닌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과정이며 공산주의사회란 주체사상화가 실현된 사회이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자면 사람과 사회,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대로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지키고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가장 훌륭히 보장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결성의 력사적의의

주 용 목

우리 당은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투쟁과정에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왔으며 주체형의 당의 빛나는 조직건설력사를 창조하였다. 《ㅌ. ㄷ》로부터 시작된 우리 당 건설력사를 빛나게 장식한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4년 3월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신데 뒤이어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결성하신것이였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결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였으며 새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과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지방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여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한 강력한 당지도기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혁명적당건설을 위한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새로운 력사적시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당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나옴으로써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보다 조직화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과 당조직건설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6~7페지)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결성이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당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당조직지도체계가 튼튼히 서게 되였다는데 있다.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는 당조직지도체계를 바로세워 모든 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것이다. 정연한 조직지도체계는 당의 조직성, 규률성을 높이며 혁명투쟁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당조직지도체계를 바로세워야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철저히 보장하고 모든 당조직들을 공고한 조직사상적기초우에서 결속할수 있으며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강력한 전일체로 만들수 있다. 당조직지도체계를 바로세우지 못하면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제때에 침투시킬수 없으며 당원들과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자면 모든 당조직들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할수 있도록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를 세우지 못할 때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령도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것은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력사가 보여준 심각한 교훈의 하나였다. 1925년에 나왔던 조선공산당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고 지도자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할수 있도록 당의 조직지도체계를 세우지 못함으로 하여 혁명의 전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었으며 자기의 존재마저 유지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면서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1930년 7월초 카룬에서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무으시였으며 그것을 모체로 하여 각지에 당조직들을 급속히 확대하여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성일대의 혁명조직핵심들로 당조직이 무어지고 짧은 시일안에 무장대오와 두만강연안의 동만일대, 북부국경일대에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이 나오게 되였다. 한편 기층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된 결과 현에는 현당위원회, 구에는 구당위원회들이 조직되고 반일인민유격대안에는 련대당위원회가 조직되여 활동하였다. 이것은 기층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워나가는데서 커다란 전진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당지도기관만으로는 장성강화된 무장대오뿐아니라 유격구와 적통치구역에까지 조직된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조직건설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결성하시여 부대안의 당조직들은 물론 지방당조직들까지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결성은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결성으로 모든 당조직들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하나의 정연한 체계로 련결되고 통일적으로 움직여나가게 되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조직원칙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이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튼튼히 담보한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결성됨으로써 각급 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고 당원들의 의사와 요구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제때에 집중시킬수 있었다. 또한 부락의 당세포는 구당위원회에, 구당위원회는 현당위원회에, 현당위원회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에 복종하고 부대안의 중대당세포는 련대당위원회에, 련대당위원회는 사단당위원회에, 사단당위원회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에 복종하는 정연한 중앙집권적규률을 확립할수 있었다. 부대안의 당조직들은 물론 지방당의 조직들까지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결성된 때로부터 당의 모든 조직들을 하나와 같이 움직여나가는 당조직지도체계가 서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되였으며 전국적범위에서 당조직지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남호두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군정간부회의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당정치일군회의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인민혁명군대오와 국내의 넓은 지역에서 당조직을 확대하고 정연한 조직지도체계를 세워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30년대 후반기 부대안의 당조직들은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만주일대의 조선인 거주지역들에서와 갑산, 신

파 등 우리나라 북부국경일대에서 당조직들이 수많이 무어졌다. 급속히 확대된 당조직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국내당공작위원회와 장백현당위원회, 동만당공작위원회들이 조직되였다. 이리하여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서게 되였다.

이것은 비록 당중앙은 선포되지 않았지만 전국적범위에서 당조직들이 확대되고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로부터 지방당조직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되여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운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주체형의 당 조직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결성이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당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보다 조직화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과 당조직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결성은 우선 조직화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게 하였다.

당시 조선혁명에서 주류를 이룬것은 무장투쟁이였으며 당의 령도에서 기본은 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것이였다.

오직 자체의 힘으로 강도 일제와 맞서 싸워야 하였던 어려운 형편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백배의것으로 다지지 않고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없었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통일적인 지도가 보장됨으로써 각급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이 더욱 높아지고 군사활동에 대한 당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부대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을 통하여 당원들과 대원들 속에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깊이 해설침투시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일상적인 학습과 집중적인 군정학습이 강화되고 혁명적출판활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혁명로선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와 부대안의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 경애하는 장군님의 작전적 의도와 구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이 과정에 군사행동에서 대원들의 자각성과 창발성, 무비의 헌신성과 용감성이 높이 발양되고 지휘관의 명령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규률이 확립되게 되였다.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는 간고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일무장대오가 의거하여 활동할수 있는 튼튼한 대중적지반이 있어야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지도적역할이 강화된 결과 국내외 여러 지역에 조직된 당조직들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각종 대중단체에 망라시켜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하며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갔다.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꾸려진것은 항일무장대오를 끊임없이 보충확대하고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군사활동을 승리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

였다.

당조직의 통일적인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이 강화됨으로써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유격근거지를 해산하고 무장투쟁을 광활한 지대에로 급속히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었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와 고난의 행군, 무산지구전투, 대부대선회작전 등 수많은 전투와 작전들에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패배를 안기고 항일대전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결성은 보다 조직화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당조직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나가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조직화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당조직건설사업을 벌리는것은 이 사업을 튼튼한 계급적지반우에서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결성하여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를 세운 조건에서 1930년대 후반기에는 당조직건설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더욱 활발히 벌려 정세가 조성되면 제때에 당창건을 선포할수 있도록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조직화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하는 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공산주의적핵심, 당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조직들에 대한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통일적지도가 빛나게 실현되는 과정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선진분자들로 당대렬이 빨리 확대강화되고 무장투쟁과 반일대중운동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공산주의핵심들이 수많이 자라났다. 그들은 그 어떤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며 종파주의와 기회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혁명적사상조류를 극복하고 혁명대오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는데서 골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검열된 우수한 공산주의적핵심, 불굴의 혁명전사들이 수많이 자라남으로써 정세가 조성되면 지체없이 당을 창건할수 있는 확고한 조직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는데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조직화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파괴하려는 일제의 악랄한 모략을 걸음마다 짓부실수 있었으며 반《민생단》투쟁을 극좌적으로 끌고나가면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거부하고 대오의 통일단결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온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극복할수 있었다.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요소들과 반당적조류들을 철저히 극복하는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이 통일단결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우리 당 창건위업을 실현하는데서 귀중한 재부로 되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당창건사업을 실현하며 창건된 당을 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대중적지반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반일

족통일전선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현하여 혁명의 기본군중뿐아니라 여러 계급과 계층의 반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시켜나갔다.

특히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1936년 5월 5일에 창건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조국광복회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묶어세우고 그들을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실현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되고 그 하부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된 결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당조직들과 긴밀히 련결되고 이 과정에 공산주의자들이 더 많이 육성단련되였으며 당의 대중적지반이 훨씬 강화되게 되였다.

참으로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결성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 당적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획기적계기를 열어놓았으며 우리 당 조직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켜 당창건위업을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 력사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와 같은 자기의 강력한 당지도기관을 가지고 그 지도밑에 투쟁하였기때문에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도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수 있었으며 조국광복을 앞당기고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성취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몸소 이룩하신 당건설의 풍부한 경험과 성과에 토대하여 해방후 지체없이 각 지방에 당조직들을 내오시고 1945년 10월 10일에는 우리 당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우리 당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로정에서 추진시켜오신 당창건위업의 빛나는 완성이였으며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다.

〈ㅌ.ㄷ〉에서 뿌리내린 때로부터 수많은 년대들을 빛내여온 우리 당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 자기 발전에서 위대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고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지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사상성과 조직성에서, 대중과의 련계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불패의 위력을 지닌 전투대오로 더욱 장성강화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의 당건설위업수행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린 수많은 업적가운데서 가장 큰 공적으로 빛나고있다.

우리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함으로써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집단주의와 개성문제

김 주 칩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집단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기초이며 사회주의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활동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집단주의는 로동계급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자들이 굳게 뭉쳐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5권, 286페지)

집단주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혁명정신이며 생활태도이다.

집단주의원칙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대오의 강철같은 통일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집단주의는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사회성원들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될것을 요구한다.

장기간에 걸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경험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의 통일단결이 근로인민대중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제도가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에 비하여 결정적으로 우월한것도 바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하나로 통일단결되여있기때문이다.

집단주의가 이처럼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하게 하는것은 그것이 사회와 집단에 속한 모든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참답게 실현시켜준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로동계급의 집단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장해줌으로써 집단에 속한 매개 성원들이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굳게 뭉쳐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워나가게 한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의 개성적특성을 충분히 발양시키는것은 집단주의원칙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근로자들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그들의 개성의 전면적발양을 억제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원칙인 집단주의의 근본사명에 어긋나며 그것과 인연이 없다.

개성이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개별적특성이다.

사람은 언제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존재이다. 때문에 사람의 본성인 자주성도 현실적인간, 개별적인 사람을 떠나서 추상적으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이룬 매 사람에게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람의 본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은 개별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때 개성으로 표현되며 개인에게 고유한 여러가지 특성과 결합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게 된다.

집단주의는 근로자들의 개성적특성을 존중한다.

집단주의는 사람들을 묶어세워 인민

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근본목적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하자면 그들의 개성적특성이 존중되야 한다. 개성적특성을 존중하는것은 단주의원칙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다.

집단주의가 근로자들의 개성적특성을 중하고 있다는것은 《하나는 전체를 위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주의적생활원칙에서 집중적으로 표현여있다. 집단주의적생활원칙은 집단 이루고있는 매개인이 자기 개인의 익을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킬것을 요하고있다. 개인은 집단과 조직, 사회 인민,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기 개인의 리익을 바쳐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집단주의가 개인의 리익, 그 요구와 지향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단주의생활원칙은 하나가 전체를 위할것을 요구할뿐아니라 전체가 하나를 위할것을 또한 요구하고있다. 다시 말하여 집단전체가 매개인의 리익, 그들의 의사와 개성적지향을 존중할것을 요구하고있는것이다.

하나가 전체를 위하여 행동하며 개인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킬데 대한 요구는 결코 근로자들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으며 도리여 그것을 더욱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계급과 집단전체가 사회적예속에서 해방되여 자유를 실현하여야 그 매 성원들의 자주성, 매개 근로자들의 자유도 실현될 수 있다. 집단주의는 이처럼 근로자들의 개성적 지향과 요구를 보장하는 활동원칙이다.

집단주의는 사회생활과 개인생활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준다.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제도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준다. 착취사회에서 예속과 무권리만을 강요당하여온 근로인민들은 사회주의하에서 주권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와 나라의 정치에 직접 참가하며 정당, 사회단체 조직들에 망라되여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린다. 집단주의가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할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유를 의미하는것이다.

사람은 사회정치생활, 경제생활뿐아니라 사회도덕생활, 문화정서생활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사람은 각기 자기의 취미와 기호를 가지고있으며 정서생활에 대한 그들의 요구도 서로 다르다. 다같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면서도 옷차림과 몸차림, 생활필수품과 기호품의 선택으로부터 문화정서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지향과 요구를 내세운다.

로동계급의 집단주의는 개별적인 근로자들의 이러한 건전한 개성적 지향과 요구들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의 사회관계의 기초인 로동계급의 집단주의가 사람들의 자주성을 그 개성적발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옹호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집단주의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을 사회와 자연의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여 자주성을 실현하도록 할뿐아니라 매 사람들의 개성적 지향과 요구도 완전히 보장하여주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활동원칙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집단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유를 보장할뿐아니라 매개 사회성원들의 개성적특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창조적능력은 개별적인 사람에게서 다양하게 발현된다.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기 위한 사람의 창조적능력은 자주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공통적속성이지만 매개인에게서 다 같은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사람들의 재능과 소질로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세상에 꼭같은 사람이란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능력과 소질도 역시 다양하지 않

올수 없다.

집단주의는 사회와 집단 안의 매개 성원들이 가지고있는 재능과 소질들을 발전시킬것을 요구한다. 매 근로자들이 가지고있는 자그마한 재능까지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은을 내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의 우월성의 하나이다. 집단속에서만 사람들의 개성이 전면적으로 발양될수 있다.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개성적인 능력과 소질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발양시키지 않거나 사람들의 개인적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일률적으로 망탕 처리하는것은 사회주의적집단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집단주의는 원래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힘과 지혜를 하나로 합쳐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을 잘해나가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들 매개인이 가지고있는 개성적능력들을 발전시키고 최대한으로 동원하는것은 집단주의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개성의 전면적발양에 기초하지 않는 집단주의는 위력한 힘으로 될수 없다. 집단에 속한 매개인이 창조력이 없고 무기력할 때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과 조직은 위력할수 없다.

이와 같이 집단주의원칙은 집단에 속한 매 사람들의 개성적특성을 전면적으로 발현시킬수 있게 하는 활동원칙이다.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개성적 지향과 요구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협조하는 진정한 동지적관계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603페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람들사이에 이루어지고있는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사회관계는 모든 근로자들의 개성적 지향과 요구들을 실현시키고 창조적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제도는 집단의 위력을 적극 발양시킬뿐아니라 근로자들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다. 집단의 발전을 보장하면서도 개성의 발전을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특성이다.

부르죠아어용리론가들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제도를 헐뜯으면서 마치도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만 개성의 자유가 보장되는듯이 떠벌이고있다. 그들은 한줌도 못되는 착취계급과 반동통치배들의 타락한 기생충적인 생활, 도덕도 륜리도 모르고 아무런 신념도 없이 저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동물적인 생활을 가지고 《개성의 자유》니 뭐니 하고 떠들고있다.

반동리론가들의 이러한 떠벌임은 자본주의제도를 미화분식하기 위한 궤변이다.

개인주의적사회관계가 지배하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가혹한 착취에 시달리기때문에 개성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극도에 달하여 사람들이 서로 반목질시하고 공명과 출세,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것이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극소수의 착취계급과 반동통치배들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하기때문에 그들은 개성의 자유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며 창조적재능을 마음대로 꽃피울수 없다. 이런 사회관계에서 근로자들의 개성이 존중될수 없고 개성의 자유란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하나의 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통일단결되여있고 그들의 목적과 리해관계가 일치하며 사람들사이에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서로

중하고 신뢰하고 협조하는 동지적관 가 지배하고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가 서로 대립되는 일이란 있을수 없으며 모든 근로자들은 다같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권리를 행사하며 창조적능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 사회를 이루고있는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는 사상의 공통성, 사회주의근로자로서의 사회적처지,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단결과 협조의 관계를 맺고있으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살며 활동하고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사회관계에서 모두가 다 참다운 자유를 보장받고있으며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공산주의적생활원칙이 지배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전사회적 관심과 지지성원 속에서 자기의 개성적특성과 창조적재능을 적극 발전시켜나가고있다. 한사람의 재능을 꽃피워주기 위하여 온 집단이 도와주며 온 사회가 달라붙어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기풍은 참다운 집단주의적사회관계가 지배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있을수 있는 아름다운 면모이며 집단주의만이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 참다운 생활원칙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어용나팔수들은 마치도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개성이 무시되고 다양하게 발전되지 못한다는 터무니없는 비방중상을 늘어놓고있다. 《인권옹호》와 《개성의 자유》의 간판밑에 제국주의자들이 벌리고있는 반공모략책동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헐뜯고 혁명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허물어보려는 어리석은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참다운 집단주의적사회관계속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면서 자기들의 리상을 활짝 꽃피우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사회주의적집단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비방중상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며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보여준다.

우리는 사회주의적집단주의원칙의 요구에 맞게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유롭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며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활짝 꽃피움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온 세상에 더욱 힘있게 과시하여야 할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불패의 생활력

강 신 용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인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5돐이 된다.

오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실천에서 그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찾아주신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왔다.

우리 당이 발기하고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이다. 이 운동의 본질적특징은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더욱 개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는데 있다.

우리 당이 키워낸 숨은 영웅들은 우리 시대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이며 그들의 숭고한 모범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이다. 숨은 영웅들이 지닌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기본은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이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이다. 숨은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라시고 우리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푸는것을 최대의 영예로,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그것을 철저히 해결하는데서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였다. 그 어떤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10년, 20년을 하루와 같이 자신의 모든것을 묵묵히 다 바치면서 투쟁한것으로 하여 숨은 영웅들의 모범은 그처럼 빛이 나고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는 것이며 우리 인민들을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한 당의 방침이 제시되자 우리 인민은 그것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왔다. 영웅이 영웅을 낳고 모범이 모범을 창조하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과정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전사회적범위에로 급속히 확대되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전사회적범위에서 급속히 확대된것은 비범한 예지와 혁명적전개력으로 대중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에서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중요한 방침으로 내세우고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벌리도록 하였습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이 운동을 철저히 조직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끈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대중운동의 근본특징의 하나는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진행된다는데 있다. 대중운동을 조직화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목적지향성있게 밀고나갈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없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며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힌 여러 문헌들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혁명적본질과 이 운동을 더욱 조직화하고 적극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그것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벌려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이 운동을 당책임일군들이 직접 틀어쥐고나가며 당안의 모든 부서들이 여기에 힘을 넣고 배합작전과 협동작전을 잘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당의 방침에 따라 모든 당조직들은 강연과 해설담화, 경험발표회와 방식상학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본질과 정당성, 그것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깊이 인식시켰으며 이 운동을 벌려나가는데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리하여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당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더욱 조직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광범한 대중의 참가밑에 이 운동을 전사회적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끈것이다.

대중운동은 광범한 군중에 의거하여 진행되는것만큼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없이는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없다.

우리 당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적극화하는데서 기본은 그것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밝히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이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이 운동에 참가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왔다.

우리 당은 이미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시작된 첫시기에 당보 《로동신문》을 통하여 지상토론을 조직하도록 함으로써 로동자, 농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당 및 국가경제기관일군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당보 《로동신문》의 지상토론에는 실로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지도밑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비상한 견인력을 가지고 첫시기부터 대중속에서 활발히 조직전개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듦으로써 그들모두가 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정에 창조되는 긍정적모범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내세워주고 대중속에서 나오는 새싹들과 혁신적발기들을 적극 지지해줌으로써 온 집단이 혁신자가 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우리 당은 특히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폭넓게 진행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싸운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선렬들,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들의 숭고한 충성심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본받기 위한 연구발표모임, 실효모임, 상봉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의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이리하여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광범한 대중속에서 더욱 폭넓게 적극적으로 진행되게 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은 이 운동을 통하여 더욱 빨리 추진되게 되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벌려나가도록 한것은 이 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확증하여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다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해나가는 투쟁에서 우리 당이 직접 조직지도하고 있는 혁명적대중운동이다.

우리 당은 모든 당조직들이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그들로 하여금 숨은 영웅들의 높은 충성심과 헌신적인 투쟁정신, 혁명적인 사업기풍을 본받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결의목표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이와 함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생산과 건설, 과학기술발전에서 높은 목표, 높은 기준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함으로써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힘있게 벌어진 결과 인간개조, 기술개조 사업이 더욱 다그쳐지고 생산과 건설에서는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실무지도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군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관건적고리를 이루는 부문들과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건설장들에 대한 실무지도를 통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숨은 영웅들과 숨은 공로자, 숨은 노력가들의 사업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전체 인민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최근 몇달사이에만 하여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책제철소와 무산광산, 성진제강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청진시와 함경북도, 함경남도안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실무지도하신데 뒤이어 평양시와 남포시의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을 찾으시여 80년대의 혁명적진군운동을 더욱 다그쳐나가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실무지도를 받은 영광을 지닌 단위에서는 물론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숨은 영웅들처럼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워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 굳은 결의를 안고 대중적혁신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실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인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그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시키는 결정적요인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생활력과 견인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최근년간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경제문화건설,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난것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커다란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인간개조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려면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힘을 넣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쳐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바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훌륭히 교양개조해나가는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다. 이 운동은 우리 시대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전형을 내세우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숨은 영웅들이 지닌 숭고한 정신세계의 높이에로 끊임없이 접근시켜 어렵고 복잡한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숨은 영웅들처럼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오직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누가 알아주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성실히 일하고있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일을 더 많이 하여 당의 신임에 보답하며 혁명에 더 큰 리익을 주겠는가 하는 하나의 지향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그리하여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숨은 공로자, 숨은 노력가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으며 인간개조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해방후 민주건설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부터 오늘까지 수십년세월 충성의 한마음으로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고있는 로당원들속에서는 물론 혁명의 교대자들인 새세대들속에서도 숨은 공로자, 숨은 노력가들이 수많이 배출되고 그들이 더욱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숨은 영웅들의 대렬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소성로의 숨결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39년세월 하루와 같이 성실히 일해온 승호리세멘트공장 보수직장의 로당원, 강철기둥으로 당을 받들어나갈 굳은 결심을 안고 전기로앞에 달려온 때로부터 25년동안 불타는 열정으로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온 강선제강련합기업소의 강철직장의 로련한 작업반장,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다음 나서자란 도시를 떠나 간석지논벌에서 청춘을 빛내여나가는 황해남도 온천군의 청년작업반장과 같은 숨은 공로자, 숨은 노력가들은 우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찾아볼수 있다. 이 대렬에는 개별적인 당원들과 근로자들뿐아니라 룡양광산의 황하필굴진소대와 같이 온 가족이 몇대나 맡은 혁명초소를 대를 이어가며 굳건히 지켜나가

는 혁신자들도 있으며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 전투장들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소문없이 큰일을 해나가는 집단들도 있다. 혁명의 수도 평양으로부터 북쪽의 량강도 두메산골과 남쪽의 분계선마을에 이르기까지의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배출되고있는 숨은 공로자, 숨은 노력가들의 숭고한 모범은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이 자랑찬 현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으며 우리 당이 제시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야말로 거대한 견인력과 생활력을 가진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불패의 생활력은 또한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운동을 벌리는 중요한 목적은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가는데 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려면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계속 높이는 한편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이 많이 개척되고 생산과 건설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이 더욱 커지고있는 오늘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없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과학혁명,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대중적인 혁신운동이다. 숨은 영웅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숨은 영웅들은 과학탐구의 길에서 동요와 주저를 몰랐으며 불면불휴의 투쟁을 벌려 인민경제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숨은 영웅들이 과학기술분야에서 세운 위훈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을 과학기술의 새로운 요새를 점령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빨리 끌어올리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데서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내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적극 벌려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가치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적발명들과 기술혁신안들이 수많이 제기되였다. 새로 개간한 간석지에서 벼농사를 지어 첫해부터 매우 높은 수확을 거두게 하는 과학기술적발명과 기계공업에서 가공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새로운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창안제작한것들은 그러한 실례들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본받아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기술개조사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은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 속에서도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우리 당의 발기에 의하여 조직된 《4.15기술혁신돌격대》에서만 하여도 근 5년동안에 약 25만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여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으며 나라의 기술혁명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통하여 이룩되고있는 대담한 과학기술적발명과 기술혁신안은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서의 이 운동의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커다란 생활력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서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지난날의 대중운동이 주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운동이였다면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상개조와 사회주의건설에서의 혁신은 물론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까지 개선하는것을 그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 높은 형태의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이다. 이 운동에는 근로자들로부터 당 및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수양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해나가는데서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우리의 당 및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자신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허천군당위원회와 안변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의 당일군들은 언제나 당적립장, 국가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혁명적인 지도방법과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는 인민적 사업작풍을 구현해나가고있다. 우리의 당일군들속에서는 부령구역당위원회와 룡성기계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들과 같이 언제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발동하여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어머니당의 참된 당일군들의 모습도 수많이 찾아볼수 있다.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우리 당안에는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으며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게 되였다.

참으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상개조와 기술개조,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서 그 정당성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 혁명과 건설에서 자랑찬 승리와 성과를 달성한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커다란 업적의 하나이다. 우리는 당이 이룩한 이 빛나는 업적을 고수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심화발전시키며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것이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이 이룩한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보람찬 투쟁이며 당의 령도적권위를 높이는 책임적인 사업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그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중요한 당적 사업으로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옳바른 방법론에 기초하여 이 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영웅적 위훈과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당세포는 대중속에서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

김 기 반

당세포는 우리 당의 기층조직이다. 군중이 있는 모든곳에는 당원이 있고 당원이 있는곳에는 례외없이 당세포가 조직되여있다.

당세포들이 온 나라에 혈맥처럼 뻗어지있기에 우리 당의 목소리가 대중속에서 힘있게 울리고있고 온 사회가 당의 숨결, 당의 맥박으로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유기체의 세포에 비유하여 당의 기층조직을 당세포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우리 당은 당세포들로 구성되여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먼저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8권, 519페지)

당의 기층조직을 생기발랄한 산 조직으로 꾸리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인체를 이루고있는 세포들이 건전하고 제대로 작용해야 하듯이 로동계급의 당이 강화되려면 반드시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세포들이 건전하고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

당대렬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꾸리는 문제,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가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잇닿아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세포를 강화하는것을 당을 공고화하기 위한 기본고리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갔으며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사업을 당세포에 대한 지도로부터 시작하였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우리 당 세포사업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인 진군길에서 획기적으로 개선강화되였다. 오늘 우리의 당세포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전투대오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믿음직하게 떠받들어나가는 튼튼한 주추돌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활발히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최근년간 당건설분야에서 이룩한 가장 빛나는 업적의 하나이며 굽임없이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전취물이다.

우리 당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이다. 우리 당을 전진하는 혁명의 요구에 맞게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활발히 움직이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자면 당의 기층조직인 세포를 더욱더 생기발랄한 조직체로 만들어야 한다.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세포라야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말단조직으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었다고 말할수 있다.

당세포는 무엇보다도 당정책을 틀어쥐고 그 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전투단위이다.

우리 당의 각급 조직들의 모든 활동은 당의 정책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온 나라에 배치되여있는 생산단위와 사업단위들에 조직된 당세포들은 당의 조직구조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로 보나 또 당정책집행의 직접적담당자인 당원들과 군중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사업상특성으로 보아 일상적으로 당정책을 틀어쥐고 사업하여야 한다.

당세포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군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따라 당정책의 전반적인 집행여부가 좌우되게 된다.

당세포들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또한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일반적으로 당조직들은 혁명실천과정을 통하여 사업상권위를 가지게 되며 대중의 신임을 얻게 된다. 당세포인 경우에도 례외로 될수 없다. 아무런 궁리도 없이 앉아뭉개면서 당정책을 이악하게 틀어쥐고나가지 못하는 당세포는 대중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들과 동떨어진 무맥한 존재로밖에 될수 없다. 당의 정책과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노력하는 당세포라야 신진대사가 활발한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조직으로,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며 생기발랄하게 활동하는 전투단위로 될수 있다.

당세포가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적극 동원하자면 우선 당정책집행단위의 위치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조직정치사업을 당정책과 당의 의도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알려주는 사업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당세포비서는 당정책과 당의 의도를 당원들과 군중에게 모여놓고도 알려주고 일을 같이하면서도 알려주며 쉴참에도 알려주고 길을 오갈 때에도 알려주는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그들이 당의 의도를 환히 알 때까지 해설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당정책을 매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제때에 침투하여야 세포안의 모든 사람들이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집행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다.

당세포가 당정책을 틀어쥐고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초급일군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당세포가 초급일군들과의 사업을 잘 하자면 그들과 당에서 맡겨준 혁명과업을 놓고 합심하여야 한다. 초급일군들과 당세포비서들이 서로 제나름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낼수 없다. 당세포비서는 초급일군들의 사업을 가로타고앉아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하며 반대로 늘러리식으로 그들의 뒤꼬리를 따라다니지도 말아야 한다. 당세포비서는 언제나 초급일군들이 하는 경제조직사업을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안받침해주어야 한다.

황해남도 연안군 오현리 거미대당세포의 경험은 이것을 잘 말해준다. 거미대당세포는 당의 농업정책을 틀어쥐고 대중을 당면한 혁명과업수행에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작업반적으로 올해 알곡생산을 지난해에 비하여 정보당 1톤이상 증수할것을 확고히 내다보고 있다.

거미대당세포는 작업반앞에 새로운 과업이 제기되면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집체적으로 토론하고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세웠다.

당세포비서는 우선 작업반장, 분조장들과 제기된 혁명과업을 회의에서도 토론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의논하여 견해일치를 보았다. 설사 작업반장이나 분조장들과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당세포비서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당의 방침선에서 잘못 생각하는 문제들을 깨우쳐주어 서로 의견을 같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거미대당세포에서는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작업반장, 분조장들의 사업상권위를 세워주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이처럼 당세포비서가 작업반장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작업반앞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당세포가 정치사업으로 적극 안받침해줌으로써 거미대작업반에서는 언제나 제기된 과업들을 농장적으로 제일먼저 수행할뿐아니라 광범한 대중을 발동하여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알뜰히 지어나갈

수 있었다.

거미대당세포의 사업경험은 일반적호소나 틀에 박힌 조직사업이 아니라 세포의 특성에 맞게 방법론을 연구하고 묘술을 찾아내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심어주고 초급일군들과 합심하여 사람들을 움직일 때 당정책은 실속있게 관철할수 있고 알찬 열매를 맺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세포는 또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것을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다.

당원은 대중을 교양하고 그들을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대중의 교양자, 동원자이다. 당원은 적극적인 정치활동으로 대중을 깨우쳐주며 자신의 실천적행동으로 군중을 고무하면서 모두가 제기된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힘껏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자기 맡은 초소에서 선구자적역할을 놀아야 대중의 열의와 기세가 더욱 높아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게 된다. 당원들을 옳게 조직동원하고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일 때 당세포는 대중속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그 전투력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당세포는 우선 당적분공을 통하여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이란 당조직에서 분공을 받아 수행하며 그 집행을 당조직에 보고하고 다시 새 과업을 받아 수행하는 당원의 활동이다. 때문에 당원의 선봉적역할은 당적분공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분공은 당원들이 맡고있는 책임, 그들의 능력과 체질, 성격 등 구체적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조직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당원들이 당원된 자각을 가지고 대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나가는 정치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당세포는 또한 당원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옳게 할수 있도록 당생활을 지도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원들이 선봉적역할을 하자면 본신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당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중의 뒤꼬리를 따라다니고서는 당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고 말할수 없다.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누구보다 훌륭히 수행해내며 어렵고 힘든 일, 위험한 일에 남먼저 뛰여들어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라야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투쟁의 기수가 될수 있다.

당원들이 선봉적역할을 옳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세포가 언제나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조직지도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혁명과업수행과 동떨어진 당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당세포가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할 때 당원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게 되고 대중의 앞장에서서 그들을 조직동원해나갈수 있다.

거미대당세포의 경험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도록 하는것이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데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거미대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를 농사를 잘 짓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였으며 당생활에 대한 평가도 농장원으로서의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하는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였다.

한때 이 당세포에서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지도하지 못하는 편향을 가지고있었다. 그때에는 주로 당회의에 잘 참가하는가, 학습회와 강연회를 비롯한 정규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돌리고 농장원의 본분인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잘 짓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그

게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이와 류사한 결함은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났다. 당세포가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정형을 기본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보고 평가할 대신에 일면적으로 보고 평가하다나니 당원들의 혁명과업수행에서는 여러가지 편향들이 나타났다. 맡겨진 혁명임무에 투신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는 선뜻 나서지 않아 말밥에 오르는 당원이 있는가 하면 말이나 듣지 않게 눈치놀음으로 굼때는 당원도 있었다.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평가를 잘하지 못한데서 심각한 교훈을 찾은 당세포는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적인 당원, 누가 보건말건 일을 주인답게, 성실하게 하는 당원들을 평가하여주었으며 정규생활에는 참가하지만 혁명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당원들에 대해서는 당생활을 잘하지 못한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당원들은 정규생활도 잘하면서 맡겨진 혁명과업도 책임적으로 수행하는것이 바로 당생활을 잘하는것이라는 똑바른 인식을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모든 힘을 다하게 되였다.

이처럼 거미대당세포는 당생활지도를 개선하는것을 통하여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기층조직으로서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었다.

당세포는 또한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기본단위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을 무한히 신뢰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으며 우리 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고 혼연일체를 이루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겠습니다.》

당세포는 군중속에서 활동하며 군중과의 사업을 직접 하는 우리 당의 기층조직이다. 당세포가 군중과의 사업을 잘해야 군중과 혼연일체가 되고 군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산 전투조직으로 될수 있다.

군중이 당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은 그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군중은 사회정치생활경위가 서로 다르고 사상의식수준도 같지 않은것만큼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천편일률식으로가 아니라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실속있게 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세포는 늘 군중속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모든 계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알려주며 그 깊은 뜻을 생활적으로 심장에 뜨겁게 받아안게 하여야 한다.

거미대당세포는 분계선이 가까운 전연지대의 특성에 맞게 농장원들속에서 언제나 동원되고 준비된 태세에서 일해나가도록 교양함으로써 그들속에서는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나갈 때 참다운 삶을 누릴수 있다는 신념이 더욱 확고해지게 되였다.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이 도발적인 침략전쟁책동에 발광하고있는 때에 농장원들속에서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는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였다. 그러나 한때 거미대부락의 일부 농장원들속에서는 정세가 긴장하다고 하지만 놈들이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 안일해이하게 생활하려는 현상들도 나타나고있었다.

지난 시기 당세포조직은 적들과 맞서있는 전연지대이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부모처자를 잃은 사람들이 많은 조건에서 이곳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이 응당 높은 수준에 있으리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다.

당세포는 사상교양사업을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 농장원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심화시키고 해설담화, 이야기모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농장원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끝없는 영예를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기의 고향마을을 튼튼히 지키며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락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게 되였다.

당세포가 광범한 군중이 당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군중속에 맺혀있는 문제,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잘 풀어주어야 한다.

당세포가 군중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외면하면 그들이 당조직을 믿지 않게 되고 당의 방침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될수 있다.

당세포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군중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여야 한다. 세포는 언제나 군중들을 참된 혁명동지로 여기고 너그럽게 대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당세포의 전투력을 높이고 그 역할을 다하게 하는데서 세포비서들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당세포비서는 우리 당의 기층조직을 책임진 초급정치일군이다. 당세포비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일상적으로 교양하고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에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할 중요한 책임을 지고있다.

황해남도 연안군 오현리 거미대당세포비서도 우리 당의 기층단위를 지켜선 핵심당원이며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돌보아주고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도록 따뜻이 손잡아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의 초급정치일군이다.

거미대마을의 사람들은 이곳 당세포비서를 매우 존경하고 따르고있다. 그리하여 마을과 가정들에서 기쁜 일이나 힘든 일이 제기될 때면 먼저 당세포비서를 찾는것이 하나의 의리로 되고있다. 온 마을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그를 이렇게 믿고 따르는것은 그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대로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변함없이 충실의 한길로 이끌어주고 어머니심정으로 그들을 돌봐주기때문이다. 그는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지만 당에서 부림소를 기르라고 하면 자기가 먼저 말아길렀고 당에서 지력을 높일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면 앞장서 질좋은 거름을 논밭에 실어냈으며 당에서 지하수혁명방침이 제시되자 남먼저 새벽이슬을 차고 포전에 나가 끝장을 볼때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미더운 당세포비서가 대오의 맨 앞장에 서있기에 거미대작업반원들은 늘 화목하고 단합되여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이끄는 모든 사업, 모든 투쟁의 근저에는 당세포비서들의 활동과 노력이 놓여있으며 그것은 당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의 고귀한 밑거름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전투력있고 생기발랄하며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고있는 당세포들을 기층조직으로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혁명적당으로서의 위력을 언제나 높이 떨치고있다.

오늘 당세포들을 대중속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당세포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하고 당세포비서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영예를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신 길 수

교육은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사회적진보와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옳은 교육정책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으며 교육사업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어왔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시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력사적문헌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실현에서 교육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 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해명을 준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며 모든 교육일군들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문헌에 제시되여있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사상과 리론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혁명을 일으켜 학교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새세대들을 쓸모있는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내며 우리의 교육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단행본, 8~9폐지)

교육의 질을 높여 학교교육사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오늘 우리 당이 제기하고있는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떠나서는 교육혁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것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이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교육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이 학교교육사업의 어느 한 부문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교육사업전반에서 혁명적인 변혁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중대한 문제라는것을 말해준다. 교육의 질을 높여 학교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당의 의도에 맞게 교육사업을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켜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교육의 본질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이다.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자주

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규제된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질 때에만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난것이 아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은 인류가 쌓아놓은 사상과 문화를 습득하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을 배우고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자질과 풍모를 갖추게 된다. 그런것만큼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며 그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자면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여야만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튼튼히 키울수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또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현명한 방침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에 토대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며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과업이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그들을 완성된 공산주의적인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제기하고있는 인간개조의 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교육을 강화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혁명사업이다. 따라서 교육사업의 발전수준은 인간개조사업의 성과를 좌우한다.

교육의 질을 높여야 인간개조사업으로서의 사회주의교육의 혁명적작용을 강화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울수 있다. 이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바로 여기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분야가 끊임없이 개척되고 전자계산기와 산업로보트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이 널리 리용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의 인민경제는 최신과학기술성과에 기초하여 날을 따라 더욱더 과학화, 현대화되여가고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과학과 기술의 의의는 비상히 커가고 있다.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경제건설에서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있는 현실은 사회성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을 창조적능력을 원만히 갖춘 유능한 인재들로 더 잘 준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사람들을 현대과학기술지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능력있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키워내지 않고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시킬수 없으며 우리앞에 나선 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없다.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실히 필요한것은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인재들이며 능력있는

일군들이다. 이러한 일군들을 키워내자면 교육의 질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교육의 질과 나라의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수준은 사회성원들의 문화기술수준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것은 교육의 질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교육의 수준은 곧 나라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수준으로 나타난다. 교육사업을 발전시키지 않고 나라의 기술혁명과 경제건설의 성과를 바라는것은 한갖 허황한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의 질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다음으로 우리 나라 교육사업의 현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정당한 방침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 령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교육사업은 비상히 높은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전후 재더미우에서 첫 초등의무교육이 선포된 때로부터 매우 짧은 기간에 중등의무교육과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거쳐 가장 높은 수준의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오늘 우리의 새세대들은 국가부담에 의하여 누구나 다 완성된 중등의무교육을 받는 크나큰 혜택을 누리고있다.

지난날 자체의 민족간부가 부족하여 그처럼 곤난을 겪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120만의 인테리대군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의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은 자체의 힘으로 관리운영되고있으며 우리의 교육은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에는 이백여개의 대학이 있고 리마다 고등중학교가 있으며 전체 인민이 다 교육을 받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인구 1,000명당 학생수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로 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말그대로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교육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왔으며 교육의 량적수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그 질적수준이 따라서지 못하고있다. 특히 기술교육수준은 세계적수준에 비하여 뒤떨어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보통교육이나 고등교육, 일반교육이나 기술교육할것없이 모든 부문에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더 잘 키워낼수 있으며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교육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다.

이렇듯 교육의 질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교육의 본질과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 우리 나라 교육사업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된 과학적인 방침이며 학교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우리의 교육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는 곧바른 길을 명시한 혁명적인 방침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문헌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교육내용을 옳게 구성하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육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교육내용을 옳게 구성하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새세대들에게 완성된 교육을 바로 줄수 있으며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것은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것이다.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것은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서의 사회주의교육의 정치사상적수준을 높이 청소년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고상한 품격을 갖춘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주체교육을 받은 우리의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한후 탄광과 건설장, 협동농장 등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여 집단적영웅주의를 발휘하고있는 현실은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것이 청소년들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일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청소년학생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학생들을 일찌기 조선혁명의 대띵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른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 당의 참된 혁명전사로 훌륭히 키워내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을 잘하는것은 학생들에게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변혁하는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키워주며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과학기술교육을 소홀히 하는 그릇된 경향을 철저히 뿌리빼고 과학기술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고등중학교들에서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같은 기초과학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중등일반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기초교육에 힘을 넣어 고등중학교를 마치는 모든 학생들이 현대적생산과 결부된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게 하며 공작기계를 조작하고 라지오와 텔레비죤을 분해조립하며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능숙하게 운전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들에서는 과학기술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우리 나라의 현실자료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교육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그 과학리론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대학의 자연기술과학교육에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필요한 과학지식과 기술을 더 잘 가르치며 특히 전자공학, 자동화공학 교육을 강화하고 전자계산기산법을 비롯한 현대과학의 기초원리와 기술공학적원리를 잘 배워주는데 큰 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초고압물리학, 극저온물리학, 원자에네르기와 태양에네르기, 레이자와 플라즈마 등 최신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는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교육방법을 개선하는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가 하는것은 교육내용과 함께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옳은 교육방법을 적용하여야 교육내용을 학생들에게 바로 인식시킬수 있기때문이다. 아무리 교육의 목적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교육내용을 정확히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교육방법과 결합되지 못한 때에는 교육사업의 높은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낡은 교육방법은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키며 학생들의 개성을 억제하고 그들을 기계적이며 도식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매우 유해로운 교육방법이다.

사회주의교육은 낡은 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것만큼 우리는 교육분야에서 마땅히 낡은 교육방법을 철저히 극복하

고 사회주의교육의 본성에 맞게 새로운 교육방법을 세워야 한다.

학교들에서는 강압적으로 들이먹이는 방법, 배껴주는 방법 등 낡은 교육방법들을 없애고 깨우쳐주는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특히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강화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현대적직관수단을 널리 리용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을 고치는것은 사회주의교육방법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시험은 교수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소화정도를 검열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학교들에서는 배운 내용을 그대로 외워바치는 낡은 시험방법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배운 내용에 대한 원리적인 인식과 그 응용능력을 위주로 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방향에서 시험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교육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학교들에서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야 하나를 가르쳐도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배워줄수 있으며 리론실천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를 키워낼수 있다. 학교들에서는 실험실습교육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특히 대학들에서는 생산실습과 전공실습을 공장의 기술혁신과제와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튼튼히 다지고 그것을 실천에 적용할수 있는 높은 능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의 책임성과 역할, 자질을 높이고 교육조건을 개선하는것은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사업을 개선하자면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활을 높이고 교육과학을 발전시키며 교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5페지)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며 후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직업적혁명가이다.

교원들에게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은 교수사업이다. 교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방침을 깊이 연구하고 현실문제를 옳게 결부하여 교수준비를 잘하며 강의와 학과토론, 실험실습 등 과정안에 예견된 모든 형태의 교수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교원의 자질은 곧 학생들의 학과실력으로 나타나며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된다.

평양시 창전인민학교의 경험은 교원들의 자질이 높고 교수교양사업이 잘되는 학교들에서는 례외없이 학생들의 학과실력도 높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교원들은 자질을 높이는것이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직업적인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숭고한 임무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는 책임적인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적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하며 학습을 정력적으로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며 과학리론수준과 교육실무적자질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대학교원들은 누구나 다 전공분야의 학위학직을 가져야 하며 보통교육부문의 교원들은 모두 자격교원이 되여야 한다.

사범대학, 교원대학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교원양성기지이며 후대교육사업을 위한 《원종장》이다. 교원양성기관들에서 교육을 잘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훌륭한 교원을 양성해내야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일수 있다. 교원양성기관들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와 새롭게 개편되는 교육내용에 맞게 교육수준을 한계단 높이며

교수교양방법으로부터 학교관리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사회주의교육학의 요구에 맞게 정규화, 규범화함으로써 《원종장》에서 배운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도 대학에서 보고 배운대로 교수교양사업을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들에서는 교육사업과 밀접히 결합시켜 과학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며 박사원을 실속있게 운영함으로써 교원들의 과학리론적자질을 더욱 높이고 학위학직소유자대렬을 끊임없이 늘여 30대 이전의 젊은 준박사, 박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과학을 발전시켜 교육사업전반을 과학적인 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은 교육혁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교육사업은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배양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구체적환경에서 살며 활동하는 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교육의 수준과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세심한 연구와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교육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교육과학부문에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문제들과 교육현실이 제기하는 긴절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연구하며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학교교육학과 교육심리학 등 교육과학의 모든 부문을 주체성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교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는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교원이 있고 학생이 있어도 교육조건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교육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교육의 질제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학교들에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원만히 갖추어주고 여러가지 학습참고서와 과외도서들을 많이 출판하여 보내주어야 하며 학교건설을 잘 세우고 여러가지 교구비품물과 학용품들을 원만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본보기단위를 꾸리고 그를 거점으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사업을 한계단 발전시키도록 하는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방도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은 인민학교로부터 고등중학교와 대학에 이르는 나라의 모든 학교들의 교육수준을 한계단 높이는 매우 방대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보통교육부문과 고등교육부문에서 각각 본보기단위를 꾸리고 그를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인 학교들의 교육수준을 높이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보통교육부문에서는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비롯하여 각 도마다 본보기로 될 학교들을 잘 꾸리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통교육의 전반적수준을 한계단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중요대학들을 모범적으로 꾸리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대학들의 교육수준을 끌어올리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의 성과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조직들은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학교들에서 교수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데 주되는 힘을 돌려야 한다.

모든 교육부문일군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문헌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에 밝혀진 당의 교육방침을 깊이 학습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며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설비관리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대중적혁신운동

백 수 희

오늘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과 단위들에서는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은 발단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 급속히 확대되고있으며 설비관리와 생산 및 기술 발전에 커다란 작용을 미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범기대창조운동은 기계설비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알뜰히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기술적으로 개조하여 생산능력과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대중적설비관리운동입니다.》

기계설비는 자연을 개조변혁하는데 리용되는 기본생산수단이다. 기계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들이 언제나 새 기계, 새 설비처럼 높은 성능을 발휘하게 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정상화하며 경제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일찌기 생산에서 설비관리사업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1960년대초에 《모범기대창조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올림으로써 설비관리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는 위대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모범기대창조운동의 발단으로 되었으며 이때로부터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혁명적자각에 기초하여 대중적으로 설비를 애호관리하는 공산주의적인 설비관리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은 바로 우리 당이 지펴올린 《모범기대창조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킨 대중적혁신운동이다. 이 운동에는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관리사상과 대중운동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있으며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부인 기계설비를 알뜰히 다루고 관리하려는 근로자들의 확고한 결의가 반영되여있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기계설비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적극 애호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이며 그것을 기술적으로 더욱 개조하여 생산능력과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대중적혁신운동이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은 지금까지 설비관리분야에서 벌리던 다른 대중운동들과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이 운동이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영원히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에서 우러나온 대중운동이라는데 있다.

당의 사상과 업적을 영원히 빛내이며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며 혁명적신념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려는 드높은 혁명적열정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더 많은 재부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은 바로 당과 혁명에 대한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충성심의 고귀한 발현이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은 평양방직기계공장에 당의 따사로운 령도의 해발이 밝게 비친 력사의 나날에 뿌리내린 대중운동으로서 그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설비관리에 관한 사상과 리론, 고귀한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을 근본목적으로 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이 당의 사상과 업적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려는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설비관리사업을 자기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게 한다는데 이 운동의 근본특징이 있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이 운동이 설비를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게 하는 대중적혁신운동이라는데 있다.

설비관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근로자들에게 생산과 기술,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설비관리 방법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설비관리분야에서 진행되여온 대중운동들은 주로 자검자수를 내용으로 하는 운동들이였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은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자검자수를 기본으로 하는 종래의 설비관리운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은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설비관리의 빛나는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 설비관리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대중운동이다. 이 운동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기계설비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다루고 관리하며 그것을 계획적으로 보수하고 기술적으로 개조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방도로 된다.

이처럼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은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설비를 관리할수 있는 적극적인 방도로 되는것으로 하여 설비관리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대중적혁신운동으로 된다.

이 운동은 발단된 첫시기부터 광범한 대중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커다란 견인력과 생활력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창조와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이 운동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널리 파급되여 근로자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높여주고 설비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한데 있다.

대중운동의 생활력은 그것이 대중속에 얼마나 널리 파급되는가 하는데서 중요하게 나타난다. 그 어떤 대중운동도 광범한 대중이 거기에 적극 참가하여야만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은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설비관리사업이 실천투쟁속에서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영광스러운 사업이라는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자기가 맡고있는 기대들을 알뜰히 관리할수 있게 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이 운동이 널리 벌어짐에 따라 근로자들속에서는 설비관리에서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현상들이 극복되고 기대를 애호관리하는 기풍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기계설비를 아끼고 사랑하는것이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로, 혁명적본분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언제나 높은 혁명적열정을 안고 그것을 알뜰히 관리하는 주인다운 일본새로 일해나가고있다.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속에서 기계설비를 아끼고 사랑하는 기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혁명의 후비대로 자라난 우리의 새세대들속에서는 부모들이 서있던 혁명초소에 굳건히 서서 그들이 다루던 기계설비들을 알뜰히 관리해나가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계속 꽃펴나고있다.

설비를 다루는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일본새가 달라짐에 따라 짧은 기간에 많은 설비들이 모범기대로 되고 모범기대작업반, 모범기대직장, 모범기대공장 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모든 설비들을 영광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26호선반》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대별, 작업반별, 직장별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져 공장안의 모든 기대들이 2중모범기대로 되고 오늘은 공장이 2중모범기대공장의 영예를 지니게 된것은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의 생활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이 발단된 때로부터 지난 1년반동안에만 하여도 전국적으로 100만여대의 기계설비들이 원상대로 복구정비되여 자기의 생산능력을 충분히 나타내게 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이 운동이야말로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설비관리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대중운동이며 인민경제의 어느 한 부문에서만 아니라 전국적범위에서 커다란 견인력을 나타내고있는 운동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의 생활력은 또한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기계설비를 원상대로 복구정비하고 기술적으로 개조하여 생산과 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데 있다.

기계설비들을 정상적으로 정비보수하는것은 설비능력을 계속 보존하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특히 생산과정에 정밀도가 높은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이 대대적으로 도입되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알뜰히 다루고 정상적으로 점검보수하여야 기계설비들의 기술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생산과 건설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은 기계설비의 외형과 기술적성능, 특성들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며 그것을 정상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한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이다. 이 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근로자들속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기계설비들을 정비보수하고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관리하는 제도와 질서가 철저히 서게 되였으며 설비관리에서 전에없는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는 이것을 잘 말해준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없는것은 찾아내고 모자라는것은 만들어내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 오래동안 제대로 돌리지 못하던 모사후라이스반과 페기처분하려던 여러대의 기계설비를 비롯한 모든 설비들을 원상회복하고 기술적성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되였다. 설비가 원상회복되고 근로자들속에서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기풍이 높이 발양된 결과 기계설비의 보수주기가 10년전에 비하여 1.5배로 길어지고 보수시간은 3분의 2로 줄어들게 되였다.

이러한 혁신적성과들은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이 벌어지고있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이룩되고있다.

황해남도 벽성군 농기계작업소 일군들

의 일본새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지금 있는 기계설비들가운데서 원상대로 복구할 대상과 기술적으로 개조할 대상을 선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든 결과 오래동안 멎어있던 1,000톤프레스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불과 20여일만에 원상대로 복구하였으며 많은 기계설비들을 새로 만들거나 기술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설비의 정상적인 정비보수와 원상복구를 위한 투쟁은 생산의 정상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를 만가동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예비부속품과 공구, 지구를 충분히 갖추어놓아야 한다.

지금 모범기대창조운동의 선구자들은 예비부속품을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3개월분이상 마련하고 각종 공구와 지구들을 충분히 갖춤으로써 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생산을 련속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는 공무동력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인 결과 3개월분이상의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보장하고있으며 설비의 각종 보수를 제때에 진행하여 설비리용률을 훨씬 높이고있다. 설비의 기술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생산이 정상화되여 최근년간 계속 장성하는 인민경제계획을 매해 초과수행하고있다.

오늘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있는 기계설비들을 더 능률적이고 현대적인것으로 개조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사업과 기술준비를 앞세우고 제기된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설비 관리와 개조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오고있다. 천리마의 고향 강선의 분괴압연공들은 전후 6만톤능력의 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재를 생산하던 그때의 그 정신과 일본새로 1년반동안에 68건의 기술혁신안을 실현하여 압연기능력을 70만톤수준으로부터 100만톤 수준으로 높였으며 흥남비료련합기업소 합성직장 압축기운전공들은 1,500마력비동기전동기를 2,000마력동기전동기로 개조하여 능력을 1.2배로 높임으로써 지금의 압축기설비를 가지고 공장앞에 맡겨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에 예견된 화학비료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기계설비들을 현대과학기술수준에 맞게 더 성능이 높은것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 생산능력을 훨씬 늘이고 단능설비를 만능설비로, 불합리한 공정을 보다 합리적인 공정으로 끊임없이 개선하고있는것은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의 하나로 된다.

이처럼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은 공장, 기업소들의 기계설비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그 기술적개조를 다그쳐 설비능력을 높이며 생산을 정상화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은을 나타내고있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은 근로자들이 기대와 설비를 애호관리할뿐아니라 작업장과 공장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나가게 하는데서도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설비를 애호관리하기 위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짐에 따라 일터와 그 주변이 알뜰히 정리정돈되고 공구, 지구, 원료, 자재를 질서정연하게 보관관리하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문화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공장안은 물론 공장구내와 그 주변은 언제나 알뜰히 꾸려지고있으며 근로자들이 깨끗한 위생문화적환경에서 창조적로동에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가고있다.

참으로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그 정당

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위력한 대중적혁신운동이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모범기대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기계설비들을 알뜰히 관리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하려면 새로운 생산능력을 마련하기 위한 생산적건설을 다그치고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널리 받아들이는 한편 지금 있는 생산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완전히 리용하는데서 기본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관리와 기술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기계설비들의 생산잠재력을 다 리용하는것이다.

지금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이 매우 높은 조건에서 공장, 기업소들에서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기계설비들을 원상대로 복구정비하고 알뜰히 관리하며 기술적으로 개조하여나갈 때 생산과 건설은 더욱 다그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할수 있다.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발동하여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설비관리분야에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이다.

근로대중은 설비의 진정한 주인이며 설비관리사업은 대중자신의 사업이다. 근로자들이 사상적으로 동원될 때 설비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설비에 대한 경상관리원칙을 잘 지켜 제때에 점검보수하며 설비를 엄격히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대로 다루어 그것들이 언제나 새 설비처럼 높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기대와 설비마다에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고 국가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모범기대창조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이 운동대렬을 더욱 늘이는것이다.

많은 생산단위들과 근로자들이 이 운동에 참가하여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한다면 설비관리와 기술발전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이 운동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부인 생산설비와 기대들을 알뜰히 다루고 관리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모범기대창조운동을 활발히 벌려 개별적인 기대에 머물지 않고 작업반, 직장, 공장으로 넓혀나가며 생산부문으로부터 과학, 교육 등 비생산부문에로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모범기대창조운동에서 영예를 지닌 단위들과 근로자들은 설비관리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새로운 높은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혁신하고 전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2중모범기대, 2중모범기대작업반, 2중모범기대직장, 2중모범기대공장 칭호와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모범기대창조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이 운동에 대한 일군들의 지도방법을 개선하는것이다.

광범한 생산자대중이 드높은 혁명적열정을 안고 모범기대창조운동에 떨쳐나서고있는 오늘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이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활발히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기계설비상태를 손금보듯 환히 꿰들며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이 운동의 진행정형을 일상적으로 료해장악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나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기계설비를 원상복구하고 개조하며 기술혁신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근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어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이 학습을 강화하여 기술실무적자질을 높이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모범기대창조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결정적담보이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 운동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모범기대창조운동이 당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며 실천투쟁속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인 지도체계를 세워나가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이 운동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운동을 위대한 공산주의적진군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추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직맹, 사로청, 농근맹 조직들을 적극 발동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모범기대창조운동에 떨쳐나서도록 하며 그들이 일하고있는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설비관리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통제의 옳은 결합

김 철

사회주의경제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지도일군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경제관리에서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그들이 관리 규범과 질서의 요구대로 경제활동을 벌리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으로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강화하면서 물질적자극을 적절히 배합하며 공산주의적시책을 적극 실시하면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며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통제를 옳게 결합하는 등 어느 일면에 치우치지 않는 옳은 정책을 실시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12～13페지)

과도적성격과 공산주의적성격을 다 같이 가지고있는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에 맞게 경제를 옳바로 관리운영하자면 경제관리에서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거기에 통제를 적절히 배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여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자기 손에 틀어쥐게 되면 근로대중의 처지와 운명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지위와 역할은 전례없이 강화되는것이다. 근로대중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생산과 관리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벌려나가게 된다.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경제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립장을 가지게 되며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각적으로 일하게 된다.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사상적으로 발동되여 스스로 해나가는 이러한 기풍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소유하여야 할 고상한 공산주의적기풍의 하나이다.

경제관리에서 발양되는 근로자들의 자각성은 생산과 관리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따라서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부터 나오는것으로서 근로대중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추동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이 높을수록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혁명과업을 넘쳐수행해낼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는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한편 그들의 생산활동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에 맞게 진행되도록 잘 조직화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는 조직적인 사회이며 사람들의 사회생활과 사회적활동에서 통일성과 조직성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행동의 통일성과 조직성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어 사회가 더욱 조직화되고 사회생활이 보다 다양해질수록 그에 맞게 혁명적 질서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더우기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는것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을 조절통제하는것이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억제하고 경제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지애하며 생산과 건설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낡은 사상 잔재와 그 부식작용이 허용되면 사회주의적소유가 침해당하게 되고 사회주의경제는 건전한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할수 없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법적 및 기술경제적인 수단들을 리용하여 통제를 실시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통제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관리 규정과 규범, 제도와 질서, 규률의 요구대로 생활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사업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통제의 사명과 목적은 경제관리 규정과 규범의 요구대로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낡은 사상 잔재와 생활질서에서 벗어나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통제를 결합한다는것은 자각성과 통제의 어느 일면에 치우치지 않도록 다같이 틀어쥐고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을 반영하고있는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거기에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반영한 낡은 사상 잔재와 그 부식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통제를 안받침한다는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을 강화하고 그 과도적성격을 극복해나갈수 있다.

만일 사회주의사회의 근본성격에 어긋나게 통제만 내세우면서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차요시하게 되면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이 억제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내여 일할수 없게 되는것이다. 이와는 달리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아직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고 경제관리분야에 낡은 사회의 유물이 있으며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이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홀시하면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지장을 줄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군중을 동원하는데서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발양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면서 거기에 통제를 적절히 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언제나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통제를 옳게 결합하는 원칙에서 그 어느 일면에 치우치지 않는 옳바른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을 경제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칠수 있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고있는 단위들의 경험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 때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

로 힘차게 내달려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한 개성방직공장에서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을 높이는 사업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그것을 앞세우면서 기술경제적사업을 파고듦으로써 계획수행기간에 72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많은 원료와 자재,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상혁명방침을 관철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킨 결과 평안남도안의 《4.15기술혁신돌격대》대원들은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여러건의 발명을 비롯하여 2,700여건의 기술을 혁신함으로써 경제과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다.

근로자들속에서 높이 발양되는 자각성과 창발성은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전원회의결정을 받들고 검덕지구와 무산지구, 안주지구에 력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어렵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근로대중의 자각성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하는것과 함께 그들의 경제활동을 올바로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내놓은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의 옳은 배합,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실현, 기업소경영방법에서 독립채산제의 적용과 감독통제기관들의 역할제고와 같은 경제지도관리원칙과 방침들을 옳게 구현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통제를 결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그들이 경제관리 질서와 규범을 잘 지키도록 올바로 이끌어주는것은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해결하여야 할 절실한 과업의 하나로 나선다.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통제를 결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경제조직사업을 파고드는것이다.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실천적경험에 의거하여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서 기본은 군중의 정치사상의식을 계속 높이며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다. 군중의 높은 정치사상의식은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옳은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발전하는 현실과 대중의 의식수준에 맞게 사업을 옳게 전개해나갈수 있게 한다.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형태와 방법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찾으며 걸린 고리를 풀고 군중의 의견을 들으며 대중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는 모든 사업은 결국 군중로선의 원칙에서 기업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심화시켜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여기에서 선차적인 요구로 나서는것은 군중로선을 구현한 우리 당의 계획화방법론의 요구를 실천하여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는것이다. 그리자면 생산을 직접 지도하는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의논하여 계획을 세우며 세워진 계획이 생산자대중자신의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생산단위들과 경영활동과정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를
한다.
는 기
그들의
는 중요
대중
을 옳게
은 군중을
그들의 자
작용을
구현하기
없이 심화시키
세워야 한다.
대중의 열의를
일할수 있
하는것은 근로자들
질서의 요구대로
효과적인 방도로
들에서 기술준비를
충분히 대주며 생활조
한다면 모든 근로자들
안고 생산과 건설에
높이 발양할수 있으며 경
참가하게 된다.
대한 정치도덕적자극
옳게 결합하는것은 근
높이 발양시키면서
배합하는데서 중요한 작

자극을 강화하면서 물질적
배합하는것은 사람들을
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방법이다.
근로자들이 그 어떤 평가
위해 일하는것은 아니
자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
오늘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
자들이 공동로동에 적극 참가
으로 일할수록 그들의 로력
정치적으로 평가하고 물질적
자극하여야 그들이 높은 혁
가지고 계속 꾸준히 일하며
법과 규정의 요구를 자각적

으로 지킬수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공장,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따르는 정치적평가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수여, 근위칭호수여 등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의 결과에 대한 정치적평가는 국가표창수여와 로력혁신자의 등록평가, 사회적표창과 명예칭호 수여 등으로 진행하고있다. 이러한 정치적평가사업이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게 하자면 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 이 사업을 높은 정치적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정치적기준과 함께 경제적기준을 옳바로 세우고 그 수행에 대한 평가사업을 통일적으로 밀고나가며 집단과 매개 근로자들이 높은 영예를 지니도록 옳바로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과 수령의 배려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는 높은 영예를 지닌 단위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로력전선에서 계속 꽃을 피워 대중의 모범이 되고 거울이 되게 하여야 한다.

정치도덕적자극을 앞세우면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로동에 의한 분배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고 생활비 등급제를 옳게 실시하며 로력일을 정확히 평가하여 생활비지불과 로력일에 의한 분배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통제를 결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독립채산제를 옳바로 실시하는것이다.

독립채산제는 국가의 계획적지도와 기업활동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상품화폐관계의 요구를 실현하며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결합시키고 국가수입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들의 물질생활을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기업관리방법이다.

우리 당의 독립채산제방침에는 계획작성으로부터 경영활동의 결과에 대한 공개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업소관리운

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포괄되여 있다.

따라서 독립채산제방침을 옳게 관철하는것은 근로자들을 생산과 건설에로 적극 추동하는데서뿐아니라 사회주의 경제관리질서대로 움직이도록 그들을 통제하는데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된다.

독립채산제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계획실행에 대한 평가, 생활비자금의 사정과 생활비, 장려금의 계산지불, 기업소기금의 적립 및 지불과 같은 경제적자극수단들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기업소경영활동의 전반을 장악통제하고 평가할수 있으며 대중의 생산적열의를 더욱 높여나갈수 있다.

우리는 독립채산제실시범위를 더욱 넓혀 더 많은 단위들에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며 비생산기관들에서도 반독립채산제, 반예산제를 널리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옳게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통제를 적절히 결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이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한다는것은 국가가 제정한 관리 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경영활동을 정상화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데서 선차적인것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 규범과 규정을 잘 만드는것이다. 관리 규범과 규정을 잘 만들어야 경제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관리 규정과 규범을 만드는데서 경계해야 할 문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한다고 하면서 여러 기관들에서 제가끔 규범과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는 현상이다.

사회주의경제는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되여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있는것만큼 그에 맞게 전반적경제관리규정과 세칙 작성사업을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통일적으로 틀어쥐며 그 집행을 옳바로 지도통제할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경제관리에서 기관본위주의와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경영활동을 합리화하며 로력과 자재, 설비, 자금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경리운영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정히 할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기 위해서는 규정과 규범을 잘 만드는것과 함께 앞선 경제관리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며 기업관리의 표준공장을 잘 꾸리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운영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업관리에서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통제를 결합하는데서 나서는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통제를 옳게 결합하는 문제는 결국 경제지도일군들이 이 사업에 대한 옳은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드는데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언제나 자기 사업을 깊이 연구하여 완전히 정통하며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적극 인입하기 위해 머리를 쓰고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근로자들이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정 송 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솔하신 우리 나라 당및국가대표단이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진행한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방문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당및국가대표단의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방문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적극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원칙적립장과 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 인민의 창조력을 옳게 조직동원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국제적인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는 사회주의나라들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매개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며 사회주의력량에 도전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타격을 주기 위한 위력한 수단의 하나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언제나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적극 조직동원하는 한편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다.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여기에 힘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에 의하여 지금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 관계는 날이갈수록 활발해지고있다.

지난 기간 사회주의나라들과 진행한 여러 분야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는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나라가 분렬되고 미제와 직접 맞서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동방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면서도 세소일용품으로부터 현대적인 종합설비에 이르기까지 다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위력한 자립적공업토대와 발전된 농촌경리를 건설하여놓았다. 이것은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커다란 밑천이며 세계사회주의력량의 경제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 귀중한 재부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 및 과학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설비와 자재, 기술에 대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는것은 전반적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앞당겨수행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적형제들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공동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매개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경제건설을 잘하는것과 함께 세계사회주의력량의 전반적경제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여야 매개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제를 더욱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력이 강하여질 때 전체 사회주의력량의 경제적위력이 증대된다. 더우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건설을 백방으로 방해하면서 경제적봉쇄책동에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는 현실은 사회주의나라들이 서로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할 때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봉쇄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실수 있으며 경제적면에서도 자본주의를 압도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고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해나가자면 사회주의시장을 확대발전시키고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세계사회주의시장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한다는것은 결국 사회주의시장을 확대강화하며 더욱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세계사회주의시장은 경제위기와 경기파동을 모르는 커다란 우월성으로 하여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의 민족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그것은 사회주의시장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형제적친선관계에 기초하고있으며 모든 경제교류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발전하는 시장이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시장은 자본주의시장에 비할바없이 안정하고 공고하다.

자본주의시장에서는 시장경기변동과 제국주의독점체들의 가격통간에 의하여 상품가격이 수시로 오르내리게 된다.

실례로 자본주의시장에서 종합설비와 가공공업제품 가격은 1970년대에 매해 10%이상씩 뛰여올랐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공공업제품가격은 매해 2~4%씩 낮아졌다. 특히 유색금속가격은 1978년에 비하여 1979년에는 32.5% 올랐으며 1980년에는 그것이 전해에 비하여 11.3%나 뛰여올랐다가 1981년에는 반대로 전해에 비하여 12.4%, 1982년에는 또다시 12.9% 떨어졌다.

그러나 사회주의시장에서는 장기적인 협정과 계약에 따라 경제교류가 진행되는것만큼 가격을 비롯한 교류조건에서 거의 파동성이 없다.

사회주의시장에서는 가장 평등하고 유리한 조건에 따라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는 그것이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싸우는 계급적형제들사이의 경제관계인것으로 하여 협조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있다. 그러므로 상품과 기술봉사 값이 자본주의시장에 비하여 훨씬 눅으며 차관의 경우에도 리자률이 매우 낮고 상환기간이 길게 설정되여있다.

례하면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차관리자률은 2~4%에 불과하며 그 상환기간은 10년이상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이처럼 우월한 사회주의시장을 발전시키고 옳게 리용하여 서로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발전시킬 때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시장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확대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사회주의시장을 확대강화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경제

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켜나간다면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적자립에 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데서 좋은 국면을 열어놓을 수 있다.

자본주의시장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는 부등가교환을 통하여 풍부한 자연부원과 자기 인민의 고귀한 로동의 열매를 혹심하게 빼앗기고있다. 자본주의시장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이 파는 원료상품가격은 1981년에 비하여 1982년에는 5.5% 내려갔고 1983년 상반년도에는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또다시 8.5%나 내려갔는데 미국이 수출하는 가공공업제품가격은 이 기간에 5.8%, 1.4% 각각 올라갔다.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세계의 기술시장을 독점하고 발전도상나라들에 설비와 기술을 비싼 값으로 팔아먹음으로써 이 나라들의 재정형편을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발전도상나라들은 서방제국주의자들로부터 기술을 구입하는 과정에만도 매년 300억~500억딸라의 손실을 보고있다.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에 기여든 서방기술자들은 한달에 1,000딸라, 지어는 5,000딸라까지의 높은 임금과 생활조건의 보장을 요구하고있다.

자본주의시장과는 달리 사회주의시장은 발전도상나라들로 하여금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여유있는 공업제품과 농산물들을 팔수 있고 그대신 자기 나라 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사회주의나라들의 공업설비와 기술, 원료, 자재를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나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나라들과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새로운 기초우에서 확대강화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방문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성과를 공고히 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정부는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전체 사회주의력량의 가일층의 강화를 위하여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친선과 단결, 협조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현시기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전선에서 높은 생산적앙양을 이룩함으로써 경제기술적교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할수 있는 경제적밑천을 튼튼히 마련하는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는 자체의 경제력을 강화할 때 더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자체의 경제적밑천을 마련하지 않고 남이 줄것만 바란다면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주동적으로 할수 없을뿐아니라 다른 나라에 그만큼 부담을 주게 되며 전체 사회주의력량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는데도 지장을 주게 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 경제발전과 대외경제교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검덕지구, 무산지구, 안주지구에 력량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어제끼는것이 중요하다. 이 지구들에는 유색금속, 마그네샤크링카, 철, 석탄 등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다. 또한 이 지구들에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써 얼마든지 생산을 늘일수 있는 주체적인 채취공업기지가 마련되여있다. 여기에 힘을 넣어 더 많은 유색금속과 마그네샤크링카, 철, 석탄 등을 캐낸다면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을뿐아니라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주동적으로 벌릴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할수 있다.

이처럼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 튼튼한 경제적밑천을 마련한다면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것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검덕지구, 무산지구, 안주지구들을 돌파구로 정한 당의 방침과 의도를 똑똑히 알고 여기에 현대적인 채취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는것과 함께 이 지구들에 대한 전당적, 전사회적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에 의거하여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것이다.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의 형태와 방법은 대외경제적관계의 폭과 심도를 반영한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교류를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과 동력공업, 전자 및 자동화공업, 기계공업, 채취공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과 최신과학기술 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경제합작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적극 진행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합작은 일정한 부분품생산을 전문화하여 서로 교류하는 방법으로도 할수 있고 자금과 기술을 합하여 공동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으로도 할수 있으며 또한 자원개발을 공동으로 하여 서로 유리하게 리용하는 식으로도 할수 있다. 이러한 경제합작은 우리 나라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인민경제의 현대화수준을 한 계단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된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합작은 해당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생산요소들의 공동리용을 전제로 한다. 그런것만큼 그것은 경제적효과성이 매우 높은것이다. 례하면 우리 나라에는 기계공업의 튼튼한 토대와 무진장한 철광석자원이 있다. 우리가 사회주의나라들과 경제기술적 합작과 교류를 강화하여 서로 유무상통한다면 질좋은 기계제품들과 설비들을 낙은 값으로 만들어낼수 있을것이다.

자원개발분야에서도 사회주의나라들과의 합작과 교류를 강화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유색금속 및 비금속광물들과 희유금속 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여있다. 그가운데는 현재 우리 나라 공업발전 규모와 구조상특성으로 하여 당장 개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자원도 많다. 아직 개발하지 않고있는 이 무진장한 자원들에 대한 탐사와 개발 및 채취 분야에서 경험과 기술이 있는 사회주의나라들과 합작한다면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유익할뿐아니라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에도 경제적리익을 줄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기술교류를 광범히 실현하는것은 인민경제의 현대화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최근년간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여 이러한 최신과학기술적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인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전반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을것이다.

대외무역은 대외경제교류의 기본형태의 하나이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과

경제와 경제발전수준, 그 구조와 발전전망, 인민경제계획과 그 수행정형, 자연부원상태 등을 잘 알아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에 대한 연구는 해당 전문가들속에서 깊이 진행할뿐아니라 간부들과 실무일군들도 일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사회주의나라들의 해당 전문일군들과 호상 신뢰와 친선 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면서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의 현실적요구를 제때에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현방도를 함께 찾아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대외경제관계부문들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를 자주 열고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해당한 대책을 토의하고 그를 성실하게 리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듯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공동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는 확고부동한 립장을 변함없이 견지하여나갈것이다.

현대화된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창건 35돐에 즈음하여—

신 동 기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35돐이 된다. 1949년 10월 1일 새 중국의 탄생은 오랜 기간에 걸친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이며 중국인민의 생활에서 일어난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중국인민혁명의 승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으로 중국인민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개변되였으며 광활한 중국대륙에는 사회주의건설의 새기원이 열리게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중국인민은 비로소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새생활을 창조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으며 아세아와 세계무대에서의 력량관계는 사회주의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게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여 사회주의혁명의 길이 개척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실로 보람찬 로정을 걸어왔다.

유구한 민족사에서 35년이라는 기간은 비록 길지 않으나 이 기간에 중국인민은 내외원쑤들의 온갖 파괴암해책동을 용감히 짓부시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세기적인 전변과 비약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외래침략자들과 국내반동통치배들의 억압과 착취가 지배하고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낡은 중국의 모습은 영원히 사라지고 중국땅우에는 사회주의 새 중국이 거창한 모습으로 솟아올라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

중국인민은 지난 35년동안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실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전원회의를 전환점으로 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년간 호요방동지, 등소평동지를 비롯한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세련된 령도밑에 중국혁명은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중국의 면모는 일신되고 중국인민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변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전원회의가 있은후 중국인민은 전진도상의 일시적난관을 극복하고 전국의 안정과 단결을 이룩하였으며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현대화를 실현하여 중국을 고도로 문명하고 고도로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한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섰다.

지금 중국에서는 민족의 번영과 륭성의 새 국면이 열리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례없는 앙양이 일어나고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현대화경제건설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최근년간 근면하고 용감한 중국인민은 낡고 뒤떨어진것을 대담하게 개혁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특히 중국공산당이 제시한대로 주되는 힘을 집중하여 모든 부문의

경제구조에 대한 조절을 진행하고 지금 있는 기업소들에 대한 정돈, 개혁, 개조를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중국에서 제6차5개년계획(1981—1985)의 지난 3년동안 공업, 농업 총생산액은 매년 평균 [illegible]씩 늘어났다. 1983년에는 공업총생산액과 로동생산능률이 그 전해보다 각각 [illegible], 9.7% 높아졌으며 석탄, 원유, 강재 등 30여가지의 주요제품생산은 현 5개년계획의 마지막해인 1985년도 목표에 도달하였다.

최근년간에 이룩되고있는 이러한 성과들은 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현대화건설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분발하고있는 중국인민이 현세기말까지의 20년동안에 전국의 공업, 농업의 년간총생산액을 4배로 늘일데 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최근년간 중국의 공업부문에서 빠른 발전이 이룩되고있다.

전국도처에 대규모 수력 및 화력발전소들과 수많은 중소규모발전소들이 많이 건설됨으로써 중국의 전력공업은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지난해에 전국의 총발전량은 1978년에 비하여 136.9%로 장성하였다. 이것은 1949년에 비하여 81.7배로 늘어난것으로 된다. 전력공업이 빨리 발전됨에 따라 전국의 중요도시들과 공업지구들에 강력한 전력망이 형성되고 수많은 농촌들에 새로 전기가 들어갔다.

지난날 매우 뒤떨어졌던 기계공업부문도 빨리 발전하고있다. 야금설비, 광산설비, 발전설비, 석유 및 화학공업설비, 경공업 및 방직공업 설비 그리고 자동차, 뜨락또르, 선반, 계기 등을 만들어내는 공장들과 대형선박을 무어낼수 있는 조선소들이 나라의 도처에 건설되었다. 이리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생산보장함으로써 기계공업이 4개현대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도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화학제품들을 생산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지금 중국의 화학공업부문에서는 3만여종에 달하는 각종 규격제품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고있다.

이처럼 공업부문이 끊임없이 발전함으로써 전반적인 인민경제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촉진되고있다.

현대화된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농업의 빠른 발전이다.

최근년간 중국공산당에서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는 지금 농업이 빨리 발전하고있으며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의 생산량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중국에서 1983년에 1978년에 비하여 알곡은 127.1%, 목화는 214%, 기름은 202%로 각각 그 생산량이 늘어났다. 중국인민경제의 기초로 되고있는 농업생산의 이러한 발전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뿐아니라 중공업의 발전방향을 조절하고 경공업발전을 촉진시키는데도 좋은 영향을 주고있다.

현대화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중국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성과의 하나는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전당의 사업중심을 현대화된 경제를 건설하는데로 옮긴후 물질문명을 건설하는것과 함께 높은 사회주의정신문명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내세웠다.

사회주의정신문명의 건설, 이것은 중국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방침의 하나로 되고있다.

중국에서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활동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 도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되고있으며 그것은 날로

조직화, 대중화되고있다.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활동이 시작된 후 지난 몇해동안 사람들의 정신도덕적 풍모와 사회기풍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중국각지에서는 선진단위, 선진인물들을 적극 내세우고 따라배우는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그리하여 선진단위, 선진인물들의 대렬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지금 전국의 성, 시, 자치구의 모범으로 평가된 사람들만도 3만 5,800명이 넘으며 《새장정돌격수》, 《3.8붉은 기수》로 명명된 사람들도 각각 수만명을 헤아린다. 나라의 현대화에 한몸바쳐 커다란 공로를 세운 수많은 영웅들, 선진인물들의 감동적인 사실은 전국의 수억만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숭고한 정신세계에로 고무하고있다.

1982년 3월에 시작되여 매년 계속되고있는 《전민문명례절월간》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개선되고 환경위생, 봉사사업 등에서는 훌륭한 사회적기풍이 조성되고있다.

중국인민해방군과 공청 및 소년조직들에서는 영웅, 모범, 선진인물들, 뢰봉을 따라배워 좋은일하기활동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광범한 종업원들과 청년학생들 속에서는 《5강4미3애》활동, 《진흥중화》독서활동 등 다양한 형식의 대중활동이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이르는곳마다에서 정신문명의 꽃이 활짝 피여나고있다.

올해 봄에 진행된 전국《5강4미3애》활동사업회의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 전국도시군민정신문명공동건설단위는 1만개이상에 달하며 최근년간에 연 2,900만명의 중국인민해방군 군인들이 도시주민들과 함께 도시환경미화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활동에 참가하였으며 180여만명의 군인들이 공원들과 거리들에 떨쳐나가 5,000여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오늘 정신문명건설활동은 도시와 농촌, 학교 등 나라의 모든 지역과 광범한 계층속에서 더욱 적극화되고 있다.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활동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중국에서는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 낡은 관습과 생활양식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과 사회기풍, 사회질서가 확립되여가고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더욱 화목하여지고 그들속에서 당과 조국과 사회주의제도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정신이 높아가고있다.

중국혁명이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 중국의 면모가 일신되고 중국인민의 생활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오랜 혁명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중국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중국혁명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나감으로써 중국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해나가고 있다.

특히 호요방동지와 등소평동지와 같이 오랜 투쟁을 통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은 프로레타리아혁명가들이 중국혁명의 진두에 서서 제때에 당의 지도사상을 바로잡고 중국의 특색을 띤 사회주의건설로선을 제시하였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중국에서 오늘과 같은 성과가 이룩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중국인민이 이룩하고있는 모든 성과를 자기의 성과와 같이 여기고있으며 현대화와 문명화를 지향하여나가는 중국인민의 앞길에 새로운 승리가 있을것을 축원하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 지난 35년동안 중국의 대외관계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독립, 자주의 대외정책을 관철하여 세계의 129개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국가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300여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국

제관계에 미치는 그 영향력은 더욱더 커가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된 직후에 중국은 우리 나라와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조중 두 나라의 국교관계확립은 오랜 기간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

조중 두 나라는 강과 산이 서로 잇닿아있는 친근한 이웃이며 두 나라 인민은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온 전우이며 형제이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으로 하여 일찍부터 굳게 단결하여 시련의 언덕도 함께 넘고 피의 결전도 함께 치르면서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왔으며 이 과정에 서로 떼래야 뗄수 없는 순치의 관계,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관계로 련결되였다.

중국인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인민을 피로써 도와준 전우이다.

중국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을 때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들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선전선에 보내여 우리 인민의 간고한 투쟁을 피로써 도와주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황계광, 구소운, 라성교 등 수많은 중국인민지원군 전사들이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고 우리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으로 싸운것은 숭고한 국제주의정신의 산귀감으로 되고있다.

참으로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장구한 기간 공동의 투쟁에서 서로 피와 생명을 바쳐가며 긴밀히 지지협조해온 혁명적전우이며 친근한 계급적형제이며 믿음직한 동맹자이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 존경하는 주은래동지와 함께 마련하시고 키워오신 고귀한 친선이다.

최근년간에 있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중국방문과 존경하는 호요방동지, 등소평동지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지도자들사이의 각별한 친분관계를 더욱 두터이하고 전통적인 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 사변으로 되였다. 이 방문을 통하여 앞으로 조중관계를 대를 이어 영원히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조중친선이 더욱 개화발전되고있으며 그것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반석같은 토대가 마련된데 대하여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조중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은 나라를 통일해야 할 공동의 과업들을 수행하고있으며 여기에서 서로 지지성원을 아끼지 않고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와 인민은 우리가 제기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3자회담제안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이것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있는 형제적중국인민의 웅심깊은 우정과 두터운 계급적의리에 바탕을 두고있는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대만을 귀속시켜 전국을 통일하며 홍콩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성스러운 위업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의 《두개 중국》조작책동을 견결히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불패의 조중친선을 무궁토록 공고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며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닥쳐와도 추호의 동요없이 조중친선을 고수발전시켜나가며 중국인민과 한대오에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것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의 《동반자》론의 반동적본질

박 동 근

최근 남조선괴뢰도당은 이른바 《동반자》론에 대하여 자주 떠들고있다.

사대매국노 전두환역적은 남조선과 미국의 관계가 그 무슨 《진정한 동반자관계》라느니, 남조선과 미국은 바야흐로 《동반자의 새시대》에 들어서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줴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남조선괴뢰들이 미제국주의자들과의 종속적인 예속관계를 정당화해보려는 어리석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전두환괴뢰도당이 떠들고있는 《동반자》론은 상전인 미제와 주구인 남조선괴뢰들사이의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가리우며 저들이 감행하고있는 온갖 사대매국행위를 합리화해보려는 책동의 일환이다.

전두환괴뢰도당이 허황한 《동반자》론을 들고나온것은 남조선괴뢰도당이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로서의 추악한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해방후 첫날부터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과의 관계는 철저한 주종관계를 이루어왔으며 그것은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전면적으로 심화되였다.

특히 미제는 1970년대말에 와서 남조선괴뢰정권을 가장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들로 교체하였으며 놈들을 조종하여 남조선에 대한 군사정치적지배와 경제적략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미제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적군사기지로, 핵전초기지로 철저히 전변되였으며 남조선경제는 놈들의 침략전쟁수행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군사적부속물로 전락되였다.

그리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사이의 식민지적예속관계는 더욱 뚜렷이 로출되게 되였으며 교활한 수법으로 분장되였던 식민지통치자로서의 미제의 추악한 정체는 더는 가리울수 없게 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사이의 식민지적예속관계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반미자주화를 위한 투쟁과 결합되여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광주인민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미제를 침략자로 락인찍고 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 세차게 일어났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미국의 신식민주의를 규탄한다》, 《미국은 살인귀 전두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 《미국은 이 나라를 예속국가로 만드는것을 중지하라》, 《양키는 물러가라》 등의 반미구호가 나오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미제침략기관을 불사르고 파괴하는것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반미투쟁을 벌려나갔다. 1980년 12월과 1982년 3월 광주와 부산에서 일어난 《미국문화원》에 대한 방화투쟁과 1983년에 있었던 《대구문화원》폭파사건은 그 대표적실례들이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두환역도는 지난날과 같이 《피원조, 피보호론》만을 계속 들고나갈수 없게 되였다. 놈들은 위기를 수습하며 상전의 새로운 침략적요구를 대변할 새로운 궤변을 조작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전두환괴뢰도당의 이른바 《동반자》론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배경속에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였던것이다.

전두환괴뢰도당의 이른바 《동반자》론은 본질에 있어서 보다 심화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사이의 식민지적예속관계를 가리우고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

의 지시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고있는 것이다.

미제는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직접 틀어쥐고 저들의 식민지적지배에 맞게 《정책방향》을 조종하고있으며 그것을 형식상 남조선괴뢰들을 통하여 《합법화》하고있을 따름이다.

미제는 1948년에 남조선괴뢰정권과 《재정 및 재산 이양에 관한 협정》을 맺고 남조선괴뢰정권으로 하여금 《미군정청》이 실시해온 모든 《현행 법률, 법령 및 규칙들을 계속 시행》할 의무를 지니게 함으로써 미《군정》하에서 남조선인민들에게 강요하던 식민지군사테로통치를 그대로 유지케 하였다. 미제는 1953년 남조선괴뢰도당과 맺은 《상호방위조약》, 1961년에 남조선괴뢰도당과 맺은 《경제기술원조협정》, 1966년에 남조선괴뢰도당과 맺은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등에서 남조선의 정치세제와 정당제도, 정치생활전반에 대한 저들의 지배권을 《법》적으로 고정시켜놓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는 남조선의 정치를 전적으로 저들의 침략적요구에 맞게 좌우하고있다.

사실 남조선의 력대괴뢰정권이 실시했거나 또 하고있는 모든 《대미정치관계》는 철두철미 불평등적이고 예속적인것이며 그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지배를 정치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리익과 자주적지향이 조금도 반영되여있지 않다. 이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사이의 《정치관계》가 대등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종속적관계에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전두환괴뢰도당이 떠벌이고있는 《동반자》론의 부당성은 또한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경제협력》관계에서 드러나고있다.

전두환역도는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경제관계가 《수직관계》로부터 《수평관계》로 전환되여 《상호협력의 동반자》로 되였다고 떠들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의 이와 같은 설교는 전혀 근거가 없는 빈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경제면에서 참다운 동반자가 되자면 자본과 상품, 기술 등 경제거래의 모든 령역에서 완전한 호혜와 평등, 호상리익이 실현되여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경제적 《협력》과 《교류》 관계는 호혜와 평등이 아니라 미국독점자본의 남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지배와 략탈의 관계로 일관되여있다.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부당한 경제관계는 우선 미제는 채권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행세하고있으나 남조선괴뢰도당은 채무자로서의 온갖 고욕을 치르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1960년대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망국적인 외자의존, 수출주도형개발전략에 따라 《공공차관》과 《상업차관》, 《개발차관》과 《은행차관》, 《상품차관》과 《현금차관》 등 온갖 명색의 차관을 마구 끌어들이였다. 그리하여 1959년부터 시작된 대외채무는 1972년에는 35억딸라, 1980년에는 272억딸라에 이르렀고 올해말에는 그것이 무려 426억딸라에 이르게 될것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남조선에 침투한 외국은행들이 주고있는 《외화대부》와 해외에 진출한 남조선상사들이 현지외국은행에서 돌려쓰고있는 전환성외화대출자금액이 포함되여있지 않는것이다. 이러한 채무액까지 고려한다면 남조선괴뢰들이 걸머지고있는 대외채무는 근 500억딸라에 이르고있다. 그리하여 지금 남조선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채무왕국》으로 전락되였다.

남조선괴뢰들이 걸머지고있는 이 방대한 채무의 최대채권자는 미국이다. 미국은 남조선의 대외채무가운데서 30.7%를 직접 쥐고있으며 국제금융기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18%를 장악하고있다. 이밖에도 미국은행은 대남조선

은행자판단을 지배하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침투외국은행들가운데서도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

외채루적으로 남조선괴뢰들이 물어야 할 원리금상환부담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1983년에 60억딸라로 늘어났으며 1984년에는 70억딸라, 1985년에는 77억딸라, 1986년에는 85억딸라로 끊임없이 늘어날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과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미제는 원리금과 리자를 취득하는 채권자로, 남조선괴뢰도당은 그것을 섬겨바쳐야 하는 《공물납부자》로 되고있는것이다.

지배와 종속으로 특징지어지는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경제관계는 또한 남조선과 미국간의 예속적인 《무역거래》에서도 나타나고있다.

나라와 지역들 사이의 상품교류가 호혜, 평등, 호상리익의 원칙에서 실현되자면 그것이 말그대로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에 복무하는 유무상통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무역거래》는 그와 전혀 반대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은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교역량》이 늘어났으며 그것이 마치도 남조선과 미국간의 무역성격을 변화시켜 《동반무역》관계가 이루어진것처럼 떠벌이면서 미국과의 상품교류를 확대하라고 떠들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남조선에 강요하고있는 무역의 예속적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미국과 남조선의 무역을 미국독점자본에게 더욱 유리하게 확대시켜나가겠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전두환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경제활동에 필요한 모든것을 미국으로부터 불평등한 조건으로 구입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첫째가는 생활필수품인 알곡을 매해 700만~800만톤씩이나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이고있다. 그런데 미제와 맺은 《잉여농산물도입협정》에 의하여 그것을 국제시장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사들이고있다.

가장 중요한 로동대상인 연료, 원료, 자재들도 미국으로부터 또는 미국독점자본의 지배와 통제 밑에서 《공급》받고있다. 특히 산업용연료동력자원의 100%를 미제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가동하고있는 대부분의 중요생산설비 역시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인것이다.

남조선에서 만들어낸 생산물이란 철저히 미국의 자본, 기술, 원료에 의하여 가공된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조선산업은 식민지하청임가공공업이라고 부를수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진행되는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상품거래는 사실상 본청업자와 하청임가공자사이에 맺어지고있는 《교류》관계에 불과한것이다. 그것은 마치도 상업자본가인 매점업자와 가내수공업자사이의 거래관계와 흡사하다.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식민지적경제관계는 기술《교류》를 비롯한 다른 경제《협력》분야에서도 철저한 예속적관계가 지배하고있다.

미국독점자본은 남조선의 정유, 기계, 전자, 화학 등 주요기간산업부문에 침투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장악함으로써 남조선경제가 자립적으로 움직일수 없게 하고 미국경제에 전적으로 종속되게 하였다.

이처럼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경제관계는 완전히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관계로 전변되였다.

전두환괴뢰도당이 떠들고있는 《동반자》론의 부당성은 《동반안보》의 기만성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남조선과 미국의 《동반》은 우선 《안보》에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느니, 오늘 남조선과 미국은 《안보》에서 《가장 착실한 동반자》로 되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고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조선과 미국사

이의 군사적관계는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고도 로골적인 주종관계로서 특징지어지고있다.

오늘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지배와 예속은 미제침략군의 비법적인 남조선강점을 기초로 하여 진행되고있으며 따라서 남조선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여있다. 미제에 의한 완전한 군사적예속은 남조선괴뢰들과 미제국주의자들사이에 맺어진 《대전협정》과 《방위조약》에서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미제침략군이 우리 나라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간섭을 감행하고있던 1950년 7월에 맺어진 《대전협정》에서 남조선괴뢰들은 작전지휘권을 미제침략군에게 완전히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남조선괴뢰군은 미제의 《고용군대》로 전락되고말았다. 미제는 조선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3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이른바 남조선, 미국《련합사령부》를 통하여 남조선《군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남조선에 저들의 륙해공군을 무기한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주둔》시킬 《권한》을 가지고있다. 조선전쟁직후에 남조선괴뢰도당과 미제국주의자들사이에 맺은 《호상방위조약》이 바로 그것을 《합법화》하고있다.

이밖에도 미제는 남조선괴뢰도당과 맺은 《군사원조협정》을 비롯한 수다한 《조약》과 《협정》들에서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보급과 교육, 훈련 그리고 군사행정 일반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법제화》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괴뢰군은 《대렬편성》으로부터 《훈련강령작성》과 그 집행, 물자보급에 이르기까지 미제침략군사령부와 군사고문들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있으며 그들의 명령이 없이는 한발자욱도 움직일수 없는 철저한 식민지고용군으로 전락되였다. 이러한 형편에 있으면서 전두환괴뢰도당이 군사면에서 《동반자》를 운운하는것은 놈들이야말로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철저한 사대매국노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괴뢰도당은 미국과의 《동반안보의 실질적인 강화방안》이라는것을 내들고 《현행호상방위조약의 내용이 나토형으로 강화》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강점 《미군무력의 증강》, 미군과의 《련합훈련의 지속적인 실시》, 남조선에 대한 《군사판매차관의 증액》, 《방위산업기술지원의 강화》 등에 대하여 떠들고있다.

이처럼 남조선괴뢰도당은 《동반안보》의 구호밑에 미제침략자들과 맺고있는 현실적인 군사적주종관계를 미화분식할뿐아니라 남조선을 미제의 대아세아군사전략 수행에 보다 철저하게 복무하게 하려 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동반안보》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군사적존재를 강화하려 하는 한편 남조선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더욱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수행에 내맡김으로써 미제의 철저한 주구로서의 제놈들의 《본분》을 다하려 하고있다.

최근년간 전두환괴뢰도당의 《동반안보》놀음에 의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사이의 군사적종속관계는 더욱 강화되고있다. 1980—1984년사이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수와 군사적장비는 더욱 증강되고 특히 남조선의 핵기지화책동은 미증유의 속도로 추진되였다. 더 많은 핵탄두가 남조선에 반입되고 핵폭탄을 나를수 있는 전투폭격기 《에프-16》이 남조선에 새로 배비되였다. 년례행사처럼 거듭되는 북침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군사훈련의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그것이 더욱더 핵전쟁연습으로 변모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의 군사비는 1980—1984년기간에 무려 2배이상으로 늘어났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강요하고있는 《군사판매차관》이 또한 증가되였다. 그리고 남조선경제를 군사화하기 위한 책동도 강화되고있다.

모든 사실은 완전한 식민지로서의 남

조선과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미국사이의 《동반관계》란 있지도 않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의 한 신문은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관계는 불평등하다고 하면서 그것은 미국이 그 관계를 《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있고 남조선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과 행동의 결정은 미국의 국익이라는 기준에서 이루어》지기때문이라고 썼다. 전 남조선주재 미국대사였던자까지도 미국과 남조선과의 《대등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은 《비현실적》이며 《량국간의 모든 관계에서 실제적인 평등이란 있을수 없다》고 한것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그 어떤 궤변으로써도 엄연한 현실을 가리우고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을 기만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을 배반하고 미제상전에게 빌붙어 저들의 더러운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부지해보려고 발악하고있는 전두환괴뢰도당의 사대매국적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내쫓고 민족적자주권을 되찾음으로써만 정치적자주성을 행사할수 있게 될것이다.

북과 남이 련합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것은 자주적이고 중립적이며 블럭불가담적인 통일된 국가로서 대외관계에서 자주권과 평등권을 떳떳이 행사하고 민족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악독한 식민지적지배와 남조선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를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근 로 자 1984년 제10호(루계 510호)

편 집 위 원 회

편찬•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4년 10월 1일 발 행• 1984년 10월 8일

ㄱ—45260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1호

평 양 근로자사 1984

제11호(51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실현한 불패의 혁명적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불패의 위력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에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선봉투사들로 조직된 혁명의 전위부대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에서 당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전당이 하나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하며 유일적인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여야 한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안에 여러가지 이색적인 사상과 분파적인 경향이 허용된다면 그러한 당은 혁명의 참모부, 인민대중의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할수 없으며 자기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 이것은 공산주의운동의 력사가 확증해주고있는 엄연한 진리이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한다는것은 당안에 수령의 사상만이 지배하게 하고 수령의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운다는것을 말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지도사상은 곧 수령의 사상이며 령도의 중심은 바로 수령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떠나서는 로동계급의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그 전투적위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수령의 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움직이는 여기에 로동계급의 당의 특징이 있으며 그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니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모든 당원들이 당의 령도를 적극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97폐지)

우리 당은 사상적순결성과 행동상통일을 확고히 실현한 전일적인 전투대오이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오직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숨쉬고 사고하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서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가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철저히 보장된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이다.

우리 당안에 실현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불패의 위력을 가지고있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의 위력은 그것이 어떠한 높이에서 실현되였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숨을 쉬여도 같은 숨을 쉬고 걸음을 걸어도 일치한 보조를 취할 때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며 필승불패의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안에 실현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하고있다.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지 않고서는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없다. 모든 당원들이 수령의 사상, 당의 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당만이 불패의 위력을 지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그 어떤 의무감이나 실무적인 조치에 의하여서는 결코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참답게 실현할수 없는것이다.

당과 수령을 굳게 믿고 순간을 살아도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살며 당과 수령을 따라 영원히 충성의 한길을 걸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원들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 당원들은 자기들에게 삶의 보람과 영예를 안겨주고 광명한 미래를 가져다주는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산악과 진펄도 마다하지 않고 억세게 전진하고있다.

생활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현명성을 심장으로 체득한 우리의 당원들은 당과 수령에게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에 기초하여 전당이 하나의 순결한 통일체를 이루고있으며 이 불패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우리 당안에 보장되고있는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실현된 불패의것이라는 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이것은 반세기가 넘는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성과이며 혁명적당건설을 위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고귀한 전취물이다.

우리 당안에 실현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또한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된것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혁명위업을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마땅히 대를 이어 계승되여야 한다. 대를 이어 계승되고 공고발전되는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만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불패의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것이다.

우리 당안에 이룩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전통의 빛나는 계승발전이다. 당의 위업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계승해나가는 투쟁을 통하여 힘있게 추진되며 이 과정에 당은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고수해나가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전행정에 걸쳐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행동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언제나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온갖 분파적이며 이색적인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안에서 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실현하고 행동상 통일을 튼튼히 보장하여왔다. 바로 이 과정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실현하고 그것을 공고발전시켜나가는 빛나는 전통이 마련되고 그 고귀한 경험이 창조되였다.

우리 당은 이 고귀한 전통과 경험을 대를 이어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오늘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를 철저히 관철해나가고있다.

지금 우리의 당사업과 당활동은 철저히 당중앙의 사상의지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혁명과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가 확고히 보장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당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문제가 빛

나게 해결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실현된것은 우리 당을 주체형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안에 세워진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것이다.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도록 한것은 주체형의 당건설위업을 완성해나가는데서 우리 당중앙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된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중앙은 무엇보다도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로선이다.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이다. 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ㄹ.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1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안에 수령의 사상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하여 사상적유일성을 보장하며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령도의 유일성을 실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전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따라 하나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산 유기체로 될수 있다.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서 존재하며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당이 활동하는 전기간 수령의 사상으로 전당을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여기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것은 1970년대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원칙들을 새롭게 제기한것이다.

당의 사상적유일성은 오직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서만 실현된다. 우리 당이 제시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새로운 원칙들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신념화하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할데 대한 문제를 밝힘으로써 당안에서 수령님의 사상의 유일성을 새로운 높이에서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결과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당안에는 주체의 사상체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서게 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의 사상체계인 동시에 수령의 령도체계이다. 그런것만큼 전당이 수령의 명령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우리 당이 밝혀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새로운 원칙들에는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며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울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되여있다.

당중앙이 제시한 이 원칙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움직이는 행동의 전

일체로 되였으며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확고히 지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당의유일사상세계확립의 새로운 원칙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전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오직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충성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새로운 높이에서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한것은 우리 당중앙이 이룩한 크나큰 업적의 하나이며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중앙은 또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축성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로동계급의 당의 사명은 수령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는데 있다. 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대를 이어 고수하며 그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공고화하는 사업, 당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가야 한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대를 이어 확고히 실현할수 있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아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대를 이어 보장해나가는것은 혁명위업계승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당의 기초를 다지는것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대를 이어 철저히 고수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당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할수 있으며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움직이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규률을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지기 위하여 우리 당중앙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일군들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며 당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하며 당에 대한 충실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심화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모든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갔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 단결이 새로운 높이에서 실현되였으며 당의 위력은 불패의것으로 다져졌다.

당의 기초축성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골간력량을 꾸리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일군들로 간부대렬이 더욱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중앙의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이 튼튼히 서있다. 우리 당안에 확립된 규률은 당중앙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끝없는 충성심에 기초한 자각적인 규률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규률은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것이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안에는 당의 방침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였다.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의 방침을 절대적진리로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고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당안에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체계가

튼튼히 섰다는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이 있으며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는 결정적요인이 있는것이다.

참으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것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우리 당중앙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과이며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우리 당이 이룩한 이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끝까지 고수하는것은 오늘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당원들의 숭고한 임무이다.

우리 당은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당이다.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에 대해서도, 우리 인민의 행복한 래일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우리 당중앙의 위대성과 절대적인 령도적권위, 고귀한 투쟁업적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함으로써 그들이 일편단심 당을 믿고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더욱 높이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싸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는것이다.

실패와 우여곡절만 겪던 우리 혁명이 자주의 궤도에 들어서던 주체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향도성으로,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함으로써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이 불굴의 혁명정신은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혁명위업을 끝까지 고수해나가는데서 참다운 본보기로 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심화시켜 그들모두를 80년대의 김혁, 차광수로 키워나감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사상과 령도를 영원히 높이 받들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중요하게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우리 당이 공고발전되여온 전로정은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바로 이 과정에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더욱 철저히 실현되여왔다.

당조직들은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고 파괴하는 온갖 이색적이며 반당적인 조류들과의 투쟁과정에 이룩한 우리 당의 고귀한 경험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순결성을 끝까지 고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당안에서 실현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더욱 튼튼히 지켜나갈수 있으며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다.

우리는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새로운 높이에서 실현한 당중앙의 업적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과 함께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인식과 개조의 방법론

박 태 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일반적방법론을 새롭게 밝힌 탁월한 철학사상이다.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서는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활동을 벌려야 하며 그러자면 옳바른 방법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활동의 지침인 옳은 방법론에 의거하여야 사람들은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행동의 목표와 방도를 바로세우고 세계를 정확히 인식 개조해나갈수 있으며 자신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할수 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우는데 깊은 리해관계를 가진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들의 활동분야가 다양한것만큼 활동의 방법론도 다양하다. 그러나 사람들의 활동의 내용과 방법이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인식과 개조의 모든 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일반적인 방법론이 있는것이다.

철학이 밝혀주는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 바로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일반적인 방법론이다.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세계에 대한 사람의 태도로서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의 기본출발점을 이룬다. 관점과 립장이 다르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활동방식이 달라지며 따라서 인식과 개조활동의 결과도 같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인식과 개조의 모든 활동에서 언제 어디서나 지키고 구현하여야 할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된다.

철학은 세계에 대한 견해와 함께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인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밝혀주어야만 사람들에게 세계관을 주며 운명개척의 방도를 밝혀주는 과학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에 관한 문제를 철학이 해결하여야 할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합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73폐지)

주체사상이 새롭게 밝힌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일반적인 방법론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이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한다는것은 사람을 첫자리에 놓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물현상을 보고 대하며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이 사람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가진다는것이다.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이라는데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의 근본특징이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주체

의 관점과 립장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언제 어디서나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방법론적 원칙과 요구를 집대성하고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이다.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은 두가지 기본내용, 기본측면을 담고있다. 그 하나는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것이다.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의 첫째측면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활동의 목적을 세우는데서 지켜야 할 관점과 립장이라면 둘째측면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데서 지켜야 할 관점과 립장이다. 전자가 주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를 높이는 문제와 관련되여있다면 후자는 세계를 개조변혁하는데서 사람이 노는 역할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되여있다.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 인식과 개조의 일반적인 방법론의 기본내용의 하나는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것이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사람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게 하는 견지에서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을 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인식과 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의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모든 활동이 사람에게 리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이루어진다는것이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에 기초하고있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인것만큼 세계의 모든 사물을 단순히 인간의 의식밖에 있는 객관적인 존재로 보는데 그치지 말고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게 하는 견지에서 대하여야 한다.

집을 하나 짓고 공장을 하나 건설하여도 사람들에게 더 쓸모가 있고 편리하게 짓도록 사고하고 행동하며 땅속에 있는 하나의 지하자원이나 자연경치 하나를 보아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사람, 인민대중에게 더 잘 복무하도록 하겠는가 하는 견지에서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로 이것이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활동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관철되고있는것이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인식과 개조의 가장 옳바른 방법론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계의 모든 사물은 오직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지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게 하는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는것은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3페지)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것이 인식과 개조의 가장 옳바른 방법론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활동의 근본목적에 전적으로 맞기때문이다.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의 활동은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며 따라서 그것은 활동에 앞서 목적을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활동한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것을 사람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사람의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이 다양한것만큼 그 모든 활동이 다 자체의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사람은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려는 요구를 가지고있으며 인식과 개조의 목적에도 이러한 근본요구가 반영된다. 여기로부터 인식과 개조의 근본목적은 그 주체인 사람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지식과 생활수단과 생활조건을 얻기 위한데 있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인식과 개조의 이와 같은 근본목적에 완전히 맞으며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식과 개조의 성과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옳바른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된다.

모든것을 사람의 리익에 복무하게 하여야만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역할을 높여 인식과 개조 활동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가장 옳바른 방법론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기때문이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여 그것을 자기를 위한것으로 만들자면 세계의 사물현상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을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사람의 리익이다.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세계에는 사람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인식과 개조의 대상인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의 리익이며 세계의 모든것은 사람을 위하여 복무할 때만이 가치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사람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하지 않는 해롭고 부정적인 사물현상들은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인식과 개조대상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에 전적으로 맞으며 세계를 사람을 위한 세계로 만들수 있게 한다. 여기에 이 관점과 립장이 세계의 인식과 개조의 가장 옳바른 방법론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인식과 개조의 방법론을 지키기 위하여 나서는 기본요구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인식과 개조의 방법론을 견지하기 위하여 나서는 기본요구는 우선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모든 활동에서 사람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최고의 원칙으로 내세우는것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자주성을 본성으로, 생명으로 하고있기때문에 사람의 근본리익은 자주적리익과 그것을 담보하는 자주적권리를 지키는데 있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자면 사람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최고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인식과 개조 활동의 목적과 대상을 규정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 인식과 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인식과 개조 과정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사람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게 하는 방향으로 인식과 개조를 확신성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인식과 개조의 일반적인 방법론을 견지하기 위하여 나서는 기본요구는 다음으로 모든것을 사람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키는것이다.

사람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는 사람의 본성적 지향과 요구이며 따라서 그것은 사람의 참다운 근본리익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모든것을 복종시켜야만 인식과 개조 활동의 근본목적을 참답게 실

현할수 있게 된다.

세계의 모든것을 사람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키자면 자연과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조하여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환경과 조건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사람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는 끝없이 높아진다. 그런것만큼 그것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실현하려면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기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은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인식과 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사물현상을 평가하게 한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으로 된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 인식과 개조의 일반적인 방법론의 기본내용의 다른 하나는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것이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것은 세계는 사람의 주동적인 역할에 의해서만 사람을 위한 세계로 전환된다는 견지에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사람의 역할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세계의 운동법칙을 파악하며 사람자신의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간다는것이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역할에 기초하고 있다. 사람은 세계의 개조자이며 세계는 사람에 의해서만 사람에게 리롭게 개조된다.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개조되는것만큼 세계가 자체의 객관적법칙에 따라 변화발전한다는것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여야 한다.

공장을 하나 건설하고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모든 사업은 인식과 개조의 주체인 사람의 주동적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의하여 그 성과가 규정된다.

우리 당은 언제나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주동적인 역할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켰으며 위대한 승리와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 우세한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것도, 미국놈들이 100년이 걸려도 일떠설수 없다고 하던 우리 나라에서 전후복구건설을 불과 몇해사이에 훌륭히 수행하여 조선사람의 본때를 다시한번 힘있게 보여준것도, 1956～1957년에 국내외정세가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천리마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칠수 있은것도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주동적인 창조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인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세계에 대한 인식과 개조의 가장 옳바른 방법론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계는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서만 사람을 위한 세계로 개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사람의 주동적인 활동의 견지에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것은 세계에 대한 가장 옳은 관점과 립장으로 됩니다.》(우와 같은 문헌, 14페지)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인식과 개조의 방법론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할수 있는 창조적힘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기때문이다. 사람은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할수 있는 유일한 창조자이며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창조적힘을 가진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이다.

사람은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자신의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실현한다. 세계에는 사람의 창조적힘보다 더 위력한 힘은 없다. 물질세계발전의 특출한 산물인 사람은 객관세계에 순응하여 사는 생명물질과는 달리 세계를 자기의 의사에 맞게 개조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도 사람이며 세계를 개조할수 있는 위력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만들어내는것도 사람이다. 사람은 자기의 생활적요구와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벌려나간다. 세계는 사람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사람을 위한 세계로 전변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창조력에 기본을 두고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여야 사물의 운동을 주동적으로 풀어질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계의 변화발전에 주동적으로 대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사람에게 리롭게 개조할수 있다.

사람이 세계의 개조를 요구할뿐아니라 창조적힘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세계가 개조되므로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인식과 개조의 성과를 담보하는 가장 옳바른 방법론으로 된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것이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인식과 개조의 방법론으로 되는것은 또한 세계가 사람의 주동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사람을 위한 세계로 개조되기때문이다.

사람이 세계의 개조자라는것은 세계가 스스로 사람을 위한 세계로 개조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에 의해서만 인식이 이루어지고 실천활동을 통하여 세계가 개조된다. 만일 인식과 개조 활동을 주동적으로 벌리지 않고 자연과 사회가 사람에게 리롭게 개조되기를 바란다면 어느때에 가서도 세계는 사람을 위한 세계로 개조될수 없다. 세계가 사람의 주동적역할에 의해서만 사람을 위한 세계로 개조된다는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여야 세계를 개조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인 사람의 역할을 높이고 그의 주동적활동을 강화하여 객관세계의 변화발전과정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주동적활동의 견지에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인식과 개조의 가장 옳바른 방법론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인식과 개조의 방법론을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를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모든 활동에서 사람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을 첫공정으로 삼는것이다.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업은 거창하고 방대한 사업이며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인식과 개조의 방대하고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데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며 어디에 주되는 관심을 돌려야 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람중심의 방법론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모든 사업을 언제나 사람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것을 새롭게 밝혀준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는 주객관적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것은 사람인것만큼

전적으로 그 주체인 사람을 어떻게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물론 객관적조건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객관적조건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데 따라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의 활동에 유리한 조건이 주어질수도 있고 불리한 조건이 조성될수도 있다. 그러나 인식과 개조활동에서 주동적이고 기본적인 요인은 어디까지나 주체적요인인 사람이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성숙되지 않은 객관적조건을 성숙시킬수 있으며 자기에게 불리한 객관적조건을 피하고 유리한 객관적조건을 조성할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서는 언제나 객관적조건을 먼저 보기전에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을 먼저 보고 사람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한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인식과 개조의 일반적인 방법론을 견지하기 위하여 나서는 기본요구는 또한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는것이다.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옳은 방법에 의거해야 한다. 인식과 개조의 방법은 대상의 특성과 주어진 조건에 따라 구체적이고 다양하지만 언제나 사람을 발동시키고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것을 기본방법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물론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생산도구와 실험기자재와 같은 물질기술적수단들이 큰 역할을 논다. 그러나 물질기술적수단은 어디까지나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것이며 사람에 의하여 조종되여야 위력을 낼수 있는것이다. 사람의 창조적역할을 떠나서는 물질기술적수단들이 창조될수 없고 작용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물질기술적수단들의 역할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람의 창조적역할을 능가할수 없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사람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것이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본방법, 기본열쇠로 되는 근거가 있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되는 합법칙성에 전적으로 맞는 가장 옳바른 방법론이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까지 담고있는 완성된 방법론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중심의 주체적방법론의 전일적인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철학적세계관의 구성부분의 하나가 새롭게 개척되고 세계를 주동적으로 대하는 가장 옳바른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세계에 대한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준다.

이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주체의 관점과 립장이 사람,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밝혀주는 참다운 혁명적인 관점과 립장이며 가장 옳바른 방법론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참으로 사람중심의 주체의 방법론은 인식과 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방법론적지침이며 오랜 세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인민대중에게 세계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고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이 밝힌 인식과 개조의 일반적인 방법론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음으로써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사적지를 통한 충실성교양

전 승 민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자리잡고있는 삼지연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력사의 땅이다. 우리 삼지연군에는 민족수난이 절정에 달하였던 암담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대부대를 친솔하시고 국내에로 진출하시여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신심을 굳게 안겨주시면서 불멸의 자욱을 남기신 청봉숙영지와 건창숙영지, 베개봉숙영지, 삼지연, 무포숙영지 등 혁명전적지들이 자리잡고있다. 하늘아래 첫동네인 삼지연군은 오늘 대로천혁명박물관으로 꾸려졌으며 지난날 처서판으로 불리우던 이곳에 공산주의리상촌이 일떠섰다. 삼지연군이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꾸려지고 천지개벽을 이룩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시려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정력적인 지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워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찍부터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세대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을 당과 혁명을 보위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꾸리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으며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일대의 혁명 전적지들과 사적지들을 대로천혁명박물관으로 꾸릴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삼지연군안의 혁명 전적지들과 사적지들을 충실성교양의 전당으로 꾸리도록 세심한 지도와 크나큰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여러차례에 걸쳐 삼지연땅을 찾으시고 실무지도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삼지연못가에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중심으로 하는 대서사시적기념비가 웅장하게 일떠섰으며 군안의 모든 혁명 전적지들과 사적지들이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전당으로 훌륭히 건설되였다.

오늘 삼지연군안의 혁명 전적지들과 사적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우리 당의 은덕을 높이 칭송하는 력사의 증견자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이와 같은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여기에서 사는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더없는 영광이다.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삼지연군당위원회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량강도당단체는 이러한 혁명전통으로 군중을 교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전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희생적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을 계승하며 그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289페지)

삼지연군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통한 대중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였으며 이 과정에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였다.

우리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정상적으로 답사할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우리 삼지연군에는 백두산으로부터 험준한 계곡을 따라 동쪽으로는 무봉로동자구, 남쪽으로는 통신로동자구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가 수많이 자리잡고있다. 여기에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은 항일혁명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사와 투쟁업적의 위대한 기록이며 생동한 화폭이다.

이러한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은 력사적사실과 실물을 놓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함으로써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군당위원회는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로 이루어져있는 우리 군의 특성과 관련하여 군안의 인민들의 답사 및 참관 사업을 짜고드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군당위원회는 혁명전적지답사 및 혁명사적지참관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 철저히 립각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백두산을 비롯한 군안의 혁명 전적지들과 사적지들을 정상적으로 답사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큰 힘을 넣은것은 군안의 인민들이 혁명사적지를 답사할수 있도록 년간사상사업계획을 세우고 모든 당조직들이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실속있게 도와주는것이였다.

군당위원회는 매해초에 기관, 기업소와 농장, 학교 그리고 가두에 내려가 답사대상자들을 계층별, 직업별로 세밀히 료해장악하는 사업을 정상화하였으며 그들의 사업상특성에 맞게 군적인 범위에서 답사 및 참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군안의 인민들이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년간사상사업계획을 실속있게 세우는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다 어렵고 힘든 일은 그것을 철저히 집행해나가는것이였다. 우리 삼지연군은 1년에 반년이상 눈이 내리고 겨울에는 령하4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가 계속된다. 그러므로 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고서는 년간사상사업계획에 예견된대로 답사 및 참관 사업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해나갈수 없는것이다.

올해초 국영포태종합농장에서 답사 및 참관 사업을 조직진행할 때였다. 여섯개의 분장과 여러개의 직장으로 되여있는 이 큰 농장의 답사대상자들이 농번기전으로 빠짐없이 군안의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들을 참관할수 있게 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현지에 내려가 농장초급당위원회일군들과 함께 필요한 운수수단을 보장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답사사업을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실제적인 대책들을 세웠으며 농장과 분장의 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항일유격대식으로 참관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농장의 답사대상자들이 계획된 기간안에 혁명 전적지들과 사적지들을 빠짐없이 참관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illegible] 업적을 깊이 체득할수 있게 [illegible]

군당위원회는 농업근[illegible] 벌목공들과 류벌공들[illegible] 두인민반원들도 그들[illegible] 사 및 참관 사업을[illegible]

ㄴ며 한편 사적부문강사
을들을 찾아다니면서 혁
가지고 교양사업을 실속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사적지를 통한 충실성
 위한 군당위원회의 이
 군안의 전체 인민들로
령에 대한 충성심을 심
 하였으며 전국각지에
람들에게 우리 군에 깃
사적내용을 널리 해설선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

전적지와 사적지를 가지
 하여 사람들속에서 당
 충실성이 저절로 높아
 당위원회들이 조직사
 짜고들어야 혁명전적지
이 충실성교양의 위력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보여주고있다.
 사적지를 통한 충실성
 얻은 중요한 경험의
사 및 참관 성원들의 구
 맞게 교양 방법과 형
개선해나간것이다.
앙위원회 정치국 상무
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충실성교양을 형식만 갖
있게 하여야 하며 어느
치지 말고 여러가지 내
법으로 폭넓게 하여야

는 혁명 전적지들과 사
사적내용들은 서로 다르
 사적지마다 답사로정의
 않다. 군안의 혁명
 지들을 통한 교양사업
바로 옳바른 교양방법에
 히 담보될수 있었다.
중의 요구와 혁명 전적
 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탐구하여 교양사업을 진

행하여야 사람들속에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체득시킬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는 많은 경우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해설강의 하나로 군중교양을 대치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사적에 담겨진 사상과 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킬수 없었다. 이러한 부족점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통한 사상교양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었으며 나아가서 혁명전적지답사 및 혁명사적지참관 사업을 한갖 행사식으로 진행하는 현상까지 나타날수 있었다.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에서 제기된 이러한 문제를 제때에 포착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직접 현지에 내려가 협의회를 열고 대상과 환경에 맞는 교양 형식과 방법을 찾아내였으며 방식상학을 조직하여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우리는 우선 사적부문일군들로 하여금 강의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군당위원회는 강사들이 천편일률식으로 한가지 제강만 가지고 교양하던 종래의 낡은 틀을 마스고 로동자, 농민들에게는 알기 쉽게 이야기식으로 해설해주며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문답의 방법으로 사적내용을 깊이 알려주도록 하는 등 강의 형식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청봉혁명전적지관리소에서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선렬들이 남긴 불멸의 글발이 아로새겨진 구호목을 중심으로 하고 력사적사실들을 생동한 자료들과 결부하여 강의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에서는 매일 긴 로정을 따라 답사해야 하는 특성에 맞게 종합강의와 사적물에 따르는 대상별

해설강의를 결합시키고 답사자들이 숙영소에 머무르는 전기간 항일유격대식으로 생활하도록 조직하는 한편 저녁마다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에 대한 보충강의를 조직진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였다.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통한 교양은 강의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할뿐아니라 답사와 참관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하여야 보다 실속있게 진행될수 있다.

우리가 최근년간 해마다 조직하고있는 삼지연—백두산스키답사행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에 의한 혁명전적지답사경험은 이것을 잘 말하여준다.

올해 2월에 200여명을 망라하는 스키답사행군을 조직할 때였다.

삼지연남자고등중학교에서 사업하고있는 부교장은 가족들을 데리고 밤마다 베개봉에 올라 스키타는 법을 배워 여덟명의 가족이 함께 삼지연—백두산스키답사행군대오에 들어서게 되였다. 백두산에 오른 이 가족은 대를 이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우리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며 빛나게 살아갈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이러한 충성의 마음은 스키답사행군을 진행한 모든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신념이였으며 의지였다.

군당위원회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또다시 조국땅에 진군하신 때로부터 마흔다섯해를 맞으면서 지난 5월 삼지연못가에서 결의모임을 조직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장군님을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나갈 충성의 한마음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가 국가적인 명절과 기념일들을 계기로 군안의 혁명사적내용과 결부하여 기념강연회, 연구발표회, 영화감상회를 조직하고 문예활동을 통한 교양사업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며 그들로 하여금 삼지연땅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생활은 강의와 답사 및 참관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조직진행해나가는 여기에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통한 충실성교양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으며 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혁명전적지에 자리잡고있는 군당위원회가 자체의 특성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깊이 심어줄수 있다는것은 우리 군당위원회가 얻은 중요한 경험의 하나이다.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은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심을 높여주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군당위원회는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해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발양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특히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 참관과정에 느낀 감명을 자기의 기본혁명과업과 결부시켜 발표회, 결의모임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토론회들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당일군들이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지난해 말 통나무생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때였다.

리명수림산사업소의 각 작업소들에 내려간 군당위원회일군들과 사적부문일군들은 채벌로동자들과 함께 기계톱을 틀어잡고 통나무를 베면서 쉴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대부대를 거느리시고 또다시 압록강을 건느시여 조국진군작전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노래한 예술소품공연도 하고 삼지연군에 깃든 혁명사적내용을 감명깊게 해설해주기도 하였다. 군당위원회일군들과 사적부문강사들의 힘있는 정치선전과 경제선동에 감동된 로동계급들은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드팀없이 관철할 굳은 결의를 다지고 사나운 눈보라와 강추위를 이겨내면서 통나무생산을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이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됨으로써 백두산작업소와 삼지연작업소를 비롯한 리명수림산사업소의 작업소들에서는 년간 통나무생산과제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군당위원회가 월별, 분기별 경제과업수행과 결부된 사상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아래에 내려가 혁명사적에 대한 교양과 경제선동을 결합하여 교양사업을 짜고든 결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 더욱 높이 발휘되게 되였으며 경제사업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삼지연군당위원회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더 정중히 꾸리며 그 관리운영사업에 대중을 적극 참가시키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충실성교양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영광의 땅, 삼지연군에 자리잡고있는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들을 정중히 꾸리고 잘 관리하는것은 단순한 행정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책임적인 정치사업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심을 더욱 높여주는 숭고한 사업이다.

군당위원회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대한 대중적인 관리체계를 세우는 한편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정상적으로 알뜰히 꾸리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군당위원회의 이러한 조직정치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혁명 전적지들과 사적지들을 정중히 꾸리고 관리하는데서 커다란 은을 내고있다.

청봉혁명전적지관리소의 한 로당원이 나무블로크를 만들어 숙영지 교양마당과 도로에 정성껏 깔고 그 경험을 온 군에 일반화하여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있는것도, 삼지연혁명전적지답사자공급소의 책임일군이 10여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와같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도로를 알뜰히 관리하면서 후대들에게 충성의 마음을 키워주고있는것도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군인민들의 충성심의 높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처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를 통한 대중교양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순간을 살고 일생을 싸워도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빛나게 살며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온 군에 차넘치게 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혁명적의리로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고 영원히 우리 당과 함께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는것이 오늘 우리 군의 자랑찬 모습이다.

우리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통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키움으로써 당과 수령의 크나큰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해나갈것이다.

인민대중은 문화예술의 창조자이며 향유자이다

리 기 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주의문화예술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화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을 위한 우리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화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선차적문제의 하나는 그것을 누구의 힘에 의거하여, 누구를 위하여 발전시키는가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이 문제에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문화예술의 창조자이며 향유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인민대중은 문화예술의 창조자이며 향유자이라는 사상은 혁명적문화예술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심오하게 해명한 고전적정식화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인민대중은 문화예술의 창조와 향유의 주인이다. 그것은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이라는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힌바와 같이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손으로 사회의 모든 재부를 만들어내며 자기의 투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력사를 발전시켜나간다.

세상에서 인민대중보다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 인민대중은 세상에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든것을 창조한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떠나서는 사회의 변혁과 진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문화예술의 창조와 발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문화예술은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며 발전한다.

인민대중은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향유할것을 요구할뿐아니라 문화적부를 창조하고 향유할것을 요구하며 로동생활과 혁명투쟁을 진행하면서 문화정서적생활을 누릴것을 요구한다. 감정과 리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인간은 결코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요구를 충족시키는것만으로는 만족할수 없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과정에는 물질생활에 대한 요구와 함께 정서생활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다. 인간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로동생활이나 혁명투쟁과정에 인민대중은 삶의 보람과 기쁨, 희열을 느끼게 되며 그것을 표현하고 누릴것을 희망한다. 인민대중의 물질적수요가 물질생활을 통하여 충족된다면 그들의 정서적수요는 문화생활을 통하여 충족된다. 문화생활은 곧 인간이 문화적재부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문화생활을 하려면 문화적재부인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문화예술을 창조하는것은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문화예술을 발전시킬수 있는 무진장한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

문화예술은 인간과 생활을 형상적형식으로 반영하는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이다. 생활을 떠난 문화예술이란 있을수 없으며 인간과 그 생활을 반영하지 못한 문화예술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

문화예술의 반영대상인 인간과 그 생활은 다양하고 풍부하다. 자연을 정복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로동생활,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혁명투쟁, 로동생활과 혁명투쟁 과정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 등 인간생활의 포괄범위는 매우 넓으며 같은 생활분야라 하더라도 사회력사적단계와 사람들의 준비정도, 그들의 사회계급적처지에 따라 그 내용이 서로 다른것이다.

다양하고 풍부한 인간생활에 대하여 제일 잘 아는것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생활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체험자이다. 인민대중은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있는것만큼 그것을 예술적으로 재현할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의 창조와 발전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확고히 담보한다.

문화예술은 인간과 그 생활의 반영이지만 생활이 그대로 예술이 되는것은 아니다. 생활을 시대적요구와 사람들의 사상미학적감정에 맞게 진실하고 풍만하게 그려낼 때에만 참다운 문화예술이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예술은 생활을 잘 알뿐아니라 그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할수 있는 고상한 정신세계와 창조적재능을 가지고있는 사람만이 만들어낼수 있다.

인민대중은 생활을 예술적으로 생동하게 그려낼수 있는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과 정신세계를 지니며 생활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예술적기교를 소유하게 된다. 인민대중이 지닌 이러한 사상정신적, 지적 능력은 생동한 문화예술을 창조할수 있는 원천으로 된다.

이처럼 인민대중은 생활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생동하게 그려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문화예술의 창조자로 되며 문화예술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은 마땅히 그 향유자로 되여야 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이 문화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 된다는것은 문화예술의 기원과 그 발전의 전로정이 확증해주는 엄연한 진리이다.

문화예술은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정에 발생하였다. 력사는 벌써 인류의 유년기에 가무놀이나 동굴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소박한 예술작품들이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작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술작품들은 비록 유치한것이기는 하였으나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느낀 인간의 긍지와 자부심, 사랑과 기쁨을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다. 이것은 자기의 감정을 정서적으로 표현하려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과정에 문화예술이 발생하였다는것을 그대로 말하여주며 인간의 로동과 투쟁을 떠나서는 문화예술 그자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확증하여준다.

인민대중은 문화예술의 기원을 열었을뿐아니라 그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여왔다.

계급사회가 출현하면서 인민대중은 비록 정치적자주성을 유린당하고 창조적활동을 극도로 억제당하였지만 문화예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인류문화예술사는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인민대중의 집체적지혜의 산물인 설화, 민요, 민간극 등 우수한 인민창작품들을 기록하지 않은 례가 없다.

우리 나라 력사는 고구려의 건국설화를 비롯하여 수많은 우수한 인민창작의 민요, 설화들을 전하고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들에도 인민창작의 성과에 토대하여 작가들이 다듬어쓴것들이 많다. 물론 세상에는 가치있는 문학예술작품들을 남긴 재능있는 작가, 예술가들이 적지 않지만 그

어떤 예술의 거장도 머리속에서 생활을 고안해내지는 못하였다. 그들도 인민대중의 투쟁과 생활 속에서 풍만한 소재를 찾았으며 인민문학의 유산에서 대중의 힘과 지혜를 체득하였다. 예술의 거장들의 재능은 인민대중과 함께 시대의 맥박을 감득하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민감하게 포착한데 있으며 대중의 슬기에 의하여 마련된 예술형식들을 더욱 다듬고 널리 활용한데 있었다.

문학분야에서뿐아니라 다른 예술분야를 발전시키는데서도 인민대중은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우수한 고대건축물들과 회화작품들, 예술적인 민속춤동작들도 모두가 피착취근로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하여 창조된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먼 옛날부터 인민대중이 자기의 사회적 리상과 지향을 담은 문학예술작품들과 빛나는 예술형상들을 창조하고 향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는것을 보여준다.

인민대중은 문화예술의 창조와 향유에서 주인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그의 지위와 역할이 같은것은 아니다.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자신의 창조적 힘과 재능으로 물질적부와 함께 정신문화적부를 창조하지만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탓으로 반동적착취계급에게 자기의 모든 창조물들을 유린략탈당하였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사회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며 문화예술의 창조와 향유에서 진정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할 권리뿐아니라 배움의 권리, 문화생활의 권리, 휴식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자기의 일반지식수준과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광범한 근로자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참가하여 예술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게 되며 문화예술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서 혁명적인 문화예술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

인민대중이 문화예술의 참다운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는 문제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해결되였다.

해방직후 문맹퇴치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문화혁명을 줄기차게 벌려온 결과 지난날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 무지와 몽매만을 강요당하던 우리 인민은 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였으며 주체적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문화예술의 창조와 건설에 참가하여 자기의 예술적재능과 지혜를 꽃피우고있다. 우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마련되여있는 수많은 현대적인 문화예술기관들과 문화시설들은 전적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고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은 그 어디에서나 대전성기를 맞이한 찬란한 민족문화예술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문화예술의 창조자, 향유자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주체적인 문화예술을 더욱 개화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져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에게 예능교육도 포함한 높은 수준의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진행하고있으며 전문예술교육사업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을 군중속에 널리 보급하고 선전하는 체계도 정연하게 확립되여있다.

이것은 문화예술사업을 군중적지반우에서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되였다는것을 말

하여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문화예술의 창조자, 향유자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통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예술을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온 나라의 예술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갈데 대한 방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참가하고 즐기는 군중예술을 발전시켜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는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온 나라의 예술화, 이것은 인민대중이 문화예술의 창조와 향유에서도 완전한 주인으로 된 공산주의사회의 참다운 모습이다.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예술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구현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구속에서 멀리 벗어날수록 그리고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살게 될수록 생활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공산주의사회는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이며 지덕체를 갖춘 다방면적인 새형의 인간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이다.

온 나라의 예술화가 실현되면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높은 문화적소양과 예술적자질을 소유하게 되며 문화예술의 참다운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최상의 수준에서 수행하면서 그 향유자로서의 권리를 가장 원만히 행사할수 있다.

온 나라의 예술화는 문예활동의 대중화를 통하여서만 실현할수 있는 높은 목표이다. 문예활동을 대중화하여 온 나라의 예술화를 힘있게 밀고나갈 때 문화예술의 창조와 향유에서 사람들속에 남아있던 불평등과 차이를 없애고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된다.

우리 당은 문화예술활동을 대중화하여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사업에서 전문가본위로 나가려는 경향과 창작에 대한 신비주의를 없애고 문화예술을 군중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문화예술활동에서 전문일군본위로 나가려는 경향과 창작에 대한 신비주의적 경향은 인민대중의 힘과 재능을 믿지 않고 저들의 계급적지배를 합리화하려는 착취계급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사상에 근원을 두고있다. 이러한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문화예술활동에 광범한 군중을 참가시켜야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활짝 꽃피울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 누구나 다 글도 짓고 그림도 그리며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다루며 춤도 출줄 알게 하여야 하며 일터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노래소리, 악기소리가 울려나오게 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예술인들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에 나가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군중예술활동을 도와주고 그들속에서 새싹을 많이 찾아내여 재능있는 예술인들을 키워야 한다. 이와 함께 문학예술축전, 문예작품현상모집, 전람회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군중예술사업을 더욱 활발히 ▌리고 그

수준을 가일층 높여나가야 한다.

예술소조는 근로자들의 예술적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예술인대오의 후비를 키워내는 믿음직한 원천으로 된다. 예술소조의 활발한 운영과정에 군중의 예술적재능이 발견되고 발양되며 소조원들가운데서 우수한 사람들이 작가, 예술인으로 자라난다. 예술소조야말로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튼튼한 군중적지반이며 작가, 예술인 후비를 믿음직하게 마련해주는 저수지이다.

예술소조사업을 계속 강화해나갈 때 문학예술의 군중적발전이 확고히 담보되고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대중적지반우에서 힘있게 발전할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예술활동을 소조원들끼리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자면 또한 문화예술보급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문화예술보급사업은 근로자들을 문화예술의 창조에서뿐아니라 향유에서도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며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사상교양, 문화정서교양을 강화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쳐나가는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문화예술의 교양적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보급분야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예술보급사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놓았다. 이것은 지난날 예술작품을 상품화하던 자본주의적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예술을 광범한 대중의 향유물로 되

하는 혁명적인 조치로 된다.

문화예술부문에서는 매 시기 당시

업 방향과 요구에 맞게 보급계획을

로 세우고 그것을 제때에 어김없이

행하며 인민들이 예술작품의 내용을

알수 있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설선전함으로써 당이 세워준 예술보

체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한다. 이와 함께 예술선전대의 활동

강화하여 문학예술작품들을 광범한

중속에 널리 보급하며 그들의 문

수준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또

한 출판물과 텔레비죤방송을 비롯한

전선동수단들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문

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

야 하며 날로 높아가는 근로자들의 정

서적요구에 맞게 문화생활을 더욱 다양

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참가하고 즐기는 군중예술을 발전시켜 문화예술의 창조와 향유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개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우리는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문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문화예술의 참다운 창조자, 향유자로 되려는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어야 할것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신 동 식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기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북청군당위원회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이 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군안의 전반적사업에서 굼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이룩되였으며 룡전협동농장과 북청수지일용품생산협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튼튼히 서게 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되게 되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휘되게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세찬 불길속에서 주체농법이 철저히 관철되여 알곡과 과일, 고기 생산이 현저하게 늘어났으며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장비수준이 더욱 개선되고 인민소비품생산이 급격히 장성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최근년간 우리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와 경제문화건설에서 이룩된 혁신적성과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에 우리는 적지 않은 성과와 일정한 경험을 얻을수 있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틀어쥐고 군당위원회의 모든 부서들이 이 운동에 깊은 당적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이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더욱 심화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09페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군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말단지도기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관철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 단위이다. 그러므로 군당위원회가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어떻게 조직하고 지도하며 밀고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이 운동의 성과가 좌우되게 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군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서들의 분기사업계획과 월사업계획이 이 운동을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작성되고 집행되도록 하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였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안의 모든 일군들이 아래단위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결의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 부서들의 사업내용과 직능에 맞게 사업을 조직하고 분공을 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조직부일군들에게는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사업과 이 운동에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이 적극 참가하도록 장악지도할데 대한 분공을 위주로 하여 주었으며 선전부일군들에게는 사상혁명결의과제수행을 위한 조직지도사업과 이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리기 위한 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군당위원회는 모든 일군들에게 분공을 실정에 맞게 명확히 주었을뿐아니라 그 수행정형을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총화하는 사업도 강하게 내밀었다. 우리는 매달 일군들과 부서들로부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사업정형을 보고받는것을 제도화하였으며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대책을 세우는것을 생활화하였다. 그리하여 군당위원회의 사업계획과 부서들의 사업계획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위한 사업과 맞물려지게 되였으며 책임일군으로부터 지도원들에 이르기까지 이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부서들간의 배합 및 협동 작전을 잘하는것은 이 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거창한 규모에서 전례없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광범한 대중의 참가밑에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를 선전부의 한두명의 일군들만으로는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오직 군당위원회의 모든 부서들이 힘을 합치고 보조를 같이하여야 이 운동의 결의목표 수행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주관부서인 선전부의 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조직부와의 련계를 끊임없이 보강하며 다른 부서들과의 협동작전을 실속있게 하도록 짜고들었다. 그리고 부서들의 지도사업과정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자료들은 주관부서인 선전부에 집중시켜 선전부로 하여금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진단에 기초하여 정확한 지도대책을 세우고 이 운동을 끊임없이 실속있게 추진시켜나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군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한결같이 움직이며 매개 부서들의 역할을 높이고 련계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현실은 우리 당이 밝힌것처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사업과 밀착시키고 당적으로 옳게 지도하여야 이 운동이 내세우고있는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광범한 대중이 자각적열성을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든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려나가는데서 우리가 이룩한 중요한 경험의 하나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광범한 대중이 떨쳐나서게 하는것은 이 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광범한 대중이 떨쳐나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계를 옳게 설정하고 결의목표를 실천성있게 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지난 시기 일부 단위들에서는 결의목표를 실천성있게 세워 대중이 신심을 가지게 할 대신 주관적욕망을 앞세우면서 지나치게 목표를 높이 정하거나 구체적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너무 낮게 세우는것과 같은 형식주의적인 편향이 극복되지 못하고있었다. 군당위원회는 이런 편향을 바로잡고 이 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확한 목표와 과학적인 방도를 가지고 이 운동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할수 있도록 작업반과 개인별 결의목표를 세우는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었다. 우리는 빈틈없이 조사되고 검토된 객관적자료에 기초하여 현실적이고 동원적인 전망목표와 단계별목표를 과학적으로 세우도록 하였으며 개인결의목표도 자신의 준비정도를 따져가면서 힘에 맞게 세우도록 하였다.

우리는 수지일용품생산협동조합에 나가 한 로동자와 담화하면서 그가 세운 결의목표를 료해하여보았다. 그 동무로 말하면 오랜 로동자로서 기술기능수준이 높고 일반지식수준도 다른 동무들에 비해 나은편이였다. 그런데 그가 세운 결의목표는 매우 일반적이고 소극적이였다. 우리는 그가 세운 결의목표의 부족점을 하나하나 일깨워주면서 자기의 수준과 능력에 맞게 결의목표를 다시 세우도록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결의목표에 수지그릇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현저히 높일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기능이 어린 동무들의 기능전습을 담당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자기가 해결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그 수행방도까지 정확히 밝히였다. 우리는 결의목표를 세우는데서 자기의 수준과 능력을 타산함이 없이 다른 동무들이 세운 결의목표를 옮겨베끼는것과 같은 형식주의적현상을 극복하는데도 주의를 돌리고 제때에 바로잡아나가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전망적인것만 보고 목표를 일반적으로 정하거나 또 당면한것만 보면서 일시적인 깜빠니야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것과 같은 현상을 다같이 극복하고 결의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광범한 대중이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방도를 가지게 되였으며 모두가 확고한 신심에 넘쳐 결의목표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관심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광범한 대중이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는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옳게 조성하고 그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왕성한 의욕과 정열을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으며 이 운동의 불패의 위력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모든 계기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필요한 선전선동수단들을 적극 동원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수행정형 총화와 평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치적평가를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여러가지 물질적자극을 옳게 배합하도록 한것은 이 운동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데서 매우 효과적이였다. 군당위원회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검열되고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당에 받아들이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였다. 또한 기회가 있을때마다 선전선동수단들을 동원하여 모범적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였으며 특히 군안의 사회급양망들과 편의봉사망들에서 3대혁명기수들에게 우선 봉사하는 사업을 조직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결의목표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혁신자들의 영예사진을 가지고 군당위원회일군들이 직접 가정방문도 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사업도 자주 조직진행하였다.

우리가 조직한 이러한 사업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데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으며 광범한 대중이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이 운동에 적극 참

가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은 제기된 과업의 중요성과 함께 그 수행방도를 잘 알았을 때 높이 발휘되게 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결의목표를 수행하는데서도 독촉만 하고 강조나 하여가지고서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 그것은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고 꾸준하면서도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그래야 지도하는 사람도 집행하는 대중도 신심에 넘쳐 적극적으로 달라붙게 되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것은 군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과정이 잘 보여주고있다.

군을 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건재기지를 조성하는것과 함께 외장재문제를 해결하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는 계획도 세우고 총화도 하였으며 강조도 하고 때로는 독촉도 해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별다른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우리는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예비와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에 어느 한 공장에서 경리일군으로 사업하고있는 염료기술자를 찾아내게 되었다. 우리는 그에게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해설해주면서 군에 있는 원료를 가지고 외장재를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데 대한 당적과제를 주었다. 이때에도 우리는 과업의 중요성을 일반적으로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맡은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떠밀어주었다. 그 일군이 다른 군의 원료를 가지고 외장재를 만들려고 하였을 때에도 우리는 그에게 남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방도가 떠오르지 않지만 제힘을 믿고 자기의것으로 끝까지 해내겠다는 사람에게는 방도가 생기는 법이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군에 있는 자재와 원료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면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절절한 호소에서 당조직의 의도와 어머니당의 숨결을 느낀 그는 고심어린 탐구와 피타는 노력으로 끝내 군의 원료를 가지고 외장재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대중속에 들어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듦으로써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고주파발진기를 창안제작하여 용접봉문제를 자체로 풀수 있게 하였으며 용접의 질을 훨씬 높이면서도 많은 전기를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당조직들이 대중속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대중을 적극 발동할 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려나가는데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또한 한 단위에 모범을 창조해놓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전반적단위들에서 이 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도록 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곳에 모범을 창조해놓고 그것을 통하여 간부들을 교양하고 사업방법을 가르쳐주며 모든 단위들에서 그 모범을 본받도록 하는것은 몇백번의 강연이나 명령, 지시보다 더 낫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0권, 237페지)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반적단위들에서 끓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군당위원회는 우리 당이 밝혀준 전통적인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시범단위를 옳게 선정하고 튼튼히 꾸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경험을 쌓으며 지도력량을 마련하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고 적극 밀고나갔다.

본보기를 창조하는데서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모든 부문에 력량을 집중하면서도 해당 단위의 구체적실정과 유리한 조건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통전협동농장에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다 포괄하

는 전반적인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하였고 수지일용품생산협동조합에서는 기술혁명결의목표수행과 관련한 본보기를, 그리고 만송협동농장 수산작업반에서는 문화혁명수행과 관련한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5차례나 다녀가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룡전협동농장에 나간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리당일군들과 3대혁명소조와 힘을 합쳐 이곳을 모범단위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현지교시와 당중앙이 제시한 영예로운 과업들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결의목표에 빠짐없이 반영하고 그것을 어김없이 실천하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이곳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을 발동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이 깃든 불멸의 사적을 통한 충실성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줄기차게 진행하여 사상혁명결의목표부터 수행하게 하였다. 우리는 또한 광범한 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혁명적열의를 적극 발동하고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40도가 넘는 시루봉 경사지돌밭에 수십정보의 계단식과수원을 새로 조성하고 경사지과수원마다에 삭도를 설치하여 비료와 과일 운반작업을 완전히 기계화하였으며 수만여메터의 비닐관을 늘이고 무동력 약뿌리기와 관수체계를 세워 과수작업을 더욱 헐하고 능률적으로 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룡전리를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더 잘 꾸리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커다란 힘을 넣었다.

우리는 이렇게 한개 단위를 본보기로 꾸리는 과정을 통하여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돌우에도 과일꽃을 피울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안겨주었다.

기술혁명수행을 위한 본보기단위를 잘 꾸리는것은 군안의 전반적단위들에서 기술장비수준을 개선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한때 우리 군에서 생산한 수지그릇을 비롯한 일부 일용품들은 모양과 색갈이 곱지 못한것으로 하여 주민들이 잘 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은 우리는 기술혁명수행에서 본보기를 창조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결심하였다.

본보기를 창조하기 위하여 수지일용품생산협동조합에 나간 우리는 먼저 로동자, 기술자들이 세운 기술혁명수행을 위한 결의목표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들이 자기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한가지이상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결의목표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었다. 이와 함께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그들이 생산한 질이 낮은 수지그릇들을 보여주면서 기술을 혁신하여 그 질을 높일 대책을 진지하게 의논하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협의회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수지제품의 모양과 색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찾아낼수 있게 되였다. 한편 우리는 제기된 기술혁신안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파묻혀있는 기술일군들을 찾아내여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이 자기의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당적으로 떠밀어주고 이끌어주었다. 로동자와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가 강화되고 기술력량이 꾸려지니 어렵게 생각하던 기술혁신과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여나가게 되였으며 마침내는 새로운 방법에 의한 수지그릇생산에 성공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건의 발명과 수많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일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우리는 본보기를 창조하는 방법으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북청신발공장과 북청고기및물고기

가공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들에서 기술장비수준을 개선하고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이 과정은 우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시켜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실현해나가는 보람찬 투쟁과정이였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워나가는 충성의 나날이였다.

우리는 조건이 유리하고 토대가 일정하게 마련되여있는 단위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곳에도 모범과 경험을 창조하여 비록 조건이 좀 불리하고 토대가 비교적 약하다 하더라도 일군들이 결심하고 달라붙어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대중을 적극 발동하기만 하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인식시키는데도 커다란 힘을 넣었다.

군당위원회는 창조한 모범을 공고히 하면서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갔다.

모범을 창조한 단위의 훌륭한 경험이 여러 단위의 결의목표 수행에 실지로 도움이 되도록 하자면 가치있는 경험을 방법론적으로 가르쳐주는것이 중요하다. 이로부터 군당위원회는 방식상학을 통하여 방법론을 배워주는 사업에 모를 박았다. 방식상학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종전처럼 한곳에 모여놓고 한꺼번에 여러가지 방법을 무데기로 보여준것이 아니라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도록 하였다.

통전리에서는 농업부문에서 결의목표를 단계별로 실속있게 세우고 집행하는 방법을 위주로 하여 방식상학을 조직하는것과 함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이룩한 성과를 실물로 보여주어 사람들에게 신심을 주기 위한 견학과 참관 사업을 자주 조직하였다. 수지일용품생산협동조합에서는 기술혁명과 관련한 결의목표수행정형에 대한 월총화방법을 보여주도록 하였으며 만춘협동농장 수산작업반에서는 문화혁명과 관련한 문제에 기본을 두면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영예등록장》의 리용에서 나서는 문제를 가지고 방식상학을 실속있게 조직하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과 같이 이러한 방식상학들과 견학 및 참관 사업들은 실효도 컸으며 반영도 좋았다.

이렇게 우리는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통하여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도달하여야 할 목표에 대한 생생한 표상을 줄수 있었고 이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방법과 방도를 가르쳐줄수 있었다. 실천투쟁을 통하여 군당위원회는 하라고 지시만 줄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일을 밀고나갈 때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수행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체득하게 되였다.

실로 한 단위에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이 운동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없애고 현실성과 구체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방법이였으며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옳게 타산하여 본보기를 만들어놓고 그에 기초하여 지도에서 과학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였다.

우리가 거둔 이와 같은 성과와 경험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 가까운 앞날에 군안의 모든 단위들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도록 함으로써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과학기술교육을 더욱 강화하자

박 영 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민족의 장래운명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과학기술교육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교육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와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고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세계적수준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건적문제로 되고 있다.

과학기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인류가 달성한 선진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득시키고 그 활용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다.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사람들에게 선진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체득시켜야 그들을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을 높은 실무적 자질과 능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사람들을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우며 사회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단행본, 2~3페지)

사람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있는 존재이다. 사람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규제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으며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난것이 아니다. 타고난 사상과 지식이란 없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은 교육에 의하여 원만히 배양된다. 사람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류가 쌓아놓은 사상과 문화를 습득하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을 배우고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자질과 풍모를 갖추게 된다. 높은 실무적 자질과 능력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을 키우는데서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습득은 커다란 작용을 한다.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는것은 인간의 전면적발전의 중요한 조건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적활동은 과학기술지식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그런것만큼 사람들을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며 그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자면 교육사업 특히 과학기술교육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을 개선강화하는것은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이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

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전진하고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것이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위력한 담보와 예비는 바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경제건설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없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제대로 실현할수 없다.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것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달려있다.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연료동력자원의 개발과 리용, 새로운 원료자원의 탐사와 개발, 주체적인 실생산방법의 완성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 경제는 그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부문사이의 련계가 복잡해졌으며 그 기술장비수준이 대단히 높아졌다. 현대화되고 자동화된 공장, 기업소들이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일떠섰으며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자동화되고 현대화된 공장, 기업소들을 옳게 관리운영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하며 급수높은 기능공들을 더 빨리 양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여 기술자, 전문가들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경제건설과 기술혁명의 성과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과학기술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여 현실이 해결을 기다리는 이 절실한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 때만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당이 제시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으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

이처럼 현실은 과학기술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의 주체공업을 이끌어나갈 기술자, 전문가들을 훌륭히 키워낼 것을 요구하고있다.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여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하는것은 현대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현대 과학과 기술은 매우 빨리 발전하고있으며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이 끊임없이 개척되고있다.

최근년간 원료, 연료 자원의 고갈과 그 수요의 급속한 증대와 관련하여 에네르기문제가 세계경제발전에서 가장 심각한것으로 제기되고있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쓰고있는 에네르기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리용하는 한편 원자에네르기, 태양에네르기, 지열에네르기, 풍력자원, 수소연료를 비롯한 새로운 에네르기를 적극 탐구개발하기 위한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고있다. 또한 늘어나는 원료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땅속 및 바다밑자원을 전면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심부개발이 활발하게 벌어지고있으며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 자동화하며 새로운 금속 및 비금속 재료들을 개발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특히 최근 20～30년기간에 기계공학, 전자자동화공학이 급속히 발전하여 기계설비들이 더욱 간편하고 쓸모있게 개

신되고있으며 고도로 자동화되고있다.

전자계산기공업도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빨리 발전하고있다. 처음 전자관식전자계산기로부터 반도체식을 거쳐 집적회로를 쓴 전자계산기를 넘어 1970년대에는 대규모집적회로를 리용한 전자계산기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지식정보처리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를 개발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추진되고있다. 전자계산기가 발전하고 수치조종기술이 높아짐에 따라 로보트생산이 매우 빨리 늘어나고있으며 로보트자체도 수치조종로보트로부터 지능로보트에로 발전하고있다.

과학과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그리고 전반적인 과학기술발전에 커다란 전변을 가져다준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초고압물리학, 극저온물리학, 레이자와 플라즈마를 비롯한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이 개척되고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있다.

현대과학기술의 이러한 발전추세는 과학기술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고 인류가 도달한 과학기술의 최신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것을 요구하고있다.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여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바로 여기에 주체적인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높은 속도로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 교육사업의 실태는 과학기술교육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지난날 우리의 교육사업은 많이 발전하였지만 아직 현실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으며 교육의 질적수준도 그리 높지 못하다. 특히 기술교육수준은 세계선진수준에 비하여 뒤떨어져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 특히 과학기술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 질적수준을 높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문헌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와 최신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과학기술교육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고등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7페지)

경제건설의 성과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있는 오늘에 와서 기술자, 전문가들의 자질에 대한 요구는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다. 이 요구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교육의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기술기초교육과 전문기술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그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다.

기술기초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전문기술교육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오늘 생산에 널리 도입되고있는 최신과학기술의 기초에는 전자계산기산법을 전제로 하는 여러가지 공학적원리들과 기초과학의 성과들이 안받침되여있다. 더우기 전자, 자동화 요소들이 고도로 집적화되고있는 현실은 전자재료, 전자요소, 전자회로 및 전자장치들에 대한 해석과 합성이 새로운 기초원리와 리론, 방법에 의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현대생산과 기술의 공학적원리와 현대수학적수법을 비롯한 기술기초지식과 기초과학분야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교육에서는 기

술기초교육과 기초과학분야의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현대과학의 기술기초원리와 기초과학분야의 최신성과들을 깊이있게 습득시켜야 그들이 대학기간에 전문지식을 완성할수 있으며 사회에 나가서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대학들에서는 기술기초교육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해당 전문기술부문의 기초교육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하는것이다.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이 련이어 개척되고 전자계산기와 산업로보트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이 생산에 널리 도입되고있으며 기계설비들이 고도로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되고있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최신과학기술발전의 이러한 추세에 맞게 전자, 자동화부문의 최신과학기술과 현대적인 자동화요소와 수단들에 대한 교육, 용접과 유압기술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전공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과학기술발전의 성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특히 전자, 자동화 분야에서는 전자재료생산과 집적회로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한 기술과 집적회로를 적용한 현대적인 전자계산기를 비롯한 전자장치생산을 위한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술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서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설계교육을 강화하는것이다. 기술대학들에서는 설계교육에 큰 힘을 넣어 학생들이 어떤 설계도면이든지 다 자유롭게 볼수 있고 여러가지 현대화된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훌륭히 창안설계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학생들에게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가르치는것이다.

기술혁명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빨리 추진됨에 따라 대학기술교육부문앞에는 학생들에게 산 지식을 가르쳐주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나서고있다.

과학지식의 거대한 위력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하며 지식은 실천능력과 결합되여야 쓸모있는 산 지식으로 될수 있다. 강의에서 배운 지식은 실험과정에서 더욱 공고화되고 생산실습을 통하여 응용능력과 결부될 때 비로소 실천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으로 된다.

대학들에서는 강의의 과학리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기초우에서 실험실습교육의 비중과 질을 높여 책에서 배운 내용을 더욱 공고화하면서 그것을 현실에서 써먹을수 있는 실천실기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배운 지식을 소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할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배운것을 능숙하게 활용하며 새로운 착상을 하고 획기적인 과학적 발견과 발명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대학들에서 키워내는 모든 학생들을 어떤 어려운 과학기술적 문제들도 거침없이 척척 풀어나가는 실력있는 민족기술간부로, 20대, 30대의 준박사, 박사로 키우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대학들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과학기술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대학은 민족간부양성의 기지이며 과학의 전당이다. 대학들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없으며 기술자, 전문가들을 바로 키워낼수 없다. 대학들에서의 교수교양사업은 과학연구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하며 대학교원들은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능력있는 교육자로 될뿐아니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유능한 과학자로 되여야 한다.

대학들에서는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밀고나

가야 하며 교수교양사업과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연구과제를 통일적으로 주며 연구결과를 제때에 실속있게 총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주체를 세우는것은 과학기술교육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과학기술교육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학생들을 우리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 쓸모있는 기술인재로 준비시킬수 있으며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기술대학들에서는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을 많이 가르쳐야 한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앞선 과학과 기술을 주체적립장에서 받아들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원래 과학과 기술은 매개 나라, 매개 민족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발전해나가며 그것은 나라와 민족사이에서 서로 교류된다.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이 사회적진보와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것은 필수적이다.

문제는 어떤 립장과 자세에서 다른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받아들이는가 하는것이다. 이로부터 과학기술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가 중요한 원칙적요구로 나서게 된다.

기술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다른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실정에 맞게 가르치는것이다. 다른 나라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새로운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에 그대로 맞을수는 없다. 선진적인 과학과 기술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과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혁명과 건설에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것을 더 잘 알고 우리 혁명과 건설을 더 잘하기 위한 목적에서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우리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을 경제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기술대학들에서는 원료, 연료, 동력문제를 우리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풀며 철생산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유색금속 생산과 가공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잘 가르쳐주며 농업대학들에서는 주체농법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발전시키고있는 주체적인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을 개선강화하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가장 정당하고 현명한 방침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며 기술혁명수행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문헌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감으로써 후대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옳게 교육교양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더욱 높이며 능력있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할것이다.

경제사업에서 타산을 잘 하여야 한다

최 재 국

경제사업은 타산에 기초하여 조직진행되는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이다. 면밀하게 따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해서는 가장 적은 지출로 가장 큰 효과를 얻기 위한 경제활동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경제적타산은 관리운영의 합리적인 방도를 찾기 위하여 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과 객관적조건들을 따지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생산수단의 소유자, 경리의 주인이 담당수행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경제적타산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확립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타산사이에는 원칙적차이가 있게 되는것이다.

경제적타산문제가 사회주의사회에서처럼 그렇게 절실하게 제기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상인들의 깐진 타산도, 자본주의적경리의 《면밀한》 타산도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사회주의적경제타산과는 대비조차 될수 없다.

지난날 사자본주의적, 개인적 경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경제적타산은 생산수단이 사회화되고 경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에와서 비로소 전사회적, 전인민경제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사회주의경제에서 타산의 대상은 수없이 많고 다양하며 타산방법도 고도의 구체성과 세밀성, 전면성을 띤다. 타산단위도 수만, 수십만을 헤아린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타산의 복잡성은 결코 그 성격과 대상, 방법의 특성으로부터만 오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타산의 담당자들의 준비정도와도 관련되여있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타산의 주인, 그 담당자인 경제지도일군들과 생산자들의 타산능력이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서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이 전진되는데 따라 끊임없이 복잡해지는 경제타산문제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에 맞게 옳게 해결하는것은 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중요한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갖 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생산원가와 건설원가를 끊임없이 낮추며 엄격한 경제적타산에 기초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1권, 318페지)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기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인민경제계획화방법을 비롯하여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 원칙들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경제적타산을 바로 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우리 당은 경제적타산문제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정확히 해결하기 위하여 해방직후에 벌써 전국적인 인민경제계획화체계를 세우는 한편 기업소관리운영에서 독립채산제원칙을 적용하였으며 정연한 경상계산체계와 통계보고체계를 정비하여놓았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시하였으며 경제관리 규범과 규정, 각종 기술경제적기준들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경제적타산의 질을 한계단 높일수 있게 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진군길에서 이룩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경제적타산을 더욱 심화시킬 과업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많은 생산단위들에서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높은 경제적효과를 낼수 있게 하였다.

오늘 경제적타산의 단위와 대상이 비상히 확대되고 복잡해졌으며 경영활동의 과학화문제가 일정에 오른 조건에서 일군들의 경제타산능력을 그 어느때보다도 빨리 높여 일을 깐지게 조직진행하는것은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박한 과업이다.

이르는곳마다에서 타산을 잘할것을 요구하고있으나 아직도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면서 타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기에 관심을 적게 돌리는 현상이 지속되고있다. 모든것을 따져보며 살림살이를 깐지게, 알뜰하게 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사업기풍이다. 경제적타산을 잘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기본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고 우리 당이 제시한 경공업혁명방침과 봉사혁명방침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나라의 방대한 경제적밑천도 더 큰 은을 나타내게 할수 있다.

타산을 바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경제현상과 경제적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객관적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따지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현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하나의 경제현상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경영활동을 계획적으로 해나가려면 이러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경영활동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더욱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타산할데 대한 요구가 절실하게 제기된다. 대층타산하여 세운 계획을 가지고서는 그 규모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련계가 날로 복잡해지는 인민경제를 째이게 과학적으로 운영할수 없는것이다.

경제적타산을 구체적으로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로동력, 기술, 원료, 자금과 같은 요소들을 세밀하게 따지는것이다. 물론 경제현상들에 작용하는 요인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거기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생산의 3대요소들이다. 생산의 3대요소들과 자금을 세밀하게 타산하면 경영활동과정에서 모든 고리들이 옳게 맞물려돌아갈수 있도록 과학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는것이다.

무엇보다도 생산자들의 사상의식상태, 취미, 체질, 기술기능수준 등과 로력배치정형을 정확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늘일수 있도록 로력타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로력사정이 긴장한 우리 나라 조건에서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방향에서 로력을 타산하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로력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킬수 없을뿐아니라 생산과 건설 부문에서의 경제적효과도 높일수 없는것이다.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늘이는 방향에서 로력타산을 하여야 생활비의 장성에 비한 로동생산능률의 보다 빠른 장성을 이룩할데 대한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옳게 관철할수 있다.

그리고 인민경제적범위에서의 로력타산에서는 특히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사이, 채취공업부문과 가공공업부문사이를 비롯한 부문간의 로력적균형을 정확히 설정하는것이 중요하다.

기술, 원자재, 자금을 비롯한 인민경제계획화의 다른 요소들을 세밀하게 타산하기 위하여서는 로력타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개 요소들의 현상태와 발전전망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에 기초하여 경제적효과를 높일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술타산에서 중요한것은 해당 단위의 기술력량과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의 현상

대, 그 발전전망을 정확히 알고 기술수단과 생산기술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방도를 세밀하게 세우는것이다. 원자재타산에서는 채취공업과 가공원료공업의 발전상태에 대한 깊은 파악에 기초하여 원자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옳게 맞물리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며 자금타산에서는 자금회전을 다그쳐 국가재정수입을 늘이기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방향에서 타산하는것이 중요하다.

타산은 경제사업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하여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야 한다.

거창한 규모로 진행되는 경제건설전투장마다에는 예비가 수없이 많다. 예비는 생산현장에도 있고 건설장에도 있으며 지어는 비생산부문에도 있다.

우리 당은 일찌기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라는 투쟁구호를 제기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며 있는 자재,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으로,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는데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것을 나라의 경제실태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자면 타산을 결정적으로 잘하여야 한다. 경제적타산을 잘하여야 생산장성의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할수 있다. 나라의 경제가 더욱더 재이는데 따라 늘어나는 항구적성격의 예비는 많은 노력과 정력을 기울여 생산지휘를 더욱더 조직화하고 타산을 깐지게 하여야만 탐구해낼수 있고 적극 동원할수 있다.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방향에서 경제적타산을 바로하자면 기업소경영활동의 질적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우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계통적으로 낮추기 위한 타산을 바로하여야 한다.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은 다름아닌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투쟁이다. 기업소들에서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 할수록 그만큼 로동생산능률이 높아지고 생산물의 원가가 낮아지게 된다.

로동생산능률타산에서는 생산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정형과 로동의 기술장비도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경제적대책들이 다같이 고려되여야 하며 특히 기술발전계획의 정확성이 검토되여야 한다. 그리고 원가타산에서는 물자소비기준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술경제적기준들을 정확히 따져 끊임없이 갱신하기 위한 대책들과 원가저하예비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또한 생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타산을 바로하여야 한다.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과 생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따라서 생산물의 원가를 낮춘다고 하면서 질을 떨어뜨리거나 질을 높인다고 하여 원가를 많이 들이는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타산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제현상과 경제적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종합적으로, 전면적으로 따지는것은 타산을 바로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또하나의 원칙적문제이다.

경제적과정들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과 객관적조건들의 종합적인 작용과정이다. 어느 하나의 경제현상도 단순한것이란 있을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적타산에서는 일면성이 금물이다. 만일 경공업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타산을 하는 경우에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따지보지 않고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만을 늘이려는것은 일면성을 면

타산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경공업부문에 투자를 한다고 하여 축적과 소비의 균형관계를 맞추지 않고 소비에만 치우치면 확대재생산을 보장할수 없을뿐아니라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도 어긋나게 된다. 우리 당은 언제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따라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제적타산을 바로하자면 일면성의 편향도 극복하여야 하지만 평균주의도 경계하여야 한다. 일에서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고리를 찾아내여 거기에 력량을 집중할데 대한 요구를 정확히 관철하는 조건에서만 타산을 종합적으로, 전면적으로 할수 있다. 주어진 량의 설비와 원자재, 로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경제적효과를 얻자면 긴박하게 풀어야 할 부문들에 먼저 공급하도록 타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평균주의적으로 설비와 자재, 로력을 공급하게 하면 어느 한 부문도 제대로 발전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전반적인민경제의 정상적발전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수 있게 된다.

종합적으로, 전면적으로 타산하기 위하여서는 현물적타산과 가치화폐적타산을 밀접히 결부시키는 문제, 전망적타산과 현행타산을 다같이 잘하는 문제들도 해결하여야 한다.

타산을 바로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인민경제 부문 및 기업소적인 리익을 전국가적리익에 복종시키는 방향에서 모든 요인들과 객관적조건들을 따지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다. 매개 생산단위들은 어디까지나 통일적인 유기체의 한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개별적생산단위들의 활발한 활동에 의해서만 전체 유기체가 제대로 움직일수 있지만 그 활동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아야 한다. 소유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공장, 기업소들은 국가에 속한 기업체인것이다. 따라서 경제일군들은 그 어떤 경제타산을 할 때에도 생산단위와 국가를 분리시킬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 밀접히 련관시켜보아야 하며 국가적립장에 확고히 서야 한다.

기업소적인 리익을 전국가적인 리익에 복종시키는 방향에서 타산하기 위하여서는 생산단위의 경제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본위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본위주의는 개인주의의 변종이며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전반적리익이 침해당하게 된다. 모든 일군들은 경제적타산을 할 때 언제나 자기가 국가적립장에 옳게 서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을 따져보고 국가의 전반적리익을 위하여 책임적으로 일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대단하다. 올해 국가예산규모만 하여도 262억 3,670만원에 이르고있다. 우리 일군들이 자기 초소마다에서 타산을 잘하여 한키로와트의 전력, 한방울의 휘발유, 한푼의 돈이라도 아껴쓰면 그만큼 나라의 경제건설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

모든 경제일군들이 타산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경제정책, 경제건설방침에 정통하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은 과학적타산을 위한 유일한 기준이다. 당의 경제정책과 경제건설방침에 정통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는 일군들은 경제적타산도 당의 의도에 맞게 잘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정치리론수준과 경제관리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함으로써 타산을 잘하고 경영활동을 깐지게 할데 대한 우리 당의 요구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다.

인민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에 설때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고 영 철

인민생활에 대하여 책임지는것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근본립장이다.

우리 일군들은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다.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사업하는 우리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의 첫째가는 과업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공산주의자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25페지)

인민생활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 선다는것은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생활자료와 생활조건을 직접 틀어쥐고 보장해준다는것을 의미한다.

착취와 압박의 근원이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생활문제는 일군들이 어떤 립장과 관점에 서서 일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당과 국가의 시책은 다름아닌 일군들을 통하여 관철된다. 당과 국가가 아무리 올바른 시책을 내놓아도 일군들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빨리 높일수 없다. 인민생활에 대한 일군들의 립장과 관점은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보여주는 기본척도로 되며 근로자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인민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에 선 일군만이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보답할수 있으며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는것이다.

일군들이 인민생활문제를 책임지는 립장에서 풀어나가도록 하는데서 군당위원회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당조직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집행단위이다. 군안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지도하며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의 사상개조를 다그쳐나가는 군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일군들속에서 인민생활을 책임지는 립장과 관점을 확고히 세울수 있으며 그들을 발동하여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업들을 원만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덕천군의 경험은 군당위원회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일군들이 인민생활문제를 책임지는 립장에서 풀어나가도록 할 때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소 여러차례에 걸쳐 덕천군을 찾으시고 군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군내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을 찾으실 때마다 주민들의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 개선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덕천군당위원회는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주되는 과업의 하나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군당위원회는 특히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도록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오늘 덕천군에서는 자체의 믿음직한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공업상품과 농산물들을 충분히 생산보장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려 인민들의 생활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 특히 남새와 기름, 고기 생산을 늘여 인민들에게 골고루 공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식생활이 현저히 개선되고 그들의 생활수준은 훨씬 높아졌다. 지방전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지방건설을 다그친 결과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들도 수많이 일떠섰으며 거리와 마을은 보다 살기 좋은곳으로 꾸려지고있다.

생활수준이 빨리 높아짐에 따라 덕천군안의 모든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크나큰 은덕을 심장깊이 느끼면서 혁명적 열정과 랑만에 넘쳐 살며 일하고있으며 군의 경제문화건설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인민생활을 책임진 립장에 서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빨리 높여나가도록 이끈 덕천군당위원회의 사업성과는 우리 당조직들과 일군들에게 귀중한 경험을 보여주고있다.

덕천군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무엇보다도 일군들이 인민생활문제를 책임지는 립장에서 풀어나가도록 하는데서 작전을 바로하고 끝장을 볼 때까지 일을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준다.

작전을 바로하고 추격전을 벌려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것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기풍이다. 말로는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본다고 하면서도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지 않는 일군은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역할을 수행할수 없다. 일단 작전하고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사업을 포치한 다음에는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심화시켜나갈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상수요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적인 물질적성과로써 보장해줄수 있는것이다.

덕천군에서 진행한 지방원료기지를 꾸리기 위한 투쟁과정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자체의 원료기지를 꾸리는것은 이미 마련된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여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군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있고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덕천군에서 원료기지를 새로 조성하는 사업은 많은 품을 들여야 하는 힘겨운 일이였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광범한 대중이 적극 동원된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수행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원료기지조성을 위한 작전과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군당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일군들을 발동하여 원료기지조성을 위한 사전준비사업과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고든 다음 그것을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분공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해당 단위의 특성, 조성하여야 할 원료기지의 규모와 그 자연지리적조건 등을 전면적으로 고려하여 기관, 기업소별로 개간대상과 기간, 방도를 정해주는 방법으로 빈틈없는 조직사업을 진행할수 있었다. 이것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자체의 특성에 맞게 로력과 기술수단을 합리적으로 동원하며 기본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면서도 원료기지조성사업을 적극

벌려나갈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작전과 조직사업에는 반드시 추적전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사업을 설계하고 포치하는데 그치고 그 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문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만은 잘 됐다고 해도 좋은 결실을 볼수 없는것이다.

덕천군에서 지방원료기지조성을 위한 투쟁이 시작된 초기에는 사람들의 열의도 높았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일은 군에서 처음 계획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원인은 일부 기관, 기업소들에서 여러가지 과업이 겹치고 난관이 있다고 하여 원료기지조성사업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지 않은데 있었다.

현실에 들어가 걸린 고리를 포착한 군당위원회는 원료기지조성사업은 일정계획에 철저히 맞물리고 제때에 실행하도록 엄격한 규률을 세웠으며 그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분석한데 기초하여 개선대책을 세우는데 힘을 넣었다. 특히 총화와 재포치 사업을 통하여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며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기 위한 사상전을 심화시켜나갔다. 그리하여 몇년사이에 수하지구, 금성지구, 영웅지구, 송정지구 등 여러 지구에 530여정보의 자연 및 재배원료기지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사업기풍과 일본새로 투쟁함으로써 군당위원회는 천제일용품공장의 소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일반식료공장의 생산능력을 늘이고 요강생산기지를 마련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었다. 이 과정에 군당위원회의 사업상권위도 더욱 높아지고 군안에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혁명적사업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생활은 군당위원회가 사업을 옳바로 설계하고 포치한 다음 열매를 거두어들인 때까지 추적전을 벌려나가는 여기에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들을 제때에 극복하고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으며 바로 이러한 기풍을 세워야 일군들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립장에 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덕천군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일군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일해나갈 때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이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이 어떤 방법론과 묘술을 가지고 일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이 옳바른 방법론을 가져야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확신성있게 조직진행할수 있으며 대중의 힘을 옳게 동원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다. 아무런 방법론도 없이 일하는 사람은 인민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돌보는 일군이라고 말할수 없다.

지난 기간 덕천군당위원회는 일군들로 하여금 모든 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전개해나가도록 이끌어줌으로써 고기생산을 늘여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살림집건설을 다그쳐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특히 집짐승을 기르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과정은 매우 교훈적이였다.

군중적운동으로 집짐승을 기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덕천군에는 비교적 공고한 축산토대가 마련되여있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고기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었다.

군당위원회는 당의 방침대로 이미 마련된 축산토대를 강화하면서 군중적운동으로 집짐승을 길러 고기생산을 빨리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당조직들과 일군들을 불러일으켰다.

군당위원회는 처음에는 여러차례에 걸쳐 회의도 하고 그때마다 해당한 대책안을 세워 아래단위에 내려보내기도 하였으며 일군들에게 과업을 주고 총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업은 군당위원회가 생각하는것처럼 빨리 진척되지 않았다. 그것은 일부 일군들이 일반적인 호소와 강조, 독촉으로써 사업을 대치한것과 관련되여있었다.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은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도록 지도를 따라세웠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로 하여금 주민들속에서 해설담화와 군중강연을 적극 벌려 그들이 집짐승기르기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한편 모범적인 근로자들을 사회적으로 평가하고 물질적으로 자극하는 방법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근로자들이 고기생산을 위한 군중적운동을 자신의 생활적요구로 받아들이고 적극 벌려나가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군당위원회는 또한 일군들이 빨리 늘어나는 집짐승새끼와 사료에 대한 수요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있는 종축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로동자구와 읍지구에 인민반별로 종축토대를 새롭게 마련하는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우도록 밀어주었다. 그리고 식료공장들에서 나오는 페설물을 회수하여 집짐승먹이로 리용하며 세대별로 사료절임탕크를 만들어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사료를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려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군에서는 급격히 높아진 집짐승새끼와 사료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집짐승을 기르기 위한 군중적운동을 힘있게 전개해나갈수 있었다.

군중적운동으로 집짐승을 기르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애로들이 제기되였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묘술을 찾아내고 그것을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고기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군안의 탄광로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줄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수 있었다.

현실은 일반적인 호소나 강조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론과 묘술을 가지고 일해나가는 일본새야말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옳바른 대책을 세우며 제기된 경제과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방법론과 묘술도 없이 요구성을 높이는것은 사실상 관료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덕천군의 경험은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방법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덕천군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중요한 경험은 또한 일군들이 인민생활문제를 책임지는 립장에서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해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인민생활을 높이는 사업은 날로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렵고 방대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야 짧은 기간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것이다. 일군들이 오물조물하면서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하지 않는다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다. 인민생활을 책임진 일군은 언제나 전진하는 대오의 기수답게 대담하게 생각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덕천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이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줌으로써 지방경제발전을 다그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여기에서 남새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그 좋은 실례로 된다.

지난 기간 덕천군에서는 적지가 부족하여 남새생산을 늘이는데 불리한 반면에 인구가 증가되면서 남새수요가 급

격히 늘어났다.

군당위원회는 이미 있는 남새밭의 정당수확고를 높이는 동시에 짧은 기간에 수백정보의 남새기지를 더 꾸려 군자체의 생산으로 남새를 보장할데 대한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군중을 적극 발동하였다.

군에서 벌린 남새생산기지를 새로 꾸리기 위한 사업은 서덕천지구와 안산동지구, 신산벌의 하천부지들을 개간하여 방대한 면적의 기름진 남새밭을 얻어내는 어려운 투쟁이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남새재배면적을 통이 크게 확정하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자 소극성, 보수주의에 물젖은 일부 일군들은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한정보의 남새밭을 개량하자고 하여도 수백차분의 돌을 쳐내고 천여립방메터의 흙을 갈아야 하는것만큼 로력과 운수수단을 도저히 해결할수 없다는것이였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속에서 당의 의도대로 대담한 공격정신을 가지고 사업한테 대한 내용으로 다양한 정치사업을 벌려 모두가 이 사업에 사상적으로 동원되게 하였다. 한편 군당위원회는 군적인 범위에서 력량을 집중시키고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도록 이끌어주었으며 군급책임일군들이 사무실에서만 맴돌지 말고 들끓는 현장에 내려가 대중의 앞장에 서서 전투를 패기있게 지휘하도록 힘있게 밀어주었다. 이 과정에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는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대중의 열의는 비상히 앙양되였으며 짧은 기간에 많은 면적의 남새밭을 조성하고 분수식관수체계까지 받아들일데 대한 대담한 목표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그리하여 지금 군에서는 자체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많은 남새를 다른 군들에 보내줄수 있게 되였다.

덕천군당위원회는 이와 같은 대담한 투쟁정신으로 일하도록 일군들을 이끌어줌으로써 5,000톤능력의 랭동고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불과 6개월동안에 완공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석달이상 걸려야 한다는 착유설비개조공사도 한달동안에 훌륭히 끝낼수 있었다.

현실은 언제나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해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으며 당의 이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 때 제기된 과업이 아무리 아름차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덕천군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일군들이 인민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함으로써 당의 의도에 맞게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빨리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립장에 튼튼히 서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더욱 훌륭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발전된 사회주의사회의 완성을 위한 쏘련인민의 투쟁

—로씨야사회주의10월혁명 67돐에 즈음하여—

리 재 필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 때로부터 67년이 된다.

웨. 이. 레닌의 령도밑에 67년전 로씨야의 혁명적로동계급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로동자, 농민의 국가,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수립하였다.

맑스의 학설을 발전시켜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에 관한 창조적리론을 내놓고 그것으로 볼쉐위크당과 로씨야로동계급을 무장시킨 레닌은 혁명의 주객관적정세가 조성되자 지체함이 없이 무장폭동을 조직하고 그 진두에서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었다.

사회주의10월혁명의 력사적승리는 로씨야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부패한 전제정치의 질곡에서 해방하였으며 그들에게 새생활을 창조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었다.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혁명적전환의 시대, 사회주의에로의 장엄한 진군의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력사적사변이였다.

10월혁명의 승리와 최초의 로동자, 농민의 국가의 출현은 제국주의전선에 첫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제국주의의 멸망의 발단을 선포하였다. 10월혁명의 승리에 의하여 낡고 썩어빠진 자본주의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로 줄달음치게 되였다.

10월혁명의 승리에 의하여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은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밀접히 결합되게 되였으며 그것은 세계혁명의 중요한 일환으로 되였다.

위대한 10월혁명의 승리를 계기로 전세계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의 혁명적각성이 높아졌으며 자본의 아성과 식민지철쇄를 부서버리기 위한 그들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였다.

레닌은 로씨야로동계급과 수백만 피착취대중을 볼쉐위크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청소한 쏘베트국가를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필사적으로 덤벼든 제국주의무력간섭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을 쳐부시고 10월혁명의 전취물인 쏘베트국가를 굳건히 수호하였다.

레닌은 외국무력간섭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공민전쟁에서 승리한 쏘베트정권앞에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와 농업집단화에 관한 사회주의건설강령을 제시하였다.

로씨야로동계급과 쏘련인민은 제국주의포위속에서 중첩되는 난관과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발악적인 반항을 이겨내면서 파괴된 경제를 성과적으로 부흥시키고 사회주의공업화와 농업집단화에 관한 레닌적강령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대처하여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쏘련인민은 레닌당의 령도밑에 안팎의 원쑤들의 파괴책동을 짓부시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킴으로써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승리가 가능하며 제국주의포위속에서도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레닌주의기치밑에 쏘련인민이 혁명과

았다. 레닌의 이 원대한 구상은 쏘련땅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최근 5년동안에 쏘련에서 공업제품생산은 18%, 공업부문의 로동생산능률은 14%, 국민소득은 거의 19% 늘어났다.

쏘련의 농업에서도 커다란 발전이 이룩되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가 촉진되고 꼴호즈와 쏩호즈에 대한 광물질비료공급량이 빨리 늘어났다. 그리하여 쏘련에서는 해마다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쏘련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계속 막대한 투자와 물자들을 농촌에 할당하고있다.

또한 방대한 건설계획과 인민경제고정자산갱신계획이 추진되여 제9차, 제10차 5개년계획기간과 제11차5개년계획의 3년동안에 3,200여개의 공업기업소가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쏘련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대쏘금수조치를 파탄시키고 대가스관건설과 바이깔—아무르철도간선건설을 성과적으로 완성하였다.

쏘련에서는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와 선진경험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광범히 도입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특히 전자공학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였다. 수자적방법과 전자계산기가 광범히 도입되여 공장, 기업소 및 기대들이 자동화되고있으며 공업로보트생산이 빨리 발전하여 생산의 로보트화가 급속히 추진되고있다.

오늘 쏘련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경제기구를 개편하는것을 당면한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그 준비사업으로서 개별적공장들과 대규모생산련합체들의 계획화와 생산관리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대경제시험이 실시되고있으며 관리의 주요고리인 생산련합체와 기업소들의 경제적자립성을 높이는데 큰 힘이 돌려지고있다.

이와 함께 과학, 교육, 문화 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쏘련은 대과학연구집단들을 가지고있으며 최신과학연구분야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쏘련의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종업원 1,000명당 중등 및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는 833명에 달한다. 1982~1983학년도에 전국적으로 15만 2,486개의 각종 학교에서 5,740만 7,0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었다. 그중 대학수는 891개에 이르고있으며 531만 5,000명의 대학생들이 미래의 과학자, 전문가들로 양성되고있다.

쏘련 공산당과 정부는 대외적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키며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는것을 일관한 정책으로 삼고있다.

쏘련 공산당과 정부는 구라파에 새로운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세계를 또다시 전쟁의 참화속에 밀어넣으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모험적인 전쟁정책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고있다. 쏘련은 아세아에서의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과 침략적인 미일남조선3각군사동맹조작음모를 견결히 반대하고있다.

쏘련은 세력균형을 파괴하고 핵무기 및 그 운반수단 생산과 배치에서 일방적인 우위를 차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배격하고 여러 기회에 평등과 동일한 안전의 원칙에 기초하여 핵무기고를 동결시키고 군비를 제한축감하며 구라파와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를 창설하고 와르샤와조약참가국들과 나토성원국들사이에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화학무기사용을 금지하고 우주를 비군사화하며 평화관계를 유지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주동적이며 건설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이 건설적인 발기들은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기여로 된다.

우리 인민은 쏘련의 정당한 제안들과 조치들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쏘련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조선과 쏘련사이에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맺어지고 부단히 확대강화되고있다.

조선과 쏘련은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린방이다. 조쏘 두 나라 인민들은 공동한 리상과 목적을 위하여 오랜 기간 함께 투쟁하여온 계급적형제이며 친근한 혁명전우이다.

조쏘친선은 튼튼한 계급적동맹관계와 동지적우애에 기초하고있으며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

우리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일찍부터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밑에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주의의 예속을 반대하여 함께 투쟁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서로 긴밀히 지지하고 협조하여왔다.

쏘련 당과 인민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 인민의 조국광복위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며 해방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인정하고 [illegible]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illegible] 쏘련인민은 미제의 도발책동을 반대하는 간고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인민의 [illegible] 물질적원조로 되는 의의있는 국제주의적지원을 주었다.

[illegible] 공산주의 [illegible] 우리 인민의 [illegible] 조작책동을 반대하고 [illegible]

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협조하고있다.

조쏘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더욱 확대발전하고있다.

지난 [illegible]월에 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쏘련방문은 조쏘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

방문기간에 조쏘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련합하여 함께 투쟁하려는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의가 표명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올해 쏘련방문과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뜻깊은 상봉과 담화들은 조쏘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과 기대에 맞게 훌륭한 결실을 가져왔으며 전통적인 조쏘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조쏘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단결과 협조를 확대강화하는것은 두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며 세계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공동의 위업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된다.

우리 인민은 형제적쏘련인민과의 친선단결과 협조관계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앞으로도 조쏘인민들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을 위한 공동투쟁에서 형제적쏘련인민과 영원히 어깨겯고 함께 나갈것이다.

나라를 예속과 망국에로 이끈 사대매국노들의 죄행

허 종 호

사대매국노들은 나라와 민족을 외세에 예속시키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민족의 극악한 원쑤이다.

지난날 한줌도 못되는 사대매국노들은 일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외래침략자들에게 우리 민족을 제물로 섬겨바치고 나라를 송두리채 팔아먹는 천추에 용서 못할 죄행을 저질렀다.

경술년(1910년)의 망국, 우리 인민이 겪은 식민지노예의 운명, 근 반세기나 지속되고있는 민족분렬의 력사는 사대주의는 망국의 길이며 사대매국노들이야말로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라는것을 고발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괴뢰도당은 력사의 쓰라린 교훈을 망각하고 계속 사대매국행위를 감행함으로써 또다시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재난을 강요하고있다.

사대매국노들의 죄행을 폭로단죄하고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지 않고서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할수 없으며 민족적독립을 지켜낼수 없다.

* *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굴함없이 벌려왔으며 자기의 창조적로동과 지혜로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켜 동방일각에서 조선을 빛내여왔다.

그러나 리조말기에 사대주의가 성행하게 되면서 봉건통치배들속에서 사대매국노들이 생겨났고 나라와 민족이 외세에 예속되는 망국의 비극이 빚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썩어빠진 봉건지배계급들은 비굴하게 큰 나라들에 굴종하고 아부하였으며 남의 나라 힘에 의거하여 자기의 통치를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9권, 202페지)

사대매국노들은 례외없이 반민족적이고 반동적인 통치계급이였으며 그들이 의거하고있는 사상은 사대주의였다.

사대주의는 원래 계급사회에서 주로 작은 나라의 부패무능한 통치계급이 큰 나라에 아부굴종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내고 부식시킨 착취계급의 사상이다. 사대매국노들은 저들의 정치적야욕과 계급적지배를 위하여 작은것이 큰것을 섬기고 약자가 강자에 의존하며 작은 나라는 큰 나라, 발전된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여야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있는듯이 주장하였다. 리완용을 비롯한 을사5적이 그러하였고 리승만을 비롯한 남조선의 력대 매국노들이 또한 그러하였다.

사대매국노들의 이러한 사상적본질에 의하여 그들의 추악한 면모가 규정된다.

사대매국노들의 추악한 면모의 하나는 자기 리익을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것도 서슴지않는 극단한 리기주의자이며 탐위분자라는것이다.

리기주의, 출세욕에 눈이 어두운자들은 자기밖에 모르며 자기 리익, 자기 출세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권모술수도 마다하지 않는다. 력사적으로 사대매국노들이란 바로 일신의 향락과 출세를 위해서 나라를 팔고 민족을 칠성판우에 올려놓는것도 꺼리낌없이 감행한

마비시키고 민족을 무기력하게 만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이 강한 민족은 불패이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무력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40페지)

민족자주의식과 긍지는 자체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수 있게 하는 추동력이며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이다.

민족적자존심과 자주의식이 강한 민족은 불패이지만 민족적넋이 없고 자존심이 없는 민족은 무기력하다.

사람이 사대주의병에 걸리면 민족자주의식이 마비되고 민족적긍지가 없어지며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남만 쳐다보는 맥빠진 존재로 된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 주견도, 아무런 창반성도 있을수 없으며 사물의 본질을 가려보고 적아를 옳게 식별할 판단력도 있을수 없다.

리조봉건정부가 1876년 2월 일제의 강요에 의하여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력사적과정은 통치배들이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나라를 파멸에로 이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강화도조약》은 리조봉건정부가 굳게 닫고있던 쇄국의 문을 열고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침략을 《합법화》해준 불평등조약이였다. 이 조약은 일제의 《포함외교》에 의하여 체결된것이였으나 그것은 강자에 대한 투항이 아니라 사실상 약자에 대한 굴복이였다.

당시 일본에는 1만여명의 정규병력과 목조선을 골간으로 한 15척의 함선밖에 없었으며 실지 강화도에 쳐들어온 무력도 6척의 함선과 800여명의 병력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주의에 물젖은 봉건통치배들은 정세를 판단할줄 모르고 우리 인민의 힘을 믿지 않은데로부터 반침략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옳게 조직동원할 대신 일제의 허장성세앞에 겁을 먹고 무릎을 꿇고말았다.

이 사실은 사람이 사대주의에 빠지면 사리와 흑백을 가릴줄 모르는 미저리가 되며 통치계급이 사대주의병에 걸려 투항주의로 나가게 되면 나라와 민족에게 커다란 재난을 가져오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대매국노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여 인민들에게 사대주의를 강요하여 민족내부에 민족허무주의와 노예적굴종사상을 널리 류포시킨다.

원래 노예적굴종과 외세의존, 민족허무주의로 표현되는 사대주의는 인민대중과 인연이 없다. 착취계급은 남에게 붙어살아가며 큰놈에게 아부아첨하는것을 자기의 생존방식으로 하지만 인민대중은 자기의 힘으로, 근면한 로동과 슬기로써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가장 자주적이고 혁명적인 존재이다. 세상에 근로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 그러나 사대주의에 물젖게 되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자기 힘에 대한 신심을 잃게 되며 그렇게 되면 애국심도 나올수 없고 혁명성도 사라지며 결국 무기력한 존재로 되고만다.

해방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인 사대매국노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 숭미사대주의사상을 체계적으로 부식시킴으로써 남조선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잃고 숭미, 공미 사상에 물젖게 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략탈로 얼룩진 최근 100여년사까지 외곡하면서 미국을 《구세주》로, 《가장 친근한 벗》, 《우방》으로 내세우고있다. 최근에는 그 무슨 《의식개혁》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숭미사대사상을 퍼뜨리면서 남조선이 《미국과 운명을 같이》해야 하며 《미국이 바라는것이라면 죽음도 불사》해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숭미사대주의사상을 악랄하게 퍼뜨린 결과 오늘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이 미제침략자들을 《해방자》, 《원조자》, 《보호자》로 믿고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살아갈수 없는것처럼 생각하고있다.

남조선의 력대 사대매국노들이 류포시킨 숭미사대주의는 이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있으며 남조선을 《남이 사는 내 나라》로 전변시켰다.

사대매국노들이 저지른 엄중한 죄행은 또한 민족의 단결을 저애하고 분렬을 조성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외세에 예속시킨것이다.

민족의 통일과 단결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민족의 힘은 단결에 있다. 민족이 굳게 통일단결되였을 때 불패의 위력을 발휘하게 되며 그 어떤 강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지켜낼수 있다. 그러나 민족이 단결되지 못하고 분렬되면 무맥해지며 구경에는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게 된다.

사대주의는 민족을 분렬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대매국노들은 저들의 범죄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족이 하나의 리념에 기초하여 단결하는것을 방해하고 민족내부에 분파를 조성하며 민족을 분렬시킨다.

리조말기에 정권욕에 눈이 어두운 봉건통치배들은 제가끔 큰 나라를 등에 업고 파쟁을 끊임없이 벌려 민족내부의 단결을 약화시켰으며 이 틈을 타서 렬강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고 세력권쟁탈을 위한 각축전을 벌리였다.

《사대당》의 보수파통치배들은 1894년 갑오농민전쟁을 교살하기 위하여 외국군대를 끌어들였으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여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조선의 삼천리강토는 렬강들의 전쟁마당으로 전변되였다.

전쟁의 결과 《사대당》이 세력을 잃게 되고 다른 당파들사이에 파쟁이 벌어졌다. 1896년 한 당파는 국왕을 비롯한 정부를 외국공사관안에 끌어가 남의 집에서 정사를 펴는 력사에 류례없는 추태를 부리였으며 다른 당파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파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라는 기울어져가고 제국주의자들이 던진 올가미는 조여만 갔다.

세력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의 각축전이 아무리 치렬히 벌어져도 사대매국노들의 파쟁이 없었더라면 인민들은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을것이며 렬강들은 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할수 없었을것이다.

민족의 분렬이 예속과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지난날의 력사가 남겨놓은 쓰라린 교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력대 괴뢰들은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미제의 침략교리에 따라 민족분렬정책에 매달림으로써 우리 인민이 지난날에 겪은 가슴아픈 력사를 되풀이하게 하고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사활적리익과 관련되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며 이 거족적인 사업은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 민족대단결을 떠나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그러나 전두환괴뢰도당은 여전히 《반공》을 국시로 삼고 《승공통일》을 꿈꾸면서 민족내부에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고있다. 또한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계획에 따라 《남북교차승인》과 《유엔단독가입》을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우리의 3자회담제안마저 반대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의 분렬주의적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통일문제는 엄중한 장애에 부닥치고있으며 민족의 영구분렬의 위험은 더욱 짙어가고있다.

사대매국노들이 저지른 범죄가운데서

가장 엄중한것은 외세를 끌어들이고 외세에 의존하여 민족내부문제를 해결하려 함으로써 민족의 예속과 망국을 초래하게 한것이다.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의 운명의 주인은 그 나라, 그 민족자신이며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그 민족자체에 있다. 민족내부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관철할수 있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할수 있다.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결코 민족내부문제를 옳바로 해결할수 없다.

착취계급사회에서 큰 나라처고 대국주의를 부리지 않는 나라가 없으며 제국주의국가로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그것은 대국주의는 큰 나라의 민족리기주의이고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의 힘에 의존하게 되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롱락당하게 되고 자기 민족의 리익은 희생되게 되며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된다.

리조말기에 사대주의에 물젖은 봉건통치배들은 국방을 강화하여 자체의 힘으로 외세의 침략을 막을 대신 미국의 《원조》에 의거하여 독립을 보존하려고 어리석게 행동함으로써 도리여 일제의 우리 나라 강점을 손쉽게 하여주었다.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1882년 4월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해주겠다는 미제의 피임수에 넘어가 매국적인 《조미조약》을 맺었으며 그후에는 미국정부에 이 조약을 발동시켜 일제가 강요한 《을사5조약》을 페기시켜줄것을 구걸하였다.

그러나 이때 미제는 이미 막후에서 일제와 《가쯔라—타프트협정》을 체결하고 일본으로부터 필리핀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인정받는 대가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정책을 《승인》하였던것이다. 이와 같은 승냥이에게 《보호》와 《원조》를 애걸한 사대주의자들이야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칭맹과니였다.

1907년 헤그의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 고종의 밀사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의 하나가 바로 당시 숭미사대주의자들이 《우방》으로 믿고있던 미국이였고 일제의 《통감정치》를 지지하여 맨먼저 조선에서 자기의 공사관을 철수하겠다고 한 나라도 바로 미국이였으며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였을 때 《한일합방》을 선참으로 지지한 나라도 다름아닌 미국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미국에 계속 특사를 보내여 도와줄것을 간청하였으며 미국무성은 고종의 특사를 만나는것조차 거절하고 그를 현관앞에서 내쫓는 무례한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사대주의자들이란 바로 이런 머저리들이며 그들이 믿고있던 미제국주의자들이란 바로 이렇게 파렴치한 협잡군이였다.

력사적경험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은 미제의 옷자락에 더욱더 매달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이는 죄악적인 길로 나아가고있다.

숭미사상이 골수에 박힌 리승만역적은 1950년 온 나라에 평화통일의 기운이 앙양되고 《5.30선거》에서 패배하여 대통령자리에서 쫓겨날 위험이 조성되자 미국에 특사를 보내여 전쟁으로써 이 위기를 타개해줄것을 애걸하였다. 원래부터 전조선강점을 목적하여 침략전쟁도발을 계획하고있던 미제는 이것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전례없는 전쟁의 재난을 겪게 되였다.

철저한 친미, 친일 주구인 박정희역적은 을사5적의 매국행적을 따라 《제2의 을사5조약》이라고 불린 일본과의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하고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인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이였으며 일본재벌이 남조선에 물밀듯이 쓸어들수 있게 문을 열어놓았다.

일찌기 상전앞에서 성조기와 더불어 미국에 충실할것을 맹세한 전두환역적은 백악관앞에서 미군의 장기주둔을 애걸

일본반동들은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외곡할수 없다

김 길 신

오늘 일본반동들은 유구한 우리 민족의 력사를 외곡하고 죄악으로 가득찬 일제의 조선침략사를 미화분식하는 범죄행위를 집요하게 감행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미 1982년에 고등학교용교과서들에 조선문제를 외곡서술하게 한것으로 하여 내외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받았다. 당시 일본당국자들은 날로 높아가는 내외의 항의규탄의 목소리를 누잦히고 무마해보려는 속심밑에 조선력사서술에서 외곡된 내용은 《정부책임으로 시정》하겠다는 이른바 《정부견해》를 발표하였고 일련의 《조치》까지 취하는척하였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책동은 철두철미 기만적인것에 지나지 않은것이였다.

지난 6월말에 출판된 1985년도용교과서와 그에 대한 일본당국자들의 《검정》실태는 그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

내외의 커다란 주목을 받으면서 《수정》되고 《검정》되였다는 이번의 교과서들에서도 조선침략사를 미화분식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자세와 책동은 의연히 시정되지 않고있으며 일부 력사적사건에 대한 서술은 전번 교과서보다 더 외곡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교활하고 파렴치한 행위는 교과서를 력사적사실 그대로 서술할데 대한 내외의 공정한 여론과 요구에 대한 란폭한 우롱이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조선인민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일본반동들이 조선력사를 외곡하기 위한 책동을 집요하게 벌리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되살아난 일본반동들의 조선력사외곡책동은 지난날 일제가 해외침략과 식민지통치를 위하여 사용한 상투적수법을 그대로 본딴것이며 특히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오래동안 감행해온 조선력사외곡책동의 연장인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력사를 외곡하고 민족문화를 유린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의식을 말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권, 447페지)

력사적사실은 그 누가 외곡날조한다고 하여 지워지거나 숨겨지는것이 아니다.

력사를 외곡날조하는 행위는 오직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행위를 일삼는 제국주의자들만이 감행할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일제가 력사적으로 감행한 조선력사외곡책동은 그 전형적인 실례로 된다.

일본반동들은 19세기중엽에 구미렬강을 등에 업고 조선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뻗치는 한편 그를 합리화하고 군국주의를 고취하기 위하여 조선력사를 외곡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력사외곡책동은 조선을 강점한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였으며 일제가 패망한 다음에도 계속되여왔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884년에 정탐임무를 받고 압록강연안에 기여들었던 육군대위 사까와가 날조한 고구려 광개토왕릉비 탁본을 리용하여 이미 4~6세기에 야마도일본이 남부조선일대를 《지배》한듯이 초기조일관계사를 외곡하였다. 이러한 외곡책동은 그후 락동강어구에 있던 가야국(일본사가들은 미마

나라고 함)을 일본이 《미야께》라는 통치기관을 설치해놓고 약 2세기동안 식민지로 지배하였다는 이른바 《미마나미야께설》로 합리화되고 일본력사학계의 정설로까지 되게 되였다. 그리고 조선을 강점한후 초대 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라는자는 《조선총독부취조국》을 조작하여 조선력사를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유리하게 전면적으로 위조편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후임자인 사이또라는자도 《조선사》를 조작하기 위하여 만든 《조선사편수위원회》에 5차례나 참가하여 《조선사》를 저들의 요구에 《부합》되게 편찬하여야 한다고 떠벌이였던것이다.

일제가 위조한 이러한 《조선사》에서는 조선이란 이미 3국시기에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특히 근대에 와서 벌어진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은 조선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본이 벌린 《정의의 전쟁》이였고 조선을 완전히 강점한 이른바 《합병》은 조선인민에게 《일본신민》으로서의 《영원한 행복》을 마련해준 사변인듯이 조선력사를 완전히 날조하였던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한 강도적인 침략행위와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파렴치하게 조선력사를 외곡날조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패망의 력사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지난날 선임자들이 조선에서 저지른 죄과를 조선인민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한편 외곡날조했던 조선력사도 력사적사실 그대로 바로잡아놓게 하여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선임자들의 전철을 밟으면서 1955년에 문부성의 《교과서전담조사관》을 통하여 지난날 일제가 끊임없이 감행한 침략전쟁과 략탈만행의 본질과 실태를 력사적사실 그대로 쓴 고등학교 력사교과서 《신일본사》를 대폭수정하게 하였던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후에 벌어진 첫 교과서개악사건인 《이에나가 교과서사건》이였다.

이러한 반동적경향은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책동이 날로 강화되고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이 계단식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욱 로골적으로 나타났다.

일본반동들의 조선력사외곡책동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친 력사적인 범죄행위의 연장이며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의 산물이고 그 직접적인 반영인것이다.

일본반동들의 력사외곡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인민의 민족적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행위이다.

그것은 이번에 공개된 일본고등학교용교과서 《일본사》와 《세계사》, 《현대사회》에서 조선력사를 종전의 교과서들에서보다 더 파렴치하게 외곡하고 조선인민을 모독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이 교과서들을 통하여 고조선사와 초기조일관계사를 엄연한 력사적사실과 맞지 않게 외곡날조하면서 조선민족이란 예로부터 외세에 의하여, 특히 일본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여온 자주권이 없고 마치도 《렬등》한 민족이였던듯이 모독하고있는것이다.

엄연한 력사적사실들과 초기조일관계의 기록들이 확증해주는바와 같이 우리 선조들은 일본렬도에 진출하여 일본의 문화와 력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외곡날조된 《미마나미야께설》을 의연히 고집하고있으며 리조시기에 감행한 일본사무라이들의 조선침략사까지도 정당화하면서 일본침략자들이 조선인민앞에 범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지워버리게 하였다.

침략전쟁의 화신이였던 도요도미가 임진년에 조선을 침략하였을 때 감행한 인간살륙만행을 지워버리게 한것은 그 전형적인 실례로 된다. 교과서 《일본사》에 도요도미가 《조선침략시에 수다한 조선의 민중과 병사를 살상》하고 인간도살만행을 감행하였다고 거의 력사적사실 그대로 쓴데 대하여 일본당국자들은 사람의 목과 귀, 코를 베는것은 만행이 아니라 일본사무라이들의 《습관》이였다고 하면서 그것을 《삭제》하게

반동들이 초기와 리조시
사를 란폭하게 외곡하고
이 조선에서 감행한 귀축
덮어버리려고 꾀하는것은
저들의 재침책동을 날조된
침하고 합리화하며 일본
호전적인 군국주의를 부
흉한 목적을 추구하는것
다.
이 이번에 내놓은 교과서
범죄적인 조선력사외곡
현대에 조선에서 저지른
범죄사를 종전보다 더욱
분식하고있는데서도 뚜렷
다.
무엇보다도 조선에 대
략과 식민지통치의 죄악사
고있다.
로일전쟁은 실제상 조선
한 일제의 계획적이며
전쟁이였다.
은 청일전쟁(1894~1895
대만, 료동반도, 팽호렬
고 로일전쟁(1904~1905
자리로씨야로부터 뤼순과
과 남만주철도관리권, 싸
유권을 탈취하였을뿐아
한 저들의 《지배권》을

전쟁이 철두철미 조선을
침략전쟁이였다는것은
군참모차장 가와가미라
에서 일본이 승리한다면
우리 세력권으로 만드
렵지》 않다고 뇌까리였
조약》에 의하여 일본정부
《지도, 보호 및 감독》
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사》의 필자가 《명치
의 《독립국가에로의 길
로의 침략과 표리의 관
였다고 쓴것을 《표현이
있다는 구실밑에 해외침

략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명치유신》이후 구미렬강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에 광분한 엄연한 력사적사실과 두 침략전쟁에 의한 조선침략사를 완전히 외곡한것이며 력사적진실을 지워버리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은 새 교과서들을 통하여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토지략탈의 죄행도 부인하려고 꾀하였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은 철두철미 조선인민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착취하기 위한 지반을 마련하려고 벌린 악랄한 식민지략탈행위였다.

이러한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일제는 무려 100여만정보의 토지를 강탈하였으며 악명높은 《동척회사》를 비롯한 각종 회사들과 일본인지주들은 17만 1,000정보에 달하는 토지를 저들의 소유로 만들었다. 그리고 일제는 지대률을 종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10~20% 끌어올리고 농산물총수확량의 60~70%이상을 수탈하였으며 해마다 막대한 량의 농산물들을 일본으로 략탈해갔다.

이러한 력사적사실들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와 일본의 자본주의적발전을 위한 정치경제적지반을 마련하려고 감행된것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일제가 악착하게 감행한 《토지조사사업》의 속심과 략탈적목적, 그 범죄적인 후과에 대하여 덮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고등학교용 새 교과서 《세계사》에는 일제가 감행한 《토지조사사업》이 《토지소유권을 확인하여 토지세를 식민지지배의 재원으로 하는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불충분하게나마 진실에 가깝게 수정가필되여있었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은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은 그 토지를 일본인이민에게 경작시켜 조선에 대량의 일본인농민을 이식》시키는데

에 공개된 교과서인 《세계사》에 《북위 38도선에서 남, 북의 군대가 충돌하여 조선전쟁이 일어》났으며 미국의 요구에 의하여 열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우리를 부당하게 비난한 다음 《미국은 군사개입을 했다》고 흑백을 완전히 전도하여 날조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미제침략자에 의한 국토의 량단과 민족분렬, 조선전쟁도발의 범죄행위를 그처럼 외곡날조하고있는것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감행되고있는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재침책동과 《두개조선》 조작책동을 합리화하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는것이다.

침략자와 침략의 희생자, 전범자와 전쟁의 피해자를 완전히 전도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력사위조행위는 나라의 통일과 민족적자주권을 위하여 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조선인민을 모독하고 세계인민들을 우롱하는 참을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의 력사위조행위는 미제를 등에 업고 남조선을 재침하고 아세아를 정복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저들의 야망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며 그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해외팽창책동의 한 고리이다.

이러한 력사외곡책동을 통하여 일본반동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일본제국주의가 침략자도, 략탈자도 아니라는것을 설교함으로써 일본인민들속에 제국주의 특히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저들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을 정당화하려는데 있다. 그리고 일제가 저지른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미화분식한것처럼 오늘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팽창책동도 결코 침략과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설교함으로써 일본인민들 특히 일본청소년들속에 군국주의사상을 부식시키고 그들을 해외침략의 대포밥으로 내몰려는 음흉한 목적도 추구하고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일본반동들이 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력사외곡책동의 초점도 조일관계사에 돌려지고 조선에 대한 침략사를 전면적으로 외곡하고있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 일본반동들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을 다그쳐나가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은 날로 증대되고있다.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외곡날조하면서 해외침략에 광분하는자는 파멸을 면치 못한다. 그것은 력사가 실증해주고있는 진리이다.

일본반동들은 그 어떤 교활한 술책으로써도 지난날 일제가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합리화할수 없다.

일본반동들은 범죄적인 조선력사외곡책동을 당장 그만두고 외곡날조된 력사적사실을 지체없이 바로잡아놓아야 하며 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본반동들의 조선력사외곡책동과 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나갈것이다.

조선경제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적 략탈만행

채 태 혁

오늘 미제의 부추김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옛지위를 회복하려는 음흉한 야심을 품고 남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기여들고있으며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고있다.

지난날 침략과 략탈로 하여 력사와 인류 앞에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온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이 저지른 죄행을 사죄할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미화분식하면서 재침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우리는 일본반동들의 침략책동에 대하여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지난날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천추에 용서 못할 죄행에 대하여 대를 두고 저주할것이다.

일본제국주의는 근 반세기동안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전대미문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인민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였으며 강도적인 경제적략탈을 감행하여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일제의 략탈만행을 낱낱이 폭로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이며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을 분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간악무도한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총칼로 우리 인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말살하고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억제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모조리 략탈해가면서 조선을 제놈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니치는대로 빼앗아갔으며 조선인민의 민족의식과 우리의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459페지)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경제지배체계를 수립하고 조선경제에 대한 독점적지배를 강화하면서 제놈들의 침략전쟁수행에 필요한 모든 인적 및 물적자원을 강그리 빼앗아감으로써 강도로서의 일본제국주의의 략탈적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일제강점자들이 조선에서 감행한 경제적략탈만행은 그 어느 식민주의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가혹한것이였으며 중세기적 착취와 략탈을 훨씬 릉가하는 매우 파렴치한것이였다.

조선경제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적략탈만행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것은 우리 나라의 풍부한 물적자원에 대한 략탈이였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보다 값눅고 풍부한 원료원천지를 확보하는것은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지만 후진자본주의국가로서 국내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일제의 경우에는 그것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특히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부터 일제는 군수공업에 필요한 막대한 량의 물자를 조선의 풍부한 부원을 모조리 긁어가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획책하였던것이다.

일제강점자들은 우선 식민지통치의 사회경제적지반을 닦기 위한 토지사원략탈에 선참으로 달라붙었다. 놈들은 온갖 사기와 협잡의 방법으로 1910년—1918년사이에 강도적인 《토지조사사업》을 단행하였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단행한 목적은 조선농민들의 기름진 땅을 대량적으로 략탈하며 조선농촌에 봉건적인 생산관계를 고착시킴으로써 식민지통치에

유리한 사회정치적지반을 마련하자는데 있었다. 또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많은 산업예비군을 조성하여 제놈들의 자본투자와 그 축적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것을 노렸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총독부》에 《림시토지조사국》을 내오고 《토지조사법》, 《토지조사법시행세칙》, 《토지조사령》 등 악법을 조작하였으며 수많은 전문조사성원들뿐아니라 군대, 헌병, 경찰들까지 동원하여 우리나라의 들판과 마을을 돌아치면서 토지략탈에 미쳐날뛰였다.

《토지조사사업》의 악랄성과 교활성은 《토지조사령》에 기초하여 진행된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위한 《조사사업》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토지조사령》 제4조에는 《토지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한 기간안에 그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문표, 등급, 지적결수를 림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할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복잡한 신고 내용과 양식, 절차 등을 규정해놓고 그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을수 없다는것을 선포한것이였다. 당시 대다수의 조선농민들은 이러한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있었거나 설사 안다고 하여도 그 내용이 까다롭고 복잡하기때문에 그대로 지킬수도 없었다. 적지 않은 농민들은 일제에 대한 민족적반감으로 하여 놈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려고 하지 않았다. 결과 수많은 조선농민들이 일제가 제정한 《신고》 기일과 절차를 지키지 못한것으로 하여 숱한 소유지를 놈들에게 공짜로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일제가 략탈한 토지는 경작지만 하여도 100여만 정보나 되였다.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은 철두철미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한 식민지략탈정책의 하나였으며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소유주는 바뀌였어도 봉건적토지소유관계에는 변화가 없었다. 수많은 조선농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되였거나 직업을 잃고 류랑하였으며 일부는 고용로동자로 되였다.

일제는 조선의 산림자원도 대량적으로 강탈하였다. 1911년 6월에 《산림령》을, 1918년 5월에는 《림야조사령》을 공포하고 이른바 《림야조사사업》을 단행함으로써 1924년에 조선림야총면적 1,600만정보가운데서 그 80%이상인 1,300여만정보를 《일본국가소유림》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개별적인 일본놈들과 친일매국역적들의 소유로 만들었다.

식민지통치기구의 강권을 발동하여 조선의 토지를 략탈하고 봉건적착취관계를 재편성한 일제는 그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산물에 대한 수탈책동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농민들의 로동으로 이루어진 쌀을 해마다 1,000여만석씩이나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권, 349~350페지)

일제가 조선의 농산물을 략탈해가는데서 기본을 둔것은 우리 나라의 기름진 옥백미를 대량적으로 빼앗아가는것이였다. 조선에서 놈들은 해마다 1,000만석이 넘는 많은 쌀을 략탈하였다. 일제강점자들이 극히 줄여서 인정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제강점 전기간 조선에서 일본으로 실어간 쌀은 1억 6,000만석을 넘었으며 거기에 잡곡까지 합치면 무려 2억 6,000여만석이나 되였다.

일제는 조선의 기름진 쌀을 대량적으로 략탈하기 위하여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산미증식계획》을 꾸며내고 조선농민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1930년대이후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부터는 강제《공출제》까지 실시하면서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가 조작한 《산미증식계획》은 놈들자신이 인정하고있는바와 같이 《주로 될수 있는대로 많은 농산물을 일본에 실어가기 위한것에 불과》한것이였으

며 놈들이 조작한 《공출제》는 조선농촌을 모조리 털어낸것을 노린 하나의 전시략탈정책이였다.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41년—1945년 패망당시까지 놈들이 조선에서 《전시공출》의 이름을 걸고 략탈한 쌀은 5,000여만석, 맥류는 700여만석이나 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공출》의 이름밑에 알곡뿐아니라 소를 비롯한 부림짐승과 볏짚, 새끼, 가마니 그리고 고사리, 도라지 등 산나물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물품들을 다 빼앗아갔다. 놈들은 《공출제》를 실시하면서 《공출량》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매 세대별로 내리먹여 조선농민들의 식량과 알곡종자까지 모조리 털어갔으며 《공출량》을 채우지 못할 때에는 경찰과 관리놈들을 동원하여 집집을 수색하거나 지어 농민들을 구타, 체포, 구금까지 하면서 마지막 쌀 한알마저 깡그리 빼앗아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와 같이 《공출제》는 일제가 총칼을 휘두르면서 조선농촌을 모조리 털어낸 강도적수탈제도였으며 인류력사가 일찌기 그 류례를 알지 못하는 야만적인 전시농촌수탈제도였다.

교활한 일제는 조선에서 《농촌진흥운동》, 《남면북양》과 같은 식민지농업정책을 실시하면서 식량뿐아니라 농산원료도 수없이 략탈하여갔다. 목화, 아마, 누에고치와 같은 섬유원료는 이른바 《공동판매제》의 명목밑에, 담배, 인삼, 아편과 같은 공예작물과 약재에 대해서는 《전매제도》를 통하여 빼앗아갔으며 소, 말, 돼지를 비롯한 축산물들도 대량적으로 략탈해갔다.

《조선총독부》가 공식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제가 조선에서 략탈해간 목화는 1911년—1942년사이에 송이목화로 무려 60여만톤에 달하였다.

놈들이 실시한 이른바 《전매제도》는 전매대상으로 지정한 물건을 제마음대로 모조리 빼앗아가기 위한 략탈제도였다. 일제는 전매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와 [illegible] 지정된 대상밖에는 [illegible] 생산하지 못하게 [illegible] 1921년 4월에 《조선연초전매령》을 [illegible] 한 일제는 그후 조선농민들이 [illegible] 를 위해 밭머리에 조금씩 심던 [illegible] 저 재배하지 못하게 하였다. [illegible] 민들이 터밭에 자기가 [illegible] 담배를 심던 권리조차 빼앗았다.

일제는 조선농민들이 [illegible] 승과 집짐승도 수많이 [illegible] 들은 조선에서 해마다 [illegible] 를 빼앗아갔는데 일제가 줄여서 [illegible] 자료에 의하더라도 강점기간 놈들이 [illegible] 본에 산채로 실어간 조선소는 [illegible] 리가 넘었다. 그 가운데서 [illegible] 태평양전쟁시기 강제《공출》의 이름으로 빼앗아간것이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의 풍부한 [illegible] 자원을 빼앗아가는데서도 침략자, 략탈자로서의 강도적본성을 여지없이 [illegible] 내놓았다.

이미 강점 첫시기에 관권과 [illegible] 조선의 모든 자원을 독점한 일제는 그후 우리 나라의 지하자원략탈에 [illegible] 으로 달라붙어 귀중한 지하자원을 수[illegible] 이 빼앗아갔다.

일제가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략탈대상으로 삼은 지하자원은 금이였다. 놈들자신이 극히 줄여서 인정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제가 조선에서 공식적인 통로를 거쳐 략탈하여간 금은 [illegible] 훨씬 넘는다. 이것은 일본조국국[illegible] 을 보내는것을 중요업무의 하나로 삼고 있던 《조선은행》을 통하여 일제가 조선에서 가져간 금을 초보적으로 집계한 수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밖에 일본[illegible] 독점체들과 일본인 지주, 자본가, 상인을 비롯한 개인들도 몰래 조선에서 많은 금을 훔쳐갔다.

일제는 특히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륙침략전쟁의 준비 및 확대와 관련하여 군수물자수입에 필요되는 막대한 외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금생산을 다그치는 한편 금에 대한 류통과 소

를 장악하고 엄격히 통제하면서 그것 대량적으로 략탈하기 위한 책동을 옥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놈들은 37년 9월에 《조선산금령》을 조작하여 제자본이 금광업과 금제련업에 더 많 침투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조선 서 생산되는 금을 모두 제놈들의 수 에 집중하여 몽땅 략탈할수 있는 조 l을 마련하여놓았다. 그리고 1939년 2월에는 《금사용규칙》을 꾸며냄으로써 l미 주민들이 가지고있던 금의 가공, l매, 양도에 대해서까지 법적제한을 가해놓았다. 이에 기초하여 일제는 조선에서 생산되는 금은 물론 주민들이 가지고있던 금과 함께 지어 녀성들의 금반지까지도 빼앗아내는 만행을 악착하게 감행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 풍부히 매장되여있는 금자원략탈에 얼마나 미쳐날뛰였는가 하는것은 1938년에 이른바 《산금증산 5개년계획》을 내놓고 1938년부터 매해 금을 10톤씩 더 생산하여 1942년에 가서는 그 수준을 75톤에 이르게 할것을 획책한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잘 알수 있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금은 말할것도 없고 다른 지하자원도 수많이 략탈해갔다.

놈들은 특히 중일전쟁도발후 군수용 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그것을 조선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략탈해가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일제는 《전시경제정책》의 하나로서 1938년부터 1941년까지를 《중요자원 4개년증산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조선에서 여러가지 광물자원략탈을 위한 책동을 보다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1938년 5월에 군수공업의 중요원료로 되는 25종의 광물에 대한 생산을 일본독점체들에 집중시켜놓고 보다 쉽게 략탈하기 위하여 《중요광물증산령》이라는것을 꾸며내고 해당 광물들의 생산에 여러가지 《장려금》과 《보조금》을 더 많이 대주도록 하였다. 이것은 놈들이 일본에는 전혀 없거나 매장량이 매우 적은 쇠돌, 중석, 수연, 흑연, 운모, 명반석, 중정석, 형석, 마그네사이트 등 군수공업의 중요원료를 조선에서 더 많이 빼앗아가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일본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34년부터 1944년까지의 사이에 놈들은 조선에서 1,798만톤이상의 칠, 21만 1,000톤이상의 아연, 68만톤이상의 마그네사이트를 비롯한 여러가지 군수용물자를 략탈하여갔다.

일제는 이밖에도 은, 동, 연, 니켈, 망간, 코발트, 리튬, 모나즈, 흑연, 형석, 운모, 석면, 중정석, 명반석, 규사, 랍석, 활석, 람정석, 석회석, 석탄 등 수많은 군수용자원을 대량적으로 략탈하여갔다.

일제침략자들이 조선의 풍부한 지하자원에 얼마나 눈독을 들이고 그 략탈에 미쳐날뛰였는가 하는것은 놈들이 《조선석탄은 그 산출량에서는 하등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고 지껄이면서 해마다 1,000만톤이 넘는 무연탄을 략탈해간 사실 하나에서도 충분히 찾아볼수 있다.

일제는 조선에서 지하자원과 함께 산림자원과 수산자원도 수많이 략탈해갔다. 놈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제는 1931년—1942년사이에 무려 3,000만립방메터의 원목을 채벌하여갔고 1935년—1945년 패망직전까지 1,432만톤의 수산물을 략탈해갔다.

일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빼앗아간 모든 재부에는 우리 인민의 피와 땀과 원한이 스며있다. 놈들은 중세기적인 방법과 근대제국주의적인 모든 착취 및 략탈 방법을 다 적용하여 조선인민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모조리 략탈해갔다.

일제는 또한 식민지재정신용체계를 통해서 조선인민에 대한 경제적략탈을 강화하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금융자본의 착취와 략탈의 기본거점이였던 《조선은행》을 비롯하여 《식산은행》, 《금융조합》, 《동

적》금융부와 같은것들은 공채강매, 강제저금, 고리대에 의한 차압 등 여러가지 악랄한 수법을 다 써가며 조선인민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였다. 일제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략탈하여간것만 하여도 1944년말까지 당시의 화페로 125억원이상에 달하였다.

일제강점자들은 조선인민들로부터 침략전쟁의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막대한 재정비용과 군수산업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대량적으로 긁어내려는 목적밑에 공채강매를 통한 화페수탈을 강화하였다. 놈들은 이른바 《전시체제》로 넘어간 1937년이후 《지나사변국고채권》, 《저축채권》, 《보국채권》, 《조선중요산업채권》, 《대동아국채》 등 이름모를 여러가지 《공채》를 발행함으로써 전쟁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식민지재정지출을 메꿔보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재정금융체계를 통한 수탈에서 세금수탈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새로운 세금종류를 계속 고안해내면서 그 세률을 끊임없이 끌어올리는 책동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50여종의 각종 세금종류를 만들어놓고 조선인민을 가혹하게 수탈하였다. 1934년 6월 이른바 《조선상속세령》을 조작한 일제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자식에게 《상속세》의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는가 하면 지어 《청량음료세》까지 꾸며내여 한모금의 사이다를 마시는 사람도 모두 세금수탈대상으로 만들었다.

일제는 공채강매와 무거운 세금부담을 통해서뿐아니라 강제저축을 통해서도 조선인민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였다. 놈들은 이른바 《국민저축운동》의 이름밑에 《저축조합》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얼마 안되는 임금에서 매번 일정한 비률의 금액을 강제로 저금시켰으며 상점, 식당 등 류통기관들에서도 판매가격의 일정한 몫을 강제로 저금케 하는 강도적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리와 동에까지 조직된 《저축조합》들에서는 할당된 《저금목표액》을 매 주민세대들에 분담시켜놓고 강제적으로 저금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온갖 자원을 모조리 빼앗아갔을뿐아니라 조선인민에게 차례지는 얼마 안되는 소득마저 깡그리 긁어내는 강도적식민지략탈만행을 감행하였다.

강도 일제는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유물도 닥치는대로 파괴하고 수많이 략탈해갔다.

이밖에 일제가 조선인민에 대한 가혹한 탄압정책을 실시하면서 파괴방화한 집과 재물 그리고 군사시설공사를 구실로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빼앗은 집과 토지를 비롯한 재산 등도 이루 헤아릴수 없다. 1935년 노구찌재벌이 장진강발전소를 건설할 때만 하여도 장진호밑에 침식당한 가옥은 7,000호였고 집과 토지를 잃게 된 주민들은 6만명이상이나 되였다.

지난날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략탈만행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것은 또한 조선의 인적자원에 대한 무제한한 략탈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의 로동시장이였던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들이 국내에서 온갖 차별적압박과 야만적착취를 받았을뿐아니라 소위 〈자유모집〉이니, 〈알선〉이니, 〈징용〉이니 하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수많은 로동자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그 수만 하여도 150만명이상에 달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264폐지)

총칼로 온 강토를 생지옥으로 전변시킨 일제는 우리 나라의 인적자원을 략탈하여 로동력에 대한 제놈들의 군사경제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일제는 우리 나라를 제놈들의 값싼 로동시장으로 전환시키고 온갖 민족적억압과 착취를 강화하는 한편 기만과 회유,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수많은 조선로동자들을 강제로 일본에 끌어갔다. 일제는 특히 대륙침략과 태평양침

쟁 시기에 전시로력부족을 타개할 목적밑에 더 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징발하여다가 야만적으로 혹사하였다.

놈들은 일찍부터 이른바 《자유모집》, 《알선》의 간판밑에 조선청년들을 강제징발하여 일본본토에서의 로력부족을 메꾸려고 하였으며 침략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그것은 더욱 악랄해졌다.

조선의 로동력에 대한 일제의 강제징발책동은 중일전쟁이 일어난 1937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더욱 많은 조선청년들이 일본의 탄광, 광산들과 철도, 도로, 항만, 비행장과 같은 군사시설건설장들과 군수공장들에 강제로 끌려가 엄격한 감시와 통제 밑에서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게 되였다.

1939년부터 시작된 《징용》은 사실상 조선청년들을 제놈들의 침략전쟁수행을 위한 목적에 써먹으려는 일제의 강제적인 로력징발책동이였다. 놈들은 1939년 10월 《국민징용령》을 공포실시하였으며 1940년 10월에는 그것을 개악하고 본격적인 강제《징용》으로 넘어갔다. 그후 1943년 9월부터 《개정국민징용령》을 실시하였으며 1944년 8월에는 《장년전원에 대한 징용령》을 공포하고 로동력강제징발책동을 더한층 강화하였다.

당시 일제는 이른바 《국민동원계획》에 예견된 근 100만명의 《징용》인원수를 로력원천의 유무에는 관계없이 각 도와 군, 면에 내리먹이고 경찰, 헌병, 반동관리들을 동원하여 그 수자를 채우기에 광분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징용》책동의 야수성에 대하여 일본놈들까지도 《설복하여 모집에 응하도록 하는것으로써는 도저히 예정수자를 채울수 없었다.

그리하여 군이나 면의 로무계는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갑자기 남자가 있는 집의 침실을 습격하였으며 또는 논이나 밭에서 일하고있는 한복판에 화물자동차를 돌리고 다짜고짜로 거기에 실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로써 집단을 편성하여 홋까이도나 규슈의 탄광에 보내는것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는 란폭한 짓을 하였다.》고 실토하였다.

이처럼 일제의 강제《징용》책동은 말그대로 지난 시기 아프리카에서의 백인노예사냥군들의 악랄한 만행을 방불케하는 야만적방법으로 감행되였다.

일제는 《징용》대상자들에 대한 징발에 미친듯이 날뛰였을뿐아니라 그들에게 완전히 중세기적인 노예로동과 파쑈적규률, 인간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강요하였다. 놈들에게 강제로 끌려간 《징용》로동자의 절반이상이 위험한 탄광, 광산에서 고역에 시달렸는데 홋까이도 탄광로동자의 50%를 차지한 《징용》로동자의 60~70%는 갱안에서 일하였다. 기타 군사시설공사장과 군수공장들에 끌려간 《징용》로동자들도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만 강요당하였다. 아무런 로동안전시설과 로동보호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고역장에서 그들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로동재해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불구자가 되는것이 일쑤였다. 지어 일제는 《비밀엄수》의 구실밑에 공사가 끝난 다음 그들을 집단학살하는 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일제의 야만적인 학살만행으로 일본의 탄광들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다가 1940년—1944년사이에 희생된 조선인 로동자수는 알려진것만 하더라도 6만명을 훨씬 넘는다.

일제침략자들은 《징용》의 이름밑에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을 일본에 끌어다 노예로동을 시키는 한편 《근로보국대》, 《근로봉사》의 명목밑에 로인, 녀성, 지어는 어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로동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모든 조선사람들을 징발하여 거주지역 가까이에서 강제로동에 내몰았다.

일제는 또한 《군요원》의 간판으로 수십만의 조선청년들을 해외에 끌어가거나 《지원병》, 《학도병》, 《징병》으로 직접 싸움터에 내몰아 제놈들의 전쟁대포밥으로 만들었다.

실로 일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감행한 로력징발책동이야말로 야만적인 인적자

원략탈행위였고 조선인민에게 침략전쟁의 중하를 들씌우기 위한 가장 혹독하고 강도적인 착취행위였으며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간 류례드문 인간살륙행위였다.

간악무도한 일제는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이와 같은 강도적략탈에도 부족하여 패망할 때에는 조선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얼마 안되는 공장, 기업소, 교통시설마저 모조리 파괴하고 도망쳤다.

일제강점자들의 식민지적략탈만행으로 말미암아 해방전 조선경제는 극도의 락후성과 기형성을 띠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빈궁을 강요당하면서 피눈물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력사적사실은 일제야말로 지난날 조선경제를 야수적으로 략탈하고 파괴한 가장 악랄한 침략자이며 우리 인민에게 갖은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철천지원쑤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지난날 저들이 조선에서 저지른 략탈만행을 조금도 약화시키거나 가리울수 없다. 일본반동들은 마땅히 조선에서 감행한 지난날의 죄악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전체 조선인민앞에 사죄하여야 하며 식민지통치기간에 우리에게 입힌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고 략탈해간 모든 재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행동을 공공연히 벌리고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재침의 길을 더욱 넓혀나가면서 미제의 아세아침략책동에 가담하는 대가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망상하고있다.

시대는 변하였으며 조선인민은 어제날의 조선인민이 아니다.

일본반동들은 그 어떤 악랄하고 교활한 책동으로써도 지난날 조선에서 저지른 죄악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력사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보다 새로운 죄악을 덧쌓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반드시 파탄되고야말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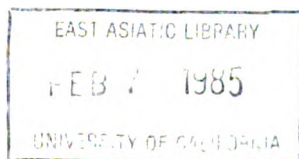
근 로 자 1984년 제11호(루계 511호)

편 집 위 원 회

편찬•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4년 11월 1일 발 행• 1984년 11월 3일

ㄱ—45273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50전

(정기간행물번호
제13206호)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호

평 양 근로자사 1984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자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나라의 륭성번영을 이룩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기술혁명의 주인이며 과학기술발전의 직접적담당자들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하여 과학의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고 기술적진보가 이룩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떠나서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사회의 진보와 번영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은 그들의 사회적지위와 혁명적역할을 높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며 과학기술적재능과 열의를 남김없이 발휘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인민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도,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15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많은 로동력과 물질기술적수단을 가지고 자연을 정복해나가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이러한 경제건설투쟁은 《인해전술》로써는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 사람의 육체적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자연을 정복해나가는 인간의 지혜에는 끝이 없다. 인간에 의하여 창조되는 과학기술적재부들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경제건설투쟁에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다. 과학과 기술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며 경제건설의 성과는 중요하게 과학기술발전에 의하여 이룩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생산장성의 가장 큰 예비는 과학기술발전에 있으며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그것이 은을 충분히 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도도 기술을 혁신하는데 있다.

우리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오늘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하여서도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과학기술분야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것을 요구하는 거창한 경제건설투쟁이다. 나라의 원료, 연료, 동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을 비롯한 모든 과업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실로 도처에서 요구되는것은 과학과 기술이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실현에서 나서는 그 어떤 과학기술적문제도 옳게 풀어나갈수 없다. 결국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전략로선을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달려있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경제적위

력을 강화하기 위한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는 오늘 그 직접적담당자들인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당적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 당의 옳바른 민족간부양성방침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120만에 달하는 인테리대군이 마련되여 있다. 우리 당이 길러낸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은 과학연구사업과 기술개조사업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능력있는 인테리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 한 점령하지 못할 과학의 요새란 없으며 이룩하지 못할 기술적진보란 있을수 없다.

문제는 이 위력한 과학기술력량을 옳게 조직동원하여 그들의 무궁무진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120만의 강력한 인테리대군의 무궁무진한 힘을 우리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기 위한 절실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숭고한 사업으로,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는데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매우 무거우며 그들에 대한 당의 기대와 요구는 참으로 크다. 120만인테리대군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오늘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내세운 중요한 요구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16페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어떻게 보며 그들을 어떤 관점에서 대하는가 하는것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심중한 문제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옳게 수행하도록 하는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그들을 어떤 관점에서 대하고 조직동원하는가 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과학기술을 홀시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과학기술발전에 낯을 돌리지 않는것은 우리 당의 립장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이것은 멀리 앞을 내다볼줄 모르는 매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며 모든 일을 굼때는 식으로 해나가려는 그릇된 사업태도이다. 당면한것만 보고 전망적인것을 보지 못하는 일군은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 선 참다운 일군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이런 일군들에게서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지는가 하는것은 결국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로 된다.

업에 전심전력하도록 하여야 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
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민
신임을 안겨주고 긍지와 자부심을
주어야 하며 대담하게 중요한 과업
겨주면서 끝까지 도와주고 이끌어
야 한다.
조직의 크나큰 믿음과 일군들의 깊
심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은 커다
무를 받게 되고 새로운 신심과 용
가지게 되며 과학연구사업과 기술
사업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
신적으로 투쟁하게 된다.
진제강소, 평양방직기계공장의 당
들과 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믿고 그들에게 중요한 의의를 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데 대한 연
제와 기술혁신을 위한 과업들을 대
게 맡기고 그것이 훌륭한 결실을
록 사업과 생활에서 걸리고있는 사
문제까지도 다 풀어주고있으며 그
진심으로 도와주고있다. 이 사업
이곳 당위원회들이 모를 박은것은
자, 기술자들의 생활에서 걸리고있
문제, 그들이 언제나 생각하고있는
들을 적극 풀어주는것이였다. 사업
생활 과정에서는 이러저러한 문제들
제기된다. 걸리고있는 문제들이 제
풀려야 사람들은 안착되여 혁명임
행에 더 높은 열의를 발휘할수 있으
자기 맡은 과업을 잘해나갈수 있다.
이곳 당위원회들은 과학자, 기술자
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과 생활에서
되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료해
왔다.
조직들과 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
준비시키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
으며 연구사업과 기술개조사업에
한 모든 조건을 적극 보장해주도록
으로써 그들이 맡은 혁명과업수행에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조직을 통하여 우리 당의 높은 정치
신임을 뜨겁게 느낀 과학자, 기술자
은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분
하여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온갖 잡념
에서 벗어나 과학연구사업에 모든 지혜
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사람들에 대한 믿음은 그들을 진심으
로 아끼고 끝까지 보살펴주는데서 나타
난다. 새로운 과학적발명과 기술혁신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겪게 되는 어려
운 고비마다에서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을 뜨겁게 대하고 믿
어주며 적극 이끌어주는것은 성공
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성진
제강소의 어느 한 기술자가 중요한 기
술과제수행과정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
여곡절을 겪고있을 때 당위원회의 책임
일군은 그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전적
으로 책임지고 도와줌으로써 그처럼 어
려웠던 과학기술적문제를 끝까지 해결
하고야마는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이곳 당위원회일군들
은 언제나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 깊이
들어가 필요한 조건들을 적극 보장하여
주고있으며 실패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고 성공의 기쁨도 같이 나누면서 과
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대담하
게 벌리는 과정에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경제적가치가 큰 여러가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는 성과가 이룩
되였다. 성진제강소의 로동계급과 과학
자, 기술자들은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안겨주는 당조직의 세심한 지도가 있었
기에 회전로에서 산소농화법에 의한 주
체적인 철생산방법을 완성할수 있었다.

연강을 탄질화하여 대용자재로 중요
방직기계 부속품과 일부 절삭공구 생산
을 훌륭히 보장하고있는 평양방직기계
공장의 생산성과들은 과학자, 기술자들
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당적으로 적극
떠밀어줄 때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
학기술적문제들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을 본받아 당조직들과 일
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을 대담하게
믿고 끝까지 책임지는 립장에서 도와주
고 이끌어줌으로써만 그들이 언제나 높

[illegible] 과학연구사업과 기술 [illegible] 지혜와 정열을 다바 [illegible] 해나가게 할수 있다.

[illegible] 기술자들의 혁신적발기들을 [illegible]주고 가치있는 발명과 연[illegible]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는것[illegible], 기술자들과의 사업에서 나[illegible] 중요한 문제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 기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도입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룩되게 된다.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혁신적안목을 가지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새것을 찾아내고 지지해주며 가치있는 발명과 창의고안, 창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고 널리 보급하는것은 과학기술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하여야만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들이 실제적으로 은을 내게 할수 있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언제나 긴장하게 일하게 할수 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대안중기계종합공장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에서 긴절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푸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여기에서 이룩되고있는 자그마한 성과라도 귀중히 여기면서 그것이 끝까지 성사되도록 적극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업을 잘하고있으며 연구성과들을 지체없이 생산에 받아들이는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그리하여 대안중기계종합공장에서는 많은 자재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절연지의 질은 높이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과학기술적성과를 거두었으며 황철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키낮은 용광로에서 우리 나라 연료로 선철을 생산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당면한 생산과 전망적요구를 잘 결합시키고 연구성과들을 적극 조장반전시키는 사업을 짜고든데서 나온 결실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발기된 문제들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으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는것이라면 그 경중을 가림이 없이 적극 지지하고 지체없이 생산에 도입되여 은을 나타내도록 당적으로 떠밀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일면에만 치우치면서 기술발전을 차요시하거나 새로운 기술적인 성과들을 덮어두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행생산의 요구와 과학발전의 전망적추세에 맞게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똑똑히 주고 총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이 발기한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다.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운동은 우리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과 재능을 높이 발휘시켜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다.

지금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2월 17일 과학자돌격대》,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 《4.15 기술혁신돌격대》에 망라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4.15 기술혁신돌격대》만 하여도 당의 발기에 의하여 조직된후 근 5년동안에 약 27만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함으로써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고 기술혁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오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서 이룩되고있는 혁신적성과는 언제나 우리 로동계급과 인테리들을 굳게 믿고 대담한 혁명적전개력으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는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운동을 더욱 조직화하고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이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데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의 경험은 매우 교훈적이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와 같이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조직들이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을 비롯한 전체 종업원들을 기술혁신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이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최근년간 대상설비생산과 대형공작기계생산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훌륭히 생산보장한것도, 당이 안겨준 《힘있는 기업소》의 영예를 빛내이면서 1만톤프레스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도 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린 결과인것이다.

공장, 기업소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룡성의 모범을 따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당이 맡겨주는 어떤 어려운 과업도 과학자, 기술자들을 발동하고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하며 숨은 공로자, 숨은 노력가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현대 과학과 기술을 잘 아는것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오늘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생산과 건설을 더 빨리 밀고나가는것은 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절박한 문제의 하나이며 우리 일군들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과업이다. 모든 지도일군들에게는 현행생산과 함께 기술개조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군들이 자기 앞에 맡겨진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가자면 반드시 과학기술을 알아야 한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것만큼 일군들이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과 창발성을 높여나갈수 없으며 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데로 그들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과학과 기술을 알아야 발언권을 가질수 있으며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주동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와 성진제강소를 비롯한 기술혁신사업이 잘되고있는 단위들의 경험은 책임일군들이 현대과학지식과 기술지식에 밝아야 직접 기술혁신도 하고 새로운 발명도 하며 실천적 모범으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조직동원하여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도 거침없이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산 현실로 확증해주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학습을 생활적인 요구로 제기하고 정치학습과 함께 과학기술학습을 꾸준히 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줄 아는 유능한 일군이 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는것은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그들이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혁명적으로 일해나가게 할수 있으며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강한 혁명성과 조직성, 규률성을 가진 주체형의 혁명적인테리로 더 잘 준비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일하는 행복을 깊이 간직하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형편은 대단히 좋으며 과학기술발전전망은 끝없이 양양하다.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것은 주체사상의 중요한 요구

김 창 하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이며 우리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우리 일군들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 굳은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선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우리 일군들이 혁명을 하는것은 그 어떤 벼슬이나 공명을 바라며 일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군들의 높은 영예와 삶의 보람도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서 빛나게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사회주의전선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짧은 기간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영예롭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것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된 인민대중의 지위를 물질적으로 확고히 보장해주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을 어떻게 실현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일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일군들이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고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일해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고 근로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줌으로써 인민대중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339페지)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것은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이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주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는것이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인것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것보다 더 절실하고 사활적인 리해관계는 없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모든것을 철저히 복종시킨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기 위한 올바른 방도를 밝혀준다.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는다는것은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모든것을 보고 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속성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외부세계에 예속되여사는것이 아니라 객관세계를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개조변혁하면서 살아나

간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상리론들을 전개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높이 발양시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여 인민대중에게 복무시키기 위한 위력한 지침을 준다.

주체사상은 이처럼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고 그 실천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우리 일군들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려면 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게 한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전제로 한다.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랑의 감정은 객관적현실세계의 이러저러한 대상에 대한 긍정적태도에서 생겨나는 심리정서적현상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도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긍정적태도에서 우러나오는 정치적도덕적감정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을 존중하고 사랑하는가 아니면 천시하고 증오하는가 하는것은 인민대중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하는 세계관적립장에 의하여 좌우된다.

착취계급의 인간증오사상은 인민대중을 천한 존재로 보는 그들의 반동적세계관에 기초하고있다. 노예사회에서 노예주들은 노예들을 《말하는 도구》로 간주하였으며 따라서 노예들을 마소와 같이 부리고 제마음대로 죽이기도 하였다. 오늘 반동적부르죠아지의 사상적대변자들은 인민대중을 특권계급의 향락과 치부의 단순한 《수단》과 《재료》로 본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을 가혹하게 략탈하며 지어 돈벌이를 위해서는 수천만 인민들을 죽음에로 몰아넣는 전쟁도 서슴지 않는다.

착취계급의 인간증오사상과는 반대로 인민대중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은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는 로동계급의 세계관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힌데 기초하여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는 새로운 견해를 확립하였다.

인민대중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이다. 세상의 모든것은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하여 창조되며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력사가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한다. 세상에 인민대중보다 더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는 없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체현한 위대한 사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가질수 있게 하는 혁명적세계관으로 되였다.

주체사상이 체현하고있는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신은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견결히 옹호하고 인민대중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모든것을 다 바치는 가장 높은 경지의 사랑이다.

주체사상이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인민에 대한 가장 숭고한 사랑을 사상정신적바탕으로 하고있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안겨주는 고귀한 사랑이며 천대받고 억압받던 인민대중을 보람찬 혁명의 길로 이끌어 그들에게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는 위대한 사랑이다. 주체사상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 인민에 대

한 숭고한 사랑을 그대로 체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게 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이 걸어온 승리적로정에서 수많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함으로써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신을 지니고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울수 있었으며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서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었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조선혁명의 력사적경험은 혁명가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인민을 위한 혁명위업에 몸바쳐나설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일군들이 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게 한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과 함께 현실을 대하는 올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중요하게 현실을 대하는 그들의 관점과 립장에 의하여 규제된다. 현실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람들의 활동 목적과 방향, 그 행동원칙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의 활동 목적과 방향, 행동원칙이 칠두칠미 인민대중의 리익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한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과 립장을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게 하는 지침을 준다.

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을 대한다는것은 모든 사물현상을 대할 때 그것이 인민대중에게 리로운가 해로운가, 해로운것은 어떻게 리로운것으로 만들겠는가 하는 견지에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것이다. 이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은 인식과 개조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인민대중의 리익의 견지에서 세우게 하며 모든 사물현상을 인민대중의 리익의 견지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게 한다. 인민대중의 리익의 견지에서 활동목적과 방향을 세워야 인식과 개조활동을 명실공히 인민대중을 위한것으로, 그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킬수 있다. 또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기준으로 할 때만이 사물현상을 옳게 보고 판단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인민대중에게 리롭게 개조하고 리용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자연과 사회를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는것이다.

해방직후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에 있은 원철로의 폭파는 모든것을 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 주체의 관점과 립장이야말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가장 올바른 관점과 립장이라는것을 보여주는 실례의 하나로 된다.

지난날 세기적으로 뒤떨어진 식민지 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에 무엇보다 필요한것은 강철이였다. 강철이 없이는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할수도 없었고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킬수도 없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리 강철이 귀중해도 로동자들의 목숨과는 바꿀수 없다고 하시면서 일제때에 만들어놓은 락후하고 위험한 원철로를 단호히 폭파하게 하시였다. 원철로의 폭파는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모든것

을 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 주체적 관점과 립장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모든것을 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풀어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우리 당은 하나의 공장을 건설하거나 하나의 도시를 건설할 때에도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중심에 놓음으로써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당이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 혁명과 건설을 하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전체 인민이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누구나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며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을 없앤 나라로, 그처럼 위력한 공업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공해를 모르는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주체사상이 밝힌 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 관점과 립장은 실로 우리 일군들이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사고와 행동의 올바른 지침이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인민대중의 리익의 견지에서 생각하고 처리해나갈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일군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게 한다.

혁명과업수행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우리 일군들이 서있는 혁명초소는 서로 달라도 그들이 맡고있는 혁명임무는 그 어느것이나 당의 웅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 우리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만들고 전체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실천투쟁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백마디의 말보다 한가지의 실천이 더 중요하고 값있는것이다. 말로는 아무리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한다고 하여도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러한 일군은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라고 말할수 없다. 매개 일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야 물질생활, 문화정서생활, 로동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훌륭히 마련해줄수 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주인다운 태도를 밝힘으로써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인민대중에게 참답게 복무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여준다.

주체사상이 밝힌 주인다운 태도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표현된다.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모든 문제를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근본립장이며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여 자기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근본방법이다.

일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혁명초소의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다할수 있고 인민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

매개 일군들이 맡고있는 혁명초소의 주인은 다름아닌 그 일군들자신이다.

일군들이 맡고있는 혁명과업이 언제나 유리한 조건에서만 수행되는것은 아니다. 그것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는 이러저러한 난관이 제기될수 있으며 매개 단위의 구체적실정도 꼭같은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혁명과업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수행해나가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제기된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수 있으며 높은 창발성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다.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업을 수행할 때만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는것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이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이 키워낸 숨은 영웅들은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이며 모든 사람들이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이다.

숨은 영웅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높이 발현된 숭고한 풍모의 하나는 그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자기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다. 그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체의 힘과 지혜, 자체의 노력으로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당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훌륭한 모범으로 될수 있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인다운 자각과 태도를 가지고 일할 때 무비의 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으며 실지행동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주체사상은 이렇듯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체현하고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을 올바로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이 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인민에 대한 높은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가지고 일해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커다란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 우리 인민들은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은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게 될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

김 량 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높이 발휘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은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힘의 원천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가장 숭고한 조직관념이며 당생활기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생활에 참가하는것보다 더 높은 영예는 없으며 그보다 더 큰 의무는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341페지)

조직생활은 곧 정치생활이며 정치적생명을 이어나가는 성스러운 과정이다. 나라와 민족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여있던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정치적무권리와 도탄 속에서 헤매이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영원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혁명가의 참다운 삶을 빛내이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과정에 주체사상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시고 우리 나라에서의 첫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ㅌ.ㄷ》를 결성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독창적인 길을 밝히시고 1930년 7월 3일 첫 당조직을 내오시여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당조직의 지도밑에 모든 혁명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이것은 우리 당 조직건설력사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린 일대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그 준엄한 나날에도 당조직을 전국적범위에로 급속히 확대해나가시는 한편 당생활의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시고 숭고한 실천적모범으로 높은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워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백두밀림에 타오른 항일의 홰불따라 투쟁의 길에 나선 항일유격대원들은 당조직의 품속에서 혁명가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이며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고 건전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소유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훌륭히 자라나게 되였다. 혁명적인 당생활과정을 통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은 당조직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시는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빛내여나가는 혁명의 품으로, 자기들의 정치적생명의 보호자로 굳게 확신하고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당조직에 대한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지니게 됨으로써 당조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련결시키고 당조직을 따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끝까지 받들어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를 높이 모시고 당조직과 함께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확고한 신념과 높은 자각에 기초한 여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조직관념과 당생활기풍의 근본특징이 있으며 불패의 생활력이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조직관념과 당생활기풍은 류례없이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가장 혁명적이며 자각적인 조직관념이며 당생활기풍이다.

조직생활은 준엄한 혁명의 시련속에서 더욱 공고한것으로 된다. 1930년대 조선혁명의 주류를 이룬것은 무장투쟁이였으며 항일유격대원들의 당생활에서의 기본은 무장투쟁을 승리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조건에서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그리고 그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강도 일제의 100만대군과 맞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피어린 혁명전쟁이였다.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기약할수 없는 이 간고한 투쟁에서 자각적인 당조직생활은 참으로 중요하였다.

조선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지켜 혁명의 길에서 영생하느냐 아니면 자기 개인의 안락을 위해서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느냐 하는 준엄한 시각에 항일유격대원들은 높은 조직관념을 지니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감으로써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과감히 떨쳐나설수 있었다.

이처럼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은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된것으로 하여 오늘도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있으며 조선로동당원들이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고귀한 전통으로 되고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닌 혁명적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은 무엇보다도 당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단련해나가는데서 높이 발휘되였다.

항일유격대안에 무어진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단결시키며 그들속에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해설침투시키고 그것을 관철하도록 보장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적방침들을 관철하기 위한 제반문제들이 당회의들에서 토의결정되고 당조직들이 조선혁명의 사령부와 조직적으로 련결됨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수령의 령도, 당적령도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여나가게 되였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원들은 당조직의 성원이 되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여기였으며 당조직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해나갔던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당조직을 떠나서는 수령께 충직할수 없고 한순간도 살수 없으며 투쟁할수도 없다는 확고한 신념밑에 언제나 당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는 고상한 풍모로 살며 싸워나갔다.

항일유격대원들의 당조직에 대한 이러한 투철한 자세와 립장은 자신보다 당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당조직의 리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나가는데서 나타났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직의 리익을 저버리는것을 최대의 수치로 여기였으며 한목숨 바칠지언정 원쑤놈들앞에 굴하지 않는 혁명가의 굳은 절개로 조직을 지켜내였다.

당조직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며 끝없이 사랑하는 항일유격대 당원들의 높은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의 중요한 모범은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당생활과정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당원이 된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조직생활에 언제나 성실히 참가하심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를 빛내여나갈수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으로부터 지하공작임무를 받고 수행하다가 왜놈들에게 체포되였을 때 조직의 비밀을 목숨으로 지킬 비장한 각오를 안으시고 《안심하십시오. 나는 죽을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살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전부인 2원을 보냅니다. 조직의 자금으로 써주십시오.》라고 동지들에게 써보내신 글발은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높은 조직관념을 남김없이 보여준다.

생명의 마지막순간을 각오하면서도 오직 조직을 믿고 따르며 조직의 리익을 칠석같이 지켜온 김정숙동지의 이 고결한 풍모는 혁명조직을 다름아닌 수령의 품으로 알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조직을 옹호보위한 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당생활기풍의 귀감으로 된다.

투쟁과 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조직에 전적으로 의탁하여 풀어나가며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의식적으로 받는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의 당생활에서 어길수 없는 하나의 철칙으로 되였다.

1937년 여름, 항일유격대의 한 지휘관은 전투에서 입은 부상과 심한 동상으로 생명이 위급하게 되자 살아서 끝까지 혁명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기의 두발을 자를것을 결심하고 남몰래 통졸임통으로 《수술톱》을 만들었다. 이때 그는 발을 자르는 문제는 비록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이지만 자기 몸은 개인의 몸이 아니며 조직의 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소조회의에서 발을 자르도록 조직이 허가해줄것을 제기하였다. 그는 혁명임무수행과 관련한 문제뿐아니라 이렇게 일신상의 문제까지도 조직의 지도와 방조 밑에서 처리해나가는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지니고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처럼 티끌만한 사심도 없이 자기의 온 마음과 모든 운명을 당조직에 내여맡기고 조직앞에서는 깊은 속마음까지 털어놓으며 조직의 지도밑에 생활하는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들이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은 자신을 혁명적으로 수양하며 변함없는 충성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었으며 조국광복의 성전에서 혁명가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간직해나갈수 있었던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은 또한 강철같은 조직규률속에서 살며 싸우는데서 높이 발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조직이 주는 임무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혁명대오를 좀먹는 사소한 자유주의적행동도 묵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오내에 조직성과 자각성에 기초한 엄격한 혁명규률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94페지)

조직규률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다. 당안에 자유주의와 무규률성이 지배하게 되면 불순이색분자들이 나타나 분파를 만들수 있으며 당이 점차 무력해지고 나중에는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

일제침략자들의 살판치는 토벌이 계속되고 온갖 반혁명분자들의 책동이 걸음마다 뒤따랐던 항일무장투쟁의 어려운 조건에서 자각적인 조직규률을 세우지 않고서는 당조직이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고수할수 없었고 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할수 없었다. 오직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로부터 부대와 지방의 말단당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움직일 때 조선혁명이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사소한 헛갈림이나 우여곡절도 없이 곧바

은 승리의 길을 따라 나아갈수 있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항일유격대원들은 당조직안에 혁명적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을 당생활의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움직이는 자각적인 규률성과 조직성을 보장하였다.

항일유격대안에는 상하관계가 있었지만 당조직규률을 지키는데서는 차별이 없었으며 당조직안에 2중규률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은 결코 자신을 특수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으며 지휘관일수록 당조직규률을 모범적으로 지키였고 당조직에 자기사업을 정상적으로 보고하는것을 생활의 원칙으로 삼았다.

하나의 규률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은 치렬한 전투와 간고한 행군이 계속되여도 당회의와 학습회를 비롯한 당생활의 요구들을 빠짐없이 집행하였으며 설사 대오와 멀리 떨어져서 적구에 홀로 있을 때에도 혁명가의 솔직한 량심으로 자기 생활을 총화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면서 자체의 수양을 쌓아나갔다.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당조직이 준 임무, 당조직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것은 어길수 없는 당조직규률의 하나였다.

항일유격대안에 당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무조건 수행하는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 명령지시를 직접 관철하는 중대한 사업이였다. 그렇기때문에 항일유격대원들은 당조직이 준 임무와 당조직의 결정과 지시를 그 어떤 조건에서도 리유나 구실이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그것을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철저히 집행해내군하였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경애하는 장군님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오중흡동지의 투쟁과 생활은 당조직의 결정과 지시, 당조직이 준 임무를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수행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중흡동지는 조직에서 주는 과업에 대해서는 조금도 흥정함이 없이 정중히 받아들이였으며 일단 받은 과업과 분공은 높은 책임성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고 또다시 새로운 과업을 받는것을 당생활의 철칙으로 여기였다. 평범한 대원으로부터 련대장의 중책을 지닌 오중흡동지는 당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규률을 소유한것으로 하여 사령부의 안전을 보장할데 대한 무거운 당적과업을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서도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굳건히 보위하는 혁명전사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었다.

이처럼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적인 당조직규률을 확립함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전대오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의 대오로 만들수 있었으며 전투장마다에서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은 또한 원칙적인 동지적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는데서 높이 발휘되였다.

비판은 사람들의 사상을 단련하고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힘있는 수단이다. 당조직생활은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건전하게 발전하며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을 극복하는 과정에 당원들의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이 성과적으로 보장된다.

항일유격대안의 당원들은 언제나 비판을 단결의 무기로 삼고 날카로운 사상투쟁속에서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나갔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당조직과 당원들앞에서 량심에 꺼리끼는 일에 대해서는 조그마한것이라도 숨김없이 털어놓고 조직과 동지들의 방조를 성근하게 받아들이는 고상한 기풍을 가지고있었다.

그들은 동지들이 주는 비판이 쓰고 아프더라도 그것을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전우들의 믿음의 표시로, 혁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려는 동지적의리의 구현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은 동지들의 비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였으며 결함을 남에게 넘겨씌우거나 회피하는것과 같은 그릇된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항일유격대원들은 동지가 귀중하고 단결이 중요하기때문에 동지들이 결함을 범했을 때에는 자기 일처럼 가슴아파하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고칠수 있도록 제때에 타일러주며 그를 돕는데 성의를 다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비판은 혁명의 어려운 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게 하는 진실하고 동지적인것이였으며 원칙적이고 건전한것이였다.

1940년 가을 일부 소부대들의 활동에서 나타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당세포회의가 소집되였을 때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식량공작을 나갔던 소부대의 한 책임자가 주인을 만나지 못하여 소값을 치르지 않고 소를 가지고온데 대한 심각한 비판이 있었다. 회의에서 당원들은 그 과오를 두고 그것은 인민의 생명재산을 애호하고 보호할데 대한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라고 신랄하게 분석비판하였다.

이때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본 다른 소부대책임자는 자기가 속한 당세포회의에서 부대의 학습용으로 잉크를 사려다가 주인이 끝내 돈을 받지 않아 그대로 가지고온 누구도 모르는 사실을 내놓고 이것은 비록 사소한것 같지만 조선인민혁명군의 권위를 손상시킨 엄중한 행동이라고 사실을 냉정하게 검토총화하였다. 이어 한 대원은 실 한토리를 얻어온 사실을, 또 다른 대원은 숟가락을 얻어온 사실을 가지고 제가끔 자기비판을 허심하게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와 같이 결함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놓고 냉정하게 대하는 건전한 당생활기풍의 소유자들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당생활에서의 혁명적원칙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해나가는 위력한 무기로 되였으며 온갖 낡고 부패한 사상요소들을 뿌리빼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해나가는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혁명적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높이 발휘됨으로써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더욱 튼튼히 축성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은 힘있게 다그쳐지게 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지도밑에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해나가는 투쟁에서 우리의 모든 당원들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참다운 구감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백두밀림에서 창조되고 높이 발휘된 혁명적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당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일군들의 자체수양과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

현 순 권

자체수양을 쌓고 정치사상적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는것은 혁명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 일군들의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일군들은 자체수양을 끊임없이 쌓아야 자신을 참다운 혁명가로 훌륭히 준비할수 있으며 혁명의 길에서 보람있게 싸워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양이란 낡은것을 반대하며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사상투쟁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55페지)

일군들이 자체수양을 쌓는다는것은 사상과 도덕을 비롯한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며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사상과 정신도덕적풍모를 원만히 갖춘다는것을 말한다.

일군들이 자체를 혁명적으로 수양하는데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우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것이다. 사람들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야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가치와 품격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다.

사람의 가치와 품격은 그가 사상정신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야 사회와 혁명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고상한 품격을 소유할수 있다. 사람이 비록 높은 과학기술지식수준과 문화수준을 소유하고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정신적불구자로밖에 될수 없다. 사람은 오직 혁명적인 세계관을 소유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복무하는 높은 계급적각오와 헌신정신을 가질때에만 사람답게 살수 있으며 자주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참다운 가치를 지닐수 있다.

우리 일군들이 자체를 수양하는데서 지녀야 할 세계관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을 대하는 립장과 관점이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는 혁명정신이다. 우리 일군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여야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분석판단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여 투쟁할수 있으며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 일군들이 자체를 혁명적으로 수양하는데서 기본은 바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것이다.

혁명적세계관은 일군들이 자체의 수양을 쌓는 과정을 통하여 세워진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의식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형성되고 공고발전된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은 매 단계마다에서 사람들이 사회현상을 보고 느끼고 실천활동을 통해서 체험하고 투쟁에 나서는 등 끊임없이 자신을 혁명적으로 수양해나갈것을 요구한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은 곧 사람들이 자체를 수양해나가는 과정으로 되며 그것은 부단한 수양과 혁명적단련을 통하여 확고히 세워지게 된다.

군들이 자체수양을 쌓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정신도덕적풍모와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이다.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문화기술수준을 어떤 높이에서 갖추었는가 하는것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 수양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사람은 혁명적인 세계관과 함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소유할 때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참다운 품격을 갖출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와 문화적소양을 지니고있다. 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서 삶의 참다운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그 어떤 어려운 난관도 완강한 투지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뚫고 나가며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며 사업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문화적으로 꾸려나간다. 일군들의 자체수양은 바로 이러한 풍모와 기풍을 체득해나가는 과정인것이다.

이처럼 우리 일군들이 자체수양을 쌓아가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며 사상과 도덕을 비롯한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고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일군들이 자체수양을 끊임없이 쌓아나가는것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잡고있는 일군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이 다 잘되여나갈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뚫고 생소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그 어떤 험난한 길도 용감히 헤쳐나가는 강의한 의지가 없이는 혁명의 시련을 이겨낼수 없으며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일군들이 자체를 수양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참다운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온갖 풍파와 험난한 길을 용감히 헤치고 굴함없이 싸워나갈수 있다. 비록 어제날에는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잘 싸워온 일군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부단히 수양하지 않는다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갈수 없으며 혁명가로서의 영예를 끝까지 고수할수 없다.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며 혁명의 준엄한 길을 사소한 동요와 주저도 없이 곳곳이 걸어나가자면 자신을 수양하는 투쟁을 순간도 늦추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 혁명이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고있고 간부대렬에 어려운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끊임없이 보충되고있는 실정은 일군들속에서 자체를 수양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나서자란 사람이라고 하여 저절로 혁명사상을 가지는것도 아니며 혁명가의 아들딸이라고 하여 저절로 혁명가의 풍모를 갖추는것도 아니다. 완성된 혁명가가 없는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수양하고 단련하는가에 따라 좋게 발전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력사적경험은 혁명을 오래 한 사람이거나 로동계급출신의 간부이거나 새세대의 젊은 일군이거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해나가지 않는다면 사상적으로 변질되여 나중에는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일군들이 자체수양을 끊임없이 쌓아 혁명적세계관을 철저히 세우고

정신도덕적풍모를 완성해나가는것은 자신을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하여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는가 못해나가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로 되며 그들이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을 안고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원칙적인 문제로 된다.

자체를 수양하는 사업은 일생동안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자체를 수양하는 과정은 곧 그들이 자기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개변해나가는 과정인것만큼 그것은 간단히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하루이틀사이에 해결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혁명가의 일생이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나는것만큼 일군들은 일생을 두고 자체를 수양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신을 혁명적으로 수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구나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끊임없는 사상수양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의한 의지를 키우며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또한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직과 동지를 귀중히 여기며 조직규률을 철저히 지킬줄 알아야 한다.》

일군들이 자체수양을 하여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는것이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자체를 수양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완성된다.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조직생활은 조직의 지도와 방조 밑에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며 당적분공을 수행하는 실천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해나가는 과정이다. 혁명적조직생활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강화하여야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사상과 품격을 갖추고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일편단심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충실하게 싸워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신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된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당생활에서 중요한것은 혁명적조직관념을 가지는것이다.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귀중히 여기며 조직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일군들은 당조직의 충고와 방조밑에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고쳐나가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원의 성실성과 솔직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조직규률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가 세우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당안에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당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할수 있고 당의 전투력을 강화할수 있다. 일군들은 당조직규률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혁명적인 조직성과 규률성을 체득하게 되며 높은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배양하게 된다.

일군들은 당조직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안에 세워진 혁명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간부당원일수록 규률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며 당안에 2중규률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군들은 비판사업에 솔선 참가하여 자기비판을 성근하게 하고 남이 비판할 때에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부단히 수양해나가야 한다.

혁명적수양을 위한 사업은 그자체가 온갖 낡은 사상을 없애기 위한 심각한 사상투쟁이다. 일군들은 우리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동적인 사상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을 계급적으로, 정치적으로 예리한 혁명투사로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밝힌 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수양할데 대한 방침이야말로 우리 일군들을 혁명의 순간순간마다를 값있고 보람있게 살며 일생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충직하게 싸워나가게 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학습은 일군들이 자체수양을 쌓아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누구나 학습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혁명사업을 계속해나갈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5권, 338폐지)

학습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사상정신적량식을 얻기 위한 귀중한 원천이며 자체수양을 위한 방도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혁명적학습을 통하여 혁명의 진리를 체득하고 공산주의혁명정신을 소유하게 된다.

일군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일군으로 키우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일군들은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으며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혁명임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이 꾸준히 학습하지 않고서는 매 시기 당에서 하자고 하는것이 무엇이고 어디에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앞에 제기된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된다. 혁명적학습은 자기자신의 수양을 위한 사업이며 혁명을 더 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학습은 불타는 정열과 진지하고 피타는 노력이 없이는 성과를 바랄수 없다.

일군들은 당조직에서 진행하는 정규학습에만 그치지 말고 자체로 더 많은 책을 읽고 배워나가야 한다. 책은 일군들을 유능하고 실력있는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게 하는 친근한 방조자이며 말없는 선생이다. 혁명하는 사람은 책을 보지 않고는 앞을 내다볼수 없으며 머리가 빈곤하여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해낼수 없다. 일군들은 일생동안 혁명을 하여야 하며 그리자면 일생동안 책을 읽으며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학습을 시간이 있으면 하는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손에서 책을 놓지 말고 책을 읽는 정열가, 독학가가 되여야 한다.

학습에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사회발전법칙과 원리들, 혁명의 전략전술과 수행방도들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매 시기 제시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제때에 무장함으로써 그것을 자로 하여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정서가 풍부하고 문화적소양도 높아야 한다. 그래야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풍모를 원만히 갖출수 있다. 일군들은 혁명소설을 비롯한 문학작품, 과학기술지식 등 전문지식과 일반상식을 주는 여러가지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하며 《로동신문》과 《근로자》를 비롯한 신문잡지들도 정상적으로 읽어

야 한다.

조성된 정세는 일군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정통해야 할뿐아니라 세계정세도 잘 알며 군사도 성실히 배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은 우리 혁명의 대내외정세와 군사를 잘 알고 그 어떤 정세하에서도 자기의 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학습을 언제나 첫째가는 임무로 삼고 일생동안 중단함이 없이 계속함으로써 위대한 주체사상과 풍부한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니고 현대과학기술지식으로 자신을 부단히 무장해나가야 한다.

혁명실천은 자체수양을 위한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혁명실천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이다. 사람들은 거창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사상의지적으로 단련되며 혁명가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갖추어나가게 된다. 혁명적실천을 떠나서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문제도, 일군들의 자체수양문제도 생각할수 없다.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실천활동이란 곧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속에서 일군들은 당의 결정과 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체득하게 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게 된다.

일군들이 실천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수양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정책이 관철되는 현실,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과 같이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이다.

생산자대중은 일군들의 선생이며 현실은 자체수양의 훌륭한 학교이다.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귀중한 경험을 배울수 있다. 그리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실지활동을 통하여 지도수준을 높이고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완성시켜나갈수 있다. 또한 현실에 들어가야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로동계급속에서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배워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칠수 있으며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현실속에서 당정책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깊이 인식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의지와 각오를 더욱 굳게 다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당에서 가르쳐준대로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침식을 같이하면서 함께 일하며 생활하는 과정을 통하여 대중에게서 배우며 자체를 수양해나가야 한다.

자체수양을 쌓고 자신을 부단히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할데 대한 당의 사상에는 일군들을 무한히 귀중히 여기고 혁명의 길에서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빛내여 나가도록 보살펴주는 당의 두터운 신임과 배려가 표시되여있다.

우리 일군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신의 정치사상적풍모를 끊임없이 완성해나감으로써 당과 수령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과 준법교양

진 문 길

준법교양을 실속있게 벌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준법교양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었으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준법교양이 심화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이 강화됨으로써 오늘 우리 국가사회제도는 더욱 공고화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준법교양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 ※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사회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인것만큼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그들의 공동행동을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행동의 통일성과 높은 조직성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다같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고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집체적지혜와 공동의 힘으로 사회를 관리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켜나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반드시 사람들의 행동의 통일성과 높은 조직성을 보장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의 지향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행동의 통일성과 높은 조직성을 보장하자면 그들의 사회생활, 사회적활동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공동규범과 준칙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모든 사회성원들이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공동행동준칙과 생활규범을 밝힌것이 바로 사회주의법이며 그에 따라 일하며 생활하는것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것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에는 사회주의국가가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여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이 놓여있다.

사회주의적 법규범과 규정은 사람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한 행동준칙이다. 사회주의적 법규범과 규정은 국가가 제정하는것만큼 사람들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것이 아니다. 법규범과 규정은 사람들이 일정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데 대한 국가적요구를 규제하며 그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권력으로 제재를 가한다. 법규범과 규정은 그것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서 그 어떤 례외나 특권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주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 모든 대상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회주의적 법규범과 규정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공동행동을 실현해나가는 국가적인 조직생활로 된다. 사회주의적 법규범과 규정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그들의 리익에 복무한다. 이로부터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국가의 법질서에 따르는 자각적인 규률생활로 된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법무생활의 본질적특성이 있는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자각적인 규률생활이며 국가적인 조직생활이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를 옳게 움직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자면 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사회가 자기의 본질적특성에 맞게 유지되고 움직여나가게 되며 더욱 공고발전되여나갈수 있는것이다. 또한 혁명적인 법무생활이 지배할 때 근로인민대중은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고 동지적으로 협조하면서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집체적지혜를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국가사회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공고발전시키며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준법교양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무생활지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전체 인민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알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선전사업과 교양사업을 잘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55페지)

준법교양은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여 그들이 국가의 법령과 결정, 명령과 지시들을 존엄있게 대하고 정확히 지키며 제때에 자각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사상교양사업이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준법교양을 실속있게 벌리는것은 그들이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준법교양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선차적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법무생활이 국가의 법질서에 따르는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률생활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 자각적인 규률생활이라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스스로 지키며 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한다는것을 말한다.

근로인민대중이 법준수집행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가 아니면 법집행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가 하는것은 법의 계급적성격에 따라 규정된다.

법은 계급사회에서 국가주권을 가진 지배계급의 계급적요구를 표현하며 그들의 의사에 맞게 제정된다. 따라서 법은 반드시 계급적성격을 띤다.

착취사회의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에 복무하는 강권정치의 도구이다. 그러므로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법무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착취사회에서는 법이 교양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강압적방법으로 집행된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의 법규범과 규정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을 만드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만들며 법을 집행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법무생활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거기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국가의 법질서에 따르는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률생활로 되며 그것은 강압적방법으로가 아니라 교양의 방법을 요구한다.

원래 교양의 방법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적방법이다.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의식화하여 그들이 스스로 투쟁에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것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주인은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인

것만큼 교양의 방법으로 그들의 준법의식을 높여야 인민대중을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참가시킬수 있다.

물론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근로자들을 법무생활에 자각적으로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데는 준법교양뿐아니라 사상투쟁과 법적통제의 방법도 있다. 여기에서 어느것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는가 하는데 따라 법무생활이 잘되도록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좌우된다.

준법교양이 근로자들에게 혁명적준법의식을 넣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면 사상투쟁은 그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이며 법적통제는 법준수집행정형을 늘 료해검열하고 위법현상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데서 사상투쟁과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사상투쟁과 법적통제도 사상교양이 힘있게 안받침될 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위법현상은 낡은 사상 잔재의 발현인것만큼 그것은 한두번의 사상투쟁이나 행정적인 조치로써는 성과적으로 극복될수 없다. 자각적준법기풍은 오직 끊임없는 사상교양을 통하여 철저히 세워지게 된다. 통제와 강요에 의하여 유지되는 법무생활은 오래 갈수 없다.

그러므로 준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참가시키기 위한 선차적요구로 된다.

준법교양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선차적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법무생활이 그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의 준법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사회주의근로자들이 법무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의 준법의식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준법의식은 법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며 따라서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규제하고 그들의 활동에서 정력과 힘을 발휘하도록 추동한다. 때문에 준법의식의 규제적, 조절적 작용을 떠나서 근로자들이 법무생활에 자각적으로 주인답게 참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준법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이 법무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인답게 참가하게 된다.

준법의식은 결코 저절로 높아지는것이 아니다. 준법의식은 적극적인 준법교양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목적의식적으로 심어지고 키워진다.

준법교양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 사회주의법의 본질과 내용, 그 우월성과 의의를 정확히 리해시킴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법이야말로 참다운 인민의 법이라는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스스로 지켜야 하겠다는 자각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준법교양은 근로자들을 준법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촉진시킨다.

물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하는 과정에 준법의식이 형성되고 발전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실천활동과정에서 배우는것만으로는 준법의식을 충분히 높일수 없다. 준법의식은 준법교양에 의해서만 원만히 배양된다. 그런것만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참가시키기 위하여서는 준법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처럼 준법교양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공고한 기초우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근본열쇠가 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통

히 독성을 잘 알려주어야 한다.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준법교양을 벌리는것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준법교양은 각이한 환경과 조건에서 준비정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준법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야 각이한 대상의 특성에 맞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다.

준법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법규범원문침투사업과 법해설선전사업을 해당 단위의 실정과 결부하여 진행하며 긍정적모범을 내세우고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긍정적모범을 내세우고 그것을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은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도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 과정에 준법교양사업을 모범적으로 진행하는 단위들이 많이 배출되고있으며 준법교양에서 좋은 경험과 긍정적인 사실들이 수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모범들을 찾아내여 적극 내세우고 그것을 본받기 위한 사업을 짜고듦으로써 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준법교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 당이 세워준 준법교양체계를 옳게 움직이며 특히 법무해설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우리 당이 세워준 준법교양체계는 각급 인민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정권기관 일군들과 경제문화기관, 기업소의 법무해설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운영되고있다. 그러므로 당이 세워준 준법교양체계를 옳게 움직이기만 하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준법교양을 실정에 맞게 활발히 벌릴수 있다.

준법교양체계를 옳게 움직이기 위하여서는 준법교양사업의 방향을 바로세우고 준법교양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주며 이 사업을 철저히 계획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인민위원회들에서는 준법교양사업정형을 수시로 료해장악하고 총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며 준법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준법교양체계를 옳게 운영하는데서 특히 법무해설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법무해설원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이며 준법교양의 직접적담당자이다. 법무해설원들은 자기가 지닌 숭고한 당적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법무생활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법해설선전사업을 실정에 맞게 벌려야 한다.

준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사회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당의 법무생활방침을 구현해나가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우리는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준법교양을 보다 실속있게 벌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우리 인민의 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혁명과업수행에 기본을 두고 당생활을 지도하여야 한다

리 기 철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에 기본을 두고 장악지도하는것은 당생활지도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당생활지도의 본질은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옳게 하게 하여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활동이다. 당이 내세운 혁명과업수행을 떠난 당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따라서 당생활지도는 당원들의 혁명과업수행에 철저히 복종되여야 하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혁명과업수행정형을 중심에 놓고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당사업과 당활동은 각급 당조직들을 통하여 진행되는것만큼 모든 당조직들이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당생활을 지도하여야 당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해나갈수 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는데서 군당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군당위원회는 당원들의 당생활이 진행되는 기층당조직들을 지도하는 우리 당의 말단지도기관이다. 군당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여야 당의 의도에 맞게 초급당조직들과 부문당, 당세포들이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옳게 지도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당조직들이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조직하고 지도하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

동림군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혁명과업수행에 기본을 두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으며 이 과정에 귀중한 경험을 체득하게 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군당위원회일군들로부터 당생활과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지도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당생활지도가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될수 있다는 경험을 얻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나가는 정치적참모부인것만큼 군당의 모든 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아래단위의 사업을 지도하여야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수 있고 당생활지도가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실속있게 진행되게 할수 있다.

그러나 한때 군당안의 일부 일군들은 자기 부서의 특성에 맞게 일한다고 하면서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다.

조직부나 선전부의 일부 일군들이 아래단위에 내려가 당생활을 지도하는데서 당원들이 당회의와 학습회에 어떻게 참가했는가를 알아보고 몇가지 통계자료나 요구하였으며 그것을 보고하는것으로 자기 사업을 대치하려는 경향들이

있었다. 한편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결부하여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적지 않은 경우에 당원들의 생활에서 제기된 이러저러한 편향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크게 세우고 투쟁하면서도 혁명과업수행에서 나타난 결함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론의하지 않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편향들은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진행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 확고히 서있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바로 지도할수 없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군당일군들속에서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할데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 큰 주목을 돌리였다.

우리는 일군들에게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거듭 침투시키는 한편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키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 사업과 결부하여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경험교환회도 조직하였다. 이 과정에 일군들속에서는 혁명과업수행을 첫공정으로 놓고 당생활을 지도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게 되였으며 당생활지도에서 옳바른 방법론을 찾게 되였다.

군당위원회가 취한 이러한 조치들은 일군들이 옳은 관점을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을 위주로 하여 당생활을 지도하게 하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가져오게 하였으나 그것으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은 아니였다.

우리는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당생활을 지도하는데서 해당 단위의 혁명과업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당생활지도가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여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중요하게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이 아래단위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일하지 않는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었다.

지난 시기 군당의 일부 책임일군들을 비롯하여 담당지도원들이 아래를 지도하는데서 생산과 관련되는 문제는 그 단위의 일군들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경제과업수행정형이나 알아보는데 그치고 함께 책임지려는 립장이 확고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났었다.

군당의 어느 한 담당지도원이 지방산업공장을 지도하고 총화하면서 당생활총화진행정형, 분공조직과 그 집행정형, 정규화생활정형들에 대한 자료들은 구체적으로 보고하면서도 해당 단위의 혁명과업수행과 관련한 당생활지도정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있었다. 이것은 일군들이 아래단위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립장이 확고하지 못하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였다.

우리는 담당지도원은 물론 군당의 책임일군들과 모든 부서성원들이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에 내려가 그 단위의 일군들과 같이 혁명과업수행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당생활을 지도하도록 하였으며 당면한 경제과업을 수행하는데서 걸린 문제를 당적방법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갔다.

이 과정에 군당일군들속에서는 아래단위의 당사업을 료해할 때에도 경제과업수행정형을 전면에 놓고 하게 되였으며 당원들을 만나 담화할 때에도 혁명과업수행을 위주로 놓고 진행하는것이 생활화되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이 아래단위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 확고히 서는 여기에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당생활을 옳게 지도해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의 다른 하나는 당생활지도가 혁명과업수행과 밀

집히 결합되자면 당원들에 대한 당적분공과 당생활총화, 평가사업이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진행되여야 한다는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대로 혁명과업수행과 관련한 당적분공을 조직하고 당원들의 당생활총화를 혁명과업수행정형을 기본으로 하여 지으며 당원들의 충실성정도를 평가하는데서도 그들이 맡은 혁명과업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있는가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군당위원회가 힘을 넣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라시고 우리 당이 의도하는 문제, 혁명과업수행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당적분공을 옳게 조직하고 그것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장악지도한것이다.

군당일군이 동림광산의 어느 한 굴진소대당세포에 들어가 정황에 맞게 당세포의 전투력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굴진을 선행시킬데 대한 당적분공을 조직하고 그것을 옳게 수행하도록 한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동림광산 굴진소대당세포에 내려간 군당일군이 실태를 료해한데 의하면 굴진을 결정적으로 앞세울데 대한 중요한 혁명과업이 제기되여있었으나 당원들에게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당적분공은 잘 조직되여있지 않고 그와는 거리가 먼 분공들이 맡겨져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물론 그들에게 조직된 당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분공들도 필요한것이였다. 그러나 광산의 전망생산을 좌우하는 중요한 굴진과제를 맡은 전투원들에게 그런 분공만 주는것으로는 부족하였다. 매개 당원들이 당면한 굴진계획을 앞당겨끝내며 새 채광장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나가도록 그들의 능력과 기술기능수준에 맞게 당적분공을 주고 움직이게 하는것이 보다 중요하였다. 이 문제에 주목을 돌리게 된 군당일군은 이곳 광산과 소대 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중심을 두고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조직하고 그것을 집행하도록 적극 밀어주었다.

당세포비서에게는 당면한 굴진과제를 전면에 놓고 당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당원인 선동원들에게는 굴진을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과 새 채광장을 하루빨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자기들의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해설선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능이 높은 당원들에게는 새로 들어온 굴진공들을 한두명씩 맡아 막장일에 익숙하게 하는 한편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급씩 높일수 있게 도와주는 등 당면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당적분공을 주도록 하였다.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여 당사업과 당적분공이 심화되자 당원들은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한 높은 자각을 가지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일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 굴진소대 세포안의 당원들과 전투원들은 올해 상반년계획을 115%로 넘쳐수행하였으며 광산의 광물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다.

군당위원회는 동림광산 굴진소대의 당세포사업경험을 군안의 모든 초급당조직들과 세포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군안의 모든 당조직들이 자기 단위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모를 박고 당적분공을 조직해나가게 되였으며 당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군앞에 나서는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당생활총화는 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위력한 방도이다. 당생활총화가 사상단련의 용광로로,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것으로 되게 하자면 그 정치사상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당원들의 당생활총화를 혁명과업수행을 전면에 놓고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렸다.

우리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마다에 혁명과업수행을 위주로 하여 당생활을 총화하는 본보기단위를 꾸려놓고 다른 세포들의 당생활총화를 그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식상학을 조직진행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동림전기공장 전동기직장 당세포와 잠봉협동농장 제1작업반 1세포를 비롯한 당생활총화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잘하고있는 단위들을 적극 도와주어 군적인 또는 초급당과 부락당적인 방식상학에 출연시키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짜고들었다.

이것은 당세포비서들과 당원들에게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당생활총화를 하는 방법을 배워주고 그 수준을 높이는데서 매우 효과적이였다.

군당위원회가 조직한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군당산하의 당세포들에서의 당생활총화는 실무적인 총화가 아니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된 사상생활총화로 그 수준이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또한 당원들의 당조직사상생활에 대한 평가도 혁명과업수행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활동에서 나타나는것만큼 사람들에 대한 평가사업도 그들의 실천활동을 기본으로 하여야 옳게 진행될수 있다.

한때 우리 군안의 일부 세포비서들을 비롯한 당일군들속에서는 당원들의 당생활정형을 료해하고 평가하는데서 정규화생활참가정형이나 사업작풍과 같은 문제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발로되고있었다.

아무리 당회의나 당생활총화 등 정규화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며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제기되는것이 없다고 하여도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당생활을 잘한다고 볼수 없는것이다.

우리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평가하는데서 언제나 혁명과업수행정형을 위주로 하여 진행할데 대한 당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일군들과 당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군당위원회는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앞에 부과된 혁명과업을 말없이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당원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숭고한 모범을 여러가지 형식과 계기를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였으며 당원들속에서 바로 이러한 당원이 당성이 강한 참다운 혁명가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당생활에서 나서는 여러 고리들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풀어나감으로써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수준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었다.

당세포를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력을 높여야만 혁명과업수행에 기본을 두고 당생활지도를 강화해나갈수 있다는것은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의 하나이다.

당세포는 우리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생활의 거점이다. 당세포를 통하여 당원들의 당생활이 조직진행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이 대중속에 침투되며 관철된다. 당세포를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산 전투적인 조직으로 강화하는것은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된 당생활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모든 당일군들이 당세포에 들어가 실속있게 도와줄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당세포들과의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군당위원회는 지도일군들로부터 책임일군들에 이르는 모든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면 공장, 기업소 초급당이나 리당에 머무를것이 아니라 당세포에 깊이 침투하여 당세포비서와 함께 혁명과업수행을 전면에 놓고 당원들과의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조직하면서 그들의 자립

간부들을 올바로 도움을 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지도일군들에게 당세포를 실속있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것이였다. 경험이 보여준바와 같이, 지도일군들의 능력이 모자라면 무슨 일이든지 전개할 수 없으며 지도에서 주관주의를 면할수 없는것이다.

군당위원회는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품을 들였으며 이 사업을 책상머리나 종이장우에서가 아니라 책임일군들이 아래일군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실지사업과정을 통하여 배워주게 하였다.

지난 5월에 군당책임일군이 담당지도원들을 비롯한 군당조직부일군들과 함께 마성리에 내려가 보여준 실천적모범은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였다. 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은 당원들과 당세포비서들을 만나 실태를 요해하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당회는 어떻게 하며 분공조직과 총화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구체적인 사업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모든 일군들에게 하부지도의 올바른 방법론을 체득하게 하였다. 이렇게 실천을 통하여 배워주는 방법은 군당일군들이 당세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공업, 농업, 교육, 보건 등 모든 부문의 당일군들속에서 해당 단위의 특성에 맞게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우리는 군당일군들이 당세포를 도와준 정형을 총화하는 사업도 당세포를 몇개나 도와주고 올라왔는가 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던 종래의 총화방법을 극복하고 일군들이 어느 당세포에 내려가 혁명과업수행과 결부하여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었으며 이 과정에 얻은 경험과 교훈은 무엇이였는가를 놓고 총화사업을 진지하게 하였다. 총화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일군들의 지도사업에서는 형식주의가 점차 근절되게 되였으며 한개 당세포라도 깊이 들어가 주인답게 착실히 도와주는 기풍이 서게 되였다.

이와 같이 군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여주고 그들이 당세포에 들어가 실속있게 도와주게 됨으로써 당세포의 전투력이 강화되고 세포비서들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였으며 당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편향도 제때에 바로잡아나갈수 있었다.

경험은 당세포를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될 때 당생활분야에서 오랜동안 지속되던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벌려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실로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당생활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과 그에 대한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오늘 우리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혁명과업을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훌륭히 수행해나가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과 과일, 고기 생산을 전해에 비하여 훨씬 장성시켰으며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장비수준을 더욱 개선하고 인민소비품생산을 급격히 늘임으로써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최근년간 우리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경제문화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당의 령도밑에 모든 당조직들이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는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에 기본을 두고 계속 강화함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며 군앞에 나선 혁명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다.

작가는 시대의 앞장에서 생활을 선도하는 기수

김 하 명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으로 들끓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우리 작가들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 무겁고도 어려운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1974년 12월 6일에 발표하신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신 강령적문헌이다.

문헌에는 현실발전의 요구와 우리 문학의 실태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창작에서 작가의 개성적특성을 살리며 새것과 낡은것간의 투쟁을 옳게 반영할데 대한 문제, 작가들의 현실침투와 생활체험을 강화하고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넓힐데 대한 문제,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지도문제 등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혀져있다.

문헌이 발표된 때로부터 10년 세월이 흘러갔다. 지난 10년동안 우리 작가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다양하고 개성적특성이 산 우수한 문학작품들로 주체예술의 대화원을 더욱 찬란히 빛내였으며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문헌은 실로 우리 문학을 사회주의현실의 요구에 맞게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며 작가들이 시대의 앞장에서 생활을 선도하는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힘있는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문헌에 밝혀진바와 같이 작가들이 창작에서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시대의 앞장에서 생활을 선도하는 기수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것은 혁명적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시대의 앞장에 서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작가들은 우리 당의 사상전선의 중요한 초소를 맡고있는 초병들이며 사회주의민족문학건설의 직접적담당자들이다. 당의 문예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문학을 사상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서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화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작가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문학은 인간학이다. 문학의 인간학적본성은 그것을 직접 창조하는 작가들로 하여금 시대의 앞장에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가 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은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있다. 문학이 인간을 그린다는것은 현실에서와 같이 숨쉬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산 인간과 그의 생활을 그린다는것을 말하며 문학이 인간에게 복무한다는것은 인간과 그의 생활을 통하여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며

바지하자면 또한 인간과 그의 생활을 대와 사회제도와의 관계속에서 그리 시대정신을 옳게 구현하여야 한다.

시대정신을 옳게 구현한 문학이라야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혁명투쟁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동원자적역할을 놀수 있으며 시대와 생활의 참다운 거울로 될수 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제도가 바뀌면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도 달라지기마련이다. 주체사상으로 교양되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오늘의 로동자, 농민은 계급사회에서 온갖 착취와 압박,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온 지난날의 로동자, 농민과는 그 성격에서나 생활에서 같을수 없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혁명이 심화되는데 따라 생활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는 그대로 시대정신으로 구현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러한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그려내며 그 형상을 통하여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높은 공산주의적리상과 그 실현의 필연성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어야 한다.

이러한 주체의 문학, 공산주의문학을 창조하여 시대의 앞장에서 생활을 선도하는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작가자신이 사상예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

작가가 자기의 창작활동으로써 시대의 앞장에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끌어나가자면 무엇보다먼저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생활체험을 끊임없이 축적해나가야 한다. 작가가 생활에서 뒤떨어지면 벌써 작가로서의 사명을 옳게 수행할수 없게 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생활은 3대혁명수행을 위한 거창한 투쟁으로 들끓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있다. 창작에서 우리의 장엄한 현실을 제때에 진실하게 반영하자면 작가가 현실속에 들어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과 같이 살면서 생활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체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작가들은 현실속에서 사색하고 글을 써야 한다.

《80년대속도》창조의 불길속에서 자연도 사회도 인간도 몰라보게 달라지는만큼 오직 작가들이 약동하는 현실속에서 호흡하고 인민대중의 투쟁을 직접 체험하면서 창작적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속도전을 벌려야 작품의 질도 창작속도도 다 보장할수 있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문학의 동원자적역할을 높이도록 하자면 작가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체험을 깊이 할뿐아니라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넓혀나가야 한다.

작가들이 옳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가지지 않고서는 당의 정책적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일수 없으며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맞는 혁명적인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받아들인다. 문학예술작품이란 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에 비추어 선택되고 평가된 생활화폭이다. 작가가 현실생활을 바로 인식하고 예술적형상으로 옳게 재현하며 그 형상을 통하여 인간문제를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푸는가 못푸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의 세계관의 높이와 인식능력에 달려있다. 생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체험,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이 있는 작가라야 인간과 생활을 현실에서 보는것처럼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리고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할수 있으며 그 생활의 사회적의의를 옳게 밝혀낼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이 서지 못하고 당정책

자신을 사상적으로 무장한 작가는 인민의 현실속에서 살고 생활체험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의 사상적 본질과 의의를 형상적으로 옳게 밝힐수는 없다. 그러므로 작가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은 작품의 정치사상성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되는 동시에 예술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작가의 예술기량은 창작에서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결합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작가가 창작을 통하여 시대의 앞장에서 생활을 선도하는 기수의 사명을 다하자면 현실체험을 깊이 하고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높일뿐 아니라 예술기량을 끊임없이 련마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예술기량을 높인다는것은 바로 현실에서 종자를 옳게 골라잡고 사상미학적의도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것을 말한다.

예술기량을 높여야 하는것은 작가가 종자를 독창적으로 발견하고 심어서 아름다운 예술적형상으로 꽃피워야 하는 문학예술창작의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중요한 요구이다. 생활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진 형상적형식으로 사상을 설득력있게 표현해야 하는 문예작품창조사업은 자기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 진행된다. 그리고 창작에서는 매개 작품이 언제나 독창적이고 개성적이여야 하며 종자가 제기하는 주제사상적 내용을 그에 맞는 예술적형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그런것만큼 작가는 종자의 예술적실현을 위한 구성조직을 기발하게 할줄 알아야 하며 새롭고 생동한 언어구사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실천적경험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실체험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그들가운데서 파고들어 정통하고 풍부한 체를 적절한 고를 실현할수 있는 기량을 소유한 작가만이 창작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할수 있으며 혁명하는 오늘 시대의 앞장에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끌어나가는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잘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대의 앞장에서 생활을 선도하는 기수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가들은 언제나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생기발랄하며 혁명적으로 창작하고 생활하며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려야 한다. 속도전을 벌려야 끊임없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제때에 옳은 해답을 주며 그 전투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

오늘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사상미학적요구도 더욱 높아지고있다.

우리 문학예술앞에는 세기적인 사변들로 충만된 사회주의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생활과 투쟁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력사적문헌에서 밝혀진 사상과 리론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창작사업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시대의 앞장에서 생활을 선도하는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경공업혁명과 생산의 전문화

리 동 호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는것은 오늘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나서는 절실한 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경공업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질좋은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문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인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킬데 대한 사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길을 밝힌 정당한 방침이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의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오늘 근로자들은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이 날로 향상되는데 따라 사람들의 생활적요구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끊임없이 향상되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여러가지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요구하고있으며 그것은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지난날과 비할바없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그러므로 날로 높아지는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그들의 생활을 가까운 앞날에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높은 수준에로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 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지금보다 훨씬 늘이고 그 질을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려야 근로자들에게 질좋은 소비품을 원만히 보장하여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생산능력을 마련하는것과 함께 사회적생산조직을 개선하여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회적생산조직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을 전문화하는것이다.

당의 주체적인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인 대규모의 경공업공장들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였다. 오늘 우리의 경공업은 인민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특히 지방공업은 나라의 소비품의 많은 몫을 생산해내고있다. 실로 우리 나라에 마련된 경공업의 생산잠재력은 대단히 커졌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만 한다면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늘일수 있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경공업의 생산잠

재력을 적극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은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경공업의 생산규모가 커지고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가 복잡해진 조건에서 분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을 전문화하여야 물자와 로력, 자금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기술발전을 더욱 촉진하여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할수 있다.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을 전문화한다는것은 전국적의의를 가지는 경공업제품을 일정한 단위에서만 전문생산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을 전문화한다는것은 지방들에서는 식료품을 비롯하여 주로 자기 지방의 자원에 의거하는 제품들만 생산하게 하고 중앙원료에 의존하면서 대량생산할수 있는 주요경공업제품들은 특정된곳에서만 만들도록 생산을 조직한다는것을 말한다.

기술경제적으로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는 이러한 생산조직형태는 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그 생산량을 늘여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의 전문화는 무엇보다도 소비품의 질을 높여 경공업혁명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한다.

생산과정은 곧 기술공정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토대하여 기술공정으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는 현대적생산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생산공정을 더욱 현대화하고 완비하는 사업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생산에서 기술수단들의 역할이 커지고있는 오늘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고 이빠진 공정들을 완비하는 한편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생산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고 제품의 기술적요구들을 원만히 충족시켜 소비품의 질을 높일수 있다. 소비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는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의 전문화를 다그쳐나갈 때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을 전문화하게 되면 해당 제품생산에 전문지식을 가진 일군들과 기능공들을 비롯한 기술력량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더 잘 보장할수 있게 된다. 이것은 근로자들을 일정한 제품생산 또는 기술공정에 고착시키고 그것을 반복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빨리 높여나갈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의 전문화는 새로운 기술과 선진적인 생산공정, 합리적인 생산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일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주어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완비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이것은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의 전문화가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여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생활적요구와 수준에 맞는 견고하고 쓸모있는 질좋은 소비품을 생산할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의 전문화는 또한 있는 원료와 자재, 설비를 가지고 더 많은 소비품을 생산할수 있게 함으로써 경공업혁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있는 원료와 자재, 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소비품의 생산을 높이는것은 우리 당이 경공업혁명을 일으키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있는 원료와 자재, 설비를 가지고 높은 생산적성과를 이룩하여야 원가를 낮추고 국가축적을 늘일수 있으며 생산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의 높은 발전속도를 보

장할수 있다.

있는 원료와 자재, 설비를 가지고 더 많은 소비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원료와 자재를 효과있게 리용하고 설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을 전문화하여야 한다.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을 전문화하여 여러 부문과 단위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어느 한곳에서 생산하게 되면 전국적범위에서 원료와 자재의 랑비를 없애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절대적인 량을 늘이지 않고도 있는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다.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을 전문화하면 설비를 유용하게 리용할수 있을뿐아니라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담당하고있는 생산공정과 기계설비들의 특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설비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설비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가동률을 높일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기계설비들의 기술상태를 일상적으로 정확히 유지하고 만가동을 보장하여 설비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게 한다.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을 전문화하는것은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 경공업혁명을 다그쳐나가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의 전문화는 전국적의의를 가지는 소비품의 생산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의 분산으로 하여 있게 되는 물자와 로력, 자금의 랑비를 없애고 같은 지출을 가지고도 소비품의 생산을 늘이고 끊임없이 확대해나갈수 있게 한다.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을 전문화하면 생산공정이 단순화되므로 적은 투자를 하고도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부문내부구조를 완비하기 위한 사업을 짧은 기간에 끝내며 그것이 제때에 은을 나타내게 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의 전문화를 실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이야말로 소비품생산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을 밝혀준것으로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바로 여기에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의 전문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당의 부름이라면 물과 불 속에라도 뛰여들어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충직한 인민이 있다. 또한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튼튼한 경공업기지가 마련되여있으며 이미 당이 제시한 경공업생산을 전문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대규모경공업공장들과 중소규모경공업공장들의 생산전문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이와 함께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기계공업과 화학공업을 비롯한 중공업기지가 튼튼히 마련되여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완비하는데 필요한 기계설비들과 자재들을 원만히 생산해내고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을 전문화할데 대한 당의 정책을 관철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의 전문화를 다그쳐나가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주인다운 립장에서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다.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의 전문화는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 생산하던 소비품들을 어느 한곳에서만 생산하도록 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나라의 생산력배치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하는 일군들이 옳바른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힘있게 내밀어야

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을 전문화할데 대한 당의 정책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집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경공업부문일군들은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상태와 자재보장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전문화해야 할 품종과 단위를 옳게 선정하며 선후차를 가려 이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여기에서는 우리 당이 최근에 지적한 일련의 주요경공업제품생산부터 전문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점차 모든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을 전문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화된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담하게 생산공정과 생산방법을 혁신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널리 받아들이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을 전문화할데 대한 당의 지시가 충분히 은을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소비품의 생산을 늘여 경공업제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의 전문화를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규격화사업을 더욱 개선하는것이다.

규격화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대량생산을 실현하여 전문화를 적극 다그쳐나가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더우기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가 높아지는데 따라 품종이 확대되고 그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오늘 규격화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의 전문화를 다그쳐나가는데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 그리고 설계기관과 규격화기관들에서는 여러가지 규격화방법들을 옳게 적용하여 더 많은 부분품들의 규격을 통일시켜 생산의 전문화를 다그쳐나가야 한다.

전문화의 형태를 바로 규정하는것은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의 전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의 하나이다.

소비품의 가지수가 다양한것만큼 그것들의 생산기술적특성도 각이하다. 생산공정이 단순한 제품도 있으며 여러가지 복잡한 부분품들로 이루어지는 제품도 있다.

그러므로 제품생산의 특성에 맞게 전문화의 형태를 바로 규정하여야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소비품의 생산을 늘이면서도 그 질을 높일수 있다.

전문화의 형태를 바로 규정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완제품별전문화와 부분품별전문화, 기술공정별전문화를 옳게 결합하여 생산공정이 단순한 제품들은 어느 한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생산하도록 하며 부분품들이 많은 제품들은 여러 공장에서 부분품별로 전문화하여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도록 하는것이다. 그래야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의 전문화를 다그치고 그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경공업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자기 부문과 단위 그리고 생산물의 특성에 맞게 전문화의 방법과 형태, 규모를 옳게 확정하고 그것을 적극 실현해나가야 한다.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을 전문화하기 위한 투쟁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요경공업제품생산을 전문화할데 대한 당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의 과학적인 방법론

유 시 영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경제사업을 전개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수단들이 경제관리에 널리 리용되고있는 현실은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관리운영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단행본, 20페지)

사회주의경제관리는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백만 근로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산활동을 지휘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많은 로력과 방대한 규모의 물적자원을 동원하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나가야 하는 이 사업을 잘하자면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올바른 대책과 방도를 가지고 일해나가야 한다. 경제건설과업과 그 수행방도가 명확하며 대중의 열의가 높다 하여도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없으며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없게 된다. 과학적인 방법론이 없이 되는대로 일할 때에는 많은 생산수단과 로력, 시간을 랑비하게 되며 경제사업을 능동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과학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객관적인 경제법칙과 생산의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법들의 총체를 말한다.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는 당적, 정치적방법과 행정경제적방법, 기술공학적방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들과 수법들이 적용되며 그것들이 경제법칙과 생산의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체계화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과학적인 방법론의 중요내용을 이룬다.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관리운영한다는것은 바로 객관적인 경제법칙과 생산의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제기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 대책 등을 세밀히 타산하여 묘술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빈틈없이 벌려나가는것을 의미한다.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는 당과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서로 밀접히 련관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있는 고도로 조직화된 경제이며 객관적경제법칙과 생산의 과학기술적요구들을 목적의식적으로 인식리용하는데 기초하여 발전하는 계획화된 경제이다. 이러한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자면 모든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과업을 해당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올바른 방도와 대책을 세우고 그 수행에로 생산자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하며 경제과업의 집행정형을 일상적으로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화사업과 생산조직, 기술지도, 설비관리, 로력조직과 같은 경제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사회주의경제를 그 본성에 맞게 관리

운영하는데서 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은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야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사업방향과 순차로부터 구체적인 대책과 방법, 부닥칠수 있는 정황의 처리방도에 이르기까지 당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관리운영할 때 사회주의경제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계획화된 경제로서의 참다운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합법칙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은 인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수단들이 경제관리에 널리 리용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로부터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매우 큰 규모로 장성하고있다. 최근시기에만 하여도 이미 있던 공장, 기업소들이 현대적인 기술로 개건확장되고 새로운 생산단위들이 수많이 생겨났으며 제품의 품종과 수량이 전례없이 늘어나고 생산에 인입되는 로력과 물자자원의 규모도 대단히 커졌다. 전반적인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전자계산기와 산업텔레비존, 무선통신수단과 현대적인 계량계측수단들이 경제관리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오늘 우리 경제의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생산적련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긴밀해졌으며 생산조직과 로동조직, 자재공급, 재정관리와 같은 경제관리의 여러 측면들사이의 련관관계는 매우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경제관리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것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고 경제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드는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있는 오늘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경제관리를 짜고들어야 규모가 커지고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영활동의 전반실태를 제때에 장악하고 필요한 방도와 대책을 취할수 있으며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사이, 공장, 기업소내부단위들사이의 생산적련계를 빈틈없이 맞물려줄수 있다. 그리하여 경제관리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신속정확히 처리하며 사소한 자연발생성이나 비조직성도 미리 막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이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로부터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건적고리의 하나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검덕, 무산, 안주, 해산 지구에 력량을 총집중하여 새로운 대비약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혁명적기세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 하며 그러한 예비의 하나는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 있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자립적민족경제의 거대한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본고리의 하나는 당이 제

시한 인민경제의 과학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과학적인 경제관리방법론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이다. 그래야 계획도 보다 과학적으로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과학적인 토대우에서 빈틈없이 짜고들수 있으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오늘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는데서 세워야 할 과학적인 방법론은 우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더욱 완성하고 그것을 바로 적용해나가는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주체의 경제관리형태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방법론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 옹호관철할수 있게 더욱 개선완성될 때 참말로 과학적인 경제관리방법론으로 될수 있다.

모든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생산자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적극 발양시키며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현대적생산의 요구에 맞게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워 경제관리의 과학화, 합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방법론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옹호관철하여 경영활동을 과학화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는데서 세워야 할 과학적인 방법론은 또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방법론이다.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그 본성에 맞게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계획경제의 우월성은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경제의 균형적발전에서 표현되게 된다.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기본담보는 우리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계획적지도와 관리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주체적인 계획화방침이다.

우리 당의 계획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선완성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워 인민경제의 균형을 확고히 보장하는 방법을 더욱 완성하는것이다. 계획작성에서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되여야 객관적인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계획을 광범한 생산자대중과 토의하여 세우며 그것이 사회주의경제의 세부균형을 정확히 보장하고 나아가서 국가의 종합적경제균형에 철저히 맞물려지게 하여야 한다. 세부균형과 종합적균형사이의 통일적인 련계를 보장하고 전반적인 인민경제발전에서 적극적인 균형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계획화사업을 잘해나가는 방법,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우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적로동지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은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는데서 세워야 할 중요한 방법론이다.

사회적로동지출의 효과성을 높여야 사회의 순소득을 빨리 늘여 축적원천을 더 많이 마련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확대재생산의 속도를 다그칠수 있다.

사회적로동지출의 효과성, 사회적로동생산능률은 중요하게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창조적능력을 적극 발양시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을 개선하는 사업에 의하여 높아진다. 그러므로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더 잘 키우면서 창의고안과 생산합리화안, 선진경험을 생산에 널리 받아들이며 로동정량, 자재소비기준, 제품의 질과 같은 생산의 질적지표들을 갱신하도록 방법론을 계속 개선완성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경제를 옳바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이러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때 우리는 경제지도와 기업관리 개선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수 있으며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새로운 현대적인 과학기술수단들이 경제관리에 널리 리용되고있는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얼마나 빨리 밀고나가는가 하는것은 결국 경제지도일군들이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관리운영사업을 어떻게 짜고드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과학적인 경제관리방법론을 더욱 개선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경제지도일군들이 당의 경제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을 전개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며 그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은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우기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 당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끄는 전략과 전술이며 경제관리운영에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우기 위한 유일하게 옳바른 지도적지침이다. 여기에는 경제지도일군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그 수행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당의 정책적 의도와 요구를 옳게 파악하여야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울수 있으며 제기된 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그 진수를 파악하고 거기에 밝혀져있는 방법론을 체득하며 경제관리실천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과학적인 경제관리의 방법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한 제기된 경제건설과업과 자체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타산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 규범과 규정들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경제과업의 내용과 요구는 언제나 꼭 같지 않으며 그것을 수행하는 부문과 단위들은 사업상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다. 아무데나 다 맞는 만능의 방법론이란 있을수 없으며 같은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실정에 따라 그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다. 그러므로 맡겨진 경제과업과 자체의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자체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세운 방법론은 옳은 방법론으로 될수 없으며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충분히 은을 낼수 없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왕성한 탐구력을 가지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기된 과업을 진지하게 연구하며 자체의 실정에 맞게 그 수행을 위한 옳은 방도와 묘술을 찾아내야 한다.

제기된 과업과 자체의 실정을 타산할뿐아니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의 규범과 규정들을 개선완성하여야 한다.

현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실정도 수시로 달라지는것만큼 세운지 오랜 경제관리의 방법들과 규정들에 만족하게 되면 사업을 계속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규정과 세칙들이라 하여도 사업이 심화되고 현실이 발전하는데 따라 그것을 더욱 세련시키고 완성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방법론이 현실적이고 과학적인것으로 될수 있으며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되게 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여러가지 경제관리

규정들과 세칙들, 구체적인 실무적방법들을 주기적으로 세밀히 검토하여보고 낡아진것은 현실에 맞게 고치고 서로 맞지 않는것은 바로잡으며 빠진것은 새롭게 만드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현대적인 과학기술수단들을 적극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발전된 기술수단들이 경제관리에서 노는 역할이 날로 커가고있는 오늘 그것을 적극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지 않고서는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할수 없으며 과학적인 경제관리방법론을 옳게 세울수 없다.

우리는 경제관리에서 리용되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수단들의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확대하여 그것을 경제관리에 널리 받아들이는 한편 기술수단들을 자체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내야 한다. 경제관리에 현대적인 과학기술수단을 받아들이는 사업은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조건이 성숙된 부문들과 단위들부터 먼저 시작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당면하여 과학적관리의 중요한 기초로 되는 계획계산과 통계계산에서 방대한 계산업무량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수 있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이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더욱 완성해나가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을 높이며 사회과학부문전문가들을 키워내는 대학들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에 대한 교육을 잘하는것은 과학적인 경제관리방법론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그 위치와 역할로 보나 맡은 책임으로 보나 기술실무수준과 경제를 관리하는 능력이 높아야 한다. 사업에서 열성이 있어도 경제를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일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제기된 과업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없으며 언제 가도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우지 못하고 의연히 낡은 재래식방법에 매달려 일을 되는대로 하게 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 대한 지식과 새로운 과학기술지식, 경제관리의 선진경험을 적극 받아들이며 자체의 실무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높은 실무수준과 관리능력을 소유한 일군만이 언제 어떤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제기된 경제건설과업을 능숙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인민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지고있는 오늘 교육부문앞에는 매우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사회과학부문의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대학들에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속있게 하여 학생들에게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리로부터 시작하여 계획화사업과 로동조직, 설비관리, 기술관리, 재정관리에 이르기까지의 경영활동전반에 대한 관리운영지식을 깊이있게 체득시키며 경제관리에서 전자계산기와 같은 기술수단들을 널리 리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주체의 경제관리리론과 현대적이며 과학적인 방법론을 충분히 소유한 유능한 전문가들을 더 많이 육성해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직간부들의 재교육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관리운영하는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며 높은 창발성을 요구하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대외무역

최 정 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대외무역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무역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대외무역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61페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국내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 한편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교류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교류를 실현하는데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것은 대외무역이다.

대외무역은 나라들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교환을 말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대외무역이 있게 되는것은 나라마다 생산되는 원료와 제품의 가지수와 량이 서로 다르고 자체의 생산으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수요를 다 충족시킬수 없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매개 나라의 자연경제적조건과 경제발전수준, 과학기술발전정도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생산되는 원료와 제품의 량과 가지수가 같지 않으며 자체로 생산하여 쓰고 남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자기 나라에서 생산할수 없거나 모자라는것이 있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매개 나라는 기본적인것, 많이 요구되는 것은 자체로 생산보장하고 적게 요구되거나 모자라는것, 자체로 생산할수 없는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통하여 해결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생산력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매개 나라에서 자체로 생산하는 원료와 제품의 량과 가지수는 끊임없이 늘어날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나라들사이에 존재하는 생산력발전수준의 차이나 자연경제적조건의 제한성이 완전히 극복될수는 없다. 자연을 개조하고 리용하는데서 일어나는 변화는 다른 나라와 유무상통하는 원료와 제품의 가지수와 그 수량을 다르게 할뿐이지 대외무역 그자체를 불필요한것으로 만들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대외무역을 통하여 원료와 제품들을 유무상통하는 것은 매개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교류가 대외무역의 형식을 많이 리용하게 되는것은 생산물에 대한 소유가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분화되여있는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건설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생산물에 대한 소유는 개별적인 민족국가를 단위로 분화되여있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 사자본이 생산과 상품시장을 지배하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과는 물론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도 생산물을 주고받을 때에는 팔고사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대외무역을 빨리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주체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결과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생산과 건설은 전례없이 큰 규모와 높은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방대한 규모로 빨리 발전하는 우리의 인민경제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 많은 그리고 여러가지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들을 요구하고있으며 날을 따라 그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원료원천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 한편 대외무역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없거나 모자라는 원료와 제품들을 제때에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사회적생산의 순환과정을 순조롭게 다그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자립적민족경제토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로 된다.

대외무역은 나라들사이의 상품교류에 그치는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대외적 권위와 위신을 높이고 다른 나라들과의 국가관계를 확대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외교로선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이 빛나게 실현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는 매우 넓어졌으며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솔하신 우리 나라 당및국가대표단이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진행한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방문은 형제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우리 나라의 대외적관계가 날로 높아지고있는 조건에서 강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에 의거하여 대외무역활동을 적극 벌리게 되면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더욱 빛내일수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호상신뢰의 정을 보다 두터이 할수 있다. 결국 대외무역은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힘있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우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와 통상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주체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외무역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때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려고 로골적인 《경제봉쇄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 나라와 경제거래를 하는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는것과 같은 비렬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경제봉쇄》책동도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었으며 그것은 오히려 놈들을 더욱 궁지에 빠지게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세계 5대륙의 수많은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고 경제교류를 널리 발전시키고있으며 무역의 규모를 끊임없이 늘이고있다. 대외무역이 빨리 발전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6년동안에 무역총액은 2.2배로 늘어났으며 생산의 규모가 커진 올해에도 수출은 계속 장성하여왔다. 수출품구성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일어

나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 파는 상품들가운데서 공업제품의 비중이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우리 나라와 무역을 하려는 나라들은 날로 늘어나고있으며 우리의 공명정대한 대외무역정책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와 공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날 오래동안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고 세계시장밖에 놓여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대소국가들과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널리 발전시키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대외경제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우리는 지난 기간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대외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토대가 마련되여있다.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일떠선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검덕과 량강도 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여러곳에 대유색금속생산기지와 내화물생산기지가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있으며 이르는곳마다에 강철과 강재, 세멘트, 공작기계 등 여러가지 중공업제품들의 생산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되는 동시에 대외무역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밑천으로 된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기초하여 대외무역을 급속히 늘일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당의 대외무역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대외무역사업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시장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통상관계를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하는것이다.

대외무역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시장을 통한 통상관계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과 신뢰관계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시장은 자본주의시장에 비할바없이 우월하다. 자유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시장과는 달리 사회주의시장은 평등과 호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계급적형제들사이의 경제교류와 호상협조로 특징지어지며 어떠한 경제적파동성도 모르고 안정하고 공고한것이 고유한 특성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시장은 사회주의나라들의 대외경제적수요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자연부원이 풍부할뿐아니라 매해 공업과 농업 생산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특히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경제와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함으로써 세계공업총생산액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이 담당하는 몫이 1960년에는 20%미만이였다면 오늘은 그것이 40%이상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이 사회주의시장에 의거하여 무역활동을 적극 벌리게 되면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경제기술분야에서 자본주의를 압도할수 있다.

사회주의시장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교류와 통상관계를 강화하는것을 일관한 원칙으로 견지하고있는 우리 당은 앞으로 5~6년안에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액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일데 대한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모든 경제부문지도일군들은 우리 나라 대외무역발전의 현실적요구를 옳게

인식하고 사회주의시장을 계속 중시하여야 하며 사회주의나라들에 기계설비를 비롯한 중공업제품들과 경공업제품들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늘이며 이 나라들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원료, 연료들과 일부 기계설비들의 수입을 더욱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을 활발히 벌리면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와 경제적련계를 맺기를 원하는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나라들과의 통상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대외무역발전에서 의연히 우리앞에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특히 우리는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과의 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 우리의 대외무역이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수출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수출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이다.

수출을 늘이는것은 대외무역발전을 위한 전제이며 근본담보이다. 수출을 늘이지 않고서는 자체의 민족경제발전에 필요한 수입물자를 제때에 보장할수 없으며 생산의 끊임없는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수출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하며 그러자면 수출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수출품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수출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고 수출구조를 더욱 개선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상품류통을 확대발전시킬수 있다.

우리는 수출에서 세계적수요가 높은 제품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그 수출을 결정적으로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출전문공장과 수출전문농장, 수출전문련합기업소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잘 운영하여 수출품을 더 많이, 더 잘 만들어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대외경제적요구를 제때에 실현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도록 힘있게 떠밀어야 한다.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용은 무역에서 생명이며 다른 나라와의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대외무역은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강요해서 되는 일도 아니며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용을 지킴으로써만 이루어질수 있는 사업이다. 무역에서 신용을 잃으면 자기의 물건을 팔수도 없고 필요한것을 사올수도 없다. 무역에서 신용을 철저히 지켜야 다른 나라들과의 상품류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외시장을 계속 넓혀나갈수 있으며 나라의 권위를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대외무역을 발전시키자면 먼저 계약의무를 제때에 정확히 리행하여 신용부터 얻어야 한다. 대외무역에서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에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며 납입기일을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우는것이다.

수출계획은 무역협정과 대외계약에 의하여 지닌 법적의무이다. 그러므로 수출품을 생산하는 모든 단위들에서는 수출계획부터 먼저 수행하는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조직진행함으로써 다른 나라들과 계약한 상품들을 제기일안에 생산하여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외운수부문과 국내수송부문의 역할을 높여 수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실어나르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다른 나라에 약속한 물자들을 제때에 넘겨줄수 있다.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수출품의 질을 높이고 포장을 개선하여야 한다.

상품은 원래 자기가 쓰기 위하여 만드는것이 아니라 남에게 팔기 위하여 만드는것인만큼 질이 높아야 한다. 질이 높은 상품이라야 무역에서 신용을 얻을수 있고 대외시장을 계속 넓혀나갈수 있다.

수출품을 만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자들로 하여금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제품을 아름답고 맵시있게, 가볍고 든든하게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수출품을 질적으로 잘 만들뿐아니라 그 포장을 개선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 제품포장을 알뜰하고 맵시있게 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외무역사업의 성과도 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당의 무역정책 집행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옳게 발전시킬수 없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계속 확대해나갈수 없다. 당의 의도대로 대외무역을 급속히 늘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바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무역기관일군들은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무역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특히 무역일군들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대외무역활동을 진공적으로 다양하게 벌려야 하며 언제나 변화발전하는 세계시장 동태와 수요를 환히 꿰들고 다른 나라들과 무역거래를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벌려 대외무역활동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나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은 우리 당의 의도대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높이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대외무역을 확대발전시키는데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지시를 훌륭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군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사회주의력량을 비롯한 전반적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침투책동

안 기 봉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와 부추김 밑에 되살아난 일본반동들은 오늘 또다시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침략세력으로 등장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미일남조선사이에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책동에 적극 편승해나서면서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으며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반동지배층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의 조작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본격화하였으며 경제적침투에 정치, 군사적 침투를 따라세우면서 남조선을 또다시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미쳐날뛰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419페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는 본질에 있어서 다른 나라를 예속시키기 위한 침략행위이다. 그리고 정치군사적침략에 앞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감행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인 침략수법이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되살아난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에서 이러한 수법을 그대로 쓰고있다.

더우기 일본반동들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고 남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며 나아가서 전조선과 아세아대륙을 침략하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그 어느 지역보다 악랄하고 집요하게 감행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경제적침투는 이미 1960년대중엽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1965년 10월에 일본반동들이 발표한 침략적인 문건인 《경제협력방향과 배경》에서 공업국인 일본과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남조선간에 《수직적인 분업관계》를 수립하는것을 저들의 대남조선경제정책의 기본으로 규정한 사실이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일본 반동지배층과 독점자본가들은 이러한 침략적인 경제정책에 기초하여 《차관》, 직접투자, 기술투자, 상품수출 등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강화해왔다.

남조선경제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식민지예속화책동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로골화되였다. 1970년 4월에 벌린 일본과 남조선사이의 이른바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일본대표 야쯔기라는자가 포항이남의 《공업지대》를 일본의 《간사이경제권에 련결》시키고 로력부족, 토지리용, 공해 등으로 일본에서 제약을 받고있는 산업설비들을 남조선에 이전시키며 남조선에서 보세지역과 자유항지역을 대폭 확대할것을 남조선측에 강요한것은 그 전형적인 실례로 된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경제적침투는 단순한 경제교류관계인것이 아니라 날강도적인 경제적침략행위였으며 그것은 1960년대부터 오늘까지 가속도적으로 확대강화되여왔다.

그리하여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공공차관은 1970년에 890만딸라였던것이 1972년에는 1억 6,500만딸라로, 1983년말에는 그것이 무려 18억 3,500만딸라로 늘어났으며 상업차관은 25억 3,500만딸라에 달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독점자본의 직접투자는 1972년에 2억 6,100만딸라였는데 1983년 10월현재에는 7억 6,200만딸라에 이르렀으며 남조선에 침투한 일본기업체수는 1969년에 13개에 지나지 않던것이 1983년 상반년에는 333개로 증가되였다. 그리하

여 남조선괴뢰도당이 받은 외국자본총액에서 일본자본의 몫이 [illegible]%로서 미국다음으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자본의 직접투자액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총액에서 [illegible]%를 차지함으로써 외국자본가운데서 첫번째 자리에 올라서게 되였다.

일본반동정부와 유착되여있는 일본독점자본은 거액의 자본침투를 통하여 남조선경제전반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 막대한 리윤을 획득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여러가지 방법과 수법으로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감행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의 《수출산업》부문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출을 증대시키면 《공업화》를 실현할수 있고 《경제적자립》도 이룩하며 《민생문제》를 해결할수 있는듯이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수출산업육성정책》에 적극 매여달리였다. 이러한 황당무계한 정책을 실현해보려고 남조선괴뢰도당은 매국배족적인 《수출자유지역》과 《공업단지》들을 수많이 설치해놓고 외국 자본과 기업체들의 자유로운 침투를 허용하고 그 활동을 적극 보장해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결과 오늘 남조선의 보잘것없는 공업시설들은 대부분이 수출품생산에 복무하고있는 형편에 있다. 그것은 남조선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가 57.7%에 이르고있고 《수출산업》에 종사하고있는 취업자수가 전체 산업취업인구의 64%를 차지하고있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바로 이러한 남조선괴뢰도당의 반동적정책과 남조선의 파국적인 경제위기를 리용하여 남조선의 《수출자유지역》과 《공업단지》들에 저들의 자본과 기업체들을 대대적으로 침투시키고있다.

1983년만하여도 마산과 리리에 있는 《수출자유지역》의 기업체총수에서 일본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6%에 달하고있는 사실은 그 전형적인 실례로 된다.

일본독점자본은 남조선의 《수출산업》가운데서도 섬유, 전기, 화학 금속부문 등에 집중적으로 침투함으로써 값눅은 로동력을 대량적으로 고용하여 식민지초과리윤을 짜내고있다. 19[illegible]년 한해에만 하여도 일본기업체에 고용된 남조선로동자의 수는 11만 [illegible]여명이나 되였고 일본기업체들이 그들로부터 짜낸 순리익금은 2억딸라이상이나 되였다.

남조선에 침투한 일본기업체들은 저들이 고용한 남조선로동자들을 남조선기업체들보다 1주에 12시간 더 일을 시키면서도 일본본토의 로동자에 비하여 6～7분의 1에 불과한 극히 낮은 로임을 지불할수 있으며 저들의 기업체안에서 로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로동쟁의를 벌리는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남조선괴뢰도당이 보장해주는 온갖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식민지초과리윤을 획득하고있다.

남조선에 침투한 일본기업체들은 또한 원료와 자재들을 일본에서 들여다 남조선의 값싼 로동력으로 가공하고 조립한 다음 그것을 수출하여 막대한 리윤을 얻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첫째가는 《수출산업》으로 불리우고있는 섬유공업부문에 침투한 40개의 일본기업체들만 하여도 매해 수억딸라분의 섬유원료를 일본에서 들여다 가공하여 그 전량을 수출함으로써 남조선섬유공업부문을 좌지우지하고있다.

남조선의 《수출산업》에 침투하고있는 일본독점자본은 《보세가공무역》형태를 통하여서도 남조선경제를 일본에 철저히 예속시키고있다.

일반적으로 《보세가공무역》은 자본과 기술뿐아니라 원료와 반제품까지 끌어들여다 값싼 로동력으로 임가공한 다음 그것을 수출하는 무역형태이다. 《보세가공무역》을 위한 수입품과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되고있다. 그런데 매국배족의 무리인 남조선괴뢰들은 외국으

로부터 더 많은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남조선에 침투한 외국기업체들에 관세를 면제해주었을뿐아니라 《보세가공》지역을 설치해주고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며 값싼 로동력을 우선 대주고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이른바 《특전》을 보장해주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의 이러한 범죄적인 정책을 리용하여 일본독점자본은 《보세가공》지역에 대대적으로 침투하고있으며 따라서 남조선에서 《보세가공무역》을 전업으로 삼고있는 일본기업체수는 무려 100여개에 달하고있다.

이러한 일본《보세가공》기업체들은 원자재의 100%를 일본에서 들여옴으로써 원자재에 대한 남조선경제의 대일의존성을 더욱 높이게 하고있을뿐아니라 생산한 제품을 모두다 수출하여 막대한 리득을 얻고있다. 1981년에만 하여도 일본기업체들은 《보세가공무역》을 통하여 무려 4억딸라이상의 리익을 얻었다고 한다.

일본독점자본은 이처럼 남조선경제의 기둥을 이루고있는 《수출무역》부문에 대대적으로 침투하여 남조선경제의 명맥을 틀어쥐려 하고있으며 마산과 리리와 같은 《보세가공》지역들을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적《조계지》로 전변시키고있다. 이것은 바로 남조선에 대한 일본자본의 침투가 얼마나 침략적성격을 띠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말해주고있는것이다.

일본독점자본은 남조선의 군수산업에 대한 침투도 강화하고있다.

군수산업부문에 대한 외세의 침투는 곧 군사부문에 대한 외세의 침투와 지배를 의미한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을 정치, 경제적으로뿐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재침해보려고 날뛰면서 군수산업부문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고있다.

일본을 저들의 침략적인 극동전략에 끌어들여 나토형의 미일남조선3각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집요한 책동과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적《지원》을 바라는 남조선괴뢰도당의 요구에 따라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의 군사잠재력을 강화하는 중화학공업부문과 군수산업에 적극 침투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철도와 도로 건설부문, 강철과 세멘트 공업부문 등 군사적잠재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부문에 침투하여 막대한 리윤을 얻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틀어쥐려고 꾀하고있다. 그것은 일본의 《미쯔비시중공업》, 《후지제철》, 《니홍강관》과 같은 대독점군수기업체들이 포항종합제철소 확장공사를 《극동안보문제 나아가서는 일본의 직접적인 안보문제와 관련》시켜야 한다고 뇌까리면서 무려 20여억딸라의 자금과 기술을 들이밀려고 하고있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이처럼 군사적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문에 침투하고있을뿐아니라 새 전쟁 도발을 위한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생산하고있는 남조선의 군수기업체에도 대대적으로 침투하고있다.

일본의 군수독점체들은 남조선군수기업체들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면서 직접 무기와 군수품들을 생산판매하고있다.

일본의 《니홍전기》회사는 남조선의 《금성전기》와 함께 땅크지뢰와 무선기를 비롯한 각종 통신기구를 생산하고있으며 《미쯔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일부 군수독점체들은 《통일산업》과 엠16소총을, 《마쯔시다신도》는 《풍산금속》과 함께 각종 포탄을 공동으로 생산하고있다.

일본의 군수독점기업체들은 또한 정교한 무기의 중요부분품을 남조선에 들여다 조립하게 하는 형태로써도 남조선군수산업을 예속시키고있다.

1973년부터 1980년까지만 하여도 일본군수독점체들은 약 6,000만딸라분의 대포와 땅크, 방향탐지기 등을 남조선군수업체에 팔아넘겨준것은 그 한 실례로 된다.

이 모든 사실은 일본반동들이 남조선

…에만 하여도 5억 9,000만딸라였던 1983년에는 28억 8,000만딸라로 증대되였으며 이해에 남조선무역액의 70.9%에 해당한 약 270억 대일무역적자를 빚어냈다.

남조선경제는 일본독점자본의 …인 침투로 말미암아 미제와 일본…의 식민지예속경제로 철저히 전…고있다.

…조선출판물까지도 남조선경제란 일…의존하고 예속된 경제이며 《남조선…는 일본자본과 단절된 경제운영이란 …할수조차 없게 되였다.》고 개탄하…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늘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판매시장으로 만들어놓고도 성차지 … 군사적으로 재침해보려고 피눈이 … 날뛰고있다.

일본의 력대총리가운데서 가장 반동…이고 호전적인 나까소네는 지난해 남…선을 행각하였을 때에 남조선괴뢰도…에게 이른바 《원조》의 간판밑에 40억 …라의 군사《차관》을 주기로 하였으며 …난 9월에 친일주구이며 사대매국노인 …두환역도가 일본에 갔을 때에는 남…조선과의 《안정된 우호협력관계가 없이…는 일본의 평화가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남조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것이라고 뇌까리였다.

사실상 이것은 밀뿌리채 뒤흔들리고 있는 전두환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체제를 부지해주는척하면서 남조선을 재침하고 나아가서 아세아대륙을 침략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교활하고 음흉한 속심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지금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과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와 극동의 정세는 날이 갈수록 긴장해지고있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당하고있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며 침략자가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은 력사가 실증해주고있는 진리이다.

일본반동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전두환괴뢰도당을 길잡이로 하여 조선에서 식민지통치의 옛지위를 회복해보려는 망상을 버려야 하며 침략적인 미일남조선3각군사동맹을 조작하며 조선반도를 또다시 침략하려는 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음모책동에 끼여들지 말아야 한다.

일본반동들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서나간다면 지난날 일제가 겪은것처럼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다.

리고있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앙골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을 침공케하고 나미비아인민의 해방투쟁을 말살하며 백인소수파통치를 보존하려는 미제의 책동도 다 놈들이 세계도처에서 벌리고있는 현대판 《십자군원정》의 한 고리이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늘에 와서 새로운 침략전쟁확대에 얼마나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력사에 《십자군원정》으로 알려져있는 전쟁은 11세기말부터 13세기말사이에 서구라파의 봉건령주들이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동방회교도들로부터 《해방》한다는 기만적인 종교적구호밑에 동방나라들에 대하여 감행한 침략적인 군사원정이였다.

방대한 토지와 수만금의 재부를 략탈할것을 목적한 카톨릭교회와 서구라파의 봉건령주들, 기사들 그리고 지중해무역을 장악하려는 이딸리아상인들이 붉은 《십자가》휘장을 달고 동방에로의 원정에 적극 나섰다. 이 원정에서 주도적역할을 논것은 카톨릭교회였으며 로마법왕은 이 원정의 발기자이고 조직자였다.

동방나라들을 침략한 원정자들은 처음에 여러개의 회교국가들을 정복략탈하고 한때 《십자군국가》까지 세웠으나 동방인민들의 강력한 반침략투쟁과 그밖의 요인들에 의하여 결국 실패하고말았다.

거의 3백년간이라는 오랜 기간 8차에 걸쳐 진행된 《십자군원정》은 침략목적의 기만성과 악랄성, 목적달성의 집요성과 장기성, 전쟁방법의 잔인성과 야만성으로 하여 력사상 가장 대표적인 침략전쟁들중의 하나로 되였다. 그후 《십자군원정》은 전쟁의 침략적목적을 종교적위선과 정치적리념의 존중이라는 기만적인 구호로 《신성화》하면서 악랄한 방법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을 이르는 하나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제국주의반동계층들은 인민들의 혁명적진출과 반제자주위업의 확대강화를 힘으로 제압할 목적밑에 여러차례에 걸쳐 새로운 《십자군원정》을 조작함으로써 저들의 지배를 유지하며 그 세력권을 세계의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려 하였다.

10월혁명이 승리한 이후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동방피압박민족들의 해방운동의 급격한 장성에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첫 로동계급의 국가인 쏘련을 말살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반공《십자군원정》에 나섰다. 1950년에 미제는 유엔의 기발밑에 15개 추종국가고용병들을 침략적인 조선전쟁에 내몲으로써 또 한차례의 《십자군원정》으로 조선인민을 굴복시키며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침략전쟁의 조직자들은 그때마다 쓰디쓴 참패를 면할수 없었으며 《원정》을 개시하면서 타산하였던 《승리》와 재부에 대한 달콤한 꿈을 그 어느 하나도 실현하지 못하였다. 첫 《십자군원정》의 참가자들이 멀리 바다건너 동방에 가서 재부와 토지 대신에 죽음과 파멸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졌던것처럼 그 이후의 모든 《십자군원정》의 제창자들과 참가자들도 선행자들과 꼭같은 비참한 운명에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력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아직도 이러한 침략전쟁으로 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을 말살하고 허물어져가는 옛처지를 되살리며 나아가서는 세계를 지배해보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들떠있는자들이 있다.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 지난날 《십자군원정》에서 주도적역할을 놀았던 카톨릭교회와 로마법왕을 대신하여 오늘 세계도처에서 현대판 《십자군원정》을 고취하며 그 집행을 직접 맡아나섬으로써 국제헌병의 역을 수행하고있다.

《반공》은 현대판 《십자군원정》의 조작자들이 즐겨 내거는 상투적인 구호이며 이른바 《신성한 정치적리념》과 《자유》

를 지키는 방패로 리용되고있다.

미제가 중근동에서 벌리고있는 침략책동이 1957년초 이른바 중근동에서의 《진공》상태를 메꾸며 《국제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구실밑에 악명높은 《아이젠하워주의》를 들고 감행한 직접적인 무력간섭의 연장이라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59년 1월 꾸바혁명이 승리했을 때도 미제는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서반구민주주의의 리념》을 수호한다는 기만적인 구호밑에 꾸바에 대한 정치경제적압력과 직접적인 군사적간섭을 감행하였으며 꾸바의 혁명적영향이 라틴아메리카에 미치는것을 막기 위하여 중미주에서 반공《십자군원정》을 벌려놓았던것이다. 결국 오늘 미제가 벌리고있는 반니까라과책동을 포함한 모든 정책은 《제2의 꾸바》, 《제3의 꾸바》의 출현을 막기 위한 오래전에 시작된 《십자군원정》의 계속인것이다.

미제는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해방운동을 다 적대시하면서 그것을 공산주의와 련결시키고 가장 비렬한 《반공》소동을 일으켜 야수적으로 탄압함으로써 공산주의리념의 승리를 막으며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막아보려 하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반공》광증은 《공산주의를 력사의 재더미》로 만들겠다고 내놓고 떠들어대는 현 미국집권자들의 호전적인 망발에서 가장 로골적으로 나타나고있다.

극악한 전쟁광신자인 레간은 그의 선임자들보다 몇배나 더 호전적인 정책으로 세계를 위협공갈하면서 이 모든것을 《평화》를 위하고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것인듯이 가장하고있다. 이것은 마치도 첫 《십자군원정》의 조작자들이 내걸었던 《성지해방》이라는 기만적인 종교적구호와 신통히도 같은것이다.

미제가 감행하고있는 현대판 《십자군원정》은 《반공》광증의 악랄성과 함께 파렴치성으로 하여 특징적이다.

중세의 침략적인 원정자들은 종교적리념의 면사포로 저들의 침략목적을 가리우며 원정의 정치적, 종교적, 력사적 《타당성》을 합리화하려고 애썼지만 미제는 이러한 구차스러운 변명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도의 본성그대로 매우 로골적으로 파렴치하게 행동하고있다.

그레네이더에 대한 침공이 《미국의 대외정책과 일치》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침공을 하나의 《행동규범》으로, 《도덕》으로 삼을것이라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떠벌임은 현대판 《십자군원정》의 파렴치성을 말해주고있다.

이것은 오늘의 《십자군원정》이 지난날과 같이 단순히 토지와 재부의 략탈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세계전체를 저들의 손아귀에 넣으며 인류의 전진운동을 힘으로 되돌려세우고 력사의 흐름을 막으려는 극히 반동적인 책동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서로 다른 력사적시대에, 서로 다른 계급과 계층에 의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감행되고있는 이러한 《십자군원정》들은 물론 일정한 공통성과 함께 차이점을 가지고있다. 중요한것은 오늘 미제가 벌리고있는 침략전쟁도 지난 시기의 《십자군원정》과 마찬가지로 수치스러운 패배의 운명을 지니고있다는 력사적공통성이다.

세계의 정치지도를 힘으로 변경시켜보려고 하는 침략적인 세계전략과 그 실현의 군사적수단으로 되고있는 《십자군원정》에서 미제가 결코 승리자가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오늘 세계는 첫 《십자군원정》의 조작자들이 종교적광신과 기사적열광을 교묘하게 리용하였던 중세암흑시대가 아니며 인민들이 자기자신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온갖 억압과 착취와 불평등을 반대하여 싸우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정치적위선과 경제적유혹, 군사적압력으로서도 인민들을 더는 침략적인 전쟁에 끌어넣을수 없으며 자주와 해방을 위

한 그들의 투쟁을 말살할수 없는것이다.

미제가 벌리고있는 현대판 《십자군원정》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고있으며 지어 많은 서방나라들로부터도 비격을 받고있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미제의 모험적인 중동정책과 중미주에서의 간섭책동, 서구라파에 대한 중거리탄도미싸일배치가 세계를 새로운 대전의 소용돌이속에 휘몰아넣을수 있다는데 대하여 우려하면서 자기 나라가 미제의 위험한 전쟁도박에 말려들지 말것을 경고하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침략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미국안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미제에 의한 현대판 《십자군원정》의 확대는 미제야말로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라는것, 다시말하여 미제는 《평화의 사도》인것이 아니라 전쟁의 불구름과 재난을 몰아오는 장본인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이것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미제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버리고 철저한 반제반미적립장을 견지하며 놈들의 침략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에만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도로 찾고 전쟁의 위험을 가시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세계도처에서 벌리고있는 미제의 반공침략정책을 견결히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 그리고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면 미제의 현대판 《십자군원정》과 세계제패야망은 분쇄되고 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은 반드시 승리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84년 제12호(루계 512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4년 12월 1일 발 행• 1984년 12월 3일

ㄱ—45316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50전

1984년도 《근로자》 차례묶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편집국론설

혁명전통 및 당건설 론설

정치사상론설

경제건설론설

남조선 및 국제 론설

형제당들에서